

201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포커스 | 정책동향 | 산업동향 | 신규보고서

Global Healthcare
Industry at a Glance

201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포커스 | 정책동향 | 산업동향 | 신규보고서

Global Healthcare
Industry at a Glance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담당자 : 고가영 연구원 / Tel. 043-713-8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 제1부 포커스 / 1

1. 제약 / 바이오 / 3

- 최근 일본 제약산업의 현황 및 과제 5
- 중국 의약품 시장 성장 배경과 진출 전략 9
- 성공적 제약업체 가치 창출 전략의 특징 13

2. 의료기기 / 정보화 / 17

- 미국의 의료 IT 및 관련 분야 동향 19
- 일본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동향 23
- 일본 도호쿠 지역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과제 27
- 일본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조건 31
- EU의 eHealth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5
- 국제 의료기기 단일 검사 시범 프로그램 39
- 급성장하는 홈 헬스케어와 건강 데이터 활용 43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 47
- 디지털 헬스테크의 주요 이슈와 혁신 51
-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대의 도래 55

3. 화장품 / 59

-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이해 61
- 글로벌 뷰티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 65

C O N T E N T S

4. 의료서비스 / 69

● 미국 의료보험제도 분석	71
●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75
● 오바마케어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9
● 미국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모델과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	83
● 영국 국민건강보험 개혁 진행 과정과 시사점	87
● 일본 의료 서비스 체제 재편 방향	91
● 일본 정부의 난치병 대책 및 입법화 현황	95
● 초고령 사회 일본의 간병서비스 정책 배경과 현황	99
● 일본 의료·요양서비스 생산성 개혁을 위한 과제 및 제언	103
● 일본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현황 및 정책 과제	107
● 중국을 통해 본 의료관광객 일본의 이미지	111
●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115
● 중국의 의료현황 및 일본 의료관광과의 연계	119
● 유럽의 새로운 1차의료 서비스 모델	123
● 핀란드의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 정책 모델	127
● 독일 의료제도의 특징 및 의료보험 현황	131
● 필리핀 의료관광 현황과 경쟁력	135
● 인도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과 혁신	139
● 터키의 의료관광 산업 진흥 현황	143
● 싱가포르의 의료제도 및 의료관광 산업 현황	147
● 아시아의 고령화 진행 및 요양 서비스 시장 현황	151
●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	155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제도	159
● 'SCM',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	163

C O N T E N T S

● 헬스케어 'Triple Aim' 달성을 위한 효율적 혁신 전략	167
● 2014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서베이	171
● 의료지출 규모의 역설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	175
●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트렌드와 특징	179

5. 보건산업 기타 / 183

● 최근 영국 헬스·뷰티 산업의 트렌드와 시사점	185
● 일본의 출생률 회복과 재정·경제의 상관관계	189
●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개 및 향후 과제	193
● 중국 한자녀 정책 규제 완화 효과 분석	197
● 국가전략으로서의 '웰빙' 정책	201
● APEC 의료기기·제약 중소기업 윤리강령 진행 상황	205
●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트렌드	209

CONTENTS

■ 제2부 정책 동향 / 213

1. 제약 / 바이오 / 215

1.1 미국	217
● 미국 정부, 장기 이식 범주 확대 ... 손·안면 포함	217
● 미국 LICR, 6개 기관에 암연구기금 5억4천만불 기부	217
● NIH, 독감 바이러스 생체감염 실험 프로젝트 추진	218
● NIH, 글로벌 신약개발 'AMP' 프로젝트 시행	218
● 미국 국방부, 기억 재생 두뇌 이식 프로젝트 추진	219
● FDA, 제네릭·OTC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220
● 퍼블릭시티즌, 테스토스테론 제제 위험성 경고문 부착 압력	220
● FDA, 의약품 신속 수입 프로그램 'SSCP' 가동	221
● 미국 정치권, FDA에 '조하이드로' 승인 취소 압력	221
●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창출	222
● 미국 연방법원, 다케다·릴리에 90억불 벌금 ... '엑토스' 위험 은폐	222
●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논란 ... '스타틴' 과다 복용 우려	223
● FDA, 중국 제약업체 원료의약품 품질 관리감독 강화	223
● 미국 24개주 검찰청장, 구글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책 압박	224
● 콜로라도주, 말기환자에 임상시험약 허용 논란	224
● FDA·인터폴, 불법 사이버약국 대대적 단속	225
● NIH, 알츠하이머 예방약 '솔라네주맵' 임상시험 지원	225
● 오하이오, 약사에 유행성 이하선염 등 백신 접종권 부여	226
● FDA, 테스토스테론 정맥혈전 위험 경고 강화	226
● 캘리포니아 검찰청, 페덱스 기소 ... 처방용 의약품 불법배송 혐의	227
● 미국소아과학회, '팔리비주맵' 예방투여 지침 개정	228

C O N T E N T S

● 미국 정부, 일본산 에볼라 치료제 허가 방침	228
● FDA 신속 의약품 승인에 안정성 우려 제기	229
● 미국 법무부, AZ 항응고제 '브릴린타' 조사 종결	229
● 마약단속국,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등급 3급 → 2급 조정	230
● 연방거래위, 에브비 제소 ... 안드로겔 제네릭 접근 차단 혐의	230
● FDA, 테스토스테론 약물 처방 규제 전망	231
● 미국 법무부, 샤이어로부터 5천650만불 과징금 징수	231
● FDA, '식품의약품법' 위반 에볼라 광고 단속	232
● FDA, 화이자 '채틱스' 경고 강화 문구 부착 의무화	233
● NIH·국방부, 에볼라 백신 'VSV-ZEBOV' 임상시험 착수	233
● 미국 보건부·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보고 요건 강화	234
● 매사추세츠법원, '넥시움' 역지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34
● FDA, '지오돈' 사용주의 촉구 ... DRESS 경고문 부착	235

1.2 영국

● 영국, 치매 연구 강화 ... '25년까지 1억3천만 파운드 투자'	236
● 영국 보건부, 성형보충제 규제 강화 ... 시술전 보험가입 의무화	236
● 영국 보건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방침 ... 미토콘드리아 질환 유전 예방	237
● 영국 정부, 타미플루 비축으로 5억6천만 파운드 예산 낭비	238
● 영국 보건부, 백세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약물 선정 방침'	238
● 영국 특별수사국, CSK 영업활동 위법성 수사 착수	239
● 영국 정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전망	239
● 영국 정부, 세계 최대 규모 치매 연구 시행	240
● 영국 경도상위원회, "항생제 내성 해결에 1천만 파운드 상금"	241
● 캐머런 총리, 항생제 내성 대처 위한 국제공조 촉구	241
● NICE,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42

C O N T E N T S

- NHS, 암·희귀질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시행 242
- 웰컴 트러스트, GSK 에볼라 백신 인체시험 추진 243
-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극복 위한 국제공조 촉구 244

1.3 일본 245

- 일본 특허청, 사용 유전자 제한 없는 iPS세포 제작 권리 인정 245
- 후생성, 제네릭가 신약의 60% 수준 설정 245
- 일본 경산성, 혈액·타액 이용 암 조기발견 연구기관 지원 246
- 일본 정부, 자가검사약 대상 품목 확대 방침 246
- 일본 산학, 바이오의약품 국산화 협력 ... 정부도 45억엔 지원 247
- 일본 정부, 치매·우울증 화상진단 기술 개발 장려 248
- 일본 후생성, 국내 최초 승인 신약에 약가가산 제도 도입 248
- 일본 후생성, 임상시험 제3자 감사 의무화 249
- 일본 정부, 약용 작물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249
- 일본, 알츠하이머‘J-ADNI’프로젝트 논문 부정 파문 250
- 일본, 만능세포 제작 논문 조작 파문 250
- 일본제약공업협회, 제약업체 임상연구 기부금 금지 251
- 후생성·문과성, 임상연구 제 3자 감사 의무화 251
- 후생성, 메르스 지정감염증 고시 252
- 후생성, 노바티스 약사법 위반 조사 착수 252
- 후생성, 신약 심사기간 단축 시스템 도입 253
- 일본 NEDO, iPS 세포로 신약 부작용 평가시스템 구축 253
- 일본 농수산성, 생약제제 국산화 방안 추진 254
- 후생성, 노바티스에 부작용 보고 위반 행정처분 255
- 일본,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수정 논란 255
- 일본 정부, 시험단계 에볼라 치료제 기증 의사 표명 256

C O N T E N T S

● 일본, 아시아·아프리카 연구기관과 감염증 치료제 개발 추진	256
● 일본, 신약개발 지원 강화 ... 국제 경쟁력 높여 수출 촉진	257
● 후생성, 임상연구 규제 대상에서 제약업체 제외	257
● 후생성, 의료용 검사약 시판 대상 확대	258
1.4 중국	259
● 대만, H7N9형 AI 백신 6월부터 양산	259
● 중국, 자체 개발 H7N9형 AI 백신 5월 출시	259
● 중국 정부, 저가 기본약 '소매가격 제한' 철폐 추진	260
● 중국 정부, 저가 의약품 가격 상한제 폐지	260
● 중국 공안, GSK 본부장 등 뇌물제공 혐의 기소	261
● 중국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검사실험실 설립	262
● 중국 법원, GSK에 4억9천만불 과징금 부과 ... 뇌물 공여 혐의	262
● 중국 최고인민법원, 위조약 사범 처벌 대폭 강화	263
● 중국 정부, 약가 제한 정책 철폐 추진	263
1.5 EU	264
● EU집행위, 복제동물 식용·수입 금지 검토	264
● 독일 정부, 의약품가격설정동결 제도 연장	264
● 이탈리아 검찰, 로슈·노바티스 경영진 조사 ... 사기·시장조작 혐의 포착	265
● 프랑스 정부, 바이오시밀러 대체 조제 허용 방침	265
● 유럽의회, 임상시험 투명성 강화 법안 채택	266
● 유럽의약품청, 테스토스테론 약물 안전성 검토 착수	266
● 이탈리아 정부, 의약품 범죄 조직 대책 마련 착수	267
● 이탈리아 보건부, 로슈·노바티스에 12억 유로 손해배상 청구	268
● EU, 줄기세포 연구 계속 지원 ... 종교계·시민단체 반발	268

CONTENTS

● 유럽투자은행, UCB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7천5백만 유로 지원	269
● 프랑스 하원, 예산법 개정안 승인 ...‘아바스틴’사용 장려	269
● EU 집행위, ‘역지급 합의’업체들에 4억2천700만 유로 벌금	270
● 유럽제약산업연맹, 프랑스 ‘오프-라벨’ 확대 정책 반대	270
● 유럽의약품청, ‘인터페론베타’ 부작용 경고문구 강화	271
● 유럽의약품청,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 의무화	271
● EMA,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적극 활용 권고	272
● 독일 정부, 인도 랜박시 의약품 수입금지	272
● 이탈리아, 노바티스 ‘플루아드’ 투여금지 해제	273
1.6 아시아	274
● 인도, 제약업체 외국인직접투자 출자 상한 100% 유지	274
● 인도, 총체적 의약품 품질관리 대책 시급	274
● 인도 정부, 의약품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275
● 인도 정부, ‘요가 아유르베다 전통의약부’ 신설	276
1.7 글로벌	277
● 영국 주도 ‘국제 iPS 세포은행’ 설립 추진	277
● 미·EU, 의약품 부작용 감시 협력체제 강화	277
● 글로벌 제약업체, 신약후보물질 ‘가상 도서관’ 구축 합의	278
● 국제사회, 길리어드에 ‘소발디’ 약가 인하 압박	278
● WHO, 에볼라 백신 내년 상반기 양산 추진	279
● WHO, 마약 길항제 ‘날록손’ 접근 완화 정책 권고	280
● 인터폴, 불법 의약품 단속 국제공조 강화 촉구	280
● 브릭스, 결핵·AIDS 퇴치 공동 대처 ...‘90/90/90’ 구상 합의	281

C O N T E N T S

1.8 중남미	282
● 브라질 정부, 유전자 조작 모기로 Dengue 퇴치	282
● 볼리비아 대통령, 재집권 시 '코카인 합법화' 공약	282
1.9 캐나다	283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앨버타주에 신종플루 백신 지원	283
● 캐나다 정부, 시험단계 에볼라 백신 WHO에 기증	283
2. 의료기기 / 정보화 / 285	
2.1 미국	287
● NIH, 웹 기반 '뉴로바이오펙' 프로젝트 개시	287
● FDA, 복강경 조직분쇄기 사용 제한 검토	287
● 미국 의료계, 중국 해커집단에 개인정보 대량 유출 파문	288
● 캘리포니아, 의료장비 폐기물 처리 고심	288
● 국토안보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결함 조사 착수	289
● FDA, '복강경 동력 세절기' 사용 부분적 금지	289
2.2 영국	290
● 영 정부, 진료기록 전산화·공개 검토 ... 개인정보 침해 논란	290
2.3 일본	291
● 일본판 NIH 종합전략 원안 공개 ... 혁신 의료기기 5종 실용화	291
● 일 특허청, 재생의료 제품 특허 보호기간 5년 연장	291
● 후생성, 의약품·의료기기 윤리지침안 제정	292
● 일본 참의원, 의료연구개발기법 통과 ... NIH 출범 가시화	292
● 일본 정부, 감염증 정보수집 강화 개정안 확정	293

C O N T E N T S

2.4 중국	294
● 중국 정부, 의료기기 관리감독 강화	294
2.5 러시아	295
● 러시아 산업부, 수입 의료기기 사용 금지 검토	295
2.6 중남미	296
● 베네수엘라, 의료기기 부족 ... '가슴성형'타격	296
3. 화장품 / 297	
3.1 미국	299
● FDA, 항균 비누·보디워시 규제 강화	299
● CFI·보디숍, 미 정부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청원	299
● 미국 의회,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발의	300
● 미국 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발의	301
● 미네소타, '17년부터 화장품 성분'트리클로산' 퇴출	301
● 일리노이, 화장품 함유 물질'마이크로비드' 퇴출	302
● 미국 상원,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통과	302
● 오바마,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 최종 서명	303
3.2 영국	304
● 영국토양협회, EU에 화장품 방부제 퇴출 요구	304
3.3 일본	305
● 일본 정부, 면세 규정 완화 ... 화장품 시장에 수혜	305

C O N T E N T S

3.4 중국	306
● 중국 재정부, 일반 화장품 30% 소비세 폐지 검토	306
● 대만 정부, 내년 1월부터 콜타르 화장품 사용 금지	306
3.5 EU	308
● EU집행위,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	308
● 유럽화장품협회, “화장품 알루미늄 성분, 안전성에 문제없어”	308
● EU, 환경친화적 화장품 원료 개발 프로젝트 착수	309
● EU집행위, 화장품용 방부제 규제 강화 ... 허용 농도 0.14%	310
3.6 아시아	311
● 호주 상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311
● 호주 화학물질기구, 화장품 업계에 ‘DMEP’사용 자제 권고	311
● 인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남아시아 국가 최초	312
3.7 중남미	313
● 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남미 최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313
4. 의료서비스 / 315	
4.1 미국	317
● 미 JNC, 60세 이상 고혈압 기준 완화	317
● 오바마케어, 의료일선 혼란 가중 우려	317
● 미 대법원, 오바마케어‘피임 보험 조항’3월말 심리	318
● 미 마취과의사학회, 불필요한 5대 처방/시술 공개	318
● 오바마케어 가입자 3백만명 ... 정부 기대 ‘미흡’	319

C O N T E N T S

● 일리노이주, 온라인 풍자매체 활용 오바마케어 가입 유도	319
● 오바마케어 가입자 500만명 돌파	320
● AAP, 소아청소년과에서 불필요한 검사 발표	320
● 미국 정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연장 ... 정치 쟁점으로 비화	321
● 오바마케어 가입자 800만 돌파 ... 정부 목표 초과 달성	321
● ASCO,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322
● AHA, 태아 심질환 치료 가이드라인 발표	323
● 캘리포니아 상원, 불법체류자에도 건강보험 혜택 부여	323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메르스’ 대책 마련 비상	324
● ACS, 고령자 치료 필수 고려사항 발표	325
● 오바마케어 가입자 200만명, 보험 혜택 제한 우려	325
● 미국, 보훈병원 비리 파문 확산 ... 신세기 장관 사임	326
● 미국 ASA, 마취과에서 불필요한 검사·처치 발표	327
● 캘리포니아,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 설립 추진 논란	327
● 미국 의료계, 내분비내과 전문의 육성책 시급	328
● 미국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적용에 제동	328
● 미국 의료계, 진료지역 확대 구상 검토	329
● 9·11 테러 구조인력 암 치료 지원책 시급	329
● 오바마케어, 정신질환에도 보험 혜택 ... 치료기관 증설 선행돼야	330
● FDA, 실험실 개발 진단검사 규제 단행	330
● 미국내과학회,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 지침 발표	331
● 오바마케어 보조금 혼란 ... 동일 지급 절차에 법원 판결 상반	332
● 오바마, 에볼라 퇴치에 군병력 파병 ... 석유 확보 포석도 내포	332
● NIH,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4천600만불 지원	333
● 미국소아과협회, “10대 임신 방지 위한 호르몬 피임법 필요”	333
● CDC, 에볼라 치료지침 전면 재검토 착수	334

CONTENTS

● 미국 의회, 에볼라 퇴치 7억5천만불 국방예산 전용 승인	334
● 미국, 에볼라 의료분쟁 가능성 ... 사회문제로 비화	335
● 메인주 법원, 에볼라 간호사 '자택 격리' 조치 위법 판결	335
● 공화당, 오바마케어 이행 남용 이유로 행정부 제소	336
● 미국, 수면장애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336
● 미국, 에볼라 공포 진정 국면 ... 에볼라 차르 현업 복귀 확정	337
● 소비자금융보호국, "의료 청구서 간소화 작업 시급"	337
4.2 영국	338
● 영국 보건부, 외국인 이주민 의료서비스 부분 유료화제 도입	338
● 영국 시장경쟁위, 민간 의료시장 1·2위 업체에 병원 매각 명령	338
● 영국 NHS, 유럽 심근경색 치료 프로젝트 주도 ... EU, 5백만 파운드 지원	339
● 영국 종교계, 정부 보건복지 삭감 정책 비판	339
● 영국, 보건복지 등 이주민 경제효과 놓고 의견 분분	340
● 영국 보건부, 알코올 중독자 간이식 시범사업 추진	341
● 영국 보건부, 가정·조산원 분만 권장	341
● 영국 정부, 노인복지 인력 충원 정책 시급	342
● 영국 NICE, 심방세동 가이드라인 개정	342
● 영국 의료기관, '인간 광우병' 감염 부실대응 논란	343
● 영국 정부, 시에라리온 에볼라 치료시설 건립 지원	343
● 영국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구호병력 급파	344
● 영국 공공보건국, '뇌 나이' 검사 정책 논란	344
● 영국 의약품청, 개인 상대 게놈 검사 서비스 허용	345
4.3 일본	346
● 일본 후생성, 'J-ADNI' 프로젝트 데이터 조작 조사 착수	346
● 일본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부족 개선 방안 검토	346

C O N T E N T S

● 일본, 당뇨병 예방·치료 프로젝트‘AAA’진행	347
● 후생성, 진료보수 개편으로 재택의료 활성화	348
● 고베시, iPS세포 망막재생 치료센터 설립	348
● 일본 후생성, ‘15년부터 병원 진료명세서 무료 발행 의무화	349
● 일본, 자궁이식 임상응용 지침안 공개	349
● 일본, 고혈압 치료지침 개정	350
● 일본 의료계, 건강‘정상’판단 기준 완화	350
● 후생성, 국민연금 지급 개시 75세 연장 검토	351
● 일본 정부, 혼합진료 규제 완화 ... 심사 평가기관 설립	352
● 후생성, 약사 통한 주민 건강관리 시범사업 착수	352
● 후생성, “암환자도 일과 치료를 병행해야”	353
● 자민당, 대리출산 조건부 허용 법안 제정	353
● 후생성, 소아 난치병 지원 대상 질환 107개 추가	354
● 일본 정부, 1회 채혈 13 종류 암 진단 프로젝트 착수	354
● 일본, 70여 년 만에 Dengue 발병 비상	355
● 후생성, 환자 병동 재분류 제도 시행	355
● 후생성, 고령자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추진	356
● 일본, 공공노인 홈‘입소’ 지원 방안 마련 시급	357
● 일본 정부, 치매노인 대책 마련 시급 ... 매년 1만명 실종	357
● 일본, 인구감소 지속 시 사회보장비로 가계소득 과반 지출	358
● 아베 총리, “치매환자 지원 국가전략 수립 추진”	359
●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허용 ... 윤리적 논란 확산	359
● 후생성, 국가 암대책 검증 작업 시행	360
● 후생성,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대책 매뉴얼 제정	361

CONTENTS

4.4 중국	362
● 베이징,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 조성 이어 100% 외자병원 허용	362
● 중국, AI 정보공개 논란 … 가금업체, 매출 감소 가속화 우려	362
● 중국 국무원, 도시·농촌 양로보험 통합 운영	363
● 중국 국무원, 중증 질환자 건강보험 적용 지시	363
● 중국 생육위, 입원 환자 손지 관행 금지	364
● 중국, 유기 영아보호소 대폭 확대 … 각 성에 2곳 이상 설치	365
● 중국, 결핵 유병률 급감 … WHO‘DOTS’프로그램 효과	365
● 광저우, 유기 영아보호소 폐쇄 파문 … 정부 정책 위배	366
● 중국, 민간병원 의료서비스 가격 자유화	366
● 중국 국무원, 외국인 병원 투자 규제 완화	367
● 중국 정부, ‘역모기지’ 양로보험 시범 실시	367
● 중국 적십자, ‘혈액매매’ 의혹 확산 … 신뢰붕괴 위기	368
● 광둥성 정부, ‘탱기얼’ 퇴치에 총력	368
● 중국, 신종 H7N9형 AI 대책 비상	369
● 인민해방군, 라이베리아에 에볼라 진료센터 개설	369
● 중국, 외국 자본에 영리 목적 양로기구 운영 허용	370
4.5 EU	371
● 독일 공무원연맹, 연금 수령시기 65세 → 63세 단축 요구	371
● 불가리아, 영국 이주민 사회복지 정책 비판	371
● 스웨덴 말뚝시, 불법체류 아동에도 사회보조금 지급	372
● 유럽 노인, 값싼 해외 요양시설에서 여생 … 비인도적 노인 추방 논란	372
● 그리스 정부, 무상의료 폐지 철회 … 담뱃세 인상으로 대체	373
● 독일, 6백억 유로 소요 연금 확대 개편안 마련	374
● 스위스, 이주민 복지 제한 국민투표 2월 실시	374

C O N T E N T S

● EU 이주민 규제 논란 → 육아수당 문제로 확산	375
● 독일 경제연구소, “EU 이주민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과장”	375
● 스웨덴, 민간 의료보험 가입 확산 ... 환자 대기시간 절감 장점	376
● 스위스, EU 이주민 보건복지 혜택 제한 국민투표 가결	376
● 스위스연방통계청, “전체 신생아의 2%는 시험관 아기”	377
● 노르웨이 정부, 의료진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377
● 러시아, 푸틴궁 건설에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자금 유용 의혹	378
● 덴마크 축산 돼지 슈퍼박테리아 파문 ... 스웨덴, 수입중단 검토	378
●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결정	379
● 유럽, 에볼라 방역 대책 마련 비상	379
● 터키, 그리스 의사로 국립병원 의사 충원	380
● 스위스, 의료보험 통합 국민여론 팽팽	380
● 스위스 정부, 의료보험 통합 추진 무산	381
● EU, ‘에볼라 차르’제도 도입 ... 물적·인적 자원 업무 총괄	381
● 네덜란드·영국, 고병원성 AI 발생 비상	382
● EU집행위, 회원국에 에볼라 의사 5천명 파견 요청	382
4.6 아시아	383
● ADB·일본, 몽골에 건보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지원	383
● 말레이시아 보건부, Dengue 비상 ... 에데스 모기 방역 강화	383
● 인도네시아 정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착수	384
● 뉴질랜드 보건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책 마련 총력	384
● 호주 정부, 연금 수령시기 67세 → 70세 연장	385
●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지순례 자제 권고 ... ‘메르스’차단 포석	385
● 호주 정부, 실업수당에 약물검사 연계 논란	386
● 호주, 에볼라 불간섭 방침 철회 ... 국제압력에 의료진 파견 결정	386
● 호치민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 파문	387

CONTENTS

4.7 중동	388
● 카타르, '14년 4월 건강보험제도 2단계 돌입	388
● 사우디 보건부, 헬스케어 시설 7곳 전격 폐쇄	388
● 두바이 정부, 모든 거주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389
● 카타르, 의료분쟁 전문 재판소 설립 추진	390
● 이란, '로하니케어' 추진 ... '18년까지 전체 국민 가입	390
● 카타르, 민관 헬스케어 시설 CCTV 설치 의무화	391
● 두바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보건법 발효	391
● 두바이보건청, 의료관광 적극 육성 ... '20년까지 50만명 유치	392
● 사우디, '메르스' 대책 마련 부심 ... 전문가 자문위 설립	392
● 쿠웨이트 의회, 외국인 방문객 건강보험 의무화 검토	393
● 사우디, '메르스' 전문 의료센터 설립 추진	393
● 사우디 제다시, 의료규정 위반 12개 의료센터 영업 정지	394
● 두바이보건청, 라시드병원 마스터 계획 착수	394
● 카타르, '20년까지 48개 신규 헬스케어 프로젝트 완료	395
● 이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사상 첫 개설	395
● 이란 의회, 영구 피임수술 금지 법안 가결	396
● 두바이 보건부, 신규 의료관광 정책 막바지 조율	397
● 쿠웨이트 보건부, 외국인 관광객 건강검진 의무화 검토	397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적극 육성 ... 100만 환자 유치 기대	398
● 두바이보건청, 건강보험 가입과 체류비자 발급 연계	398
● 두바이, '15년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인상 4.22%로 제한	399
● 사우디 보건부, '메르스' 재발 대책 마련 비상	400
4.8 글로벌	401
● WHO·글로벌 각국, 비만 대책 마련에 부산	401
● WHO, "메르스 비상사태 선포 시기상조"	401

CONTENTS

● WHO, “에볼라 통제에 4억3천만불 필요”	402
● 국제사회, 에볼라 공포 확산 ... 공항 검역 시스템 강화	403
●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의료인력 확충에 1억불 추가 지원	403
● 에볼라 발병국에 대한 비자 중단 확산 ... WHO, 재고 촉구	404
● WHO, “고령화 추세 부합하는 의료체계 개혁 필요”	404
● 세계은행, ‘전염병 퇴치기금’ 창설 제안	405
● 유엔, 말리에 에볼라 비상대응단 파견	405
● WHO,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완화 권고	406
4.9 중남미	407
● 브라질 근무 쿠바 의사, ‘모어 닥터스’ 프로그램 이탈 확산	407
● 쿠바 정부, 의료진 급여 100% 이상 파격 인상	407
● 쿠바, 의료외교로 국제관계 개선 희망	408
● 브라질 정부, ‘치쿤구니아’ 경계령 선포	409
● 쿠바, 미국에 에볼라 퇴치 협력 제안 ... 외교관계 개선 포석	409
4.10 캐나다	410
● 캐나다 주정부, 전체 성인 대상 HIV 무상 검사	410
4.11 아프리카	411
● 라이베리아, 일본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 요청	411
● 나이지리아, 에볼라 발병 종료 ... GPS 추적·대면조사 등 효과	411

C O N T E N T S

5. 보건산업 기타 / 413

5.1 미국	415
● LA, 길거리 노숙자 급식 금지 놓고 시끌	415
● 콜로라도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개시 ... 연 매출 6억불 전망	415
● 시카고, 전자담배 규제 강화 ... 일반담배와 동일 취급	416
●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부작용 현실화 ... 미성년자에 무방비 노출	417
● FDA, 청소년 금연 광고 대대적 실시 ... 1억1천5백만불 투입	417
● 미국 연방정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업자 은행거래 허용	418
● 캘리포니아, 청량음료에 건강 경고문구 의무화 법안 추진	418
● 미국 의사, 개업보다 월급제 의사 선호 ... 과잉 진료비 청구 완화 가능성	419
● 미국 유아 비만을 급감 ... 모유 수유 장려 정책 효과 가능성	419
● 콜로라도, 오락용 마리화나 세수 대박	420
● LA,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1백여 곳 폐쇄	420
●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규제 확산 ... 롱비치시, 함정단속 명문화	421
● 미국 28개 주 법무부, 편의점·약국체인 담배판매 중단 촉구	421
● 텍사스주, 낙태금지 법안 파문	422
● 버웰 미국 보건부 장관 지명자 인준 난항 전망	422
● FDA, 전자담배 포함 신종담배 규제 검토	423
● 일리노이 고법, 필립모리스에 101억불 배상 판결	423
● 캘리포니아, 탄산·가당음료 경고문구 부착 법안 무산	424
● 미국, 국가 차원의 65세 이상 고령화 대책 시급	424
● FDA, 섀림프 위험등급 상향조정 지시	425
● 루이지애나, 8월부터 미성년자 실내 선텐 금지	425
● 버웰 미국 보건장관 취임	426
●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승인	426

C O N T E N T S

● FDA, 소금 함량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427
● 뉴욕 주정부, AIDS 관련법 예방 위주로 개정	427
● 오바마, 탄소배출 규제에 천식환자 연 10만명 ↓ 기대	428
● 미국 정부, 보건기관 관리감독 허술	428
● 뉴욕주 대법원, 탄산음료 판매금지 위법 판결	429
● 미국 정부, 세금 회피 목적 M&A 금지 법안 추진	429
● 미국 법원, 담배업체 레이놀즈에 236억불 배상 판결	430
● 미국 NCAA, 선수 뇌보호 기금 7천5백만불 조성	430
● 델라웨어, 미성년자 태닝베드 사용 금지	431
● 미국 보건부, “실내 선탠도 피부암 유발” 경고	431
● 미국 29개주 법무부, FDA에 전자담배 규제 강화 압박	432
● FDA 규제완화로 안전성 미확인 식품첨가물 급증	432
● 미국 혈액은행, 수혈 감소로 구조조정 불가피	433
● 탄산세 부과, 청소년 비만 예방에 최고 효과	433
● 워싱턴DC, 11월 중간선거 때 마리화나 찬반투표 시행	434
● 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 법안에 제동	434
● 워싱턴DC,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 법안 통과	435
● 미국 사회, 존엄사 찬반 논란 가열	435
● 미국 지자체 첫 ‘담배판매금지법’ 무산	436
● 뉴욕시, 마리화나 소지자 처벌 대폭 완화	436
● 버클리시, 비만 억제 위해 ‘소다세’ 도입	437
● FDA, 비만 예방 위해 식당 등 칼로리 표시 의무화	438
● 워싱턴DC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제동’	438
● 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낙태규제 법안 위법 판결	439
● 네브라스카주 등, 마리화나 합법화 콜로라도주 제소	439

C O N T E N T S

5.2 영국	440
● 스코틀랜드, 영 연방 분리독립시 복지개혁 단행	440
● 영국 정부, 비만 비하 발언 추방 캠페인 시행	440
● 영국 보건부, 국립보형물등록소 설립 검토	441
● 영국 정부, 여성 할례 불법시술 단속 강화	442
● 영국 NHS, 전자담배 금연보조 의약품 인정 가능성	442
● 영국 하원, '15년부터 어린이 동승 차량 흡연 금지'	443
● 영국, 조력자살 허용 법안 통과 '유력'	443
● 영국 보건부, 담뱃갑 상표·이미지 금지 정책 추진	444
● 영국, 고도비만 사망자 전용 요역 조성	444
● 영국, 수돗물에서 코카인 성분 검출 파문	445
● 영국 통계청, "성매매와 마약, 경제에 1백억 파운드 기여('09년)"	445
● 영국의학협회, '2000년 이후 출생자 담배 구매 금지' 논란	446
● 영국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불허 ... 인권 침해 소지는 인정	446
● 영국 정부, 여성 할례 방지책 마련 부심	447
● 런던시, 음주 난동 주폭에 전자발찌 착용	447
● 영국 하원, 주류에도 위해성 경고 문구 부착 추진	448
● 영국 NHS 의료노조, 32년 만에 임금인상 파업	448
● 영국 정부, 비만대책으로 주류제품 열량 표시 의무화 검토	449
● 영국 보건부, '식품안전위생법' 강화 추진	449
● 영국 정부, 음주사범 전자발찌 감시제 확대 검토	450
● 영국 항소법원, 임신 중 음주행위 처벌 불가 판결	450
5.3 일본	451
● 일본 정부, '여성 1명당 2.07명' 출산 목표 명기 논란	451
● 일본 정부, 생산연령 64세 → 70세 연장 가능성	451

C O N T E N T S

● 일본 9백개 도시, 고령화로 소멸 가능성	452
● 일본 경제·재정 운용 방침, '50년 후 인구 1억' 명기	453
● 일본소비자청, 식품표기 기준안 마련	453
● 일본, '건강의료 전략' 마련 ... '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1조엔'	454
● 일본최고재판소, "임신·출산 이유 직책 강등은 위법"	455
● 일본 정부, '합계 출산율 1.8' 목표 제시	455
●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조직체계 확정	456
5.4 중국	457
● 중국, 직업병 인정 115종 → 132종 확대 ... 의료인 AIDS 감염 포함	457
● 중국 정부, 임신부 강제 낙태에 제동	457
● 중국 생육위, 공공장소 내 흡연 전면 금지 방침	458
● 중국, 보건 부처 공무원부터 전면 금연	459
● 중국 정부, '두 자녀 정책' 전면 도입 가능성	459
● 중국 보건당국, AIDS 과담과의 전쟁 선포 ... '신뢰성' 회복이 관건	460
● 중국 지방정부, '단독 2자녀' 정책 시행 확산	461
● 베이징, 공공장소 흡연시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1만 위안 벌금	461
● 중국 정부,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시급	462
● 중국 정부, 외국 분유기업 등록제 시행	463
● 중국 정부, 전국적 금연 캠페인 개시	463
● 중국, 산아제한 완화에도 태아 성감별 여전 '골머리'	464
● WHO, 중국에 강력한 흡연 규제 대책 촉구	464
● 중국, HIV/AIDS 재소자'차별 감방'설치 ... 인권침해 비판	465
● 중국 정부, 남녀성비 불균형 대책 마련 시급	465
● 중국 법원, 기업형 장기밀매단 실행 선고	466
● 중국 정부, 불법 장기매매 관리감독 강화	466

C O N T E N T S

● 베이징시, 환자폭력 대책 마련 착수	467
● 중국 정부, 비의료 목적 태아 성감별·낙태 불허	467
● 중국, 사망 부부 ‘인공수정란 재판’ 논란	468
● 중국, ‘한자녀 정책’ 전면 해제 시기 혼선	468
● 중국, ‘산아제한’ 전면 해제 주장 확산	469
● 중국,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법안 검토	470
● 중국 정부, 흡연 대책으로 담뱃세 인상 검토	470
5.5 EU	471
● EU 회원국·유럽의회, 흡연규제 지침 합의	471
● 스페인 정부, ‘낙태금지법’ 강행 추진 ... 야권·여성단체 반발	471
● 헝가리, 담배 규제 정책 효과 ... 담배 소비량 33%↓	472
● 독 연정, 빈곤 이주민 대책 놓고 ‘빠격’	472
● 프랑스 하원, 낙태법 완화 ... 임신 12주 이내 허용	473
●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시술 거부권 부여 파문	474
● 이탈리아 헌재, 마리화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동	474
● 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 확정 ... 종교계 반발	475
● 유럽의회 고강도 흡연 규제 법안 확정	475
● 체코 대법원, 마리화나 등 마약류 처벌 강화	476
● 독일 정치권,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	476
● 이탈리아 베로나시, 노숙자에 음식 제공시 벌금 부과	477
● 덴마크 정치권, 남성 동성애자 헌혈 허용 추진	477
● EU,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폐지 추진	478
● 스페인, GDP 산출시 성매매·마약 거래 포함	478
● 터키 정부, 흡연규제 강화 ... 담뱃갑 포장 ‘검은색’으로 변경	479
● 스페인 정부, 마리화나 클럽 규제안 적극 검토	479

C O N T E N T S

● 터키 정부, 이슬람 관행 ‘조혼’ 해결책 마련에 부심	480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 논란 확산	480
● 스위스 정부, 외국인 ‘조력자살 여행자’ 급증 고민	481
● 프랑스 정부, 담뱃갑 포장 규제 … 전자담배 흡연도 제한	481
● 스페인 정부, ‘낙태금지법’ 개정안 제정 철회	482
● 벨기에 병원, 노인부부 동반안락사 허용 파문	482
● 영국·스웨덴, 공공장소 흡연 규제 확대 추진	483
● 이탈리아, 신생아 보너스 월 80 유로 3년간 지급	483
●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귀환 미군 주둔에 강력 반발	484
● 독일 연방행정법원, 전자담배 액상 비의약품 판결	484
●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추진	485
● 유럽사법재판소, 비만 이유 직장 내 차별에 ‘제동’	485
5.6 아시아	486
● 인도네시아, 담배 포장·광고 규제 강화 … ‘라이트’등 용어 사용 금지	486
● 뉴질랜드 정부, 금연 임신부에 상품권 지급	486
● 호주, 음주폭행 형법 개정안 마련	487
● 태국 정부, 고령화 급진전으로 경제활력 상실 우려	487
● 인도네시아 정부, 담뱃갑 포장 규제 강화	488
● 말레이시아, 돼지 DNA 성분 초콜릿 혼란 가중	488
● 베트남, 혼인가족법 개정안 통과 … 제한적 대리모 허용	489
● 인도네시아, 담뱃갑 포장 규제법 본격 시행	489
● 호주, ‘단순 담뱃갑 포장법’ 효과 발휘 … 흡연율 2.3%P ↓	490
● 뉴질랜드 국민, 비만세 부과에 찬성	490
● 태국, 일본인 남성 대리출산 파문 … 줄기세포 추출 의혹	491
● 태국 군정,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제정	491
● 베트남, 성매매 합법화 문제로 시끌	492
● 말레이시아, 할랄수사대 출범 … 이슬람 금기 식품 불법유통 단속	492

CONTENTS

5.7 중동	493
● 바레인 고등행정법원, 여성 → 남성 성전환 허용	493
● 두바이 정부, 물담배 ‘시사’ 흡연 규제	493
● 사우디 정부, 공공장소 내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494
● UAE, 모유 수유 의무 법안 추진	495
●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결혼·출산 장려 정책 주문	495
● 사우디 정부, 에너지 음료 광고금지·판매제한	496
● 모로코 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검토 ... 중동·북아프리카 최초	496
● 중동, 외국인 포함 음주 전면 금지 움직임 확산	497
5.8 글로벌	498
● 다국적 담배업체, 개도국 금연정책 의도적 방해	498
● WHO, 일일 당분 섭취량 25g 이하 권고	498
● 미국·독일, 자폐인 채용 확산 ...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 효과	499
● WHO,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검토	500
● WHO, 글로벌 소아마비 비상사태 선포	500
● UN, 국제 정크푸드 규제 협정 제정 제안	501
● 글로벌 식품·유통업체, 영양정보 표시 공통화 합의	501
● WHO, 실내 흡연 금지 등 전자담배 규제강화 촉구	502
● 글로벌 지도자들, 국제사회에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 촉구	502
● WHO, 일일 소금 섭취량 5g 이내 준수 촉구	503
● WHO, 담뱃세 인상 가이드라인 채택	503
● WHO, 에너지음료 규제강화 촉구	504

C O N T E N T S

5.9 중남미	505
●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서명	505
● 우루과이 정부, 마리화나 이어 주류 판매도 직접 관리 검토	505
●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효	506
● 우루과이, 마리화나 생산·판매 면세 혜택 검토	506
● 칠레, 제한적 낙태 합법화 허용 추진	507
● 페루 정부, 90년만에 낙태법 시행령 공포	507
● 멕시코 정부, 비만 식품 TV광고 제한	508
●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시행 내년 초로 연기	508
● 콜롬비아 대통령,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509
● 우루과이, 마리화나 국가 등록 시스템 구축	509
● 칠레, 중남미 최초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착수	510
● 쿠바, 대미 관계 정상화로 시가 수출 합법화	510
5.10 캐나다	511
● 캐나다, 마리화나 사범 처벌 규정 완화 검토 ... 형사처벌 → 벌과금 대체	511
● 캐나다 경찰,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앞두고 비상	511
● 캐나다, 상습 음주운전 표시 특별 번호판 도입	512
● 퀘벡주, 연방정부 반대 불구 존엄사 법안 통과	513
● 캐나다 보건부, 소비자 위주 식품성분 표시제 도입	513
● 캐나다,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판매 신청 쇄도	514

C O N T E N T S

■ 제3부 산업 동향 / 515

1. 제약 / 바이오 / 517

1.1 미국	519
● 미국 CVS·카디널 헬스, 제네릭 전문 구매 합작사 설립	519
● 워싱턴대, DNA에 제2 유전암호 존재 확인	519
● 글래드스톤 연구소, 간질 치료제에 HIV 억제 효과 발견	520
● 듀크대, “단일염기다형성 변이 시 심근경색 위험 ↑”	521
● 스탠포드대, “테스토스테론이 백신 효과 떨어뜨려”	521
● 캘리포니아대, “LDL 콜레스테롤이 알츠하이머 위험 높여”	522
● GE, 생명과학 진출 확대 ... 서모 피셔 세포배양 사업 인수	522
● 텍사스대, “갑상선기능저하, 인지기능 저하와 무관”	523
● 애보트, 뇌물혐의 550만불 벌금 납부 합의	523
● AZ, 프로비오드릭 CDK9 저해제 확보	524
● 포레스트, 애타리스 인수 ... 대장염 치료제 등 제품 다양화	524
● 미 공동연구팀, 치매환자 뇌조직으로 iPS 세포주 제작	525
● 마운트사이나이대, “비타민E에 알츠하이머 지연 효과”	525
● 악타비스, 중국 시장 철수 ... 법 적용 일관성 부재 비판	526
● 스크립스연구소, 혈액검사로 심장마비 예측	526
● 머크, 나노바디 항암제 개발 본격화	527
● 루이빌대, 복부비만 유발 변이유전자 발견	527
● 펜실베이니아대, iPS 세포로 탈모 치료 가능성 제시	528
● 미 연방항소법원, 화이자 ‘리리카’ 특허 인정	528
●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 당뇨 사업 철수	529
● 미시간주립대, “과체중이 대장용종 발생 유발 요인”	529

C O N T E N T S

● 머크, ‘누바링’ 피해자들에 1억불 지급 합의	530
● 임신과 피임약, 여성 뇌졸중 위험 요인	530
● 미국 웨일코넬대, “출산 12주까지 혈전 위험 지속”	531
● 조지아공대, 뇌종양 치료 ‘모노레일 요법’ 개발	531
●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 경쟁 치열	532
● 존스홉킨스대, “‘셀렉사’가 치매환자 흥분 행동 제어”	532
● 예일대, 뇌졸중과 기온·습도 연관성 규명	533
● 펜실베이니아대, “‘토피라메이트’음용 시 과음 억제”	533
● 마운트사이나이대, “조리한 육류, 치매 발병 높여”	534
● 신시내티 공동 연구팀, 종양세포 면역 증진 백신 개발	534
● 일라이릴리, 독일 동물 백신업체 ‘로만 애니멀 헬스’ 인수	535
● 화이자, ‘리피토’ OTC 전환 추진	535
● 미 민관 공동 연구팀, 피부 부착 패치형 독감백신 개발	536
● 하버드대, 당뇨병 위험 낮추는 유전자 변이 발견	536
● 예일대, “혈압약 복용 시 낙상 위험↑”	537
● 미국 노트르담대, 신종 항생물질 ‘옥사다이졸’ 발견	537
● 미국 신경유전학연구소, “인간 후각으로 1조 가지 냄새 식별”	538
● 미국 카이저연구소, “임신성 당뇨가 심장병 위험 높여”	538
● 하버드대, 치매 연관 추정 단백질 발견	539
● 워싱턴대, 정맥질환 치료 위한 미니심장 제작	539
● 캘리포니아대·앨런연구소, 자폐증 유발 과정 규명	540
● 미국 NICHD, “아스피린이 임신 가능성 높여”	540
● 화이자, AZ에 인수 제의 ... 글로벌 공통 제약업체 탄생 가능성	541
● 듀크대, 온전한 형태의 근육 제작 성공	541
● 브라운대, “비아그라가 피부암 발병 위험 높여”	542
● USC 노리스종합암센터, 커피에 간암 예방 효과 발견	542

C O N T E N T S

● 미국예방의료특위, 임신중독증 완화에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권고	543
● 아이오와대, “다이어트 음료, 폐경기 여성 심장에 유해”	543
● LA생의학연구소, 혈중 칼슘수치로 심장병 발병 예측	543
● 웨스너메디컬센터, 척추부상 환자 뇌에 컴퓨터 칩 이식	544
● 뉴욕줄기세포재단, 당뇨병자 복제배아로 배타세포 분화	545
● BMS, 아이피에리언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부문 인수	545
● 보스턴아동병원, 혈액세포로 조혈모세포 제작	546
● 하버드대, “커피가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	546
● BMS, 셀렉스와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제휴	547
● 캘리포니아대, “클로토 단백질이 인지기능 높여”	547
● 스탠포드대, 무정자증 피부세포로 정자 제작	548
● 유타대, 신경줄기세포로 다발성경화증 치료 가능성 제시	548
● 오하이오주립대, “토코트리에놀이 뇌졸중 치료에 효과”	549
● 애보트, 칠레 최대 제네릭 업체 CFR 인수	549
● 일라이릴리, 항암제 ‘알림타’ 특허 소송 패소	550
● 코넬대, 커피에 시력보호 효과 발견	550
● 캘리포니아대, 폐색전증 진단 소변검사법 개발	551
● 스크립스연구소, 인공 DNA로 새로운 생명체 제작	551
●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FTO 유전자 변이가 비만 유발”	552
● BMS, 사이툰엑스·인사이트와 항암 면역치료제 R&D 제휴	552
● J&J, 비브와 HIV 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553
● 머크, 감염증 치료제 업체 아이데닉스 인수	553
● 화이자, 셀렉티스와 ‘CAR-T’ 면역항암제 기술 제휴	554
● 애보트, 베로팜 인수 ... 러시아 사업 강화	554
● 옥실리움, 캐나다 생명공학업체 QLT 합병	555
● 존스홉킨스대, iPS 세포로 미니 망막 제작	555

C O N T E N T S

● 브리검영대, “심혈관 건강, 인지기능에도 영향”	556
● 펜실베이니아대, 알츠하이머 환자 기억 형성 차단 원인 규명	556
● 예일대, “저단위 아스피린 장기 복용 시 궤장암 예방”	557
● 콜롬비아대, 장조직 세포 → 인슐린 세포 전환 실험 성공	557
● 하버드대, “이식용 장기, 체외서 4일까지 보존 가능”	558
● 박스터, 애스알엑스 인수 ... 희귀질환 사업 강화	558
● 매사추세츠안과병원, 줄기세포 이식으로 각막 재생	559
● 메이요클리닉, “안구 검사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559
● 화이자, 이노파마 인수 ... 무균 주사제 포트폴리오 강화	560
● 세다스시나이 연구소, ‘심장박동 치료’ 유전자 주사법 개발	560
● 위스콘신대, 줄기세포로 혈액세포 제작	561
● 텍사스대, 갈색지방에 비만·당뇨 억제 효과 발견	561
● 화이자·23앤드미, 염증성 장질환 공동연구 파트너십 체결	562
● 터프츠대, 쥐 신경세포로 3D 구조 뇌조직 제작	562
● 브리검여성병원, “카페인 다량 섭취하면 이명 위험 ↓”	563
● 미시간대, 장내 미생물 구성 분석으로 대장암 진단	563
● 텍사스대, NSAID에 유방암 재발 ↓ 효과 발견	564
● 브리검여성병원, DNA 메틸화와 알츠하이머 관련성 규명	564
● 구글·애브비, 항노화 치료제 개발 제휴	565
● 캘리포니아대, 1형 당뇨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개시	565
● MIT대, “기억 전환 통해 PTSD 치료 가능”	566
● 길리어드, 인도 7개 업체와 ‘소발다’ 제네릭 판매 제휴	567
● 보스턴대, “고단백 식사가 고혈압 위험 낮춰”	567
● 일리노이대, ‘올레인산’에 심부전 치료 효과 발견	568
● UCLA,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로 여드름 치료”	568
● 대너파버암연구소, ‘BCAA 혈중수치’로 궤장암 초기 진단	569

C O N T E N T S

● BMS ‘옵디보’, 머크 ‘키트루다’와 치열한 경쟁 예상	570
● 워싱턴주립대, “사과가 비만 억제에 도움”	570
● MIT대, 요구르트 한 스푼으로 결장암 검사	571
● BMS, 안센 · 파마사이클릭스와 항암제 개발 제휴	571
● 매사추세츠아동병원, “브로콜리가 자폐증 완화에 도움”	572
● 피츠버그대, 식도에도 줄기세포 존재 확인	573
● 화이자, 밀란에 ‘수텐’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573
● J&J,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전문 ‘엘리오스 바이오파마’ 인수	574
● 신시내티아동병원, iPS 세포로 장 조직 제작	574
● 캘리포니아대, “탄산음료가 DNA 노화 촉진”	575
● 피츠버그대, “대기오염 노출 시 자폐증 위험 ↑”	575
● 메이요클리닉, 내시경 필요없는 새 대장암 검사법 개발	576
● BMS, 갈렉토 바이오텍 인수 옵션 확보	577
● 존스홉킨스대, “임신중 고지방식 섭취, 유전될 가능성”	577
● 페리고, ‘오메가 파르마’ 인수 ... OTC 시장 진출 확대	578
● 잭슨연구소, 성체줄기세포로 폐포 구조 형성	578
● 세븐일레븐, OTC 자체 브랜드 사업 착수	579
● 하버드대, “심장병 환자 항응고제 장기복용해도 안전”	579
● 국립노화연구소, 혈액검사로 10년 후 알츠하이머 발병 예측	580
● 조지워싱턴대, 머리둘레로 자폐증 조기 진단	580
● 머크 앤 컴퍼니, 뉴링크 에볼라 백신 판권 획득	581
● 애브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첫 제약공장 인수	582
● 악타비스, 글로벌 톱 10 제약업체 부상	582
● 사우스플로리다대, 마리화나 성분으로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	583
● 오하이오주립대, “포화지방 증가해도 혈중 지방량 늘지 않아”	583
● USC, 손발톱 재생 기능 줄기세포 존재 확인	584

C O N T E N T S

- 하버드대, 요구르트에 당뇨병 예방 효과 발견 585
-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척수손상 치료 물질 개발 585
- 솔크연구소, “먹는 시간대 제한하면 체중 감소” 586
- 머크, 항생제 업체 ‘큐비스트’ 인수 발표 586
- 바이오마린, ‘프로센사’ 인수 ... 희귀병 치료제 사업 강화 587
- 뉴욕주립대, “우울증은 정신질환 아닌 감염질환” 587
- 스탠포드대, “소교세포 기능 장애 시 알츠하이머 유발” 588
- 화이자, 스파크와 B형 혈우병 치료제 개발 협약 체결 588
- USC, 과당에 식욕 촉진 효과 확인 589
- 하버드대, 비만 치료 알약 개발 착수 589
- 성누가병원, “설탕이 나트륨보다 고혈압에 더 위험” 590

1.2 영국 591

- AZ, BMS와의 공동 당뇨 사업부 완전 인수 591
- 벨파스트킨스대, “암로디핀에 혈관성 치매 치료 효과” 591
- 노팅엄대, 특정 뇌회로 결함시 틱장애 발생 확인 592
- GSK, 마케팅 목적 의사 강연료 지급 전면 중단 593
- GSK, 아스펜에 대한 항응고제 제품 매각 마무리 593
- UCL, “40세 이전 대상포진 겪으면 뇌졸중 위험 높아” 594
- 영국 대학 공동연구팀, “초콜릿·레드와인에 2형 당뇨병 위험↓효과” 594
- 영국 링컨·노팅엄대, “독감백신 접종시 뇌졸중 위험↓” 595
- AZ, 오사카대와 순환기 질환 ‘드럭 리프로파일링’ 실시 595
- 영국 공동 연구팀, 지방줄기세포로 귀 제작 실험 추진 596
- 케임브리지대,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은 무관” 596
- GSK, 중동에서 불법 금품 제공 파문 ... 도덕성에 치명타 597
- 옥스퍼드대, “심장병 치료에는 자가골수줄기세포 이식이 효과” 597

C O N T E N T S

● 임피리얼칼리지런던대, “아세테이트가 뇌의 식욕 신호 차단”	598
● 에든버러대, 흉선 기능 재생 방법 개발	598
● 샤이어, 루메나 인수 ... 유전·소화관 질환 사업 강화	599
● AZ,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협력업체 물색	599
● AZ, 화이자 최종 인수 제안 거부 ... 세계 1위 업체 등장 무산	600
● 사우스햄튼대, 제2의 피부 ‘지능형 라이너’ 개발	600
● GSK, 50여 기존 제품 매각 추진	601
● 히크마파마, 베링거 제네릭 주사제 업체 베드퍼드 인수	601
● 이스트 앵글리아대, 암세포 체외배양 최초 성공	602
● 영국암연구소, “BRCA2 변이유전자 보유시 폐암 발병↑”	602
●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고용량 스타틴 복용시 당뇨 위험 높아”	603
● AZ, 시너젠 천식 약물 권리 취득	603
● GSK, 어댑티문과 중앙 면역치료 전략적 제휴 체결	604
● 노리치·이스트앵글리아대, 슈퍼 박테리아 제거 해법 제시	604
● 킹스칼리지런던, 뇌졸중·심장마비 위험 ↑유전자 규명	605
● 바츠암연구소, 공격적 유방암 연관 물질 ‘ $\alpha\upsilon\beta 6$ ’ 발견	605
● 옥스퍼드대 등,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혈액검사법 개발	606
● 임피리얼칼리지런던, 소변검사로 조산 위험 예측	606
● GSK 뇌물 비리, 중국·시리아 등 전세계로 확산	607
● 에든버러대, “비타민D 섭취 시 대장암 생존율↑”	607
●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클로로퀸’에 간암 억제 효과 발견	608
● AZ, 케임브리지에 기업본부·글로벌 R&D센터 설립	608
● 종합 생활용품업체 레킷벤커저, 제약사업 부문 분사	609
● 브래드포드대, 암 진단 범용 혈액검사법 개발	609
● GSK, 특허만료 의약품 국제입찰 ... 루편·밀란 등 긍정 검토	610
● 퀸메리대, “하루 한 알 아스피린 복용 시 암 위험↓”	610

C O N T E N T S

● AZ, 알미탈 호흡기·흡입기 제품 사업부문 인수	611
● 벨파스트킨즈대, “스타틴 고지혈증 치료제가 대장암에 특효”	611
● 임피리얼칼리지런던 병원, 골수 줄기세포로 뇌경색 치료	612
● 케임브리지대, “염증 면역반응이 우울증 위험 높여”	612
● 에딘버러대, 배아세포로 홍선 제작 성공	613
● AZ, 인도에 IT센터 개소 ... 제약기술 아웃소싱 내부화	614
● 케임브리지대, 줄기세포 완전 원시상태 전환 성공	614
● 브리스톨대, “혈중 칼슘 과다가 암 유발 가능성”	615
● 사우스햄튼대, 줄기세포로 망막 광수용체 세포 분화 성공	615
● AZ, 암조직 분석업체 ‘디피니언스’ 인수 ... 동반기술 경쟁력 강화	616
● 브리스톨대 등, 전립선암 치료 물질 ‘스핑크스’ 개발	616
● 킹스칼리지런던대, “유전자가 체중에 영향 미쳐”	617
● AZ, 2억불 투입 생물약품 공장 확충	617
● 케임브리지대, 채소 속 질산염이 혈전 억제 확인	618
● 알츠하이머병학회 등, 발기부전 치료제로 혈관성 치매 임상시험	618
● 랭커스터대 등, “당뇨병약 ‘리라글루티드’가 치매에 효과”	619

1.3 일본

● 다이닛폰, 항암제 개발 주력 ... 종양임상개발사업부 신설	620
● 다케다, ‘내츄라 알파’ 독점 개발권 취득	620
● 일본 아크레이, 신흥시장 감염증 시약 판매 강화	621
● 오사카대, 안지오텐신-2 표적 고혈압 치료백신 개발	621
● 일본 이화학연구소,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분화되는 세포 제작	622
● 히사미즈제약, 붙이는 파킨슨병 치료물질 임상시험 성공	622
● 일본 구루메대, 돌연사 발병 저해 단백질 발견	623
● 도시바, 헬스케어 사업 강화 ... ‘18년 매출 1조엔 목표	623

C O N T E N T S

● 일본 교토대, iPS 세포 이용 암치료법 개발 추진	624
●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실로스타졸’에 치매 예방 효과”	624
● 올림푸스, 골형성 단백질 사업 철수	625
● 아스텔라스·다이이치, ‘화학물 라이브러리’ 공유	625
● 후지필름·교토대, iPS세포 이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개발	626
● 다케다·오츠카, 위산질환 치료제 제휴	626
● 다이이찌산쿄, UCSF와 신경퇴행 질환 약물 개발 제휴	627
● 노바티스, 일본 약사법 위반 논란 ... 부작용 보고 은폐	627
● 니프로, 뇌경색·척수손상 치료제 생산 추진	628
● 산텐, 머크 안과 사업부문 인수	628
● 시스맥스, 머크KGA와 대장암 혈액 검사약 공동 개발	629
● 메이지홀딩스, 메드라이크 합병 ... 아시아·아프리카 진출 강화	629
● 교와학코기린, 아르키메데스 M&A 추진	630
● 다카라바이오, 셀렉티스AB 인수 ...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 강화	630
● 일본 공동연구팀, 유전자로 혈액형 쥐 치료 성공	631
● 노바티스, 후생성에 중증 부작용 2천500여건 보고 누락	631
● 교토대, 줄기세포로 폐포세포 추출	632
● 도쿄대,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 세포증식 메커니즘 규명	632
● 다이이찌산쿄, 앰빗 바이오사이언스 인수	633
● 기타사토연구소, “지방세포 염증 억제로 당뇨병 치료 가능”	633
● 요코하마시립대, 상처자국 없는 유방재건법 개발	634
● 교토대, iPS 세포로 심장병 치료 가능성 제시	634
● 후지필름, 바이오업체 ‘칼론 바이오세라퓨틱스’ 인수	635
● 후지필름, PET용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 추진	635
● 오츠카, ‘아바니어’ 인수 ... 신경질환 분야 입지 강화	636
● 아이롭홀딩스, AIDS 예방 백신 안전성 확인	636

C O N T E N T S

● 도쿄대, 슈퍼박테리아 살균 항생물질 발견	637
● 도시바, 헬스케어 사업 확대 ... 가와사키 헬스케어개발센터 개소	637
1.4 중국	638
● 칭화대, 골절 뼈 신속 치료 기술 개발 추진	638
1.5 EU	639
● 로슈·프로테나,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개발	639
● 사노피, 엘나일람 지분 인수 ... RNAi 치료제 권리 확보	639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심장병·심근경색 병력 여성, 치매 위험↑”	640
● 스웨덴 룬트대, “링곤베리에 체중증가 억제 효과 탁월”	641
● 노바티스, 미국과 일본에서 뇌물제공·과장광고 수난	641
● 취리히대아동병원, 모세혈관 갖춘 인조피부 제작	642
● 프랑스 INMED, “분만 시 호르몬·화학물질로 자폐증 유발 가능성”	642
● 노바티스, “기저세포암 경구 치료제 물질 효과”	643
● 노바티스, 영국 호삼 R&D 연구소 폐쇄	643
● 사노피, 악타비스 ‘드로네다론’ 특허침해 소송	644
● 바이엘, 혈우병 치료제 공장 신축에 5억 유로 투자	644
● 사노피·UCB, 면역 매개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제휴	645
● 코펜하겐대, 골수줄기세포로 신부전 기능 개선	645
● 독일·프랑스 공동연구팀, 알츠하이머 치료물질 ‘MSX-3’ 개발	646
● 로열DSM, 중국 비타민C 제조업체 인수 추진	646
● 바르셀로나자치대, 알츠하이머 치료 유전자 요법 개발	647
● 노바티스·GSK, 사업부문 빅딜 ... 글로벌 제약업계 지각변동 예고	647
● 바이엘 헬스케어, 중국 베이징 공장 대폭 증설	648
● 울산라대, “Y염색체 소실하면 암 사망↑ 수명↓”	648

C O N T E N T S

● 바이엘, 머크 소비자 사업 부문 인수	649
● 머크 KGaA, 이탈리아 생물의약품 공장 대폭 증설	649
● 노바티스, 옵토테크 '포비스타' 판권 확보	650
● 베링거인겔하임, 6억5천만불로 '프라닥사' 소송 합의	650
● 마드리드자치대, 레드와인에 치주질환 예방 효과 발견	651
● 로슈, 유전자 분석 업체 제니아 인수	651
● 루벤가톨릭대,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이 노화 억제 확인	652
● 로잔연방공대, 약물 농도 따라 변색하는 분자 개발	652
● 머크세레노, 머사나와 차세대 항체-약물 결합체 공동 개발	653
● 로슈, 세라곤 인수 ... 항암제 개발 가속화	653
● UCB · 더미라, '심지아' 건선 치료제 개발 제휴	654
● 사노피 파스퇴르 · 큐어백, mRNA 백신 파트너십 제휴	654
● 레겐스부르크대, 비만과 COPD 연관성 규명	655
● 독일 신경퇴행성질환센터, "액토스 복용하면 치매 위험 낮아져"	655
● AZ · 로슈, 동반진단검사 개발 제휴	656
● 로슈, 산타리스 인수 ... RNA 타겟 치료제 R&D 강화	656
● 바이엘, 디멘션 테라퓨틱스와 혈우병 치료제 개발 제휴	657
● 뮌헨헬름홀츠센터, "당뇨병 치료제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	657
● 마기오레 병원, "비타민D 부족하면 체외수정 임신 가능성↓"	658
● 노바티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가디마셀 인수	658
● 노보노디스크, 염증성 질환 R&D 중단	659
● 로슈, 인터문 인수 ... 호흡기 질환 사업 강화	659
● 머크세레노, 중국에 대규모 제약공장 착공	660
● 사노피, 상하이에 '아태 R&D 허브' 구축	660
● 머크, 시그마 알드리치 인수 ... 생명공학 사업 강화	661
● 신경과학의학연, 카레 원료에 뇌 손상 치유 효과 발견	661

C O N T E N T S

● 제네바대, MRI로 알츠하이머 위험 예측	662
● 노바티스, BMS와 폐암 치료제 임상시험 협력	662
● 사노피,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 관련 획득	663
● 스웨덴 공동 연구팀, 뇌졸중 자가치유 메커니즘 규명	663
● 우메아대, 헤르페스와 알츠하이머 상관관계 규명	664
● 머크, 영국암연구소·웰컴트리스트와 항암제 개발 제휴	664
● 신시내티아동병원, 줄기세포로 소형 위 제작	665
● 읍살라대, “Y염색체가 수명 유지 역할 가능성”	665
● 노보노디스크, 1억2천600만불로 첨단 당뇨 R&D 시설 신축	666
● 로슈, 중국에 대규모 진단의학 생산공장 신축	666
● UCB, 미국 제네릭 자회사 ‘크레머스’ 매각	667
● 사노피, 세계 최초 Dengue열 백신 내년 시판	667
● 바헤닝언대, “비타민B12·엽산, 기억력 개선 효과 없어”	668
● 스위스 연구소, 커피에 알츠하이머 ↓ 효과 발견	668
● 바이엘, 실적 부진 당뇨병 장비 사업 매각 검토	669
● 읍살라대, “흡연이 Y염색체 소실 가속화”	669
● 로슈, 오스트리아 두탈리스 인수 ... 생명공학 사업 강화	670
1.6 아시아	671
● 애브비, 싱가포르에 바이오로직 원료 생산 신규 공장 건립	671
● 호주 애들레이드대, 포도씨에 대장암 치료 효과 발견	671
● 램박시, 원료약 토안사·데와스 공장 가동 중단	672
● 인도네시아 제약업계 실적 양극화	672
● 호주 애들레이드대, 단백질 수치 변화로 위암 진단	673
● 화이자·GSK,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673
● 디킨대, “고령자에게 BMI 기준은 부적절”	674

C O N T E N T S

● 선파마, 랜박시 인수 ‘파란불’	674
● 필리핀 의약품 시장, ‘20년 80억불 규모 성장 전망’	675
● 모나쉬대, 출산 진통 스위치 ‘hERG’ 발견	675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비타민D 부족하면 혈압 상승”	676
● 인도 시플라, 영국 자회사에 1억 파운드 투자	676
● 퀸즐랜드의학연구소, “일광욕 시 췌장암 등 위험↓”	677
● 애들레이드대, “생활습관 등 환경정보도 유전”	677
● 인도 제약업체, 정부 규제 피해 해외에서 R&D 진행	678
● 선파마, 머크 건설표제 ‘틸드라키주맵’ 판권 획득	678
● 인도 OTC 의약품 시장, ‘16년 66억불 규모 성장’	679
● 세인트빈센트병원, 심장 재생 뒤 이식수술 성공	679
● 오클랜드대 등, 임신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예측	680
● 인도 제약시장, 만성 생활습관병이 성장 견인	680
● 자이더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 출시	681
1.7 중동	682
● 이스라엘 테바, 미 뉴패스 합병 성공	682
●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A1c 수치가 2형 당뇨병 예고 지표”	682
● 사우디 제약업체·말레이 HDC, 향후 3년 내 할랄 백신 개발	683
● 테바, 라브리스 바이올로지스 인수 ... 통증 치료제 사업 강화	683
● 텔아비브대, “유청 단백질에 혈당 저하 효과 탁월”	684
● 테바, 14개 비핵심 약물 개발 중단 ... 중추신경계 연구 주력	684
1.8 글로벌	685
● 룬드벡·오츠카,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 제휴 확대	685
● 글로벌 연구팀, 류마티스 유전학적 치료 가능성 제시	685

C O N T E N T S

● 글로벌 제약업체, 우루과이산 마리화나 구매에 관심	686
● 머크·노바티스, 사업 맞교환 가능성 제기	686
● 마이크로빅스, 노바티스에 백신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	687
● 미·일 공동연구팀, 환상염색체 환자 염색체 이상 복원	687
● 악타비스, 오로빈도에 유럽 7개국 제네릭 영업권 이양	688
● 포레스트, 선파마글로벌 등 특허 침해 소송 제기	688
● 미·일 연구소, STAP 세포 활용 방안 연구 활발	689
● 글로벌 공동 연구팀, “‘IRX3’유전자 결핍 시 체중↓”	689
● 화이자·머크세레노, 브로드연구소와 루푸스 연구협력 합의	690
● 머크·페링, 출혈 예방 약물‘카베토신’신제형 개발 협력	690
● 미·영 공동 연구팀, iPS로 인간 피부 표피 제작	691
● 글로벌 공동 연구팀, 비타민D에 간암 억제 효과 발견	691
● 바이오노믹스, 머크와 알츠하이머·중추신경계 파트너십 체결	692
● 벨리언트, 프리시전 인수 ... 피부질환 사업 강화	692
● 일라이릴리·야바오, 항당뇨제 개발 제휴	693
● 일라이릴리·이뮤노코어, 면역 항암제 R&D 협력 제휴	693
● 로슈·아모캠, ‘근긴장성 이영양증’ 치료제 공동개발	694
● 국제 공동연구팀, 정신분열증 관련 유전자 108개 발견	694
● 국제 공동연구팀, 제3의 유방암 변이유전자 ‘PALB2’ 발견	695
● 일루미나, AZ 등 글로벌 제약업체와 범용 암검사법 제휴	695
● AZ·미쓰비시다나베, 당뇨병성 신장질환 R&D 제휴	696
● 국제 공동연구팀, 혈액 한방울로 말라리아 감염 진단	696
● ‘TKM-에볼라’, 에볼라 응급치료에 사용 임박	697
● 사노피·미오카디아, 유전적 심장병 연구계약 체결	697
● 화이자·교와학코기린, 암면역요법 개발 제휴	698
● CSL, 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 인수	698

C O N T E N T S

● 미·영 공동연구팀, “자폐증 관련 유전자변이 100개 넘어”	699
● 단백질 연구 ‘GPCR 컨소시엄’ 결성	699
● 화이자·머크,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	700
● 다케다·GE헬스케어, 간질환 치료제 개발 제휴	700
● 일라이릴리·AZ,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 대규모 임상시험 착수	701
● 국제 공동연구팀, Dengue열 치유 가능 항체 발견	701
1.9 중남미	702
●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대, 당뇨병에 폐경 촉진 효과 발견	702
● 아메리소스버겐, 브라질 시장 사업 확대에 1억불 투자	702
● 상파울루대, “비만치료 수술 시 알츠하이머 위험↓”	703
1.10 캐나다	704
● 캐나다 웨스턴대, “임신중 니코틴대체요법 사용 시 자녀 비만 유발”	704
● 캐나다 세인트마이클병원, AIDS 치료제를 예방용으로 임상시험	704
● 캐나다 맥길대, “IQ는 대뇌 피질 두께와 연관”	705
● 맥길대, “멜라토닌 보충제가 골다공증 예방”	705
● 캐나다, 피부암 발병 급증 ... 자외선 차단제 이용 필요	706
● 성미카엘병원, 카놀라유에 혈당 관리 효과 확인	706
● 온타리오암센터, “유방암 위험 여성은 X선에 MRI 병행 필요”	707
● 캐나다 국립연구위, “종격지방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재발 방지”	707
● 성미카엘병원, 나무 견과류가 당뇨병 치유에 도움 확인	708
● 캐나다 보건과학센터, “항정신병 약물이 신장 손상 가능성”	708
● 맥길대, 메트포르민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효과 확인	709
● 맥마스터대, “비만 원인은 ‘세로토닌’ 과다 분비”	709

C O N T E N T S

2. 의료기기 / 정보화 / 711

2.1 미국 713

- GE, 병원 인력관리 업체 API 헬스케어 인수 713
- P&G, 세계 최초 스마트 칫솔 6월 출시 713
- 일리노이·워싱턴대, 3D 프린터로 심박기 제작 714
- 노스웨스턴대, 임신·HIV·헤르페스 동시 방지 피임기구 개발 714
- 짐머, 바이오메트 인수 ... 의료기기 시장관도 개편 예고 715
- UCLA, 구글글래스 의료용 진단 앱 개발 715
- FN, 뇌심부자극 장치로 알츠하이머 치료 실험 716
- 구글, 암 데이터 신생업체 플랫폼인 헬스에 대규모 투자 716
- J&J, '16년까지 의료기기·진단 제품 30개 승인 추진 717
- 캘리포니아대, '광 펄스' 자극으로 기억 재생 가능 입증 717
- 애플, 건강정보 '헬스키트' 시스템 구축 718
- 마이크로칩스, 리모컨 조종 '피임약 칩' 제작 718
- 구글, 인체지도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스터디' 착수 719
- 인텔, 웨어러블·빅데이터 기술로 파킨슨병 연구 719
- 프린스턴대, 채혈없이 혈당 측정하는 레이저 장치 개발 720

2.2 영국 721

- 리즈대, 알츠하이머 진단 바이오센서 개발 721
- AZ, R&D 시설 '앨덜리 파크' 매각 721
- 워릭대, 특수 MRI로 갈색지방 촬영 성공 722
- 프라이머디자인, 에볼라 속성 진단키트 개발 723

C O N T E N T S

2.3 일본	724
● 일 NTT·도레이, 심박 측정 신개념 웨어러블 기기 개발	724
● 일본 의료기기 업체 테르모, 프랑스 ART 인수	724
● 히타치, 헬스케어 사업 강화 ... IT 서비스 주력	725
● 클라리온·세인트케어, 고령자 ‘복약 지원 로봇’ 개발	725
● 데루모, 심부전 환자 심장 재생의료 실용화 추진	726
● 모리나가유업, 1분만에 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키트 개발	726
2.4 EU	727
● EU 연구팀, 촉감 느끼는 생체공학 의수 제작	727
● 지멘스,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 강화	727
● 스웨덴 공동연구팀, 뇌졸중 진단 헬멧 제작	728
2.5 글로벌	729
● 미·유럽 제약산업, 임상정보 공유 개시	729
● 미·일 기술업체, 무통증 주사 실용화 추진	729
● 국제 공동연구팀, 세포 유전자 DB 구축	730
● 미·일 연구팀, 3D 화상처리시스템 개발 ... 의료현장 활용 기대	730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에볼라 진단기 개발 붐 ... 시판에는 미흡	731

C O N T E N T S

3. 화장품 / 733

3.1 미국 735

- 미국 IFF, 이스라엘 향수원료업체 AFF 인수 735
- 미국 TPG 그로스, E.l.f. 코스메틱스 인수 735
- J&J, 주름개선제 ‘퍼톡스’ 개발 중단 736
- 미국 화장품 업계, 마이크로비드 퇴출 움직임 ... 대체재 확보는 난항 736
- 네일아트숍 자외선 불빛, 피부암 유발 가능성 737
- 칼라일그룹, ADA 코스메틱스 매각 737
- 미국 립케어 제품 매출 호조 ... 올해 14억불 가능 738
- 블루베리 추출물,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사용 전망 738
- 라이스브랜, 쌀겨 추출물 화장품 출시 임박 739
- 고급 란제리·여성의류 업체 ‘소마’, 향수시장 진출 739
- 에스티 로더, 최고급 스킨케어 업체 ‘로딘 올리오 루쑈’ 인수 740
- 에스티 로더, 최고급 향수 업체 ‘에디시옹’ 인수 740
- 인터파폼스,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와 향수 제휴 741

3.2 영국 742

- 마스크라 독성 동물실험 대체 방법론 개발 742
- 영국 색조화장품 시장, 15억 파운드 돌파 전망 742

3.3 일본 743

- 일본 고세, 미국 화장품 업체 ‘타트’ 인수 743
-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몸살 743
- 시세이도, 탈모증 치료연구소 개소 744
- 시세이도, 자딕 앤 볼테르와 향수 라이선싱 제휴 745

C O N T E N T S

● 키라리토, '네일허브' 앱 서비스 준비 박차	745
● 롯데제약, ISCO와 R&D 제휴 ... 첨단 화장품 출현 관심	746
● 시세이도, 어린이 미용실 사업 투자 ... 미래 소비자 확보 포석	746
● 고세, iPS 세포 화장품 개발 본격 추진	747
3.4 EU	748
● 독일 헨켈, 모스크바 노진스크 뷰티케어 공장 인수	748
● 코티, 중동 진출 확대 ... UAE에 합작 유통업체 설립	748
● 코티, 레나 화이트 인수 ... 유럽 화장품 시장 공략 가속화	749
● 로레알, 중국 페이스 마스크 부문 진출	749
● 로레알, 중국 시장에서 '가르니에' 브랜드 철수	750
● 오스트리아 스토즐 글라스, 프랑스 베레리·보르미올리 인수	750
● 로레알, 네슬레 보유 자사 지분 4천850만주 환매	751
● 솔베이, 싱가포르 연구혁신센터 개소 ... 화장품 원료 사업 강화	751
● 로레알, 에볼바와 화장품 첨단원료 개발 제휴	752
● 코티, 피아지오와 '베스파' 향수 제휴	752
● 로레알, 시세이도 '드끌레오'·'카리타' 인수 타결	753
● BASF, 중 난징에 퍼스널케어 원료 공장 신축	753
● 지보단, 화장품 원료업체 '솔리앙스' 인수 협의	754
● 네슬레, 피부관리 사업 본격 진출 ... 갈더마 완전 합병	754
● 로레알,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 단계적 퇴출	755
● 스위스 지보단, 중국 저장신화화공과 향수원료 합작사 설립	755
● 머크KGaA, 러보러토리 스킨케어와 화장품 성분 제휴	756
● 로레알파리, 흑색종 퇴치·자외선 차단 활동 착수	756
● 로레알, 중국 매직 홀딩스 인수 최종 확정	757

C O N T E N T S

● 헨켈, 볼 코포레이션과 화장품 용기 경량화 제휴	757
● 로레알·네슬레, 유산균으로 피부 민감성 개선	758
● 네슬레, 밸리언트 주름 개선제 매입	758
● 코티, 리엔핑과 중국 시장 공급 제휴 계약	759
● 헨켈, 섹시헤어 등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브랜드에 '눈독'	759
● 로레알, 색조화장품 업체 '닉스' 인수	760
● 뷰티 패키징 업체 알베아, 쑤저우에 첨단공장 준공	760
● 향수 원료 업체 집리제, M&A로 지보단 추격	761
● 스위스 인두켄,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시아 진출 확대	761
● 집리제, 생강뿌리 추출물로 다용도 미용성분 개발	762
● BASF, '티노조브 A2B' 허가 취득 ...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	762
● 로레알, '니엘리 코스메티코스' 인수 ... 중남미 뷰티사업 강화	763
● 코티, 샤넬 '부르조아' 브랜드 인수 추진	763
● 스페인 푸이그,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빠이요' 매각	764
● 로레알, 다문화 뷰티업체 '캐롤스 도터' 인수	764
● 에스티 로더, 고급향수 업체 '르 라보' 인수 ... 글로벌 진출 강화	765
● 로레알, 글로벌 여행소매 사업 부문 강화	766
● 유니레버, 물·알코올 없는 신개념 발한억제제 개발	766
● 로레알·네슬레, 미용식품 합작사업 중단	767
● 네슬레, 피부건강 증진 사업 강화 ... 화장품 업체들 긴장	767
3.5 아시아	768
● 화장품 방부제 'MIT' 퇴출 위기	768
● 아시아 미용성형수술, 글로벌 점유율 30%	768
● 호주, 화장품·향수 온라인 판매 급증 ... 올해 2억6천만불 전망	769
● 에코트레일, 인도 첫 할랄 화장품 브랜드 출시	769

C O N T E N T S

3.6 중동	770
● 이스라엘 시네론, 첨단 피부미백 제품으로 중국 시장 공략	770
3.7 글로벌	771
● 미 나르시소·프랑스 보떼, 화장품 합작사 설립	771
● 코티·포드차, 한정판 네일래커 7월 발매	771
3.8 중남미	773
● 에이본·코티, 브라질 향수시장에서 협력	773
● 코티·에이본, 브라질 향수시장 마케팅 제휴	773
4. 의료서비스 / 775	
4.1 미국	777
● 머크, 체중관리 신규 사업 착수	777
● 24주째 임신부, 당뇨병 검사 바람직	777
● 메릴랜드대, “경동맥 협착 시 인지기능 저하”	778
● UCLA, “MUL1 유전자가 파킨슨병과 연관”	778
● 루서런 종합병원, “정확한 유방암 진단에 3D 유방조영술 필요”	779
● 월그린, 헬스클리닉 확대운영 ... 본사 유럽 이전 계획은 철회	779
4.2 영국	780
● 킹스칼리지병원, “도플러 스캔으로 사산 2/3 예방 가능”	780

C O N T E N T S

4.3 일본	781
● 로토제약, 동남아에서 난치병 전문병원 운영 추진	781
● 나고야대, 수초 만에 DNA 해석하는 신기술 개발	781
● 나가사키대, 에볼라 바이러스 ‘30분 진단법’ 개발	782
● 국립장수연구센터, 소량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	783
● 도시바, ‘재포니카 어레이’ 게놈 해석 서비스 개시	783
4.4 EU	784
● 이탈리아 후마니타스병원, 개 후각으로 전립선암 진단	784
● 루마니아, 유럽 최초 원격 온라인 병원 포털 개설	784
● 이탈리아 바리대, 전자기 요법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	785
4.5 중동	786
● UAE 알누어병원, 걸프인터내셔널암센터 인수	786
● 사우디 DSFH, ‘17년까지 두바이에 파케이대학병원 설립	786
● 아라맥스, 중동·북아프리카 ‘바이오케어’ 서비스 개시	787
● 웰니스업체 VLCC, UAE에 비만 퇴치 캠프 개설	787
● TVM 캐피탈, 중동·북아프리카 헬스케어 업체들에 2억불 투자	788

C O N T E N T S

5. 보건산업 기타 / 789

5.1 미국	791
● 근육 증강 건기식 ‘매스 디스트릭션’ 퇴출 위기	791
● 예일대, “고지방 섭취 임산부, 비만아 출생 가능성 높아”	791
●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CVS, 담배 판매 중단	792
5.2 영국	793
● 영국 흑색종 발병률, 40년 사이 5배 급증	793
5.3 일본	794
● 오츠카, 자스민 인수 ... 중남미 건기식 시장 본격 진출	794
● 오츠카제약, 건기식품업체 푸드스테이트 인수	794
5.4 중국	795
● 패스트푸드 업체, 중국에서 유통기간 지난 육류 사용 파문	795
5.5 EU	796
● 프랑스, 말고기 파동 재현 우려	796
● 사노피,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전 합류	796
5.6 아시아	798
● 동남아시아, H5N1형 AI 확산 조짐	798
5.7 글로벌	799
● 온라인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 ‘맛’과 ‘모양’ 마케팅 효과	799

C O N T E N T S

■ 제4부 신규보고서 / 801

1. 제약 / 바이오 / 803

1.1 미국	805
● 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역할	805
● 미국 제약업체들의 유럽 업체 M&A 추진 배경	806
● 미국 J&J, 존경받는 제약업체 1위 ... 미국 배런스 선정	807
● 미국 국립보건원이 투자하는 핵심 질환 분야	808
● 미국, 제네릭 사용으로 10년간 의료비 1조5천억불 절감	809
● 오바마, 제약업체 특허권 해외이전으로 고민	810
● '18년 미국 특수약품 산업, 2천350억불 규모 전망	811
1.2 일본	812
●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현재와 미래	812
● '16년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780억엔 규모 전망	813
1.3 중국	814
● 글로벌 및 중국 인슐린 시장 전망	814
1.4 EU	815
● 유럽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 분석	815
1.5 기타	816
● 이스라엘, 글로벌 생명과학 중심지로 부상	816
● 인도 제약산업의 성장 배경과 과제	817
● 중남미, 글로벌 제약업체에 기회의 땅	818

C O N T E N T S

● 브라질, 세계 최대 헤어케어 시장	819
●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명과 암	820

1.6 글로벌

● 2050년 전세계 치매환자 1억3천5백만명	821
● 글로벌 죽상혈관 질병 치료제 시장 전망	822
●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 현황과 전망	823
● 희귀의약품,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견인	824
● 환자들이 평가한 주요 제약업체 평판	825
● 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균 감시 보고서	827
● 글로벌 제약업체의 M&A 열풍	828
● R&D 생산성, 바이오파마 > 빅파마	829
●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현황과 전망	830
●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복병, 바이오시밀러	831
● 암 치료제, 의약품 성장 둔화 속 '독야청청'	832
● 항생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 ... 내성 문제 해결이 관건	833
● '14~'20년 글로벌 제약시장, 연평균 5.1% 성장 전망	834
●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835
● 글로벌 제약업체 성장 견인 의약품	836
● 주목되는 글로벌 제약업체 산학제휴	837
● 글로벌 건선성 관절염 시장 전망	838
● 글로벌 RNA 기반 치료제 시장 전망	839
● 글로벌 희귀약 시장 전망 ... '20년 1천760억불 규모 성장	840
● 글로벌 제약업체, 마케팅 비용 > R&D 비용	841
● '18년까지의 글로벌 제약시장 전망	842
● 글로벌 제약업체에 지속되는 '특허절벽' 한파	843

C O N T E N T S

2. 의료기기 / 정보화 / 845

2.1 미국	847
● '14년 미 헬스케어 업계에 예측되는 변화	847
● 미·중, 글로벌 모바일헬스 시장 장악	848
● 미국 텔레헬스 시장 성장의 배경과 조건	849
2.2 일본	850
● 일본 정부·산업체, 의료용 로봇 공동 개발	850
2.3 EU	851
● 유럽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그 조건	851
2.4 글로벌	852
● 의료 변혁을 초래하는 혁신기술	852
● 글로벌 무선 EHR 시장, '18년 235억불 규모	853
● 제약업계 소셜미디어 활용도 평가	854
● 글로벌 신경조절기 시장 선도업체 4사	855
● 헬스케어 혁명을 이끄는 3D 프린팅	856
● 글로벌 10대 의료 기술업체 M&A	857
● 의료 3D 프린팅 기술, 산업화 임박	858
● 올 상반기 의료기기 업계 M&A 분석	859
● 클리블랜드 클리닉 선정 '15년 10대 의료혁신	860
● 가까운 미래 의료계 변화를 주도할 11대 기술	861

C O N T E N T S

3. 화장품 / 863

3.1 미국	865
● '18년 미 스킨케어 시장, 122억불 전망	865
3.2 영국	866
● 영국 프리미엄 뷰티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866
3.3 중국	867
● 중국 스킨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867
3.4 기타	868
● 할랄 화장품,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	868
● 브라질 향수시장의 특징과 미래	870
● 인도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 전망	871
● '20년 브라질 미용시장, 세계 2위로 부상	872
● 아시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 ... 중국 쇠퇴, 홍콩 부상	873
● '18년 브라질 색조화장품 시장, 51억불 전망	874
● 아·태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화두, '안티폴루션'	875
3.5 글로벌	876
● 글로벌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876
● '14년 뷰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믹솔로지스트'	877
● '20년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160억불 전망	878

C O N T E N T S

4. 의료서비스 / 879

4.1 미국	881
● 메이요클리닉, 미국 최우수 병원 등급	881
4.2 영국	882
● 영국 정부의 헬스케어 구상 프레임워크	882
4.3 일본	883
● 일본 내 간병 직장인 현황과 정부 대책	883
● 일본 기업의 아시아 의료시장 공략	884
● '13년 일본 국민의료비 40조엔 육박	885
● 위기의 일본 의료기관, 생존에 몸부림	886
4.4 기타	887
●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조건	887
● 사우디아라비아의 헬스케어 산업 붐	888
●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박차	889
● 주목받는 쿠바의 에볼라 의료외	890
4.5 글로벌	891
● IARC의 '14년 세계 암 보고서	891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3대 성장 동력	892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의 전조	893

C O N T E N T S

5. 보건산업 기타 / 895

5.1 미국 897

- 2013 미국 보건 현황 비교 보고서 897
- 미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 관전 포인트 898
- 마리화나 금지법 폐지의 정당성 899

5.2 영국 900

- 영·EU, 이주민 복지혜택 문제로 갈등 ... 분열 위기 고조 900
- 영국 정부, 아시아 경로문화에서 고령화 해법 모색 901

5.3 일본 902

- 일본 근로자의 후생연금 수령 상황별 시나리오 902
- 초고령사회 일본의 그늘 ... 노인끼리 돌보는 가정이 과반 903
- 일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안간힘 ... 육아체험 교육 시행 904
- 일본의 고민, '인구병'... 인구 감소로 도시 소멸 우려 905

5.4 EU 906

- 아일랜드의 이탈리아 '폭음 예방 문화' 따라하기 906

5.5 기타 907

- 중동 지역의 새로운 골칫거리, '비만' 그리고 '당뇨' 907
- 동남아, 출산을 하라 대책 마련 시급 908

C O N T E N T S

5.6 글로벌	909
● 연금수령 시기 연장, 사회적 갈등 유발	909
● 인터내셔널 리빙 선정'은퇴 후 살기 좋은 국가'	910
● 글로벌 항노화 시장 현황과 전망	911
● WHO의 글로벌 음주 현황 보고서	912
● 어머니가 살기 좋은 국가, 한국 30위	913
● 뉴트라슈티컬 시장 성장세, 중남미·아시아가 주도	914
● 글로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고령화	915
● '20년 글로벌 의료기술 시장, 5천140억불 규모 전망	916
● 비만 극복의 경제적 비용	917

제 1 부

포 커 스

1. 제약 / 바이오	3
2. 의료기기 / 정보화	17
3. 화장품	59
4. 의료서비스	69
5. 보건산업 기타	183

1. 제약 / 바이오

▣ 최근 일본 제약산업의 현황 및 과제	5
▣ 중국 의약품 시장 성장 배경과 진출 전략	9
▣ 성공적 제약업체 가치 창출 전략의 특징	13



최근 일본 제약산업의 현황 및 과제

최근 일본 제약산업은 제네릭 약품의 잇단 등장 속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 본 자료는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4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 '일본 제약산업의 현상 및 과제([製薬産業の現状と課題](#))'를 통해 신약 R&D 활동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유를 규명한 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제약업계의 움직임을 분석

□ 제약산업의 환경 급변

- (개요) 일본 제약업체들은 지난 '10년을 전후로 특허가 만료된 대형 의약품이 제네릭으로 대체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소위'2010년 문제'로 고민
 - 다행히 매출 감소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고가의 신약 승인이 증가하고 있어 위기는 일단 넘긴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 제조기술의 모방이 어려운 생물학적 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
 -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는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시밀러로의 치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은 과거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그러나 아래 표를 보면 합성(추출)한 물질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누적 성공률이 매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
 - 첫째, 이미 유효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질환의 경우 시장에서는 보다 효과가 뛰어난, 창출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요구
 - 둘째, 유효한 신약이 없는 질환은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적단백질 추적이나, 보다 유효성이 높은 물질을 선정하기 위한 정밀한 작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
 - 셋째, 메커니즘이 규명된 질환이라도 기존의 세포막 표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물질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는 세포막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요구

-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 외에도 시장에서는 고도의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의약품 창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

▼ 합성(추출)으로부터의 누적 성공률

	'00 ~ '04년	'02 ~ '06년	'04 ~ '08년	'06 ~ '10년
전 임상시험 개시	1/2,158	1/2,636	1/3,073	1/3,116
임상시험 개시	1/3,653	1/7,329	1/7,550	1/8,108
승인 신청 (자사)	1/6,724	1/12,443	1/21,088	1/26,920
승인 취득 (자사)	1/12,888	1/19,817	1/25,482	1/30,591

□ 제약업계의 움직임

○(연구 효율화) 과거에 비해 R&D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

- 첫째, 바이오테크 기업과 대학으로부터 신약개발 기술을 도입
- 아래 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승인한 신약 252개 특허 보유업체(오리진)를 추적해 의약품 1개 당 1 포인트로 특허 보유업체의 조직 형태나 국가·지역으로 점수화
-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오리진이 제약업체인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오리진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테크 기업과 대학
- 이처럼 여전히 제약업체가 오리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대학이 연구기능을 보완·대체하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 둘째, 교와학코기린의 아르키메데스 파머(Archimedes Pharma) 인수, 오즈카제약의 아스텍스 파마슈티컬스(Astex Pharmaceuticals) 인수 등 경쟁력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
- 셋째, 연구 테마나 과제에 대한 투자의 다양화로, 이는 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명칭으로 진행
 - * 대표적 사례로는 아스테라스제약의'a-cube', 다이이췌산쿄의'타네데스(TaNeDS)', 시오노기제약의'파인즈(FINDS)'등
- 넷째, '00년 이후 제약업체들은 자사 연구 부문을 재점검하면서 연구 영역을 특화하고 연구 거점을 집약 혹은 연구 기능을 분리

▼ FDA 승인 의약품의 오리진(1998~2007년)

	미국	일본	UK	독일	스위스	프랑스	기타유럽	캐나다, 호주	기타
대형 제약업체	45.3	18.8	18.0	17.1	13.1	8.2	16.9	2.5	1.0
소형 제약업체	-	-	-	1.4	-	2.0	3.0	-	-
대학 발견, 제약업체에 이전	7.7	2.3	1.9	2.4	-	0.6	3.2	-	3.5
대학 발견, 타 지역 바이오테크 기업에 이전	3.3	-	0.5	0.5	-	1.4	5.5	1.1	1.0
바이오테크 기업 및 대학 발견, 동일 지역 제약업체에 이전	61.4	2.0	2.4	-	-	-	0.3	3.2	1.0

○(개발의 중요성) 제약업체의 신약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변모

- 제약업체의 4가지 핵심 기능인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개별 사업으로 평가할 경우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형 사업인 ‘연구’와 ‘개발’, 로우 리스크·로우 리턴인 ‘제조’와 ‘판매’로 분류가 가능
-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는 이미 후보 제품들이 존재하고, 출시를 위해 효율을 추구하는 ‘개발’보다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연구’ 기능을 외부에 의존하는 제약업체가 증가
- 일본 제약업체들이 ‘연구’보다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개발 작업의 주요 포인트) 개발 작업의 첫 단계인 ‘도입(라이선스)’영역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다음 3가지 사항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첫째,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파이프라인의 압축’으로, 제약업체의 개발(임상시험) 과정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Ph3 단계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
- *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 POC) 확립 단계(Ph2a)에서 신약후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과거 후순위였던 시장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약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ADME(흡수, 분포, 대사, 배출)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

- 둘째, ‘신약후보의 효과적·효율적 도입을 위한 조직 강화’로, 연구 기능을 외부화한 제약업체들은 신약후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개발권을 획득하는 기능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 * 따라서 신약후보가 개발에 성공할 것인지, 출시했을 경우 판매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과학과 마케팅 두 가지 분야에 정통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
- 셋째, ‘경쟁력 있는 판매체제 구축’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후보와 같은 영역의 의약품 ‘판매’에 강점을 보유한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
 - * 이에 따라 파트너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특색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많은 제약업체들이 전문 MR(의약정보 담당자)을 확보
- 이처럼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연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과거와 비교해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변모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제약업체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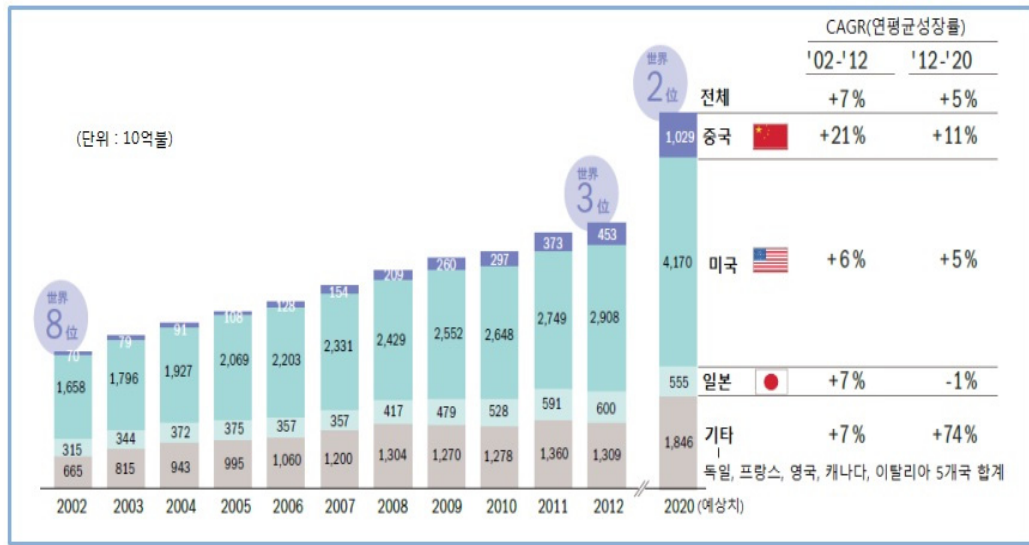
중국 의약품 시장 성장 배경과 진출 전략

중국 의약품 시장은 오는 '2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 본 자료는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업체 독일 롤랜드 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의 일본지사가 '14년 7월 발표한 '중국 의약품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시장접근 ([中国医薬品市場の鍵を握るマーケットアクセス](#))' 을 통해 중국 의약품 시장 현황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업체에 요구되는 전략을 검토

□ 의약품 시장 현황

- (건강 의식 제고와 건강보험제도) 중국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제고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확대 정책으로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
 - 중국 의약품 시장은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거듭, 지난 '02년 700억불 규모에서 '12년 4천530억불로 증가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제고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확대 정책이 존재
 - * 중국 내 건강검진센터는 '05년 2만7천개에서 '12년 4만개로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에는 전체 인구의 95%가 가입('11년)
 - 더욱이 추가적인 소득향상과 의료 인프라 정비를 기대할 수 있어 중국 의약품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
- (수익성) 중국 의약품 시장은 규모와 성장성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
 - 항암제 시장의 경우 제약업체들이 중국에서는 45% 안팎의 수익을 기대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16%, 유럽 25%, 미국에서는 30% 정도를 기대
 - 이러한 높은 수익성은 항암제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 개발 제품으로 중국내 가격 교섭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중국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이러한 경향이 특히 현저
 - 이처럼 중국 의약품 시장이 시장규모, 성장성, 수익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지난 '07~'12년 로슈는 연 평균 28%, 화이자 23%, 아스트라제네카 13% 등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대중국 투자를 확대

- 중국시장에서의 생존은 글로벌 제약업체에게 필수 과제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국내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산업은 보호하고 외자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 주요국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 (현지화)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시장접근, 영업·마케팅의 현지화가 중요하며 특히 시장접근이 향후 성패를 좌우
 - 외국계 제약업체 상위 10개사의 중국내 R&D센터는 '05년 5개에서 '12년 30개까지 급증할 정도로 개발 작업 현지화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 개발 현지화의 최대 장점은 중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거론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의료공업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계 제약업체의 R&D센터 개설 장려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입찰 우대조치를 받는 제약업체들이 증가
 - * 실제로 한 외국계 제약업체는 식품의약품감독국이 항암제 도입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 보통 5년이 소요되는 신약 판매허가를 3년6개월 만에 취득

- (영업·마케팅) 중국 당국이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대폭 정비함에 따라 외국계 제약업체의 사업모델도 크게 변화
 - 그동안 중국에서는 의약품 유통 시 청탁을 통한 영업이 불가피했지만 '12년 국무원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수뢰를 불법화하는 방침을 밝히는데 이어 '13년 위생국이 의약품 판매시 수뢰를 단속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환경이 급변
 - 이에 따라 외국계 제약업체는 중국 각 지역의 니즈에 맞춰 적절한 영업을 실시하는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
 - 지금까지는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연안 지역 대도시의 니즈에만 포커스를 맞춰왔으나 이제 각 성의 니즈와 보험제도에 입각한 전략 책정이 요구
 -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제약업체 가운데는 이미 지역별 니즈를 파악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대도시에 필적하는 사업성을 실현하는 사례도 존재
 - 이처럼 외국계 제약업체의 중국 현지화 작업에서는 영업이나 마케팅보다는 지역별 시장 접근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 (지역에 대한 치밀한 시장접근) '08년 이후 지방정부로 의약품 관련 권한이 대폭 이동함에 따라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
 -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법적 절차가 추진되었지만 지난 '08년부터 지방정부로 재량권이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
 - 일례로 중국 최대 의약품 생산거점인 산둥성이나 의약품 소비가 왕성한 상하이 등은 중국 당국이 보험상환 의약품으로 규정한 EDL(Essential Drug List) 외에 환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non-EDL)을 독자적으로 설정이 가능
 - * '09년에는 전국 EDL,, '11년에는 베이징의 REDL(Regional Essential Drug List)에 추가됐으며 이후 상하이 REDL에도 추가되면서 가격의 90%를 정부가 환급해주면서 지방에서도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 변화에 민감한 외국계 제약업체는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일찍 시작했으며,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해 매출증대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모두 각 지방의 니즈나 법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시장접근 모델을 구축한 공통점이 존재
 - * 사노피 아벤티스의 경우 경쟁업체 보다 시정부와의 관계를 서둘러 구축한 결과,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Lantus)의 중국내 매출이 매년 80% 이상 급증

□ 시사점

- (정보 확보와 목표시장 설정) 중국 의약품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자사 상황에 맞는 목표시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 구축 작업이 필수
 - 그러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제한적으로, 질환별 환자 수나 의약품 시장 규모 같은 공공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대리점 등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
 - 또 중국은 광대하고 지역에 따라 약사규제나 상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사업모델로는 공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이 요구
 - 적절한 정보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행할 필요
 - 중국 진출 시 사업성을 과잉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상은 시장독식이 어렵고 기초 데이터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없이 진입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 투자 축소 이후 사업에서는 더욱 고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 수집 이후 적절한 사업성 평가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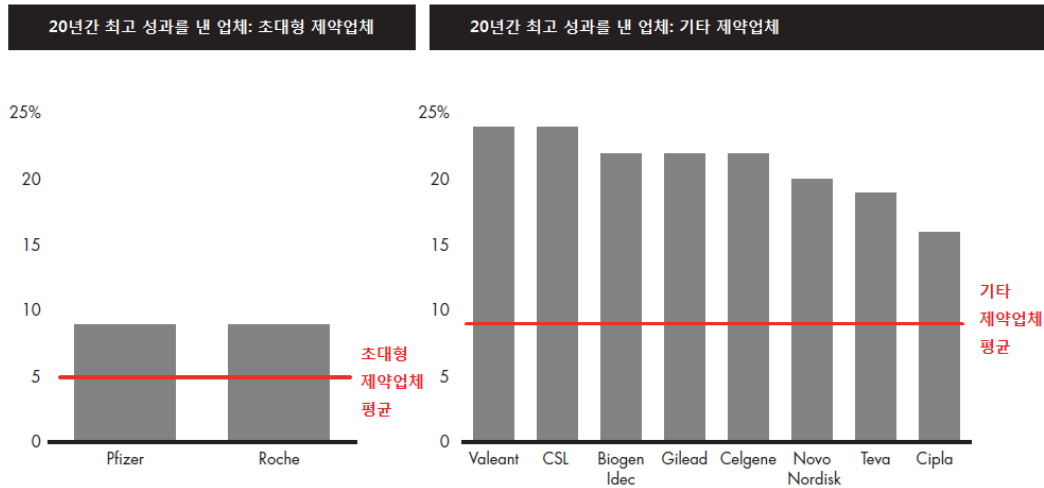


성공적 제약업체 가치 창출 전략의 특징

변화와 부침이 심한 제약업계에서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이 필수. 본 자료는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14년 9월 발표한 보고서 '제약업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New Path to Value Creation in Pharma)' 을 통해 지난 20년간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던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전략 특징을 분석

□ 개요

- (개요)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지난 20년 동안 성과가 업계 평균을 능가하는 10개의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 전략 특징이 존재
 - 첫째, 특정 영역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주력
 - 둘째, 자사에 가장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수행
 - 셋째,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실행
 - 이 같은 특징은 이들 제약업체의 성공이 운 좋게 맞아떨어진 신약 개발 기회나 대대적인 R&D 성과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
- (10대 제약업체) 본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이 된 10대 제약업체들은 지난 20년간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 TSR) 기준으로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도출
 - 특히 제약 부문의 R&D 생산성 저하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기초한 사업모델 약화 등 커다란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 지난 20년간 최고 성과를 낸 초대형 제약업체들의 연평균 TSR 증가율은 5% 정도로 추산되는데, 10대 제약업체 중 초대형 업체로 분류되는 화이자(Pfizer)와 로슈(Roche)의 경우 10%에 육박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과시
 - 또 여타 제약업체들의 경우 연평균 TSR 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했으나, 10대 제약업체 중 화이자와 로슈를 제외한 다른 8개 기업들도 최저 15%부터 최고 25%에 근접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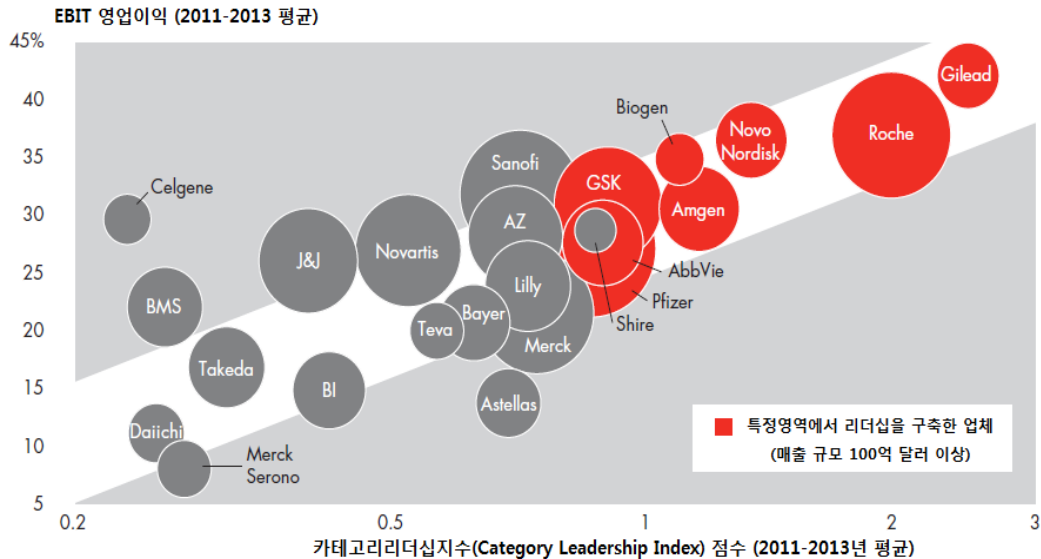


▲ 지난 20년간 가치창출에 성공한 제약업체들의 연평균 총주주수익 증가율

□ 성공한 제약업체들의 특징 및 사례

- (특정 영역에서의 리더십) '00년도 이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전략이 되고 있으며, 10대 제약업체 중 7개 업체는 한 영역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확보할 만큼 전문 영역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
 -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과 셀젠(celgene)은 각각 신경치료제와 중양치료제 부문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만큼 높은 전문성과 집중력을 발휘
 - 특정 전문 영역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면 고객관계 · 사업제휴 · 신사업 추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면서 상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베인앤컴퍼니가 개발한 카테고리리더십지수(Category Leadership Index)*와 제약업체의 수익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지수가 0.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이자비용 및 법인세전 이익(EBIT)은 2% 포인트 증가

* 특정 영역에서 해당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매출에 가중하여 산출



▲ 제약업체들의 카테고리리더십지수와 수익률의 상관관계

○ (뚜렷한 사업모델) 제약업계의 가치창출 10대 기업은 다음 네 가지 사업모델 중 최소한 한 가지에서 두드러진 역량을 발휘

- 첫째, '질병극복을 위한 솔루션 제공업체' 사업모델을 가진 제약업체들은 질병과 고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①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의 단일정복합 HIV 치료제 ②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의 인슐린 제품이 대표적 사례

- 둘째, '돌파형 혁신업체' 사업모델을 보유한 제약업체들은 새로운 시도와 신약 개발능력을 강조

* ① 탈리도마이드를 혁신적으로 응용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신기원을 연 셀젠 ② 자회사 제넨텍(Genentech)의 단일클론항체로 종양치료제 부문의 리더십을 구축한 로슈가 대표적 사례

- 셋째, '최적 상업화'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제약업체들은 평범하지만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의 가치를 극대화

* 경쟁업체들의 자산을 인수해 자사 브랜드를 내세운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화이자가 대표적 사례

- 넷째, ‘밸류 플레이어’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제약업체들은 지역별로 특화된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사업 규모와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
 - * ① 개발도상국의 대중시장을 주로 공략하는 인도 제약업체 시플라(Cipla) ② 오리지널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공략해 새로운 제네릭 의약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성공한 테바(Teva)가 대표적 사례
- 한편, 끊임없이 진화하는 제약업계에서 끝까지 생존하고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을 과감히 파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도 필요
- (효과적인 M&A) 제약업계에서 인수합병(M&A) 실패율은 타산업에서보다 높지만, 10대 제약업체들은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특정 영역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M&A를 효과적으로 활용
 - 1992~2012년 사이 10대 제약업체 중 테바와 시플라를 제외한 8개 업체가 올린 전체 누적매출 중 과반은 M&A를 통해 기록
 - 경쟁업체인 워너-램버트(Warner-Lambert) · 파마시아(Pharmacia) · 와이어스(Wyeth) · 킹 파마슈티컬(King Pharmaceutical)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선 화이자 M&A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온 대표적인 기업
 - 최근에는 특정 영역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M&A 거래를 활용하는 제약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노바티스(Novartis)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성공적인 자산 맞교환이 대표적인 사례
- (결론 및 시사점) 제약업계의 미래는 특정 영역에서 리더십을 구축한 업체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이런 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 아래 투자와 역량을 집중할 부문을 선택하는 판단이 중요

2. 의료기기 / 정보화

▣ 미국의 의료 IT 및 관련 분야 동향	19
▣ 일본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동향	23
▣ 일본 도호쿠 지역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과제	27
▣ 일본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조건	31
▣ EU의 eHealth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5
▣ 국제 의료기기 단일 검사 시범 프로그램	39
▣ 급성장하는 홈 헬스케어와 건강 데이터 활용	43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	47
▣ 디지털 헬스테크의 주요 이슈와 혁신	51
▣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대의 도래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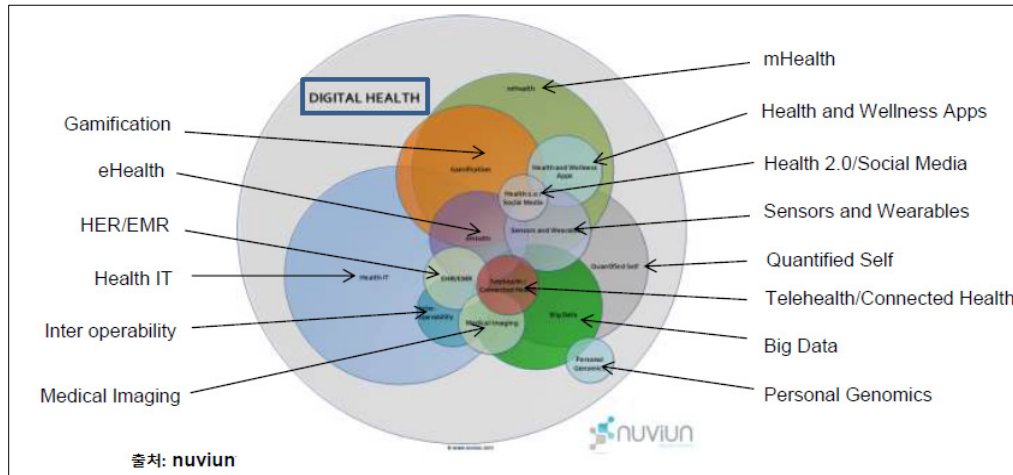


미국의 의료 IT 및 관련 분야 동향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다양한 제도 개혁이 진행됨과 동시에 의료 분야 IT에도 큰 변화가 초래. 본 자료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14년 11월 발표한 미국의 의료 정보기술(IT) 및 관련 분야의 대처 현황 (米国における医療 ITと関連分野における取り組みの現状)'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의료 IT와 관련 분야를 둘러싼 정책과 지원, 기술 및 벤처기업 동향을 분석

□ 미국 정부의 정책과 지원

- (개요) 미국에서는 의료 현장에서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보급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IT와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IT의 경계가 모호
 - 미국은 의료 현장에서 IT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관리 앱과 웨어러블 단말기로 건강을 관리하는 개인도 급증하는 추세
 -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IT와 개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IT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IT 혁신이 진행
 - 전 세계 의료 IT 시장도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년에는 660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며, 미국은 '12년 219억불에서 '17년까지 313억불까지 확대가 예상
 - 이는 의료계의 문서 기록 디지털화 추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미국 전자의료기록(EHR) 시장의 경우 성장세가 다른 나라들을 크게 압도
 - 또 다른 요인은 모바일 헬스케어로, 의료용 모바일 앱 이용자는 '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1/3에 해당하는 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의료 전문가들이 모바일 앱을 대거 활용



▲ 의료 IT 관련 분야

- (정책 및 지원 상황) 미국 정부는 의료 IT의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대거 편성하면서 의료 IT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피력
 - 정부는 의료 IT를 총괄하는 국가의료 IT조정실(ONC)의 '15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천 400만불 증액한 7천500만불을 책정
 - 또 의료 IT R&D와 관련, 의료관리품질조사국(AHRQ)의 전체 예산 4억4천만불 가운데 2천만불을 의료 IT R&D용으로 배정
 - 의료 IT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법률은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관련 법률(HITECH)'과 '식품의약국안전혁신법(FDASIA)' 등
 - 특히 '09년 의료 IT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HITECH는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포함해 의료기관의 EHR 보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정부는 EHR 도입 요건을 충족한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의료 관련 IT 및 벤처기업

- (EHR 네트워크) 미국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관련 데이터를 취합·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
 - EHR은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HR 시스템은 병원경영을 지원하는 진료관리시스템(PMS)과 통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통합되지 않더라도 EHR과 PMS이 연동되는 곳이 다수
 - * EHR 시스템은 서버와 PC상의 소프트웨어로 가동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주류
- (모바일 앱 및 웨어러블 단말기) 의료 모바일 앱 및 웨어러블 단말기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모바일 앱 및 웨어러블 단말기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용 모바일 앱은 ‘m헬스(mHealth)’로도 불리며, 현재 의료 관련 모바일 앱의 일일 사용 빈도는 다른 모바일 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
 - 그러나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인해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 등 보안기술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 한편 웨어러블 단말기의 의료 IT 분야 활용은 구글과 애플이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웨어러블 단말기를 사용한 헬스케어 전략에는 다양한 앱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각각 나이키, 아디다스, 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제휴, 관련 플랫폼을 확대시키는 활동에 주력
- (원격의료) 원격의료 기술은 △영상통화 등 쌍방향 통신 △환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EHR 등 의료데이터 전송 등 크게 3종류로 분류
 - 원격의료 기술 가운데는 특히 영상통화 등 쌍방향 통신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기술은 전체 의료기관의 25% 정도만이 이용
 - 한편 전체 의료기관의 46%는 복수의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 밖에 의료로봇도 사용되기 시작해 아이로봇이 개발한 자동원격진료로봇 RP-VITA의 경우 이미 7개 병원이 도입해 지리적으로 환자와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의사가 로봇을 조작하면서 환자를 진찰
 - 한편 수술용 로봇은 지난 '13년 전체 의료로봇 시장의 65%를 차지한 가운데, 의료로봇 시장은 오는 '20년까지 연 12.7%의 성장이 예상
- (의료 IT 벤처 투자) 의료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전 세계 의료 IT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10년 11억불에서 '13년에는 28억불로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50억불 이상이 투자

- 이러한 투자 급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 △구글과 애플의 일반 소비자 대상 비즈니스 강화 △의료 IT 주류로 웨어러블 단말기의 부상에서 비롯
- '14년 투자를 받은 미국의 의료 IT 관련 벤처기업 중 투자액 상위 5개사가 유치한 금액은 총 10억6천700만불

▼ 미국 의료 IT 관련 벤처기업 중 '14년 투자 유치금액 톱 5

기업명	분야	제품 및 서비스	투자 총액(억불)
Privia Health	의료관리	환자 자기관리 지원	4
Preventice	원격의료	BodyGuardian Remote Monitoring System	2.3
Proteus Digital Health	센서기술	체내에 삽입 가능한 바이오메디컬 센서, 웨어러블, 재활용 가능한 패치, 스마트폰앱	1.72
NanHealth	의료플랫폼	cOS Platform, DeviceConX	1.35
Flatrion Health	빅데이터	Oncology Cloud	1.3

○(시사점) IT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특히 의료·건강 분야에서 커다란 성장이 기대

- 이들 분야는 IT를 활용해 신체 상태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와 예방·건강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의료와 건강을 일체화한 헬스섹터로 발전
- 이런 상황에서 IT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헬스섹터 역시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



일본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동향

일본 정부는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본 자료는 日本政策投資銀行이 ‘14년 3월 발표한 ‘의료기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지역동향(医療機器クラスター形成に向けた地域の動向～各地での取り組みがわが国の競争力強化に寄与)’ 을 통해 일본의 의료기기 산업 환경과 지역 클러스터 구축 촉진 정책을 고찰

□ 지역발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동향) 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수요가 뒷받침된 성장산업이이자 관련분야도 광범위해 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설정
 -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인구증가 △고령화 △신흥국 시장확대 △의료기술 진전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개발, 기기의 고도화 등을 배경으로 ‘08년~’12년 약 1.2배 규모로 확대됐고 향후 지속적 성장도 예상
 - 일본의 의료기기 생산도 국내수요 신장과 맞물려 확대기조에 있지만 치료기기를 중심으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의 40~50%를 차지
 - 이에 일 의료기기 업체는 그동안 주력했던 진단기기에서 탈피해 시장규모가 큰 치료기기 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M&A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 제조업체의 사업기회도 확대될 전망
- (업체 특징) 일 의료기기 산업은 일정분야로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도 많아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만 다양한 핵심기술과 부품이 필요한 고도 의료기기는 사실상 대기업이 독점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에 입각한 인허가 및 신고, 문제발생시 인체에 영향이 큰 기기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등 신규참여자 및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
 - 의료기기 개발은 의료와 공업분야간 ‘의공(醫工)협력’도 중요한데 이는 △의대/의대 부속병원과 공대 △의료기기 업체와 임상현장(의사)의 협력 성과를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개발·개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또 지역 중소기업은 공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축적·향상과 함께 대형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으로 시험제작·개발 역할을 담당할 기회가 확대
- 의료기기 산업은 다종다양한 기존 기기의 개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 독자적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

○(정책동향) 일 정부는 '10년 6월 발표한 '신성장전략'을 통해 의료·개호·건강관련 산업을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한 건강대국(健康大國) 전략을 7개 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

- 아베 체제 하에서 건강·의료전략실을 설치하고 건강·의료전략추진회의 등을 통해 '13년 6월 '건강·의료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각료회의가 결정한 '일본재흥(再興)전략'도 건강의 료 분야를 중점분야로 결정
- 또 의료서비스 국제화 및 외국인 환자수용을 위해 '11년 10월 설립한 메디컬 엑셀런스 재팬(MEJ)은 의료기기 수출확대 및 의료기술의 국제 전개 지원을 설립 목적에 추가
- '14년 중에는 미 국립보건원(NIH)을 참고로 일 의료분야 R&D의 사령탑이 될 '일본판 NIH'의 핵심기관인 가칭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치하는 등 건강·의료분야의 혁신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 '10년 이후 일본의 의료기기 정책

'10년 6월	신성장전략	• 산업비전에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한 건강대국전략 제시
'10년 7월	산업구조비전2010	• 의료·개호 등을 5대 전략분야에 포함. 지역경제발전 모델 제시
'12년 6월	의료이노베이션 5개년 전략	• 의약품·의료기기를 성장견인 산업으로 선정.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진단·치료시스템의 연구개발 추진
'13년 4월	신생MEJ설립	• 조직재편을 통해 신생MEJ를 설립, 의료기기의 해외전개 및 인재육성 사무국 기능 담당 민관 공동조직으로 육성
'13년 6월	일본재흥전략	• 성장전략의 하나인 건강·의료분야에 대처
'13년11월	개정약사법 성립	• 의료기기 특성을 감안한 간소화·신속한 구조 구축.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관리 의료기기에 제3자 인증제도 도입, 품질관리감사를 개별제품에서 제품군으로 변경('14년 11월 시행 예정)
'14년 중	일본의료연구개발 기구(가칭) 창설	•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 기능. 각 부처의 의료관련 연구예산을 일원화,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

- (지자체 의료기기 산업 현황) '12년 일본내 의료기기 생산금액은 약 1조 9천억 엔으로 시즈오카현(靜岡縣)이 전체의 20%로 가장 많고 도치기현(栃木縣), 도쿄도, 후쿠시마현(福島縣)이 추격
 - 후쿠오카는 외국계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제조거점이 입지하고 있는 일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산업 집적지역이지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과 제조업허가를 받은 사업소는 도쿄가 압도적
 - 또 일본내 의약품 생산 금액은 의료기기 시장의 약 3.7배로 사이타마현(埼玉縣), 시즈오카현, 도야마현(富山縣), 오사카부, 도쿄도의 5개 지자체가 전체의 40%를 차지
- (하이테크형 산업 클러스터) 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 협력, 산업·이업종 협력 등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식자산 등의 상호활용으로 신규 산업·사업을 창출하는 산업 클러스터화에 주력
 - 특히 경제산업성 '산업 클러스터 계획' 문부과학성 '지적(知的) 클러스터 창성(創成) 사업' 등 시책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대책 마련에 분주
 - 클러스터 계획 참여시 행정지원책과 보조금정보 입수,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및 특허정보 입수, 이업종 기업 교류, 기술 및 연구면의 상담, 신규 고객·판로개척 등 가능
 - 일 지자체의 하이테크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 가운데는 의료관련 산업이 핵심인 경우가 많고 '일본재흥전략'에 창설 계획이 포함된 '국가전략특구'에도 의료관련 항목이 다수 제안
 - 이는 의료관련 산업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입지기업, 관련연구시설 같은 지역 사정이나 지향하는 방향성(첨단의료기술, 지역제조업 진흥 등)에 따라 산업 고도화 전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
- (과제 및 대책) 하이테크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계자들이 비전을 공유한 후 다양한 시책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 △지역기업의 의료기기사업 참여계기 구축 △인허가 취득 지원 및 규제완화 촉진 △임상현장의 정확한 니즈 파악 △의공(醫工)협력 확대구조 마련 △대형 의료기기 업체와 지역 중견·중소기업과의 협력 촉진
 - 과거 고베의료산업도시구상('88년 간담회설치)과 '01년 구상을 책정한 후지 파마밸리(Fuji Pharma Valley) 프로젝트는 이미 10년 이상의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기록

※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실효성 강화책 시책 사례

■ 중견·중소 제조업체 참여 촉진 및 기술력 향상 지원책

- ▶ 중견·중소제조업체의 기술소개 시스템 구축
 - 의료기기 업체에 역내 제조업체의 제조기술(분야, 실적, 도입설비 등)을 상시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칭 기회를 확대. 종이나 전자매체로 역내 제조업체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작성·공개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제조업체의 제품 등을 상시 전시, 의료기기 업체가 언제 방문하더라도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중요
- ▶ 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징적 모델 프로젝트’에 도전
 - 역내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기업간 협력촉진, 젊은 인재 활용·육성에 기여할 의료기기 공동개발 사업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를 보유

■ 네트워크 구축·활용

- ▶ 역내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 임상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내 의료기관을 멤버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 대형병원 외에 개인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니즈를 수집해 개발니즈의 범용성(시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 관련 대기업의 클러스터 참여 촉진
 - 역내 중견·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및 기술력 향상에는 관련 대기업과의 연계가 효과적. 의료기기 클러스터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요구를 가미한 공모형 개발 프로젝트 모집 등이 효과적이며 이 때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전제조건으로 설정

■ 거점정비·특구 지정

- ▶ 의료기기 관련기업 유치
 - 의료기기 관련기업의 공장 유치 등은 역내 거점집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양한 시책과의 일체적인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최대화하는 작업이 요구
- ▶ 특구를 활용한 규제완화 및 종합지원책 전개
 -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실시 주체로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종합특구(국제전략종합특구, 지역활성화종합특구)나 국가가 직접 주도해 민간 및 지방 공공단체와 하나가 돼 대처하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해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책을 실시

- 대지진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은 그동안 추진했던 ‘차세대 의료관련산업집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로 ‘의료관련산업 집적’에 나서, 종합시책의 참고사례로 부각



일본 도호쿠 지역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과제

지난 '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호쿠(東北) 지역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제가 회복. 본 자료는 일본무역연수센터(IIST)가 '14년 8월 발표한 '후쿠시마, 도호쿠 의료기기 관련 산업 거점화 노력 및 장래전망(福島,東北に新しい花を咲かせようー医療機器関連産業拠点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将来展望)' 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

□ 개관

- (개요) 지난 '12년 기준 도호쿠 지역 의료기기 생산금액은 일본 전국 생산금액의 13.1%를 점유한 가운데, 제조판매 회사의 위탁 생산액도 전국 1위
 - 도호쿠 지역 내 지자체별 생산금액은 후쿠시마현(福島縣)이 전국 4위, 아오모리현(青森縣) 12위, 아키타현(秋田縣) 14위로 나타났으며, 이와테현(岩手縣), 야마가타현(山形縣) 및 미야기현(宮城縣)도 중위권에 위치
 - 특히 지난 10년간 후쿠시마현의 의료기기 생산금액 신장률(200%)은 단연 전국 최고로, 후쿠시마는 지난 '05년부터 도호쿠 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의료기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집적 정책을 추진
 - 후쿠시마현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은 역사 깊은 니혼대학 공학부와 후쿠시마현립 의대의 의공(醫工) 협력과 함께, 이종(異種) 분야 제조업의 의료기기 사업 신규참여를 강력하게 지원한다는 점
 - 이는 지난 '05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판매업과 제조업의 2가지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기 제조의 전면적인 아웃소싱이 허용됐기 때문으로, 현에서는 과감하게 신규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
 - 또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타 분야의 기업에 대해 의료 니즈·시장 분석, 제품 시험제작·성능평가 보조금, 약사법 인허가 지원, 의료기기 업체와의 상담 진행 등 일관된 지원을 전개

- 이러한 노력이 주효, 지원을 시작하기 이전인 '05년 35개였던 후쿠시마 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는 '13년 56개로 1.6배 증가

▼ 도호쿠 지역 6개 현(県)의 의료기기 생산금액 추이

(단위: 억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후쿠시마현 (福島縣)	688	942	801	911	976	1,089
미야기현 (宮城縣)	151	75	46	107	179	193
야마가타현 (山形縣)	65	125	93	169	179	199
이와테현 (岩手縣)	23	30	197	227	267	218
아키타현 (秋田縣)	300	305	332	336	377	359
아오모리현 (青森縣)	242	284	317	338	360	420

○(현황)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도호쿠 지역 내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활용, 의공(醫工) 협력과 의료기기 산업 집적 추진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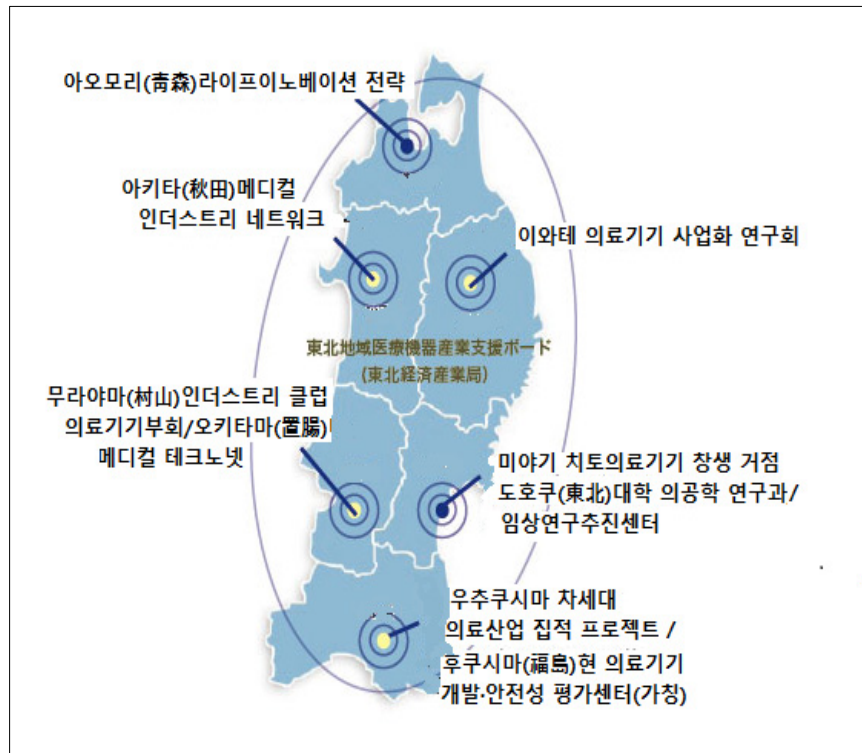
- 대표적 사례로는 △아오모리현의 ‘웰니스랜드(wellness land) 구상’ △이와테현의 ‘의료기기 사업화연구회’ △아키타현의 ‘메디컬 인더스트리 네트워크’ △야마가타현의 ‘오키타마(置賜) 메디컬 테크노넷’ 등
- 또 도호쿠 경제산업국은 지역 내 6개 현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기기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관련 기업과의 교류·사업 매칭을 지원
-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의료기기 분야에 새로 참여한 현지 기업의 사업 호조와 함께 도호쿠 지역 전역으로 확산

○(지자체 프로젝트) 현재 후쿠시마현이 '18년을 목표로 일본 최초의‘의료기기개발·안전성평가센터(가칭)’설립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프로젝트를 진행

- 의료기기개발·안전성평가센터 설립의 목적은 일본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 부문인 치료계 의료기기 시장 장악을 위한 개발거점 구축
- 도호쿠 전역에서는 도호쿠대 의공학연구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젝트인 ‘치토의료기기 창생 거점’이 개시

* 도호쿠대학 임상연구추진센터는 미충족의료(Unmet Medical Needs)를 발굴하는 바이오디자인 부문을 설립,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환경과 사업화 지원 구조를 정비

- 이 밖에 아오모리현은 ‘아오모리 라이프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의료기기 업체와 기술을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계 GE헬스케어 재팬은 아오모리현과 연계해 낙후지역에서의 새로운 의료모델 구축을 추진



▲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관련 산업 프로젝트

□ 중앙 정부 지원 및 과제

- (지진 피해 복구 예산) 일본 중앙 정부는 지진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에 대규모 피해 복구 예산을 투입
 - 후쿠시마현은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의 산업집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복구 예산을 활용, 의료기기 개발을 담당하는 현내 기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 이 보조제도는 테마 당 최대 3억 엔의 초대형 지원으로, 단순한 시험제작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산·약사(藥事) 전략에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제도가 설계

- 현재는 46개 테마가 선정된 상태로, 각 기업은 의료기기 업체와 연계해 제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우수한 가공기술 수출을 목표로 한 해외사업 전개에도 착수
-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얻었지만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
- (과제) 중앙 정부의 복구 예산 소진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 전략 구축과 진정한 의미의 산관학 협력이 요구
 - 후쿠시마현은 지진 피해 복구 예산 덕택에 의료기기 회사의 신규진출과 대형 설비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밝지만, 복구 예산이 소진되면 기업 유치가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향후 10~20년을 염두에 둔 장기적 산업진흥·집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과 학계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산관학 협력’이 필수
 - 거점화·산업집적은 단순히 기업의 수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업이 아닌, 인재를 적극 유치·육성하는 작업이 핵심
 - 이와 관련, 업계는 의료기기 엔지니어와 품질보증 검사 인력, 지자체는 사업화 지원 담당, 코디네이터, 약사(藥事) 등 인재 육성에 주력하는 작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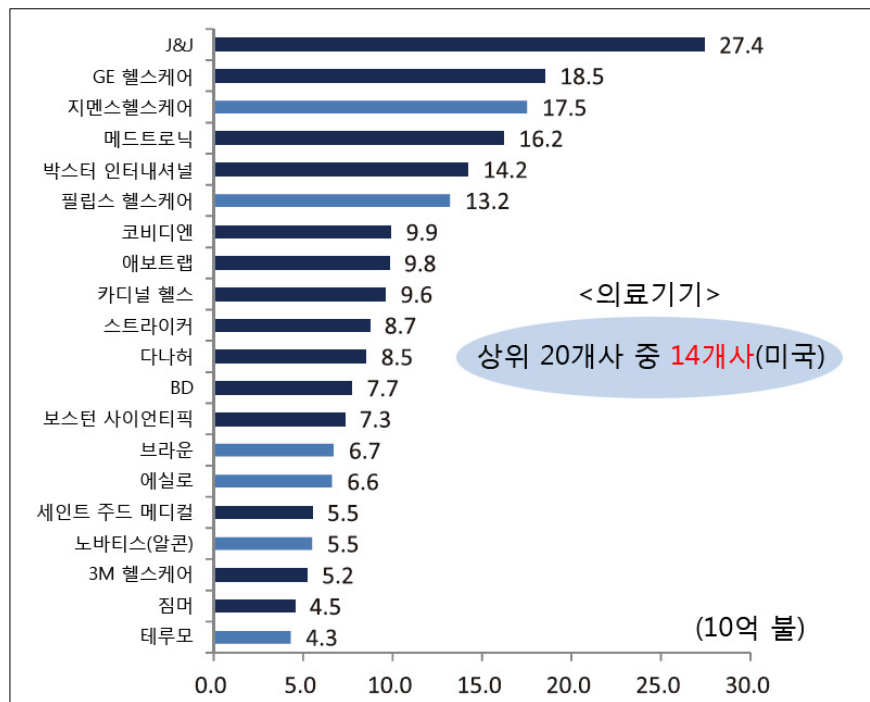
일본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조건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성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본 자료는 일본 미즈호정보총연이 '14년 11월 발간한 보고서 '일본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日本の医療機器産業が世界市場で勝ち抜くためには)' 을 통해 일본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의료기기 업체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조건을 분석

□ 전환기의 일본 의료기기 산업

- (개요)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의료 및 요양 분야의 산업 진흥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이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3천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오는 '17년 4천344억불까지 확대될 전망
 - 이와 관련, '11년 일본 의료기기 시장은 약 2조4천억엔 규모로 15년 전과 비교해 1.23배 정도 확대됐지만 성장률이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
 - 이는 일본의 의료기기 수출입이 '11년 5천870억엔 정도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적자 규모가 매년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단계 기기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치료계 기기는 수입액과 수출액에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적자 상태
 - 또 '11년 기준 치료계 기기는 일본 국내시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진단계 기기 시장은 보험세에 있어 진단계 기기가 강점인 일본의 의료기기 산업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의료기기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면 치료기기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수

- (일본 의료기기 산업의 위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국내 1위 기업이 글로벌 매출순위 20위에 그칠 정도로 미국·유럽기업에 뒤쳐진 상황
 - 특히 미국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순위 상위 20개사 중 14개 기업이 미국 기업일 정도로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 (아래 그림 참조)
 - 이처럼 국제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의료기기 업체의 65%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며, 매출 규모가 100억엔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는 업계의 구조도 또 다른 원인



▲ 주요 의료기기 업체 매출 ('12년)

- (미·일 기업의 전략 비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의료기기 업체의 사업전략을 비교 하면 △인프라 △인재육성 △판매금융 등 3가지 부문에서 차이가 확연
 - 미국 기업의 '인프라' 관련 노력으로는 민관협력(PPP)을 통한 병원건설 및 신축과 현지 의료기관 인수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인재육성’ 노력으로는 유학과 연수를 통해 해외 기업의 의료기기 제조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구조’ 창출 등
 - * 예를 들어 미국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클러스터에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공동으로 R&D를 진행하는데, 저명 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학회에서 발표함으로써 기업은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방식
- 마지막으로 ‘판매금융’은 일본 기업이 일반적으로 일괄지불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리스나 대출을 활용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의료기기 리스를 통해 대형 진단기기 같은 첨단 제품부터 소모품 같은 일반 제품 상품까지 일괄 제공해 의료기관에 대한 편의를 향상하고 자사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자사 제품 판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수익을 창출
- 대출로는 저금리 대출과 이익공유(Profit sharing)가 있는데, 저금리 대출은 개도국 의료기관이 대형 의료기기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익공유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실시한 진단·치료비를 병원 측과 의료기기 업체가 나눔으로써 실제로 기기를 사용한 이익으로 장기간 변제하는 방식

□ 일본 의료기기 산업 성장 전략

- (의료인재 육성) 현재 일본 의료기기 업체가 실시하는 인프라 관련 노력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현지 국립병원 신축이나 의료인재 육성 등
 - 그러나 ODA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 종료 시기가 있어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
 - 또 의료법인들이 해외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별 의료기관이 진출하는데 그칠 뿐 글로벌 기업처럼 의료체인 진출, 현지 병원에 대한 출자 등 현지 의료 인프라를 장악할만한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인재육성’은 각 기업이 자사제품 연수를 위해 상대 국가에 의사를 파견하거나 일본 내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 중
 - 대학들 역시 대학간 협력 등을 통해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각국에서 유학생이 모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그 규모나 효과가 미미한 수준
 - 또 ‘판매금융’의 경우,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기본적으로 본선인도조건(FOB)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 판매는 현지 대리점에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일본 의료기기 사업에 현지에서 론이 포함되는 경우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니라 현지대리점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판매금융과 관련한 리스크를 미수용
 - 또 개도국에서 판매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현지 대리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이 판매금융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
- (글로벌 생존 전략)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내각관방건강·의료 전략추진본부에‘차세대 의료 ICT태스크포스’설치를 검토 중
- 이 태스크포스는 차세대형 고도 의료기기, 병원시스템 개발·활용 촉진, 임상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활용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키워드는 ‘정보 인프라’
 - 일본 정부는 의료정보 플랫폼을 정비함으로써 △병원경영 고도화 지원 △진료지원 △기기개발 등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고 판단
 - 특히 이들 3가지 요소는 일본 국내는 물론, 의료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고 인재육성이 필요한 개도국에 필요
 - 이들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가 노력할 부분은 디지털기술이나 ICT를 도입한 의료기기 개발, 자사 제품을 고집하지 않는 기기개발 협력, 필요정보 공개, 공유정보 플랫폼 참여 등
 - 이러한 민관협력을 통해 현지 의료인프라 고도화 및 의료인재 지원 구조 구축 등 의료기기 판매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면 일본 의료기기 업체들도 미국·유럽 업체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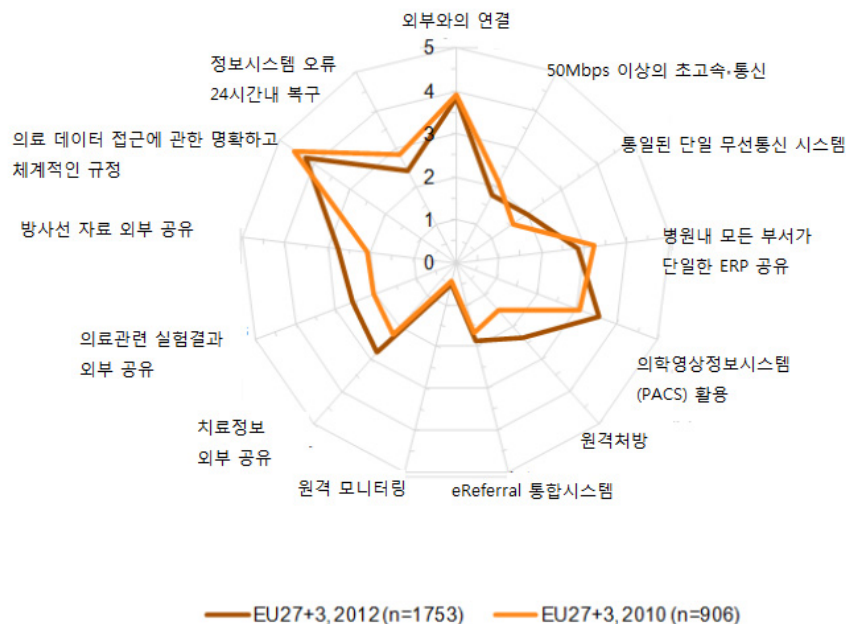
EU의 eHealth 현황 및 정책 시사점

EU는 e-Europe 전략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eHealth’를 선정하고 꾸준히 추진. 본 자료는 EU집행위원회가 ‘14년 3월 발표한 ‘유럽 병원 서베이 : e헬스 확산 현황과 시사점 (European Hospital Survey: Benchmarking Deployment of eHealth services 2012-2013)’을 통해 ICT 기반의 의료 정보화 인프라의 보급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

□ eHealth의 의미와 서베이 결과

- (의미) eHealth는 의료정보학, 공공보건, 비즈니스, 정보기술, 의료 서비스의 교차점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
 - EU집행위원회는 ‘eHealth Action Plan’을 통해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별, 집단별, 연령별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와 도시화, 글로벌화에 대응할 것을 강조
 - EHR/EMR(electronic health/medical records), HIS(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원격의료, 소비자 건강 정보, 건강지식관리, 가상 헬스케어 팀 구성 및 운영이 모두 eHealth의 영역에 포함
 - 인터넷 기반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의료정보 제공 방식을 넘어 헬스케어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주의 기능들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서비스를 포괄
 - 높은 투자비용이 eHealth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EU 차원에서 각종 규정과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결정자들의 노력도 지속*
 - * <eHealth Action Plan 2012-2020>에서는 특히 상호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현황) 이 서베이는 EU 27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27+3개국)의 병원들을 중심으로 eHealth 보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eHealth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
 - EU27+3개국의 eHealth 수준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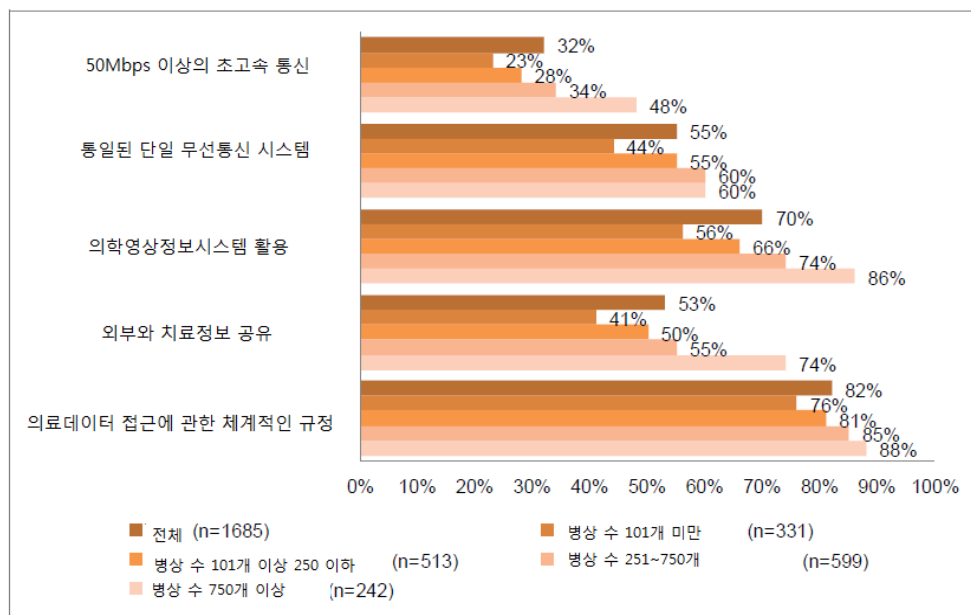
- 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eHealth 확산의 둔화 속에서도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부분의 경우는 활용 사례가 61%에서 70%로 늘어나 발전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
 - EMR/EHR/ERP를 활용하는 병원의 비율은 '10년과 유사한 80% 이상을 기록했으나 병원 온라인 ERP 시스템에 환자가 접속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여전히 9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자세
 - 치료정보와 의료관련 실험결과를 외부와 공유하고 교환하는 병원이 50%를 소폭 상회하면서 그렇지 않은 병원(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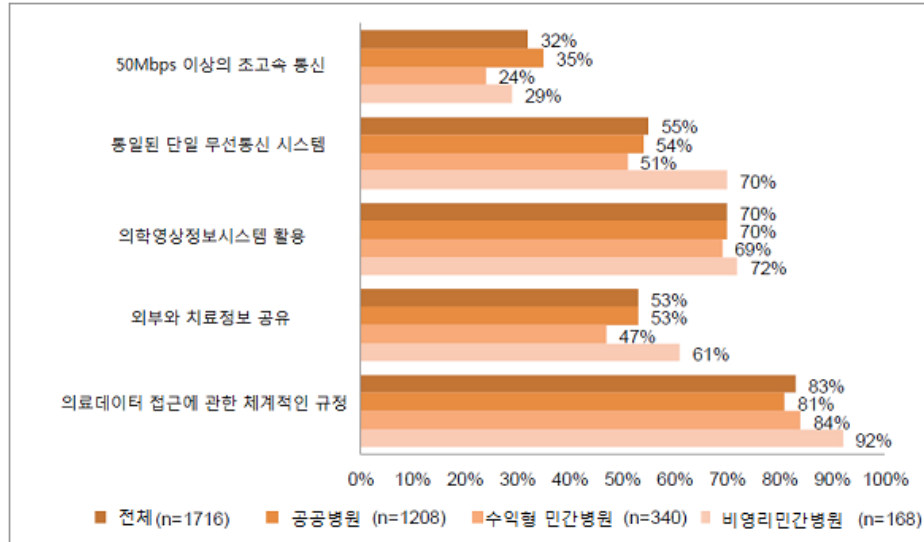
▲ EU 27+3개국의 e Health 구현 현황 비교 (2010 vs. 2012/2013, 5점 만점)

- (병원규모와 유형별 차이) eHealth 활성화 정도는 병원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eHealth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
- 병상 수 101개 미만의 소규모 병원은 통신 인프라 확보부터 정보시스템 활용과 정보 공유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eHealth 실현을 위한 조건 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
 - 단, 의료데이터 접근에 관한 규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병원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병원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익 추구형 민간병원이 eHealth 기반구축 및 활용에서 뒤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비영리 민간병원의 수준이 가장 높고 공공병원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
- eHealth 인프라와 기능이 갖춰진 병원들의 경우 병원의 규모나 유형과는 무관하게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Health에 대한 투자가 허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과 밀착되어 있음을 시사



▲ EU 27+3개국의 병원 규모별 e Health 도입 현황 비교 (2012~2013)



▲ EU 27+3개국의 병원 유형별 e Health 도입 현황 비교 (2012~2013)

□ 정책 시사점

- (정책제언) 최근 eHealth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병원 규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eHealth 인프라와 자산과 관련, ‘핵심 센터(center of excellence)’가 될 수 있는 대형 병원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다른 병원의 eHealth 역량을 선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견인하는 전략을 제안
 - 의료 데이터 및 시스템의 호환성 향상은 eHealth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04년도 Action Plan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이슈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14년에는 EU가 중점 정책분야로 주목할 것을 권고
 - 의료 데이터의 교환과 정보 시스템 접근에 따른 사생활 보호 문제와 관련,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병원 차원에서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
 - 병원의 ICT 전략 기획 수준을 높이기 위해 ICT 인력 및 예산 확보 전략과 구체적인 헬스케어 ICT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에 나설 것을 제안



국제 의료기기 단일 검사 시범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별 의료기기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확대. 이와 관련, 본 보고서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이 '14년 1월 발표한 'IMDRF의 의료기기 단일 검사 프로그램 : 국가 간 연합 시범 프로그램(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International Coalition Pilot Program)'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 협력을 위한 움직임을 검토

□ 개요

- (단일 검사 프로그램의 배경)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
 - 이와 관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 IMDRF)은 '12년부터 '의료기기 단일 검사 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 MDSAP)'에 대한 준비를 진행
 - IMDRF는 MDSAP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결성한 후 '14년 1월부터 의료기기 제조과정 감사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
 -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술, 자원,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IMDRF에는 미국·EU·캐나다·일본·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의 의료기기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해 활동
- (MDSAP의 목적)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은 MDSAP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협력을 추진
 - MDSAP 시범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FDA, 캐나다의 Health Canada, 호주의 TGA, 브라질의 ANVISA 등 관련 규제당국이 동참하고,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는 공식 옵서버로 참여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과 더불어, 공중보건을

-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
- 각국 규제기관의 권위와 자율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과 업무 공유 방식을 통해 효과적이고도 유연한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
 - 규제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예측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참여 방식 및 절차도 표준화
 - 단일한 검사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참가국 규제당국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 MDSAP 시범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비고
단일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할만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	단일화 효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	기본 요구사항
공중보건 보장 동시에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과도한 부담 경감	규제의 부작용 방지
각국 규제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고 조화로운 협력 활동 추진	각국의 고유한 상황 고려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규제와 기술적 요구사항의 연관관계 확보	-
규제 프로그램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표준화 필요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규칙 부합성 평가구조를 활용	기존 규제 자원 활용

□ 시범 프로그램의 상세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체 참여) '14년 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 진행기간 동안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MDSAP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범기간 중에는 6개월 마다 인증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MDSAP의 평가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MDSAP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
 - '14년 1월 시작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수의 MDSAP 검사 조직(Auditing Organization)들이 '14년 6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실무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
 - 현재 캐나다에서 의료기기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CMDCAS(Canadian Medical Devic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등 기존 업체들이 '14년 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있어 MDSAP 감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참가국별 활용 계획) MDSAP에 참여한 회원국 규제기관들은 다자간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 안전 및 감독을 위한 평가 구조 도출에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활용 계획을 검토
 - 호주의 TGA는 MDSAP 검사 보고서를 의료기기 출시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증빙 중 일부로 활용할 계획
 - 브라질의 ANVISA는 MDSAP의 결과물을 자국 내 의료기기 출시 전후 평가 절차에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출시를 위한 규제 및 기술 평가 관련 핵심 정보로 활용할 계획
 - 캐나다의 Health Canada는 MDSAP의 검사 자료를 자국내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인 CMDCAS(Canadian Medical Devic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의 일부로 적용하고,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경우 캐나다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 규제에도 활용할 방침
 - 미국의 FDA는 MDSAP의 검사 자료가 통상적인 FDA 조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PMA(Premarket Approval)을 위한 조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

▼ 국가별 MDSAP 활용계획

국가(규제기관)	활용계획
호주 (TGA)	MDSAP 검사 보고서를 의료기기 출시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는 증빙자료로 활용
브라질 (ANVISA)	MDSAP의 결과물을 자국 내 의료기기 출시 전후 평가 절차에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출시를 위한 규제 및 기술 평가 관련 핵심정보로 활용
캐나다 (Health Canada)	MDSAP의 검사 자료를 자국내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인 CMDCAS (Canadian Medical Devic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의 일부로 적용하고,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경우 캐나다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 규제에도 활용
미국 (FDA)	MDSAP의 검사 자료가 통상적인 FDA 조사 절차를 대체하되 PMA(Premarket Approval)을 위한 조사 등에는 적용안할 방침

- (기대 효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평가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적용
 -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ISO/IEC 17021의 내용과 다양한 문서자료를 통해 도출한 참가국 규제당국의 요청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효율성을 도모
 - 의료기기 제조업체들과 검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품질 규제와 업체의 활동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도출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부문의 융합과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환자의 건강에 이익이 되고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IMDRF 규제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장기적, 단기적 목표에 국제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급성장하는 홈 헬스케어와 건강 데이터 활용

가정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진료가 가능한 홈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활용 기회와 선결 과제들이 거론. 본 자료는 시장조사 업체 미국 IHS테크놀로지가 '14년 4월 발표한 '홈 헬스케어 기술 보고서 2014(Home Health Technology Report-2014)' 와 모비헬스뉴스가 5월 발표한 '18년 홈 헬스 장비 및 서비스 수익 126억불(Revenue from home health devices, services to be \$12.6B in 2018)을 통해 홈 헬스케어 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정리

□ 홈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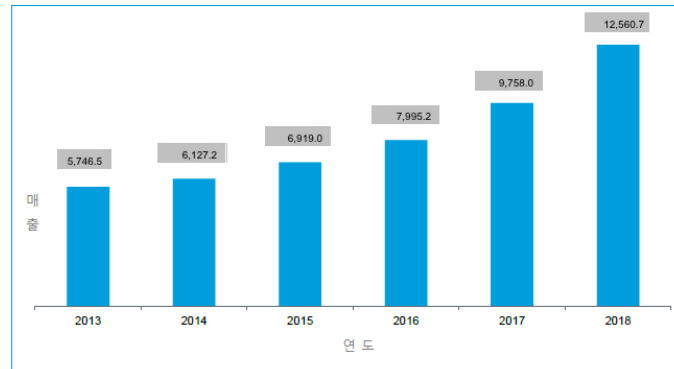
○(시장규모) 병원 대신 가정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한 홈 헬스케어(home healthcare) 시스템의 확대 추세에 따라 관련 장비와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

- 시장조사 업체 미국 IHS테크놀로지(IHS Technology)에 의하면, 전 세계 가정용 헬스기기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13년 57억불에서 오는 '18년에는 126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 IHS는 홈 헬스케어 시장을 ① 독립적 리빙 서비스 ② 소비자 의료기기 ③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④ 개인응급응답시스템(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 PERS)* ⑤ 웨어러블 기술 ⑥ 헬스 게임 등 6개 분야의 합으로 정의

* 환자나 고령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의료 콜센터에 연락되도록 하는 시스템. 콜센터에서는 가족이나 의료인 등에게 연쇄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

- 홈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는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관리에 중점을 두는 최근의 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애주기 동안 헬스케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 홈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 ('13-'18년, 단위 : 백만불)

- (추세와 전망)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사용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헬스케어 기기들이 증가
 - 이동 중 응급사항 대응이 가능한 mPERS 기기의 경우, 원격진료·활동 모니터링·통합 심박 수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를 장착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의료진과 연결



▲ mPERS

- 현재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상의 환경에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5~10년 후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실제 디바이스 제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 홈 헬스케어 기기 사용자/환자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이 같은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

□ 홈 헬스케어 확대에 따른 의료 데이터 활용과 이슈

○(홈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미국의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 기기의 보급과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홈 헬스케어를 통해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 미국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 UCSF)의 'Health eHeart Study Initiative'는 소셜 미디어, 모바일 기술, 새로운 센서들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전송되는 상세 건강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심장질환의 관리 및 개선 방안을 연구
- 미국 스크립스병진과학연구소(Scripps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 : STSI)가 전자 업체 퀄컴과 함께 진행 중인 'Wired for Health Trial Projec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자금지원을 받아 다양한 모바일 의료기기 센서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
-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공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들이 스스로의 건강과 웰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홈 헬스케어 기기의 의료 데이터가 향후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주요 이슈) 홈 헬스케어 기기를 통한 개인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과 가치창출 기회가 막대한 만큼 수반되는 위험도 큰 만큼 이를 통해 제기되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 ① 개인정보 보호 : 홈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의료관련 기관 외에 다른 조직들에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외에도 개인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적·정책적 장치가 필요
- ② 비용 : 건강 데이터를 헬스케어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기 및 통신비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환자의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기관간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은 여전히 홈 헬스케어 확대의 장벽으로 작용
- ③ 데이터 신뢰성 : 홈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숙련된 의료진이 아닌 환자들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진료 및 처방을 할 경우 리스크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홈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이슈

이슈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 수집된 정보가 의료기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개인 건강 데이터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 개인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적·정책적 장치 구비 요구
비용부담	- 건강 데이터 제공 비용, 환자의 데이터 통합 관리 비용, 의료기관간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한 비용 발생 - 데이터 활용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
데이터의 신뢰성	- 환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우려 - 환자 제공 데이터를 근거로 진료 및 처방을 할 경우 리스크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법 필요
데이터 관리	- 현재는 환자의 건강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활용 중요 - 향후 막대한 데이터를 정리 및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확보 및 프로세스 수립이 요구

- ④ 데이터 관리: 환자의 건강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활용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다음 단계는 막대한 데이터를 의사들이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니터링과 정리를 위한 새로운 인력과 프로세스가 요구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

헬스케어 산업이 제 3차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의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 본 자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미국 맥킨지(McKinsey & Company)가 ‘14년 7월 발표한 ‘헬스케어의 디지털 미래(Healthcare’s digital future)’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조직들이 향후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참조해야 할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와 수요자들의 진정한 니즈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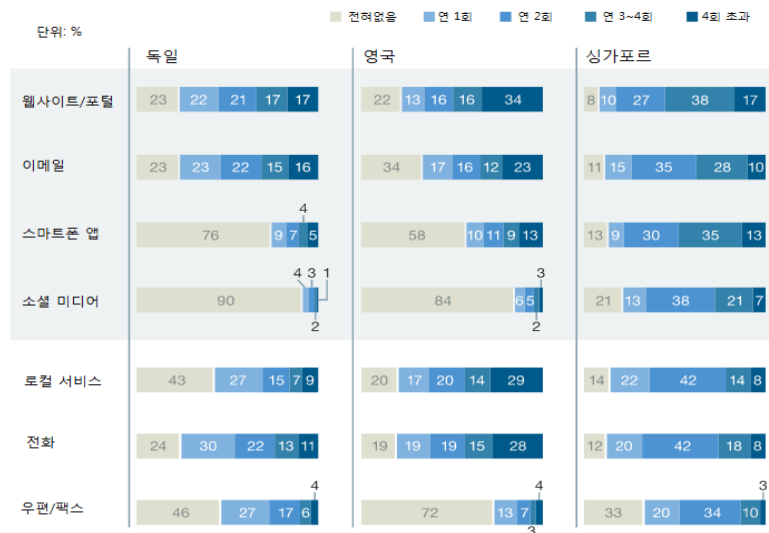
□ 배경과 개요

- (배경)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도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장려 정책을 추진
 - 헬스케어 업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채택과 적용은 ① 1950년대의 회계 및 사무운영 자동화 단계와 ② 1970년대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 통합 및 공급망 관리 등 B2B 프로세스 지원 단계를 거쳐 ③ 현재는 헬스케어 업무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단계로 진입
 -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은 미국의 ‘경제적·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과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의 ‘정보기술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IT)’ 같이 정부 차원에서 독려할 만큼 주요 이슈로 부각
 - 또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로 이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헬스케어 기관 운영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프로세스’ 위주로 추진되던 전략도 환자 등 ‘의료 수요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
- (개요)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징을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맥킨지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규명
 - 영국의 N3 통신망(N3 communication network)이나 독일의 안전텔레매틱스 플랫폼(secure telematics platform)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운영전략이 요구

- 맥킨지는 다양한 연령, 인종, 성별, 소득 배경을 지닌 환자 수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이해’를 분석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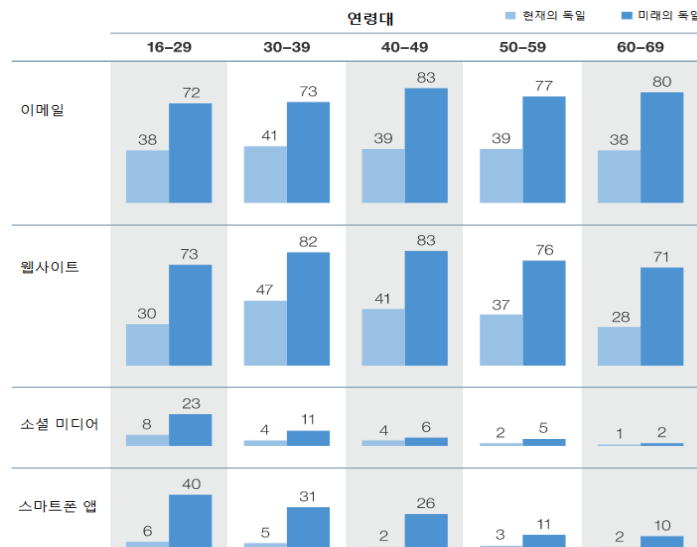
- (오해와 진실 1) 헬스케어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선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충족해주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
- 독일, 영국,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환자의 75% 이상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폰 앱 등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선호 역시 강한 것으로 확인



▲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료정보 채널

- (오해와 진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ICT에 익숙한 젊은층이 선호하고 노년 환자들은 소외되거나 무관심하다는 지적은 잘못된 사실로, 실제로는 노인 환자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을 희망
- 이메일과 웹사이트 등 전통적인 온라인 매체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의사는 젊은층과 고령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

- 영국과 독일의 고령 환자 중 70% 이상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사를 밝혔고 싱가포르의 경우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독일에서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서 현재의 약 2배 정도로 증가
- 단, 노년층은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반면 젊은층은 소셜 미디어나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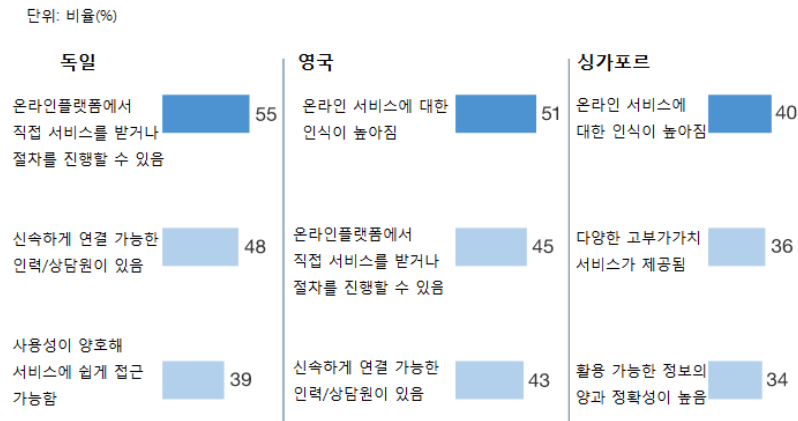


▲ 채널별 디지털헬스시스템 이용 현황 (독일) : 연 1회 이상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

- (오해와 진실 3)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모바일에 대한 수요는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선 이들을 겨냥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모바일 수요가 확산되는 과정이 나타날 전망
 -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을 발굴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판별하는 기준도 다각화될 필요
- (오해와 진실 4)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자들이 혁신적인 기능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원한다는 지적은 근거가 희박하며, 이들은 우선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바라는 것으로 확인
 - 서베이 응답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서비스 채널 통합,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원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지목

- 반면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 보다 나은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기능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건이라고 대답



▲ 온라인 헬스케어 채널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Top 3 비교

○(오해와 진실 5)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처음부터 대규모 서비스로 시작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싱가포르 응답자들은 초기부터 모든 서비스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
- 따라서 ① 헬스케어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②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③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전략이 요구



디지털 헬스테크의 주요 이슈와 혁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계에서는 개인별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소비자들의 건강과 사회의 보건 의료 시스템 수준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헬스테크(Health-Tech)가 주요 화두로 부각. 본 자료는 ‘환자의 여정 : 연계, 데이터 및 혁신(The patient journey: Connections, data,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14년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헬스비트 2014(HealthBeat 2014)’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테크의 주요 이슈와 혁신사례를 분석

□ 개요

- (개요) 헬스케어와 첨단 정보기술의 결합을 모색하는 ‘헬스비트 2014(HealthBeat 2014)’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테크(Health-Tech) 관련 주요 업체들과 신생 기업들이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사례를 공유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방향과 의료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신생 기업들이 개발한 디지털 헬스테크 관련 혁신 제품들을 소개
 - 행사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논의된 주제는 다음 5가지
 - ① 환자의 재량권 및 공동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기술
 - ②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플랫폼
 - ③ 헬스케어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
 - ④ 전통적 의료기술과 디지털 헬스기술의 교차점과 융합 과제
 - ⑤ 환자 진료이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과제

□ 혁신적 신기술 · 신제품

- (신생 기업 베스트10) 헬스비트 컨퍼런스의 혁신 기술 공개행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헬스테크 제품과 기술이 선보인 가운데, 특히 이 분야 신생 기업 중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10개 기업들이 ‘베스트10’으로 선정

- 공개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품과 기술을 시연한 뒤 NVP·컴캐스트 벤처스(Comcast Ventures)·에디슨 네이션 메디컬(Edison Nation Medical) 등 보건의료 분야 벤처캐피탈 업체들과 투자 상담을 진행
- 테크놀로지 전문 미디어 테크비트(TechBeat)는 각 기업의 기술 플랫폼 수준과 헬스케어 전달 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베스트 신생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이 선보인 기술과 제품의 특징을 분석
- 베스트10 기업들은 단순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부터 의료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최근 디지털 헬스테크의 주요 트렌드와 적용 분야가 뚜렷이 반영

▼ 디지털 헬스테크 부문의 신생 기업 베스트 10의 헬스테크 기술 및 제품 개요

기업	헬스테크 기술 및 제품의 개요
Big Health	수면장애를 교정하는 애플리케이션 'Sleep.io app'
Bright.md	건강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는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포털
Doctor on Demand	화상전화 기반의 원격진료 및 처방 서비스
Hygeia Health	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전문 키오스크
Infermedica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을 통한 메디컬 의사결정지원 S/W
Omicia	인간게놈 시퀀스 분석시스템 및 게놈 데이터 통합 서비스
QPID Health	의료 업무를 지원하는 EHR 시스템 최적화 플랫폼
RxMatch	모바일 기반의 전자 처방 플랫폼
Zephyr Health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Syapse	의료기록 및 처방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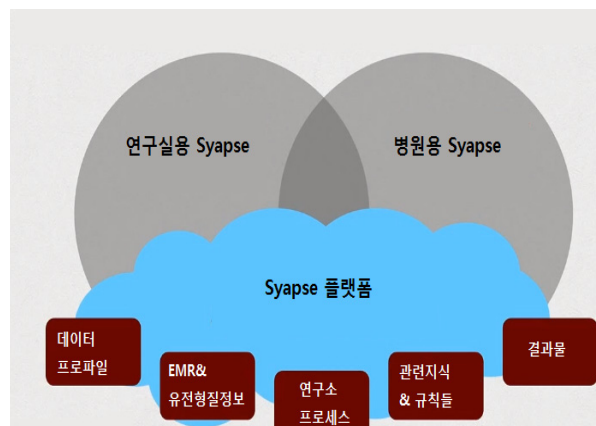
○(기술 및 제품의 특징) 디지털 헬스테크 신생 기업 베스트 10의 기술과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

- 첫째, Big Health의 Sleep.io 애플리케이션은 인지요법을 적용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 이 제품은 실제 수면장애 치료사와 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치료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상담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둘째, Bright.md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복약 현황·보험 등 의료 데이터를 입력하면 의사의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
 - * 이 같은 원격진료 모델은 Brigh.md 외에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선보일 만큼, 디지털 헬스테크 분야에서 인기 있는 사업모델로 부상
- 셋째, Doctor on Demand는 화상전화 방식으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실시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
 - * 이 서비스는 특히 응급처치와 관련해 95% 정도의 문제해결 성공률을 기록함으로써 환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넷째, Hygeia Health는 환자가 의사 진료실에 들어서기 전 주요 생체신호 측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전문 키오스크를 구축
 - * Hygeia Health는 키오스크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환자의 의료기록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재 EHR 벤더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
- 다섯째, Infermedica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을 통한 메디컬 의사결정지원 S/W를 개발
 - * 이 S/W는 환자가 입력한 증상과 병력 데이터를 의사가 보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입력하면 자동 데이터 처리를 통해 의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안해 의료적 판단을 지원

▲ Infermedica의 의사결정지원 S/W

- 여섯째, Omicia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인간게놈 시퀀스 분석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면 유전자 검사·분석·결과 도출·데이터 저장의 일괄 처리가 가능
 - * Omica가 이 솔루션과 함께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보다 유전자 데이터 결과 관리가 쉽고 편리하다는 평가
- 일곱째, QPID Health는 EHR 최적화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단 업무를 지원
 - * 이 플랫폼은 특히 EHR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치료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관을 제공
- 여덟째, RxMatch는 환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전과 주의사항을 받아가는 대신,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이 플랫폼은 의료기관 별로 고유한 브랜드 인터페이스를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고 환자 프로파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유
- 아홉째, Zephyr Health는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
 - * 이 기술은 헬스케어 기관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추출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
- 열째, Syapse는 연구실과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데이터 프로파일과 유전형질정보 등을 통합해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진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데이터(Precision Medicine Data)’ 플랫폼을 구축
 - * 정밀의료데이터 플랫폼은 환자별 의료 정보와 진료 및 처방 기록, 사후 조치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Syapse의 정밀의료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대의 도래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응용 분야는 헬스케어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본 자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가 산하 보건연구소(Health Research Institute : HRS)를 통해 '14년 11월 발표한 보고서 '초창기의 헬스 웨어러블(Health wearables : Early Days)' 을 통해 헬스 웨어러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한 뒤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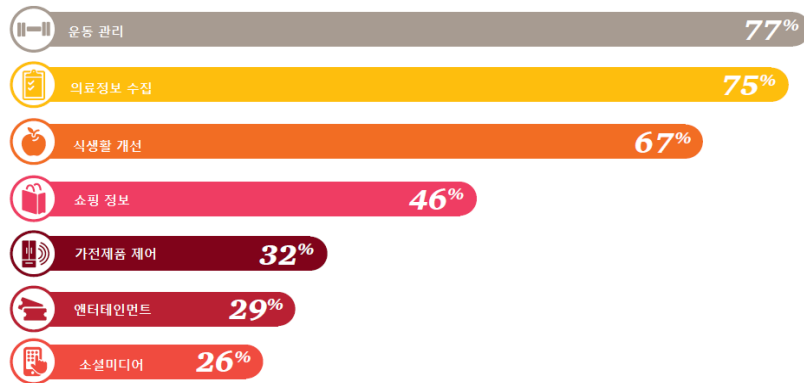
□ 개요

-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한 축)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기(Health Wearable)를 기반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 전략은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
 - 디지털 헬스 및 헬스케어용 웨어러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스타트업들은 '14년 중반까지 23억불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웨어러블을 포함한 의료관련 디지털 기기 개발 비용은 2억불을 상회
 - 그러나 이 같은 투자 열기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기술과 제품은 아직 초기 단계인 까닭에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보유한 미국인은 5%, 이들 중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
 -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기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 전략은 향후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현황, 과제 및 제언

- (현황) PwC가 '14년 8월 미국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률과 활용도가 아직 높지 않지만, 웨어러블을 통한 건강관리 및 의료정보 확보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치는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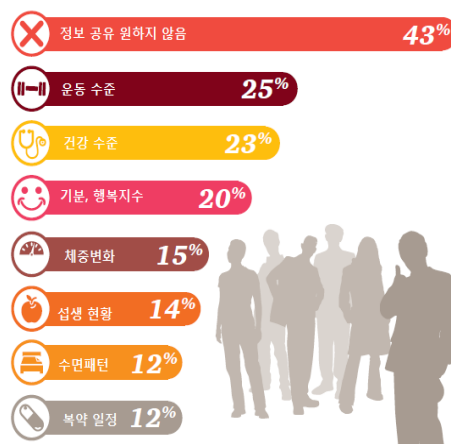
-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통해 활용하고 싶은 기능에 대해 운동 관리라는 대답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정보를 얻겠다는 응답(75%)과 식생활 개선(67%)이라는 응답도 상위에 올라 헬스케어가 웨어러블의 주요 용도임을 시사



▲ 미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용도

-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웨어러블의 형태로는 피트니스 밴드형(45%)이 꼽혔고, 시계(35%), 의류(20%), 안경(19%), 추적기(13%) 형태의 웨어러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분석
 - 또 소비자 2명 중 1명이 '15년에는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선 △가격 부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 등을 지목
 - 현재 웨어러블을 보유한 소비자 중에는 18~34세 남성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향후 피트니스 밴드형 웨어러블의 주요 구매계층은 35~54세 여성이 될 전망
- (과제) 소비자들이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격부담과 건강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
-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적정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100불 수준일 경우 구매의향이 매우 높거나(29%) 어느 정도 있다(42%)는 응답이 많았으며, △300불과 600불인 경우 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5%와 4%로 급감
 - 반면, 기업이나 보험사 등에 무기명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웨어러블을 무료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8%를 기록
 -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관련 데이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지 않겠다

- 는 응답이 43%로 나타난 가운데 가족과 친구의 건강관련 데이터를 알고 싶다는 응답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웨어러블을 통한 소셜 기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개인의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1차진료 담당의사(54%)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병원·제약회사·치과의사 등도 상위를 차지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보다는 의료 관계자에 대한 신뢰감을 확인



▲ 웨어러블을 통한 건강정보 공유 의사

- (제언) 헬스케어 웨어러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현안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업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첫째, 사용자가 헬스케어 웨어러블에 대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기기 사용 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악·게임·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
 - 둘째, 웨어러블 기기·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헬스케어 플랫폼은 다양한 연령대와 서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사용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유연성을 갖추는 작업이 요구
 - 셋째, 웨어러블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보험사·소비자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
- *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헬스케어(Northwestern Memorial Healthcare)는 환자 모니터링 및 의료정보 교육용으로 웨어러블 및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인트 조셉 머시 오�클랜드병원(St. Joseph Mercy Oakland Hospital)은 환자의 웨어러블을 통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데이터를 진료에 활용한 결과 4년간 환자 사망률이 35%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

- 넷째, 헬스케어 웨어러블 업체는 헬스케어 서비스 조직과 초기부터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하고 기기의 신뢰성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 요구
 - * 애플(Apple)은 전통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헬스케어 웨어러블 생태계에 통합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자사의 웨어러블인 애플워치(Apple Watch)를 활용하도록 지원
- 다섯째, 보험사와 고용주는 보험가입자나 직원의 건강관련 데이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이 필요
 - * 타임워너(Time Warner)는 직원들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보조금을 지급한 뒤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핏 네이션(Fit Nation)' 프로그램을 도입
- 여섯째,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소셜 기능은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하지만, 희귀 및 중증질환 환자들 사이에서는 정보공유의 욕구가 큰 만큼 이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요구
 - *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응용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서비스가 유용
- 일곱째, 헬스케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사와 보건의료 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 전문 노하우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표준을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 데이터에도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
 - * 오그메딕스(Augmedix)는 의사들이 구글글래스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검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성 및 영상자료를 기록해 환자들과 공유
- 결론적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관리 데이터 및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조8천억불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3. 화장품

▣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이해	61
▣ 글로벌 뷰티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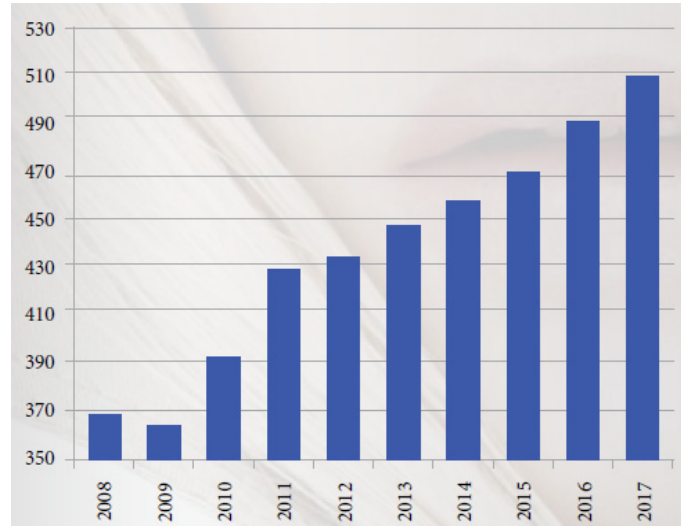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에서 GDP 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통 모델과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본 보고서는 미 도미니언 펀드 매니지먼트(Dominion Fund Management)가 '13년 12월 공개한 '글로벌 화장품 : 표적 시장에서의 현저한 성장(Global Cosmetics: Substantial Growth in Target Markets)' 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성장 현황을 분석

□ 배경

- (화장품시장의 특징)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며 모든 기업들이 혁신 및 적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
 - 화장품 산업에서는 적절한 적응 전략(adaptive strategy)이 뛰어난 성장으로 이어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은 많은 비용을 야기
 - 화장품 시장에서는 전통적 고객층 이외에도 ①신흥경제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과 ②밀레니엄세대 및 Y세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브랜드·제품·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보유
 - 신흥 부유층 고객의 등장에 따른 변화와 적응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략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작업이 요구
 - 기존의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 사이에서도 고객층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로 대두
 - 본 보고서의 트렌드 분석은 직접 판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동향 및 주요 기업들의 주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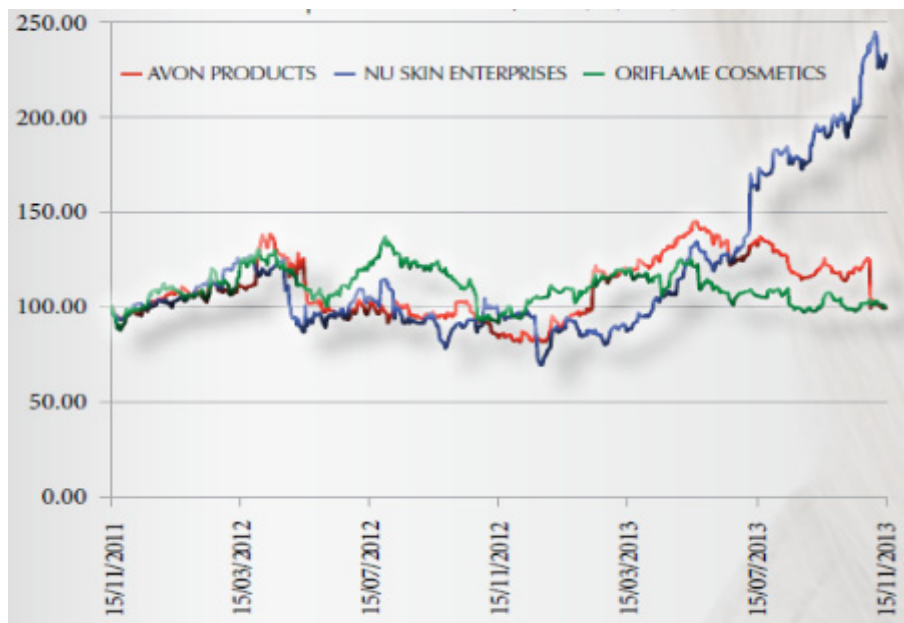
▲ 전세계 미용 및 개인위생 시장규모 추이(단위: 10억불)

□ 유통 전략

- (에이본의 사례) 화장품 방문판매 요원 '에이본 레이디(Avon Lady)'를 내세운 에이본(Avon)의 유통 모델은 '90년대 이후 북미지역에서 크게 쇠락했지만,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으로 방문 판매형 화장품 사업 모델이 르네상스 기회를 확보
 - 방문판매의 선도 기업인 에이본의 유통 모델은 북미, 중국, 남미에서의 시장축소와 경쟁 심화 등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오버헤드 비용 절감 ②공급체인 간소화 ③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④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재투자 ⑤글로벌 직접 판매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채택
- (오리플레임의 사례) 스칸디나비아에 기반을 둔 오리플레임(Oriflame)은 지리적 조건에 맞춰 주요 신흥시장 대신 틈새 '프론티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지역을 장악
 - 이에 따라 ①舊소비에트 연방 소속 국가 ②칠레·에콰도르·페루 등 남미의 중소규모 국가 ③발트해 연안국가 ④북아프리카가 주요 시장
 - 그러나 이런 프론티어 시장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곳들이고, 주력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쇼핑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기존의 직접 방문판매 방식이 '11년과 '12

년에 급속하게 무력화된 것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

- (뉴스킨의 사례) 뉴스킨(Nu Skin)은 미용, 웰니스, 피트니스 등 세 분야에서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맞춘 틈새 전략과 유통 정책의 통해 직접 판매 화장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
 - 자동주문 가입자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유지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이후 20%에서 60%까지 확대
 - 이 같은 유통 시스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피라미드식 판매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국시장에서도 속-인-속(shop in shop) 방식의 판매망을 통해 규제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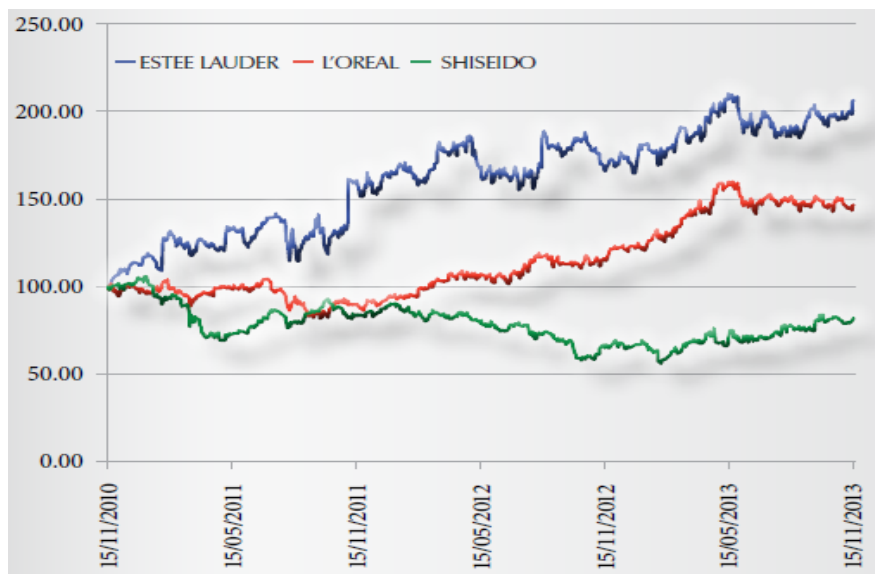
▲ 에이본, 뉴스킨, 오리플레임의 비교성과 ('11~'13)

□ 주요 업체 동향

- (3대 화장품 업체의 실적)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들 중 로레알(L'Oreal)과 에스티로더(Estee Lauder)가 다각화된 유통전략으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시세이도(Shiseido)는 일본 시장의 부진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
 - 로레알은 미용실에서 편의점까지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전문 소매

매장에서는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도 등과 경쟁하고, 일반 판매점에서는 유니레버(Unilever)와 P&G 같은 보급형 브랜드와 경쟁

- 에스티로더는 기내판매, 소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신흥 중산층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제품개발 혁신을 통해 스킨케어 신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며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
- 시세이도는 자국시장인 일본에서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2013년 9월 현재 일본에서의 출하량은 전년비 17% 감소),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증가형 전략에서 탈피해 최고급형과 보급형 시장을 함께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에스티로더, 로레알, 시세이도의 비교성과 ('10~'13)



글로벌 뷰티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

미용과 개인위생 등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소비자의 스타일과 습관을 이해하는 작업은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 개발의 첫걸음으로, 전략적 마케팅 기획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본 자료는 시장분석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이 전 세계 16개국 7천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4년 12월 발표한 '2014 개인 용모 가꾸기 서베이(Personal Appearance Survey 2014)'를 통해,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특징과 시장 트렌드를 분석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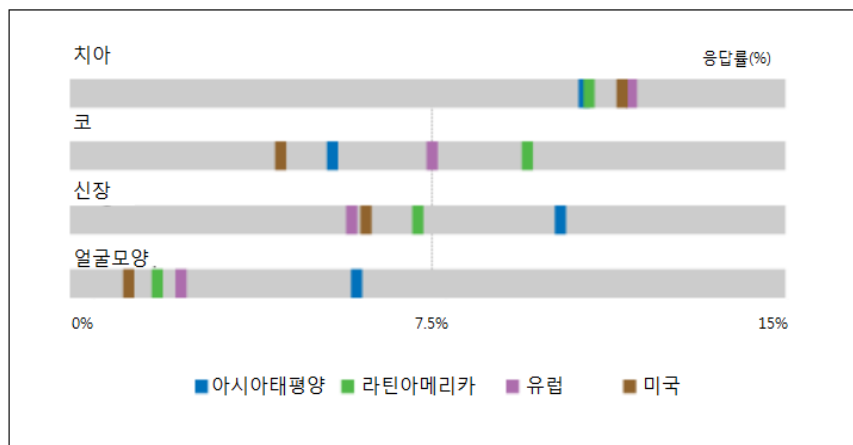
- (브랜드 충성심과 신제품 시도) 전 세계 뷰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과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품을 구매
 - 전 세계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 '13년 1천70억불을 기록했으며, 모발관리 시장의 경우 770억불로 성장
 -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개인의 외모 가꾸기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킨케어 시장과 모발관리 시장은 '14년부터 '18년까지 각각 2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들이 △편의성 △비용효율성 △분주한 생활패턴에 걸맞은 제품에 지갑을 열면서, 뷰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기능 제품 및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포착
 - 또 뷰티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방지 제품을 비롯해 구체적 목적을 가진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서베이 주요 결과

- (신체와 용모에 대한 인식) 신체 이미지와 용모에 대한 불만과 고민은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동기이자 기준
 - 서베이에 참여한 소비자 중 19%가 현재 자신의 신체 및 용모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체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미국 여성소비자는 41%가 체중을 최대 고민거리로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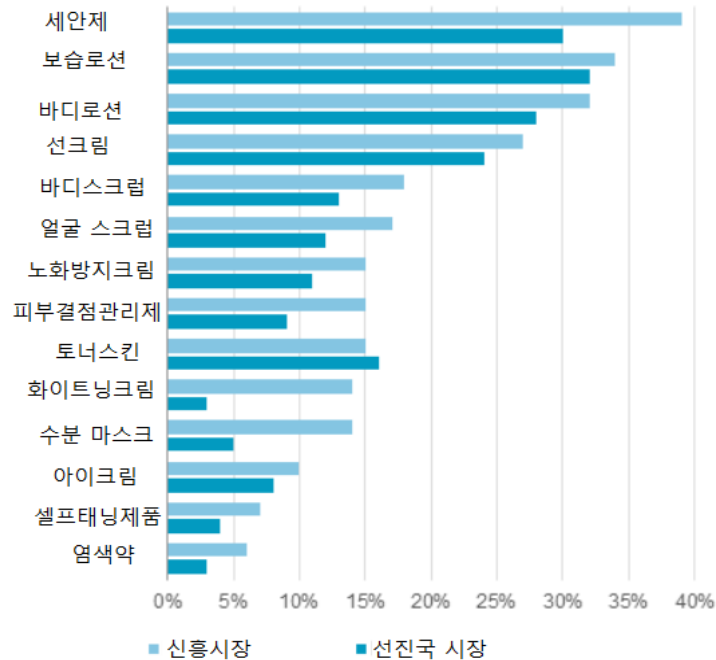
- 체중 이외 자신의 용모와 관련해 불만과 우려를 보인 신체 부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는데, 자신의 신체 중 한 부분 이상을 바꾸고 싶다는 응답률은 중국·브라질·영국·일본이 85%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90%를 상회



▲ 소비자들의 신체부위에 대한 불만족도 (지역별 현황)

○(트렌드) 신체 부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얼굴과 신체 등에 바르는 화장품 관련 최근 트렌드는 용모관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가치를 반영

- 화장품 등 각종 뷰티 제품의 유해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화장품 성분 분석을 위한 모바일 앱이 인기를 얻는 등 소비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
- 뷰티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자연성분의 제품과 △의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노화방지 제품이라는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력 상품군으로 강조하는 경향
- 개도국 남성 소비자들은 선진국 남성들에 비해 노화 방지 제품과 미백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고 실제 사용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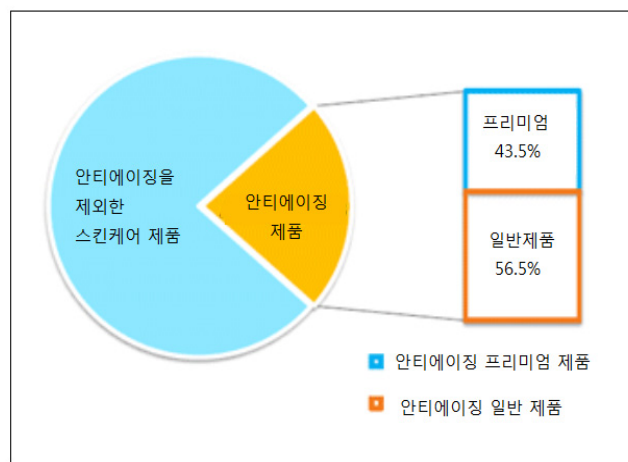
▲ 남성용 제품 사용 비율

- 색조 화장품과 향수 제품군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새로운 제품과 기능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뚜렷
- 뷰티 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채널로는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등 SNS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확산시키는 용도로 SNS를 활용
- 또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마크제이콥스,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탐 포드 등의 패션 브랜드가 에스티로더, 로레알, 세포라 등과 손잡고 다양한 뷰티 제품을 출시

□ 전망

- (시장 기회) 전 세계적으로 뷰티 업체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지난 '13년부터 오는 '18년까지 기존 메이크업 제품 외에 △BB크림 △CC크림 △얼굴에 바르는 오일형 블로터 △프라이어 등의 신종 메이크업 제품 시장이 연평균 1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이나 웹 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가 널리 확산되면서 용모와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25~29세 사이 젊은 소비자들이 항노화 제품의 주요 공략대상이 되면서, 업체들은 노화를 예방하는 스킨케어 등 다양한 안티에이징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



▲ 스킨케어 제품 판매 ('13년)

-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화방지크림 · 여드름이나 각종 피부트러블 관리 제품·화이트닝 크림 등이 주요 트렌드 제품으로 각광받을 전망
- 특히 한 제품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에 맞춰 다기능 화장품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남성용 스킨케어 시장의 경우 '13년부터 '18년까지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뷰티 제품 부문별 누적성장률 전망치 ('13-'18년)

4. 의료서비스

미국 의료보험제도 분석	71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75
오바마케어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9
미국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모델과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	83
영국 국민건강보험 개혁 진행 과정과 시사점	87
일본 의료 서비스 체제 재편 방향	91
일본 정부의 난치병 대책 및 입법화 현황	95
초고령 사회 일본의 간병서비스 정책 배경과 현황	99
일본 의료·요양서비스 생산성 개혁을 위한 과제 및 제언	103
일본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현황 및 정책 과제	107
중국을 통해 본 의료관광국 일본의 이미지	111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115
중국의 의료현황 및 일본 의료관광과의 연계	119
유럽의 새로운 1차의료 서비스 모델	123
핀란드의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 정책 모델	127
독일 의료제도의 특징 및 의료보험 현황	131
필리핀 의료관광 현황과 경쟁력	135
인도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과 혁신	139
터키의 의료관광 산업 진흥 현황	143
싱가포르의 의료제도 및 의료관광 산업 현황	147
아시아의 고령화 진행 및 요양 서비스 시장 현황	151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	15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제도	159
‘SCM’,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	163
헬스케어 ‘Triple Aim’ 달성을 위한 효율적 혁신 전략	167
2014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서베이	171
의료지출 규모의 역설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	175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트렌드와 특징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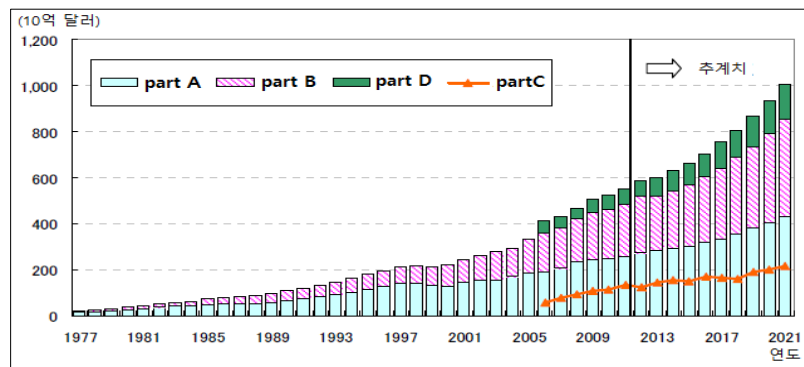
미국 의료보험제도 분석

미국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작업 속도는 더딘 상황. 본 자료는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가 '13년 12월 발표한 '미국 의료보험제도(米国の医療保険制度について)'를 통해 미국내 의료보험 현황, 의료비 상승요인, 오바마케어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움직임을 고찰

□ 주요 의료보험

- (개요)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이 없어 국민의 약 60%가 직장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이 중심 역할을 수행
 -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는데 '12년 기준 가입자는 각각 4천890만명(인구대비 15.7%)과 5천90만명(16.4%)
 - 이 밖에 개인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개인구입 의료보험(9.8%)과 군인대상 공적의료보험(4.4%)이 있는 반면 의료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도 인구대비 15.4%
 - 미국의 의료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천2백억불(연 6%)씩 상승해 '11년에는 2조7천7억불을 기록했는데, 이는 GDP 대비 17.9% 수준이며 참고로 일본의 '11년 의료비는 GDP 대비 8.2%
- (의료비상승 요인)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의료비 상승 문제로 고민 중이지만, 일본은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 급격한 고령화인 반면 미국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치료비용 증가
 - 미국은 다양한 질병·장애의 원인, 진단·치료·예방법을 연구하고 확립하며 글로벌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등 우수한 인재와 의료체제가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의료비 상승을 견인
 - 여기에 의료분야도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탓에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시장가치가 높으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단숨에 폭등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활발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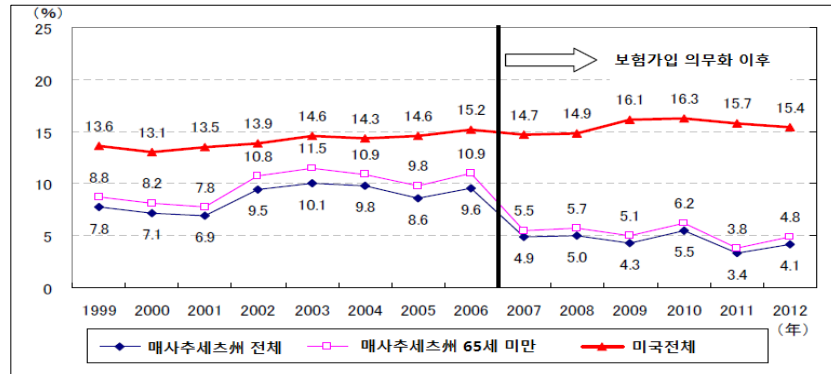
- 또한 의료사고 배상액이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어 의사들이 고액의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해 치료전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도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지적
- (메디케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으로 창설 당시는 입원시 병원비 부담을 커버하는 ‘파트 A’와 주로 외래 등에 적용되는 임의가입형인 ‘파트 B’로 시작했으나 이후 ‘파트 C’ ‘파트 D’가 추가
 - 파트 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역시절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부담해야 수급자격(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과세대상 소득의 1.45% 지불)이 생기며 현역세대가 납부한 사회보장세가 재원의 86%를 차지
 - 파트 B는 미국의 높은 진료비 때문에 파트 A가입자의 약 93%('13년)가 가입한 상태로, 가입자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외래진료 예방의료 구급이송 등 급부내용이 광범위
 - 파트 C는 메디케어 지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메디케어와 계약한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플랜을 통해 메디케어의 급부를 받는 형식이며 파트 D는 '04년 도입됐으며 처방약에 적용



▲ 미 메디케어의 파트별 지출 추이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함께 '65년 창설됐으며 저소득층과 빈곤층 대상 공적의료보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를 지원
 -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관할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소관이어서 급부대상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범위·급부기간 등이 주 별로 운영
 - 일례로 수급자격의 경우, 미네소타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기준의 215%이하 소득까지

- 인정되는 반면 앨라배마나 루이지애나는 연방기준의 11%가 아니면 수급자격에 미달
- 주별로 다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메디케이드 재정이 취약한 것은 공통점으로 장기간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 및 실업·수입 감소로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 각 주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급부 및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10년 지출총액은 3천835억불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7.8%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계속 증가
- (직장의료보험) 일본 의료보험의 중심인 직장의료보험은 민간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을 고용주가 구입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
- 보험료는 90년대 후반 경기확대기까지는 거의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
 - 그러나 고용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면서 직원들에 대한 비용 전가와 더불어 파트타임과 계약직 고용을 통해 보험료 지출을 축소, 미국의 무보험자가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직시 고액의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무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이 될만큼 저소득은 아니지만 의료보험을 개인이 지불하지 못하는 등 의료보험제도의 틈새에 남은 무보험자는 4천7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
- (전주민의료보험 시작) 미 매사추세츠주는 '06년 모든 주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용주에게도 보험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소액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
- 또한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가입이나 민간보험의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 결과, 무보험자율은 9.6%('06년)에서 5.0%('08년)으로 낮아졌으며 '12년 무보험자율도 4.1%로 미국내 최저율을 기록
 - 한편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체 의료비는 상승했지만 응급실 이용자나 무료인 건강센터에서 일반케어를 이용하는 HSN유저(Health Safety NetUser)가 줄어드는 등 의료비 내용에는 개혁성과가 가시화



▲ 미 매사추세츠주의 무보험자 비율 추이

- (오바마케어) 미국 정부는 '10년 3월 ①메디케이드 확충 ②직원 의료보험제공 의무화 ③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제정
 - 이를 통해 10년간 무보험자를 3천2백만명 줄이고 65세 이하 보험가입률을 83%에서 94%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설정
 -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시도는 여러 차례 좌절된 바 있으며 오바마케어 역시 26개 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1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합헌 결정
- (전망) 미 국민은 개인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증가할 재정부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
 - '12년~'22년 의료보험 개혁에 소요될 비용은 1천168조불로 예상되며 이 비용이 세금이나 보험료로 많은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
 - 그럼에도 주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며,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이유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의료보험개혁을 호의적으로 수용
 - 한편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민간보험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의료비 억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사추세츠와 같은 흐름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맡겨온 역사가 반복될 지 귀추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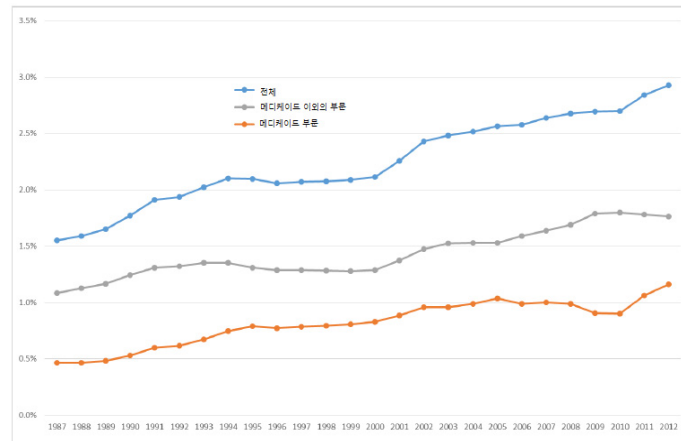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도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 본 자료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14년 4월 열린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전망 컨퍼런스(The Future of U.S. Health Care Spending Conference)>에서 '미국 헬스케어 지출이 변동 시나리오별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Alternative Health Care Spending Scenarios on Future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을 통해 향후 헬스케어 지출 확대에 따른 정부의 부담요소를 분석

□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예산 지출 추이 및 특징

- (현황)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에 지출한 예산규모는 지난 25년간 약 2배 증가했으며 '12년 현재 총 4천750억불을 기록
 - 이는 미국 내 헬스케어 총지출의 18% 수준이며,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세수(稅收)의 35%를 차지하는 규모
 - 미국 전체 GDP의 2.9%인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을 1인당 지출로 환산할 경우 1천 515불이며 당분간은 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특징)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중 약 40%를 메디케이드*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을 위한 의료보험 지출 비용이 24%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 지출 규모에서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 차이가 있고 지방 정부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일괄적인 진단과 평가는 어려운 상황
 - 그러나 헬스케어 지출이 지속적으로 급증할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선택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
- *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보험 제도



▲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비용지출 증감 추이(1987~2012,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망) 미국 정부의 향후 20년간 헬스케어 지출 전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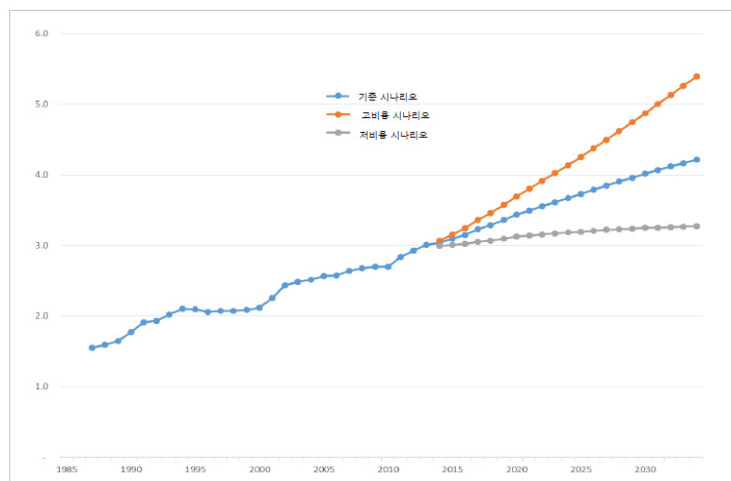
- 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이 GDP의 1.2%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② 비용확대 규모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적은 ‘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GDP의 0.3% 증가에 그치고 ③ 비용확대 규모가 기준시나리오보다 많은 ‘고비용 시나리오’의 경우 GDP의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헬스케어 비용증가는 메디케어 지출보다는 메디케어 이외 부분의 지출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메디케어 이외 부문에서 은퇴자 의료복지 비용과 기존 고용 인력의 의료보험 비용이 지출 증가 요인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주요 지출 증가 포인트)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메디케어 부문 및 메디케어 이외 부분의 주요 지출 증감 분야와 규모는 아래와 같이 전망이 가능

- 메디케어 이외 분야에서 은퇴자 의료복지 비용과 기존 고용 인력의 의료보험 비용은 GDP의 0.42% 포인트 증가
- 반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지출은 GDP의 0.38%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메디케어 부문에 대한 전망은 다소 복잡하며, 이에 따라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주요 지원 대상 집단에 대해 연방 지원금과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예산을 합산해 산출하는 비용지출 규모 예측치는 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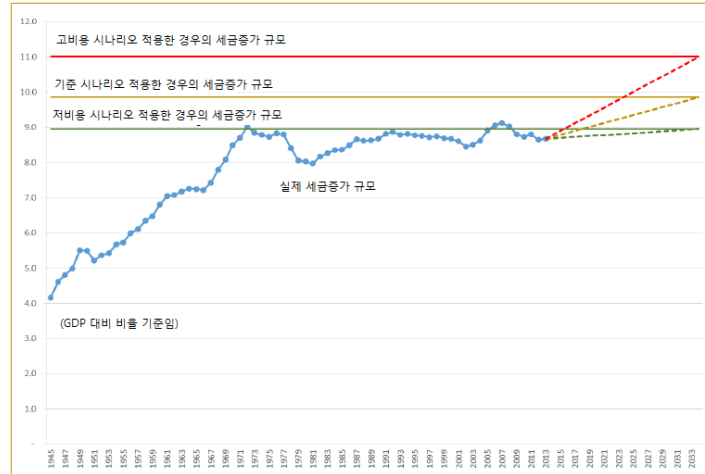
- (미래 예측을 위한 가정) 각 시나리오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고령 인구가 연간 2.63% 정도 증가하고,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4.3%라는 가정 아래 도출
 -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 인구도 '14년의 약 1천만 명에서 '22년에는 1천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 기간 중 늘어난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 인구의 약 78%는 성인이며, 이들에 대한 평균 지출비용은 현재 대비 약 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전망 : 세 가지 시나리오

□ 헬스케어 예산 지출 증가에 따른 과제와 시사점

- 과제) 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반면 고비용 시나리오의 경우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GDP 대비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헬스케어 이외 분야에 대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 삭감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정부가 헬스케어 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세수 늘려야 하는 경우,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GDP 대비 퍼센트 기준으로 지난 70년래 최대 규모인 약 20%의 세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추정
 - 이 같은 상황은 적지 않은 정치적 반발을 야기하고,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전망



▲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재원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별 세수 증가 전망

- (시사점) 헬스케어 지출 확대를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조세저항으로 증세에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헬스케어 분야의 지출삭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저비용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만 세금의 증가 규모가 큰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재정 압박이 큰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선택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따라서 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유권자들이 수혜자가 되거나 ②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삭감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감소하지는 않는 헬스케어 분야가 우선적인 예산삭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오바마케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정치적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성장률과 물가 등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본 자료는 일본 닛세이연구소가 '14년 5월 발행한 보고서 '오바마케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オバマケアの米国経済への影響)' 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정부지출 증가 및 경기, 인플레이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

□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개막

- (개요) '14년 1월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실질적인 전국민 보험제도 시대가 개막
 - 오바마케어의 최대 목적은 국민 6명 중 1명꼴인 총 4천800만 명에 이르는 무보험자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전국민 보험을 실현하고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핵심 목표로 설정
 - 그동안 오바마케어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기와 인플레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테마
 - 이는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지만 비효율적인 의료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의료가격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오바마케어 도입은 향후 미국의 성장률은 물론 다양한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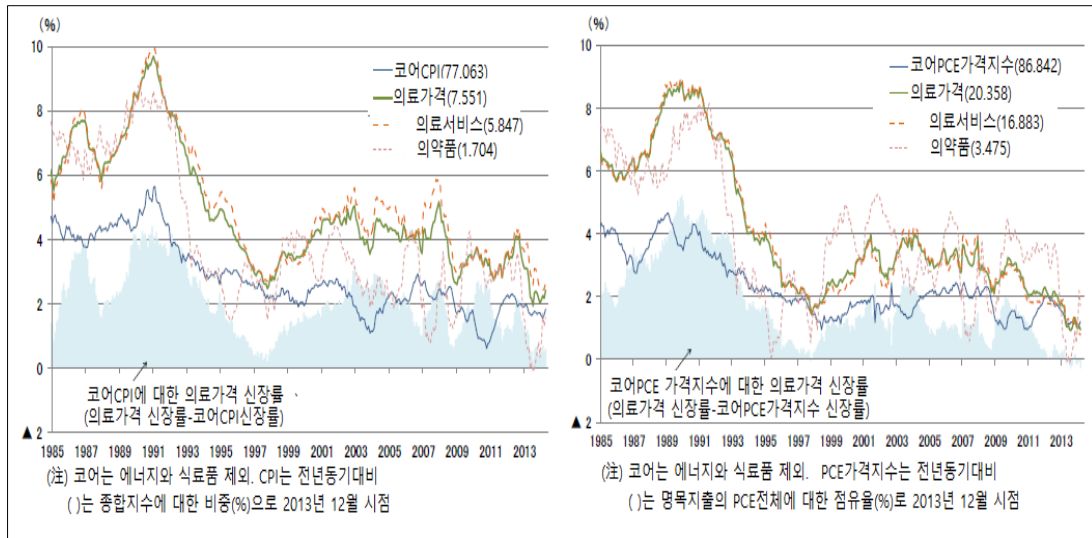
- (정부지출 및 성장률)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재량적 지출 실시 여지가 축소될 수 있지만 재량적 지출 압박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로 인해 연방정부에 오는 '15년부터 '24년까지 1조 3천830억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전체 세출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오바마케어로 인한 의무적 지출 증가는 재량적 지출 여지를 축소시켜 성장률을 낮추게 되는데, 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10년간 누적 실질 성장률을 1% 정도 낮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 본 보고서는 사회보장비 등의 의무적 지출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기타 재량적 지출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작성
- 또 오바마케어로 인한 의무적 지출 증가는 가계의 보험료 부담 감소를 유발해 보다 많은 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케어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 (개인소비) 오바마케어로 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의료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의 의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소비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GDP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
 - 오바마케어는 직접적으로 GDP, 특히 개인소비 지출 항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로 그 밖의 소비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GDP 전체를 놓고 판단할 때 GDP가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
 - 오바마케어가 본격 실시된 지 수 개월 지난 지금까지 공표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 '14년 들어 사회보장 관련 보조금 특히 메디케이드 보조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
 - 그러나 이들이 가처분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라는 점에서 가처분 소득 전체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하지만 개인소비는 지난 '13년 후반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서비스 지출이 증가한 만큼 재화에 대한 지출이 억제됐을 수 있지만 이 시기는 한파의 영향도 있어, 의료비 부담이 재화소비 침체 요인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화 소비나 서비스 소비 동향에 주목할 필요
- (의료가격의 영향- 물가) 의료가격 상승 압력은 경기악화라는 순환적 요인 이외 오바마케어로 인한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약화
 -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비효율적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가격 상승 억제가 기대
 - 이와 관련,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는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의 동향을 예측한 보고서를 지난 '13년 11월 발표

-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도입 이전부터 의료가격 상승 압력은 경기악화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가격 상승률은 전체 인플레이션이나 서비스가격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감속의 속도가 현저하다고 지적
 - 이런 가운데 오바마케어는 의료가격의 상승 둔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CEA는 오바마케어의 의료가격 억제효과는 연 0.5%p 정도로 추정
 - 결국 오바마케어 도입이 의료가격 상승을 더욱 억제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의료가격의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
- (의료가격의 영향-인플레) 의료가격을 제외한 근원(코어, core) 인플레이션은 최근 20년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장기목표인 2%를 거의 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의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디스인플레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
-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에서 의료가격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의료가격 상승이 억제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전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
 -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 근원 CPI 상승률에 대한 의료가격의 기여도는 0.3%p 정도였고 최근 0.2%p 가량으로 저하됐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0.1%p 정도에 불과
 - 반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서는 의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료가격 상승 억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저하 압력도 강한 상황
 - 금융위기 이전 PCE 가격지수 상승률에 대한 의료가격의 기여도는 0.6~0.7%p였으나 최근 0.2~0.3%p 정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 0.4%p 정도의 인플레이션의 저하 압력이 발생
 - 예전에는 의료가격 상승이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했던 부분이 크고 의료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이 2%를 넘은 것은 최근 20년래 단 한 번이란 점에서 의료가격 상승률이 기타 근원인플레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인다면 FRB의 목표인 2%의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
 - 또 PCE 가격지수로 본 재화의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마이너스 상태이고 호황일 때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재화에 대한 물가상승 압력이 없다면 디스인플레 경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
 -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의료서비스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해소되고 있어 향후 수년 내 2%의 인플레이션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의료가격 억제 효과가 크다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설

특력을 보유

- 그러나 저인플레이 상태는 금융완화 정책 실시에는 적합하겠지만 FRB는 금융완화 상황을 과도하게 지속함으로써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가 요망



▲ 미국의 인플레이율(CPI)과 가격지수 및 인플레이율(PCE 가격지수)과 의료가격



미국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모델과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을 헬스케어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 선택하는 소매시장(retail health insurance exchanges)이 급부상하면서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상. 본 자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PwC 산하 보건연구소(Health Research Institute : HRI)가 '14년 9월 발표한 보고서 '건강보험 소매시대의 도래 ([The rise of retail health coverage](#))' 를 통해 미국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모델과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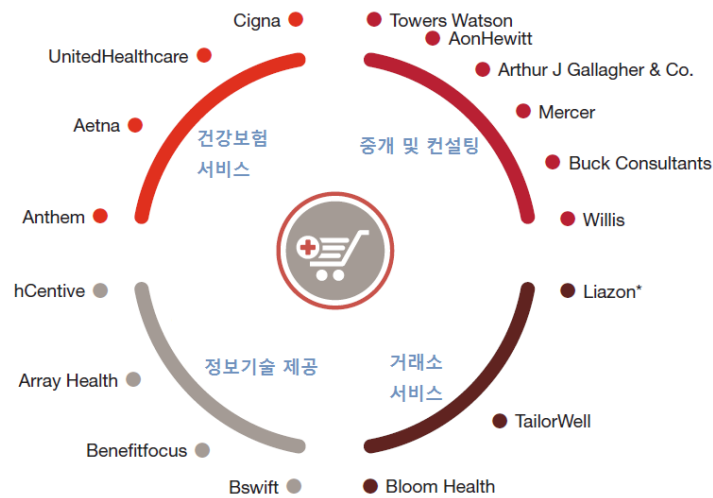
□ 배경

- (건강보험 소매시장) 미국 보건의료 산업 부문에서는 소비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종류와 혜택 범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소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미국의 건강보험 소매시장은 '거래소(exchange)'라고도 불리며, 선진 정보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의 혜택·가격·의료진 네트워크·기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오바마 행정부의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에 따라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지원 의무화 규정이 발효되면서 건강보험 소매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헬스케어 비용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헬스케어 수요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소매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 및 보건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 (4가지 모델) '14년 PPACA에 따른 공공 보험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건강보험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그동안 e헬스와 같은 대형 의료보험 중개업체를 통해 성장해 온 민간 건강보험거래소는 4가지 모델로 분화

- 첫째, 건강보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모델(Insurer Model)은 건강보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런 유형의 거래소들은 특정 주(州)의 개별 시장에서 활동해왔으나 다른 지역과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추세
- 둘째, 헬스케어 관련 전문기업들이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거래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모델(Broker/Consultant Model)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지원에 나선 기업과 고객을 유치하려는 보험사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
- 셋째, 순수한 거래소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델(Pure Play Model)은 건강보험 소비자들이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
- 넷째, 정보기술 제공 모델(Technology Model)은 건강보험업체·정부·전문 컨설턴트 및 중개업체·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기업 등 거래소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건강보험 관련 클라우드·S/W·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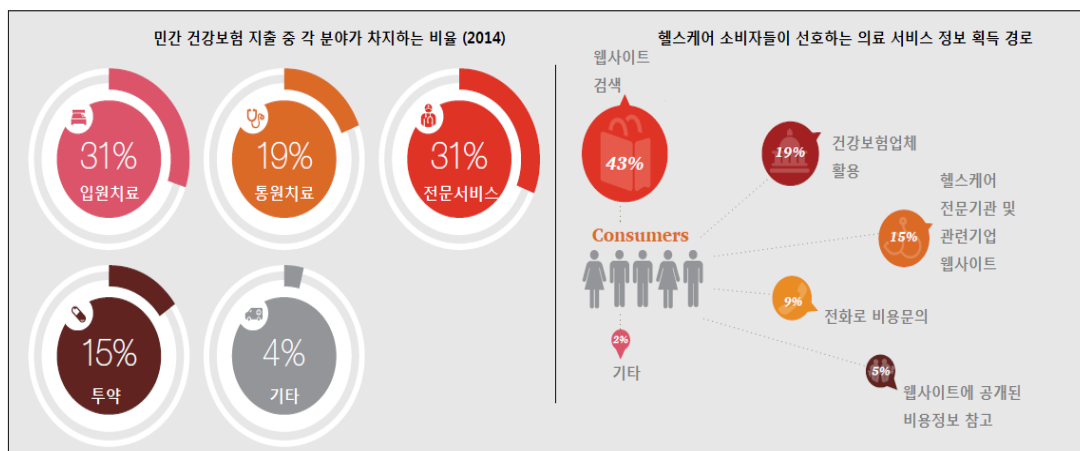
▲ 민간 건강보험거래소의 유형별 대표적 사업자

○(수요자 동향) PPACA 시행에 따라 향후에는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건강보험 지출 영역에서는 입원치료와 전문 의료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HRI가 지난 6월 발표한 미국 헬스케어 비용 지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헬스케어 비용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헬스케어 비용의 지출규모별 비중은 △입원치료 31% △전문 의료서비스 31% △통원치료 19% △투약 비용 15% △기타 4%가 될 전망

- 이런 가운데, PPACA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보험 지원 의무를 맡게 된 고용주들 중 32%는 향후 3년 안에 효율적인 혜택 관리 등을 위해 민간 건강보험거래소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 한편, 보건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다양한 경로 중 건강보험 제공업체를 활용하겠다는 비중은 19%



▲ 민간건강보험의 분야별 비용지출 비중(좌)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우)

○(변화와 전망) 민간 건강보험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선택 및 비용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건의료 및 관련 지원 산업의 구조와 참여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초래될 전망

- 향후 10여 년 간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거래소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관련 시장도 B2B에서 B2C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
- 보건의료 소비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계획을 설계하고 자신의 비용부담 능력에 맞춰 최적화된 보건의료 상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헬스케어 및 관련 보험시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비용절감 기능과 사용자 경험 향상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될 전망
- 이 같은 변화와 더불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 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사들은 비용절감 노력에 따라 치료제 등의 투약 등급이 세분화되고 소비자들도 보

다 저렴한 대안 의약품을 찾을 것으로 전망

- 제약 및 생명과학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헬스케어 비용지출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관련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분야의 사업 기회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
- * 이미 민간 건강보험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사업모델이 등장
- 이러한 변화는 헬스케어 산업과 연관된 건강보험 및 관련 지원서비스 분야에 해당분야 전문 업체들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와 소비자 경험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해 경쟁할 수 있음을 시사

▼ 민간 건강보험거래소 활성화에 따른 헬스케어 생태계 및 관련시장의 변화 전망

영역	주요 변화 전망
소비자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계획을 스스로 설계·수정·선택
제약 및 생명과학 업계	건강보험 비용절감 노력에 부응한 제품개발과 정보공개 확대
사업 참여자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에 기존의 보험사 외에도 데이터와 소비자 경험관리에 익숙한 타 업종의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
신시장	소비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 등장



영국 국민건강보험 개혁 진행 과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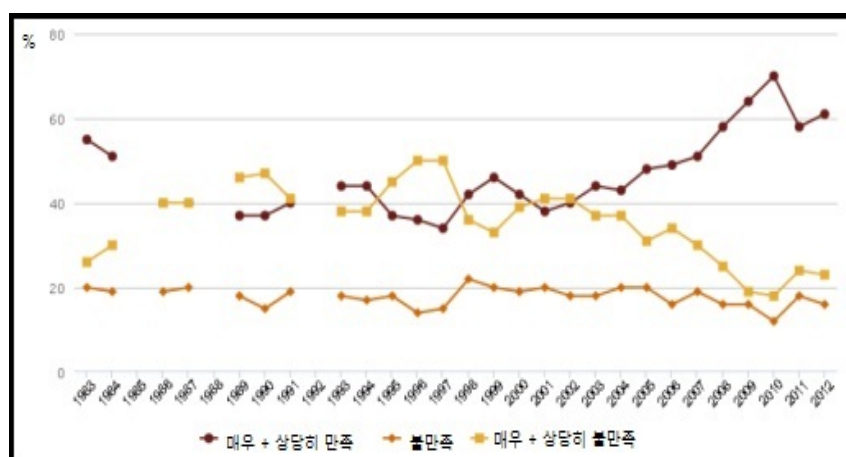
영국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에 대한 만족도가 21세기 들어 급속도로 개선. 본 자료는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가 '14년 3월 발행한 '영국 의료제도 개혁의 시사점(英国の医療制度改革が示唆するもの-国民・患者が選択する医療へ)' 을 통해 영국 NHS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계기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NHS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 영국 NHS 개혁의 역사

- ('00년대 이전) 영국 정부는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화를 위해 NHS 내부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 초래
 - NHS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기본 이념 아래 지난 1948년 창설
 - 그러나 1차 오일쇼크 등을 배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자 대처 총리(1979년)는 과감한 민영화와 규제개혁, 공공지출 억제 등과 함께 NHS에도 민영화를 목표로 엄격한 세출억제를 요구
 - 이후 메이저 총리는 1991년 NHS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NHS 내부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유도
 -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의료서비스의 질은 대폭 악화됐는데 경영수지만을 우선하는 탓에 의료서비스 제공자간 경쟁이 격화되고 결국 경영난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의료진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폐쇄되는 병원도 등장
 - 또 대기 환자수 증가, 평균 대기시간 장기화, 병원내 감염 증가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1990년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50% 이하로 추락
 - 특히 정부가 중요시했던 의료비 억제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개혁을 전후로 큰 억제효과는 없어 1997년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6.6% 수준

- ('00년대 이후) NHS 예산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시도하고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공정한 성과 요구
 -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는 'NHS 재건(Rebuilding the NHS)' 정책을 표방하며 ① NHS의 예산증액 및 의료진 증원 ② 진료 거버넌스 확립 ③ 환자중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적극적인 NHS 개혁을 단행
 - 특히 시장 메커니즘이 초래한 가격경쟁이 오히려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NHS 예산을 대폭 증액, 의료의 질이 희생되지 않는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데 주력
 - 구체적으로는 '03~'07년 NHS 예산을 연 평균 7.4% 늘려 654억 파운드에서 1천56억 파운드로 증액함으로써 GDP 대비 총의료비를 6.7%에서 9.4%로 높여 다른 유럽국가(약 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
 - * 실제로 '03년 GDP 대비 총의료비는 6.9%에서 '07년에는 7.7%로 상승. 또 '04년까지 5년간 의사 1만 명 이상, 간호사 2만 명 이상, 테라피스트 등 전문가를 6천500명 이상, 새롭게 증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실제 1999~2004년 NHS 인력들은 총 18만6천명 증원
 - 진료 거버넌스 확립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료기술이나 처방 등의 평가와 더불어 치료의 비용대 효과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국립보건연구소(NICE)'를 창설, NHS가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표준을 제시
 - 의료서비스의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보건의료위원회와 NICE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조직 등 의료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독립된 공적기관·조직을 설치하고 이들의 평가와 신용등급을 일반에도 공개
 - 환자 중시는 환자의 시점이나 선택권을 중시해 보건당국이나 NHS트러스트(공립병원) 등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환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의 '가치에 입각한 의료(Value-Based Medicine)' 서비스 공급에 주력
 - 또 환자의 편의향상을 위해 NHS다이렉트*나 NHS트러스트가 경영하는 병원 안이나 역, 슈퍼마켓 등에 치료시설인 NHS워크인센터를 구비해 예약 없이도 경증·경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공급체제를 다양화
 - * 간호사가 전화와 웹사이트로 건강상담 서비스와 응급조치 지도 등을 24시간 제공
 - 블레어 정부의 NHS 개혁은 의료비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 이외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정한 성과를 요구했다는, 즉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책임을 맡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이 핵심

- 이처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 거버넌스를 강화한 환자 중심의 NHS 개혁을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블레어 정권하에서 의료만족도는 상승기조로 전환
- ('07년-현재) 의료의 질적향상 작업을 지속하면서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는 지역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지난 '07년 브라운 총리 취임 이후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리스 재정위기 등 일련의 경제 상황 악화로 그동안 개선된 환자중심의 선택지 확대 및 의료의 질적향상 작업의 지속과 동시에 적정한 세출에 대한 요구도 고조
 - 특히 의료비 억제라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의 니즈나 의견을 반영한 지역별 포괄적 팀 의료(프라이머리 케어)*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
 - * 진료소에 소수의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 GP)와 간호사 외에 사무스텝, 물리치료사, 헬스 트레이너, 보건사, 조산사 등이 협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를 담당하는 체제
 - 최근에는 병원에서 지역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GP 단독진료에서 GP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머리 케어로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도 진화
 - 정부 역시 GP의 진료보수를 기존의 등록환자수에 따른 지불제에서 '성과지불제(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를 일부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을 권장하며 지역건강에 공헌하는 GP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비



▲ 영국 국민의 의료 만족도

- (시사점)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의료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의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
 - 영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의료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전체적인 세출억제 및 지역격차 시정 등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의료의 질적향상·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반면 시장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영리가 중심이 된 나머지 의료의 질적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 시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를 추가하는 등 일정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
 - 또 의료는 효율성 외에도 공평성이나 성과와의 균형도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의 투명성을 높여 의료서비스를 질을 담보하는 진료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거버넌스 확립 시에는 정부와 의료관계자 외에 환자의 요구 확인이 필수
 - 일본도 지난 '12년부터 도입을 논의한 의료기술평가(HTA)를 바탕으로 오는 '16년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엄격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는 등 비용대 효과를 기준으로 의료의 효율화 논의를 진행 중
 -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화를 통한 세출억제가 불가피하지만, 단순히 비용대 효과에 비춘 의료를 선택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료의 선택이 가장 필요한지 논의가 시작될 필요



일본 의료 서비스 체제 재편 방향

초고령 사회 일본은 의료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본 자료는 일본 재무성 재무종합 정책연구소가 '14년 2월 개최한 '고령사회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연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 '향후 일본의 의료제공 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今後どのように日本の医療提供体制の再編を進めていくべきか)'를 통해 초고령 사회 인구감소 시대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체제를 고찰

□ 의료 서비스 체제의 문제점

- (개요) 일본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급증하는 고령자에 대응하는 의료와 감소하는 젊은층을 위한 의료로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
 - 안도 다카오(安藤高朗) 전일본병원협회 부회장은 급성기(acute) 의료에는 치료가 주목적인 '완치형'과, 완치보다는 환자가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신체를 정비해주는 '관리형'이 있다고 주장
 - 그는 향후 75세 이상의 소위 후기 고령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관리형 급성기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바람직한 관리형 의료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의료자원의 지역차) 현재 일본은 총병상수, 간호사수,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노인 복지·보건 시설의 수용가능인원수 등 의료자원의 지역차가 큰 상황
 - 총병상수와 간호사수의 경우 간토(關東), 고신에쓰(甲信越), 도카이(東海)가 적고 홋카이도, 호쿠리쿠(北陸), 주고쿠(中國), 시코쿠(四國), 규슈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
 - 현재의 의료·복지자원과 인구동태로 예측되는 향후 의료 및 개호의 수요량을 통해 의료 및 개호 여력을 평가하면, 수도권과 나고야 주변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
- (저밀도 의료현장)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도 급성기(완치형) 의료현장의 밀도가 낮은 상황
 - 최근 완치형 의료는 기술혁신으로 고도화·대규모화되고 있어 보다 많은 의료진, 기기가

필요하고 환자 1명당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확보하고 시설과 설비도 충실한 ‘의료밀도가 높은’ 상황이 필수적

- 인구 1,000명당 총병상수는 미국 3.1, 프랑스 7.1, 일본 13.9로 일본이 많지만 의사수는 각각 2.4명, 3.4명, 2.1명으로 적어 병상 100개 당 의사수는 77.5명, 47.2명, 14.9명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이하
- 평균 입원일수 역시 미국 5.5일, 프랑스 5.3일, 일본 19일로 일본의 환자는 미국이나 프랑스 환자 보다 4배 정도 길게 입원하는 상황
- 즉 미국의 병동에는 일본의 4~5배나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단기 집중적인 ‘고밀도 단기형’ 의료를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저밀도 장기형’ 의료를 제공

○(니즈에 맞지 않는 병상비율) 완치형과 관리형 의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완치형과 관리형 병상비율이 환자의 니즈와 맞지 않고 있는 상황

- 향후 인구 추이를 볼 때 0세~74세 의료수요는 ‘35년까지 15% 이상 감소하고 후에도 계속 감소하는 반면 75세 이상 의료수요는 ’30년까지 대략 60%로 늘어날 전망
- 0~74세 대상 의료는 대부분 완치형 급성기 의료로 치료가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반면 75세 이상은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생활유지, 재택복귀를 위해 치료와 재활을 하는 관리형 의료비율이 높은 특징
- 이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로 재택 복귀는 어렵지만 고도급성기 의료는 필요하지 않고 재활이나 내과적 치료로 재택(시설) 복귀를 지향하는 의료를 제공할 ‘아급성(亞急性) 병상’이 필요한 환경

□ 인구감소 사회의 의료 서비스 체제 확립 방안

○(기준병상수 제시)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의 첫 단계는 지역별로 어떻게 병상을 정비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병상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담보하는 것

- 일단 정부는 각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정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공통 기준을 통해 지역별 완치형 및 관리형 기준병상수(의료기능별 기준병상수)를 제시해 이들 병상의 과잉·부족 상황을 밝히는 작업이 요구
- 또 지역별 기준병상수를 산정할 때는 각 지역의 장래 인구구성 변화 요소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각 지역별로 병상을 정비할 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

- 이러한 지역차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 2차 의료권별로 의료 자원과 장래수요를 분석한 후, 각 지역과 전국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한 공통자료를 각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
- (지역 의료비전) 각 지자체는 국가가 제시한 병상구분별 ‘기준병상수’를 참조해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단 독자적인 ‘병상구분별 목표병상수’ 설정이 요구
 - 이러한 목표병상수는 지역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의 병상수를 관리할 때 필요한 수치로, ‘기준병상수=목표병상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괴리가 크다면 최소한 과잉상태인 병상은 신설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 이후 지역에 맞는 의료기능별 목표병상수와 현재의 의료기능별 병상수와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방침 하에 장래 지역의 의료니즈까지 반영한 ‘지역의료비전’ 작성이 필요
 - 지역차를 의식하면서 인구감소 사회를 맞는 일본이 실행해야 할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은 급성기(완치형) 병상을 줄이고 아급성(관리형) 병상을 늘리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
 - 그러나 일본의 의료 서비스 체제는 지역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별 의료 서비스 체제 비전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비전의 합계가 국가가 지향하는 합계치와 일치하도록 노력할 필요
-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 ① 국가는 현재의 상황과 ‘지역의료비전’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의 현실을 ‘지역의료비전’에 보다 가까운 체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
 - * 일례로 완치형 의료시설 과잉지역의 의료기관 통합, 관리형 병상으로의 전환, 주치의와 병원의 네트워크화 등 선진 사례에 대한 재정지원은 향후 인구감소형 사회에 적합한 의료복지 제공체제 확립에 필요
 - ② 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해도 필요한 양의 완치형 의료 확보는 기본이지만, 향후 첨단 의료가 필요한 연령의 환자인구는 감소하는데다 완치형 의료현장의 저밀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 * 환자인구 감소와 의료밀도 상승이란 과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기능 병원의 수를 줄이고 추가로 해당 병원의 다운사이징을 실시
 - ** 향후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을 통해 고기능 병원을 인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인증시 일정

수준의 의료레벨 충족 이외에 병상삭감을 통한 의료밀도 향상과 대폭적인 평균 입원일수 단축을 조건으로 해야 함

- ③ 의사나 간호사의 편중은 장래 의사 과잉이 예상되는 지역의 의대의 정원을 줄이고 극단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 의대의 신설을 인정하는 등 일률적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로 대책을 실시

* 의대 신설은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의사의 편중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의대 신설로 해당 지역에 핵심병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체제는 상당한 즉효성 보유가 가능

○ (진료보수 개정)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지역의료비전에 따라 장래 의료 서비스 체제의 큰 틀을 제시한 후 진료보수를 통해 환자 니즈에 맞는 병상수를 유도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비전과 보조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을 선행한 후, 진료보수에 있어서 관리형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비율이 높은 병동의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분배를 재검토할 필요
- 또 지역의 완치형 및 관리형 병상의 과부족 상황에 맞게 지역이 입원 기본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진료보수 제도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관리형 병상의 진료보수 수익률이 완치형 병동을 지속한 경우의 수익률을 넘어서도록 진료보수 점수가 설정된다면 상당한 수의 병원이 일반병동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의 난치병 대책 및 입법화 현황

일본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난치병 환자 관련 대책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14년 정기국회에 난치병 대책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 본 자료는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조사국의 『조사와정보(調査と情報)』 '14년 4월호에 발표된 '난치병 대책의 개요 및 입법화 경위(難病対策の概要と立法化への経緯)' 를 통해 난치병과 관련해 달라진 제도와 과제를 고찰

□ 난치병 대책 개선의 필요성

- (현황) 일본 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비 조성 및 연구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난치병 대책을 수립했지만 환자간 형평성,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등 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그동안 증례 수가 적고 원인이 불분명한 난치성 질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 치료시기에 따라 만성화나 장애를 초래해 사회복귀가 극도로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난치병 문제에 대처
 - 현행 난치병 대책의 내용은 ① 조사연구 확보 ② 의료설비 정비 ③ 의료비 자기부담 경감 ④ 지역 보건의료복지 충실·협력 ⑤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복지시책 추진 등 5개 항목
 - 특히 ③의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조성제도 '특정질환치료연구사업'(대상 56개 질환)과 ①의 치료법 개발 및 원인규명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난치성질환극복연구사업'(130개 질환)의 2가지에 주력
 - 현재 지정난치병 환자는 보험 진료시 의료비 자기부담분을 지원(의료비 조성 대상)받고 있으며 치료로 증상이 개선된 환자인 경증자(輕快者)는 의료비 조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경증자 대상은 현재 30개 질환으로 제한
- * 30개 대상 질환에는 베체트병, 중증근무력증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질환이 개선되면 '의료수급자증' 대신 '등록자증'이 교부되며,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의료비 조성 대상에 포함

- (지자체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공평하고 안정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난치병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
 - 1970년대 시작된 난치병 대책은 대상 질환 확대, 의료시설 및 환자지원 서비스 확충 등 제도를 계속 재검토하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그러나 ① 원인불명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함에도 난치병으로 지정되지 않는 불공평성 ② 근거법이 없어 국고보조가 불충분해 오는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 ③ 국민의 이해부족 ④ 난치병환자의 장기요양 및 사회생활을 지원할 종합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난치병 대책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
 - 이에 따라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난치병 신법안)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14년 2월 중의원에 제출
 - 난치병 신법안의 목적은 난치병 환자 의료비 조성에 소비세 수입을 투입해 공평하고 안정적인 제도 확립, 조사연구 추진, 요양생활환경정비사업(난치병상담지원센터 설치, 방문간호 확충 등) 실시 등

□ 주요 내용 및 평가

- (의료비 조성제도) 질병의 희소성 기준을 개선해 조성제도 대상을 확대했으나 성인과 소아 질환간 격차는 시정해야 할 부분
 - 새로운 의료비 조성제도는 질병이 가진 희소성의 기준을 기존의 5만 명 미만에서 인구의 0.1% 이하(약 12만 명)로 확대했으며, 핵심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 지원 대상은 ‘객관적인 지표에 입각해 일정한 진단기준이 확립된 질환’ ‘증상의 정도가 중증도 분류 등에서 일정 정도 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인 고액 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질환명과 질환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
 - 또 소아만성특정질환아의 의료비 조성제도는 그동안 예산상으로는 재량적 경비에 포함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무적 경비로 전환될 예정
 - 난치병 신법안 시행 이후 성인난치병의 의료비 조성제도 대상은 약 300개로 확대될 예정이나 소아만성특정질환(확대 후 약 600개)과의 격차는 여전
 - 이 외 질병명을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데 따른 환자간의 형평성, 소아난치병 환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진료비 부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 새로운 의료비 조성제도의 핵심 내용

- ▶ 의료비 조성의 법정 급부화
 - '15년 1월부터 신제도를 개시하기로 하고, 재원은 의무적으로 경비화(지자체의 초과부담 해소)
- ▶ 의료비 조성의 대상 질환 확대
 -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며, 제3자인 위원회 등에서 결정
 - 난치병(성인) 현행 : 56개 질환 → 약 300개 질환(대상이 되는 후보의 질환수)
 - 소아만성특정질환 (아동) 현행 : 514개 질환 → 약 600개 질환(대상이 되는 후보의 질환수)
 - [수급자수] '15년 (추산) : 약 165만 명(성인: 약 150만 명, 아동: 약 14.8만 명)
 - ('09년 : 약 89만 명 (성인: 약 78만 명, 아동: 약 11만 명)
-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
- ▶ 자기부담한도액 등
 - 부담상한액은 장애인 의료(재생의료)를 기초로 설정(원칙은 2,500~3만엔/월)
 - 고액 의료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환자 배려(장애인의료와 동일한 상한설정(최대 2만엔/월))
 - 고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자 배려
(경증 난치병환자는 원칙적으로 조성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의 의료를 요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
 - 아동 배려 (아동은 성인의 2분의1 (부담상한, 입원시 식비부담)
 - 기인증자 배려 = 경과조치기간(3년간) 중의 특례(난치병인 경우 경증자도 전원 적용대상 등)

- 한편 성인 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한도액은 그동안 30개 질환으로 제한했던 경증자 개념을 모든 질환에 도입, 중증환자로 인정받은 이후의 무상진료는 폐지하는 한편 '고액·장기' 개념을 난치병 전체로 확대할 예정
 - 또 증상이 변해 입퇴원을 반복하는 난치병의 특성을 배려해 외래·입원의 구별을 폐지하고, 수진한 복수의 의료기관 등의 자기부담도 모두 합산한 후 부담한도액을 적용할 방침
 - 소득 파악 단위는 의료보험상의 세대로 하며, 동일 세대내 복수의 대상 환자가 있는 경우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대내 대상 환자 숫자로 부담 한도액을 고르게 분배
- (연구추진 및 의료제공체제 정비) 치료방법 개발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를 집약·활용
- 난치병 신법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진단기준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난치성질환정책연구사업과 병태(病態) 파악, 유전자해석 및 신규치료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관련된 난치성 질환 실용화연구사업 협력추진

- 이 밖에 난치병의 증례수 확보를 통한 연구추진 및 의료의 질적 향상, 난치병 정보센터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최신정보 제공 등도 목표로 설정
- 난치병 증례확보를 위해서는 환자DB를 구축, DB등록 환자에게 ‘난치병 환자 등록증명서’를 발행하고 난치병 지정의의 진단 하에 데이터를 등록
-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내 난치병 의료 관련 거점병원 및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주치의 등이 일상적인 진단을 담당, 의료지원네트워크 등을 통해 보다 올바른 진단이 가능한 체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정비
- * 구체적으로는 ① 3차 의료권별로‘난치의료거점병원’을 종합형 1개 이상, 영역형을 적절한 수로 지정 ② 2차 의료권에‘난치의료 지역기간병원’을 1개 지정 ③ 국립고도전문의료연구센터, 난치병연구팀, 학회 등이 연계해‘난치병의료지원네트워크’를 형성

○(전반적 평가) 다른 의료비 조성제도와 균형에 맞추고 법제화로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했지만 환자지원 형평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

- 난치병 환자는 질병의 희귀성으로 인해 전문 의료기관이 적고 거액의 개호비용, 의료비 품 구입비 등 의료비 이외의 자기부담이 불가피
- 이번 제도 개혁으로 보다 많은 난치병이 커버되고 다른 의료비 조성제도와 형평성을 맞춘 상한액이 제시됐으며, 특히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
- 반면 환자수가 적은 ‘희귀암’이나 새롭게 발견돼 진단법이 확립되지 않은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병, 환자수가 많은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병은 난치병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지원의 형평성이란 관점에서는 여전히 과제
- 향후 난치병의 증상과 치료의 필요성, 지원·개호니즈, 소득, 연령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난치병 대책과 장애인 복지시책을 상호 보완해 자신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초고령 사회 일본의 간병서비스 정책 배경과 현황

일본 정부는 간병보험과 관련한 재정 부담과 함께 부족한 시설 문제로 인해 재택간병을 중심으로 한 ‘지역 포괄케어’로의 전환을 시도. 본 자료는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가 ‘14년 5월 발행한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의 간병 문제(超高齢社会における介護問題)’ 보고서를 통해 지역 포괄케어를 도입하려는 정책 배경과 함께 일본 간병서비스 현황에 대해 고찰

□ ‘지역 포괄케어’로의 전환

- (개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1940년대 후반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를 넘는 오는 ‘2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30%를 넘어설 전망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지난 ‘10년 일본인 평균수명은 남성 79.55세 여성 86.30세이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수명 평균은 각각 70.42세와 73.62세
 - 이를 바탕으로 추산할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남성 9.13년 여성 12.68년이며, 향후 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
 - 따라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년인구 역시 더욱 많아지고, 이에 따른 간병보험비용과 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 (특별양호노인홈) 간병보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양호노인홈 입소 신청자는 ‘13년에만 52만4천명에 이르는 등 간병시설은 크게 부족
 - 일본의 간병 입소시설로는 △특별양호노인홈(특양홈) △간병 부가 유료노인홈 △서비스 부가 고령자주택 △그룹홈 등이 있으나 대부분 특양홈을 선호
 - 일본 내 특양홈은 7천605개에 정원은 총 50만7천여 명(‘12년)으로, 정부는 입소 신청자가 전체 정원을 넘어서자 오는 ‘15년 4월부터는 신규입소자를 증상(3~5단계)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들만도 34만5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
 -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자체가 개설하는 특양홈은 재택간병이 힘든 65세 이상 고령자가 입소하는 시설로 ‘요간병 인증’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
 - 시설 내에서는 24시간 식사·용변·목욕 등 간병서비스를 받으며, 시설 사용자는 서비

스 비용의 10%와 거주비·식비·기타 비용을 포함해 월 수만엔~수십만엔 정도만 내면 돼 다른 시설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

-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양홈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간병 부가 유료노인홈도 있지만 비용이 비싸고, 치매가 악화되거나 신체에 장애가 생기면 퇴소를 요구해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
- 이러한 이유로 특양홈 입소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특양홈의 추가 설립보다는 ‘지역 포괄케어’를 통한 재택간병으로의 전환을 추진

○(지역 포괄케어) 고령자 존엄 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삶을 지속하도록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

- 지역 포괄케어로의 이행에는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최후까지 자신의 삶을 사는 생활적 측면과, 자원봉사자·비영리기구·가족친지 등 지원을 활용해 보험급부가 고액인 시설 입소자를 줄이는 재정적 측면의 두 가지 장점이 존재
-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역 포괄케어를 활용한 재택간병을 촉구하고 있지만 파견할 간병인력이 부족하고, 특양홈 등 일부 시설서비스에 편중된 공적인 우대조치라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 간병서비스 현황

○(인력부족) 재택간병 외에 간병 분야 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후생노동성은 오는 '25년에는 지난 '12년(219만 명) 대비 1.6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전망

- 간병직은 전반적으로 업무 내용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특히 경기 회복기에 이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과제
- 실제 동일한 의료복지 분야인 의사나 간호사 등과 비슷한 장시간 노동이지만 홈ヘル퍼나 복지시설 간병직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아 경기가 회복되고 구인이 늘어나면 고용조건이 좋은 분야로 간병인력이 유출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12년 지역 포괄케어의 핵심서비스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병간호제를 마련했지만 인력난으로 현재 실시하는 지자체가 적고 '14년 2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도 전국적으로 6천261명에 불과

- (편중된 우대조치)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공적 우대조치를 일부 시설서비스에만 제공하고 있어 재택간병이나 민간 간병시설과의 이용자 부담 형평성이 요구
 - 간병서비스 수급자 1인당 비용은 특양홈 등의 시설입소자 월 29만6천엔, 재택간병자는 월 12만3천엔으로 급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
 - 또 시설입소자와 달리 간병보험적용 재택간호 서비스는 간병도의 차이에 따라 월 이용 한도가 있어 이용횟수나 고액 서비스를 미루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 스스로 제한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특양홈은 제1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주체를 행정(국가·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12년 기준 특양홈 개설주체 92.4%, 경영주체 96.1%가 사회복지법인
 - 특양홈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개설·운영도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상당한 우대조치가 적용
 -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상이익률은 연 평균 6% 이상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인 4.5%('11년)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거버넌스 확립과 정보 공개는 물론 과도한 우대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사회적 요청으로의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는 수요 증가 속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으로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가 필요
 - 간병보험제도 시작 이래 간병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맞벌이 세대·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간병을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필요성은 더욱 고조
 - 이처럼 '가족 이외의 주체에 의한 직업으로서의 간병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요청이 되고 있지만, 고령자 존엄과 간병재정 효율화 등을 배경으로 정부는 지역 포괄케어를 내걸고 재택간병으로의 정책 전환을 추구
 - 그러나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포괄케어 추진은 가정 내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유
 - 간병의 사회화는 비공식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대조치 대신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촉진하는 규정 마련과 감사구조 구축 등이 요구

▼ 일본의 간병시설 비교

시설종류	특별양호노인홈 (간병노인복지시설)	간병 부가 유료노인홈	서비스 부가 고령자 주택	그룹홈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간병)
경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민간·의료법인	민간·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민간
대상자	간병도가 높고, 경제 적으로도 자택간병이 곤란한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일 부 65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요지원, 요간병 인정 60세 미만	공동생활에 지장 없 는 요지원 2등급, 요간 병 1등급 이상 고령자
입소기간	원칙적으로 종신이용	원칙적으로 종신이용	장기	원칙적으로 종신이용
입소대기 기간	희망자가 많아 대기 에만 수 년 소요	비교적 곧바로 입소 가능	비교적 곧바로 입소 가능	수개월 이상
입주비용	없음	0~수천만엔	0~수백만엔	0~수백만엔
월 이용료	8~13만엔	12~30만엔	10~30만엔 정도	15~30만엔
시설종류	경비(輕費)노인홈 (케어하우스)	간병노인보건시설	간병요양형 의료시설	양호노인홈
경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료 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대상자	독립생활이 불안한 60 세 이상 고령자(요지 원 1등급 이상)	병의 상태가 안정된 요간병자(요간병 1등 급 이상)	의학적 관리 아래 장기간 요양이 필요 한 요간병자(요간병 1등급 이상)	주로 경제적 이유 등 으로 집에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65세 이상 고령자
입소기간	일정기간	3~6개월	장기간	일정기간
입소대기 기간	수개월~	즉시~수개월	즉시~수개월	즉시~수개월
입주비용	수십~수백만엔	없음	없음	없음
월 이용료	10~20만엔 (소득에 따라 결정)	8~13만엔+의료비	9~25만엔	0~10만엔



일본 의료·요양서비스 생산성 개혁을 위한 과제 및 제언

일본에서 의료·요양분야의 생산성 개혁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유. 본 자료는 일본의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가 '14년 6월 발행한 보고서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생산성 개혁(医療・介護サービスの生産性改革)' 을 통해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생산성 개혁을 위한 과제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 생산성 개혁을 위한 과제

- (개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병원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간과
 - 일본의 의료·요양 서비스는 지난 '11년 약 38조 엔의 규모를 형성한 거대 분야로 인구감소, 고령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 그러나 공정가격과 공급조정 등 규제 환경 아래 있어 생산성 향상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힘들고, 소규모 사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일본 경제는 이미 GDP의 4분의 3을 서비스 산업이 점유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에 큰 의미를 보유
 - 특히 의료·요양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소매 및 물류와 함께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생산성 개혁은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중요
- (과제1) 공공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한 우대제도가 시장을 왜곡, 특정법인 대부분은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보유
 -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병원에 약 1조 엔의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데, 지자체 병원은 보조금이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
 - 공적 분야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공급으로는 불충분한 산간벽지의 사회서비스를 충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회복지 법인의 시설·설비 창설/개축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세제 우대 조치 등을 실시

- 그러나 민간 영리법인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보조금·우대조치가 제공되면서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왜곡
- (과제2) 글로벌 추세와 달리 일본은 서비스 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
 - 미국은 지역 의료권에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급성기 병원·만성기 병원·요양시설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상의 조직인 사업규모 1조 엔 이상의 지역 의료네트워크사업체(IHN)를 계속해서 구축
 - 스웨덴처럼 공적보험·세금으로 의료를 커버하는 국가도 지역 단위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지역 내 병원·진료소의 연계를 강화
 - 반면 일본은 해외처럼 특정 지역의료권에 뿌리를 내린 대규모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병원 체인의 과점도가 매우 낮은 상황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인들의 재편·통합이 가능한 경영 형태가 없고 둘째, 규모 확대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없으며 셋째, 경영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거론
 - 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업자의 규모 확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생산성 향상, 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주변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 수행이 요구
- (과제3) 생산성이 낮더라도 퇴출이 어려워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
 - 그동안 의료·요양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폐업을 억제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존재
 - 진료보수나 요양보험료처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는 공적가격도 생산성 낮은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
- (과제4) 이용자와 사업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원리 작동이 미흡
 - 의료·요양서비스에 시장원리나 경영의 시점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이는 이용자측이 걱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에서 기인
 - 이 때문에 다수의 선진국들은 의료·요양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과도한 이윤 추구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의료·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용자에게 공개
 - 그러나 일본은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없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생산성 개혁을 위한 제언

○(시장 왜곡 해소) 공공병원의 경영정보와 의료정보 공개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대제도 축소 및 폐지

- 보조금이 교부되는 공공병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및 의료정보의 철저한 공개를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이미 정부에 저장된 DPC데이터(진단군 분류)를 활용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공공병원의 경영지표를 공개하는 작업이 요구
 - * 실제로 국립병원은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조로 이행하면서 본부기능을 강화하고 DPC데이터를 통해 각 병원의 경영정보와 철저한 의료정보의 가시화 및 병원간 비교를 통한 개혁을 통해 보조금 의존·적자 경영에서 탈피
- 한편 사회복지법인에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설비 정비 보조금 제도를 축소·폐지해 민간과 동등한 조건 아래서의 경쟁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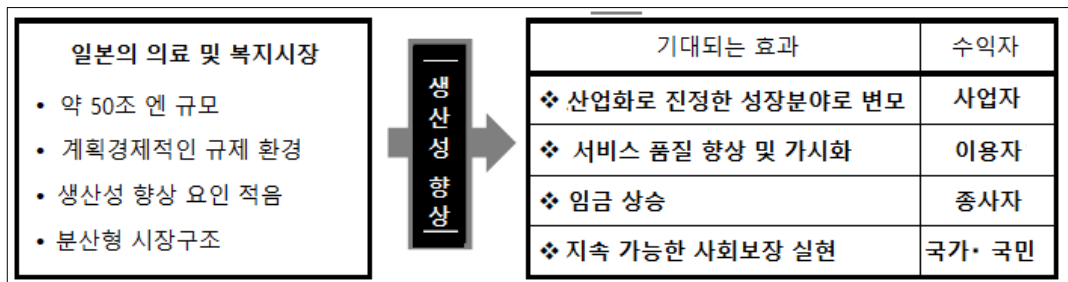
○(규모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지역의료권의 병원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진료보수체계·보조금 등을 융통성 있게 활용

- 지역의료권의 대규모 사업체 구축을 위해서는 일단 병원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진료보수 보조금 등을 융통성 있게 확대 혹은 축소
- 최근 일본 정부도 ‘비영리 홀딩 컴퍼니’로 불리는 지역의료권의 네트워크형 사업체 구축이 가능한 경영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개시
- 그러나 실제로 생산성 개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형태 활용 시 병원간 명확한 역할 분담, 데이터 공유, 조달업무의 합리화 등 규모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영개혁 실행이 담보되는 것이 전제조건

○(생산성 낮은 사업자 퇴출) 폐업한 사업체 인수를 활성화

- 의료·요양서비스가 갖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면서 원활한 퇴출을 촉진하는 구조를 구축
 - *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자가 존재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을 고려해 필요한 진료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다른 사업자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

- (서비스 품질 담보 대책 도입)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공개하고 요양분야는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보수체계에 반영
 - 의료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정량화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수
 - 요양분야 역시 서비스 품질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표를 정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그러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자의 기능정보(신체기능, 인지기능), 욕창발생률 같은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정보,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수집 활용해 요양분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정책적 시도가 요구



▲ 일본 의료·복지시장의 현재 상황 및 목표



일본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현황 및 정책 과제

최근 일본 의료기관들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본 자료는 일본 미즈호정보총연이 '14년 11월 발간한 '일본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전망(わが国医療サービスの国際展開促進に向けた課題と展望)' 보고서를 통해 법적 규제와 시장 환경이 상이한 해외에서의 일본 의료서비스 전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검토

□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현황

- (개요)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는 시설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형태와 각종 시설정비를 수반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형태로 구분
 -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해외 의료서비스는 해당 국가에서 현지 의료진에 일본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기기 사용법을 전수하거나 원격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이러한 형태는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 전개와 관련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이 특징
 - 하드웨어적 측면의 해외 의료서비스는 클리닉, 건강검진 센터, 특정분야 치료센터, 병원 등을 개설하는 활동
 - 클리닉은 외래 진료 및 수술이 중심이지만 투자 규모는 작은 편이며, 건강검진 센터는 사업모델은 비교적 단순해도 고도로 숙련된 의료인력이 필요
 - 한편 병원건설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외래부터 입원까지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리스크가 큰 편
- (국제전개 시 과제) 정치, 경제, 의료관련 법규 등 전제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실제 의료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 아래표는 사업자가 해외 의료서비스 전개 시 실제 직면한 사례 및 경제산업성이 이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 의료서비스 국제전개 과정에서 사업자가 직면한 사례와 경제산업성의 사업

분류	내용	사업명 (과제 발생 국가)
(1) 환자유치·시장개척 추진	● 현지 정부가 암 대책에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국민들도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과 '암을 조기 발견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흡	● 암 등 치명적 질환 조기발견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 호흡 재활치료 효과에 대한 현지 의료진의 인식이 불충분	● 호흡 재활치료 시스템의 기술이전을 활용한 COPD 재택케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국·한국에서 실증조사 사업 (중국)
	● 일반적으로 검진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함	● 일본의 고도 건강검진 시스템 수출을 통한 해외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전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2) 진료보수의 실태 확인	● 경구내시경 진료보수가 일본의 수 십 분의 1 (약 1천엔) 정도에 불과, 병원이 새롭게 기자재를 구입하기 곤란	● 일본식 내시경 진료 트레이닝 시스템 보급 프로젝트 (베트남)
(3) 의료기기·의료재료에 관한 인허가 상황 파악	● 일본식 건강검진의 현지 체험을 계획했으나 건강검진 차량에 탑재된 일본의 의료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국내 사용이 허락된 기기만으로 건강검진 업무를 실시	● 일본의 고도진료 시스템 수출을 통한 해외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전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 수면 시 무호흡 증후군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조사(중국, 인도네시아) ● 재생의료 실용화 프로젝트 (중국, 태국)
	● 의료기구 인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요 (1년6개월~2년)	
	● 통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서류가 필요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송을 포기, 결과적으로 원재료 조달구조를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	
(4) 의료인력 확보	● 호흡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육성이 미흡	● 호흡 재활치료시스템의 기술이전을 활용한 COPD 재택케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국·한국에서 실증조사 사업(중국)
(5) 병원설립·영업 등 인허가 상황 파악	● 병원 설립 및 영업 등의 허가에 대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된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대화 진행에 어려움	● 일본 가메다(亀田) 선진의료·건강검진 시스템 수출 (중국)
(6)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구축	● 현지 병원 및 일본 측 의료기관의 공동 출자를 통해 병원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병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갑자기 출자를 포기	● 재활치료 사업의 중국전개에 관한 실증조사 프로젝트 (중국)
(7) 현지 건설사정 확인	● 현지 인허가, 건설 스케줄 지연으로 인해 개업이 지연	● 방갈로르에 종합병원 건설 (인도) ※ 본 사업은 경제산업성이 아닌 사업자의 독자 계획

□ 정책 과제

- (사업자간 노하우 공유) 의료서비스 국제전개 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응으로 사업자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
 - 향후 해외에서 의료사업을 전개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여, 기존 사업자들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
 - *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정보 취합 방법, 상담 기관 등을 수록한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핸드북'발행 등
 - 또 진출국가 별로 노하우를 취합해 새롭게 국제전개에 나서는 사업자와 공유하는 한편, 진출 사업자를 연결하는 매칭 구조를 갖추는 방안도 바람직
- (상대국가에 기술 전달) 상대국가 정책 담당자·의료관계자에게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 전달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요구
 - 해외에서 일본 의료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의료기관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
 - * 예를 들어 상대국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담당자에게 생활습관병 예방, 조기발견·예방 의료에서의 일본의 경험과 구체적인 시책 등을 소개해 의료정책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
 -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일본과 각서를 체결한 국가가 연수 목적으로 의료종사자를 일본에 파견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의료서비스를 전개하려는 해외 국가에서 일본식 의료서비스가 이식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
-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 사업자의 시도만으로는 일본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존재
 - 일본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규제 당국과 교섭을 갖고, 일본에서 인가 받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 이미 멕시코는 일본의 약사등록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브라질도 일본과 지난 8월 의료·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일본에서 인가받은 의약품·의료기기 승인절차가 조만간 간소화될 전망

- (시사점) 일본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국제전개를 위해서는 ‘민민(民民) 협력’과 ‘민관 협력’의 병행이 요구
 - ‘민민 협력’이란 그동안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전개한 사업자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민관 협력’은 정부와 국제전개에 나서는 사업자와의 협력을 의미
 - 일본 정부는 의료분야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국가와의 협력, ASEAN 건강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과 의료서비스 협력에 나설 계획
 -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향후 진출하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세일즈나 측면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들의 니즈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정책이 바람직
 - 일본 정부가 자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간 노하우 공유, 정부의 측면지원 노력을 병행해 국제전개에 나서는 사업자를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중국을 통해 본 의료관광국 일본의 이미지

아시아 각국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적극 육성. 본 자료는 일본 국제동아시아 연구센터가 '13년 12월 발표한 '중국시장을 통해 본 의료관광국 일본의 이미지(中国市場における日本の医療観光目的地としてのイメージ)'를 통해 의료관광국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와 일본의 의료관광객 유치 상황을 고찰

□ 성장 가능성 높은 의료관광

- (개요) 의료관광은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최근 성장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하는 분야
 - 최근 십 수 년간 의료관광의 중심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미국과 유럽인들이 아시아나 남미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시아는 싱가포르를 선두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 등이 주력
 - 일본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가 늦어지고 있었지만 '10년 6월' 신성장전략'을 통해 검진·치료 등의 의료 및 관련서비스와 관광을 연계·촉진한다는 방침을 결정
 - 이후 각료회의가 '의료체류 비자' 발급을 결정한 가운데 '의료관광'이 국가전략으로 선정됐으며 '11년 1월 동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
 - 이에 따라 입원·치료·정밀진단·건강검진·치과치료·온천치료를 포함한 요양·고도의료 등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의 의료체류 비자 발급이 가능
 -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이외 해외 의료진료를 원하는 신흥국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일본의 인바운드 의료관광 시장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 부유층이 타깃

○(관광목적지 이미지) 지난 “70년대 이후 관광국 선택에 있어 관광목적지 이미지(Tourism Destination Image : TDI)는 실제정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연구의 핵심 테마로 부상

- TDI는 관광국의 경치 시설 대형이벤트 등의 외부요소와 연관
-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정보매체가 유포하는 TDI로, 최근에는 가이드북 여행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인터넷은 우수한 정보 전달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행정보 수집시 입소문에 이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인터넷 정보를 사용해 TDI를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
- 이와 관련, 중국어로 된 의료관광 홍보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미용성형, 스위스는 안티에이징, 대만은 건강검진·치과·미용성형, 싱가포르의 건강검진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
- 현재 일본의 인바운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은 건강검진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 및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불가피

○(의료관광국 이미지) 중국을 기준으로 의료관광 목적지로 의료업무 면에서 세계 각국이 가진 이미지는 4가지로 구분이 가능

- ① 스위스가 제공하는 의료업무는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강하고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우선시 하는 가운데, 의료관광의 특징적 업무는 안티에이징 치료
 - ② 대만과 한국의 의료업무 역시 아름다움을 향상하려는 의식이 높은 동시에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며 미용성형은 물론 치과, 안과 등 전통적인 전문과에 대한 이미지도 우수
 - ③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움 향상 보다 건강회복을 중시하고, 비용대비 효과는 다소 약하지만 미국은 출산시 미국국적 취득이란 부가가치가 있어 차세대를 위한 의료업무라는 이미지를 보유
 - ④ 일본, 태국, 싱가포르는 고도의 기술·고품질 서비스·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업무란 이미지가 있지만 특별히 강하지 않은데다 의료업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
- * 이러한 원인은 태국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의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일본은 의료관광 시장이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아직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

- (중국을 겨냥한 의료관광) 인터넷상에 중국어로 표시된 의료관광 여행사(중개업자)의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면 각국의 의료관광 추진 상황은 3종류로 분류가 가능
 - 첫째, 중개를 맡은 중국 여행사가 주도해 외국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관광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이 경우에는 의료관광에 포함되는 의료업무는 대부분 검진단계에서 종결
 - * 수술 등 리스크가 크고 난이도가 있거나 시간이 필요한 치료는 거의 하지 않으며 극히 일부가 고도의 치료를 제공하지만 치료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며 의료보다는 관광에 충실한 것이 특징
 - 둘째, 여러 의료기관이 연합해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료업무에 주력하는 형태로 각 병원은 경쟁관계에 있지만 의료목적지 전체의 브랜드 파워 향상에 노력하며 상호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 * 최근 대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 이러한 종류에 해당
 - 셋째, 국가(싱가포르) 또는 지자체(부산)가 주도해 의료기관들을 연계해 해외에 홍보하는 형태로,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함해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 *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 폭이 넓은 동시에 차별성이 약해 해외 환자들이 예상외로 선택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리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일본의 현황) 중국 의료관광 시장을 겨냥한 일본의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인터넷은 대부분 여행사를 경유한 홍보활동으로 의료업무가 소개되지만 의료기관이 드러나지 않아 신뢰성이나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
 - 현재 일본 의료계가 중국시장에 충분히 주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계를 주도하는 이들의 의견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 자체를 반대한다는데 존재
 - 일본의 의료관광 추진 주체에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과 비교하면 추진주체가 명백하게 취약한 실정
 - 의료계의 의료관광 지지는 다양한 의미에서 중요한데 일단 국내환자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수요를 고려한 후, 국제 의료관광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정리·통합은 의료업계만이 가능
 - 또 의료기술의 우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해외 홍보시 의료업계가 주체가 되면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장점을 확보

- (향후 과제) 중국시장에 일본의 의료관광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잠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잠재적 니즈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경제효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
 - 그러나 일본의 의료관광은 아시아 신흥국과 들과 비교해 차별화할 수 있는 의료업무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다른 나라들도 의료관광의 주력상품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따라서 의료관광시 일본이 가진 우위성을 정확하게 전달, 보급하는 한편 새롭게 잠재력을 발휘할 의료업무를 특정해 독자성을 어필하는 정책이 향후 의료관광 발전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서는 일본 의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지만 의료업계 최대 조직인 의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현재로선 가장 큰 장벽으로, 의료관광의 추진효율이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 또 의료관광국으로 일본이 가진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일본 의료의 진정한 매력과 강점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일본이 해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등은 향후 연구과제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중국은 오는 '20년 의료보건 개혁 완료를 목표로 보험 확대와 의료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진행 중. 본 보고서는 영국 의학잡지 랜싯(The Lancet) vol. 384('14년 8월)에 게재된 '중국의 세분화된 헬스케어 전달 시스템과 민영화의 선부는 결합에 대한 경계(Harnessing the privatisation of China's fragmented health-care delivery)'를 통해 중국 의료보건 개혁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 배경

- (배경) 중국 정부는 오는 '20년까지 모든 국민들이 기초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건 개혁을 추진
 -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초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09년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의료보건 개혁 계획을 발표
 - 그 후 단 4년 만에 의료보험 대상자 확대와 1차 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는 의료 수요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맞춰 병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전달 시스템을 고품질의 효과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
 -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기존 병원중심 의료보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자칫 정책의 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중국 의료보건 시스템 현황과 정책 전개

- (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현행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 이에 따라 의료보건 분야의 공적 지출은 '09년 4천816억 위안에서 '12년 8천366억 위안으로 급증했으며, 3대 의료보험 중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
 - 또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패키지의 내용을 정부가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의료보건 인프라를 강화
 - 중국 정부는 구체적 정책으로 △의료보험 확대 △평등한 공공의료 서비스 △1차 의료보건 강화 △EMP(Essential Medicine Program) △공공병원 개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등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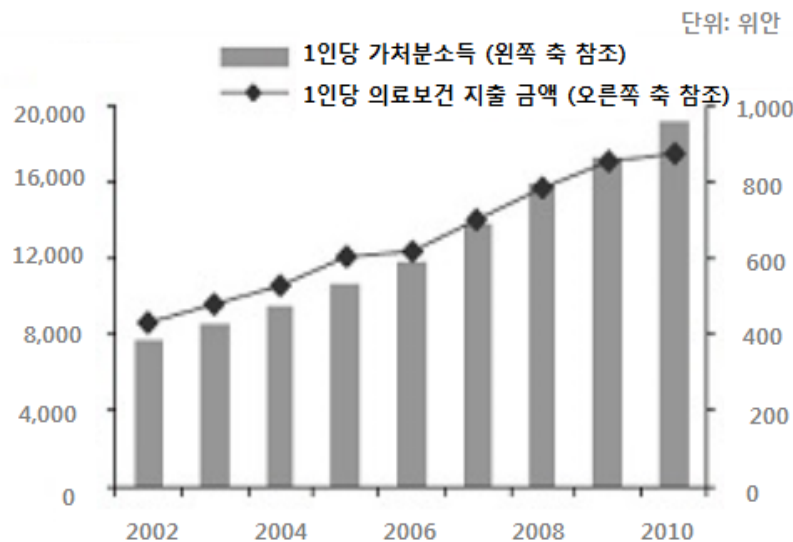
▼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의료보험 확대	- 기존 의료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
평등한 공공의료 서비스	- 전 국민에게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무상 제공 -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패키지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예방접종, 감염 질환 관리, 임산부를 위한 각종 검진 프로그램 등 포함
1차 의료보건 강화	- 농촌 지역 중심으로 1차 의료보건 인프라 강화 - 의료보건 전문 인력 훈련 지원 강화
EMP (Essential Medicine Program)	- 적절한 투약지도를 위한 약물 목록 시스템 구축 - 지역 기반의 중앙화된 약물 조달 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개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 17개 도시에서 ① 병원의 소유와 규제 분리 ② 정부행정과 병원운영 분리 ③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분리 ④ 의약품판매와 병원매출 분리 등 시범 프로그램 진행

- (현황과 과제) 중국 정부는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의료보건 개혁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오는 '15년까지 중간목표를 설정해 진행 중이나, 의료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이 필요
 -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보험 가입률 96%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의료보건 서비스 전

달 시스템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며, 1차 의료기관보다는 2차 및 3차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형태가 여전히 강세

- 또 의료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07~'12년까지 1인당 실질 의료보건 지출 총액이 연평균 14.9%씩 증가해 환자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은 무리
- 특히 '15년까지 민간병원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병원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병원간 경쟁 유도를 통한 개혁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의료시스템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의료보건 지출금액 증감 현황

□ 중국 의료보건 개혁정책의 개선 방향

○(문제점) 병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병원 민영화 촉진 정책과 선불리 결합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 특히 △의료보건 지출의 지속적 확대 △환자의 비용부담 심화 △환자의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의 질과 접근 가능성이 결정되는 양극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또 영리추구형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및 최첨단 진단기기 남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투자 허용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의료보건 지출이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제언) 중국 정부의 의료보건 개혁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첫째, 의료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채택
- 둘째, 중국 정부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사이에서 경쟁의 모범이 될 만한 시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존의 정부 정책 내용과 연계해 공공병원 거버넌스의 개혁을 촉진
- 셋째,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1차 의료보건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매와 인구 규모에 맞는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병원 개혁을 추진
- 넷째, 막연한 구호 대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
- 다섯째, 영리추구형 민간병원의 시장 확대 정책은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검토



중국의 의료현황 및 일본 의료관광과의 연계

중국은 의료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후커우(戶口)가 없는 주민은 의료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 그러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주력. 본 자료는 일본 후쿠오카현이 '14년 10월 발표한 '의료관광의 재고와 의료협력 가능성 (『メディカルツーリズム』の再考と医療連携の可能性について)'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의료현황 및 일본 의료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석

□ 중국 의료현황

- (개요) 중국 정부는 오는 '20년까지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목표로 관련 제도 개혁을 시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
 - 중국 의료기관은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 규모·설비·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으로, 크게는 병원과 위생원으로 분류
 - 병원은 종합병원을 의미하고 규모나 설비를 기준으로 다시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위생원은 소규모 클리닉으로 대부분 비영리이며 의사도 공무원
 - 또 대도시 병원에서는 환자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면 의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전문학교만 졸업하고도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일 정도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
 - 중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의사법을 시행하면서 국가고시 합격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의사법 시행 전 이미 의사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인정
 - 한편 중국 정부가 최근 의료분야의 민간개방을 장려하면서 민간병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
- (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신형 농촌합작 의료보험, 도시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 의료보험 등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유
 - 의료보험 적용도 성(省)과 시(市)단위 지역한정급부가 원칙

- 또 거주지라고 해도 지정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외래진료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규제가 많고 절차도 복잡
- 이처럼 중국 의료보험 제도는 후커우(戶口), 즉 호적제도를 전제로 설계된 탓에 호적이 없는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
- 중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도 미달
-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매년 의료비가 폭등하는 부작용을 유발

▼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보험종류	농촌형 의료보험	도시형 의료보험	
	신형 농촌합작 의료보험	도시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
실시주체	성급(省級- 성, 직할시, 자치구), 지구급(地區級), 현급(縣級)		
가입대상	농촌 주민	도시의 기업 종업원과 퇴직자	도시 주민(종업원, 퇴직자 제외)
가입자 수	8.05억 명(2011년)	2.65억 명(2011년)	2.71억 명(2011년)
도입연도	2003	1998	2007
보험료	지방에 따라 상이 - 동부의 경우 정부: 40위안 보조 개인: 20위안 부담	지방에 따라 상이 - 동부의 경우 피고용자는 급여의 2%, 고용자는 급여의 6% 각출 퇴 직자는 면제(기업이 부담)	지방에 따라 상이 - 동부의 경우 정부: 40위안 보조 개인: 10위안 부담
급부범위 (상한설정)	지방에 따라 상이 (일부 지역 중증 치료비만. 소액 치료는 자기부담)	일반 외래, 입원 모두 급부	중증치료비, 입원만 급부. 소액 치료는 자기부담

□ 일본 의료관광과의 연계

- (의료관광 실태) 중국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니즈가 증가
 - 중국의 의료수준은 제도상의 문제가 겹치면서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으로,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은 세계 최첨단 의료설비를 갖추고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이들 병원에는 환자가 집중돼 원하는 시기에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부유층 가운데는 많은 수가 해외에서 진료 받기를 희망
 - 이와 관련, 한국과 스위스는 미용성형, 미국은 암검사, 언어 불편이 없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도 선진의료 분야에서 중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
 - 일본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의료관광은 어디까지나 관광에 포함된 옵션의 하나로 이해되면서 여행사가 주도하고 있는 형편
 - 하지만 중국 정부가 외국계 여행사가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는 활동을 불허하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 원래 양적 논리를 중시하는 여행사는 고객 수를 기대할 수 없는 옵션 상품 판매는 소극적이기 마련으로, 의료의 경우 환자별 사전 동의는 물론 코디네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여행사가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
 - 결과적으로 일본의 의료관광 상품은 단발적인 ‘검진여행’에 불과하고, 개인 브로커가 횡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 (검진여행에서 탈피) 검진·치료·재활 의료기관과 연계해 애프터케어가 가능한 일련의 체제 구축이 요구
-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자본이 전액 출자하는 병원의 설립을 7개 성과 시에 시범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
 - * 그동안 외국자본에 의한 병원설립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만을 인정
 - 이번 개방에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내포
 - 중국 대형병원에는 최첨단 설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의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경험이 부족해 오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 수요가 증가
 - 이러한 환자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검진여행에서 탈피, 의료전문 기관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검진·치료·재활 기관과 연계해 애프터케어가 가능한 일련의 체제 구축이 필요
 - 의료관광의 주요 목적을 의료 컨설팅에 두고,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남은 시간에 관광을 즐기도록 해도 충분

- (시사점) 일본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하지만 의료의 본질은 국적이나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의 정신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의료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기 마련
 - 따라서 지역의료 활성화 및 전국민 의료보험을 견지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관,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의료관광이 창출하는 소득과 일자리를 지역의료의 또 다른 발전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책 수립이 요구
 - 특히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후쿠오카와 규슈는 그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는 의료관광에 대해 외국에서 선호하는 일본 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유럽의 새로운 1차의료 서비스 모델

1차의료는 성공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초석으로서 시대와 질병의 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 본 보고서는 컨설팅업체 미 KPMG가 영국의 헬스케어 정책 분석업체 누필드 트러스트(Nuffield Trust)와 공동으로 작성해 '13년 12월 발표한 '1차의료: 새로운 설계와 모델(The primary care paradox: New designs and models)'을 통해 1차의료의 새로운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 등을 제안

□ 현황

- (1차의료의 특징) 1차의료는 맨 처음 단계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일반적 의료 행위로서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
 - 최근에는 IT 기반의 원격진료 등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주치의 방식 모델과는 다른 1차의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
 - 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형 간호서비스, 금연과 체중조절을 위한 공공 보건 서비스, 기초체력강화 훈련 지원 서비스 등 질병 치료 이외의 새로운 수요도 확산
- (1차의료 관행의 변화) 유럽에서 1차의료 체계의 규모와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1차医료를 통해 제공되는 가치도 다양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
 - 병의원의 잘못된 관행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지불 메커니즘의 개혁과 1차의료 담당 기관의 규모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필요
 - 1차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확대 및 정보기술 혁신 성과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특징적 요인들이 반영된 새로운 1차의료 모델들을 개발 (표 참조)

▼ 유럽의 새로운 1차의료 모델 사례

사례	국가	주요 특징
Zorg in Ontwikkeling (ZIO)	네덜란드	90개 가정의학과 의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구 17만여 명을 담당 -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 - 다분야의 1차의료 기관들이 협업으로 만성질환을 관리 - 건강보험과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 - 네트워크의 회원 기관들은 교육과 IT에서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 - 인구기반의 예산책정 방식 시범 진행
Brahehälsan	스웨덴	1차의료 시장개방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영리기업과 민간 1차의료 클리닉을 설립 - 의사 12명, 간호사 10명, 건강관리 전문가,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사회복지사 등이 협업 1만2천6백여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전자 환자기록 자료를 보유 - 외래환자 서비스 및 로컬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
Community Health Centre Botermarkt	벨기에	- 빈근지역인 겐트(Ghent)에 비영리 헬스센터가 설립되어 환자 6천여명에게 서비스 제공 - 의사 9명을 비롯, 간호사와 건강증진 코치, 영양사,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직원 등이 활약 - 전자기록 시스템 및 다양한 진료과목간 기록을 공유 - 질병예방, 치료, 임시처방, 건강회복, 건강증진 등을 통합한 1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공동체 지향적인 1차의료 제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와 함께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
Whitstable Medical Practice	영국	- 국민건강보험(NHS)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를 통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 의사 19명, 간호사 34명, 기타 직원 130명이 참여하고 소셜케어와 헬스케어를 통합(Whitstable Integrated Social and Health care pilot - WISH) - 전자 진료기록 시스템을 구축 - 질병예방, 운동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

□ 새로운 1차의료 서비스 모델의 조건

- (새로운 요구) 유럽의 새로운 1차 서비스 모델 사례에 반영된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요구 및 서비스 제공 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출
 - 대다수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헬스케어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 환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중심의 서비스
 - 기관 방문환자뿐 아니라 기관에 등록된 모든 개인들, 특정지역 거주자, 특정 인구집단에 속한 개인 모두에 대한 서비스
 - 헬스케어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한 협업 서비스
 - 초진, 진료상담, 진단, 케어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대기시간 및 연중무휴 간호 상담 및 돌봄 서비스
 - 의료적 결정에 대한 동료평가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처치 및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해 안정성과 고품질을 유지하는 서비스
 - 재정, 인력, 공공기금, 상위 헬스케어 시스템에 부합하는 서비스
- (새로운 모델 개발의 단계) 1차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
 - 첫째, 환자나 대중이 새로운 1차의료 모델 속에 포함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설계 원칙들을 결정
 - 둘째, 서비스 설계 원칙들이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체화하되, 지역 단위에서 창의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셋째, 새로운 1차의료 모델의 진화와 이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 방식, 성과측정 방식, 행동원칙을 결정
 - 넷째, 혁신과 변화를 증진하고 의료 시스템에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과 접근방식을 개발
- (전망) 새로운 1차의료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통합적인 환자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접근성과 지속성, 환자 및 인구 중심의 의료 서비스, 투명한 정보체계와 성과 평가, 환자의 참여 확대, 전문화된 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
 - 1차의료 기관의 규모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환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1차의료 모델 운영이 가능

▼ 새로운 1차의료 서비스 설계 요건

구분	내용	사례
접근성과 지속성	• 행정절차로 지체하기보다는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의료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잡한 상담과정을 단축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의료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통적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환자와 담당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	• Nairn Healthcare Group (스코틀랜드) • ParkinsonNet (네덜란드) • Kaiser Permanente (미국) • Community Health Centre Botermarkt (벨기에)
환자 및 인구 중심의 의료 서비스	•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참여 • 예방차원의 선제적 노력 및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장기적 접근 • 다양한 환자 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진단 관리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치료 병행	• The Bromley Bow Centre (영국) • Your HealthPartnership (영국) • The ZIO network (네덜란드) • ParkinsonNet (네덜란드)
정보, 성과, 참여	• 환자의 의료정보를 단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1차의료기관의 진료 수준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환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자산을 활용	• Community Health Centre Botermarkt (벨기에) • The Vitality Partnership (영국)
관리와 책임	• 전문적인 관리, 리더십, 조직적 지원을 위해 요구분석, 정보시스템, 인력관리, 프로세스 개선, 전략기획, 일반 관리 부문의 행정전문가가 필요 •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1차의료 업무방식 마련 • 단순히 환자 방문 수를 늘리는 대신 환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	• Nairn Healthcare Group (스코틀랜드)



핀란드의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 정책 모델

공중보건 업무의 핵심 과제는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헬스케어 서비스 및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결. 본 보고서는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Hjelt Institute와 Folkhälsan Research Center가 '13년 12월 발표한 '지역맥락에서의 건강증진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HEALTH PROMOTION IN LOCAL CONTEXTS AND ENABLING FACTORS : A study of primary healthcare personnel, local voluntary organizations and political decision makers)' 을 통해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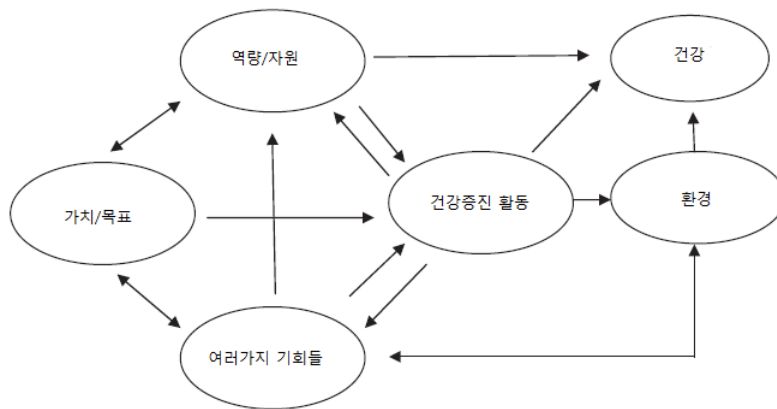
□ 배경

- (건강증진)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게 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건강관리(health care) 차원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성취가 가능¹⁾
 - 양질의 건강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의사결정, 전략의 기획과 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할 때 건강증진이 가능해지며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핵심 역할을 담당
 - * 이때 지역사회의 역량이란 지역사회가 가지는 주인의식과 스스로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WHO에 따르면, 건강서비스(health services)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책임은 개인·지역사회 집단·건강전문가·건강서비스기관·정부 등이 공유하며, 보건의료체계가 건강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따라, 종합적인 건강증진 활동과 보건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성공요소들을 포착하고 1차 건강관리²⁾ 서비스 모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

1)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 헌장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WHO, 1986)에서 발췌

2)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1차적 primary에 이용하는 보건 서비스. WHO가 제창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나 국가가 조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역 개인이나 가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면서 그들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강관리를 의미 (출처: 간호학대사전)

- (다층적 건강증진 모델)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 관련 활동들은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모델³⁾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 핀란드의 4개 지역사회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지역자원봉사활동협회(Local Voluntary Association : LVA)⁴⁾와 지역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을 분석
 - 특히 지역단위의 정부기관들과 LVA의 긴밀한 협업관계 및 이를 통한 LVA의 적절한 참여가 건강증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다층적 건강증진모델(multilevel health-promotion model)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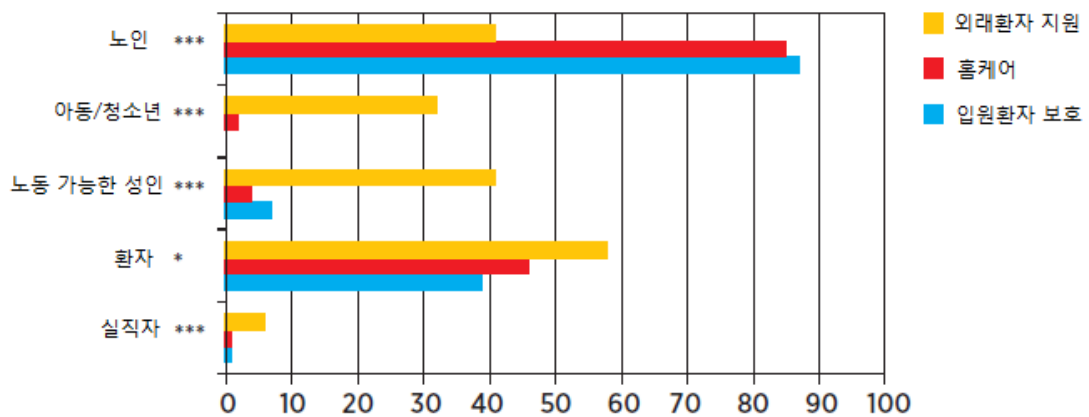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 (LVA의 역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LVA와 지역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예산과 운영계획과 관련한 공조 및 협력은 비교적 미약한 편
 - LVA는 지역정부로부터 각종 건강증진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물품, 전문기술, 관련교육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
 - LVA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는 상당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

3) The multilevel health-promo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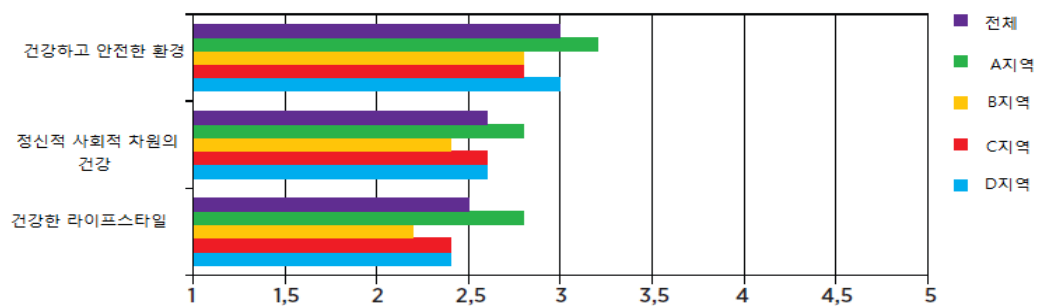
4) local voluntary associations

- (인구집단별 차이) 인구집단별로 우선 요구되는 건강증진 서비스의 영역이 상이한 가운데, 노인과 환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
- 특히 노인집단의 경우 가정 및 병실에서의 삶의 질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노인을 제외한 다른 인구집단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시 외래 진료 지원이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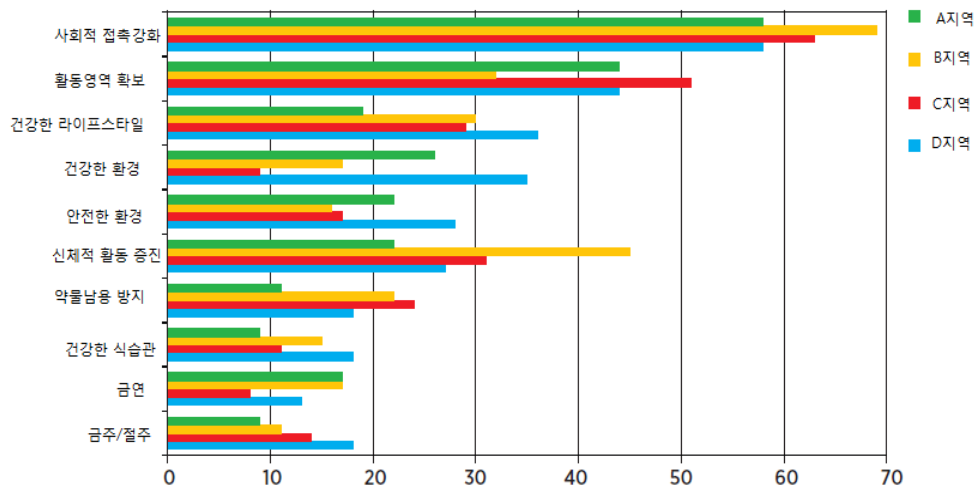
▲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서비스 필요 영역 비교

-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분야) 건강증진을 위한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LVA의 관점에 다소 차이가 존재
- 정책결정자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환경과 사회, 라이프스타일 측면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강조



▲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지역별 건강증진 분야 비교

- LVA는 정책결정자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원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조사대상 4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접촉 강화 및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강조



▲ LVA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지역별 건강증진 분야 비교

□ 결론 및 시사점

- (LVA를 활용한 지역 건강증진 활동) LVA들을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정책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지역공동체의 참여, 권한이양의 실천 및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의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 건강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 지역적 맥락에서 ‘다층적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이 같은 협업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역량,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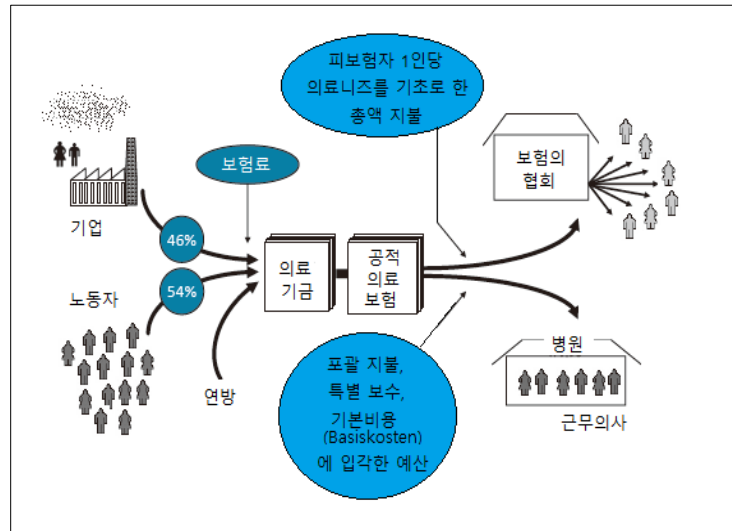


독일 의료제도의 특징 및 의료보험 현황

독일의 의료제도는 공적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재정조정을 위해 의료보험에 세금이 투입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본 자료는 일본 JA공제종합연구소가 '14년 10월 발표한 보고서 'EU통합과 독일의료(EU統合とドイツ医療)'를 통해 독일 의료제도의 특징과 의료보험 현황을 분석

□ 의료제도의 특징

- (공적보험제도) 독일은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의 공적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를 운영
 - 독일은 현재 '질병금고(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를 중심으로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
 -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에는 전체 국민의 90%가 가입한 가운데 '수입이 일정 수준(보험의 무 한도액)을 상회'하거나 '공무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가 면제
 -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은 의사나 병원에 대한 진료보수 지급방식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개업의의 경우 보험의협회(의사들의 자치조직)가 진료보수를 지급
 - 또 독일은 특정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의사 수를 결정, 가정의는 인구 1천671명 당 1명, 전문의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1만3천399명~2만664명 당 1명, 마취의 등 특별 전문의는 4만6천917명 당 1명으로 책정
 -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들 숫자를 근거로 지역의 현재 공급 상황(개업 상황)을 조사해 110% 이상의 과잉지역에는 개업을 허용하지 않고 공급부족 지역은 개업 촉진을 위한 재정조치를 시행



▲ 독일의 의료제도 (병원, 개업의에 대한 진료보수 지급 구조)

□ 의료보험 현황

○(의료보험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1년 독일 의료비는 GDP의 11.3%로 OECD 평균인 9.3%를 상회하나 의료 접근성은 역내 국가들보다 우수

- 독일 질병금고의 특징은 가입자가 질병금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런 특징은 1993년 제정된 질병보험구조법(GSG)에 따라 피보험자의 질병금고 선택이 자유로워지면서 시작

- GSG의 기본 이념은 '연대하에서의 경쟁'으로, 피보험자의 질병금고 선택 자율성 향상, 리스크 구조 조정, 질병금고의 관리운영 체제 강화 등을 통해 다른 금고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경쟁을 촉진

- 독일 질병금고에는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자질병금고, 직원금고, 노동자대체금고, 선원금고, 연방광부공제조합, 농업금고 등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법률로 규정

- 각 질병금고는 피보험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주로 연령에 따른 리스크 조정*이 실시되기 때문에 질병금고별로 보험료가 상이

* 질병금고가 가입자의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 불공평한 요인에 따라 가입자를 선별하지 않도록 질병금고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제도

-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피보험자 소득, 연령 등 수익 측면에서 경쟁상 유리한 질병금고가 경쟁상 불리한 질병금고에 교부금을 지원

- 현재 독일 국민 중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90%,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나머지 10% 정도
- (세금 투입) 독일 연방정부는 고령자 증가로 의료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정조정을 위해 의료보험에 세금을 투입
 - 독일의 의료보장은 세금이 의료보험에 투입되지 않는, 즉 의료보험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초래
 - 프랑스의 경우 의료보장의 주요 재원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출하는 보험료이지만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일반사회보장제(CSG)를 투입
 - 독일도 비슷한 상황으로 '04년부터 의료보험에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담배세 증세분을 기초로 의료보험을 보조
 - 이후 독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증액되는 추세로 '08년에는 사회보험료가 63.1%, 일반정부부담(공적비용)이 35%, 기타 1.9%로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 한편 공적보험의 보험료는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기업은 급여의 7%를, 직원은 여기에 0.9%를 추가해 7.9%를 보험료로 납부
 - 독일은 환자의 자기부담이 매우 적는데, 예를 들어 외래 진료는 분기별 진찰료가 10 유로이며, 가정의가 소개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경우 같은 분기라면 다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간병보험) 독일은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간병 니즈가 증가하고 고령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간병보험을 도입
 - 독일의 간병보험은 1996년 발족 초기부터 가족의 간병을 장려하는 간병수당(현금)을 도입, 당시에는 간병수당이 간병급부비의 43.1%를 차지했으나 총액이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매년 감소해 2005년에는 23.9%로 하락
 - 독일은 가족이나 비공식적인 간병을 중시하지만 재택요양의 경우 가족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큰 문제
 - 저임금 중노동으로 알려진 간병 분야에는 현재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출신 여성이 대거 활동 중으로, '12년 독일에서는 약 42만 명의 폴란드인이 직업을 가졌으며 직업을 가진 폴란드 여성의 20%가 간병 분야에 종사
 - 한편 독일의 병원들은 관리된 체제 하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건물이나 고가의 의료기기 등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한도 내에서 병원 경영

에 개입

*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병원은 순수한 의료서비스 부분만을 담당하며 재활과 요양은 병원이 아닌 주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실시

○(의료진의 이동) EU에서는 재화, 서비스, 인력 등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독일을 비롯한 역내 국가간 의료진의 이동이 증가

- 독일에서는 의료가 특별히 고수입을 올리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영국, 노르웨이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빈번
- '13년의 경우 3천35명의 독일 의사(이중 독일인은 62.9%)가 국외로 이주한 가운데 3천 345명의 동유럽 등 의사가 유입, 독일내 외국인 의사는 전체의 8.7%('13년 12월)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한편 '13년 10월 EU 역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5억 명의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의료수준이 높은 독일은 EU 역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환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부상



필리핀 의료관광 현황과 경쟁력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의료관광 산업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통해 차세대 주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 본 자료는 아시아 여행 및 라이프스타일 전문지 『Balik Bayan』 '14년 2월/3월 발행본에 게재된 '필리핀의 의료관광 (In Focus: Medical Tourism in the Philippines)' 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필리핀의 의료관광 현황 및 경쟁력에 대해 검토

□ 필리핀 의료관광 산업의 특징

○(경쟁력)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은 필리핀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중 하나

- 의료관광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 숙련도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인력, 선진화된 시설, 호텔과 리조트 등 편리한 휴양시설이 동시에 필요
- 필리핀의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 및 요양 전문 인력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의료 교육 협력도 활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도 중요한 경쟁력 요소이며, 저렴한 의료비용은 △주요 통화에 대한 폐소화 환율이 높고** △의료 인력 인건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리핀 간호 인력은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 대거 진출하는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 환율 요인 외에도 필리핀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외국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

○(제도적 뒷받침) 의료관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표준과 입국자들을 위한 제도를 강화

- 필리핀 정부는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하여 '04년부터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PMTP(Philippine Medical Tourism Program)를 운영

- 의료기관에 대한 필리핀 보건부의 정기적인 점검 외에, 특히 마닐라 지역의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ISO 표준 적용 관행 확산
-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항목은 기본적인 의료 수준 이외 △조직관리 △서비스 진입의 편의성 △서비스 전달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환자의 권리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 등을 포함
- 이 같은 제도적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의료 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을 획득하는 의료기관도 증가하는 추세
- * 필리핀은 동남아 의료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미 Philippines Heart Center, National Lung Center, National Kidney and Transplant Institute와 같은 정부 기관을 운영

▼ PMTP 프로그램에 가입한 병원 및 병상 현황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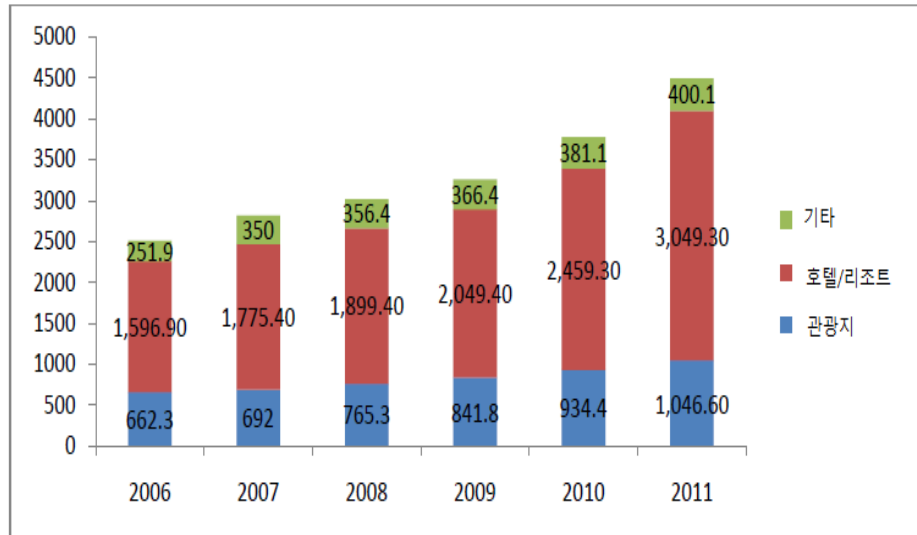
위치	민간		공공		계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병상 수
마닐라 시내	11	4,371	5	2,107	16	6,478
바탕가스 지역	1	220	-	-	1	220
세부	3	1,210	-	-	3	1,210
다바오	1	250	-	-	1	250
계	16	6,051	5	2,107	21	8,158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해외 의료관광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고객 접점 및 서비스 분야를 운영

- 국제환자센터(International Patient Center)와 필리핀의료관광사(Philippine Medical Tourism, Inc.)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의료관광 수요자를 지원
- 특히 수요가 많은 북미지역 고객을 위해서는 직통 안내전화를 두고 즉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 필리핀의 의료관광 산업은 특히 스파와 미용관리 등 광범위한 신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포괄하며, 필리핀 전통의 대체의학 및 약초를 활용한 힐링 서비스 등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필리핀의 콜센터산업은 영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의료관광과 접목해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지원 업무 영역으로 확대

** 필리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호텔투숙과 의료서비스 후 휴가음선, 대체의학 서비스 등에 스파 휴양을 반영



▲ 필리핀 스파 산업 매출 증가 추이 (단위 : 1백만 페소)

□ 필리핀 의료관광 산업의 가격 경쟁력

- (다양한 시술과 저렴한 비용) 필리핀의 의료비용은 의료선진국은 물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확보
 - 다양한 외과수술 패키지를 제공하고, 주요 병원 및 의료시설들을 중심으로 외과시술·안과·치과 치료시스템 및 서비스 정보를 의료관광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수술 분야별로 의료비가 영국과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미용 및 성형 분야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

▼ 필리핀의 분야별 의료비용 경쟁력

(단위 : 미 달러)

치료내용	미국	영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관상동맥 우회수술	70,000~133,000	14,600~23,500	16,500	12,000	11,500~17,500
심장판막 치환수술	75,000~140,000	-	13,000	12,000	14,000~21,000
복강경 위 밴딩	35,000~52,000	31,000~46,000	20,000	15,000	2,000~3,500
고관절 치환수술	33,000~57,000	12,600~24,900	9,200	12,000	5,000~7,600
무릎관절 치환수술	30,000~53,000	11,400~23,900	11,000	10,000	5,200~7,700
전립선수술	10,000~16,000	5,800~14,400	-	-	1,500~2,700
간이식	290,000~310,000	-	-	-	120,000~150,000
신장이식	200,000~250,000	-	-	-	23,000~25,000
복부성형 (미용을 위한 복벽지방·피부 절제)	60,000~10,000	8,200~8,900	6,250	-	3,000~4,000
안면 리프팅 (주름살 제거)	10,000~16,000	9,400~12,000	4,650	-	3,500~4,500
유방확대수술	7,500~8,500	7,000~8,400	8,000	-	3,000~3,500
유방축소수술	8,000~10,000	8,500~9,100	8,000	-	3,000~3,200
지방흡입수술	13,000~14,000	4,100~4,700	3,000	-	3,000~4,000
코성형	5,500~6,500	5,000~6,600	2,375	-	2,000~2,500
백내장 수술	1,500~2,500	2,200~5,900	-	-	800~900
치아 임플란트	3,500~5,500	2,500~3,300	-	-	500~600



인도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과 혁신

인도는 저소득 환경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눈에 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우수한 인력과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지속. 본 보고서는 독일 지멘스(SIEMENS)가 '14년 2월 발표한 '메디컬 솔루션: 인도의 헬스케어(Medical Solutions : Healthcare in India)' 중 인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으로 혁신에 성공한 사례를 검토

□ 배경 및 개요

○(개요)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헬스케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도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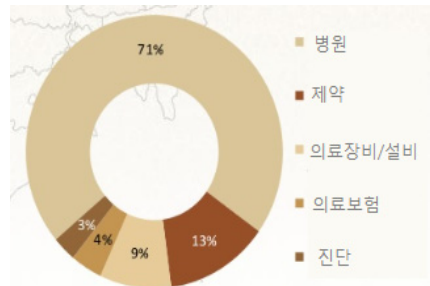
- 인도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지난 '10년 400억불 규모에서 '11년 720억불로 급증했으며 오는 '20년에는 2천800억불로 성장할 전망*
- 인도에서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인도 의료관광산업은 연간 25% 정도의 성장세를 거듭
- 의료기술은 물론 품질대비 저렴한 의료비용과 의료고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전략을 바탕으로, 인도가 자국 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국이 될 가능성도 제기

* 출처: KPMG, Hospital Market- India by Research on India Aranca Research, 2013

○(새로운 성장동력) 인도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산업발전 핵심 분야로 지원받고 있으며, 병원 중심의 서비스 부문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

- 인도 정부는 제 12차 발전 5개년 계획('12~'17년)에서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투자 예산을 830억불로 증액했는데, 이는 제 11차 발전계획 당시보다 무려 600억불 증가한 규모
- 이에 따라 인도 GDP 중 헬스케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2.5%로 확대
- 인도 헬스케어 시장의 총 매출 중 병원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약분야가 13%로 그 뒤를 잇고 의료 장비 및 설비가 9%를 기록
- 인도의 병원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는 '15년까지 812억불로 커지고, 의료서비스 기업이

ICT 기술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난 '10년 2억4천400만불에서 오는 '20년까지 매년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도 의료산업의 매출 비중 현황 ('13년)

○ (경쟁력과 해결과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쟁력과 해결과제가 공존

- 숙련도 높은 의료 인력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서구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
- 병리학 및 진단 분야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헬스케어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아웃소싱 기지로 자리 잡을 잠재력 충분

* 인도 아란카 리서치(Aranca Research)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주요 수술비용은 미국 및 서유럽 대비 10%에 불과

▼ 인도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과 해결과제

분야	내용
인력 분야 경쟁력	• 우수하고 저렴한 의료 인력과 인구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환자 집단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진단 및 병리학 분야 경쟁력	• 병리학 및 각종 의료관련 R&D 분야에서 해외 병원의 아웃소싱 업무 수행 가능
원격의료	•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질의 원격의료를 위한 다양한 시도 요구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 정책과제인 동시에 보험시장 성장을 위한 기회요소

□ 혁신사례

- (NH 개요) 데비 셰티(Devi Shetty)가 설립·운영중인 나라야나 헬스케어(Narayana Healthcare : NH)는 인도의 상황에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혁신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
 - 인도의 민영 병원들이 고급화를 지향하며 호화 시설과 부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NH는 적정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절감과 수익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성공
 - NH가 '01년 나라야나 흐루다알라야(Narayana Hrudayalaya)라는 명칭으로 개원할 당시 표방했던 '빈부격차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세계수준의 병원 설립'은 실현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회의적인 평가에 직면
 - 그러나 '01년 병상 300개로 개원한 NH는 현재 인도 13개 지역에서 17개의 병원(총 병상 수 6천개)을 운영하는 거대 병원 체인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6년간 병상 수를 3만개까지 늘릴 계획



▲ NH의 인도 및 해외 병원 네트워크 개원 현황

- (저비용 기반의 의료 서비스 확산) NH는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 부문의 혁신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더 많은 병원을 더 빨리 확산시키는 방식을 지향
 - 300 병상 규모의 저비용 멀티 특화 병원들을 꾸준히 세우고 병원 건립기간을 단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NH가 인도 남부 마이소르에 건립한 병상 150개 규모의 병원 건립비용은 업계 평균 비용의 5분의 1인 총 460만불에 불과
 - NH는 저비용 서비스를 지향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 표준의 의료 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미국의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인증을 획득

- (독특한 의료 시스템) 인력중심의 서비스업 특성을 살려 유연한 비용절감 체계를 만들고 비용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 수술실에 공장의 ‘조립공정(assembly-line) 방식’을 도입, 주니어급 의사들이 수술을 위한 예비 처치들을 모두 담당하고 수술과정의 결정적인 부분에서만 시니어급 의사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
 - 이를 통해 시니어급 의사들은 매일 더 많은 환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할 수 있으며 (심장수술의 경우 비용 20% 절감), 주니어급 의사들도 수술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림으로써 수련 기회를 확대
 -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통신(ICT) 기술을 통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운영비용 및 자료관리 인건비를 절감
- (건강보험과 해외진출)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정책과 협약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 확대
 - 저비용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과 더불어 '03년부터는 농부들을 위한 보험사업(Karnataka Yeshasvini Health Care Scheme : KYHCS)을 운영하여 월 0.08불(현재는 0.27불로 인상)의 보험료로 주요 수술을 받도록 지원
 - 최근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기존 통화료 외에 매월 0.32불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 이와 함께 의료관광 소비자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기존의 모델과 차별화를 위해, 미국 어센션 그룹(Ascension Group)과 합작으로 미국 및 중앙아메리카 인근 케이만제도에 병원을 건립하고 30~40%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등 해외진출 전략을 강화



터키의 의료관광 산업 진흥 현황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이 최근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본 자료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AREA REPORTS '14년 4월호에 발표한 '의료 관광객을 부르는 터키(トルコー医療で観光客を呼ぶ)'를 통해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을 유치해 치료하고 있는 터키의 의료관광 대저 현황을 고찰

□ 잠재된 성장 가능성 주목

- (현황) 터키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 진흥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12년 터키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은 관광객들은 약 25만명으로 '11년 15만6천176명에서 10만명 정도 증가
 - 본래 의료관광이란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을 의미하지만 터키 의료관광 통계는 특이하게 당초 관광을 목적으로 터키를 방문했다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관광객들까지 모두 포함
 - 이에 따라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방문자수에서 세계 5위 관광대국인 터키는 연간 약 3천6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 중 의료관광객수는 1%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

▼ 터키의 의료관광객 수

(단위 : 만명)

연도	외국인 관광객수	의료관광객수	방문객수	의료관광비율(%)
2010	11.0	16.3	3,302.8	0.5%
2011	15.6	18.7	3,615.1	0.5%
2012	25.2	21.6	3,646.4	0.6%
2013	N/A	19.2	3,109.9	0.6%

주 : '13년은 1~9월 누적치. 의료관광객수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터키인도 포함

- 과거 의료관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진국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저렴한 교통비,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로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또 공적 의료보험제도 보급에도 국내에서 양질의 의료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국가가 드물어, 선진국에서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찾아 개발도상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확산

* 예를 들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보험자나 저소득층은 고액의 의료비가 부담이고, 보험이 있어도 진료까지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국 의료수준이 낮아 우수한 치료를 찾는 경우 등

○(경쟁력-우수한 의료수준) 의료관광이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 그동안 터키 보건부는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미국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병원디자인, 투약, 감염예방, 환자 이송, 개호 등)의 근대화를 도모
- 일반적으로 JCI의 인증을 취득한 병원은 의료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터키 내에 JCI 인증을 취득한 병원은 약 50개로 이는 한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

○(경쟁력-저렴한 비용) 의료관광 성립의 두 번째 조건인 비용면에서도 터키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

- 의료관광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입원·치료비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비용 △치료에 관련된 코디네이션 등 부대서비스 비용 △의료서비스 제공국까지 가는 교통비 등
- 현재 인도는 의료관광 분야 가격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터키 의료비는 인도와 동등하거나 인도 보다 저렴한 편이며, 터키 주변 국가라면 교통비 면에서 인도보다 유리
- 또 터키항공은 원거리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최대 25%, 기타 국가의 여행객에게는 10~20% 정도 항공료 운임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부여
- 의료목적으로 터키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상위 10개국은 독일, 불가리아,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순으로 대체로 주변 국가들
- 이처럼 주변국가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를 원하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는 터키의 의료수준이 높다는 점, 다른 나라보다 교통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 주된 이유
- 또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어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요인도 작용
-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는 자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치료에 필요한 대기시간을 피하려는 요인이 주효

▼ 터키의 의료비 국제 비교

(단위 : 불)

시술	미국	터키	독일	인도
관상동맥 바이패스	129,750	11,375~15,000	17,335	8,666
심장판막 치환	58,250	16,950	N/A	11,750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45,000	10,750	11,644	7,000
무릎 인공관절 수술	40,000	11,200	11,781	7,833
척추고정	62,000	7,125	13,500~15,000	12,000
지방흡입	9,000	3,333	4,376	2,500
골수이식	300,000	40,000~70,000	250,000	40,000
감마 나이프	40,000	8,676	16,650~20,000	N/A
사이버 나이프	12,000	N/A	N/A	13,500
질식 자궁적출	20,000	7,000	5,500~7,000	4,250

- 일례로 유럽국가에서 방문한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안과수술의 경우, 4~5일간 체류하면서 비용은 2천500불 정도로 해결이 가능
- 터키 보건부에 따르면 터키의 의료관광은 특히 안과, 종양치료, 비만치료, 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뇌), 모발이식 등을 포함한 미용성형, 치과, 불임치료가 인기
- (의료 프리존 구축) 터키 보건부는 '10년 3월 의료관광부문을 개설한 이후 의료관광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건국 100주년인 '23년 의료관광객 200만명 유치, 지출액 200억 불 목표로 설정
- 터키가 의료관광 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막대한 성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
- 실제로 터키를 방문하는 이들의 1인당 지출액은 일반적인 휴가관광의 경우는 650불 정도지만, 의료관광인 경우에는 2천500~3천불로 커다란 차이
- 이에 터키 정부는 의료관광 진흥책으로 의료 프리존 개설을 계획 중으로 의료기관 외에 검사시설, 대학·연구, 온천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건강마을을 조성할 계획
- 방문객의 85%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전망하는 정부는 건설시 세금감면 조치와 함께 외자를 유치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최첨단 의료기술 이전을 촉진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

- 또 기존에는 외국에서 의사를 초빙해 고용하는 경우, 의사면허와 더불어 터키어 이해력을 필요로 했지만 이러한 규제를 제거해 역량이 뛰어난 전세계 의료진을 받아들일 예정
- (고령자 등 다양한 분야에 주목) 터키 정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료관광과 더불어 터키가 자랑하는 풍부한 온천자원을 활용한 온천의료관광, 고령자 의료관광, 장애인 의료관광에도 주목
- 고령자 의료관광은 장래 시장 확대를 겨냥한 포석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터키는 물론 향후 많은 국가가 직면할 과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장애인 대상 의료관광은 터키 내에만 인구의 12%, 약 900만명의 장애인이 존재해 관련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졌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주변국가의 수요도 충분하다고 판단



싱가포르의 의료제도 및 의료관광 산업 현황

싱가포르는 지난 10여년 사이 동남아 최고의 의료관광 대국으로 부상. 본 자료는 일본 지자제국제화협회가 발행하는 해외정보 전문지 『CLAIR REPORT』 '14년 4월호에 게재된 '의료제도와 의료관광으로 본 싱가포르의 전략(医療制度と医療ツーリズムに見るシンガポールの戦略)' 을 통해 싱가포르 의료제도와 의료관광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

□ 의료제도

-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의료비 등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고도의 의료수준 획득을 지속적으로 추구
 - 싱가포르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이념은 '자조노력'으로, 지난 1955년 수립된 '중앙준비금(Central Provident Fund : CPF)' 강제 적립제도가 이를 대변
 - * CPF 가입자는 적립된 저축을 정년퇴직과 사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생활자금, 주택구입자금(HDB), 투자자금 등 명목으로 인출이 가능
 - 싱가포르 의료제도는 의료적립금 제도인 메디세이브(Medisave), 임의가입형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셴드(Medishield), 저소득자용 의료비 부조제도인 메디펀드(Medifund)가 있으며 이들을 '3M'으로 명칭
 - 정부는 메디세이브를 근간으로 저소득층용 안전망인 메디펀드, 고품질 의료서비스는 메디셴드를 축으로 한 임의보험 등 각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주력
 - 싱가포르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부담비율('10년)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인 9.5%의 절반 이하인 4.0%로, 이 수치는 사회복지 분야 기본이념인 자조노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

▼ 싱가포르 의료제도 '3M' 의 개요

제도	개요
메디세이브 (Medisave), 1984년 출범	• 근로자 임금 및 자영업자 수입의 일부(연령에 따라 6.5~9.0%) 적립 • 적립 의무대상은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 • 적립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 • 적립금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드는 일정한 입원비, 당일수술, 정부가 지정한 특정 만성 질환의 외래치료에 사용 가능 • 적립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양친, 조부모 의료비로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상속·증여 가능
메디셴드 (Medishield), 1990년 출범	• 메디세이브로 대응하지 못하는 고액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 •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셴드와 더불어 보상내용이 넓은 상위보험인 인컴시드플러스(준공적 보험)와 함께 사용 가능 • 최고 수준의 사립병원 검진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득자용 보험인 인티그레이티드 쉴드 플러스도 활용 가능 • 임의 가입제도이지만 CPF 계좌 개설자의 90%가 가입 • 가입대상 연령제한 있음(90세) • 메디세이브처럼 일부 만성질환을 제외한 일반 외래진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메디펀드 (Medifund), 1993년 출범	•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정부 예산의 잉여금으로 창설된 기금 • 친척과 친지의 메디세이브 등을 활용할 경우 의료비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

○(의료기관) 싱가포르 병원은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분류되며, 사립병원의 경우 독자적으로 의료비 설정이 가능

- 공립병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건부의 지도하에 '80년대부터 민영화됐으며 현재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주식은 모두 정부가 보유
- 사립병원은 '오픈시스템' 방식을 채용, 의사가 개별적으로 병원측과 계약한 후 진료소인 메디컬센터를 개설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메디컬센터 스텝을 고용하며 운영방침도 경영자인 의사가 직접 결정
- 병원측은 전속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 병원 자체에 필요한 응급의나 간호사를 채용해 입원환자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외래진료 중심인 각 메디컬센터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
- 사립병원 대부분이 오픈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부동산 그룹이 병원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싱가포르만의 특징

□ 의료관광 산업

- (의료관광의 장단점)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중점산업으로 판단해 지난 10여년 동안 노력한 결과, 아시아 의료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
 -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관광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 지난 10여년 동안 동남아 지역 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 일례로 자국 의료기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생물의학 연구개발에 매진, 인접국에서는 불가능한 첨단 암치료 기술을 제공하는 우위를 확보하는데 성공
 -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인접국보다 비싸지만 △암치료 등 경쟁우위 분야에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 안정적 사회질서와 우수한 교통인프라 △ 공용어로 영어사용 등의 요인이 의료관광지 선택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이 밖에 다민족 국가로 각종 종교시설이 충실하며, 인구의 20% 정도가 이슬람 신자란 점은 최근 증가하는 아랍권 부유층 의료관광객 증가에 일조
 - 그러나 높은 물가는 치료비는 물론 체류경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국이나 인도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해 관광에 중점을 둔 의료관광객들은 싱가포르를 치료지에서 배제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상황
- (외화획득 자원)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 공적 의료기관도 의료관광객을 의료관광객으로 수용하며 산업진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 지난 '10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70만 명으로 이들은 체류기간중 전년대비 30% 증가한 9억4천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약 7억5천만불)를 소비
 - * 대표적 의료그룹 파크웨이 판타이 산하 병원과 사립대형병원 래플즈(Raffles)의 환자 중 약 30%, 공공 의료기관 환자 중 약 20%가 의료관광객
 - 인구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첨단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객 수입을 통한 외화획득이 필수
 - 보다 많은 의료관광객을 수용해 얻은 이윤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다시 의료기술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싱가포르 의료관광 시장을 더욱 진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
- (싱가포르 메디슨) 의료서비스 허브 구축 목표로 한 부처간 협력프로그램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03년 자국을 아시아 의료서비스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프로그램인 '싱가포르 메디슨(Singapore Medicine)'를 출범

- 싱가포르 메디슨은 보건부(MOH)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청(EDB), 국제기획청(IE Singapore), 정부관광국(STB) 등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
- 주요 목적은 주요 의료거점으로서의 지위를 강화, 의료관광객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최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다음 역할을 수행

▼ 싱가포르 메디슨에 대한 각 부처 역할

부처	내용
경제개발청	• 의료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역량 개발로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
국제기획청	• 우수한 의사 확보, 의료종사자 확충 등 의료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장려
정부관광국	• 여행사 및 의료사업자와 협력해 의료관광 상품의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보건부와 협력하면서 싱가포르 의료서비스의 국제 마케팅을 실시

- (시사점) 2차산업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지금, 우수한 의료기술을 외화 획득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수립은 올바른 산업정책 방향
- 싱가포르는 적립제도를 중심으로 한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비용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의료비용의 재정부담 증가를 미연에 막는데 성공
- 그러나 싱가포르 의료시스템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료제도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주도형 안전망 같은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요망
- 하지만 2차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현 시점에서 우수한 의료기술을 외화획득 수단으로 육성하는 것은 산업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



아시아의 고령화 진행 및 요양 서비스 시장 현황

아시아는 젊은 인구층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경제성장이 기대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 본 자료는 일본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가 '14년 8월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 요양 관련 서비스 시장 현황 및 일본기업의 진출 가능성 고찰(アジアにおける介護関連サービス市場の状況および日系企業による進出可能性の考察)' 을 통해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및 요양 서비스 시장 현황을 분석

□ 고령화의 진행

- (개요)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는 '40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고령자 서비스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연간 3만5천불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소득 고령자'에 주목할 필요
 - 오는 '20년 고소득 고령자 수는 중국이 약 4천만명(일본의 1.3배)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태국 216만명, 인도네시아 175만명, 말레이시아 137만명 순으로 예상돼 특히 이들 국가의 고령자 서비스 시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따라서 향후 이들 국가의 고령자 관련 시설과 제품·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 고령자 대상 서비스의 노하우나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 확실
 - *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4%, '고령사회'는 14~21%를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

□ 국가별 요양 서비스 시장

- (중국) 오는 '26년 고령자 인구가 2억명을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유
 - 중국은 최근 고령자만 생활하는 세대와 함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중국 정부는 고령자 양로체제를 ① 시설 양로(거주시설) ② 커뮤니티 양로(출퇴근 시설) ③ 재택 양로로 구분하고, 고령자 중 90% 정도는 집에서, 7%와 3%가 커뮤니티와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체제를 정비(90-7-3 방식)
- 또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요양관련 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기업 소득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
-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요양관련 시장은 규모 자체가 크고, 요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

	고소득세대 고령자 추정인구 (천 명)		고소득세대 고령자 성장률 (2012-2020)	추정/잠재 시장규모 (백만 달러)
	2012年	2020年		2012年
중 국	11,710	41,588	17%	488,700
태 국	791	2,166	13%	1,151
인도네시아	470	1,752	18%	353
말레이시아	635	1,370	10%	639
싱가포르	405	710	7%	797

▲ 아시아 주요 국가의 요양관련 시장 규모 추정

- (싱가포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평균수명 세계 4위 국가로 아세안(ASEAN) 국가 중 정부의 고령화 지원제도가 비교적 충실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연금, 의료보험, 간병보험 및 요양 보조금의 4가지 제도를 모두 구비
 - 정부를 중심으로 복지지원단체인 'VWO(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와 민간 기업이 각각의 형태로 고령자 간병을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고령자 요양시설의 대체·확장 및 신설을 추진 중으로, 오는 '16년까지 전체 10개 시설, 3천300개 병상을 증설할 예정
 - * 이러한 시설은 기존의 데이케어 센터처럼 정부가 건설·소유하고, 민간이나 VWO가 리스해 운영하는 BOL(Build Own Lease) 방식을 채택

- 그러나 싱가포르의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민간시장의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등 제한된 사업기회 이외에는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
- (태국) 오는 '22년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30년 20%, '50년에는 30%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
 - 태국은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존재하는 탓에 가족이나 친척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고령자 단독 가구와 고령의 중증 환자 증가, 맞벌이 증가, 가사도우미 확대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요양 서비스 니즈가 급증하자 태국 정부도 서서히 고령자 지원책을 강화
 - 태국 정부는 전국 각지 사찰의 협력 하에 무료 데이케어 센터인 '엘더리 클럽'을 운영(현재 51개 시설)하는 한편 자원봉사 의료팀을 운영하며 자택방문 검진과 고령자 케어에 관한 조언 등을 제공
 -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간병보험이나 요양 보조금은 없으며, 연금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일반 국민은 월 600~1천 바트(미화 약 19~31불)의 고령자 수급으로 제한
 - 최근에는 요양관련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참여 사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은 특히 거주형 요양관련 서비스 제공에 주력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향후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
 - 말레이시아는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고 연금과 보험제도도 운영
 - 또 정부 및 종교계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 민간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이 존재하나 장기 요양시설은 태부족
 - 요양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 한해 월 300 링깃(미화 약 95불)의 요양수당이 지급
 - 인도네시아는 요양시장이 소규모이지만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고소득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 자체가 많아 향후 잠재시장으로의 가치는 충분
 - 인도네시아의 고령자 요양은 대부분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의료보험이나 요양보험 제도 자체가 없고, 연금도 일부 민간 기업과 공무원 및 군인을 위한 제도만 운영

- (시사점) 시장의 잠재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요양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서 요양관련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아시아 국가는 전반적으로 고령자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주로 가족들이 고령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기업에 진출 기회가 있는 서비스는 부유한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자택방문 서비스로 분석
 - * 집에서 대응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나 중산층 가정의 고령자가 입주할 거주시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아시아 국가 중 요양서비스 시장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 중국은 고소득 고령자수가 매우 많고 요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요양수요도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시장에 참여할 여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의료관광 붐에 따라 아시아 각국도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에 분주. 본 자료는 '14년 12월 페라마라얀 벨라스미(Peramarajan Velasamy) 말레이시아헬스케어여행위원회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 '의료관광 지역 SWOT 분석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의 사례 (Medical Tourism Destination SWOT Analysis: A Case Study of Malaysia, Thailand, Singapore and India)' 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을 비교 평가

□ 개요

- (개요)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이 붐을 이루면서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규모는 연간 380억~550억불로 추산
 - 의료 소비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추세는 비용·규제·시간·의료 수준·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의료관련 정보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글로벌 각국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싱가포르가 '15년까지 역대 의료관광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4개 주요 의료관광 국가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을 분석

□ 의료관광 산업 특징과 경쟁력

- (말레이시아) 현대화된 헬스케어 설비와 비용대비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을 앞세워 인기 있는 의료관광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난 '13년 약 77만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2억1천600만불의 수익을 창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년 190만명 정도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보건부에 말레이시아헬스케어여행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

- MHTC)를 설치하고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해 의료관광 비자 허용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동일 비자로 환자 1인당 4명이 함께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의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의료 서비스는 △심장질환 △정형외과 △암 치료 △난임 및 불임치료 △성형수술 △일반 종합검진 등이며, 이와 더불어 전통 보조요법 및 대체의학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
- 말레이시아는 △적정한 비용 △짧은 대기시간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환경 △언어장벽 최소화 △다양한 광광지역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13개
- 그러나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고액의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의료진에 대한 정보가 의료관광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태국) 1970년대부터 의료관광 산업을 시작한 태국은 '12년 약 253만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웰니스 및 스파 서비스 포함 46억불 정도의 수익을 창출
- 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일본, 미국, 영국, 중동, 호주 출신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동남아시아 고객 비율이 3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태국 정부는 의료관광객을 위해 90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며, 특히 중동 의료관광객에게는 '13년부터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
-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는 성형수술과 치과치료가 가장 인기가 있으며, 태국식 마사지, 스파, 각종 웰니스 활동과 원기회복 시술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가 서비스도 인기
- 태국의 병원은 아시아에서도 1급으로 평가되며, JCI 인증을 받은 37개 의료기관 대다수가 수도 방콕에 위치
- 언어장벽 문제는 각 의료시설에서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해 해결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태국에서 경험한 탁월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
- 태국 의료진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의료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해외 의료진의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태국 국내의 진료 면허 획득절차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진입장벽은 높은 편

- 태국의 의료관광 산업은 정부의 조직적 지원보다는 유명 민간병원들의 개별적 해외홍보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태국관광청(TAT)이 미디어 캠페인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태국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 단, 최근의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홍보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약점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12년에 10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실제 결과는 가족 포함 85만명이었고 그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환자 비중이 각각 47%와 12%를 차지
- 보건부는 '13년 정부산업간 협력조직 '싱가포르메디슨(Singapore Medicine)'을 설치, 아시아 의료허브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의료관광 산업 증진을 도모
 - 그러나 정부가 의료 허브 정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무역과 의료 정책에 관한 여론 분열로 인해 의료관광 지원은 미미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병원 시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21개의 JCI 인증 의료기관에서 최첨단 진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영어 소통이 가능하며 △안전한 환경과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
 - 또 해외 의사가 신규 의사면허자의 상회하고, 공공병원 의사의 1/3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
 -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 의료산업과 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이와 함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강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의료관광 산업을 확장하려는 의지와 공공병원의 병상 수가 부족한 것도 약점
- (인도) 의료서비스의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요가와 명상 등을 활용한 통합 의료서비스가 가능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적이 의료관광국으로 주목
- 인도는 '12년에 전년대비 23% 증가한 17만1천21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출신
 - 인도 관광부는 의료관광 산업 홍보를 위한 해외 로드쇼와 의료관광 비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들은 해외로 진출
 - 심장수술, 정형외과, 치과치료, 성형수술, 장기이식, 대리모 출산 등의 인기가 높고 특히 장기이식과 대리모 출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분야

- 저렴한 비용과 짧은 대기시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 높은 의료 수준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21개 의료기관은 대부분 뉴델리와 뭄바이에 위치
- 그러나 도로와 교통 등 주요 인프라가 열악하고 병원의 치료비 부과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각종 범죄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약점

▼ 미국과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지역의 평균 의료비용 비교

(단위 : 불)

분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관상동맥우회술	136,000	14,000	13,000	23,000	7,000
혈관성형술	57,000	8,750	3,800	27,750	3,300
무릎관절대체	45,000	10,900	11,400	16,700	6,800
고도비만수술	33,000	8,600	16,700	20,000	5,50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제도

일본은 사회보장급부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본 자료는 일본 참의원이 '14년 1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인구감소 사회에 따른 사회보장(超高齢社会・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保障一危機に立つ社会保障制度)'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가 일본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 초고령·인구감소 사회 도래

- (개요)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는 지난 '11년 107조4천950억 엔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으며,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1%에 육박
 - * 1년간 연금, 의료, 개호, 양육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전 및 서비스 급부를 통칭
-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13년까지 4년 연속 일반세출의 50%를 상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등장
- 이런 가운데 인구는 계속 감소중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5%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일본은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

□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 (세대간 격차 확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로 오는 '50년에는 청년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시기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전망
 - 사회보장 외에 누적된 재정적자로 세대간 격차는 커질 전망으로 세대별 수익과 부담을 추산하면 손자가 조부보다 약 1억 엔을 손해 본다는 추정도 있으며, 이러한 세대간 불균형은 일본이 세계 1위
 - 정부도 세대회계를 이용해 정부로부터의 수익과 부담의 급부 차이를 계산한 결과, '03년 기준 60세 이상은 4천875만 엔의 이득을 보는 반면 이후 태어난 세대는 4천585만 엔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

- (연금) 사회보장 제도 중 특히 연금제도는 의료나 개호와 달리 현금급부이기 때문에 세대 간 격차 문제는 중요하며 젊은 세대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당연
 - 1) 급부수준 인하: 고도 성장기 인상됐던 연금은 '85년 개정으로 낮아졌고, 버블붕괴 후 제로성장 시대에 돌입해 연금액수를 낮추는 개정이 반복되면서 급부수준에 대한 세대 간 불공평한 상황이 확대
 - 2) 연금관의 변화: 과거 연금은 장수하는데 대한 대비였지만 고도 경제성장이란 사회변화로 재정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세대와 세대가 서로 부양하는' 구조라고 설명
 - * 이러한 '세대간 부양'은 사실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일방적으로 부양하는데 불과해 '고령자는 적은 부담으로 많은 연금을 받았지만 젊은이들은 부담에 비해 급부가 적다'는 주장이 확산
 - 3) 연금 수급기간 연장: '12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79.94세 여성 86.41세이며 65세 이후 연금 평균수급기간은 각각 14.94년과 21.41년으로 제정 당시 예상 보다 연금 수급기간이 연장
 - * 향후 연금가입자 감소, 평균수명 연장, 경제상황을 고려해 연금급부액을 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발동으로 연금의 급부수준은 내려가겠지만 65세 정년 이후 약 20년을 부과방식을 전제로 한 공적연금으로 지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4) 정책: 연금은 지급분이 부족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했으나 '85년과 '00년 개정 당시 경기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반면 '99년~'01년 물가 하락에도 특례적으로 연금액수를 동결
 - * 이후 계속된 물가하락으로 연금급부는 법률 규정보다 2.5% 높아졌고 '12년까지 누적 과지불액이 약 8조 엔에 이르자 '04년부터는 보험료 상한선을 먼저 결정하고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
- (의료) 일본의 '11년 국민의료비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38조5천859억 엔으로 사상최고를 갱신했으며 국민 1인당 의료비도 3.3% 증가한 30만 1천900엔을 기록했으며 의료분야는 사회보장관계비의 30%를 점유
 - 의료비 증가 원인은 ①의료기술 진보 ②질병구조 변화 ③인구 고령화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국민의료비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 증가가 의료비 증가와 직결
 - 법률 개정으로 70~74세 환자부담(고령자 배려 특례조치)은 '08년부터 20%로 인상됐지만 고령자의 반발을 우려해 예산조치를 통해 그대로 10%를 유지하고 있어 매년 약 2천

억 엔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 6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이 특례조치도 세대간 공평함이란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14년 4월부터 70세가 된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부담액을 20%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중

○(개호) '00년 4월 창설된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 사회화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개호분야 신규고용 창출이 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다는 점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개호보험 총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제도를 창설한 '00년 3.6조 엔에서 '12년에는 8.9조 엔, '25년에는 20조 엔에 이를 전망이며 고령자 인구증가로 인해 개호 니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요(要)개호 인정자수는 '13년 4월말 현재 564만 명으로 13년간 약 2.59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요개호율이 높아지는 75세 이상 인구는 오는 '30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급격한 초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439만 명, 치매 유병률은 15% 정도로 추산
- 정부는 사후대응에 주안점을 둔 기존의 케어에서 위기 발생을 막는 조기·사전적인 대응에 기본을 두는 케어를 목표로 '13년부터 '치매시책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을 가동중

□ 인구감소 대응방안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일본 여성(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출산 시기인 20대 후반~30대에 현저히 감소하는 'M자 곡선'을 보이는 가운데 곡선의 바닥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

- '12년 총무성의 취업구조 조사에 따르면 '출산·육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113만 명으로 결국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20대 후반~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과제
- OECD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합계 특수출생률도 높은 반면 육아로 일을 그만

두는 경향이 있는 일본, 한국, 이탈리아는 출생률도 낮는데 일본이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유지하려면 '10년 기준 30~34세 여성의 참가율 67.6%를 '30년에는 81.2%로 높일 필요

- (고령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0년 남성 65~69세의 48.7%를 '30년에는 65.0%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단계적 인상으로 '13년 4월부터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됐고, 기업에는 정년의 폐지 및 인상, 지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고연령자 고용조치 마련이 의무화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3년 6월 현재 '고령자 고용상황'은 지속고용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의 66.5%로 전년 대비 17.7%p 증가
 - 현재는 65세까지 안정적 고용 확보가 목표지만 추가적으로 70세까지의 고용 확보가 필수이며, 사회 참여가 고령자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부수적 효과로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
- (저출산) 정부도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목표로 저출산 대책을 모든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본사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롭게 '13년 6월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경향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합계특수출생률이 상당기간 1.5를 밑돈 선진국에서 이후 1.5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된 국가는 전무
 - 한편 일본의 총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34만 명('10년 인구의 0.3%)의 이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사회보장 구조를 고령자 중심 급부에서 전세대 대응형으로 전환한 정부는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보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



‘SCM’ ,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관리하는 ‘공급망관리(SCM)’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 본 자료는 미국 MBASkool사가 ‘14년 4월 발표한 ‘헬스케어 산업 내 공급망관리의 부상(Emergence of Supply Chain Management in Healthcare Industry)’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에서 SCM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

□ 헬스케어 공급망관리(SCM)의 중요성

- (배경) 공급망 관련 자산, 제품, 데이터, 자금 흐름의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요구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의료 및 보건산업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
 - 복잡한 시장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자를 비롯한 보건 소비자 권익을 침해
 - 이에 따라 일반 기업과 조직 전략에서 1990년대 이후 집중 조명되었던 공급망관리(SCM)의 중요성이 헬스케어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
 - 그러나 공급망이 성공적으로 구성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조, 공급, 헬스케어 기관의 고객담당부서, 물류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데이터 공유가 필수 조건
 - 공급망 자산의 유연성 확보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RFID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급망 솔루션 개발을 통해 향후 SCM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구조) 헬스케어 분야의 공급망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과 유사하지만, 국가별 지역별 병원별 차이가 크고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재고부담과 비용증가 부담이 큰 편
 - 1차 제조업체는 원재료를 대량 생산하고 보관하며, 이를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나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받아 원재료의 합성 및 가공, 설계, 제작 과정을 거쳐 제조 과정을 마무리
 - 의료전문 제품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제조업체의 유통센터를 거쳐 도매점 혹은 제 3자

물류업체에 공급되며, 이를 통해 재고를 확보한 도매업체가 최종적으로 병원과 클리닉 같은 의료 서비스 기관 혹은 약국으로 납품

- 원재료를 확보해 의료물품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단계와 제조업체의 유통센터에서 도매업체로 이관되는 단계에서 재고부담이 발생



▲ 헬스케어 산업의 일반적인 공급망 구조

- (특징) 헬스케어 산업에서 SCM이란 각종 의료기기와 의약품, 각종 소모품은 물론 의사, 간호사, 전문치료사 등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괄
 - 헬스케어 분야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고, 구매결정 과정에 의사, 환자, 정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SCM과 관련해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복잡한 이슈들을 포함
 - 이 분야에서는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와 병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통합을 통해 총체적인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와 자원 활용의 효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SCM 전략이 필요

□ SCM의 주요 이슈

○(이슈) 헬스케어 분야에서 SCM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

- 첫째, 재고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제조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한편 공급업체와 의료 서비스 기관 사이의 유통망을 확정해 물류 및 재고 비용을 최소화
- 둘째, 공급업체와 의료서비스 기관이 구체적인 가격, 할인을 및 할인조건, 리드타임, 품질 기준 등이 명시된 공급 계약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셋째,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의 사용 시점에 맞춰 직접 공급받거나 사전에 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 결정이 필요
- 넷째, 의료서비스 기관, 공급업체, 제조업체 사이에 수요 예측과 재고 보충을 위한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 Replenishment)* 프로세스를 확립
- * 협력적 예측·보충 시스템. 판매·재고 데이터를 이용해 제조·유통업체가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예측하고 계획하며 상품을 보충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SCM 공급측면의 응용기술로,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다섯째,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부과되는 비용 △환자가 체감하는 가치 등의 차원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

○(기대효과) 헬스케어 부문의 효율적인 SCM을 통해 의료서비스 기관과 공급망 내의 다양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 경주가 필요

- SCM 향상을 통해 의료서비스 기관은 조달, 가격협상, 계약관리, 재고관리 부문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 제조, 유통, 구매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재고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의료 서비스 기관은 벤더 업체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구매조건 및 품질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담당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기관도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 및 조달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해 ICT 관련 투자 확대가 요구

▼ 헬스케어 SCM의 기대효과와 최근 동향

SCM의 기대효과	최근의 주요 동향
• 워크플로우 간소화 • 재고 규모와 관리에 대한 통제 가능 • 재무부서와 구매부서 간 시너지 증대 • 벤더업체 관리 역량 향상 • 구매담당자의 재량권 강화	• 의료서비스기관의 ICT 관련 투자 확대 • 의약품 위조방지 위한 데이터 기록강화 • 비공인 공급경로 차단 노력 확대 • 데이터 관리 및 식별 기술 표준화 진행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스케줄 관리강화

- (시사점) 헬스케어 부문의 SCM은 유통구조의 혁신뿐만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합적인 공급망 개선 작업이 요구
 - 제조, 공급, 의료기관의 이익 강화 외에도 정부기관의 정책 개입과 환자의 권익 확보라는 공익적 이슈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중요
 - 최근의 ICT 기술 발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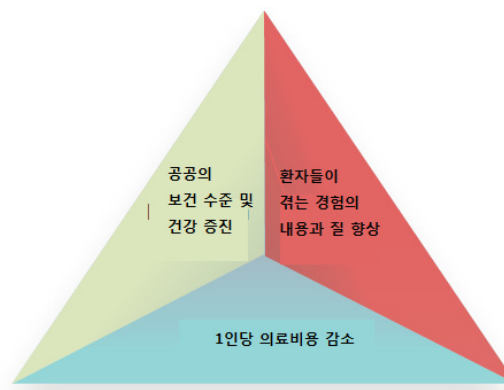


헬스케어 ‘Triple Aim’ 달성을 위한 효율적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빅데이터·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본 자료는 미국 매사추세츠기술리더십위원회(Mass Technology Leadership Council : MassTLC)가 '14년 5월 발표한 보고서 '빅데이터와 헬스케어(Big Data & Healthcare)'를 통해 정보기술과 밀착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혁신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

□ 헬스케어 서비스의 Triple Aim 혁신

- (배경) 헬스케어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빅데이터가 효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토대이자 선결조건으로 부각
- 미국 매사추세츠기술리더십위원회(Mass Technology Leadership Council : MassTLC)가 전문가 델파이 방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스케어 부문 데이터가 희소하던 시대에서 현재는 오히려 넘쳐나는 시대로 반전



▲ Triple Aim 모델

- 헬스케어 부문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 목적은 ①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경험의 내용과 질 향상 ② 공공의 보건 수준 및 건강 증진 ③ 1인당 의료비용 감소 등 3가지 목적(Triple Aim)**을 위한 것

* Deval Patrick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후원으로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의 eHealth Institute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헬스케어의 주요 이슈를 검토

** Triple Aim 패러다임은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IHI(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에서 태동했으며, 이번 논의에서 핵심 모델로 상정

○(목적) Triple Aim 패러다임을 통해 미국 정책 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효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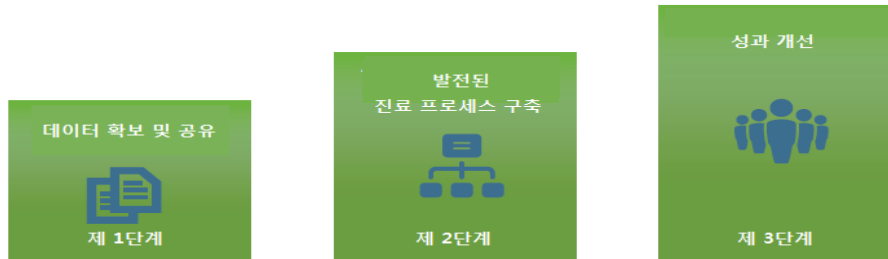
- 고품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환자/보건의료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
- 특히 Triple Aim의 3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에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수요와 성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에 대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미국 연방정부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사례

○(정책 프로그램) 정보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혁신과 관련, 연방정부와 매사추세츠 주는 다양한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

- 이러한 프로그램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디지털 인프라 채택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연방정부 주도의 'Electronic Prescribing and Meaningful Use Incentive Programs(약칭 Meaningful Use Programs)'가 지난 '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2년 이래 2억불 이상의 추가 투자를 단행
- 'Meaningful Use Programs'와 '스티물러스/하이테크법(Stimulus/HITECH Act)'을 통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대형병원과 의사들의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 EHR) 시스템 도입이 확산
- 'Meaningful Use Programs'는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가치기반구매 이니셔티브(value-based purchas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인 의료 기관 대부분이 1단계 과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진입 중



▲ Meaningful Use Programs의 단계별 내용

- (데이터 소스 확대와 데이터 통합) EHR의 확산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모델이 개발될 잠재력이 확보되었으나 이를 위한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
 - EHR을 통해 확보된 유전자정보와 환자진료정보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소스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 및 웰니스 관련 데이터도 방대한 소스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
 -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과제는 방대한 규모로 산재해있는 각종 환자/진료 데이터, 재정 및 과금 데이터, 환자 만족도 결과 등을 관리하고 헬스케어 전달 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
 - 그러나 △무정형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 등 기술적인 제한과 △민감한 데이터의 공유를 꺼리는 문화적 금기 △데이터 활용 과정에 대한 환자의 참여 규정 등이 Triple Aim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
 -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 공유 및 링크 차원을 넘어 협업에 기초한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성 지원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 수행이 요구

□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한 도전과 기회

- (혁신 전략)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진단·처방·치료 전략 수립 △개인화된 맞춤 의약품 및 치료 △데이터 처리 비용

절감의 전략을 제시

- 첫째, 데이터 소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한편, 한 분야의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파장과 진단 지연에 따른 공공 웰빙의 저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둘째,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더 세밀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도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에 대해 유전적 특질 등 제한된 특성에 국한되지 않은 입체적인 진단과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도 요구
- 셋째, 막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을 고려할 때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를 겨냥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자료를 ‘유의미하게’ 가공하는 전략도 필요

▼ Meaningful Use Programs의 단계별 내용MassTLC가 제안하는 헬스케어 전달 시스템의 빅데이터 전략과 유의사항

전략	장단점 및 유의사항
객관적 증거 기반의 진단·처방·치료	•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한 분야 데이터의 신뢰성이 손상될 경우 다른 분야에 까지 영향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진단활동 지연에 따른 공공 헬스케어 정책 교착 우려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의약품 제공	• 다양한 유형의 대량 데이터 정보를 통해 세밀한 세그멘테이션과 그에 따른 맞춤 서비스 가능 • 제한된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양한 자료를 연계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의 품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 요구
유의미한 의료 데이터	• 데이터 규모 확대에 따라 데이터 처리비용 부담 가중 • 대규모 데이터 확보 못지않게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가공하는 전략 필요



2014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서베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본 자료는 미국의 의료 및 헬스케어 전문 정보 제공업체 메디컬 마켓 앤 미디어(Medical Market & Media : MM&M)가 '14년 6월 발행한 '2014 헬스케어 마케터스 트렌드 보고서(Healthcare Marketers Trend Report 2014)'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부문 주요 업체들의 마케팅 규모와 전략을 분석

□ 개관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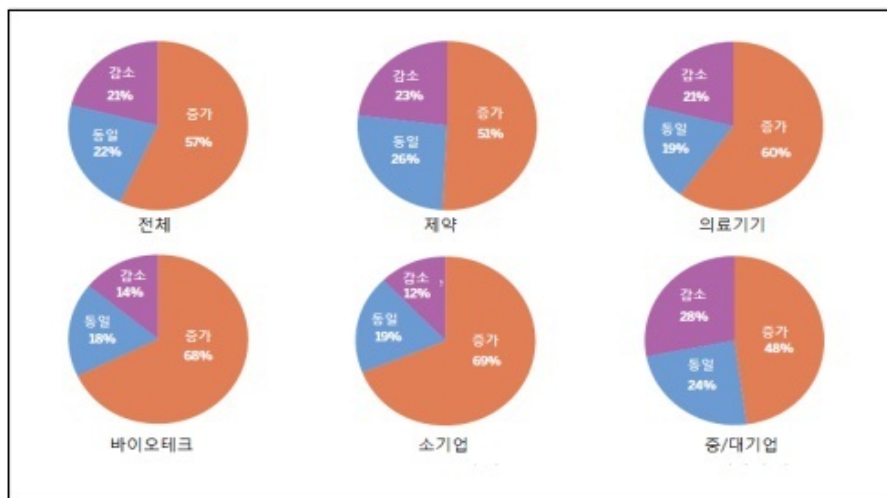
- (서베이 개요) MM&M은 글로벌 의약품·바이오테크놀로지·의료기기·진단전문기업 마케팅 담당 고위임원 2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
 - MM&M은 지난해 '대 전환(Big Shift)'이라는 주제로 헬스케어 마케팅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헬스케어 마케터스 트렌드 보고서를 공개
 - * MM&M/Ogilvy Common Health Healthcare Marketers Trend Report
 - 올해 보고서의 응답자 구성은 제약 52%, 바이오테크 15%, 의료기기 28%, 진단 및 기타 5%였으며, 36명의 CEO급을 포함한 응답자들 중 57%가 연매출 5억불 이상의 중/대기업 소속이었고 43%는 소기업 소속
- (마케팅 예산규모) 서베이 대상 기업들의 올해 마케팅 예산 평균 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한 1천350만불이었으며 중/대기업의 예산증가율이 미미한 반면 소규모 기업들은 평균값 기준 26% 증가
 - 업종별로는 의약품(1천940만불)과 의료기기(420만불) 부문 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바이오테크(1천470만불) 부문 예산증가율은 28%를 기록
 - 중앙값 기준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250만불이었으며, 특히 소규모기업의 예산은 평균값 기준 290만불, 중앙값 기준 90만불로 증가

▼ 마케팅 예산 총액 (평균치)

(단위: 100만불)

	2014(평균값)	2013(평균값)	2014(중앙값)	2013(중앙값)
전체	13.5	12.9	2.5	2.0
제약	19.4	19.1	3.8	4.5
바이오테크	14.7	11.9	4.5	3.3
의료기기	4.2	4.1	1.0	0.7
소기업(매출 5억불 미만)	2.9	2.3	0.9	0.6
중/대기업(매출 5억불 이상)	22.2	21.4	5.3	6.5

- (예산규모 증가)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를 차지한 가운데 소기업은 69%로 중/대기업의 48%를 능가
- 부문별로는 바이오테크 부문의 응답이 68%로 최고를 기록했고 예산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큰 부문은 제약(23%)과 의료기기(21%)로 확인



▲ 마케팅 총예산 규모 변동 (2014년)

□ 마케팅 전략 및 향후 전망

- (HCP 대상 마케팅 전략) 헬스케어 기업 대부분이 회의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헬스케어 전문가(HCP)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
 - 회의와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전년도의 86.1%에서 85.1%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기업의 비율(32.4%)이 예산을 늘렸다는 기업(25%)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 마케팅 채널별 활용 현황은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응답 수준을 보였으나,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헬스케어 기업의 비율이 2013년 42.6%에서 2014년 54.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헬스케어 전문가 대상 주요 마케팅 채널별 활용률 및 예산 증감률

내용	2014*	2013*	예산증액	예산삭감
회의/이벤트	85.1%	86.1%	26.3%	32.4%
웹사이트	77.7%	74.8%	48.2%	12.8%
판매안내 인쇄물	77.2%	79.2%	18.7%	42.2%
영업사원	73.8%	73.3%	28.8%	21.2%
리서치/데이터/분석	66.3%	63.9%	41.2%	10.3%
환자교육용 자료	65.3%	62.4%	41.0%	12.9%
디지털판매 자료	64.4%	56.4%	62.0%	7.3%
DM	57.4%	55.0%	33.3%	21.7%
소셜 미디어	54.5%	42.6%	63.4%	7.1%
잡지인쇄광고	53.0%	53.5%	22.4%	40.5%
후원 프로그램	50.5%	43.1%	53.2%	15.6%
디지털 광고	48.0%	46.5%	50.9%	15.1%
모바일/태블릿 앱	47.5%	37.6%	62.5%	11.5%
CME	43.6%	39.6%	38.7%	16.1%

* 해당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 (마케팅 대상) 헬스케어 기업 마케팅 활동의 주요 공략대상으로는 의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주주나 후원그룹을 겨냥한 활동도 진행
 - 주요 마케팅 대상 톱3에 의사가 포함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91.6%에 달했으며

- 특히 최우선 마케팅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4.4%로 집계
- 환자와 의료비용 부담자의 경우 톱3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각각 57.4%와 58.4%로 그 뒤를 이었으나, 최우선 마케팅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3%와 12.4%에 그쳐 의사들과 큰 격차를 기록
 - 간호사와 약사의 경우도 톱3에 포함된다는 응답은 각각 39.1%와 17.3%였으나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3.5%와 2.0%에 불과해 실제 의약품 및 관련기기 등의 선택권 행사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마케팅 활동의 주요 공략 대상

	톱3에 포함되는 경우	최우선 대상인 경우
의사	91.6%	54.4%
환자	57.4%	17.3%
비용부담자	58.4%	12.4%
간호사	39.1%	3.5%
약사	17.3%	2.0%
주주	20.3%	8.4%
후원그룹	15.8%	2.0%

- (전망) 2014년 헬스케어 마케팅 분야는 전년대비 큰 변동 없는 현상유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 헬스케어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업들 간의 협업이 확대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의료지출 규모의 역설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

미국의 의료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꾸준히 증가. 본 자료는 미국병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Hospitals : FAH)가 '14년 7월 발표한 '헬스케어 지출 둔화 : 소비자 패러독스(Health Care Spending Slowdown : The Consumer Paradox)' 를 통해 미국 의료지출 규모의 변동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 담당자들을 위한 조언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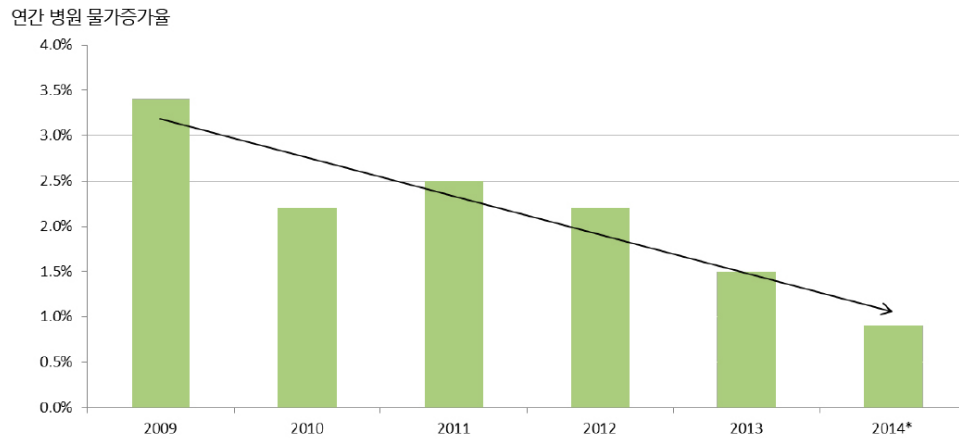
□ 배경과 개요

- (배경) 헬스케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의료분야 지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
 - 이 같은 역설은 ① 고용주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헬스케어 및 의료 관련 비용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② 가계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의료보험 인상률이 더 높아서 나타난 현상
 - 이처럼 의료소비자의 '주머니를 털면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현재의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모두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
 -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및 의료 관련 비용 감소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병원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들 사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의료지출 변동 추이 및 분석

- (병원물가) 최근 메디케이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시장이 출범한 가운데 헬스케어 및 의료지출 증가 둔화 추세는 지속
 - 특히 '14년 1분기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해 30년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5.6% 증가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 무려 7.0% 포인트나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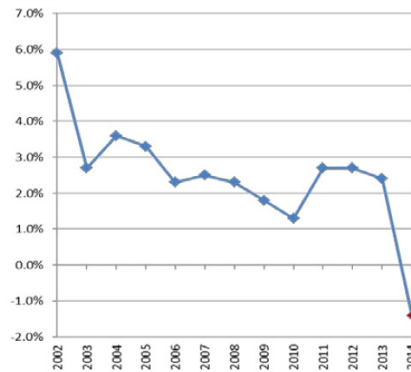
- 이에 따라 '13년 12월부터 '14년 6월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1.0% 정도에 그쳐 지난 '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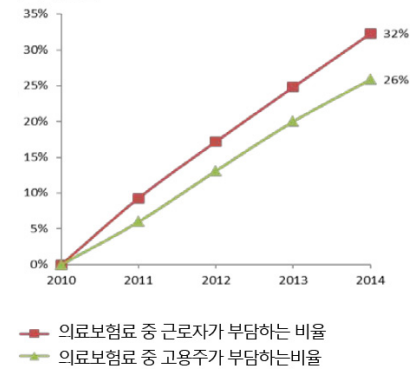
▲ 병원물가 연간 변동률 (2009-2014) *2013.12-2014.6월

- (소비자 부담) 그러나 병원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
 - 이는 개인소득 증가율이 헬스케어 및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소비자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험이 재설계된 데 따른 결과
 - 미국인의 약 60%가 헬스케어 비용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70% 이상은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미국 가계 수입의 중앙값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14.9%에서 '12년 21.6%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율(32%)이 고용주의 부담증가율(2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헬스케어 지출 연간변동률



누적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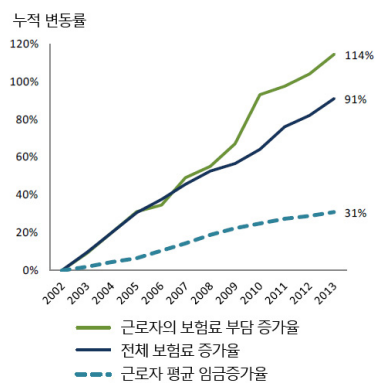


▲ 헬스케어 지출규모 연간변동률(2002-2014)과 누적변동률(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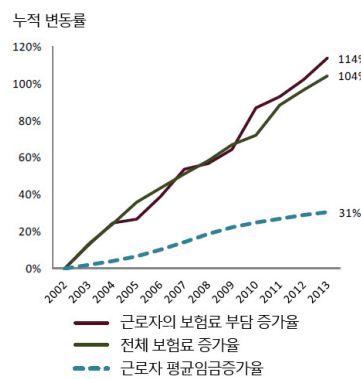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에 비해 의료보험료 비용부담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

- 근로자가 의료보험료 비용 부담에 기여하는 비율은 '02년부터 '13년 사이에 114%나 높아졌는데, 이는 평균임금 증가율인 31%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
- 독신가구의 경우 총 보험료 인상률과 근로자 부담 증가율 사이의 격차(114% vs. 91%)가 가족공제 대상인 가구(114% vs. 104%)보다 컸으며, 이는 가족공제 범위가 '06년부터 '13년 사이 75% 이상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

독신가구 공제가 적용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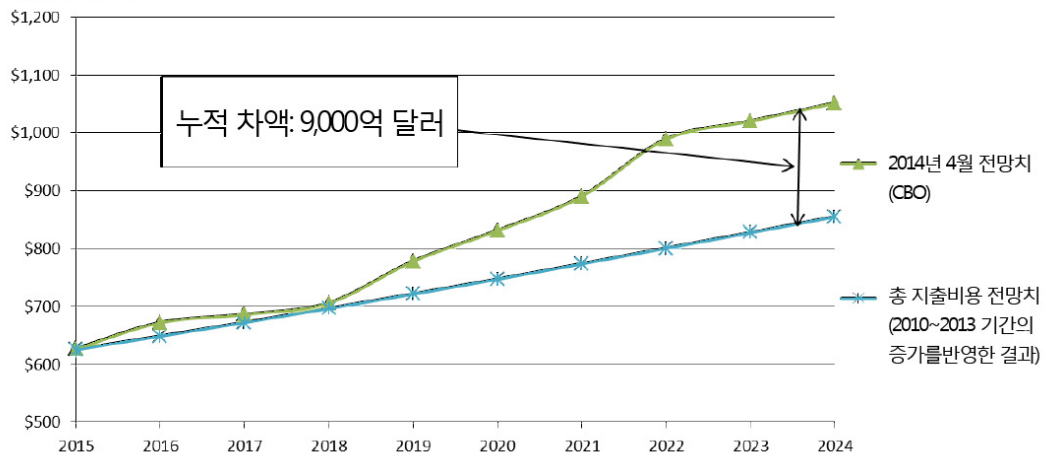
가족공제가 적용된 경우



▲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누적증가율 현황 (2002-2013)

- (정책 결정자를 위한 조언) 의료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온 최근의 상황에서 선부른 정책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1인당 의료보험료 부담 규모가 '09년 6천824불에서 '14년 9천695불로 42% 증가한 상황에서 헬스케어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는 재정 리스크 최소화, 비용절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수년간의 적응 전략에 따라 대응
 -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 및 의료서비스 운영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기존 프레임워크가 흔들려 혼란이 커질 우려
 - 따라서 현재의 환경을 잘 유지하며 메디케어 지출을 절감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정책 담당자들은 헬스케어 및 의료시장이 새로운 구조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혁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요구
 - 한편 미국 정부는 메디케어 지출 비용의 증가 둔화를 통해 오는 '24년까지 9천억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메디케어 지출규모
(단위: 10억 달러)



▲ 메디케어 지출규모 증가 전망 및 지출비용 증가율 조정 가능성(2015-2024)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트렌드와 특징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은 단지 저렴한 비용이나 휴가와 치료를 단순 결합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국가들이 의료관광 강국으로 부상. 본 자료는 미국 포브스(Forbes)가 '14년 8월 발표한 '의료관광의 변신 그리고 역동(Medical Tourism Gets a Facelift... and Perhaps a Pacemaker)' 과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보건 및 웰니스 시장 연구(Health & wellness tourism market research)'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트렌드와 주요 국 의료관광 특징을 분석

□ 배경과 개요

- (배경)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따라 의료진 수준·첨단 의료기술·의료 서비스 모델 등이 기존의 의료 관광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
 - 글로벌화의 맥락 속에서 막강한 정보로 무장한 환자들은 '의료관광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 이런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 전략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의료 소비자들을 유치, 의료관광은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부수적인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산업으로 성장
 - 성형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한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서는 호텔 등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편리한 의료관광 시스템이 구축
 - 이 같은 추세 속에서 미국·영국·독일 등 전통적 의료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 흡수와 관련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
- (개요)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 시장분석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의하면, '14년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0% 정도 성장한 500억~65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주요한 트렌드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 ①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문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온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에는 보다 정교하고 어려운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싱가포르와 인도는 심장수술과 정형외과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
 - ② 대체의학·통합의료·웰니스 프로그램 등 전통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유르베다(Ayurveda) 의학, 침술 등이 의료관광 소비자들에게 인기
 - ③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이 새로운 의료관광 강국으로 급속히 부상, 기존 의료관광 대국의 아성에 도전
 - ④ 미국의 병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 해외 의료관광 사업자들과 제휴 관계를 체결하거나 해외 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의료 센터 등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

□ 주요 의료관광국 특징

- (상위 14개국)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시술/치료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글로벌 의료관광 상위국가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태국이 1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1위로 평가
 - 태국의 경우 스파와 의료관광 분야 고객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만큼 전통적으로 휴양과 결합한 의료관광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년에는 2천250만명의 의료 및 웰니스 관광객들을 유치
 - 한국은 정부가 지난 '09년 의료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포한 이후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서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
 -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치고 의료관광 분야의 선두에 나선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대의 의료관광 소비국인 미국으로부터 비행거리 2시간30분에 불과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의료비용을 내세워 급부상
 - * 산호세 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아베니다 에스까수(Avenida Escazu)의 종합쇼핑 지역은 각종 호텔과 편의시설을 갖춘 호화 의료관광 지역으로도 각광
 - 브라질은 '12년 이후 의료 및 웰니스 관광 부문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고 아직까지 미개발된 영역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정부 지원 △민간 및 공영 병원과 클리닉간의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터키는 정부가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온천 지역에 대한 영업권 발급 확대와 관련 법규 제정 등을 통한 정책 지원, 의료 및 헬스케어 기관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해외 소비자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관광 상위 14개국 (시설/치료 규모 기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태국	6	필리핀	11	한국
2	헝가리	7	미국	12	콜롬비아
3	인도	8	코스타리카	13	벨기에
4	싱가포르	9	브라질	14	터키
5	말레이시아	10	멕시코		

○(전망) 주요국의 향후 의료관광 산업은 다음과 같이 전망

- 태국의 경우 본격적인 의료보다는 웰니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지난 '13년부터 오는 '17년까지 의료관광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를 기록하는 가운데 '17년 웰니스 분야에서만 약 1천20억 바트(미화 약 32억불)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동기간 헝가리의 웰니스 관광 산업은 연평균 5%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본격적인 의료관광과 스파 관광은 각각 연평균 6%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국통화 강세와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13~'17년 연평균 3%의 의료관광 성장률은 무난할 전망
- 의료관광 분야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미국은 동기간 연평균 3%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의료 및 웰니스 관광 규모는 동기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간 부문의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의료관광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클 전망

▼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주요 트렌드 및 주요국 경쟁력 비교

부문	내용
주요 트렌드	• 아시아 국가, 정교하고 난이도 높은 의료 분야로 서비스 확장 • 아유르베다 의학, 침술 등 대체의학과 통합의학 수요 확대 • 한국·대만·필리핀 등 신흥 의료관광 강국 부상 • 미국 주요 병원, 해외투자 및 제휴 통한 의료관광 수익 확보
주요국 경쟁력 비교	• 태국 : 스파 및 웰니스 부문 강세 지속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통화 강세와 의료비용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 평가 • 한국 : 성형수술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 • 코스타리카 : 대규모 의료관광 수요국인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 미국 : 선진의료기술과 편리한 시스템 • 브라질 : 여전히 큰 성장잠재력

5. 보건산업 기타

▶ 최근 영국 헬스뷰티 산업의 트렌드와 시사점	185
▶ 일본의 출생률 회복과 재정·경제의 상관관계	189
▶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개 및 향후 과제	193
▶ 중국 한자녀 정책 규제 완화 효과 분석	197
▶ 국가전략으로서의 ‘웰빙’ 정책	201
▶ APEC 의료기기·제약 중소기업 윤리강령 진행 상황	205
▶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트렌드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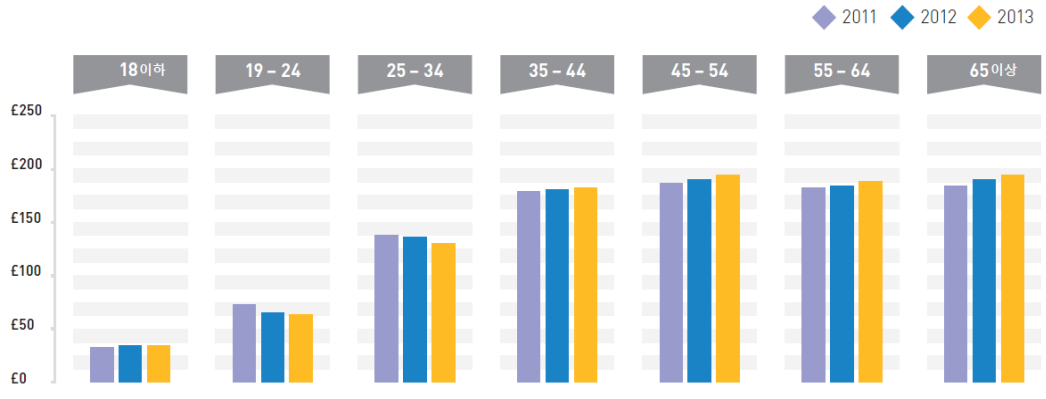


최근 영국 헬스·뷰티 산업의 트렌드와 시사점

불황을 크게 타지 않는 반면 극적인 성장기회를 찾기도 쉽지 않은 헬스·뷰티 산업은 특히 시장 트렌드에 따른 효율적인 성장 전략이 매우 중요. 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 칸터 월드패널(Kantar Worldpanel)이 '14년 6월 발표한 보고서 '영국 헬스, 뷰티, 위생용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기회(Making A Pretty Penny: Growth Opportunities in Health, Beauty, and Toiletries)'를 바탕으로 영국 헬스·뷰티 산업의 트렌드와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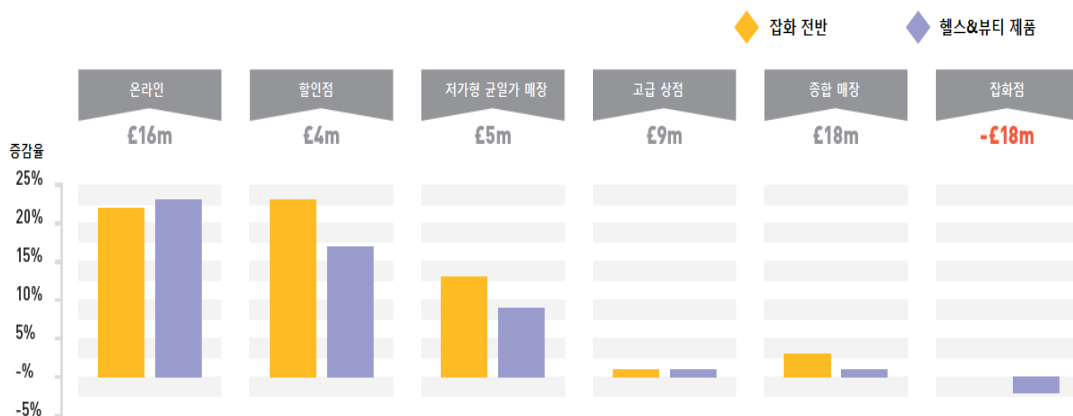
□ 영국 헬스·뷰티 시장의 주요 트렌드

- (중·노년층의 힘) 50세 이상 중·노년층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필요와 행태에 초점을 맞춘 상품 전략을 통해 가장 큰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헬스·뷰티 제품 소비자 중 40%가 50세 이상이고, 이들의 매출 기여도는 50%에 이르며, 1인당 평균 구매규모는 연간 192파운드(약 33만원)로 50세 미만 소비자의 131파운드보다 높은 편
 - 중·노년 소비자는 ① 기능적인 필요가 커짐에 따라 젊은층보다 더 많은 헬스·뷰티 제품을 사용하고 ②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중시하며 ③ 노화 문제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능에 특화된 경우를 선호하고 ④ 브랜드 충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
 - 따라서 중·노년층의 건강증진과 미적 요소에 대한 수요에 맞춰 포장, 메시지, 홍보 등 전 영역에 걸쳐 높은 품질 신뢰도를 강조하는 상품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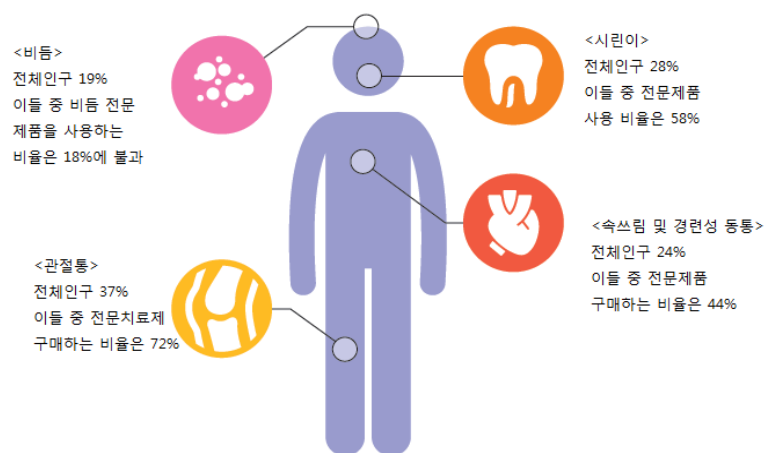
▲ 연령대별 헬스·뷰티제품 평균지출규모 비교

- (할인점과 균일가 매장의 약진) 고급상점과 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매장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지만 헬스·뷰티 시장의 성장은 할인점과 균일가 매장 등이 주도
 - 헬스·뷰티 시장의 '13년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알디(Aldi) 같은 할인점이었고 그 뒤를 이어 파운드랜드(Poundland) 등 저가형 균일가 매장이 9%를 기록하면서 1% 성장에 그친 고급상점을 압도
 - 이 기간 중 할인점과 균일가 매장의 매출이 900만 파운드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도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잡화점이나 종합매장은 이런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침체를 지속



▲ 유통채널별 헬스·뷰티 시장 성장률 ('13년 4분기)

- (구매를 촉구하는 제품 전략) 헬스 부문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제품 구매에는 인색한 영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해 구매를 독려하는 제품개발 전략이 필요
- 예를 들어 알레르기비염이나 치주질환 개선 제품의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들이 제품구매에 나설 경우 막대한 잠재시장이 열릴 것이 확실
 -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엄격한 기대보다는 쉽게 이해되는 일반적인 기능에 설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전문 제품보다는 기능성이 강화된 일반 제품에 대한 구매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
 - 따라서 지나치게 과학적인 느낌과 비싼 가격을 지양하고 의약품이 아닌 일반 제품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
 - 한편, 전문제품으로서 강력한 차별화에 나설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일반 브랜드에 필적할만한 프로모션 전략이 필수



▲ 영국의 특정질환 인구비율 및 전문제품 사용 현황

- (남성용품도 여성이 구매) 남성용 피부 관리 제품의 꾸준한 성장세 속에서 여성 소비자 공략을 통해 남성용 헬스·뷰티 제품 시장 확대
- 헬스·뷰티 시장에서 남성용 화장품의 비중은 현재 13%에 수준이며, 남성이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51~57%에 불과
 - 이는 향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확대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과, 남편·아들·애인을 위해 구매에 나서는 여성 소비자를 공략해야 함을 시사

- 여성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① 남성적인 제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제품과 관련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② 여성들이 쉽게 구매하고 나란히 사용할 수 있는 남녀 커플 제품을 적극 개발하며 ③ 동일한 쇼핑공간에서 남성용-여성용을 모두 접할 수 있는 매장 동선 확보가 필요

○(육실을 매장으로) 헬스·뷰티 제품은 가정 내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각인되는 것이 매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

- 구매 후 가정에서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므로 자주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이용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비너스(Venus)가 샤워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 거는 면도기를 개발하고, 웰맨(Wellman)이 일일 복용량에 맞춰 드링크 형태의 비타민 제품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
- 헬스·뷰티 제품은 가정 내에서의 마케팅 기회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망과 기회

○(충분한 성장여력과 기대) 헬스·뷰티 시장은 큰 화제나 모멘텀 없이 현상 유지 수준을 지키고 있지만 미래성장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

- 헬스·뷰티 제조업체가 온라인 및 할인 유통 채널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중·노년 소비자의 영향력과 구매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원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구현하는 혁신 제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제품들과 가정과 매장에서 소비자 가까이에 놓여있는 다른 범주의 제품들을 벤치마킹해 적용하는 것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



일본의 출생률 회복과 재정·경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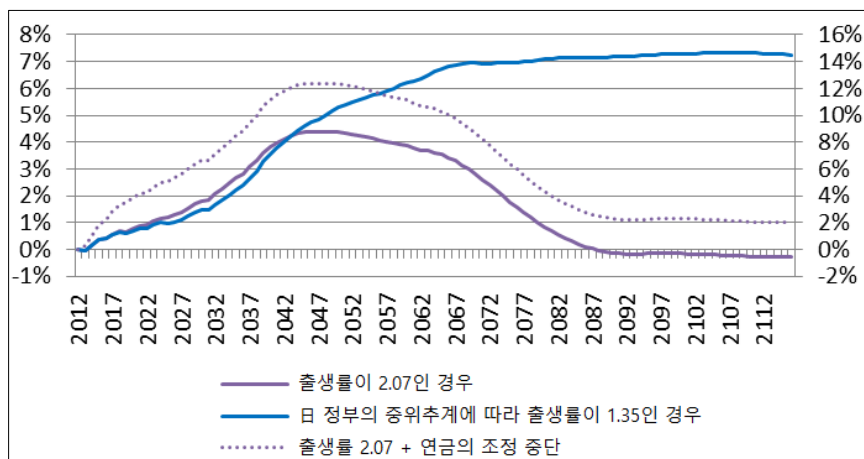
최근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출생률 회복을 바탕으로 한 일본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 본 자료는 일본 세계평화연구소가 '14년 5월 발행한 보고서 '일본 재생을 위한 출생률 회복과 재정재건 실현(日本の再生に向けて出生率の回復と財政再建の実現を)' 을 통해 오는 2110년까지의 일본 정부지출 추계 및 재정재건 규모 분석을 기초로, 일본의 출생률 회복과 재정·경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

□ 저출산·고령화와 재정·경제

- (재정재건책)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재정파산을 막기 위한 최저한의 중장기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불충분
 - IMF는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 명목 GDP 대비 공적 채무잔고 비율의 반전, '20년을 목표로 한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재정재건책에 더해 명목 GDP 대비 5.5% 상당의 재정재건책을 제안
 - *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재정재건책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정부지출은 큰 변화가 없도록 한 반면, IMF의 재정재건책은 소비세율 15%로 인상, 명목 GDP 대비 3% 상당의 정부지출 억제에 핵심
 -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IMF가 제안한 재정재건책은 일본의 재정파산을 막기 위한 최저한의 중장기적 조건으로, 저출산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일본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
 - 그러나 일본의 공적채무 잔고 수준을 보면 이미 재정적자의 폐해가 현저히 드러나야 당연하나, 높은 수준의 일본 국내저축이 재정 리스크를 흡수
 - 따라서 당장 재정 리스크가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령화 진전으로 민간저축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10년 단위로 보면 일본의 재정파산은 가능성이 충분
- (정부지출) 각종 재정재건책을 실시해 재정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 지난 30년간 일본의 정부지출 추이를 보면, 고령화를 상승(9%→24%('12년))에 따른 사

회보장 급부 증가로 명목 GDP 대비 정부지출도 29%에서 38%('12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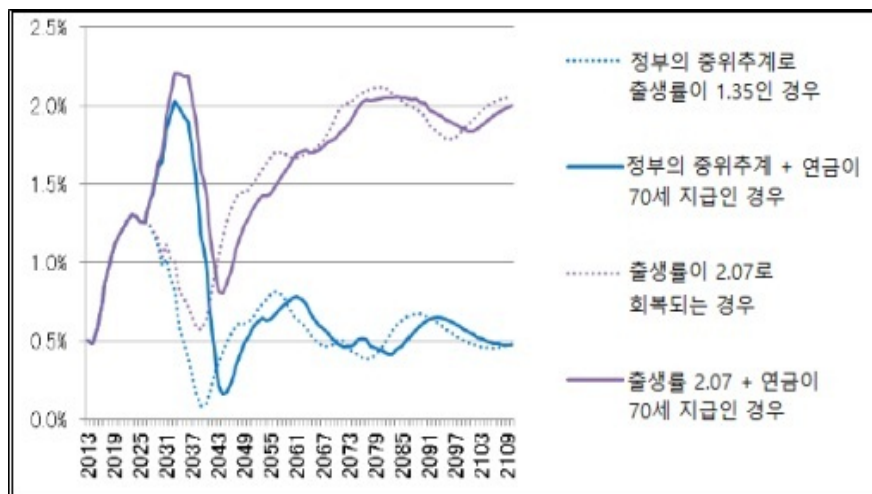
- 일본 정부의 인구추계(중위추계)는 고령화율이 '12년 24%에서 오는 '79년 41.2%까지 상승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80년 정부지출(명목 GDP 대비)은 '12년 38%에서 7%p 정도 증가할 전망
 -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 진행을 방치하면 IMF가 제안한 재정재건책을 실시해 재정수지 적자를 다소 해소하더라도 이후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위기를 부풀릴 높은 공적채무 잔고는 오는 '30년경부터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편 '30년까지 출생률이 2.07로 회복될 경우 고령화율은 '40년대에는 34%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80년대에는 27% 정도로 떨어질 전망
 - 그 결과, 정부지출은 '40년대까지는 증가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12년도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
- * 본 보고서는 장래 발생할 국민의 부담증가(재정지출 삭감, 세 부담 증가, 사회보험료율 인상)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 의료·개호·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합산)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 명목GDP 대비 정부지출 추이(좌) 및 그에 해당하는 소비세율 인상폭(우)

- (경제성장률) 저출산·고령화의 폐해는 재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기적 거시경제·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라도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
- '11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상승(2%)과 노동력 인구 증가를 합해 계산하면, 출생률이 현 수준에 머무르는 정부의 중위추계로는 '40년 이후 생산연령 인구가 매년 1.5%정도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0.5%까지 하락

- 반면 출생률이 2.07 수준으로 회복되면 생산연령 인구는 새로 탄생할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4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0년대에는 2% 정도의 실질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
-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여성 및 고령자 활용 시책은 오는 '30년 정도까지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40년대 이후의 장기적인 일본경제의 하락 경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



▲ 일본의 잠재성장률 전망

- 위 그림은 연금지급 연령을 70세로 늦추고, 60대 후반이 노동시장에 남을 경우의 경제성장률 전망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
- 반면 출생률이 회복되면 '40년대 후반을 향하면서 노동력 인구가 서서히 하락세를 멈추고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 또 지역경제는 '30년 말까지는 집약화나 여성·고령자 활용으로 지역의 사회기능을 유지하겠지만 즉시 출생률 회복에 대처할 경우 '40년대 이후에는 확대재생산이 더욱 현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책적 시사점

- (정책의 우선순위) 대담한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이 필요
 -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배분(명목 GDP 대비 2% 정도, 약 10조엔 추가)해 출생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령자 연금지부 삭감으로 이 비용의 커버가 가능
 - 즉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동시에 연금보험료와 공적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일본보다 고령화 진전이 늦은 일부 선진국들도 이미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7세 또는 68세로 늦추기로 결정
 -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세대간 정부지출 불균형도 상당 수준 개선할 수 있고, 전세대(全世代)형 사회보장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당면한 거시경제·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도 예상
 - 한편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출생률 목표를 설정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전체가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그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결과를 추적하는 작업이 중요
 -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취학전 교육 및 출산육아 휴업시 급여의 지급 및 확대와 함께, 둘째·셋째 자녀로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가족수당과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효과를 고려한 제도 설계도 요구
 - 출생률 증가는 당장은 교육예산 증가 등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억제 및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
 - 일본 정부·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계속 적자국채만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출생률 목표치 설정 및 연금지급연령 인상을 포함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대담하게 대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개 및 향후 과제

일본 정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출생률 저하가 계속되자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본 자료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4년 7월 발표한 보고서 '1990년 이후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개 및 향후 과제 (1990年以降の日本における少子化対策の展開と今後の課題)' 를 통해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과제를 점검

□ 배경과 개요

- (배경)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자 2000년대부터는 저출산 대책을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다루기 시작
 - 일본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 구분이 가능
 - 제 1기(1990~1996년) : 보육 서비스 확충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 환기가 중심
 - 제 2기(1997~2001년) : 보육 서비스 확충과 고용환경 및 근로방법 개선
 - 제 3기(2002~2004년) : 저출산 관련 시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 정비
 - 제 4기(2005~2009년 가을) : 법률에 기반한 자녀양육 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된 추진체제 확립
 - 제 5기(2009년 가을~2013년) : 자녀양육 지원 시스템의 포괄적 재검토, 자녀·양육 관련 3법* 제정, 소비세 증세에 따른 7천억엔 재원 확보
 - * △'자녀·양육지원법(2012년)'△'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자녀·양육지원법 및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2)'
 - 2014년 이후 : 저출산·인구감소가 국가의 최대 난제로, 저출산 대책은 국정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

▼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개 현황

구분	시기	저출산 대책
1기	1990~1996	●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엔젤플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 확정
2기	1997~2001	● 저출산대책 추진 관계각료회의 설치,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는 국민회의 설치 ● 저출산대책 추진 기본방침, 신엔젤플랜 책정(저출산대책추진 관계각료회의)
3기	2002	● 저출산대책 플러스원(후생노동성)
	2003	● 차세대육성 지원에 관한 당면한 대처방침 책정(저출산대책추진 관계각료회의) ●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추진법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정 ●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저출산 사회대책회의 출범
	2004	● 저출산 사회대책 요지, 자녀·양육 지원플랜 마련
4기	2005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입각한 행동계획 전기(前期) 계획 개시
	2006	● 새로운 저출산 대책 마련(저출산 사회대책회의)
	2007	●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 민관최고회의 출범 ● ‘일과 가정의 양립 현장’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
	2008	● 사회보장국민회의 발족, 신대기아동 제로 계획 개시
	2009	● 원점에서 생각하는 저출산대책 프로젝트팀 출범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육아·요양휴업법 개정
5기	2010	● 자녀·양육 비전(새로운 저출산사회대책 요지) 수립, 아동수당 지급 개시 ●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 민관최고회의의 합의 도출(현장·행동지침 개정)
	2011	● 대기아동 해소 선취(先取) 프로젝트 개시,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 성안(成案)
	2012	● 아동수당 부활(소득제한 재개), 자녀·양육 신시스템에 관한 기본제도 결정 ● 자녀·양육 관련 3법 제정
	2013	● 자녀·양육회의 설치,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 개시 ●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구체적 제안 마련(저출산 위기돌파 태스크포스) ●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결정(저출산 사회대책회의)
	2014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일부 개정 ●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4 제정

□ 저출산 대책의 4가지 플랜

- (개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자녀·양육 지원플랜, 자녀·양육 비전 등 4가지 플랜을 마련
- － 저출산 배경을 놓고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은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육아 부담, 결혼에 관한 의식변화를 지적하고, 자녀·양육 지원플랜과 자녀·양육 비

전은 추가적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 곤란을 지적

-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양육 지원플랜 부터는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지역의 자녀양육 지원을 3가지 핵심 사항으로 결정
- 자녀·양육 지원플랜부터 도입된 또 하나의 분야가 요(要)지원 가정대책으로, 학대방지와 한부모 가정·장애아 등 지원이 포함
- 불임치료는 신엔젤플랜부터 도입됐으며 자녀·양육 지원플랜부터는 특정 불임치료 조성 사업을 진행

○(과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자녀가 있는 근로 여성에 주목한 지원책’에서 출발해 근로방법 개선, 차세대에 부모가 될 젊은이와 아이들을 위한 대책, 지역 네트워크 재생 등 폭 넓은 내용을 가진 정책군으로 진화

- 현재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 육아, 자녀의 성장 등 3가지 시점에서 분류
- 결혼에 대한 지원은 주로 취로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지원 등이 있으며, 육아 지원은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지만 고용·노동정책, 남녀 공동참여 정책과도 연관
- 자녀의 성장 지원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이들이 장래 건전한 가족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
- 그동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충실했던 부문은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보육서비스 확충,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핵심
- 특히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충이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나 향후에는 근로방법의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저출산 대책 전개시 보육서비스, 복지적 지원, 양육 지원 등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세밀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고령자와 젊은층에 대한 사회보장비 배분 재검토 같은 선행작업이 필요
- 현재 여성이 주로 육아를 맡고 있지만 근로방법을 개선하고 성별역할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육아에 아빠=남성노동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필수
- 또 일과 가정 양립이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니지만 기타 육아지원책의 유효한 기능을 이끌어내는 환경정비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는 사실은 확실

- (새로운 시각) 미혼자 증가는 낮은 출생률의 원인으로,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확충했음에도 출생률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미혼·비혼 같은 결혼 양태의 변화 흐름을 바꾸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령 20대에 결혼·출산에 나설 환경을 정비하는 ‘타이밍의 조기화’에도 유의할 필요
 - 또 결혼과 출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자녀수 증가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구체적인 시책을 논의할 때 결혼·출산 시기의 조기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 한편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정책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됐지만 정책 효과에 관한 평가는 없는 상황
 - 이는 저출산 대책처럼 다방면에 걸친 정책 효과 분석 자체가 쉽지 않고, 어떤 지표로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
 - 그러나 저출산 대책에 분배된 재원을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중점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 연구가 필수
 - 따라서 어떤 지표를 갖고 어떻게 정책 효과를 평가할 것인지, 국내외 선행연구의 서베이를 감안한 분석·고찰이 향후 과제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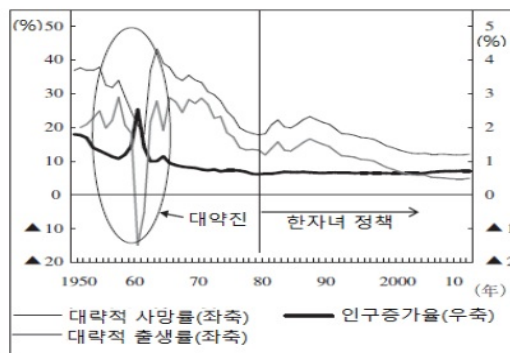
중국 한자녀 정책 규제 완화 효과 분석

중국은 출생률 저하가 촉발할 노동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후퇴를 우려, 그동안 추진해 온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 본 자료는 일본종합연구소가 '14년 2월 발표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 규제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中国の一人っ子政策の規制緩和をどう見るか)'를 통해 중국의 인구동향과 최근 출산관련 규제완화 배경을 고찰

□ 기존 정책의 전국적 확대

- (개요)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출생률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13년 11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 전회)를 통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
 - 한자녀 정책은 '70년대 후반부터 덩샤오핑 체제가 '급속한 인구증가는 경제개혁 달성에 불리하다'는 인식하에 실시되어 왔으며 '80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 승인
 - 이후 정책을 위반하는 부부에게 초과출산비와 사회양육비 징수, 임금삭감, 승급승진 정지 등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면서 여성이 생애에 출산하는 자녀수는 6명('50~'65년)에서 1.6명('05년~'10년)으로 급감
 -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농촌을 비롯해 지역별로 둘째 아이 출산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실제로 정책을 엄격하게 운용하는 곳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등 도시와 장쑤성, 쓰촨성의 농촌 정도
 - 다른 지역 농촌은 첫째가 여아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며, 하이난성, 윈난성, 티베트 자치구, 칭하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조건 없이 둘째 아이 출산을 인정
- (과도한 기대는 금물) 한자녀 정책 완화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부분적 완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한자녀 정책만이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 지난 '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변화 추세를 보면 한자녀 정책을 개시한 시점에서 출생률은 이미 저하

- 결국 한자녀 정책은 출생률 저하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출생률 저하를 가속시킨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책의 단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하락하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강제적인 인구억제책이 없는 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아사망률 저하,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
- 이와 함께 미혼과 만혼 등 결혼관 변화, 학력사회 부상에 따른 교육비 급증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출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



▲ 중국의 인구동향 (1950~2011)

- (노동연령인구 추이)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배경에는 노동연령인구(노동인구) 감소가 유발할 경제후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내포
 - 실제로 중국의 노동인구(15~59세)는 '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UN인구추계(World Population Prospects : 중위추계)에 따르면 '12년 9억 4천505만 명에서 '20년에는 9억2천92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한자녀 정책 완화로 향후 출생률이 상승해도 노동인구에 반영되려면 향후 1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출생률 수준에 관계없이 노동력인구는 당분간 계속 감소, 오는 '25년에는 9억842만 명을 기록할 전망
 - 출생률이 대폭 개선된다고 예상하는 고위추계를 해도 '50년 중국의 노동인구는 8억2천465만 명으로 '10년 대비 1억1천953만 명이 감소하고, 저위추계로는 6억2천950만 명으로 3억1,468만 명 감소가 예상

- 이처럼 한자녀 정책 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중국은 농촌과 도시에 과잉노동력이 대거 존재하고 연령으로 규정한 노동인구와 실제 노동인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고용환경이 정비되면 실질적 노동인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중국의 고성장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소위 '농민공'이라는 실질적인 노동인구의 급증이 뒷받침한 측면이 존재
 - 그러나 연해부의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입증하듯 농민공을 통한 노동력 조달이 매년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
- (생산연령인구 변화) 장기간 낮은 수준을 보인 출생률로 인해 중국의 인구 구성은 피라미드 형태를 그리지 못하고 40대와 20대 전후의 인구가 크게 돌출된 형태
- 지난 '10년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74.5%로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가장 이상적인 인구구성으로, 생산연령인구 증가와 이 비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소위 인구 보너스로 일컬어지는 '인구구성 배당(demographic dividend)'
 -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퇴출노동력 인구 증가로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10년을 정점으로 저하 추세로 돌아선 상태
 -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변화는 국내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률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내 저축률은 낮아질 전망
 - 출생률이 상승해도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생률 상승이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할 요인은 적고 생산연령인구는 오는 '31년~'40년 6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정책적 영향

- (고령화에 미칠 영향)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을 일부 완화한 이유를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출생률이 상승하면 고령화 비율 상승속도도 둔화
- 그러나 한자녀 정책 완화로 출생률이 높아져도 고령화비율에 1%p 이상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은 오는 '30년 이후라는 점에서 출생률 상승으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

- 특히 현대사회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한편, 증가하는 자녀들의 양육비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고령자를 뒷받침할 재원이 감소할 가능성도 충분
- 중국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억제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을 '미부선로(未富先老)'로 부르는데 이미 일부지역에서 미부선로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출현하기 시작
 - * 예를 들어 현재 충칭시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14.5%로 '00년의 7.7%에 비해 거의 2배가 되면서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이행했는데 이는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를 보인 일본(24년)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
- 한자녀 정책과 더불어 젊은층이 연해부나 도시로 나가면서 중국 전역의 농촌에서 '미부선로'가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연해부나 도시는 젊은 노동력이 모이면서 고령화비율 상승속도가 완만
- 하지만 연해부 및 도시, 내륙과 농촌의 인구동태가 다른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은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

○(강제적 도시화의 문제점) '제18기 3중 전회'는 한자녀 정책 완화와 동시에 '농촌·도시의 일체화'도 의결, 농민들의 중·소 도시 호적취득을 인정

- 중국 정부는 도시화를 가속화할 계획으로 농촌 주민들을 반강제적으로 도시로 이주시킬 경우,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완화되겠지만 농업에 종사한 중·노년층의 도시 정착에는 무리
- 이들이 제조업의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이나 도심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성 없는 도시화는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사회 불안, 정치적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
- 이처럼 중국의 경제성장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한자녀 정책 완화 및 강제적인 도시화는 본래 목적인 지속적 성장과 풍요로운 고령사회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미 한자녀 정책 완화로 인구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 실제 효과보다 구조개혁에 대한 공산당의 변함없는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적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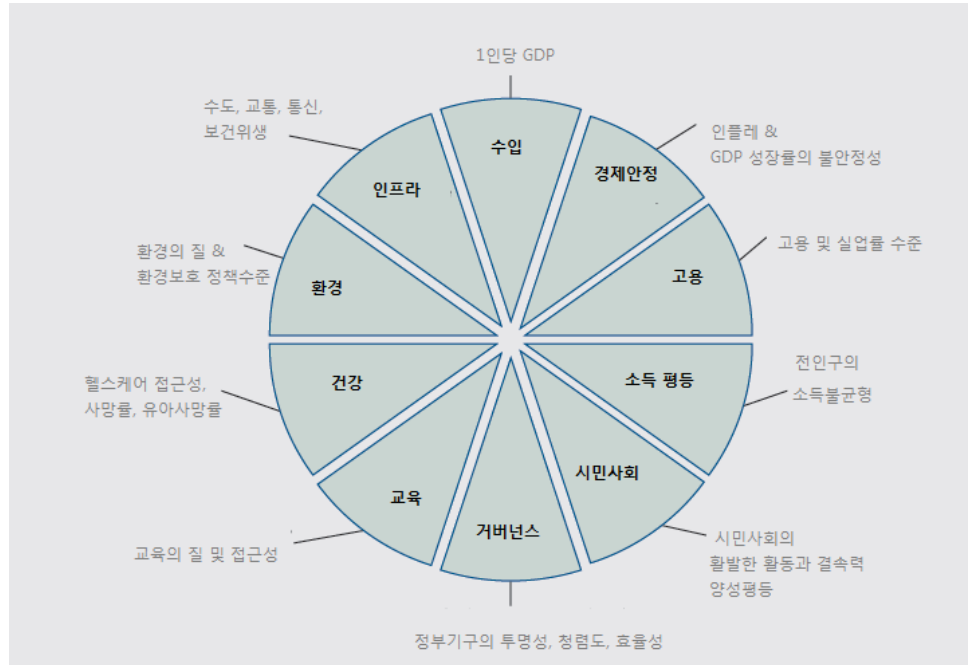


국가전략으로서의 ‘웰빙’ 정책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의미를 국민의 웰빙 수준 향상에서 찾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웰빙’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본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14년 2월 발표한 ‘국가전략이 된 웰빙 : 2014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평가(Building Well-Being into National Strategies: The 2014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sessment)’를 통해 국가별 웰빙 수준 및 정책 현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

□ 배경

- (SEDA)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평가할 수 없으며, 경제발전만을 고려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제기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가차원의 웰빙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12년부터 SEDA(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sessment) 분석을 시작
 - SEDA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대해 유용한 통찰을 제시하고 국가발전 전략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웰빙과 관련한 총 10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평가
 - 입체적 평가를 위해 현재의 웰빙 수준은 물론 최근 5년간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측정하고,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부(wealth)가 국민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되는 수준을 평가
- * ① 수입(1인당 GDP) ② 경제안정 ③ 고용 ④ 소득평등 ⑤ 시민사회 수준 ⑥ 정부 거버넌스 ⑦ 교육 ⑧ 건강 ⑨ 환경 ⑩ 각종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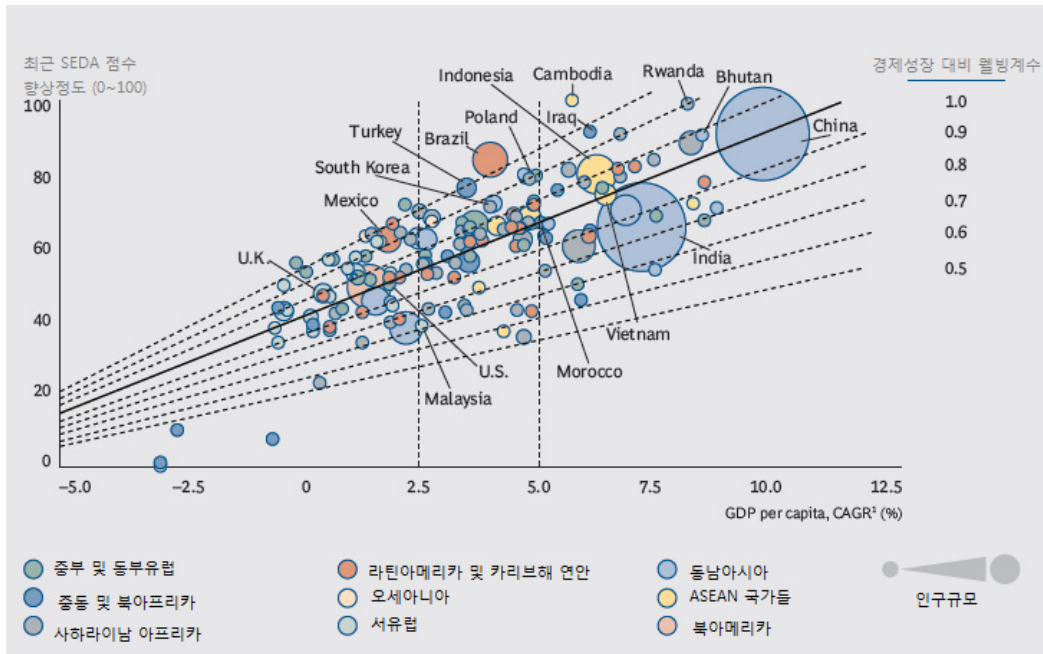


▲ 보스턴컨설팅의 SEDA 10대 평가항목

□ 2014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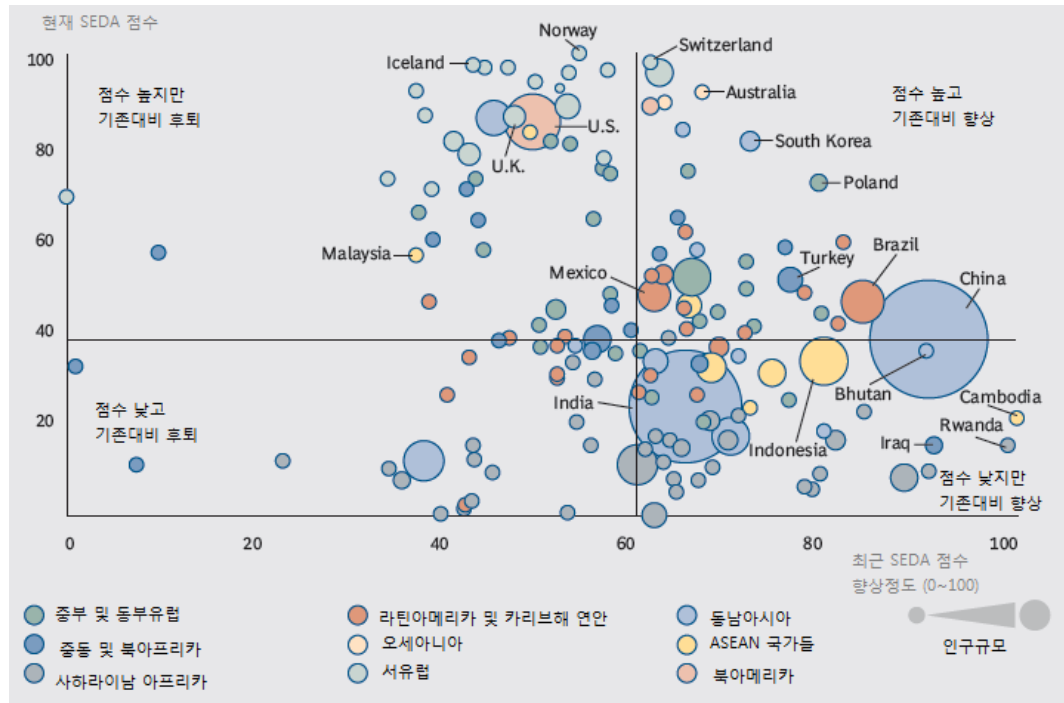
- (개요) '14년에는 총 149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전통적 선진국인 서유럽 국가들의 웰빙 수준이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인 국가들도 등장
- 현재 웰빙 수준 상위 15개국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서유럽 국가일 정도로 편중 현상이 뚜렷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최근 5년간의 웰빙 수준 발전 순위에서는 국가별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캄보디아, 르완다, 이라크가 급속히 발전한 상위 3개국으로 평가
- 캄보디아의 경우 웰빙 수준이 대폭 개선되는 추세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SEDA 평가 첫 해 이 분야 1위였던 브라질은 '14년에 9위로 후퇴하는 등 국가별 부침(浮沈)이 복잡한 상황

* 시리아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대상 150개 국가에서 149개국으로 감소



▲ 세계 각국의 최근 웰빙 수준 향상 현황

- (다양한 유형) 최근 SEDA 점수가 급격히 오른 국가들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성장률이 평균수준인 터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멕시코 △높은 웰빙 수준과 최근 웰빙 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과 폴란드 사례를 검토
 - 중국은 '07-'12년 기간 중 연평균 10.6%에 이르는 1인당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소득과 인프라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점수 향상
 - 터키는 같은 기간 중 1인당 GDP 성장률이 연평균 3.5%에 불과했으나 특히 교육과 고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웰빙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된 10개국에 포함
 - 멕시코는 같은 기간 1인당 GDP 성장률이 1.8%이었고 평가대상 10개 항목 중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나, 환경 부문을 집중 공략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 예산확대 없이도 웰빙 수준을 향상시킨 사례
 - 한국과 폴란드는 현재 웰빙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최근 몇 년간 SEDA 점수가 향상되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이미 높은 점수를 기록한 상태에서 꾸준히 점수가 높아지는 사례



▲ 현재 웰빙 수준과 최근 향상도의 상관관계

□ 결론 및 시사점

- 각국 정부는 국민의 웰빙에 대한 논의 단계를 넘어 웰빙 개념을 국가전략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기대
 - 1인당 GDP만이 경제발전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척도로 간주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14년 SEDA 분석 결과에도 드러나듯 웰빙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 선진국 혹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성장률이 평균 이하인 국가들도 꾸준히 포함되는 추세
 - 웰빙의 개념과 원칙을 단순히 국가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웰빙을 국가전략과 정책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정부 차원의 실천 의지가 필요



APEC 의료기기·제약 중소기업 윤리강령 진행 상황

헬스케어 산업, 특히 의료기기·제약 부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얽히고 전문지식과 생명윤리, 기업 이익이 교차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 본 자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가 '14년 6월 발표한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 제고(Enhancing SME Business Ethics in the Healthcare Industry)' 보고서를 통해 APEC 및 회원국들의 의료기기·제약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윤리 강령 주요 진행 상황을 점검

□ 배경과 개요

- (배경) 헬스케어 기업과 의료 전문가 사이의 부적절한 호혜관계는 시장과 기업, 의료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의료기기와 제약 부문은 기업들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의 마케팅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
 - 그러나 부패를 용인하는 비즈니스 관행은 제한된 자원을 관련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환자를 비롯한 의료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
 -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 WBI)에 의하면 의료기기와 제약 시장 민간 부문에서는 매년 1조불 정도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특히 중소기업의 연매출 대비 뇌물 비용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
 - * 시장경제환경으로 이행 중인 국가들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부정부패와 뇌물공여를 비즈니스 수행의 걸림돌이라고 응답
- (개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이 같은 상황에 주목, 지난 '11년부터 'APEC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 이니셔티브(Business Ethics for APEC SMEs Initiative)'를 진행
 - 이니셔티브는 의료기기 및 제약 부문 중소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자체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각국 규제당국 및 관련협회 등과 협업하는 것이 핵심

- APEC은 의료기기와 제약 부문의 경우 비즈니스 윤리 문제가 중소기업, 환자, 의료 소비자, 관련 기술혁신과 관련해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윤리강령 개발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
- '14년 6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국에서 1만4천여 기업들이 가입한 약 60여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협회가 APEC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거나 실행
- (윤리강령 원칙) 의료기기 부문의‘쿠알라룸푸르 원칙(The Kuala Lumpur Principles)’과 제약 부문의‘멕시코시티 원칙(The Mexico City Principles)’을 지침으로 활용
- 이들 부문에서는 △로열티 및 컨설팅을 위한 의료 전문가와의 계약 △각종 연구기금 조성 △새로운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의료진과의 개별 계약 등을 통해 기업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작용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
- 의료 전문가들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노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 *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처방과 임상시험 결과를 통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중요성은 더욱 고조
- APEC의 비즈니스 윤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린 코스타(Lynn Costa) 선임 자문위원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의료기기와 제약 부문에서 의료 전문가들과의 접촉 방식을 규율하는 투명한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

▼ APEC의 의료기기·제약 비즈니스 윤리강령 원칙

부문	윤리강령 원칙	비고
의료기기	쿠알라룸푸르 원칙 (The Kuala Lumpur Principles)	● 7개 윤리 권고사항 제시 ●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관련 준수해야 할 4대 항목 제시
제약	멕시코시티 원칙 (The Mexico City Principles)	● 17개 주제별 윤리지침 제시 ● 이해당사자간 협업을 위해 협회 및 기업, APEC, 의료 전문가들이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 제시

□ APEC의 비즈니스 윤리 이니셔티브 진행 현황

- (1단계) 지난 '11년에는 전문가 워킹그룹들을 통해 APEC의 윤리강령을 위한 원칙들을 도출
 - APEC의 여러 회원국에서 모인 의료기기 및 제약 부문의 업계 전문가·규제담당자·학자들이 규약 개발 과정에 참여해 각국의 경제 상황과 규제 현황 및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초안을 작성
 - 쿠알라룸푸르 원칙과 멕시코시티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APEC 회원국의 관련 산업협회들이 윤리강령을 제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윤리강령 초안은 신의·독립·투명성의 3대 핵심 윤리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금품·향응·수수료·부수적 수입 등의 형태로 부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 및 제약 관련 홍보 마케팅 자료 작성 시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
- (2단계) '12년에는 회원국의 관련 산업협회들이 APEC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을 시작
 - APEC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국의 관련 산업 협회들이 APEC의 원칙에 바탕을 둔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실시
 - 이를 통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CCCMHPIE)와 중국화학제약협회(SINO-PhIRDA) 등 중국의 제약부문 협회들이 '중국 제약업체 윤리규정(Pharmaceutical Enterprise Ethical Practices in China)'을 제정
 - 중국은 이후에도 APEC의 이니셔티브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13년에는 8개의 제약부문 협회들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윤리강령을 선포
- (3단계) 중소기업들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
 - APEC은 말레이시아에서 '훈련강사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21개 회원국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기업윤리 트레이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APEC의 원칙에 기초한 윤리강령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통로를 확보
 - 지금까지 이 훈련 프로그램은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페루,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개최

- 멕시코의 혁신의료기기협회(AMID)는 '14년 초부터 회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의료기기 산업 부문의 부정부패 관행에 대해 회원사들의 공동 대응을 준비
- 미국의 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는 회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온라인 자원을 통해 윤리강령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14년 6월 현재까지 총 64개 중소기업에 대해 AdvaMed 윤리강령 인증서를 수여



▲ APEC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현황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트렌드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요구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전달과 비용 지급 방식과 관련한 새로운 흐름이 형성. 본 자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언스트 앤 영(Earnst & Young)이 업계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14년 10월 발표한 ‘2014 헬스케어 산업 보고서- 가치를 향한 새로운 여정 (Health Care Industry Report 2014- New Horizons Voyage to Value)’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트렌드를 분석

□ 개요

- (개요) 보건의료 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품격 높은 고객 중심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건의료 비용 부담자 사이에서도 ‘가치’에 대한 의식이 변화/강화되는 추세
 - 다양한 산업에서 ‘소비자 가치 실현’은 매우 익숙한 개념으로, 소비자 가치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 그러나 보건의료 산업의 경우,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이한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가치에 대한 평가 과정은 쉽지 않으며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도 제기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성과에 따른 보상 △의료비용 지급체계 개편 및 새로운 지급방식 도입 △헬스케어 기관들 간의 금융 리스크 공유 등을 강조
 - 반면 보건의료 비용 부담자는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을 중시

□ 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한 최근의 추세

- (새로운 비용지급 모델)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비용지급의 기준과 방식을 다각화

-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변경하고 신뢰성 높은 성과측정방식을 도입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양보다는 질적 수월성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급 방식이 확산
- 이처럼 가치에 기반을 둔 지급 시스템은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불필요한 낭비 요소 제거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 효과 등 창출 효과가 기대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 방식

비용지급 방식	개요 및 특징
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 개별 의료 행위마다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여 각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
pay-for-performance	성과지급제. 행위별수가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
care management fees	인원별/월별 일정액의 의료관리 비용을 지급
bundled payments	일정기간 및 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소요된 비용들을 일괄 지급
shared savings & shared loss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통제를 위해, 당초 목표로 설정한 비용보다 절감되거나 초과된 금액에 대한 혜택과 부담을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global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는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을 월별 선납
provider-sponsored health plans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서비스 계획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

주 : 하단의 비용지급 방식일수록 비용부담 리스크가 높아지는 반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도 고조

-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 가치의 극대화라는 보건의료 산업의 가치창출 방향을 더욱 강조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를 위한 최고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
 - 보건의료 비용 부담자는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및 웰니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아래 성과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 커버리지 옵션을 확대
- (건강정보기술) 진료 및 치료결과 데이터 취합·분석은 물론,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

- 건강정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 HIT)은 의료진단·비용추적·협진·환자의 참여확대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주요 영역에서 가치기반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요소로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
- 원격진료 서비스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의 핵심 부문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은 이와 관련한 규제 및 정책 환경이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 HIMSS Health IT Value Suite의 주요 점검항목 및 기대효과

영역	하부 영역	기대 효과
만족도	환자/의료서비스제공자/직원 별 만족도	• 환자만족도 점수 향상 • 의료진·직원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의료처치/치료	안전/서비스 품질/효율성	• 의료과실 및 재입원 감소 • 진료 및 예약 일정 효율화
전자정보/데이터	근거가 확실한 의료활동/ 데이 터 공유 및 보고	• 근거가 뚜렷한 의료 가이드라인 확대 • 보다 많은 주민에 대한 건강보고 자료 확보
질병예방 및 환자교육	질병예방/환자교육	• 질병예방 효과 제고 • 환자의 의료수칙 준수역량 강화
비용절감	재무관련 비용절감/ 운영관련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 의료비 회계처리 기간 단축 • 환자 대기시간 단축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고조절 역량 향상

- '13년 7월 미국에서 공개된 HIMSS Health IT Value Suite는 병원정보화시스템을 통한 가치향상의 가능성과 평가 기준을 제시
- (협업) 헬스케어 분야의 개혁과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간 협업을 진행
 - 재무·운영·전략적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M&A·제휴·계열사 투자·자회사 매각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
 - 기존 사업자들이 시장 및 매출원 다각화와 영역 확장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및 변형하는 한편, 헬스케어 이외의 분야에서 활약하던 다양한 조직과 기업들이 기존 시장 진출과 신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
- (규제 준수) 의료관련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가치창출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

- 최근에는 의료 사업자들이 정부의 조사와 각종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차원을 넘어, 법규에 명시된 기준을 상회하는 고품질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전망
- (가치 측정) 의료서비스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가치 측정이 쉽지 않지만, 새로운 가치 측정 도구들이 계속 개발 및 소개될 것으로 기대
-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적시에 제공되는 의료조치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환자회복 속도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요구
 -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개혁법(ACA) 등의 영향으로 정확한 평가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자·비용 부담자·정책 결정자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
 - 이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 AHA)가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19개의 측정지표를 제시
- * 이 외 통합헬스케어협회(Integrated Healthcare Association : IHA), 국제보건성과측정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ealth Outcomes Measurement : ICHOM), 지역헬스케어개선네트워크(Network for Regional Healthcare Improvement : NRHI) 등도 관련 기준을 마련

제 2 부

정책 동향

1. 제약 / 바이오	215
2. 의료기기 / 정보화	285
3. 화장품	297
4. 의료서비스	315
5. 보건산업 기타	413

1. 제약 / 바이오

1.1 미국	217
1.2 영국	236
1.3 일본	245
1.4 중국	259
1.5 EU	264
1.6 아시아	274
1.7 글로벌	277
1.8 중남미	282
1.9 캐나다	283

1.1 미국



미국 정부, 장기 이식 범주 확대 ... 손·안면 포함

- 미국 정부가 '14년 7월부터 심장·간·신장 등 장기 이식 범주에 손과 안면도 포함시켜 미국 장기이식관리센터(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 UNOS)를 통해 규제·관리해 나가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사고나 전투로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들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UNOS는 우선 자원자들로부터 심장과 폐 등 전통적인 장기 기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손과 안면 기증을 이끌어 내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
 - 미국에서 손 이식은 '99년 이후 27건, 안면의 부분 또는 전체 이식은 '08년 이후 7건에 불과할 정도로 손과 안면 이식 수술은 초보단계
 - 그러나 다수 병원들이 손과 안면 이식 수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방부도 상이용사를 위한 이식 수술에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여서 이번 조치와 함께 손과 안면 이식 수술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NBC, 2013.12.27]



미국 LICR, 6개 기관에 암연구기금 5억4천만불 기부

- 미 루드빅암연구소(Ludwi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 LICR)가 하버드·MIT·존스 홉킨스·시카고·스탠포드 등 5개대와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에 각각 9천만불씩 총 5억4천만불의 암연구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
 - LICR은 지난 '06년에도 이들 기관에 총 1억2천만불을 기부, 암 계몽지도를 완성하고,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 공격하는 '스마트 드럭' 방법과 빠르게 전이되는 희귀암 추적 방법 등 개발에 큰 성과를 기록
 - LICR은 1960년대의 선박부호 대니얼 루드빅(Daniel Ludwig)이 설립한 재단으로 이번

- 을 포함해 총 25억불에 육박하는 거액을 암 연구에 기부
- 전문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암연구기금을 지원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기부가 이루어졌다면 높게 평가
- * 연방정부는 지난 '13년 3월부터 예산 자동삭감 조치에 의해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5.5%(15억 5천만불) 감축, NIH가 암연구기금 지원에 여유가 없는 형편

[Nonprofit Quarterly, 2014.01.09]



NIH, 독감 바이러스 생체감염 실험 프로젝트 추진

- 미 국립보건원(NIH)이 탁월한 효능의 독감백신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50세 미만 성인 1백 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바이러스의 생체감염 실험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 지원자들은 신종플루(H1N1) 바이러스를 코를 통해 주입한 뒤 베데스다(Bethesda)에 위치한 NIH 본부 격리병동에서 최소 9일간 생활하게 되며, NIH는 이들의 독감 증상 강도와 면역체계 반응 등을 비교 분석
- * 지원자에게는 1인당 3천불의 사례가 지급
- 지원자들은 독감 바이러스 항체 수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된 뒤 각 집단별로 비교
- NIH는 이번 프로젝트로 면역체계가 독감에 대항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뒤 이를 이용해 탁월한 효능의 독감백신을 개발한다는 방침

[ABC, 2014.02.02]



NIH, 글로벌 신약개발 'AMP' 프로젝트 시행

- 미 국립보건원(NIH)이 글로벌 제약업체들과 '신약개발 촉진 파트너십(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 : AMP)'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
- AMP 프로젝트는 NIH가 주관하며, 향후 5년간 알츠하이머 · 2형 당뇨병 · 류머티즘 관

절염·루푸스 등 4대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을 공동 연구

* 참여업체는 화이자·GSK·머크·BMS·얀센·일라이릴리·사노피·다케다·애브비·바이오젠이며, 이들은 AMP 프로젝트에 총 2억3천만불을 투자

- AMP 프로젝트 아래 진행되는 알츠하이머 연구의 경우 환자의 뇌조직 샘플에 대한 대규모 심층분석을 실시, 알츠하이머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인자들과 치료 표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AMP 프로젝트에는 국립노화연구소를 비롯한 NIH 산하 3개 단체와 알츠하이머병학회·미국당뇨병학회·미국류머티즘연구재단·미국루푸스재단 등 미국의 8개 비영리 단체도 참여

[Outsourced Pharma, 2014.02.11]



미국 국방부, 기억 재생 두뇌 이식 프로젝트 추진

○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DARPA)

이 뇌 손상 병사들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

- 지난 2000년 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에서 뇌를 손상당한 미군은 28만 명을 상회하며, DARPA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탐침을 두뇌에 이식해 뇌조직을 자극함으로써 기억을 되살릴 계획

* 미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VA)는 뇌손상 미군 치료비용으로 '13~'22 회계연도에 42억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미국에서만 한해 170만 명이 진단되는 기억 장애 환자나 치매 노인 등 치료에도 도움이 될 전망
- 한편 DARPA는 두뇌 이식 프로젝트 이외 군인이 도마뱀처럼 벽을 기어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크스킨(geckskin)', 군인의 힘을 키워주고 상처를 덜 입게 하는 '보디슈트(bodysuit)' 등도 개발을 진행

[Washington Post, 2014.02.12]



FDA, 제네릭·OTC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 미 식품의약국(FDA)이 제네릭 의약품에서 OTC 의약품까지 전방위로 관리감독을 강화
 - FDA는 제약품질국을 신설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유례없는 대대적 품질 검증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OTC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
 - * FDA는 이미 사전예고 없이 심장약 · ADHD 치료제 · 면역억제제 · 항간질제 · 항우울제를 중심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검증에 돌입
 - 지금까지 FDA는 예산이 부족해 제네릭 품질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제네릭 업계로부터 수수료를 거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폭넓은 검증이 가능
 - 또 FDA는 OTC 의약품 승인 및 안전성 문제에 보다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피력
 - * 그동안 미국에서 OTC 의약품은 지난 1972년 수립된 모노그래프(monograph) 허가 규정에 따라 주요 성분이 기존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승인 절차가 면제

[Wall Street Journal, 2014.02.21]



퍼블릭시티즌, 테스토스테론 제제 위험성 경고문 부착 압력

- 미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이 테스토스테론 제제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심근경색 및 기타 심혈관계 질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식품의약국(FDA)에 압력
 - 퍼블릭시티즌은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27건의 연구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4건에서 매우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
 - * 특히 5만5천여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제제 투여 후 3개월 동안 심근경색 발생률이 투여 전에 비해 2배, 심장병 전력이 있는 65세 이하 남성은 2.9배 증가했다고 설명
 - 테스토스테론 제제들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5백만건 이상이 처방된 가운데 전체의 90% 이상을 안드로겔(AndroGel) · 액시론(Axiron) · 테스트임(Testim) · 포테스타(Fortesta) 등 남성 성기능 저하 치료제가 차지
 - 그러나 FDA는 FDA 승인을 받은 테스토스테론 제제들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및 이에 따른 사망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반박

[Legal Examiner, 2014.03.04]



FDA, 의약품 신속 수입 프로그램 ‘SSCPP’ 가동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정 조건 아래 제약업체들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수입하는 ‘조달공급체인 시범 프로그램(Secure Supply Chain Pilot Program : SSCPP, ‘16년 2월까지 운영)’을 가동, 글로벌 13개 업체들에게 적용
 - 이들 업체는 테바, 아스텔라스, 애브비, 앨러간, BMS, 셀진, GE 헬스케어, GSK, 머크, 밀란, 노바티스, 화이자, 왓슨으로, FDA로부터 업체 당 5개 제품까지 신속하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확보
 - SSCPP에 선정된 업체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 : FDCA)’ 같은 엄격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FDA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
 - FDA는 의약품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약업체들에 대한 감시에 주력하기 위해 SSCPP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항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용한다는 방침

[Chemistry World, 2014.03.17]



미국 정치권, FDA에 ‘조하이드로’ 승인 취소 압력

- 미국 정치권이 식품의약국(FDA)에 조제닉스(Zogenix)의 마약성 진통제 ‘조하이드로(Zohydro)’ 승인 취소 압력을 강화
 -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상원의원과 스테판 린치(Stephen Lynch) 및 할 로저스(Hal Rogers) 하원의원이 상하 양원에 각각 조하이드로 출시를 금지시키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
 - * 찰스 슈머 의원은 조 맨친(Joe Manchin) 의원과 함께 캐슬린 시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보건장관에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
 - 이에 앞서 28개주 법무장관들도 FDA에 조하이드로 승인 재검토를 요구
 - 이들 의원과 법무장관은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은 조하이드로 두 알, 미성년자의 경우 단 한 알 만 복용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
 - 조하이드로는 마약 성분인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이 비코딘(Vicodin)이나 롤탭(Lortab) 같은 진통제보다 10배 정도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약물의 효과가 부작용 위험을 능가한다며 지난해 10월 승인

[Medscape, 2014.03.18]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창출

- 미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은 '13년 4월 인간의 뇌 지도를 제작해 알츠하이머와 간질 같은 발병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억불을 책정
 - 동 프로젝트 아래 앨런 뇌과학연구소는 쥐의 뇌 속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뇌신경망 3D 지도를 작성하는 데 성공
 - * 이 3D 지도는 인간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 뇌신경망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 인간의 뇌활동 연구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브레인 이니셔티브는 지난 1990년대 인간게놈 해독 프로젝트의 뒤를 잇는 미국의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시행

[Washington Post, 2014.04.07]



미국 연방법원, 다케다릴리에 90억불 벌금 ... ‘액토스’ 위험 은폐

-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일본 다케다와 다케다의 마케팅 제휴업체인 미국 일라이릴리에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의 방광암 발생 위험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총 90억불의 벌금 부과를 판결
 - 배심원단은 다케다가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액토스의 발암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 액토스는 지난 '1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방광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는 등 이전에도 부작용 논란으로 곤욕
 - 그러나 다케다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액토스로 인해 방광암에 걸렸다는 과학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항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반발
 - 한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이미 액토스 판매를 전면 금지

[Wall Street Journal, 2014.04.08]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논란 ... ‘스타틴’ 과다 복용 우려

-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 AHA)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이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을 목적으로 발표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논란
 - 가이드라인은 심장질환자, 40~75세 사이 2형 당뇨병 환자, 10년 이내 심장병 발생 위험이 7.5% 이상인 40~75세 사람들에게 스타틴(statin)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뛰어난 효과가 있다며 복용을 권고
 - 그러나 듀크대 연구팀은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을 권고받아야 할 성인들이 미국에서만 현재 4천320만명에서 5천600만명으로 1천280만명이나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
 - 이 같은 추정치는 AHA 가이드라인이 10년 이내 심장병 발생 위험성이 7.5% 높아지는 집단에게도 스타틴계 약물 복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
 - 하버드대 연구팀도 AHA 가이드라인은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상태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제약업체에만 이득이 된다고 비판

[Examiner, 2014.04.10]



FDA, 중국 제약업체 원료의약품 품질 관리감독 강화

-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중국산 원료의약품 공급망의 품질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중국 제약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
 - FDA는 이를 위해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중국사무소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총원 인력은 중국 업체들의 원료의약품 공급 위험 대처 방안을 분석한 뒤 FDA의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투입
 - 미국은 현재 원료의약품의 8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를 중국과 인도에서 구매
 - 지난 '03~'13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원료의약품은 2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FDA는 지금까지 중국내 33개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한 전력을 보유

[Pharma Manufacturing, 2014.04.15]



미국 24개주 검찰청장, 구글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책 압박

- 미국의 24개주 검찰청장들이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온라인상에서 위조 처방전과 미인가 약국이 판매하는 불법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구글 경영진을 직접 만나 압박을 강화
 - 이에 대해 구글 경영진은 위조 처방전과 불법 의약품 유통을 막는 전담인력 120명을 확보하고 ‘마약상이 되는 법’ 같은 검색어 1천2백개를 삭제하겠다고 제안
 - 그러나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짐 후드(Jim Hood) 미시시피주 검찰청장은 구글이 더욱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구글은 지난 '11년 불법 의약품 광고를 방치했다가 미국 정부에 5억불의 합의금을 낸 뒤 광고 허용 기준에 대한 정책을 강화
 - 그러나 구글의 한 주주가 구글이 해외 처방약 반입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를 허용해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여전히 지속

[Washington Post, 2014.04.16]



콜로라도주, 말기환자에 임상시험약 허용 논란

-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가 말기환자의 경우 임상시험 과정에서 있는 신약을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Try)’ 법안에 서명, 논란이 확산
 - 이 법안은 신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FDA 승인이 나오기까지 수년 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말기환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
 -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승인 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약업체들도 미승인 약 사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
 - 이런 가운데 FDA는 이 법안이 불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FDA 본연의 임무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는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Pharmaceutical Online, 2014.05.22]



FDA·인터폴, 불법 사이버약국 대대적 단속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불법 사이버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총 1천975개 사이트를 색출
 - FDA는 이들 사이트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등록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도메인네임 등록기관 등에 해당 사이트를 고지
 - 이번 단속은 작전명 ‘판게아 오퍼레이션 VII(Operation Pangea VII)’로 단행
 - 불법 사이버약국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는 해외에서 제조된 후 미국으로 유입된 인슐린, 에스트로겐, 비마토프로스트, 용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트라마돌, 타달라필 및 구연산염 실테나필 등이 다량 포함
 - * FDA는 이번 단속에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만여 포장 의약품을 압수
 - FDA는 불법 사이버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의 진위 여부와 효능을 알 수 없고, 환불과 교환도 안 되며, 신용카드 사기 같은 컴퓨터 해킹 등 문제를 야기한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촉구

[In-PharmaTechnologist, 2014.05.27]



NIH, 알츠하이머 예방약 ‘솔라네주맵’ 임상시험 지원

-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일라이릴리와 총 1억4천만불을 투입, 미국 전역 60개 의료기관에서 ‘솔라네주맵(solanezumab)’의 알츠하이머 예방 임상시험을 지원
 - 솔라네주맵은 일라이릴리가 원래 알츠하이머 예방이 아닌 치료용으로 개발
 - 그러나 앞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이미 시작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경증 환자에만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
 - 시험 대상자는 현재는 기억 기능이 정상이지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65~85세 노인 1천여 명

- 임상 연구팀은 이들에게 향후 3년간 매달 1회 솔라네주맙을 정맥주사로 투여하면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치와 기억력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 알츠하이머 예방약으로의 효과 여부를 검증할 예정

[Newsmax, 2014.06.10]



오하이오, 약사에 유행성 이하선염 등 백신 접종권 부여

- 미국 오하이오주 존 카식(John Kasich) 주지사가 약사에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행성 이하선염과 홍역 및 풍진 백신을 주민들에게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
- 이번 조치는 아직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성인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
-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유행성 이하선염과 홍역 및 풍진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카식 주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된 가장 큰 배경
- 유행성 이하선염의 경우 애턴즈, 벨몬트, 클라크, 페어필드, 프랭클린, 해밀턴, 리킹, 매디슨, 매리언, 모로우, 머스킹엄, 피커웨이, 로스 유니온, 워렌 등 대다수 카운티에서 400건 이상이 보고
- 한편 미국질병관리센터(CDC)는 오하이오 등 미국 전역에서 홍역이 급증하면서 홍역이 지난 1994년 이래 최대 규모로 창궐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 of Pharmacy, 2014.06.18]



FDA, 테스토스테론 정맥혈전 위험 경고 강화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중에서 발매되고 있는 모든 테스토스테론 제품*에 대해 정맥혈전 위험성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강화된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
- * 고환의 유전적 부전 같은 의학적 장애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결여된 남성의 성욕 감퇴, 우울증, 근육 손실, 피로 등 증상 개선을 위해 승인된 약물
- 미국 내 테스토스테론 제품에는 적혈구 증가에 따른 정맥혈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나, FDA는 정맥혈전 이외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조치와 관련, FDA는 테스토스테론 제품 사용으로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됐다는 2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지난 1월 이후 테스토스테론 제품 안전성 문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도 같은 작업에 착수

[Injury Lawyer News, 2014.07.07]



캘리포니아 검찰청, 페덱스 기소 ... 처방용 의약품 불법배송 혐의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검찰청이 특송업체 페덱스(FedEx)를 처방용 의약품과 규제약물 불법배송 혐의로 기소

- 검찰청은 페덱스가 온라인 약국 2곳과 공모해 의사의 처방전이 요구되는 의약품과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규제하고 있는 약물을 소비자들에게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

- 이와 관련, FDA는 일부 온라인 약국들이 불법배송을 위해 특송 서비스를 교묘하게 활용해 왔다고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

* 또 이번 기소를 계기로 공중보건의 기업의 이윤에 우선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미국 사회에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

- 그러나 페덱스는 불법배송 혐의를 부인한 뒤 자사는 오히려 그동안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마약단속국(DEA)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약물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고 반박

[Wall Street Journal, 2014.07.29]



미국소아과학회, ‘팔리비주맵’ 예방투여 지침 개정

○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AAP)가 RS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 위험이 높은 아기에 대한 치료주사제 ‘팔리비주맵(Palivizumab)’ 예방투여 지침을 개정

▼ 팔리비주맵 예방투여 개정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재태주수 29주 이하 조산의 경우 혹은 재태주수 32주 이하이고 생후 28일 이상 산소요법이 필요했던 경우 생후 12개월 아기에 예방투여
2	• RSV 감염증으로 입원하는 도중 ‘돌파감염(breakthrough infection)’ 현상이 나타나면 예방투여를 일시 중단
3	• 심질환 혹은 만성폐질환(CLD)이 없거나 조산(29주 이하)이 아닌 다운증후군 아기에겐 예방투여 자제
4	• RSV의 병원내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투여 자제
5	• 중증 면역부전을 가진 24개월 미만 아기에는 RSV 유행기 동안 예방투여 권장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4.07.28]



미국 정부, 일본산 에볼라 치료제 허가 방침

- 미국 정부가 일본 후지필름이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를 허가할 방침
 -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 치료제가 현재 에볼라에 감염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후지필름의 미국측 파트너인 메디벡터(MediVector)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체실험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
 - * 미국의 맵 바이오파마슈티컬(Mapp Biopharmaceutical)이 개발한 치료제 ‘지맵(ZMapp)’은 인체실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에볼라 감염환자 2명에게 긴급 투여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면역 및 백신 전문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역대 3번째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 이에 따라 WHO는 국가간 공조체제와 면역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에볼라 발병국 여행제한 등 조치를 시행할 전망

[Wall Street Journal, 2014.08.08]



FDA 신속 의약품 승인에 안정성 우려 제기

-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신속한 의약품 승인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
 -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은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 PDUFA)’이 발효된 지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모든 의약품을 전수 조사
 - 그 결과 제품 승인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도달하는 평균 기간이 PDUFA 시행 이전 34개월에서 시행 이후 16개월로 단축됐지만, 승인 의약품 3개 중 1개꼴로 승인 후 25년 내 안전성 문제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었음을 확인
 - *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은 32개이며, 돌출경고문이 추가된 의약품의 비율은 PDUFA 시행 전 21.2%에서 시행 후 26.7%로 증가
 - 연구팀은 FDA가 신약 검토를 서두르고 있어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이 출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획기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면 승인에 신중을 가할 것을 요구

[Forbes, 2014.08.08]



미국 법무부, AZ 항응고제 ‘브릴린타’ 조사 종결

- 미국 법무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응고제 ‘브릴린타(Brilinta)’ 임상시험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밝힌 뒤 조사를 종결
 - ‘PLATO’로 명명된 이 임상시험은 AZ가 개발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항응고제 ‘플라빅스(Plavix)’와 브릴린타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
 - * AZ는 PLATO 아래 전세계 43개국 약 1만9천명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 초회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해 브릴린타와 플라빅스를 비교평가, 두 약물이 모두 안전하고 약효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그러나 PLATO의 시험 결과와 관련된 숫자가 조작됐으며 특히 실험군에 속한 사망자수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미국 법무부가 단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조사에 착수
 - 한편 브릴린타는 지난 '11년 7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14년 1분기에만 2억 1천600만분의 매출 실적을 기록

[PMLiVE, 2014.08.20]



마약단속국,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등급 3급 → 2급 조정

-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아편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복합제들에 대해 관리대상의약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른 분류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
 - 이번 조치는 하이드로코돈 복합제들의 오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하이드로코돈 단독제는 2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복합제는 3급으로 분류된 데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
 - 관리대상의약품법은 의료 용도로 허용된 약물들을 2~5급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해 2급 약물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에게는 기록 관리를 엄격히 한 뒤 식품의약품(FD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 1급으로 분류된 약물의 경우 안전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료 용도로는 사용이 불허
 - DEA는 관리대상의약품법에 따라 2급 의료용도 약물들에 대해 최고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하이드로코돈 복합제들도 대상에 포함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9.12]



연방거래위, 에브비 제소 ... 안드로겔 제네릭 접근 차단 혐의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을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는 혐의로 에브비를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에 제소
 - FTC는 소장에서 에브비와 에브비의 협력사인 베생 헬스케어(Besins Healthcare)가 저가의 안드로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잠재적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근거없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 또 에브비가 테바와 콜레스테롤 저하제 트리코어(TriCor)의 제네릭 버전과 관련해 역지불합의(pay-for-delay)*를 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강조
 - * 신약 특허권 보유업체가 제네릭 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
 - 그러나 에브비는 FTC의 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
 - 한편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FTC에게 역지불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

[Washington Examiner, 2014.09.11]



FDA, 테스토스테론 약물 처방 규제 전망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약물의 처방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
 - FDA 자문위원회는 시중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테스토스테론 약물 설명서에 테스토스테론이 성욕 감퇴, 피로, 근육 소실 등 노화에 따른 현상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한 문구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주장
 - FDA는 지난 1950년대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생식기능 저하증 환자에 대한 테스토스테론 주사요법을 승인
 - 그러나 승인 설명서 내용이 모호해 제약업체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건강한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 함유 약물이 처방될 수 있도록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
 - 한편 캐나다 보건부도 지난 7월 테스토스테론 약물이 심장마비, 혈전, 부정맥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FDA는 어떤 방식으로든 테스토스테론 약물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 확실

[NBC, 2014.09.27]



미국 법무부, 샤이어로부터 5천650만불 과징금 징수

- 미국 법무부가 ‘허위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한 아일랜드 샤이어로부터 5천 650만불의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발표
 - 법무부는 샤이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애더럴 XR (Adderall XR)’의 불법 마케팅 혐의를 인정,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고 설명
 - 이번 사건은 샤이어가 지난 '04~'07년 다른 ADHD 치료제와 비교해 애더럴 XR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면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적응증에 판매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서 비롯
 - * 샤이어는 경쟁업체 제품이 애더럴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애더럴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FDA가 승인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치료제로도 마케팅

- 사이어는 향후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맞춰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 한편 사이어는 최근 미국 애브비가 제시한 540억불의 인수 제안을 수용

[Policy and Medicine, 2014.09.29]



FDA, ‘식품의약품법’ 위반 에볼라 광고 단속

-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과학적 근거 없이 에볼라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
- 최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에볼라 예방과 치료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요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에볼라 예방·치료제라고 허위광고
- 이와 관련, FDA는 소위 ‘나노실버(nano silver)’로 불리는 방향유 제조업체 내추럴 솔루션스 파운데이션(NSF) 등 3곳에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FFDC Act)을 위반했다며 광고를 즉시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발송
- * 이들 업체는 나노실버가 관절염, 자폐증, 암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는 광고까지 실어 논란
- FDA는 또 이들 업체는 제약회사가 아닐 뿐더러 이곳에서 제조된 제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CBS, 2014.10.10]



FDA, 화이자 ‘첸틱스’ 경고 강화 문구 부착 의무화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화이자의 금연 보조제 ‘첸틱스(Chantix)’에 대해 더욱 강력한 내용의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할 전망
- FDA는 첸틱스 겉 표면에 자살충동과 우울증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연합*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자문위에 요청했으며, 자문위는 이들 단체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FDA에 전달
- *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국립보건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Research : NCHR), 미국의사연맹(National Physicians Alliance : NPA), 안전투약처방학회(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 ISMP)
- 시민단체연합은 첸틱스로 위험한 경험을 했다는 수많은 소비자 보고가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 조종사·관제사·경찰·군인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첸틱스의 사용이 제한 내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첸틱스는 지난 '06년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3년 매출은 6억4천800만불

[Formulary Journal, 2014.10.21]



NIH·국방부, 에볼라 백신 ‘VSV-ZEBOV’ 임상시험 착수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국립미생물연구소(CNML)가 개발한 에볼라 백신 ‘VSV-ZEBOV’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
- NIH와 국방부는 18~65세의 건강한 성인 피험자들의 근육에 VSV-ZEBOV를 투여한 뒤 피험자 면역계 반응 및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
- * 동시에 월터 리드 육군병원연구소(WRAIR) 임상시험센터에서 ‘VSV-ZEBOV’를 1회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임상시험도 개시
- 임상시험은 피험자들을 각각 13명씩 3개 집단으로 무작위 분류한 후 개별 집단에 속한 10명에게 다양한 용량의 VSV-ZEBOV 백신을, 나머지 3명에게는 위약을 증량 투여하면서 1년여 동안 진행될 예정
- VSV-ZEBOV는 원래 설치류와 소·돼지·말 등에 감염되는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개발됐으며, 판권은 미국 뉴링크 제네틱스가 보유

[The Scientist, 2014.11.05]



미국 보건부·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보고 요건 강화

- 미국 보건부와 국립보건원(NIH)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보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번 규제안에 의하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성공 및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 결과를 시험 종료 1년내 정부 인터넷 사이트 www.ClinicalTrials.gov에 게재가 의무화
 - * 현재 이 사이트에는 17만8천여건의 임상시험 정보가 수록
 - 이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든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든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해 R&D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수행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개발 중인 약물이나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들의 추가 정보들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4.11.21]



매사추세츠법원, ‘넥시움’ 역지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미국 매사추세츠지방법원이 글로벌 의약품 도·소매업체와 보험업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를 대상으로 제기한 ‘넥시움(Nexium)’역지불(pay-for-delay)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
 - 이들 원고는 AZ가 인도 제네릭업체 램박시에 지난 '08년 소화성궤양용제 넥시움의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10억불을 합의금으로 불법 지급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소송을 제기
 - 그러나 법원은 합의금이 불법이 아니고,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
 - * 법원은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넥시움 제네릭 승인을 받은 제약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부연 설명

-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3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해치-왁스만법 (Hatch-Waxman Ac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재판까지 이루어진 최초의 역지불소송

[Wall Street Journal, 2014.12.11]



FDA, '지오돈' 사용주의 촉구 ... DRESS 경고문 부착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항정신병제 '지오돈(Geodon)'과 지오돈 제네릭이 치명적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시 주의를 촉구
 - 이에 따라 FDA는 이들 약물의 라벨에 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경고문을 추가 부착한 뒤, DRESS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들 약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
 - *피부 부작용이 발진으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증후군
 - FDA는 또 이들 약물을 사용할 경우 열이 발생하고, 림프절이 부으며, 장기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응급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
 - FDA에 따르면 아직 지오돈과 지오돈 제네릭으로 인한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치료 개시 후 11~30일 사이 DRESS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6건 접수
 - 한편 지오돈의 성분인 '지프라시돈(ziprasidone)'은 지난 '13년 미국에서만 250만건이 처방·조제된 것으로 추정

[Your Health Magazine, 2014.12.17]

1.2 영국



영국, 치매 연구 강화 ... '25년까지 1억3천만 파운드 투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G8 보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런던에서 개최된 치매 정상 회의에서 영국은 치매 관련 R&D 투자를 '15년 6천6백만 파운드에서 '25년에는 1억3천2백만 파운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캐머런 총리는 투자 확대를 통해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와 알츠하이머학회(Alzheimer's Society) 등 관계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신약 개발을 목표로 국제 치매컨소시엄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소개
- 총리는 각국 정부·기업·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암과 AIDS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이제는 치매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G8 치매 정상회의는 이런 목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
- 한편 글로벌 치매단체연합회인 알츠하이머병인터네셔널(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에 의하면 오는 '50년 전세계 치매환자 수는 지금보다 3배 급증한 1억3천5백만 명에 이를 전망

[Guardian, 2013.12.18]



영국 보건부, 성형보충제 규제 강화 ... 시술전 보험가입 의무화

- 영국 보건부가 보톡스 등 성형보충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을 포함해 성형보충제를 이용한 모든 시술기록을 전산망에서 관리 △성형외과의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시술 전 보험가입 의무화 △성형보충제 광고 규제 등을 추진
- 영국에서는 성형보충제 시술 시장이 연간 20억 파운드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증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
- * 현재 영국에서는 보톡스를 제외한 성형보충제는 아무 규제 없이 시중에서 판매돼 무자격 시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

-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 성형의협회는 성형보충제 남용을 막는 동시에 보충제의 품질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
- 한편 EU에서는 의약품 안전규정을 통과한 성형보충제에 대해서만 시판을 허용

[The Times, 2014.02.13]



영국 보건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방침 ... 미토콘드리아 질환 유전 예방

- 영 보건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 유전을 예방하기 위한, 소위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에 대해 오는 5월24일까지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의회에 송부, 올해 안으로 발효시킬 계획
- 법안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미토콘드리아 DNA가 정상인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
- *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는 심장병·정신지체·치매·파킨슨병·헌팅턴병·비만·당뇨·암 등 150여 질환과 연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에서는 매년 2백명에 1명 꼴로 미토콘드리아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가 출생
- 이 법안이 확정되면 영국은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 영국의 현행법은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이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지
- * 단 연구 목적의 시험관 실험은 허용

[Biopolitical Times, 2014.03.06]



영국 정부, 타미플루 비축으로 5억6천만 파운드 예산 낭비

- 영국 과학자단체 코크레인 콜라보레이션(Cochrane Collaboration : CC)이 영국 정부가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타미플루(Tamiflu)와 리렌자(Relenza)를 비축하는 바람에 5억 6천만 파운드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주장
 - 영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난 '05년과 돼지독감이 유행한 '09년 각각 4억2천4백만 파운드와 1억3천6백만 파운드를 들여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비축
 - 그러나 CC는 조사 결과 타미플루의 경우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을 평균 7일에서 6.3일로 겨우 0.7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밖에 없고, 아동에게는 그 효과도 불분명하며 특히 천식을 앓는 아동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
 - * 또 타미플루와 리렌자 복용 시 신장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
 - CC는 영국 정부가 타미플루와 리렌자 재고가 소진되면 또 다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Guardian, 2014.04.10]



영국 보건부, '백세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약물 선정 방침

- 영국 보건부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노바티스의 수막구균 B혈청균 백신인 '백세로(Bexsero)'를 국민건강보험(NHS)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약물로 선정할 방침
 - 백세로는 수막구균 질환을 유발하는 5개 주요 혈청균(A, B, C, Y 및 W-135) 중 B 혈청균 감염에 의한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의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
 - 그러나 제레미 헌트(Jeremy Hunt) 보건장관은 예방접종 약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며 조 지메네즈(Joe Jimenez) 노바티스 회장을 만나 현재 4알에 300 파운드인 백세로 가격의 인하를 요구
 - 한편 백세로는 지금까지 유럽과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승인을 받는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백세로를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백세로를 찾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FierceVaccines, 2014.04.21]



영국 특별수사국, GSK 영업활동 위법성 수사 착수

- 영국 특별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 SFO)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불법 여부가 있었는 지 공식 수사에 착수
 - GSK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서 불법 영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크 라일리(Mark Reilly) 중국사업 본부장 및 간부 2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기소
 - * 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이라크와 레바논 등 중동에서도 뇌물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 그러나 SFO는 이번 수사가 글로벌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 한편 GSK는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거리낄 사항이 없다고 해명한 뒤 SFO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GSK가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

[Mix Online, 2014.06.03]



영국 정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전망

- 영국 보건부 인간생식배아관리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 HFEA) 산하 과학전문가 패널이 ‘3부모 체외수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국 정부가 수년 내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
 - 패널은 어머니로부터만 물려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3부모 체외수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
 - * 미토콘드리아의 DNA 변이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이영양증·간질·심장병 등 150여 질환을 유발
 -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여성이 이 결함을 자녀에게 유전시키지 않으려면 자신의 난자에서 핵을 빼 미토콘드리아 DNA가 정상인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해야 하는 기술이 필수

- 그러나 이 방법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결국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되는 셈으로, 그 동안 영국에서는 3부모 체외수정 여부를 놓고 허용에 긍정적인 의료계와 반대하는 종교계가 치열하게 대립

[Life News, 2014.06.10]



영국 정부, 세계 최대 규모 치매 연구 시행

- 영국 정부가 치매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치매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정
- 연구는 50세 이상 영국인 200만 명의 병력과 생활방식 정보를 취합한 뒤 인지연구, 뇌 영상법, 유전학 등을 이용해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 치매 유발 원인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지난 '09년 2천800만 파운드였던 치매 연구 예산을 '15년에는 6천600만 파운드로 증액할 예정
- 또 향후 5년 동안 영국알츠하이머연구소(Alzheimer's Research UK)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소를 개설하고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총 1억 파운드를 투입할 방침
- 한편 캐머런 총리는 치매 연구 장려, 신속한 신약 실험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른 국가들의 정책적 공조도 촉구

[Select Science, 2014.06.20]



영국 경도상위원회, “항생제 내성 해결에 1천만 파운드 상금”

○ 영국 경도상위원회(Longitude Prize Committee)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낸 연구자에게 노벨상 상금의 10배가 넘는 1천만 파운드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

* 를 사전 제시하고 최우선 과제 선정에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충분한 식량 공급 △신경재생 치료 △안전한 식수 확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비행 △치매 극복 △항생제 내성 해결

-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단순한 감염 질환만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을 지녀 기후변화에 맞먹는 위협으로 평가
-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 114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확인돼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

[Guardian, 2014.06.25]



캐머런 총리, 항생제 내성 대처 위한 국제공조 촉구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소한 감염이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

- 또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의학계에 새로운 항생제가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것은 시장실패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영국 정부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항생제 내성 극복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 극복 문제를 내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의제로 제안하겠다고 강조

*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지지를 약속받았다고 공개

- 한편 영국 보건부는 항생제 내성은 수술치료 등 현대 의술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유럽에서만 매년 2만5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며 캐머런 총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PMLive, 2014.07.17]



NICE, 콜레스토롤 저하제 복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 NICE)이 콜레스토롤 저하제 복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초안)을 발표

▼ 콜레스토롤 저하제 복용 개정안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피토(Lipitor)' 20mg 복용이 권고
2	• 심장질환 환자들과 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리피토' 80mg 복용이 권고
3	• 10년 이내 심장질환 발생 위험성이 10%를 상회할 경우에도 모두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운동·식이요법·금연 등 예방적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며 생활습관 개선에 실패했을 경우 스타틴계 약물 복용이 바람직 * 지난 '06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에게 생활습관과 관계없이 약물복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타틴계 약물을 처방하도록 권고

- 한편 영국에서는 현재 연간 18만여 명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On Medica, 2014.07.24]



NHS, 암·희귀질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시행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7만5천여 환자들로부터 DNA를 기증받아 암과 희귀질환 등 치료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오는 '17년까지 시행할 계획

- NHS는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DNA 염기서열을 비교·분석, 글로벌 무대에서 유전자 연구 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영국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
-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BBC방송은 NHS가 10만명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1차로 100명의 DNA 분석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1천명, 내년말까지 1만명의 DNA 분석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보도
- NHS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국 게노믹스 잉글랜드(Genomics England) 및 미국 일루미

나(Illumina)와 파트너십을 체결

- 한편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이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부작용없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해 어떠한 변이가 종양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지를 먼저 규명할 것을 권고

[BioResearch Online, 2014.08.04]



웰컴 트러스트, GSK 에볼라 백신 인체시험 추진

- 영국 의료지원 단체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서아프리카 등 에볼라 창궐 지역에 백신을 조기 보급하기 위해 영국 보건부의 승인을 거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
- 임상시험용 백신은 영국 GSK가 개발한 제품으로, 웰컴 트러스트는 일단 건강한 영국인 자원자 60명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
- 웰컴 트러스트는 1차 접종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아프리카 감비아와 말리에서 자원자 80명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할 방침
- 그 결과 1·2차 시험에서 안전성과 예방효과가 입증되면 내년부터 발병 위험지역에서 본격적인 백신 보급 사업에 나설 계획
- 웰컴 트러스트는 이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한 가지 단백질 성분을 기반으로 제조됐으며, 접종으로 인해 감염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

[The Economist, 2014.09.13]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극복 위한 국제공조 촉구

- 영국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연간 1천만명씩 발생할 수 있다며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 등 국제공조를 촉구
- 영국 정부 산하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50년까지 항생제 내성 확산에 따른 각국 대응 비용이 영국 GDP의 35배인 연 63조 파운드까지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2~3.5% 뒷걸음 칠 것으로 전망
- 위원회는 또 항생제 내성 확대로 현대의술이 암흑기를 맞으면 30여 년 뒤 나이지리아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25%에 이르고, 인도에서는 매년 20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
- * 항생제 내성이 일반화하면 제왕절개 등 의료기관에서 보편화한 시술도 힘들어져 의료수준이 후퇴
- 영국 정부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확인돼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Washington Post, 2014.12.12]

1.3 일본



일본 특허청, 사용 유전자 제한 없는 iPS세포 제작 권리 인정

- 일 특허청은 사용되는 유전자에 대한 제한 없이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교토대 iPS세포연구소에 부여
 - 교토대연구소는 지금까지 iPS세포의 기본적 기술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5건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나 모두 특정 유전자를 이용한 기술로, 유전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
 - 교토대연구소는 특정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특허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 iPS세포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09년 3월 특허를 출원했으나 2차례 기각당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 이번에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
 - 교토대연구소는 향후 특허 이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보다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iPS세포를 이용한 일본 재생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
 - 교토대연구소 특허는 오는 '26년 12월6일 만료

[日本經濟新聞, 2013.12.20]



후생성, 제네릭가 신약의 60% 수준 설정

- 일 후생노동성이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으로 제조되는 제네릭약의 발매 가격을 현재 신약의 70% 수준에서 60% 정도로 인하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 '14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지만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제네릭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제네릭 약가를 신약의 50%까지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제약업계의 반발로 다소 후퇴
 - 후생성은 또 제네릭약의 시장 점유율을 20% 미만, 40% 미만, 60% 미만으로 나눈 뒤

점유율이 낮을수록 가격 인하폭을 크게 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제네릭약 시장 점유율을 '17년말까지 60%로 높일 계획으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의료비는 연간 약 3천5백억엔, 이 중 보험료 부담은 2천6백억엔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

[日本經濟新聞, 2013.12.25]



일본 경산성, 혈액·타액 이용 암 조기발견 연구기관 지원

- 일 경제산업성이 혈액 혹은 타액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과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지원하기로 결정
- 이번 결정은 초기 단계의 암세포를 발견해 치료하는 소위 '선제의료' 기술 확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에 의하면 체내 세포는 '마이크로 RNA'로 불리는 초미세 크기의 유전정보를 지질 주머니에 싸서 혈액 속으로, 극히 일부는 타액 속으로도 방출하는 특성을 보유
 - * 지질 주머니에 들어가는 정보는 암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도 포함되는 등 세포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
- 혈액과 타액으로부터 이 주머니를 모아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체내에서 어떤 암이 발생하는지를 조기에 진단하는 연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용화에 성공한 예는 아직 없는 상황

[読売新聞, 2014.01.07]



일본 정부, 자가검사약 대상 품목 확대 방침

- 일본 후생노동성과 규제개혁회의가 소비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가검사약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작업에 돌입, 구체적 방안을 오는 6월 규제개혁실시계획에 포함시킬 계획

- 후생성과 규제개혁회의는 요잠혈과 배란일을 예측하는 검사약 등으로 자가검사약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의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 현행 제도에서는 임신·당뇨·요단백질에 한해 자가검사약 시중 판매가 허용
- 자가검사약은 소변이나 대변 혹은 혈액 샘플을 검사키트에 묻혀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의약품으로,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당뇨병·암·우울증·성병 등 다양한 종류의 검사약이 시중에 판매
-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992년 임신검사약 허용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

[毎日新聞, 2013.01.14]



일본 산학, 바이오의약품 국산화 협력 ... 정부도 45억엔 지원

- 일 히타치제작소와 시마즈제작소 등 24개사와, 고베대와 도쿠시마대 2개 대학이 미국과 유럽이 특허를 과점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산학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 개발비는 1백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올해 45억엔 정도를 지원한다는 방침
- 산학은 우선 올해 안에 고베시 인공섬 포트아일랜드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5년 내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실용화할 계획
 - * 포트아일랜드에는 의료관련 260개사 및 단체가 위치한 가운데 슈퍼컴퓨터 '케이'도 활용이 가능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연구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오는 '15년 22조엔으로 '10년의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기술이 국산화되면 일본의 의약품 수입초과 역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読売新聞, 2014.01.10]



일본 정부, 치매·우울증 화상진단 기술 개발 장려

- 일본 정부가 치매와 우울증을 화상을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3개성은 '14년도 예산안에 총 12억7천만엔의 연구 지원비를 편성
 - 정부는 또 화상진단 기술 개발을 오는 '15년 출범하는 일본판 국립보건원(NIH)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
 - 화상진단 기술은 의료진이 환자에 질환별 검사약을 투여한 뒤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을 통해 환자의 뇌내 특정부위에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 정부는 우울증의 경우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투여한 약물의 효과를 수치화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読売新聞, 2014.01.15]



일본 후생성, 국내 최초 승인 신약에 약가가산 제도 도입

- 일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會保険医療協議會) 권고를 수용, 국내에서 최초로 승인된 신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공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판될 수 있도록 약가가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들이 먼저 해외에서 신약 승인을 신청하고 그 뒤 일본에서 신청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국내에서 신약이 신속하게 시판되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 가산 대상은 △국내외에서 시판 중인 유사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갖고 △유사 제품보다 효과나 안전성이 높으며 △향후 해외에서 판매 계획이 있는 신약
 - 약가가산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제품은 공정가격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서 시판

[公明新聞, 2014.01.27]



일본 후생성, 임상시험 제3자 감사 의무화

- 일 후생노동성이 제약업체 임상시험과 관련,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할 방침
 - 이는 임상시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근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Diovan)’의 임상시험을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배경
 - 후생성은 제약업체가 제3자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진료기록 카드에 오류는 없는 지 등 사항을 점검받도록 의무화할 계획
 - 또 연구 주체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연구 신청 서류에 이를 명기하고,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나중에도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 종료 후 최소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다는 방침
- * 현재도 신약의 제조·판매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시험에는 약사법에 기초한 감사 규제가 존재하나, 디오반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뒤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제약업체의 불투명한 개입과 데이터 조작 등 부정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毎日新聞, 2014.02.27]



일본 정부, 약용 작물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 일 정부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약용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내년도 농림수산성 예산에 4억엔을 배정하기로 결정
- 약용 작물은 현재 8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약용 작물의 시험재배를 통해 새로운 산지를 창출하면서 오는 '16년까지 국내 생산을 지금보다 1.5배 증대시킨다는 방침
- 또 정부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품종 선정 △재배기술 확보 △농기계 개량 등 농가의 생산체제 정비를 지원할 계획
- 이번 국산화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약용 작물 남획이 심각해지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환경보전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해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서 비롯
- *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 중국산 수입 감초 가격은 kg당 937엔으로 5년간 2배 이상 급등

[日本經濟新聞, 2014.03.07]



일본, 알츠하이머 ‘J-ADNI’ 프로젝트 논문 부정 파문

-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J-ADNI’ 프로젝트에 임상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
 - 이에 따라 스기시타 모리히로(杉下守弘) 전 도쿄대 교수는 다른 공동 저자 12명에게 미국 신경방사선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의 철회를 제의
 - * 이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련 논문을 지난해 8월 신경방사선학회지에 발표
 - 스기시타 교수는 △검사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했고 △피검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검자 연령이 기준 연령대 범위를 넘는 데이터가 14% 정도 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논문을 작성했다고 실토
 - J-ADNI 프로젝트는 치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치료 및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제약회사가 33억엔을 투자해 지난 '07년부터 시행 중

[朝日新聞, 2014.03.21]



일본, 만능세포 제작 논문 조작 파문

-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만능세포(STAP 세포)를 제작했다는 논문('14년 1월 발표)과 관련, 실험용 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
 - 와카야마 데루히코(若山照彦) 야마나시대 교수는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 연구주임이 당초 자신이 전달한 실험용 쥐가 아닌 다른 쥐로 세포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실토
 - * 와카야마 교수는 쥐의 종류에 상관없이 STAP 세포 제작이 가능한 지 확인하기 위해 오보카타 주임에게 '129'계통의 쥐를 전달하며 세포 제작을 의뢰한 뒤 그로부터 받은 쥐로 STAP 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나 논문 발표 이후 세포 검증에서 'B6'와 'F1'계통의 쥐 유전자가 검출
 - STAP 세포는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적시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생명과학 상식을 뒤집는 혁신적인 성과로 기대됐으나 일본 사회는 이번 논문 조작으로 의료연구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개탄

[東洋經濟, 2014.04.02]



일본제약공업협회, 제약업체 임상연구 기부금 금지

- 일본제약공업협회(日本製藥工業協會)가 72개 전체 회원 제약업체들에 대해 자사의 의약품과 관련해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관례적으로 제공해 온 기부금 등 금전적 지원 활동을 금지
 - 그러나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과 물품공여 등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구자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익 상반에 충분히 유념한 상태에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또 임상연구와 관련해 노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데이터 해석 등 연구 결과와 연구 중립성에 의심이 갈만한 행위는 삼가도록 규정
 - 이번 조치는 스위스 노바티스의 일본법인이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임상연구에 관여해 조작된 연구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제약업체와 연구기관의 불투명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으로 판단

[日本經濟新聞, 2014.04.23]



후생성·문과성, 임상연구 제 3자 감사 의무화

-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제약업체가 임상연구를 실시할 때 연구 책임자가 제 3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윤리지침안을 제정
 - 윤리지침안은 또 임상연구에 의혹이 불거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후생성과 문과성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약업체로 하여금 최소 5년 이상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규정
 - 후생성과 문부성은 지침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제재를 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
 - * 현행 일본 약사법은 의약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 책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이번 지침안은 스위스 노바티스의 일본법인이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임상연구 데이터가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과 협심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내보내 파문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

[藥事日報, 2014.05.09]



후생성, 메르스 지정감염증 고시

- 일본 후생노동성이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으로 고시
 - 이번 고시에 따라 후생성은 일본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인될 경우 환자를 강제 입원 시키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가능
 -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의하면 메르스는 2년 전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난 5월26일까지 전세계 18개국에서 635명이 감염되어 이 중 19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올해 4월 이후 감염이 급증
 - 후생성은 또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감염증법 개정안을 제출, 메르스를 위험도가 2번째로 높은 ‘2종 감염증’에 포함시킬 계획
 - * 현재 2종 감염증에는 소아마비, 결핵, 디프테리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H5N1형 조류독감이 포함
 - 한편 후생성은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H7N9형 조류독감도 지정감염증에서 2종 감염증으로 전환할 방침

[読売新聞, 2014.05.28]



후생성, 노바티스 약사법 위반 조사 착수

- 일본 후생노동성이 스위스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약물 부작용 정보 1만여 건을 후생성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 이들 정보 중에는 지난 '02년의 부작용 정보도 포함돼 있어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오랜 기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특히 노바티스 일본법인 직원이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취합한 데이터와 의사들이 강연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진 부작용 정보가 보고에서 누락
 - 이런 가운데 노바티스 일본법인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Tasigna)를 사용한 도쿄대 병원 등의 임상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정보 2건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4월 초 발각

- 일본 약사법은 사망 혹은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은 15일 이내, 기타 심각한 부작용은 30일 이내에 제약회사가 후생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약품 판매금지 등 제재를 부과

[NewSphere, 2014.06.13]



후생성, 신약 심사기간 단축 시스템 도입

-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른 주요 경쟁국보다 국내에서 먼저 개발된 신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승인기간을 단축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암 등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약업체들이 적은 치료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이를 통해 임상시험 실시 때 요구되는 심사기관 상담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인 1개월로 줄이고, 1년 정도 실시하는 신약 승인심사도 더욱 신속히 진행하는 등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보다 7개월 정도 단축할 방침
- 후생성은 심사기간 단축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원할 계획
- 한편 최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에도 세계적으로 앞선 의약품의 실용화 추진이 포함

[Ameblo, 2014.07.03]



일본 NEDO, iPS 세포로 신약 부작용 평가시스템 구축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등 공동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로 신약이 심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이 시스템은 iPS 세포에서 분화된 심근세포가 든 배양액에 신약을 섞고 심근세포가 움직이는 간격을 측정해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기존

동물실험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시스템이 일본에서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팀은 내년에 국제 의약품 규제기관에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계획
- 개발에 참여한 임상검사업체 LSI메디언스는 평가를 위한 수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2~3년 후 1억엔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1개 의약품당 시험기간은 약 1개월이며, 비용은 최소 100만엔 정도로 예상
- 연구팀은 그동안 iPS 세포 활용이 재생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

[Hibikenkou, 2014.07.11]



일본 농수산성, 생약제제 국산화 방안 추진

- 일본 농림수산성이 현재 중국에서 8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생약제제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 오는 '16년 국내 생약제제 생산량을 '10년 대비 1.5배인 1천400톤으로 증대시키는 국산화 방안을 추진
 - 농수산성은 이를 위해 생약제제의 제조이력과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을 확대 개편할 계획
 - 또 올해 4억엔의 예산을 농업기계 개량과 재배면적 효율적 활용 등 생약제제 생산의 저비용화를 추구하는 농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
 - 그러나 일본산 생약의 가격은 중국산의 2~3배 수준이고, 품종에 따라 재배에 적합한 기후나 토양의 차이도 있어 중국산 생약제제 수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한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생약제제의 '12년 일본내 생산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천519억엔

[日本農業新聞, 2014.07.30]



후생성, 노바티스에 부작용 보고 위반 행정처분

-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에 중증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후생성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스위스 노바티스 일본법인에 대해 향후 1개월 내 보고 체제를 정비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
 - 일본에서 부작용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약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바티스측은 행정처분에 적극 따르겠다고 발표
 - 노바티스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직원이 관여한 임상연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테시그나’에 위암과 B형간염 등 중증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21건 확보했으면서도 보고를 기피
 - * 일본 약사법은 제약업체가 중증 부작용 정보를 입수한 경우 내용에 따라 15~30일 안에 후생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한편 노바티스 일본법인은 디오반 과대광고로도 기소되어 있는데, 후생성은 이 건에 대해서도 또 다른 행정처분을 검토 중

[QLife Pro, 2014.08.04]



일본,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수정 논란

-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불임치료 기관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諏訪マタニティークリニック)’에서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으로 118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
 - 클리닉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남편에게 정자가 없는 아내 110명에게 자신의 난자와 시아버지의 정자를 체외수정으로 결합하는 시술이 시행
 - 이 가운데 실제로 출산한 산모는 79명이고 이 중 2회 이상 출산한 산모는 17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118명
 - 클리닉측은 남편의 형제와 친척 등 시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들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
 - *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부부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받는 시술을 허용
 -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출산은 기존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조속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

[Stumbleon, 2014.08.08]



일본 정부, 시험단계 에볼라 치료제 기증 의사 표명

- 일본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 시험단계인 에볼라 치료제 ‘아비간(アビガン)’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보건기구(WHO)에 피력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재 후지필름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아비간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지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WHO가 요청할 경우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
 - 또 WHO가 요청을 하기 전이라도 국제 의료진이 긴급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해 오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공급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
 - * 후지필름은 현재 2만여 환자 분량의 아비간을 보유
 - 아비간은 당초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의약품으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 시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
 - 한편 미국 국방부는 아비간이 원숭이 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사용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

[Business Journal, 2014.09.04]



일본, 아시아·아프리카 연구기관과 감염증 치료제 개발 추진

- 일본 정부가 뎅기열과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증과 관련,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0년을 목표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계획
 -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을 담당기관으로 선정, 국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온 아시아·아프리카 연구기관 중 해외 거점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다고 발표
 - 또 해외에서 채취한 병원체의 유전자를 해석하고,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며,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
 -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일단 '15년 예산에 63억엔을 편성할 계획
 -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확정된 △독감 △뎅기열 △노로바이러스 등 설사감염증 △항생물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약제내성균 등 네 집단의 감염증 연구 강화와 새로운 진단법의 실용화를 강조한 ‘건강 및 의료전략’의 일환

[日本の研究, 2014.09.22]



일본, 신약개발 지원 강화 ... 국제 경쟁력 높여 수출 촉진

- 일본 정부가 제약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암과 감염증 등을 치료하는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의료분야 R&D 사령탑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에 신약개발지원 부서를 설치,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소들의 제약업체 출신 연구원 30여명을 배치할 계획
 - 또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등 각 행정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신약개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소 별로 축적된 실험 결과 등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할 방침
 - 이와 함께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체들과의 제휴도 강화할 계획
 -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약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정도 많은 35억엔으로 증액할 예정

[読売新聞, 2014.11.07]



후생성, 임상연구 규제 대상에서 제약업체 제외

- 일본 후생노동성이 임상연구 규제 대상에서 제약업체를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
 - 후생성은 의사가 실시하는 임상연구에 제약업체가 부적절하게 관여해 사회적 파문이 일자, 임상연구에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
 - * 최근 일본에서는 노바티스 일본지사가 고혈압 치료제 효과를 연구하는 임상연구 논문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으나, 임상연구 부정 방지 시스템이 없어 제약업체의 부정을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후생성은 특히 미승인 의약품 등을 이용한 임상연구와, 광고 활용을 목적으로 한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공개 의무화 법안을 제정한 뒤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 그러나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제약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 자체적인 노력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

[日本經濟新聞, 2014.11.06]



후생성, 의료용 검사약 시판 대상 확대

- 일본 후생노동성이 병원에서만 사용되어 온 의료용 검사약을 소비자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질병이나 몸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배란일을 예측하는 ‘황체형성호르몬키트’나 신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요잠혈키트’ 등 등 10여개 품목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검사약은 임신검사약과 요당검사약, 요단백검사약 등 3개 품목
 - 또 검사에 사용하는 검체도 지금까지는 소변과 분변만 허용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약사의 지도와 상담 아래 콧물과 타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 후생성은 이러한 방침과 관련, 먼저 업계단체가 지침안을 마련해 후생성에 제출하면 부회 등에서 심의해 결정한다는 방침
 - 이처럼 일본에서 검사약 시판 대상이 추가되기는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산하 규제개혁회의는 그동안 검사약 시판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Pharmacist Magazine, 2014.11.14]

1.4 중국



대만, H7N9형 AI 백신 6월부터 양산

- 대만 정부가 최근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을 개발해 6월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
 - 대만 행정원 위생복리부는 이를 위해 타이중 소재 백신 제조업체 귀광생물과학기술(國光生物科技公司, Adimmune Corp.)이 H7N9형 AI 백신의 동물시험을 마무리했으며 3월부터 2차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 임상시험은 오는 6월 종료되며 귀광생물과학기술측은 곧바로 양산에 돌입, 월 3백만 개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
 - * 귀광생물과학기술은 지금까지는 사노피, 노바티스, GSK 등 글로벌 제약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주로 H1N1형 백신을 제조
 -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353명의 H7N9형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이 중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감염자는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 발생

[China Post, 2014.02.21]



중국, 자체 개발 H7N9형 AI 백신 5월 출시

-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리란쥘안(Li Lanjuan)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원사가 저장대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이 오는 5월 경 출시된다고 발표
 - 리 원사는 자체 개발 H7N9형 AI 백신이 이미 중국 약품생물제품검정소에 승인이 신청됐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1~2개월 이후인 5월 정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중에 시판될 것이라고 설명
 - 하지만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일반인 모두가 백신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으며, 가금류와

접촉이 잦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만 맞으면 된다고 언급

- 또 리 원사는 H7N9형 AI 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지인 가금류 시장을 폐쇄하고 지정된 곳에서 도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조류를 통제할 수 있어야 신종 AI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Global Times, 2014.03.07]



중국 정부, 저가 기본약 ‘소매가격 제한’ 철폐 추진

- 중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 NHFPC)는 제약업체 스스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가 기본약에 대한 소매가격 제한을 철폐할 계획
- 그러나 가격 제한이 철폐되는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NHFPC는 각 지방 소재 병원들도 약품 공급업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격 관리로 인해 약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면서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
- 중국에서는 300~400개의 저가 기본약이 환자의 80%에 대해 처방되고 있는데 200개 이상의 저가 기본약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족한 약의 절반은 가격이 10 위안 이하로 너무 낮아 제약업체들이 제조·공급을 기피
- * 지난해에는 ‘타파졸(Topazole)’이 부족해 수백만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들이 치료에 지장

[FiercePharma, 2014.04.17]



중국 정부, 저가 의약품 가격 상한제 폐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NDRC)는 낮은 이익으로 인해 필수 의약품 공급이 기피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저가 의약품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
-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는 의미가 있으며, 저가

의약품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을 증대시키는 유인이 될 전망

* 중국에서는 제약업체들이 저가 의약품 생산을 기피함에 따라 환자들이 고가의 대체 의약품을 구매하느라 재정적 부담을 호소

- NDRC는 가격 상한제가 폐지되는 저가 의약품 목록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며, 비합리적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
- 또 NDRC는 저가 의약품 가격 상한제 폐지와 함께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0개 서구 의약품과 280개 중국 특허 의약품의 최고가격 제한도 생산비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용인할 계획

[Pharma Letter, 2014.05.09]



중국 공안, GSK 본부장 등 뇌물제공 혐의 기소

- 중국 공안이 영국 GSK의 마크 라일리(Mark Reilly) 중국사업 본부장 및 간부 2명을 의사와 병원에 뇌물을 주도록 영업사원들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
- 공안은 또 이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 중국에서 GSK의 뇌물 제공과 관련된 수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SK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중국내 판매에 큰 타격
- 이런 가운데 GSK는 판매 담당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정하고 강연이나 의료관련 회의 출석 시 의사에 사례금을 지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마케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이 터져 곤혹스러운 입장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가 중국이 외국 국적 임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한 뒤, 중국이 자국 제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제약업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Wall Street Journal, 2014.05.21]



중국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검사실험실 설립

- 중국 정부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실험실과 환자 격리예방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
 - 왕위(Wang Yu)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hinese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주임은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을 방문, 어니스트 코로마(Ernest Koroma)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계획을 전달
 - 에볼라 검사실험실과 환자 격리예방치료센터는 가까운 시일 내 프리타운 교외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중국친선병원(Sierra Leone-China Friendship Hospital)에 설립될 예정
 - * 중국 정부는 또 양국과의 협의를 통해 생물안전 3급 실험실도 설립한다는 방침
 - 최근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의료 전문가들과 방역 물자를 보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지원
 - 한편 중국 정부는 에볼라 발생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2억 위안(미화 약 3천254만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9.10]



중국 법원, GSK에 4억9천만불 과징금 부과 ... 뇌물 공여 혐의

- 중국 인민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로 제소된 GSK 중국법인에 대해 4억8천9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마크 라일리(Mark Reilly) 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GSK 중국법인이 '04년부터 '10년 사이 중국 의사들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한 뒤 재판에 회부
 -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GSK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중국 환자·의사·병원 관계자·정부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뒤, 조만간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GSK는 영국과 미국 당국이 불법영업 활동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요르단과 이라크 등 중동과 폴란드에서도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

[Voice of America, 2014.09.29]



중국 최고인민법원, 위조약 사범 처벌 대폭 강화

-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위조약 척결을 위해 위조약을 제조·유통시킨 사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
 - 성명에 의하면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위중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위조약을 제조·유통한 자에게는 중형이 부과
 -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위조약이 마취제, 정신성 의약품, 방사성 약품, 피임약, 혈액약, 백신, 주사제, 구급약 등일 경우에는 중형이 부과
 - 이와 함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위조약을 제조·유통할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위조약 제조에 자금 및 기술 지원, 원료 제공, 광고 선전 등에 도움을 준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
 - 중국에서는 올 들어 1~9월에만 3천500여명이 위조약 제조·유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위조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

[China Daily, 2014.11.19]



중국 정부, 약가 제한 정책 철폐 추진

- 중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소매가격 제한 정책 철폐를 추진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올 초 주요 필수 의약품의 가격 제한 정책을 철폐한데 이어 그 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확인
 -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약가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약가의 경우 정부와 제약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
 - 그러나 마취제 등 생산·유통이 엄격히 규제되는 약물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
 - 이번 조치로 국내외 제약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 의약품의 2/3가 병원 네트워크의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이번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약가 제한 정책이 철폐되더라도 약가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안전책은 마련한다는 방침

[China Economic Review, 2014.11.27]

1.5 EU



EU집행위, 복제동물 식용·수입 금지 검토

- EU집행위원회의가 복제동물 고기의 식용 사용과 복제동물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
 - 토니오 보르그(Tonio Borg) EU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그러나 복제동물 새끼로부터 생산된 우유나 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생산 내력 등 표시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
 - 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의회는 물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해 오는 '16년 이전에 시행되기에는 어려울 전망
 - * 현재 EU 회원국 중 복제동물 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덴마크가 유일
 - 한편 EU는 미국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연간 30만~50만t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Scottish Farmer, 2013.12.23]



독일 정부, 의약품가격설정동결 제도 연장

- 독일 정부가 '의약품가격설정동결(drug-pricing freeze : DPF)' 제도를 오는 '1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지난 '10년 8월 제정된 DPF는 의료서비스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로, 당초 '13년말 종료될 예정
 - 정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일 제약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우려해 신약의 국내 시판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그러나 DPF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제약업체들이 세계 3위, 연간 시장규모 240억불에 달하는 독일 의약품 시장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는 견해도 존재
 - 한편 독일 제약업체는 독일이 유럽 최대 시장인 만큼 DPF 제도 연장으로 인해 독일 국내는 물론, 유럽 역내에서도 연쇄적으로 약가가 동결 내지 인하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Fierce Pharma, 2014.03.03]



이탈리아 검찰, 로슈·노바티스 경영진 조사 ... 사기·시장조작 혐의 포착

- 이탈리아 검찰이 스위스 로슈와 노바티스의 사기 및 의약품 시장조작 혐의를 포착, 이들 업체의 경영진 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앞서 이탈리아 규제당국은 로슈와 노바티스에 대해 황반변성 치료제로 가격이 비싼 루센티스(Lucentis)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아바스틴(Avastin)의 유통을 방해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총 1억8천2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 아바스틴은 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루센티스와 마찬가지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일부 의사들은 루센티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아바스틴을 황반변성 치료제로 선호
 - * 루센티스로 치료받으면 약 900유로가 소요되는 반면 아바스틴은 81유로면 충분
- 로슈와 노바티스는 아바스틴 유통 방해 혐의를 부인한 뒤 아바스틴이 특정 암 치료를 위해 제조된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FiercePharma, 2014.03.17]



프랑스 정부, 바이오시밀러 대체 조제 허용 방침

- 프랑스 정부가 저렴한 생물학 제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사가 브랜드 생물학 제제 대신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
- 프랑스 정부는 브랜드 생물학 제제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대체 조제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년까지 정부 의료 관련 예산을 10억 유로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 * 브랜드 생물학 제제의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오는 '18년까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190억불로 지금보다 2배 정도 확대될 전망

-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시장으로, 바이오시밀러 대체 조제가 허용돼 의료 관련 예산 절감 효과가 확인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

[Pharma Times, 2014.04.13]



유럽의회, 임상시험 투명성 강화 법안 채택

- 유럽의회가 역내 의약품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임상시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594-17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
- 법안은 모든 임상시험 자료를 임상시험 종료 이후 1년 이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제약업체가 주장하는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러나 법안은 새로 시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 관련해 진행된 시험에는 비적용
- 유럽에서는 머크의 진통제 바이옥스(Vioxx) 등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약업체에 임상시험 자료를 더 많이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
- * 의뢰진 역시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선별된 증거를 기반으로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 이번에 통과된 임상시험 투명성 강화 법안은 오는 '16년부터 발효

[OutSourcing-Pharma, 2014.04.21]



유럽의약품청, 테스토스테론 약물 안전성 검토 착수

- 유럽의약품청(EMA)이 테스토스테론 약물 판매를 유지, 철회 또는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약물의 안전성 검토 작업에 착수
- 이번 검토 작업은 테스토스테론 약물이 65세 이상 남성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는 젊은 남성 환자의 심장발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용자들 사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

- 유럽에서 테스토스테론 약물은 캡슐·패치·겔 등 다양한 형태로 발매되고 있으며, 여성의 폐경기 증후군 치료를 위해 테스토스테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진들도 다수
- * 현재 EMA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테스토스테론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
-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지난 1월 테스토스테론의 안정성 검토 작업에 착수

[Lawyers and Settlement, 2014.04.16]



이탈리아 정부, 의약품 범죄 조직 대책 마련 착수

- 이탈리아 정부가 각종 의약품을 훔쳐 서유럽 일대 지하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범죄조직을 근절시키는 대책 마련에 착수
- 이탈리아 정부는 암 치료제 등 각종 의약품 도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개입된 사실을 포착
- 이탈리아 언론들은 이들 범죄조직이 나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피아 ‘카모라(Camorra)’와 동유럽 출신 폭력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
- 이들 조직은 병원은 물론 제품을 수송 중인 트럭에서 의약품을 훔쳐 지하 도매상에 은밀하게 넘기고 있으며, 마치 헝가리·루마니아·라트비아의 정식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 송장도 발부
- 한편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EMA)은 이탈리아에서 도난당한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 약병들이 영국·독일·핀란드 등 국가에서 오염된 상태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

[FiercePharma Manufacturing, 2014.05.06]



이탈리아 보건부, 로슈·노바티스에 12억 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이탈리아 보건부가 스위스 로슈와 노바티스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했으며 12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
 - 보건부는 양사가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에 가격이 저렴한 아바스틴(Avastin) 대신 고가의 루센티스(Lucentis)를 처방하도록 로비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포착
 - 아바스틴과 루센티스는 동일 계열의 항암제로 황반변성에 효과는 유사하나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루센티스 주사제 가격은 900 유로인 반면 아바스틴은 81 유로 정도에 불과
 - * 아바스틴은 로슈, 루센티스는 양사가 공동 판매
 - 보건부는 양사의 공모가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에 '12년 4천500만 유로, '13년 5억4천만 유로, 올해 6억1천50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 한편 로슈와 노바티스는 담합 혐의를 강력 부인

[Wall Street Journal, 2014.05.29]



EU, 줄기세포 연구 계속 지원 ... 종교계·시민단체 반발

- 마이르 지오기건-퀸(Marie Geoghegan-Quinn) EU집행위 연구혁신 담당 위원이 EU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발
 - 퀸 위원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따라서 EU는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은 감안하겠지만, 기존 지원 정책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그 동안 시민단체와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1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EU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
 - * EU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EU집행위에 제도 개선 요구가 가능
 - 한편 EU는 지난 '07년부터 '13년까지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총 1억5천67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

[Science Business, 2014.06.05]



유럽투자은행, UCB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7천5백만 유로 지원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IB)이 벨기에 제약업체 UCB의 신약 개발 R&D 프로젝트에 최대 7천5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 대신 EIB는 신경의학 및 면역학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단계의 신약물질들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신약으로의 개발 성과가 성공적으로 나왔을 때 성과금을 지급받는다는 데 합의
- EIB가 제약업체와의 혁신적 제휴관계를 통해 유망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양측간 제휴는 EU집행위원회와 EIB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EU 혁신자 자금지원 프로그램(EU finance for Innovators Program : InnovFin)*'에 의한 것으로, UCB의 신약 개발에 큰 힘이 될 전망

* EU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R&D 및 혁신 프로젝트들에 리스크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수혈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대규모 프로그램

[Science Business, 2014.06.19]



프랑스 하원, 예산법 개정안 승인 ... '아바스틴' 사용 장려

○ 프랑스 하원이 사회보장 예산법 개정안을 찬성 272 대 반대 234로 승인

-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인성 황반변성에 노바티스의 '루센티스(Lucentis)' 대신 가격이 1/30에 불과한 로슈의 '아바스틴(Avastin)'을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예산법 개정안을 제출
- 아바스틴은 노인성 황반변성에 적응증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루센티스와 효과가 유사하며, 프랑스 정부는 노인성 황반변성에 아바스틴을 사용할 경우 연 2억7천300만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이탈리아 정부도 아바스틴을 루센티스 대신 노인성 황반변성에 쓸 경우 급여 혜택을 결정

- 이번 결정에 노바티스는 아바스틴이 안구에 주사되기에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로슈는 아바스틴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환영

[Pharmaceutical Online, 2014.07.10]



EU 집행위, ‘역지급 합의’ 업체들에 4억2천700만 유로 벌금

- EU 집행위원회가 제네릭약 출시를 지연해 높은 약값을 받아온 세르비에(Servier), 테바(Teva), 니치(Niche), 유니캠(Unichem), 크르카(Krka), 루핀(Lupin)의 6개 제약업체들에게 총 4억2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집행위는 이들 업체가 제네릭약이 출시되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제네릭 업체에 뒷돈을 주고 제네릭약 출시를 막아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명백한 ‘역지급 합의’(pay for delay)’ 경우로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적
- 집행위는 세르비에의 경우 지난 ’05~’07년 혈압 강하제인 페린도프릴(Perindopril)의 제네릭약 업체들과 뒷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 3억3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페린도프릴의 연 매출은 10억불을 상회)
- * 또 테바에는 1천600만 유로 등 나머지 업체들에게 총 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한편 세르비에 등 업체들은 집행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

[New York Times, 2014.07.10]



유럽제약산업연맹, 프랑스 ‘오프-라벨’ 확대 정책 반대

- * 사용 확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
- * 규제기관이 허가한 용도 이외의 적응증에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 EFPIA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경제적 이유만을 내세워 해당 적응증을 승인받지 못한 제품들의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또 안전성과 효능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의 오프-라벨 사용을 확대할 경우 제약업체들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약 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
- EFPIA는 오프-라벨 확대 적용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유지하려는 기존 법제도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안전성보다 금전적 고려요인들이 우선되지 않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

[Pharmaceutical Journal, 2014.07.18]



유럽의약품청, ‘인터페론베타’ 부작용 경고문구 강화

- 유럽의약품청(EMA)이 다발성경화증 치료물질 ‘인터페론베타(Interferon beta)’를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부작용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
 - 경고 문구 변경이 적용되는 제품은 바이오젠의 아보넥스(Avonex)와 플레그리디(Plegridy), 머크의 레비프(Rebif), 바이엘의 베타페론(Betaferon), 노바티스의 엑스타비아(Extavia) 등
 - 이번 조치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페론베타 치료 후 수주가 지나자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발생 했다는 보고가 나온 뒤 따른 결정
 - * 미세혈관이 혈소판 혈전으로 막히는 치명적 희귀질환으로, 고혈압, 열, 방향감 장애, 신장기능 손상, 혈중 응고세포 감소 등을 유발
 - EMA는 또 의료진들에 대해 TMA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인터페론베타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처치를 시행하도록 권고

[Medscape, 2014.09.12]



유럽의약품청,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 의무화

-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핵심 비밀이 아닌 일반 임상시험 데이터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EM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 관련 연구자들은 컴퓨터에서 일정한 등록 과정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 데이터를 열람과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으며, 학술 및 비상업적 용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
 - * EMA는 지난 '10년에도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를 시도한 바 있으나, 애브비와 인터문 등 일부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사실상 철회
 -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는 회원업체들과 연구자들이 임상시험 정보를 공유해 제약산업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 그러나 과학연구 민간단체인 센스어바웃사이언스(SAS)는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EMA는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

[Pharmaceutical Journal, 2014.10.09]



EMA,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적극 활용 권고

- 유럽의약품청(EMA)이 새로운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생명공학업체들에게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EMA는 인구 1만명당 5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을 예방 혹은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인 약물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EMA가 학술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허가취득 시 10년의 독점발매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
- 또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개발업체와 EMA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수시로 상호협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속한 제품 개발이 가능
- EMA는 orphandrugs@ema.europa.eu에 이메일을 보내면 희귀의약품 지정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구
- 한편 EMA는 희귀의약품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

[EMA, 2014.11.19]



독일 정부, 인도 램박시 의약품 수입금지

- 독일 정부가 인도 제네릭업체 램박시가 인도 현지 데와스(Dewas)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항생제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수입을 금지
-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데와스 공장을 조사한 결과 세팔로스포린 제조 관행이 독일 보건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위배되고 있음을 확인

-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테와스 공장 등 램박시의 인도 현지 공장들에 대해 FDA 제조 기준 위반을 이유로 의약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도 있어 인도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글로벌 제약업계에 확산
 - * FDA는 이 같은 품질관리 문제로 인해 램박시가 요청한 새로운 의약품 승인 절차도 연기
- 램박시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고 독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 못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뚜렷한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지금까지는 표면적 검사와 재발 방지 발표에만 그치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

[Economic Times, 2014.12.04]



이탈리아, 노바티스 ‘플루아드’ 투여금지 해제

- 이탈리아 의약품안전청(Agenzia Italiana del Farmaco)이 스위스 노바티스의 독감백신 ‘플루아드(FLUAD)’ 투여금지 조치를 해제
 - 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플루아드를 접종한, 이탈리아 남부에 거주하는 87세와 79세의 여성과 68세의 남성이 사망하고 92세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자 서둘러 플루아드 전면 투여금지를 결정
 - * 이 제품은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 시에나에 위치한 노바티스 공장에서 생산
 -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플루아드는 엄격한 품질 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보관되어 왔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적 연관성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 이후 의약품안전청은 백신접종과 환자 사망 사이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가운데, 플루아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금지 조치를 해제

[BioPharma, 2014.12.05]

1.6 아시아



인도, 제약업체 외국인직접투자 출자 상한 100% 유지

- 인도 정부가 현행 100%인 자국 제약업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출자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 이는 외국기업의 제약업체 인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FDI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지난해 4~10월 인도 의약품 산업에서 이루어진 FDI는 전년 동기대비 86.5% 증가한 10억8천만불
 - * 또 '12년 4월~'13년 3월까지 1년 동안 의약품 산업으로 유입된 FDI에는 금액 기준 무려 96%가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와 경영권 취득을 목적
 -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제약업체에 대한 FDI 출자 상한을 낮추라는 등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고조
 -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영국 글로벌 데이터에 의하면 '13년 인도 의약품 시장규모는 210억불로 추정되며, 향후 건강보험 실시와 의료시설 보급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년에는 560억불 정도로 증가할 전망

[PharmaBiz, 2014.01.24]



인도, 총체적 의약품 품질관리 대책 시급

- 인도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총체적 의약품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칸톤 러보러토리스(Canton Laboratories)와 USV랩은 공장의 위생 상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활성 성분의 미생물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경고
 - 또 랜박시(Lanbaxy)와 워크하르트(Wockhardt) 공장 및 캐나다 아포텍스(Apotex)의 인도 공장도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위생관리가 부적합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의 약물 수

출이 금지

- 뿐만 아니라 랜박시와 선파마(Sun Pharma)는 각각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항당뇨병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제품 리콜을 실시
- 이렇듯 인도 제약업체들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FDA는 지난 2월 마가렛 햄버그(Margaret Hamburg) 국장을 인도에 파견해 정부 및 현지 업체 고위 인사들과 품질관리 개선 협의를 진행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

[Economic Times, 2014.04.03]



인도 정부, 의약품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인도 정부가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인도 보건관리 말을 인용,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위원회가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필수 의약품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이러한 검토는 하루 미화 2불 이하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난한 국민들(전체 인구의 70%)이 의약품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
- 그러나 150억불 규모의 인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이자, 애보트, GSK 등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 * 이들 제약업체는 이미 신흥국가에서 정부의 가격인하조치와 특허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법체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 의약품을 74종에서 전체 의약품의 30% 수준인 348종으로 확대

[Hindustan Times, 2014.06.24]



인도 정부, ‘요가 아유르베다 전통의약부’ 신설

- 인도 정부가 보건부 산하 요가·아유르베다국을 떼어내 ‘요가 아유르베다 전통의약부 (Ministry of yoga, ayurveda and other traditional medicines)’로 격상하고 슈리파드 나익 (Shripad Naik)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신임장관으로 임명
 -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가 1천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에서 인도의 입지를 더욱 넓혀 보다 많은 내외국인들이 인도 전통의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단행
 - 신설 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요가를 중심으로 아유르베다 등 인도 전통의약 육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 * 요가와 전통의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요가의 날’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요가와 인도 전통의약을 홍보
 - 한편 나익 장관은 이르면 '15년 상반기 내에 요가를 각급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

[Economic Times, 2014.11.22]

1.7 글로벌



영국 주도 ‘국제 iPS 세포은행’ 설립 추진

- 이안 윌머트(Ian Wilmut) 영국 에든버러대 재생의료센터 명예교수가 영국 주도로 ‘국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
 - 이 은행은 글로벌 각국이 환자에게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적은 형태의 인체 백혈구 항원 (HLA형) 제공자로부터 제작·비축한 iPS 세포를 일괄 관리하며, 국가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 윌머트 교수는 iPS 세포은행 설립을 위해 '13년 10월 영국에서 영국·미국·프랑스·호주·일본 등 각국 규제 당국자와 연구자 약 30명이 첫 모임을 가진 데 이어 향후에도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 * 일본의 창구는 독립행정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
 - 윌머트 교수는 거부 반응이 적은 iPS 세포를 4백인분 정도만 취합해도 각국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iPS 세포은행 설립이 글로벌 재생 의료 혁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日本經濟新聞, 2014.01.17]



미·EU, 의약품 부작용 감시 협력체제 강화

- 미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집중적·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새로운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
 - 양측은 이 클러스터 체제 아래 매월 화상회의를 개최해 의약품 부작용 감시와 관련한 일련의 공통 이슈들을 놓고 소통과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캐나다와 일본의 관계기관들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
 - FDA와 EMA는 이번 협력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새로운 클러스터 체제 구축으로 인해 의약품 안전성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양측은 현재도 바이오시밀러·항암제·희귀의약품·혈액제제 등과 관련, 유사한 성격의 클러스터 체제를 가동

[Pharmaceutical & Medical Packaging News, 2014.03.05]



글로벌 제약업체, 신약후보물질 ‘가상 도서관’ 구축 합의

- AZ, 일라이릴리, GSK, 얀센 R&D, 화이자, 다케다, UCB의 7개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영국 의료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 MRC)와 신약후보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한 ‘가상 도서관’을 구축하기로 합의
- 이번 프로젝트는 신약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후 연구가 보류된 후보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전문가들은 비록 신약후보물질들이 충분한 수준의 약효를 입증하지는 못했어도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괄목할 만한 효과를 발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
- 가상 도서관은 올 연말쯤 오픈될 예정
- 한편 AZ와 MRC는 이번 가상 도서관과 유사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성공한 경험을 공유

[Pharmaceutical Online, 2014.07.24]



국제사회, 길리어드에 ‘소발디’ 약가 인하 압박

-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가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에 대해 최신 C형 간염(HCV) 치료제 ‘소발디(Sovaldi)’ 가격을 인하하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 소발디는 기존 HCV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뛰어난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가격은 12주 치료 과정에 하루에 1천불씩 총 8만4천불로, 환자는 물론 각

보건당국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수준

- 국제사회는 이런 높은 가격이 지속된다면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없고 각국 의료보장 시스템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 이와 관련, 미국 상원은 길리어드에 소발디 가격 책정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청했으며 EU는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결정
- 한편 길리어드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소발디로만 35억불의 매출을 기록

[New York Times, 2014.08.03]



WHO, 에볼라 백신 내년 상반기 양산 추진

○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를 예방하는 백신을 '15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할 계획

- 대량 생산 백신 후보로는 영국 GSK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과, 캐나다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이 개발하고 미국 뉴링크제네틱스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거론
- 이들 후보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는 11~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
- WHO는 GSK와 뉴링크제네틱스 모두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목표 생산량은 '15년 상반기 중에 유효한 만큼이라고 설명
 - * 이들 백신은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 한편 WHO는 실제로 감염지에서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기온의 영향을 받아 약효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강조

[Fierce Vaccines, 2014.10.02]



WHO, 마약 길항제 ‘날록손’ 접근 완화 정책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남용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마약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회원국 정부에 권고
 - 이는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전세계에서 매년 1천500만명이 중독되고 6만9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으로,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병원 의료진과 구급차 요원들에 한해 날록손 사용을 허용
 - 그러나 지난 40년간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는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저렴하고 안전한 약품인 날록손을 일반인들도 사용하면 오피오이드 과용에 따른 중독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WHO의 판단
 - 한편 WHO는 현재 전세계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자들 중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추산

[WHO, 2014.11.30]



인터폴, 불법 의약품 단속 국제공조 강화 촉구

-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이 불법 의약품과 관련된 각국의 단속 법령과 국경 통제가 허술해 국제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불법 의약품 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
 - 인터폴은 불법 의약품이 각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이와 연관된 범죄도 급증,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글로벌 보건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 인터폴은 지난 5월 전 세계 111개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법 의약품 단속에 나서 3천 200만불 상당의 불법 의약품 960만정을 압수하고, 이를 제조·유통시킨 사범 434명을 체포했으며, 관련 웹사이트 1만2천여개를 폐쇄
 - 인터폴은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불법 의약품이 3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 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각국이 관련 법체제를 정비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Interpol, 2014.12.10]



브릭스, 결핵·AIDS 퇴치 공동 대처 ... '90/90/90 구상' 합의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결핵 및 AIDS 퇴치를 위한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합의
 - 결핵과 AIDS 퇴치는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보건장관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논의된 가운데, 특히 드미트리 코스테니코프(Dmitry Kostennikov) 러시아 보건부 차관은 참가국들이 결핵 퇴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
 - 그는 회원국 국민 90%에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하고, 결핵 환자의 90%에 의료 지원을 의무화해 결핵 완치율을 90%까지 높이자는 '90/90/90 구상'을 제안한 뒤 러시아는 이미 결핵 환자 모두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
 - 이에 대해 참가국 대표들은 오는 '20년까지 90/90/90 구상을 달성하고, '30년까지는 AIDS까지도 퇴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13년 현재 전 세계 결핵 환자의 55%, AIDS 환자의 38% 정도가 브릭스 국가에 거주

[UNAIDS, 2014.12.10]

1.8 중남미



브라질 정부, 유전자 조작 모기로 Dengue 퇴치

- 브라질 정부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모기로 Dengue 발병을 막는 방안을 추진
 - 브라질 정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치사 유전자가 있는 수컷 모기를 대량 방출해 Dengue 전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모기 퇴치에 적극 나설 방침
 - 유전자 조작 모기는 영국 바이오기업 옥시텍(Oxitec)이 제작한 것으로, 옥시텍은 올 초 브라질 생명보안위원회로부터 유전자 조작 모기 예비 승인을 취득한 데 이어 현재는 보건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 옥시텍이 브라질 동부 중소도시 만다카루(Mandacaru)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유전자 조작 모기 방출로 인해 이 지역 모기의 96% 가량이 박멸된 것으로 집계
 - * Dengue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미개발
 - 브라질 정부가 유전자 조작 모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는 '16년으로 예정된 리우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전 포석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Dengue 환자 발병 세계 1위 국가

[Brazil Business Today, 2014.07.02]



볼리비아 대통령, 재집권 시 '코카인 합법화' 공약

-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인의 재배와 유통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
 - 볼리비아는 페루 및 콜롬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코카인 생산국
 -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카인 재배와 유통 합법화 정책이 코카인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 뒤, 국제사회는 안데스 지역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코카인 씹는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 * 안데스 지역에서 코카인은 3천 년 전부터 재배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데스 주민들은 코카인을 신성한 풀로 간주해 종교의식에 사용하거나 차·술·식용 분말·치실 등 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위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코카인을 씹는 경우도 다반사
 - 그러나 볼리비아 정부가 코카인 합법화를 추진할 경우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이어 마약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

[AP, 2014.07.22]

1.9 캐나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앨버타주에 신종플루 백신 지원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가 신종플루(H1N1) 환자가 집중 발생한 앨버타주에 1만회분의 백신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앨버타주에는 올 겨울 들어 H1N1 환자가 급증, 주정부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에 나섰으나 백신 물량이 충분치 않아 노바스코샤주에 지원을 요청
 - * 앨버타주에는 1천5백여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4백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당초 엘리슨 레드포드(Alison Redford) 앨버타주 총리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주정부는 1백만여 주민에 접종을 완료했으나, 접종 시설에 주민들이 연일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 진 상황
 - 한편 신종플루는 인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도 번져 2명의 환자가 사망, 캐나다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

[CTV, 2014.01.09]



캐나다 정부, 시험단계 에볼라 백신 WHO에 기증

- 캐나다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긴급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험단계에 있는 백신 최대 1천명 분량을 세계보건기구(WHO)에 기증하기로 결정
 - 연방정부 관계자는 국립미생물학연구소(National Microbiology Laboratory : NML)가 개발한 에볼라 백신이 현재 1천500명 분량 정도 있으며 정부는 이 중 800명에서 1천명 정도 분량을 WHO에 기증할 것이라고 발표
 - * 캐나다 정부는 향후 연구 진행을 위해 일정한 분량의 에볼라 백신은 보유할 계획

- 이와 관련, 캐나다 연방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 PHAC)의 그레고리 테일러(Gregory Taylor) 부청장은 이 에볼라 백신이 양산되려면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뒤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먼저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이번 조치는 WHO가 상황이 워낙 긴박해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시험단계의 에볼라 백신도 사용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단행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4.08.14]

2. 의료기기 / 정보화

2.1 미국	287
2.2 영국	290
2.3 일본	291
2.4 중국	294
2.5 러시아	295
2.6 중남미	296

2.1 미국



NIH, 웹 기반 ‘뉴로바이오뱅크’ 프로젝트 개시

- 미 국립보건원(NIH)이 자원자의 사후 뇌조직을 공유·연구하는 웹기반 은행인 ‘뉴로바이오뱅크(NeuroBioBank)’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개시
 - 프로젝트는 미국내 5개 뇌연구기관*이 협력해 인터넷 상에서 신경과학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유사 프로젝트가 시행
 - * 마운트시나이대, 하버드대, 마이애미대, 피츠버그대, 세폴베다연구조합
 - 뉴로바이오뱅크는 뇌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자원자가 사망하면 기증받은 뇌의 조직을 저장한 뒤 뇌조직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제공
 - NIH는 이번 프로젝트로 연구자들이 미 전역에 산재된 저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뇌조직을 구하는 불편없이 한 번에 필요한 검체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신경질환 연구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Digital Journal, 2013.12.21]



FDA, 복강경 조직분쇄기 사용 제한 검토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조직분쇄기를 삽입해 자궁근종 등을 제거하는 ‘복강경 자궁 절제술’ 자체를 권고하면서 조직분쇄기 사용 제한을 검토
 - FDA는 분석 결과 복강경 자궁 절제술을 받은 미국 여성 350명 가운데 1명 꼴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자궁육종암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복강경 자궁 절제술 환자 1만명 중 1명 정도에 암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온 가운데, 복강경 자궁 절제술은 질을 통해 자궁 또는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질식 자궁 절제술이나 개복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아 널리 시행
 - 그러나 FDA는 복강경 자궁 절제술이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현저히 낮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복강경 자궁 절제술 시행 시 조직분쇄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

[American Cancer Society, 2014.04.22]



미국 의료계, 중국 해커집단에 개인정보 대량 유출 파문

- 미국 의료계가 'APT 18'로 알려진 중국 해커집단으로부터 450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
 - APT 18은 테네시주 소재 병원체인인 커뮤니티헬스시스템스(CHS)의 전산시스템에 접속, 200여 병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보관해 온 450만 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 미국의 정보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는 이번 해킹이 중국 정부와 직접 연관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중국 정부 개입 여부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 한편 지난 5월에는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군 관계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수배하는 등 최근 미중 양국 사이에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

[IT Security News, 2014.09.12]



캘리포니아, 의료장비 폐기물 처리 고심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되고 있는 의료장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
 - 이는 의료장비 폐기물에 환자의 체액 등 에볼라 바이러스 물질이 묻어 있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에볼라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료장비 폐기물의 경우 고온이나 고압을 가해 멸균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권고
 -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폐기물 소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의료장비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다른 주로 보낸 뒤 그 곳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하지만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은 미국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문가들 사이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폐기물 소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MedCity News, 2014.10.23]



국토안보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결함 조사 착수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메이저 업체들이 제작한 주요 의료기기 20여 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상 결함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 DHS는 산하 산업제어시스템-사이버긴급대응팀(ICS-CERT) 주도로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 제조업체,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주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상 취약성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
 -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및 제품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호스피라(Hospira)의 약물주입펌프와 세인트주드메디컬(St. Jude Medical)과 메드트로닉(Medtronic)의 인공심장과 함께 의료영상 장비와 병원 네트워크 장비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보도
 - 이번 조사는 해커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의료기기의 보안상 결함을 이용해 기능을 망가트리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으로 파악

[American Nursing Informatics Association, 2014.11.03]



FDA, ‘복강경 동력 세절기’ 사용 부분적 금지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암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부인과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동력 세절기(aparoscopic power morcellator)’ 사용을 부분적으로 금지
 - 복강경 동력 세절기는 자궁 및 자궁 섬유종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제거하는 기구로, 세절 과정에서 조직 파편이 튀거나 복강 내 잔류할 수 있어 암세포를 주변으로 전이시킬 위험성이 존재
 - 그러나 근종 제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암 발병 위험성이 낮고 출산 능력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는 동력 세절기 사용이 유용하다는 견해도 제기
 - 이에 따라 FDA는 세절기에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부착해 의사와 환자에 위험성을 경고한 뒤, 작은 개복 절개나 질을 통해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폐경기 전후 여성에 대해 이들 사용을 금지
 - 미국에서는 자궁 섬유종 수술 환자 350명 중 1명꼴로 자궁 종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FDA는 지난 4월 복강경 동력 세절기의 사용 자제를 권고

[Lawyers and Settlement, 2014.11.28]

2.2 영국



영 정부, 진료기록 전산화·공개 검토 ... 개인정보 침해 논란

- 영 정부가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해 국민 진료기록을 전산화한 뒤 공개해 의학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
 - 특히 시민단체들은 제약회사나 보험사가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 전산화·공개 계획에 반대
 - 국민건강보험(NHS) 역시 내부 문건을 통해 국민 진료기록을 의학 연구자와 제약회사에 개방하는 정부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
 - * 문건은 EU집행위가 '15년에 개인정보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영국 정부의 국민 진료기록 전산화·공개 프로젝트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반면 정부와 관련 업체는 진료 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면 신약개발과 난치병 치료 등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
 - * 이들은 진료정보가 전산화·공개되더라도 개인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희망하지 않는 국민의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Telegraph, 2014.01.20]

2.3 일본



일본판 NIH 종합전략 원안 공개 ... 혁신 의료기기 5종 실용화

- 일 후생성 산하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가 일본판 국립보건원(NIH)의 종합전략 원안을 공개 - 공개안에 의하면 일본판 NIH는 오는 '20년까지 △혁신적 의료기기 5종 이상 실용화 △치매와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의 임상시험 실시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이용한 약물의 임상연구를 실시
 - 또 '20년부터 '30년까지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항암제의 부작용을 예측하고, '30년경에는 독감 만능백신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설정
 - 후생성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취합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신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일본판 NIH는 의료 분야 R&D 사령탑으로 미 국립보건원(NIH)을 벤치마킹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자금을 배분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오는 '15년 설립될 예정

[日刊工業新聞, 2013.12.18]



일 특허청, 재생의료 제품 특허 보호기간 5년 연장

- 일 특허청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한 인공 피부와 장기 등 재생의료 제품 특허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최대 5년 연장하기로 결정
 - 이번 연장은 재생의료 R&D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의료 연구는 일본이 전세계에서 선두권으로 평가되나 실용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특허를 취득해도 판매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투자 회수에 어려움이 존재
 - * 지금까지 특허청은 정부 허가가 요구되는 의약품과 농약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허용
 -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재생의료 기업이 R&D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통해 R&D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재생의료 제품의 경우 시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일반 승인과는 별도의 조건과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知財情報局, 2014.02.27]



후생성, 의약품·의료기기 윤리지침안 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이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 해 제정한 새로운 윤리지침안을 전문가회의에 제시
 - 후생성과 문부성은 도쿄부립의대 연구팀이 스위스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이 다른 약물보다 질병 예방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임상연구 데이터를 조작해 파문이 확산되자 부정 재발 방지책으로 윤리지침안을 제정
 - 새 지침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연구하는 책임자로 하여금 데이터와 진료기록 카드에 오류가 존재하는 지, 계획대로 연구가 시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제3자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 *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데이터는 5년 이상 보존하고, 연구에 앞서 특정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연구 책임자가 밝히도록 규정
 - 지금까지 약사법에 근거를 둔 임상연구에도 데이터 보존과 감사 등 일부 규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재량에 의존

[藥事日報, 2014.03.28]



일본 참의원, 의료연구개발기구법 통과 ... NIH 출범 가시화

- 일본 참의원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본판 국립보건원(NIH)을 실제 가동하는 독립행정법인이 '15년 4월 정식 설립
 - 일본판 NIH는 미국 NIH를 벤치마킹한 기관으로, 일본 의료 R&D의 사령탑
 - 특히 관련 부처에 배분해 온 의료 R&D 예산을 통합해 우선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앞선 재생의료 등 부문에서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화를 가속화해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 *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연구 관리 업무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등에 분산돼 비효율적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실용화 측면에서 뒤떨어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 또 암이나 치매의 예방과 치료 등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의료 관련 논문 부정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전망

[Nikkei Business, 2014.06.02]



일본 정부, 감염증 정보수집 강화 개정안 확정

- 일본 정부가 감염증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증법 개정안을 확정
 -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가 감염증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감염증 환자의 혈액 등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 또 도도부현이 의료기관에 대해 검체의 채취 및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
 - *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체 검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도도부현에는 법적 권한이 없어 환자가 거부하면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검체 채취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
 - 개정안은 검체 채취에 관한 도도부현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했는데, 치사율이 높은 1종 감염증(에볼라, 흑사병 등)과 2종 감염증(결핵, 메르스, H7N9 형 조류독감 등) 환자에는 검체 채취를 ‘조치’로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日本經濟新聞, 2014.10.14]

2.4 중국



중국 정부, 의료기기 관리감독 강화

-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국무원령인 ‘의료기기 관리감독 조례’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
 - 조례는 의료기기 업체로 하여금 생산 제품을 정부에 등록하고, 의료기기 생산과 기업 경영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
 - * 의료기기는 직간접적으로 인체를 측정하는 기계·설비·기구·교정물 등이며, 이들 기기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
 - 또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고위험성 의료기기의 경우 정부가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
 - 이와 함께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생산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함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는 5년간 생산허가 신청이 금지
 - 조례에는 사고 처리와 불량품 리콜 규정도 포함

[FDA News, 2014.04.21]

2.5 러시아



러시아 산업부, 수입 의료기기 사용 금지 검토

- 러시아 산업부가 국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수입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 러시아 산업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기기 규제법 초안에는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
 - * 관세동맹국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도 수입 부품 비율이 50%를 상회하면 사용 금지
 - 산업부는 이번 금지가 자국 의료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 3만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지적, 사용 금지가 서방의 경제제재 움직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
 - 한편 지난 '11년 러시아의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시장 규모는 약 60억불로, 이 가운데 73%가 수입품이며, 특히 독일과 미국 및 일본산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Lexology, 2014.04.01]

2.6 중남미



베네수엘라, 의료기기 부족 ... ‘가슴성형’ 타격

-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료기기가 부족, ‘가슴성형’ 수술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서방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입품 감소와 외환통제 강화 등 여파로 가슴성형 보형물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가슴성형 수술이 크게 위축
 - 베네수엘라 성형외과 의사들은 과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증한 정품 보형물을 구하기가 용이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중국제 보형물을 대신 사용하고 있으나 품질을 확신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
 - 각종 물자 부족은 베네수엘라에서 흔한 일이나 특히 외모를 중시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에게 가슴성형 보형물 부족은 상당한 타격
 - 국제미용성형학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연간 8만5천건의 가슴성형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브라질·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이들 국가는 모두 인구가 1억명을 상회하나 베네수엘라는 3천만명에도 미달

[Bernama, 2014.09.29]

3. 확장품

3.1 미국	299
3.2 영국	304
3.3 일본	305
3.4 중국	306
3.5 EU	308
3.6 아시아	311
3.7 중남미	313

3.1 미국



FDA, 향균 비누·보디워시 규제 강화

- 미 식품의약국(FDA)이 향균 비누와 보디워시에 함유된 성분이 세균 확산을 저해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 FDA는 향균 비누와 보디워시 제조업체들에게 생산 제품이 일반 비누나 물보다 세균 확산을 막는 효과가 크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16년까지 입증하도록 지시한 뒤 그렇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통보
- 향균 비누에는 트리클로산(triclosan)·트리클로카르반(triclocarban) 같은 화학성분이 들어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미 최대 비누 메이커 헨켈의 제품을 비롯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향균 비누와 보디워시의 75%에 함유
- FDA의 이번 조치에 미국세제류생산협회(ACI)와 미국화장품협회(PCPC)는 환영의 뜻을 표명

[CosmeticsDesign-USA, 2014.01.06]



CFI·보디숍, 미 정부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청원

- 국제 동물보호단체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 CFI)과 영국 화장품업체 보디숍(Body Shop)이 1백만명의 서명이 첨부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
- 이들의 청원은 미 의회에서 화장품 관련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안 샤코우스키(Jan Schakowsky, 민주당, 일리노이) 하원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출
- * 보디숍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전 세계 65개국에 진출한 자사의 매장에서 고객 서명을 받으면서 CFI를 적극 지원

- CFI와 보디숍은 청원서에서 미국 정부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EU·인도·이스라엘 및 오는 6월부터 금지하기로 한 중국의 사례를 따라 이들 국가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
- 한편 전 세계에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80% 이상의 국가들이 화장품 위해성 검증을 위한 동물실험을 허용

[CosmeticsDesign-USA, 2014.01.30]



미국 의회,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발의

- 미국 상하 양원이 피부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소비자들의 자외선 차단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 : SIA)’을 발의
 - SIA는 해외에서 허가를 취득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물질들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가 신청되면 신청일 이후 11개월 이내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규정
 - * 일부 자외선 차단제 원료물질들은 해외에서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
 - 또 FDA로 하여금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피부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심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의회에 주기적으로(최초 12개월 이내, 이후 2년 단위) 보고하도록 의무화
 - 전문가들은 SIA가 새롭고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 시장에 도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관료주의 장벽을 허물 것으로 기대

[FDA, 2014.03.17]



미국 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발의

- 미국의 짐 모란(Jim Moran) 연방하원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Humane Cosmetics Act : HCA)’을 발의, 미국이 국제적 동물실험 금지 대열에 동참하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 HCA는 화장품 업체로 하여금 동물실험을 대체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은 저렴한 검증 방법을 사용토록 촉구하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은 관계 당국이 판매를 금지시키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
 - 모란 의원은 동물실험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인간에 미치는 안전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할 수도 없다며 HCA 발의 배경을 설명
 - * 모란 의원은 하원 원내세입세출소위원회, 국방세입세출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견 정치인
 - 현재 전세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은 EU·이스라엘·인도 등이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오는 6월 동물실험 대체실험법을 인정할 예정이어서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

[Huffington Post, 2014.04.08]



미네소타, '17년부터 화장품 성분 ‘트리클로산’ 퇴출

- 미국 미네소타 주의회가 화장품 성분 ‘트리클로산(Triclosan)’ 퇴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마크 데이튼(Mark Dayton)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 미네소타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금지시킨 주로 등장
 - 트리클로산은 화장품을 비롯해 비누, 보디워시, 데오도란트 등 개인위생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항균물질
 -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에서 발매되고 있는 액제형 항균비누 및 보디워시 제품들의 75% 정도에 트리클로산이 사용
 - 그러나 트리클로산은 신체발달과 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세균내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등 그동

안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 법안은 오는 '17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미네소타주의 트리클로산 퇴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

[Washington Post, 2014.06.05]



일리노이, 화장품 함유 물질 ‘마이크로비드’ 퇴출

○ 미국 일리노이 팻 퀸(Pat Quinn) 주지사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함유한 화장품 제품들의 제조 및 발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 박피제 · 클렌저 · 샤워젤 등 3가지 유형 화장품에 스크럽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자에게 특유의 클렌징 효과를 야기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작은 입자

-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오는 '18년 말까지만 합성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 및 발매가 허용하고, '19년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금지
- 퀸 주지사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번 법안이 특히 청정 수자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미국에서 마이크로비드를 퇴출시키기는 일리노이주가 처음
- 한편 일리노이주에 앞서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은 올해부터 일부 제품에서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를 퇴출시키고, 오는 '17년에는 전체 제품으로 퇴출을 확대한다고 발표

[Chicago Business Journal, 2014.06.19]



미국 상원,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통과

○ 미국 상원이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을 통과

- 이에 따라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조만간 혁신적 자외선 차단제 신제품이 개발돼 피부암 급증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혁신법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

- 미국에서는 '02년 이후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취득한 사례가 전무한 가운데, 피부암은 보건당국이 예방을 위한 특단대책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할 정도로 주요 공중보건 현안 중 하나
- * 매년 미국에서 새롭게 진단되는 피부암 발생건수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및 대장암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가운데, 매시간 평균 1명이 흑색종으로 인해 사망
- 이번 혁신법 통과에 대해 소비자단체들과 BASF 등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

[CosmeticsDesign-USA, 2014.09.29]



오바마,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 최종 서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S. 2141)’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마침내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한 개도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
- 법안은 식품의약국(FDA)이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을 심사할 때 예정된 일정과 수순 아래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
-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일부 OTC 자외선 차단제 함유 성분들이 마지막으로 승인된 이후 2002년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8개 성분들에 대한 승인 여부가 12년째 보류되어 왔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
- 이들 성분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미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되어 발매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럽의 자외선 차단제 업체들이 현재 27개 정도의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업체들은 불과 16개만 사용
- 한편 유럽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

[Mondaq, 2014.12.13]

3.2 영국



영국토양협회, EU에 화장품 방부제 퇴출 요구

-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화장품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 MI)과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CI)의 사용 금지를 EU에 요구
 - MI와 MCI는 화장품에서부터 컨디셔너와 샴푸젤 등 다양한 퍼스널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균과 효모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 용도로 사용
 - 그러나 MI와 MCI는 피부자극과 발진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 영국 피부과의사협회(BAD)는 MI와 MCI가 방부제로 사용된 제품으로 습진과 피부염을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 10명당 1명 꼴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
 - 한편 영국토양협회에 앞서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가 지난해 12월 MI와 MCI의 퇴출을 권고한 바 있으며, 아세안화장품연합 또한 올 1월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

[Natural Beauty Show, 2014.07.21]

3.3 일본



일본 정부, 면세 규정 완화 ... 화장품 시장에 수혜

- 일본 정부가 소비세법 제8조 ‘수출물품 판매장제도’에 의한 소비세(8%) 면세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특히 화장품 부문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기존 가전제품·의류·장식품 이외 화장품·의약품·식품·음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 소비세 면세 대상을 확대
 - 또 기존에는 동일 매장에서 1만엔 이상 구입해야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5천엔 이상 50만엔 이내로 조정하는 등 면세 요건도 개정
 - 이번 조치로 특히 화장품 부문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백화점이 면세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향후에는 백화점 이외 H&B 슝 등 유통 관련 업체의 면세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
 - 한편 면세 규정이 완화되면서 관련 기업의 면세 카운터 신설, 매장 품목 구성 변화 등 타 업체와의 차별화 전략도 진행 중으로, 오다큐백화점의 경우 화장품 면세 수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세 카운터를 화장품 매장으로 이전

[CosmeticsDesign-Asia, 2014.10.22]

3.4 중국



중국 재정부, 일반 화장품 30% 소비세 폐지 검토

- 중국 재정부가 일반 화장품에 부과되는 30%의 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 화장품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재정부가 화장품을 ‘고급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 일반 화장품에는 30%의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언
 - * 중국 재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30%의 소비세를 일괄적으로 부과
 - * 이러한 소비세는 중국내 화장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은 원인으로 지적
 - 그러나 고급 화장품과 고급 소비재, 사치품, 환경오염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세 면제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안이 올 하반기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일반 화장품 소비세 폐지 소식에 대해 화장품 소비자와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

[China Daily, 2014.07.01]



대만 정부, 내년 1월부터 콜타르 화장품 사용 금지

- 대만 정부가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콜타르(coal tar)가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 이는 콜타르의 대사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발암물질의 하나로, 콜타르가 함유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식품약품관리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의 대표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60만 대만달러(미화 약 2만불)에서 최대 2천500만 대만달러(83만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

- 그동안 콜타르는 일종의 약용성분으로 인식되면서 건선, 습진, 피부 가려움증, 염증 등을 개선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에 함유되어 사용
- * 특히 대만에서는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약용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가운데 금지 성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적 맹점을 이용해 비듬제거용 샴푸나 일부 화장품 등 제조에도 사용

[CosmeticsDesign-Asia, 2014.12.02]

3.5 EU



EU집행위,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

- EU집행위원회가 향수 원료로 널리 쓰이는 ‘아트라놀’, ‘클로아트라놀’, ‘HICC’ 3개 성분의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이 높으며 사용을 전면 금지
 - 집행위는 산하 자문기구 소비자안전성자문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 SCCS)가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항을 수용, 이번 조치를 시행
 - * SCCS는 이들 성분이 습진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유럽에서만 1천5백만 소비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면 규제를 권고
 - 이번 규제안은 지난 '09년 채택된 화장품 관리규정의 개정안 형식을 취하게 되며 향후 3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에 돌입
 - 아트라놀 등 3개 성분은 1921년 출시된 세기의 향수 ‘샤넬 넘버5(Chanel No. 5)’나 ‘미스 디올(Miss Dior)’ 같은 유명 제품의 핵심 원료란 점에서 이번 규제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

[EU Observer, 2014.02.14]



유럽화장품협회, “화장품 알루미늄 성분, 안전성에 문제없어”

-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가 각종 화장품과 제한제에 함유된 알루미늄 성분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공식 피력
 - 이 같은 입장은 유럽화장품협회 산하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SCCS는 화장품과 제한제에 함유된 알루미늄 성분이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없다고 주장

- 유럽의 현행 화장품 관련법은 새로 시판되는 제품의 경우 광범위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엄격히 규정
- *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발매되는 화장품은 발매에 앞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복수의 안전성 평가기관들로부터 개별 함유성분들과 용도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

[Totalcare Cosmetics, 2014.05.28]



EU, 환경친화적 화장품 원료 개발 프로젝트 착수

- EU가 환경친화적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옵티바이오캣(Optimised esterase biocatalysts for cost-effective industrial production : OPTIBICOCAT)’ 프로젝트에 착수
- 프로젝트는 각종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생체촉매(biocatalyst)들로 대체하는 내용
- 프로젝트는 EU집행위가 700만 유로의 초기자금을 지원한 가운데, 이탈리아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등 8개국의 화장품 업체와 대학 등 16개 기관이 참여
- 글로벌 천연 화장품시장은 지난 '12년 58억 유로 규모를 형성한 데 이어 오는 '18년에는 101억 유로로 2배 정도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들은 환경친화적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동시에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한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옵티바이오캣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는 향후 4년 동안 진행

[Premium Beauty News, 2014.05.27]



EU집행위, 화장품용 방부제 규제 강화 ... 허용 농도 0.14%

- EU 집행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피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장품용 방부제의 최대 허용 농도를 하향조정하는 규제 강화를 단행
 - 집행위는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과 부틸파라벤(Butylparaben)의 최대 허용 농도를 단독적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 모두 0.14%로 하향조정
 - * 지금까지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최대 허용 농도는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0.4%, 다른 에스테르 성분들과 복합되어 사용될 경우 0.8%
 - 집행위는 이와 함께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onone) 복합물의 경우 보디크림 등 잔류성 제품에 사용을 금지
 -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금지 조치는 '15년 4월16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복합물 규제 조치는 그보다 3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적용

[CosmeticsDesign-Europe, 2014.09.30]

3.6 아시아



호주 상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 호주의 리 리아논(Lee Rhiannon) 상원의원(녹색당, 뉴사우스웨일스주)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을 발의
 - 법안은 호주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생산 및 판매 금지와, 해외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가 핵심으로, 기존 ‘산업용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일부를 개정할 내용
 - 리아논 의원은 설치류를 중심으로 매년 전세계에서 50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의 실험에 사용돼 동물학대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험 효과도 별로 없다고 비판
 - 이번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 그동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동물보호단체 비 크루얼티-프리 오스트레일리아(Be Cruelty-Free Australia)는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현재 EU와 인도와 이스라엘 등에서 시행

[ABC, 2014.03.17]



호주 화학물질기구, 화장품 업계에 ‘DMEP’ 사용 자제 권고

- 호주 국가산업용화학물질통지평가기구(NICNAS)가 화장품 업체들에 제품 제조 시 프탈레이트 물질의 일종인 ‘디메톡시에틸 프탈레이트(Dimethoxyethyl phthalate : DMEP)’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DMEP는 전 세계 각국에서 화학물질의 용제나 플라스틱 가소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호주에서는 제조되거나 원료물질로 수입되지는 않지만 DMEP가 함유된 화장품 완제품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상황
 - NICNAS는 DMEP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아직

까지 호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 물질에 노출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권고

- NICNAS는 또 산업 및 공공보건, 안전성, 환경 등에 DMEP가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기업들은 반드시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CosmeticsDesign-Asia, 2014.05.13]



인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남아시아 국가 최초

- 인도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 수입을 전면 금지
 - 인도 정부는 이에 앞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화장품법 제 5차 개정안(Rule 135-B)’을 확정
 - * 인도 정부는 지난 5월 자국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은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사전예고
 -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가 다른 국가들이 뒤따라야 할 선례를 제시했다며 환영하는 등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 최초의 ‘화장품 동물실험 청정국’으로 등장
 - 한편 이미 EU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올 들어 호주·브라질·뉴질랜드·중국 및 미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이 속속 발의 내지 확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일종의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

[Epoch Times, 2014.10.16]

3.7 중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남미 최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브라질 상파울루주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주지사가 주의회가 통과시킨,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를 포함해 일체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 법안은 주정부가 위반 업체에 마리당 미화 약 43만5천불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2배의 과징금과 함께 업체를 폐쇄하도록 규정
 - * 상파울루주는 브라질 경제 중심지로, 화장품 업체 수만 7백개를 상회
 - 화장품 동물실험은 인도와 이스라엘이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중남미 지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곳은 상파울루주가 처음
 - 이번 조치로 브라질의 다른 주 및 호주·뉴질랜드·한국 등 동물실험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도 금지 입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국제 동물보호단체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 CFI)은 상파울루주의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

[Cosmetics Business, 2014.02.04]

4. 의료서비스

4.1 미국	317
4.2 영국	338
4.3 일본	346
4.4 중국	362
4.5 EU	371
4.6 아시아	383
4.7 중동	388
4.8 글로벌	401
4.9 중남미	407
4.10 캐나다	410
4.11 아프리카	411

4.1 미국



미 JNC, 60세 이상 고혈압 기준 완화

-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고혈압합동위원회(JNC)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혈압 기준을 종전 140/90에서 150/90으로,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자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130/80에서 140/90으로 완화
 - JNC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표된 고혈압 관련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한 끝에 이 같이 결정
 - JNC는 노인·당뇨병 환자·신장질환자들은 혈압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 *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2건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의 경우 최고혈압을 140 이하로 낮춘 사람이나 140-160 사이로 낮춘 사람이나 건강개선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JNC는 그러나 60세 이하 연령층의 고혈압 기준은 현행대로 140/90을 유지

[Chicago Tribune, 2013.12.25]



오바마케어, 의료일선 혼란 가중 우려

- 미국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인 오바마케어(Obamacare)가 2백만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로 인해 병원, 보험회사, 약국 등 의료 일선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
 - 전문가들은 대다수 신규 가입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에 가입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
 - * 미국 정부는 신규 가입자들에 보험상품의 혜택 범위와 함께 보장을 받지 못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미국 정부는 '13년 10월부터 전국 36개주를 대상으로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구입해 등록하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에게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고
 - 한편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미국인은 '13년 12월 현재 110만여 명 정도이며, 36개 이외 주의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합치면 2백만명 가량으로 집계

[Huffington Post, 2014.01.02]



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 조항’ 3월말 심리

○ 미 연방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 조항’에 대한 심리를 오는 3월25일 진행하기로 결정

- 이 조항은 고용주나 기업이 직원의 불임 수술 등 피임 관련 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 종교계와 보수 진영의 반발을 초래
- 지난 '13년 11월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피임 보험 의무화 조항이 연방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이런 가운데 최근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연방 대법관도 경로수녀회(Little Sisters)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단체의 요청을 수용, 정부 입장과 달리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 의무화 조항의 시행을 유예

[Time, 2014.01.08]



미 마취과의사학회, 불필요한 5대 처방/시술 공개

○ 미국마취과의사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 ASA)가 빈번하게 시행되지만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은 5대 처방/시술을 공개

- 이번 공개는 미국내과의사협회재단(ABIMF)이 시행 중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일환으로, 근거가 부족한 처방과 시술을 널리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의료비도 절감하는 목적

▼ 불필요한 5대 처방/시술

번호	내 용
1	• 만성 비암성 통증(chronic non-cancer pain)에 대한 1차 치료로 아편계 진통제를 처방하지 말 것
2	• 만성 비암성 통증을 장기치료할 때에도 중독 가능성 등 위험을 환자가 충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편계 진통제를 처방하지 말 것
3	• 특정 적응증이 없는 급성 요통에 대해서는 MRI·CT·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4	• 신경차단 치료나 관절주사에 프로포폴, 미다졸람, 초단기작용 아편유사제를 처방하지 말 것
5	• 비암성 통증에 말초 화학적 신경파괴차단 및 고주파절제 등 불가역적 시술을 하지 말 것

[DailyRx, 2014.01.23]



오바마케어 가입자 3백만명 ... 정부 기대 '미흡'

- 미 보건부는 연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에 올 들어 80만명이 추가 가입, 지난해 말까지의 220만명을 포함해 1월24일 현재 총 3백만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발표
-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10월 오바마케어 가입이 공식 시작된 후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정부 기대에는 미흡
 - * 당초 미 정부는 '13년 12월말까지 330만명을 포함, '14년 3월말까지 총 7백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보건부는 오는 3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3월에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낙관
 - * 미가입시 벌금은 '14년에는 성인 1인당 95불 자녀 1명당 47.5불이며, 액수는 매년 증가해 '16년 이후에는 성인의 경우 1인당 695불

[CNBC, 2014.01.24]



일리노이주, 온라인 풍자매체 활용 오바마케어 가입 유도

-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시한을 한달 여 앞두고 미국의 각 주정부가 특히 젊은층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온라인 풍자매체 '디 오니언(The Onion)'을 통한 독특한 홍보 활동을 전개
- 일리노이주는 3월말까지 디 오니언에 오바마케어 가입의 불가피성을 풍자를 통해 강조하는 배너광고, 동영상, 논평, 기사 등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15만불을 지급하기로 결정
- 제니퍼 켈러(Jennifer Koehler) 일리노이주 오바마케어 담당 국장은 젊은층의 미디어 접근 특성과 설득 메커니즘을 고려, 비전통적 홍보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
- 디 오니언은 기발한 풍자와 유머 및 통렬한 비판으로 뉴스를 제공, 21~34세를 중심으로 한 18~44세 젊은층이 웹사이트 방문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천1백만명

[Chicago Tribune, 2014.02.13]



오바마케어 가입자 500만명 돌파

- 미국 보건부가 3월16일 현재 연방 혹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국민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
 - 특히 3월 들어 80만명(일일 평균 5만명) 정도가 가입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마감 시한인 3월31일까지는 가입자가 5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보건부는 또 마감 시한이 임박할수록 가입이 급증할 것이라며 일일 평균 7만명이 가입하면 백악관의 목표치인 600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
 - * 올 초 백악관은 3월말까지 70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지난달 가입자가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목표치를 600만명으로 하향조정
 - 현재 미국인 중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
 - * 벌금은 올해는 성인 1인당 95불 자녀 1명당 47.5불이지만, 매년 증가해 '16년 이후에는 성인의 경우 1인당 695불로 강화

[Washington Post, 2014.03.17]



AAP, 소아청소년과에서 불필요한 검사 발표

-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AAP)가 소아청소년과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공개 발표

▼ 불필요한 5대 처방/시술소아청소년과에서 불필요한 검사

번호	내용
1	• 조산아 기관지 폐이형성증의 예방과 치료에 고용량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처방 불필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로, 고용량 복용 시 신경발달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
2	• 기왕력 고려 없는 식품 알레르기 선별검사 불필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기왕력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검사를 시행
3	• 통증과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리적 위식도 역류 증상에는 산분비 억제제와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같은 소화관 운동 개선제 사용 불필요
4	• 무증후성 세균뇨의 선별 및 치료를 위한 감시 배양 불필요. 무증후성 세균뇨에 대한 감시배양은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매우 적은데다 검사비가 비싸고 위양성과 위음성 문제도 존재
5	• 유아돌연사증후군(SIDS)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가정용 무호흡모니터 사용 불필요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4.03.28]



미국 정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연장 ... 정치 쟁점으로 비화

- 미국 정부가 지난 3월31일로 마감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4월15일까지 연장해 공화당이 반발하는 등 기간 연장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 정부는 정부 시스템의 미비로 이민 신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보험가입이 순조롭지 않았으며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그러나 이번 연장에 대해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을 필두로 한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반발,
-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국민이 6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기 때문으로 분석
- *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화당간의 신경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Los Angeles Times, 2014.04.06]



오바마케어 가입자 800만 돌파 ... 정부 목표 초과 달성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마침내 800만명을 돌파, 정부 목표인 70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
-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등록 첫날인 지난해 11월1일 연방정부 공식 웹사이트(Health Care.gov)의 접속 차질로 인해 겨우 6명에 그친 데 이어 연말까지도 200만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착오를 거듭
- 그러나 올 들어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1월말 300만, 3월 중순에는 500만을 넘어선 데 이어 마침내 4월15일 마감 때까지는 800만명을 돌파
-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가 당초 마감일인 3월31일을 법적 근거 없이 연장했을 뿐 아니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여전하다고 판단, 오바마케어 철폐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공격 소재로 활용한다는 방침

[The Review, 2014.04.23]



ASCO,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미국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ASCO)가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

▼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요법	• 아세틸-L-카르니틴, 아미포스틴, 아미트립틸린, CaMG, 디에틸디티오키아르밤산염, 글루타치온, 니모디핀, Org2766, 올트랜스테티놀산, 백혈병억제인자(rhuLIF), 비타민E 투여 금지 • 삼환계 항우울제, 가바펜틴, 바크로펜은 주의깊게 선정된 자에 한해 투여 가능
피로검사 및 평가	• 암 진단 직후부터 피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로의 기왕력과 정도를 평가 • 적당한 신체활동과 사회심리적 개입(인지행동치료, 심리교육 등), 심신의 개입(요가와 침술 등)이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주지
불안 및 우울증 치료	• 사회심리적 개입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 만족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치료 방안을 고려하고, 만족도는 높지만 치료 8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법으로 변경

[Cancer Network, 2014.04.30]



AHA, 태아 심질환 치료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 AHA)가 의료진들이 태아 심질환을 치료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

▼ 태아 심질환 치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특정 위험 인자를 보유한 임산부에게는 태아 심초음파를 실시 - 임산부 위험 인자 : 임신 전후의 당뇨병, 비스테로이드항 염증제(NSAID) 복용, 선천성 심질환 기왕력, 페닐케톤뇨증 증상 - 태아 위험 인자 : 심장 이상, 염색체 이상, 비뇨생식기 이상, 부정맥, 항부 투과성 항진, 단일 용모막 성 쌍둥이
2	•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태아에는 심전도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출생 전후 요구되는 치료 계획을 수립
3	• 태아 부정맥이나 심장기능 이상이 진단되면 임산부에 약물 투여 방안을 고려 - 태아 심장 카테터 수술은 안전성이 입증된 뒤 시행
4	• 태아 심장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임산부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내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 사전 대처 방안을 마련

[Contemporary OB/GYN, 2014.05.05]



캘리포니아 상원, 불법체류자에도 건강보험 혜택 부여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보건위원회가 불법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6표, 반대 1표로 통과

-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Medi-Cal)*과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주내 저소득 불법체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 제도로, 불법체류자에는 적용이 제외

- 법안은 불법체류자라도 연소득이 빈곤선의 138%(4인 가족 기준 3만2천불) 미만일 경우 메디칼 혜택을 부여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주정부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이 경우 주정부의 의료비용이 증가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인 공화당 측이 적극 반대했으나 인권보호를 내세운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

[EGP News, 2014.05.08]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메르스’ 대책 마련 비상

- 미국에서 중동 지역을 다녀오지 않고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남성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
- CDC는 미국 내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인디애나주 거주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혈액에서 메르스 항체를 발견
 - * 이 일리노이 남성은 외국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미국 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인 인디애나 남성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한 것으로 확인
- 메르스는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와 증상은 유사하지만 치사율은 4배인 40%에 육박
- 메르스 바이러스는 낙타에서 발견됐으나 인간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가운데 CDC는 감염 경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

[ABC, 2014.05.17]



AGS, 고령자 치료 필수 고려사항 발표

○ 미국노인의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 AGS)가 의료진들이 고령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선정해 발표

▼ 고령자 치료시 필수 고려사항

번호	내용
1	•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확실한 효과 및 소화관에 미치는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 서는 치매 치료를 위한 '콜린에스테라이스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 처방 금지
2	• 기대 평균수명과 검사에 따른 위험과 과잉 진단·치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방암과 대장암 및 전립선암 검진 비권장
3	• 고령자의 식욕부진과 전신이 쇠약해지는 악액질(cachexia)에는 식욕증진제나 고열량 수액 투여 금지. 식욕증진제로 사용되는 메가스트롤(megestrol)의 경우 효과가 적은 반면 혈전성 사고가 증가하는 부 작용이 우려
4	• 전체적인 처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약제 처방 금지
5	• 섬망(delirium)을 보인 입원 환자에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금지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14.06.04]



오바마케어 가입자 200만명, 보험 혜택 제한 우려

○ 미국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200만명 정도는 정보 불일치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는, AP통신이 입수한 미국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20%에 해당하는 200만명 가량이 가입서류 작성 시 입력한 정보가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

* 일치하지 않은 부문은 주로 소득 및 시민권 혹은 영주권 항목

- 보건부는 당초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가입자에게 기본 90일 이외 추가로 90일을 더해 정보 수정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한편 오바마케어 홍보 담당자들은 정보 불일치의 상당수가 연방정부 기록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뒤, 보건부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

[ABC, 2014.06.07]



미국, 보훈병원 비리 파문 확산 ... 신세키 장관 사임

- 미국 보훈병원이 실적관리를 위해 대기자 명단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에릭 신세키(Eric Shinseki) 보훈부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파문이 확산
-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보훈병원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관계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예약환자가 많음에도 대기 기간이 짧다고 서류를 조작, 40명의 예약환자가 치료를 못받고 사망
- 특히 이 같은 비리가 미국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
- 오바마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했으나 사건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이런 가운데 신세키 장관과 로버트 펫젤(Robert Petzel) 차관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

[Chicago Monitor, 2014.06.12]



미국 ASA, 마취과에서 불필요한 검사·처치 발표

○ 미국 마취과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 ASA)가 마취과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검사와 처치는 필요없다고 공개 발표

▼ 마취과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

번호	내용
1	• 뚜렷한 전신질환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한(ASA 분류 1 또는 2) 환자에게는 수술 전 기본 검사 불필요 - 전혈구검사(complete blood count)나 지질검사, 응고검사는 최소한으로 실시
2	• 심장병으로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환자가 저~중등도 위험의 비심장 수술에 앞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검사와 운동부하 시험은 불필요
3	• 혈행동태 불안정 위험성이 낮은 환자의 심장수술에는 폐동맥 카테터 사용이 불필요
4	• 혈행동태가 불안정하지 않을 경우, 수술 중 진행성 출혈이 없고 헤모글로빈이 6g/dL 이상으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 젊은 환자에게는 농후적혈구 수혈이 불필요
5	• 적응증이 없는 환자에 응급수액요법으로 콜로이드제제(텍스트란, 하이드록시에틸 스타치, 알부민 등)의 지속적 사용 불필요

[Healthcare Professional Network, 2014.06.20]



캘리포니아,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 설립 추진 논란

○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이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 설립을 추진해 논란

- 사형수 정신병원 설립 추진은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형수를 교정 당국이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조치
 - * 당시 연방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센켄틴(San Quentin) 교도소 교정 당국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명 이상의 사형수들을 24시간 보살피며 치료하도록 주문
- 캘리포니아주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지난 '06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750여 사형수가 기약없이 교도소에 갇혀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지내는 상황으로, 건강을 잃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을 짓는 곳이 캘리포니아 이외 전세계 어디에 있느냐며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신나간 짓이라는 반대론자와, 사형수라도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론자 사이 치열한 격론이 전개

[Health Tender, 2014.07.01]



미국 의료계, 내분비내과 전문의 육성책 마련 시급

- 미국 의료계에 당뇨·갑상선장애·비만·골다공증 등 내분비 호르몬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을 담당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크게 부족, 육성책 마련이 시급
 -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에 의하면 현재 성인환자 담당 전문의 1천500여 명, 아동환자 담당 전문의 1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그 결과 지난 '12년 환자의 치료에 약 대기시간은 경우 평균 37일로 15년 전과 동일
 - 아동환자 담당 내분비내과 전문의 부족은 '16년까지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성인환자 담당 전문의 부족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우려
 - 특히 성인환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상당수 은퇴가 임박해 있어 전문의 인력과 치료 수요 사이 갭을 메우려면 향후 5년간 매년 14%씩 내분비내과 전문의(성인 담당) 수 증가가 요구
 - 미국내분비학회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타 분야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약하고 수입도 적다며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Medical Daily, 2014.06.21]



미국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적용에 제동

- 미국 대법원이 수공예품 판매업체 하비로비(Hobby Lobby)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 고용주는 직원의 피임과 불임수술 같은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을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원고에 승소 판결
 -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적용 규정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
 - 오바마케어는 기업 고용주가 직원의 임신 조절 비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초래
 - *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 발 물러섰으나 일부 보수 시민단체와 기업들은 피임 보험적용 규정 폐지를 요구

-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피임약에 보험을 적용해주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 방안과, 무료 피임약을 제공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

[CBS, 2014.07.08]



미국 의료계, 진료지역 확대 구상 검토

- 미국 주의료위원회연합회(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 FSMB)가 특정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다른 주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주 관계당국간 협약을 통해 허용하는 구상을 검토
- FSMB 구상은 의사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완화, 특정 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면 주 관계당국간 협약을 체결한 주에서는 이를 인정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 진료 방식에는 의사의 환자 대면 진료 뿐 아니라 화상 진료와 온라인 진료가 포함되며, 징계나 처벌 혹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은 FSMB 구상에서 제외
- 이 구상은 기존 미국 의사면허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원격진료가 확대됨은 물론 의사 부족,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피보험 대상자 증가 문제도 다소 해소시킬 전망

[Medical Economics, 2014.07.07]



9·11 테러 구조인력 암 치료 지원책 시급

- 지난 '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에 참여했던 인력 중 2천500명 이상이 암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대책이 요구
- 현지 언론들은 구조에 참여한 경찰관, 위생·방역 인력, 소방관 등 2천500명 이상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력(1천100여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
- * 뉴욕 소재 마운트시나이병원이 운영하는 세계무역센터 보건 프로그램에는 경찰관과 위생·방역 인력 1천655명, 뉴욕 소방국이 자체 운영하는 9·11 테러 관련 보건 프로그램에는 소방관 86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신고

- 전문가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연방정부가 구조인력에 대한 암 검사와 치료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지금까지 9·11 테러 구조작업 후유증으로 보상받은 암 환자는 115명에 불과한 가운데, 이들은 최소 40만불에서 최대 410만불까지 보상받은 것으로 집계

[CNN, 2014.08.04]



오바마케어, 정신질환에도 보험 혜택 ... 치료기관 증설 선행돼야

- 미국에서는 정신질환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 의료기관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치료기관 증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최근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가 포함된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정부는 9천명의 재소자를 오바마케어에 가입
 - * 쿡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
- 그러나 탐 닥트(Tom Dart) 쿡카운티 보안국장은 정신질환 치료기관들이 계속해서 폐쇄돼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전문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재활시켜야 한다는 연방정부 방침이 전문병원들을 폐업으로 몰아 정신질환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정신질환 치료기관이 시급히 증설되어야 한다고 강조

[The Center for Law and Justice, 2014.08.06]



FDA, 실험실 개발 진단검사 규제 단행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실험실에서 개발된 진단검사에 규제를 단행하기로 결정
- FDA는 심질환·암·자폐증 등과 관련, 잘못된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로 부적절한 치료가 행해진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 * 현재 미국에는 2천여 실험실에서 개발된 1만1천여 진단검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

- FDA는 일단 모든 실험실 진단검사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 진단검사 내용을 FD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뒤, 이들 검사가 안전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규제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단과 혈액검사에 사용되는 진단 등이며, 대체 검사가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검사, 기술수준이 낮은 검사, 장기이식과 관련된 일부 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 FDA는 향후 60일 이내 규제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Skin & Allergy News, 2014.08.14]



미국내과학회, 폐쇄성수면시무호흡증 진단 지침 발표

○ 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 ACP)가 성인 폐쇄성수면시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 OSA) 진단 지침을 발표

▼ OSA 진단 지침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원인을 알 수 없는 주간 졸음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는 수면검사를 시행
2	• OSA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로는 수면폴리그래프(PSG)가 권장되며, PSG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증 합병증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휴대형 수면모니터링 기기로 대체 가능
3	• OSA 평가 시에는 비만 등 위험인자를 고려
4	• 갑상선질환 · 위식도역류증 · 기타 호흡기질환 등 다른 원인을 제외해도 주간졸음이 있는 경우 OSA 평가를 실시
5	• OSA를 치료하는 지속양압호흡요법(CPAP)은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6	• 애플워치 졸리움 척도(ESS)와 같은 수면질문표는 OSA 중증도 평가에는 유용하지만 수면검사에 비해 감도와 특이도가 낮고 특히 OSA의 필수 요소인 무호흡저호흡지수(AHI)를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진단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

[Cleveland Clinic, 2014.08.20]



오바마케어 보조금 혼란 ... 동일 지급 절차에 법원 판결 상반

- 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면서 적용하는 동일한 보조금 지급 행정절차에 대해 2심 법원 두 곳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혼란이 가중
 -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에게 국세청(IRS)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으로, 건강보험 관련법에 따라 주정부를 통해 가입한 주민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
 - 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정부를 통해서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 모두에게 IRS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과는 상반되게 판결
- * 재판부는 법조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IRS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
- 미국 언론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혼돈에 빠진 데 대해 판사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

[Washington Times, 2014.08.21]



오바마, 에볼라 퇴치에 군병력 파병 ... 석유 확보 포석도 내포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3천명의 군병력을 서아프리카에 파견한다고 발표
 - 오바마는 군병력이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지원하고, 합동군사지휘본부는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
 - 또 라이베리아를 비롯한 에볼라 발병국에 △의료진 추가 파견 △의료물자 추가 전달 △이동식 병원 추가 설립과 함께 현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소개
 - 오바마는 이를 위해 의회에 8천800만불의 추가 예산을 요구
- * 미국은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복과 식량, 식수, 의료 및 위생장비 지원 등을 위해 1억불 지원을 약속(유엔은 에볼라 퇴치에는 6억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
- 한편 전문가들은 군 파병에는 라이베리아와 서아프리카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포석도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

[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2014.10.03]



NIH,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4천600만불 지원

○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인간 두뇌 기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에 대해 ‘14 회계연도에 4천6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연구비는 두뇌 활동 모니터용 착용식 브레인 스캐너, 뇌세포 활동과 회로를 제어하는 레이저 개발 등 58개 프로젝트에 분배될 예정

* EU에서도 브레인 이니셔티브와 유사한 내용의 ‘휴먼브레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

- NIH 측은 NIH가 희망하는 두뇌 연구와 그 같은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줄 기술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비 지원이 두뇌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수단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 한편 NIH 이외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식품의약국(FDA),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14 회계연도에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총 6천400만불 이상을 지원할 방침

[Consortium of Social Science Associations, 2014.10.06]



미국소아과협회, “10대 임신 방지 위한 호르몬 피임법 필요”

○ 미국소아과협회(AAP)가 10대 소녀의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려면 호르몬이나 자궁 내 피임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

- AAP는 현재 10대 소녀에게 호르몬 주입이나 자궁 내 피임장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피임법이라고 강조

* 호르몬 주입 피임법을 사용한 여성 중에는 1년 내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2천명 가운데 1명, 자궁 내 피임장치를 설치한 여성도 500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

- AAP는 지난 ‘10년의 경우 10대 소녀 61만4천명이 임신을 했고 이중 무려 82%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

- 또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피임법인 콘돔 사용은 남성의 경우 75%, 여성은 52%가 각각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설명

- AAP는 성적 절제는 임신뿐 아니라 성병 감염을 예방하는 100% 효과적인 방어책이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Sierra Sun Times, 2014.10.12]



CDC, 에볼라 치료지침 전면 재검토 착수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 치료지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
 - 이번 조치는 에볼라로 사망한 환자를 돌보다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마스크, 특수장갑, 안면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빠짐없이 갖췄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안전 조치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 CDC는 보호 장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벗거나 신장투석 혹은 기도삽관 도중 환자의 체액과 접촉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보호 장구를 벗는 방법과 신장투석이나 기도삽관 등 치료과정부터 점검할 예정
 - 또 의료진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에볼라 치료교육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고, 에볼라 감염자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어디든 지 수 시간 내 출동할 수 있는 에볼라 대응팀을 가동시키기로 결정
 - 한편 국립보건원(NIH)은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게는 신장투석처럼 위험성이 큰 조치를 취하지 말 것과, 에볼라 환자를 일반 병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 전염방지 병원에 격리할 것을 CDC에 권고

[Businessweek, 2014.10.19]



미국 의회, 에볼라 퇴치 7억5천만불 국방예산 전용 승인

- 미국 의회가 에볼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요청한 국방예산 전용 요구안 가운데 2억5천만불을 제외한 7억5천만불을 승인
 -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7억5천만불이 승인된 반면, 상원은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의원이 현지에 파견되는 미군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나중에 찬성으로 선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예산에서 7억5천만불을 별도 편성해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 4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100여 병상을 갖춘 에볼라 치료시설 17곳을 건설하는 등 작업에 투입할 방침
 - 앞서 오바마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에 인프라 및 치료 시설 건설을 지원할 군사 배치 등을 위해 국방비 가운데 10억불을 전용하겠다고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

[National Journal, 2014.10.17]



미국, 에볼라 의료분쟁 가능성 ... 사회문제로 비화

- 미국 병원들이 에볼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초동대처에 실패한 이유가 인종과 빈부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에볼라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로 사망한 토머스 던컨(Thomas Duncan)과 그의 가족, 던컨과 접촉한 주변인물, 병원직원 등 누구라도 의료진의 초기 대응 과실을 이유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 던컨은 몸에 이상을 느껴 텍사스건강장로병원을 찾아 자신이 최근 라이베리아를 방문했다고 알렸으나 항생제만 처방받았고 3일 후 증세악화로 응급실에 실려 온 후에야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사망했고, 릭 페리(Rick Perry) 텍사스 주지사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
- 이런 가운데 델라스 카운티 법원의 존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병원이 초동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던컨이 저소득 흑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에볼라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

[New York Times, 2014.10.21]



메인주 법원, 에볼라 간호사 ‘자택 격리’ 조치 위법 판결

- 미국 메인주 법원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한 간호사에 대한 주 정부의 ‘자택 격리’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
- 앞서 메인주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Kaci Hickox)에게 21일 간의 자발적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며, 이에 반발한 히콕스 측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메인주 법원은 주 정부가 원고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뒤, 그러나 원고는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면 곧 바로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을 지시
-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에볼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에볼라에 직접 노출됐던 자는 최장 21일간의 잠복기 동안 보건당국의 점검을 받고, 공공장소에서 떨어져 있으며,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타인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
- 한편 히콕스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메인주를 떠나기로 결정

[Politico, 2014.11.17]



공화당, 오바마케어 이행 남용 이유로 행정부 제소

- 미국 하원 공화당이 지난 '10년 의회에서 통과된 오바마케어 핵심조항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행정부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
-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5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은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해당 조항을 일방적으로 '16년까지 연기시켰다고 지적
- *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을 연기
- 또 행정부가 보험회사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3조불을 불법 지원했다고 주장
- * 행정부는 보험회사들에 저소득층(연소득 1만1천670~2만9천175불) 보험금을 대신 지급
- 한편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연말 정국이 벅잡 끝 대치 국면으로 전환

[Insurance Business America, 2014.11.25]



미국, 수면장애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 미국 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 AASM)가 수면장애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
- 이번 개정은 미국내과 의사협회재단(ABIMF)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줄여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일환

▼ 개정안 주요 내용 (무순)

	주요 내용
1	● 수면시 동반 증상이 없을 경우 만성적 수면장애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불필요
2	● 만성적 수면장애 성인 환자에게는 1차 치료로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인지행동요법을 먼저 시행한 뒤 약물요법은 필요할 때 보조치료로 활용
3	● 유소아기 시기의 불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약물요법 불필요
4	● 하지불안증후군(RLS)에는 수면다원검사 불필요(임상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실치 않거나 주기성 하지운동 장애가 있을 경우는 예외)
5	● 체중이 안정된 상태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수면시무호흡증후군 환자에는 경비적 지속양압 호흡요법(CPAP) 처방압 조정 불필요

[MT Pro, 2014.12.04]



미국, 에볼라 공포 진정 국면 ... 에볼라 차르 현업 복귀 확정

-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에볼라 공포가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 그동안 에볼라 대책을 총괄해온 론 클레인(Ron Klain) 에볼라 차르를 내년 3월 전 직장이었던 투자회사 케이스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복귀시키기로 결정
- 미국 내 에볼라 공포의 발원지인 텍사스주 댈러스시는 라이베리아 출신 토머스 던컨이 9월30일 텍사스건강장로병원에서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8일 만인 지난달 8일 에볼라 사태 종료를 공식 선언
- 한편 언론들은 클레인 에볼라 차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로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업적도 보여주지 못해 존재감이 미약했다고 비판

[Christian Examiner, 2014.12.11]



소비자금융보호국, “의료 청구서 간소화 작업 시급”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이 병원과 보험업체가 의료 소비자에게 보내는 청구서가 너무 복잡해 혼란을 유발하고 소비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 CFPB 조사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의 20%에 해당하는 4천300만명 정도가 의료비 채무(평균 채무액 1천766불)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상당수 채무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병원과 보험업체의 청구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채무를 지게 된 경우로, 청구서가 간소화되었다면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연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
- CFPB 측은 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하게 되면 금융미로*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병원과 보험업체가 의료 청구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 의도치 않게 의료비를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한도액과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정 상황이 악순환에 빠지는 현상

[Mondag, 2014.12.19]

4.2 영국



영국 보건부, 외국인 이주민 의료서비스 부분 유료화제 도입

- 영 보건부가 그동안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온 응급 진료와 처방, 안과진료, 물리치료 등 일부 의료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 국민건강보험(NHS) 재정난에 숨통을 틔우기로 결정
 - 보건부는 이 같은 유료화 방안으로 연간 5억 파운드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번 방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NHS 구조개혁이나 EU 이주민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비EU국가 출신 주민들만을 주표적으로 삼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야기
 - * 특히 의료계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게 되어 질병 확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
 - 한편 보건부는 외국인 진료 유료화제 도입 발표에 앞서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EU 국가 이주민들에게는 1인당 연간 2백 파운드 상당의 NHS 이용료를 사전 징수하는 방안을 예고

[UK Department of Health, 2014.01.31]



영국 시장경쟁위, 민간 의료시장 1·2위 업체에 병원 매각 명령

- 영 시장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영국 민간 의료시장 1·2위 업체인 미국 HCA와 남아공 BMI에 대해 영국에서 운영 중인 9개 대형병원의 매각을 명령
 - 경쟁위는 이들 업체가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당 수익을 챙겼으며, 의료 서비스 개선 없이 보험료만 인상시켜 왔다며 매각 명령 배경을 설명
 - * 이들 업체의 부당이득은 연 1억7천3백만~1억9천3백만 파운드 정도로 추산
 - 또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의료상품 상담전문가와 딜러들에게 성과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 그러나 HCA와 BMI는 경쟁위의 매각 명령이 영리병원 시설에 대한 자사들의 투자를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
- 영국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NHS)과 민간 의료시장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신속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표방하는 민간 의료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

[Financial Times, 2014.01.27]



영국 NHS, 유럽 심근경색 치료 프로젝트 주도 ... EU, 5백만 파운드 지원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심근경색으로 손상된 심근조직을 골수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로 결정
- 이 프로젝트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11개국 3천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내용
 - * 그동안 심근조직을 되살리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는 소수의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시도된 바는 있지만 이처럼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임상시험이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
- 이들 환자들에게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되고, 전체 환자의 절반에게는 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골수로부터 줄기세포가 채취돼 심근에 주입
- EU집행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최종 결과는 5년 후 발표될 예정

[BBC, 2014.02.20]



영국 종교계, 정부 보건복지 삭감 정책 비판

- 영국의 성공회와 기독교 교단의 성직자 27명이 극빈층 확산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보건복지 삭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영국 사회가 술렁
- 이들 성직자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서 정부는 보건복지 개혁 이전에 늘어나는 빈곤층의 끼니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

- 또 수만 명의 노년층과 빈곤층이 난방비와 식비를 걱정하며 푸드뱅크로 내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개혁 부작용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 * 이들 성직자는 지난해 이후 영국에서 푸드뱅크를 찾은 빈곤층이 50만명에 이른 가운데 5천5백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는 등 과도한 보건복지 삭감과 시스템의 실패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
-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사회보장 안전망도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박

[Telegraph, 2014.02.20]



영국, 보건복지 등 이주민 경제효과 놓고 의견 분분

- 영국 정부가 보건복지 등 사회보장 부담 증가를 우려해 외국인 이주민 유입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유럽 EU 회원국들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국내에서도 이주민 유입 경제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
 -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마이그레이션 워치(Migration Watch)는 지난 17년 동안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영국 납세자들이 일일 평균 2천200만 파운드(미화 약 3천760만불), 총 1천400억 파운드의 세금을 부담했다고 주장
 - 특히 이주민이 대거 유입됐던 '01~11년에는 이주민들이 납세를 통해 영국 경제에 이바지한 것보다 보건복지 등 사회보장 혜택을 34% 정도 더 많이 수령해 결국 영국 사회는 200억 파운드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이런 내용은 '00년 이후 외국인 이주민의 국가재정 기여가 250억 파운드에 이른 다며 이주민 유입이 영국 경제에 이득이라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대(UCL) 연구 보고서 결론과 배치

[UK Independence Party, 2014.04.23]



영국 보건부, 알코올 중독자 간이식 시범사업 추진

- 영국 보건부가 장기이식이 금지됐던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식 시범사업을 산하 혈액장기이식재단(NHSBT)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
 - 그동안 보건부는 소중한 기증 장기를 의미없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간질환이 심각해도 수술 예후가 좋지 않고 수술 후 금주에 성공할 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이식을 금지
 - * 현재 보건부는 수술 후 5년간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이 50% 이상인 환자에만 장기이식을 허용
 - 그러나 환자를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NHS) 체제 아래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1/5 정도는 여전히 알코올 관련 중증 질환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이식 규정이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
 - 이에 따라 보건부는 18~40세의 젊은 연령대에서 간질환과 알코올 중독을 최초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간이식을 시행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결정

[UK-Rehab, 2014.04.22]



영국 보건부, 가정·조산원 분만 권장

- 영국 보건부가 위험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인근 조산원에서 분만할 것을 산하 국민건강보험(NHS)과 국립보건연구소(NICE)를 통해 권장, 산모의 안전성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
 - 보건부는 건강한 산모는 가정이나 소규모 조산원에서 분만을 해도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병원보다 훨씬 편안하다며 이같이 권고
 -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병원 분만을 장려해 온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
 - 전문가들은 최근 영국 출산율이 지난 40년래 가장 높아 보건부가 비용부담을 느껴 입장을 전환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비용절감이 산모 안전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비판
 - * 가정 분만 시 NHS의 부담은 산모 1인당 평균 1천66 파운드(미화 약 1천800불)로 병원보다 565 파운드 저렴하며, 조산원을 이용해도 NHS의 부담은 병원보다 181 파운드 덜 드는 것으로 집계
 - 한편 현재 영국에서 출산 여성은 연간 80여만 명이며, 이들 중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94% 정도로 집계

[Nursing Times, 2014.05.21]



영국 정부, 노인복지 인력 충원 정책 시급

-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 IPPR)는 영국 사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 오는 '22년에는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수요가 지금보다 275만명 이상 증가해 영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을 이룰 전망
 - 특히 요양기관 종사자와 간호 인력은 지금보다 160만명 이상 늘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
 - 또 사회복지사와 보호관찰 담당자자는 24만명, 진료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인력은 9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
 - IPPR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안정적인 노인복지 인력 충원 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노인복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Independent, 2014.06.08]



영국 NICE, 심방세동 가이드라인 개정

-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 NICE)이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개정

▼ 심방세동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뇌졸중 위험 평가 도구로 'CHA2DS2-VASc'를 사용 - 평가 대상에는 심방세동 환자 이외 '전기제세동으로 동조율을 얻었어도 부정맥 재발 위험이 있는 환자'를 추가
2	• 항응고 요법을 고려중인 환자의 출혈 위험성은 'HAS-BLED' 점수로 판단 - 이 때 위험 요인으로 '과음'을 추가 -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응고 요법 중단은 금지
3	• 최신 항응고제인 '자렐토(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프라다кса)', '아픽사반(엘리퀴스)'의 사용 여부는 다른 항응고제와 비교한 위험 대비 효과에 근거해 결정
4	• 항응고제의 재평가 실시 요건에 '목표치료범위(TTR) 65% 이하' 및 '음식과 음주를 포함한 생활 요인'을 추가
5	• 심방세동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은 뇌졸중 예방에 방해가 되는 만큼 비권장

[PULSE, 2014.07.01]



영국 의료기관, ‘인간 광우병’ 감염 부실대응 논란

- 영국 의료기관의 허술한 ‘인간 광우병(vCJD)’ 혈액감염 부실대응이 논란
 -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vCJD와 관련된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prion)을 보유한 영국인이 수만 명에 이르지만 혈액감염 방지 체계가 미비해 수혈과 수술로 정상인들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혈액 관리 과정에서 변형 프리온 보유자 혈액을 걸러내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혈을 통해 병원체 보유자가 확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이와 관련, 영국 보건부는 현재도 혈액검사와 의료감염 방지 등 vCJD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대답
 - 영국에서는 지난 1995년 vCJD 환자 3명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국 정부는 vCJD 극복을 위한 연구에 연간 5백만 파운드 이상을 투입

[Guardian, 2014.07.24]



영국 정부, 시에라리온 에볼라 치료시설 건립 지원

- 영국 정부가 국제개발부(DFID)를 통해 에볼라 감염 피해가 집중된 시에라리온에 2천5백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 에볼라 예방과 진단 기능도 갖춘 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기로 결정
 - DFID는 서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지원금 1억 파운드에 더해 2천5백만 파운드를 시에라리온에 투입, 700 병상 규모로 향후 6개월간 최대 8천8백명의 환자를 수용하게 될 에볼라 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
 - DFID는 에볼라 창궐 지역에 치료시설이 설치되면 신속한 진단으로 감염 환자의 조기 격리치료가 가능해져 에볼라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뒤 영국 의료진과 구호기관의 현지 활동도 확대된다고 소개
 - * 중국도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실험실과 환자 격리예방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
 - 한편 영국 정부는 글로벌 각국이 에볼라 퇴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조만간 런던에서 개최할 계획

[PR Newswire, 2014.10.03]



영국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구호병력 급파

- 영국 정부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구호병력 91명을 급파
 - 이들 병력은 영국군 야전병원 부대원들로 먼저 파견된 군 의료진 40명과 현지에서 합류, 에볼라 환자 치료와 방역 등 업무를 수행
 - 영국 정부는 또 추가 병력 225명을 태운 해군 함정 아거스호가 이달 말 시에라리온에 도착하면 전체 파견 병력은 750명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
 - * 아거스호에는 헬기 3대를 비롯한 각종 군수장비와 병상 100개도 비치
 - 정부는 이 밖에 에볼라 통제를 위해 시에라리온에 구호기금 2천5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해 환자 700명을 수용 가능한 치료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
 - 한편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에볼라 발병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병원 의료진에 에볼라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

[Daily Mail, 2014.10.16]



영국 공공보건국, '뇌 나이' 검사 정책 논란

- 영국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 PHE)이 40세 이상 국민의 '뇌 나이'를 검사해 치매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 PHE는 개개인의 운동 주기·음주·흡연 등 생활습관 정보와, 체중·혈압·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의료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뇌 나이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통고하는 방안을 곧 시범 실시할 예정
 - * 보건국은 이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매일 음주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40대 남성 흡연자는 뇌의 노화속도가 1.5배 빨라져 뇌의 연령이 60세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
 - 보건국은 이렇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요법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생활습관을 자발적으로 바꾸도록 해 궁극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민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냉혹한 대책이자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뇌 나이가 실제 나이와 차인다고 해서 꼭 치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
 - 한편 지난 '12년 영국의 치매환자 수는 약 80만명이며, 오는 '37년이면 140만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Leader Post, 2014.11.08]



영국 의약품청, 개인 상대 게놈 검사 서비스 허용

- 영국 의약품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MHRA)이 미국 유전자 해석업체 23앤미(23andMe)가 개인을 상대로 한 게놈 검사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
 - 그러나 게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해당 검사결과 만으로는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다며 서비스 이용전 심사숙고할 것을 권고
 - 이번 MHRA의 허용으로 23앤미는 개인에게 타액을 이용한 약물반응, 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 등 100가지 이상의 유전적 건강 인자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놈 서비스를 건당 125 파운드에 제공할 계획
 - 23앤미는 영국에 앞서 미국에서 254개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게놈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식품의약국(FDA)이 필요 서류 제출 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말 서비스 허용을 보류해 현재 FDA와 협상을 진행 중
 - 한편 23앤미는 지난 10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개인 상대 게놈 검사 서비스 승인을 취득

[BioNews, 2014.12.15]

4.3 일본



일본 후생성, ‘J-ADNI’ 프로젝트 데이터 조작 조사 착수

- 일 후생노동성이 민관합동 알츠하이머 연구 ‘J-ADNI’ 프로젝트에서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의혹을 포착, 조사에 착수
 - 후생성은 각 의료시설에 의뢰한 검사의 결과를 취합·정리하는 J-ADNI 데이터센터가 최소 4건에 대해 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 * 교토시립의대의 경우 데이터센터 압력에 굴복, 지난 '09년 8월 실시한 기억력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
 - 또 J-ADNI 프로젝트에는 데이터 조작 이외 건강상태 등이 임상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도 시험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20% 정도 될 것으로 추정
 - J-ADNI는 치매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의 조기치료 및 신약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제약업체가 33억엔을 투자해 지난 '07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38개 의료시설이 참여

[朝日新聞, 2014.01.10]



일본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부족 개선 방안 검토

- 일 법무부가 자문기구 유식자검토회(有識者検討會)가 제출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내 의사 부족 개선 방안을 검토
 - 일본 전역에 위치한 교정시설 163개소는 재소자를 진료·치료하는 의사를 ‘교정의무관’이라는 명칭으로 총 332명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확보한 비율은 80%에도 미달하며 한명도 없는 곳도 31개소
 - 그 결과 재소자들의 진료·치료에 대응하지 못해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많아지면서 교도관 업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유발

- 유식자검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 인상 및 교정 의료수당 신설 △검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 공무원법 요건 완화 △65세인 정년 연장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방안을 제시
- * 교정의무관의 평균 연령은 약 50세에 월 급여가 77만엔 정도인데 비해 민간 의사는 약 41세에 1백만엔을 상회

[日本經濟新聞, 2014.01.21]



일본, 당뇨병 예방·치료 프로젝트 ‘AAA’ 진행

- 일본하지구제족부질환학회(日本下肢救済足病學會)와 일본풋케어학회(日本フットケア學會)가 당뇨병을 예방·치료하는 프로젝트 ‘절단에 대항하는 활동(Act Against Amputation : AAA)’을 공동 진행하기로 결정
- 이들 학회는 당뇨병 환자인데도 아직 치료를 받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발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당뇨병 병변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유병자의 30%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
- 학회는 AAA를 통해 의료진의 당뇨병 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당뇨병에 대한 환자들의 의식을 제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4월경 공식사이트를 오픈할 예정
 - * 사이트에는 당뇨병에 대한 증세와 관리 및 치료, 족부질환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 안내 등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수록

[MT Pro, 2014.02.12]



후생성, 진료보수 개편으로 재택의료 활성화

- 일 후생노동성은 공공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입원비용을 낮추는 등 방식으로 진료보수를 개편,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결정
 - 또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환자들이 인근 의료기관에서도 수준높은 치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도 축소해 가벼운 감기 등으로 환자가 찾는 것을 자제시키고, 중증환자용 병상을 향후 2년간 9만 병상 감축하기로 결정
 - * 중증환자용 병상은 지난 '06년 진료수가 개정을 통해 설치될 당시 2만~3만 병상으로 예상됐으나 병원 신청이 쇄도하면서 현재 36만 병상까지 늘어난 상태로, 일반 환자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한편 후생성은 오는 4월부터 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일반병원과 진료소의 초진료를 120엔 올린 2천820엔, 재진료는 30엔 올린 720엔으로 설정하고, 입원기본료도 2% 정도 인상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4.02.13]



고베시, iPS세포 망막재생 치료센터 설립

- 일본 고베시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한 망막재생 치료거점인 '고베아이센터(神戸アイ センター)'를 설립하기로 결정
 - 고베시는 시설의 규모와 사업 형태 검토를 거쳐 동 센터를 오는 '15년 착공할 예정으로, 설립 조사검토비 1천만엔을 편성
 - 고베아이센터는 의료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265개사가 밀집해 있는 인공섬 포트아일랜드의 '의료산업도시'에 위치
 - * 의료산업도시에는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가 난치성 안질환 노인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iPS세포로부터 제작한 망막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할 예정
 - 고베아이센터에는 기초연구소와 세포배양시설 뿐 아니라 병원과 재활시설도 구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고베시는 효율적 망막 연구와 치료의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読売新聞, 2014.02.19]



일본 후생성, '15년부터 병원 진료명세서 무료 발행 의무화

-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15년부터 모든 병원에 대해 환자가 받은 치료 내용과 비용 등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진료명세서를 무료 발행하도록 의무화
-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
- 명세서 무료 발행은 진료급여를 전자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발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예외
- 후생성은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400 병상 이상 병원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며, 400 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진료명세서 발행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
- 한편 후생성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 향정신병 약물을 다량으로 처방한 경우 진료수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산케이뉴스, 2014.03.12]



일본, 자궁이식 임상응용 지침안 공개

- 일본 게이오·도쿄·교토대 병원 의료진들이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혹은 암수술을 받아 자궁이 제거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궁이식 임상응용 지침안을 공개
- 지침안은 △의료진은 자궁 제공자와 이식을 받는 여성에게 자궁이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자궁이식으로 출생된 아이는 사회적·법적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궁제공을 은밀하게 강요받거나 사업화하면 안된다고 명기
- * 자궁이식은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팀은 논의를 통해 이번 지침안을 더욱 정교하게 확대·발전시킬 계획
- 공동 연구팀은 이미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궁이식 실험에는 성공한 바 있으며, 수년 후에는 심정지나 뇌사자로부터 받는 생체 간이식과, 모친이나 성동일성장애인으로 부터 받는 생체 간이식도 실시한다는 방침
- 한편 연구팀은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해 윤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연구회를 설립

[毎日新聞, 2014.03.15]



일본, 고혈압 치료지침 개정

○ 일본 고혈압학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혈압 치료지침을 5년 만에 개정

▼ 고혈압 치료지침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고혈압 진단 기준(강압제 치료 실시 기준)은 기존 140/90mmHg를 유지
2	● 혈압을 떨어뜨리는 노력 목표인 강압 목표를 '젊은층 및 중년층'의 경우 130/85mmHg에서 140/90mmHg로 완화하고 진단 기준과 통일 * 75세 이상(당뇨병 환자 제외)도 140/90mmHg에서 150/90mmHg로 완화
3	●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진찰실 혈압'보다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아침저녁 각 2회씩 측정하는 '가정 혈압'의 평균치를 치료 상 우선시

- 고혈압학회는 치료지침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강압 목표와 강압제 치료 실시 기준 사이 괴리가 존재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다 실용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日本医療健康情報研究所, 2014.04.09]



일본 의료계, 건강 '정상' 판단 기준 완화

○ 일본건강검진학회와 건강보험조합연합회가 혈압과 비만 등 일부 건강검진 항목의 '정상'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 이들 기관은 지난 '11년 건강검진을 받은 150만명 중 지병이 없고 약도 복용하지 않는, 건강한 남녀 1만여 명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

▼ 건강 정상치 기준

구분	남성	여성	현재 기준
수축기 혈압 (mmHg)	88~147		129 이하
이완기 혈압 (mmHg)	51~94		84 이하
비만도 (BMI)	18.5~27.7	16.8~26.1	25 이하
중성지방 (mg/dl)	39~198	32~134	30~149
γ-GTP (U/l)	12~84	9~40	50 이하
LDL 콜레스테롤 (mg/dl)	72~179	61~152 (30~44세)	60~119
		73~183 (45~64세)	
		84~190 (65~80세)	

[Social News Network, 2014.04.23]



후생성, 국민연금 지급 개시 75세 연장 검토

○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일본 후생노동상이 공영방송 NHK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개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75세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

- 노리히사 후생상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예를 들어 75세까지 선택제로 연장하는 방안이 집권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후생성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
-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70세부터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월 수령액이 증가
- 후생상의 이번 발언은 퇴직 연령을 늦추는 일련의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경제재정 전문가집단 ‘선택하는 미래위원회(選擇する未來委員會)’는 현재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

* 정치권도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데 합의

[読売新聞, 2014.06.01]



일본 정부, 혼합진료 규제 완화 ... 심사 평가기관 설립

- 일본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서비스를 병용해 제공하는 혼합진료 규제를 오는 '16년부터 완화하기로 결정
-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7가지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
- 그러나 혼합진료 규제를 완화하면 첨단의료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이에 따라 의료 관련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
- 한편 일본 정부는 혼합진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혼합진료와 재생의료 대상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오는 '15년 3월까지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

[東京新聞, 2014.06.13]



후생성, 약사 통한 주민 건강관리 시범사업 착수

-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금까지 처방 의약품 조제를 주로 했던 약사에 주민의 건강상담과 재택환자에 대한 약물지도 등 폭넓은 역할을 맡기는 시범사업에 착수
- 이 사업에서 약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을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를 주선하고, 흡연자에는 금연을 지도
- * 사업은 올해 2억4천만엔의 예산으로 시작
- 또 약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처방약 복용을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하도록 권고
-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진료를 받게 되는 일을 감소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생성은 앞서 지난 4월 약국에서의 자가채혈검사를 정식 허용
- 한편 고치현은 올해 현내 400여 약국 중 절반 정도를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

[読売新聞, 2014.06.18]



후생성, “암환자도 일과 치료를 병행해야”

- 일본 후생노동성이 암환자도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병행이 환자 개인은 물론 회사에게도 바람직하다고 강조
 - 후생성은 의사가 암환자에게 암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당장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음을 전달한 뒤, 수행 가능한 업무를 재직 중인 기업에 명확하게 알려줄 것을 권고
 - 또 기업에게는 암환자에 사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암환자가 그동안 회사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요구한 뒤 의료기관에는 암환자를 위한 평일 야간이나 주말 의료체제를 구비할 것을 지시
 - * 일본 정부는 암대책추진기본계획에서 암 환자의 취업문제 해결을 중점 시책으로 명시
 - 현재 일본에서는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60% 정도로 향상된 가운데 암을 치료하면서 근무하는 환자는 32만5천여 명으로 추정되나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Rakuten, 2014.06.25]



자민당, 대리출산 조건부 허용 법안 제정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정자와 난자로 체외수정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대리출산에 관한 조건부 허용 법안을 제정
 - 법안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 한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자민당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
 - 그러나 아이를 대리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지 등 사회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 법안 추진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 *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과학심의회의는 지난 '0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간을 생식 수단으로만 취급하게 된다 △제 3자에 매우 높은 위험 부담을 강요한다 △아이의 복지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대리출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 한편 일본에서 ‘생식보조의료’로 불리는 불임치료로 출생하는 신생아는 30명중 1명꼴인 연간 약 3만2천명 정도로 집계

[日本經濟新聞, 2014.06.27]



후생성, 소아 난치병 지원 대상 질환 107개 추가

- 일본 후생노동성이 개정아동복지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 난치병 지원 대상에 107개 질환을 새로 추가, 총 705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현행 제도에서 이미 지원 대상에 포함된 514개 질환은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598개 질환으로 재분류할 방침
 - 새로 추가되는 대상은 선천성 풍진증후군, 코케인증후군, 선천성수두증, 소아교대성편마비,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등 모두 생명을 위협하면서 치료비가 고액인 만성질환
 - * 성인 난치병에서 이미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중증근무력증도 대상에 포함
 -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소아 환자는 3만~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
 - 후생성은 또 중증은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경증은 보호자 수입에 따라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현행 지원제도를 중증의 경우에도 보호자 수입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계획

[毎日新聞, 2014.07.31]



일본 정부, '1회 채혈 13 종류 암 진단' 프로젝트 착수

- 일본 정부가 국립암연구센터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주축으로 1회 채혈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3 종류의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1회 채혈 13 종류 암 진단' 프로젝트에 착수
 - 이 프로젝트는 암세포가 특유의 '마이크로 RNA' 물질을 분비하는 데 착안한 것으로, 혈액에는 2천578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존재
 - * 현재는 암환자 혈액을 채취해 단백질 등을 조사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 암세포가 큰 상태에서야 단백질이 검출되는 반면, 마이크로 RNA는 암세포가 작은 상태에서도 분비되기 때문에 조기 단계에서 암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립암연구센터와 NEDO는 암환자 7만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분석, 마이크로 RNA의 양과 종류를 판별해 암 유무와 부위를 파악한 뒤 오는 '18년에는 국민건강검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
 - 1회 채혈 13 종류 암 진단 프로젝트 사업비 규모는 약 79억엔

[朝日新聞, 2014.08.19]



일본, 70여 년 만에 뎅기열 발병 비상

- 일본에서 지난 1945년 이후 69년 만에 뎅기열이 발병, 정부가 대책 마련에 비상
 - 후생성은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현(埼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이바라키현(茨城縣) 등에서 20여명이 지난달 말 뎅기열에 감염된 이후 9월16일 현재 18개 도도부현에서 총 126명이 뎅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
 - 이들은 대부분 도쿄 시부야(澁谷)에 위치한 요요기(代代木) 공원 또는 그 주변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 이에 대해 요요기 공원을 관리하는 도쿄도 당국은 모기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연못의 물을 빼고, 공원 안에 모기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비상
 -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질환으로 3~7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38~40도의 고열·두통·근육통 등 증상을 유발하며, 일반적으로 5~7일 앓고 나면 회복되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도 초래
 - 그러나 뎅기열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

[読売新聞, 2014.09.17]



후생성, 환자 병동 재분류 제도 시행

- 일본 후생노동성이 환자 병동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의 4개로 재분류한 새로운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 이번 조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재활요법과 재택지원을 위한 의료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잉 상태인 중증환자용 병상을 줄여 확보된 병상을 병원 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 * 현 체제에서는 중증 환자용 병상이 과잉인 반면 고령자 의료에 적합한 병상은 부족한 가운데, 중증 환자용 병상에서는 재활요법 등 재택복귀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 고도급성기 병동에서는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 급성기 병동에서는 일반수술 환자, 회복기 병동에서는 재택복귀를 앞두거나 재활요법을 받는 환자, 만성기 병동에서는 장기요양 환자를 수용
- 후생성은 의료기관이 간호사 수나 수술 건수 등에 입각해 자체적으로 병동을 분류한 뒤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병동 기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05억엔의 예산을 편성

[読売新聞, 2014.10.04]



후생성, 고령자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추진

- 일본 후생성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급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안을 사회보장심의회 건강보험부 회의에 제출
- 현재는 연 수입이 80만엔 미만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90%, 80만엔 이상 168만엔 미만 고령자에는 85%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의료개혁안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할인율이 모두 70%로 인하
- 개혁안은 또 연 수입 153만엔 이상 211만엔 미만인 약 145만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50% 할인 특례도 폐지하고, 월수입 121만엔 이상의 고소득자 30여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
- 이번 개혁안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개인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세출구조를 개편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

[読売新聞, 2014.10.23]



일본, 공공 ‘노인 홈’ 입소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일본에서 노인 전용 생활시설인 공공 ‘노인 홈’ 입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입소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 전국에서 공공 노인 홈 입소 대기 중인 노인은 지난 3월 기준 52만4천명이며, 이 중 ‘요개호’ 4·5 등급을 받아 노인 홈에 입소해 간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은 4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 '09년 12월에는 공공 노인 홈 입소 대기자가 42만1천명으로 4년여 만에 10만3천명이나 증가
 - 또 일본경제신문이 이달 초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 노인 홈 입소 대기자의 20%인 12만명이 도쿄도(東京都)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도시에 거주하는 등 노인 홈 입소 대기는 특히 대도시에서 심각
 - * 더욱이 이들 대도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오는 '25년에 30%까지 치솟을 전망
 - 전문가들은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서비스가 미비하거나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노인 홈 입소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日本經濟新聞, 2014.10.20]



일본 정부, 치매노인 대책 마련 시급 ... 매년 1만명 실종

- 일본에서 연간 1만명의 치매노인이 실종되고, 일부는 수년간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일본의 치매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인 800만명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가족 등 치매노인을 돌보는 이들에 의한 살해나 상해 사건도 증가
 - * 일본에서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은 '12년 1만5천명 이상으로 6년 전보다 21% 증가한 가운데, 이들 노인 중 절반은 치매환자로 파악
 - 일본 정부는 ‘자택돌봄 프로그램’ 등 치매노인 대책에 연간 3천100만불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작은 편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 동참을 요구

- 한편 기업들의 대책도 미흡해 일본 최대 유통업체 이온은 매장직원들에게 치매노인을 상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07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4만명 직원 중 교육을 받은 직원은 10%에 불과

[Bloomberg, 2014.11.08]



일본, 인구감소 지속 시 사회보장비로 가계소득 과반 지출

-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 '선택하는 미래위원회(選擇する未來委員會)'는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오는 '50년대에는 가계소득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비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
 - 위원회는 일본이 지금의 인구감소 추세를 이어가면 오는 '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50년대에는 현재 미국의 70% 정도인 1인당 GDP가 60%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소득 과반이 사회보장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인구 감소를 피하도록 △출산·양육 보조금을 현재의 2배로 증액하고 △현재 1천500만엔인 교육비 증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가정과 일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정부에 제언
 - * 위원회는 지난 5월, 현재 15~65세인 생산연령 인구 기준을 20~70세로 변경할 것을 주장
 - 위원회는 특히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정부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

[Science Antenna, 2014.11.05]



아베 총리, “치매환자 지원 국가전략 수립 추진”

- 아베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국제치매회의에서 후생성 등 정부 부처가 혼연일체가 되어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
- 아베 총리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전세계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한 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치매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 새로운 치매 대책에는 현재 600만명 정도인 ‘시민 치매 도우미’를 늘리는 방안과 의료와 노인복지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초기집중지원팀’을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
- 치매 대책은 연내에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
- 한편 후생성은 치매 발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예방책을 연구하기 위해 40세 이상 일반인 1만명을 대상으로 '16년부터 흡연 및 운동 여부, 식사습관, 유전자 조합방식 등을 추적 조사할 계획

[Nikkei BP, 2014.11.21]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허용 ... 윤리적 논란 확산

- 일본 산부인과학회가 체외수정을 3회 이상 시도했음에도 착상에 실패했거나, 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를 검사하는 ‘배열 비교유전체보합법(a-CGH)’을 허용하기로 결정, 윤리적 논란이 확산
- a-CGH는 체외수정한 수정란이 배반포로 성장했을 때 일부 세포를 꺼내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는 기법으로, 일부 염색체 조사에 그치는 기존 방법과 달리 모든 염색체를 조사해 거의 확실하게 이상 염색체를 발견
-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조치가 출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그러나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질환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유전성 장애아의 출생을 회피하거나, 유전적으로 완벽한 신생아를 선택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윤리적 논란이 확산

-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지금까지 중증 유전병 환자에 한해 체외수정 시 염색체에 이상이 없는 수정란만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도록 a-CGH를 허용해 왔으며, 일반 불임 환자에게는 불허

[朝日新聞, 2014.11.26]



후생성, 국가 암대책 검증 작업 시행

-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부가 시행 중인 암대책 계획의 중간평가를 위해 국립암연구센터에 위탁, 암 환자와 가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설 계획
- 일본 정부는 지난 '07년 △향후 10년 내 75세 미만 암환자 사망률 20% 감소 △진단 당시부터 통증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케어 시행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 등 팀의료체계 정비 등을 목표로 한 암대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 * '12년에는 환자의 취업 지원과 소아암 거점병원의 정비 목표가 도입
-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후생성은 '15년 1월부터 전국 147개 암진료 거점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 조사 내용은 암 치료 내용이 이해되는지, 의료진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치료와 직장 업무 병행이 지원되고 있는 지 등이며, 후생성은 조사 결과를 3년 후 재조정되는 암대책에 반영시킬 계획

[NHK, 2014.12.14]



후생성,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대책 매뉴얼 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이 태아가 감염되면 난청과 뇌장애 등이 유발되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cytomegalo virus : CMV)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정, 일본산부인과학회를 통해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배포
 - 매뉴얼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콧물이나 침을 닦아주며, 음식을 주는 등 행위를 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15~20초 동안 깨끗하게 닦고, 아기와 음식물·음료수·식기 등 공유를 금지
 - 또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에게 CMV 예방법을 임신 초기에 지도하는 한편, 감염이 의심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 임산부가 CMV에 감염되면 태아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본 임산부의 30% 정도는 CMV 항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임신 중 CMV 감염은 주로 아기의 타액이나 소변에 접촉되면 발생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

[読売新聞, 2014.12.19]

4.4 중국



베이징,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 조성 이어 100% 외자병원 허용

- 중 베이징 시정부가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 조성을 확정된 데 이어 100% 외자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등 외국자본의 의료시설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 베이징시 외곽 톈저우(通州)에 들어서는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에는 외국인에게 △주식 보유 제한 완화 △최소 투자금액 기준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우대 조치가 적용되고,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 그동안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에서는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진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돼 의료개혁이 촉진될 수 있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 현행 법은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 합작벤처에 대해 △중국인이 최소 30% 이상 지분 소유 △외국자본은 최소 2천만 위안(미화 약 330만불) 투자 △합작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제한

[China Radio International, 2014.02.10]



중국, AI 정보공개 논란 ... 가금업계, 매출 감소 가속화 우려

-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매출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가금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H7N9형 AI 확산 방지 대책을 밝히면서 각 성급 정부는 수시로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생육위는 전국 단위 통계를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
 - 그러나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금류 업계가 보건당국이 감염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매출 감소폭이 급격하게 증대될 수 있다며 반발
 - * 가금류 업계는 AI 치사율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폐결핵 등 다른 법정 전염병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AI에만 비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당국이 업계 손실 보전이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한편 중국 가금업계는 H7N9형 AI로 8백억 위안(미화 약 132억불)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China Times, 2014.02.11]



중국 국무원, 도시·농촌 양로보험 통합 운영

- 중국 국무원이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 거주민에 대해 별도로 운영해 온 양로보험 제도를 앞으로는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 또 중서부 지역 거주민에게는 기본양로보험 전액을 보조하고, 동부지역 거주민에게는 50%를 보조하기로 결정
- 이번 통합 운영 결정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던 도시에 거주하던 동일한 양로보험을 적용 받게 되므로 농민의 도시이동이 촉진되면서 신형 도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국무원이 복지 문제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는 이번이 처음
-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 운영이 거주지 뿐 아니라 직장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양로보험 제도도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新华网, 2014.02.10]



중국 국무원, 중증 질환자 건강보험 적용 지시

- 중국 국무원이 전국의 모든 지방 정부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지시
- 이번 조치는 중증 질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지난 '12년 8월 공동으로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방안 마련을 각 성 정부에 촉구
 - * 이에 따라 지난 '13년 10월 말 현재 전국 23개 성 정부에서 120개 시범도시를 확정했으나, 다른 성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
- 이번 중증 질환 건강보험 적용 지시에는 이미 구체안을 확정된 성은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성은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내용이 포함
- 국무원은 또 민간 보험회사들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원스톱 결산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

[Global Times, 2014.02.10]



중국 생육위, 입원 환자 촌지 관행 금지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입원 환자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 의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2급(지역 의원급) 이상 병원과 의료기관에 전달
 - 통지문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입원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 서약서를 작성해 담당 의사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환자 사정에 따라 가족의 대리 서명도 가능하며, 병원은 이 서약서를 관리 보관
 - * 서약서에는 의사가 촌지없이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
 - 또 생육위는 통지문에서 각급 의료기관들에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 전화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지시
 - 중국 정부가 이처럼 촌지 근절과 민원전화 설치에 나서는 것은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해 촌지나 뇌물 수수 관행이 만연하고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2.22]



중국, 유기 영아보호소 대폭 확대 ... 각 성에 2곳 이상 설치

- 중국아동복지양육센터(China Center for Children's Welfare and Adoption)는 현재 전국적으로 25곳에 불과한 '영아보호소(baby hatch)'를 올해 안으로 각 성에 최소 2곳 이상 설치하기로 결정
 - 영아보호소는 고아원 등 복지 시설 정문 앞에 마련된 경비실 규모의 작은 공간으로, 시설 내에는 보온상자·경보기·공조기·영아용 침대 등이 구비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부모가 이곳에 영아를 놓고 경보기 벨을 누르면 관리자들이 5~10분 안에 도착해 영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적절한 치료와 양육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영아보호소 설치 목적
 - 영아 유기는 △남아선호 △생활고 △미성년자 출산 △치명적 질환 등이 원인으로, 영아보호소는 지난 '11년 6월 허베이성 스자좡에 처음으로 설치
 - 그러나 일각에선 영아보호소 설치를 확대하면 영아 유기가 더욱 늘어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두

[CCTV, 2014.02.28]



중국, 결핵 유병률 급감 ... WHO 'DOTS' 프로그램 효과

- 중국에서 지난 '00~'10년 사이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170명에서 59명으로 감소하는 등 결핵 유병률이 급감
 - 이 같은 유병률 급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DOTS(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동기간 중국 내 DOTS 프로그램을 통한 결핵 치료 비율은 15%에서 66%로 급증
 - *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오해를 줄이면서 결핵 환자에게 치료를 실시하는, 지역 기반 결핵 퇴치 프로그램
 - DOTS 프로그램은 △정치·행정 차원의 결핵 퇴치 노력 강화 △현미경 객담(sputum) 검사를 이용한 결핵 진단 △양질의 종합 결핵 치료약 보급 △지정된 기관에서의 치료 △질병 사례와 결과를 기록·보고 등이 핵심
 - WHO는 결핵이 아직 퇴치되지 않은 다른 개도국들도 중국처럼 DOTS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것을 촉구

[BBC, 2014.03.18]



광저우, 유기 영아보호소 폐쇄 파문 ... 정부 정책 위배

- 중국 광저우 시정부가 영아보호소(Baby hatch)에 아기를 놓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호소 운영을 중단해 파문이 확산
 - 영아보호소는 고아원 등 복지 시설 정문 앞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되는 부모가 아기를 거리에 유기하는 대신 안전하게 놓고 가라는 취지에서 광저우 등 전국 25곳에 설치
 - 영아보호소는 지난 '11년 6월 허베이성 스자좡에 처음으로 설치
 - 그러나 광저우 영아보호소의 경우 개설된 지 2개월도 채 안 돼 무려 262명의 아기를 수용하게 되자 관계 당국이 당황, 보호소가 오히려 유기를 부추긴다고 판단하면서 문을 닫기로 결정
 -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영아보호소를 올해 안으로 각 성에 2곳 이상 설치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광저우에는 길거리에 아기가 버려지는 사건까지 발생

[All China Women's Federation, 2014.04.16]



중국, 민간병원 의료서비스 가격 자유화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민간병원 및 민관 합작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공동 발표
 - 이번 조치는 민간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해 의료진·장비·시설 등이 공립병원보다 열세인데다 진료비 제한에 묶여 과감한 자체 투자도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
 -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진료비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립병원들이 의료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병원이 당장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폭 인상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 '13년 10월 기준 중국의 민간병원 수는 1만877개('08년 5천400개)로 공립병원 1만3천440개와 큰 차이가 없으나 민간병원의 진료·입원환자 수는 공립병원의 1/9에 불과
 -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의 병원 설립을 장려하면서 민간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Shanghai Daily, 2014.04.18]



중국 국무원, 외국인 병원 투자 규제 완화

- 중국 국무원이 합작병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현행 최대 70%)를 확대한다고 발표
 - 그러나 언제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홍콩·마카오·대만 등 범 중화권 기업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중국 기업 자본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또 상하이자유무역구 같이 비중화권 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병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도시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국무원은 근래 들어 병원 등 의료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 * 지난 4월에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민간병원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병원 및 민관 합작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발표

[China Daily, 2014.05.29]



중국 정부, ‘역모기지’ 양로보험 시범 실시

- 중국 정부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의 4개 도시에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혹은 house-for-pension)’ 방식의 양로보험 시범 실시를 결정
 - 중국 정부는 산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국 관계기관에 통보
 - 역모기지 양로보험은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저당잡히면 보험사가 주택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로보험금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
 - 역모기지 양로보험 대상자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며, 이 제도는 오는 '16년 6월까지 시범 실시
 -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2억 명을 상회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역모기지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

[Xinhua, 2014.07.03]



중국 적십자, ‘혈액매매’ 의혹 확산 ... 신뢰붕괴 위기

○ 중국 적십자가 헌혈된 혈액을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 적십자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한 혈액을 200ml 한 봉지에 200 위안(미화 약 33불)을 받고 병원에 판매하고, 병원은 이를 다시 환자에게 500 위안에 팔고 있다는 주장이 급속히 확산

* 이런 주장에는 '10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연인원 1천180만명이 헌혈했고 헌혈량도 3천935t에 이르는데 적십자는 이를 판매해 39억3천500만 위안을 챙겼다는 구체적 수치도 적시

- 이에 대해 적십자는 현행법상 적십자는 자발적 헌혈 장려 활동만 진행할 뿐 헌혈 혈액을 보관·분배·공급하는 업무는 혈액은행 소관이고, 혈액은행은 적십자가 아닌 보건부 소속이라며 의혹 진화에 주력
- 한편 전문가들은 적십자의 재난·재해 구호물자 분배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논란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혈액매매 의혹은 적십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

[EN News, 2014.09.22]



광둥성 정부, ‘덴기열’ 퇴치에 총력

○ 중국 광둥성 정부가 ‘덴기열’ 감염자 수가 2만5천명을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하수관리 강화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덴기열 퇴치에 총력

- 광둥성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에 따르면 광둥성 산하 20개 지급시(地級市, 성과 현 사이의 행정단위)가 보고한 감염 사례는 8일 현재 총 2만6천270건으로 2주 만에 거의 2배 증가

* 광저우시의 경우 무려 2만2천378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특히 바이윈구(白雲區)와 하이주구(海珠區)에서 사태가 심각

- 덴기열은 덴기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질환으로, 덴기열에 감염되면 보통 3~7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두통·근육통 등 증상을 유발하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한 상황

[China Times, 2014.10.11]



중국, 신종 H7N9형 AI 대책 비상

- 중국 장쑤성에서 신종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환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비상
 - 장쑤성에는 지난 3일 난징시에 거주 중인 58세 여성이 신종 H7N9형 AI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AI 환자가 재발생
 - 이 여성은 2주일 전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사다 도살한 뒤 고열 증세 등을 겪어 지난 1일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 장쑤성 보건 당국은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신종 H7N9형 AI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
 -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9월에도 신장 우루무치에서 44세 여성이, 베이징에서는 7세 여아가 각각 신종 AI에 감염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중국에서 455명의 H7N9형 AI 감염자가 발생해 1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China Times, 2014.11.04]



인민해방군, 라이베리아에 에볼라 진료센터 개설

- 중국 정부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파견한 '중국인민해방군 의료지원단' 290명이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 100 병상 규모의 에볼라 진료센터를 개설, 본격적인 에볼라 퇴치 활동에 돌입
 -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된 이들 의료진은 절반이 여성으로, 그동안 사스와 지진 등 중국내 대형 재난·재해 발생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충칭 소재 제3군의대학과 선양군구 의료진으로 구성
 - 지원단은 향후 8개월 동안 라이베리아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중국 의료지원단이 외국에 전염병 진료센터를 개설하기는 이번이 처음
 - 한편 중국은 에볼라가 발병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서아프리카에 총 70억 위안(미화 약 1억2천200만불)의 긴급자금과 500명 이상의 의료진과 공공보건 전문가들을 파견

[新華網, 2014.11.28]



중국, 외국 자본에 영리 목적 양로기구 운영 허용

- 중국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 목적의 요양원 등 양로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혹은 중국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제휴를 체결해 영리 목적의 양로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허용하고, 양로기구는 설립 예정지의 성 정부가 신청을 접수해 심사하게 된다고 발표
 - * 또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가맹점 형태의 대규모 양로기구 체인을 설립·운영하는 활동도 장려
 - 정부는 이러한 외국 자본 유치에 위해 상무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각종 양로기구 외국인 투자자에 조세와 행정비용 상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
 -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12년 1억9천400만명에서 오는 '20년 2억4천300만명에 달하고 '25년에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적인 양로 서비스 관련 시장 규모도 수조 위안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

[Asia Today, 2014.12.04]

4.5 EU



독일 공무원연맹, 연금 수령시기 65세 → 63세 단축 요구

- 독일공무원연맹(DBB)이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만 65세에서 63세로 앞당기는 대상에 공무원들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
 - 앞서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대연정 협상에서 일반 국민이 45년간 연금을 납부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만 65세에서 63세로 낮춘다는 데 합의
 - 그러나 17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수령 시기를 2년 앞당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막대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해고 위험이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단축은 쉽지 않은 문제
 - 한편 연방 정부가 녹색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앞당기면 '11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남성이 9만2천명인 반면 여성은 2만5천명으로 주로 남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

[Europe Online Magazine, 2013.12.19]



불가리아, 영국 이주민 사회복지 정책 비판

- 로젠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 불가리아 대통령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국내 극단적 보수주의자들과 영합해 합법적인 EU 이주민을 규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 영국의 이주민 사회복지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
 -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제국이 이제는 국수주의에 빠져 근시안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스스로 EU 내에서 고립되며 위상을 꺾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
 - 또 캐머런 총리가 불가리아에는 이민자 규제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실행하라고 촉구

- 최근 영국 정부는 자국내 EU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업급여 신청을 금지하고 학자금 대출과 주택수당도 제한하는 사회복지 축소 방안을 발표
- * 영국 정부는 '14년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 국민의 EU 역내 이주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매년 5만명 정도가 영국으로 들어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비용을 늘릴 것으로 우려

[Guardian, 2013.12.28]



스웨덴 말뫼시, 불법체류 아동에도 사회보조금 지급

- 스웨덴 말뫼시가 거주 허가가 없는 불법체류 아동에게도 인권 존중 차원에서 스웨덴 정부 기준에 따른 사회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이번 결정으로 말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아동은 식료품·의복 구매 등 생계비와 주거비용을 지원받게 된 가운데, 지원금은 신생아 1천740크로나(미화 약 267불)부터 20세의 3천280크로나(503불)까지 연령별로 책정될 전망
- 현재 스웨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뫼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아동 지원에 대한 첫 번째 사례
- 이번 결정은 불법체류 아동 권리에 관해 법해석이 다른 스톡홀름시와 예테보리시에도 영향을 줄 전망으로, 예테보리시 관계자는 말뫼시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피력

[SVT, 2014.01.02]



유럽 노인, 값싼 해외 요양시설에서 여생 ... 비인도적 노인 추방 논란

- 최근 유럽에서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싼 요양비에 부담을 느낀 가족이 값싼 해외 요양시설로 노인을 모시는 트렌드가 확산
- 80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

- 로 힘들어 요양시설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값싼 해외 요양시설로 눈을 돌리는 유럽인이 증가
- 또 연금은 그대로인데 비해 오래 생존할수록 받아야 하는 치료가 많아지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므로 스스로 해외 시설을 선택하는 노인도 다수
 - 독일의 경우 지난 '11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한 노인이 7천146명으로, 이들은 주로 헝가리와 체코 등 동유럽 요양시설을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태국과 필리핀 같은 아시아 국가를 선호
 - * 스위스에서는 요양비가 월 1만불에 이르는 반면, 태국에서는 3천불이면 충분
 -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비인도적 노인 추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연합(VdK) 등 시민단체들은 각 정부 혹은 범유럽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Forbes, 2014.01.08]



그리스 정부, 무상의료 폐지 철회 ... 담뱃세 인상으로 대체

-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이행조건으로 시행한 무상의료 폐지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는 대신 담뱃세를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
- 그리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로 구성된 대외채권단과 지난 '12년 11월 합의한 중기 재정계획의 하나로 올 1월1일부터 공공병원의 1회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25 유로로 설정
-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PASOK)도 무상의료 폐지에 강력 반대함에 따라 담뱃세를 5 유로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
- * 보건부는 연소득 1만1천 유로 미만 저소득층에는 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같은 고가 검진비용만 유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설득에 실패
- 그리스 정부는 대외채권단도 진료비 부과로 조성하기로 한 4천만 유로의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무상의료 유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소개

[EuroActive, 2014.01.09]



독일, 6백억 유로 소요 연금 확대 개편안 마련

-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 노동장관이 오는 '20년까지 6백억 유로의 재원이 소요되는 연금 개혁안 초안을 발표
- 시민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지난해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연금 개혁을 국민들에게 공약
- 개혁안은 △45년간 연금 납부 시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 △1992년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어머니도 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며 △연금 개인 부담률을 현행 18.9%에서 '19년에 19.7%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
- * 개혁안 이행에는 올해 44억 유로, 내년부터 6년간 매년 60억 유로의 재원이 필요
- 그러나 야당인 녹색당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독일산업연맹(BDI)도 63세 연금 수령이 오는 '29년까지 67세로 수령시기를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당초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고 반발

[UK Pensions News, 2014.01.19]



스위스, 이주민 복지 제한 국민투표 2월 실시

-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에 5년 이상 체류 중인 EU 회원국 이주민 중 12개월 동안 무직 상태에 있으면 체류 허가를 박탈하는 등 내용의 복지혜택 제한 법안을 놓고 오는 2월9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 스위스에는 EU 회원국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부작용이 초래, 의회 다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동 법안을 제정
- * EU 이주민 포함,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백만 명 정도
- 그러나 호텔·보험·기계·정보통신·병원 등 직능단체로 구성된 스위스고용주연합회는 동 법안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37% 반대 55% 모르겠다가 8%로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

[The Federalist, 2014.01.20]



EU 이주민 규제 논란 → 육아수당 문제로 확산

- EU 이주민 규제 논란이 육아수당 문제로 확산되면서 동·서유럽 사이 갈등이 고조
 - 현재 EU 내에서 이주민 자녀에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당 지급 체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은 복지차별이라며 반발
 - EU 집행위원회도 서유럽 국가들의 육아수당 지급 체계 개정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자유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는 단일시장의 대원칙이라고 강조
 - * 안도르 위원은 동유럽 주민들이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혜택만을 노리고 이주한다는 복지관광론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이들 이주민들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주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는 영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나타나 동유럽에 진출한 서유럽 기업들이 긴장

[STANDART, 2014.01.13]



독일 경제연구소, “EU 이주민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과장”

- 독일 쾰른 IW 경제연구소가 독일로 생활 터전을 옮긴 EU 이주민들로 인해 독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
 - 이는 독일로 온 전체 이주민 중 3분의 1이 30세 이하 청년층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4%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이들에게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30세 이하의 경우 1인당 연간 2천 유로, 65세 이상은 6천 유로 정도
 - 더욱이 독일 내 전체 이주민들의 사회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42%로 독일 국민(35.5%)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유입, '11년 기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들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5%로 독일인 평균 19%를 상회
 - 이러한 통계는 EU 이주민들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일반 통념과 배치
 - 연구소 측은 EU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가운데 전문인력 부족을 완화해 독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납세를 통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실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

[IW-Köln, 2014.02.04]



스웨덴, 민간 의료보험 가입 확산 ... 환자 대기시간 절감 장점

- 보건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확산, 현재 52만명 정도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
 - 특히 직장인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10%를 상회한 가운데, 이들 중 80% 정도는 고용주가 보험료를 대납
 -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와 약제비가 12개월 기준으로 각각 1천1백 크로나(미화 약 170불)와 2천2백 크로나를 상회하지 못하며 그 이상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
 - 그러나 공공 의료보험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으려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반면, 민간 의료보험을 이용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각각 최대 4일과 15일만 기다리면 충분
 - 이와 관련, 유럽 보건의료시스템 비교평가기관인 벨기에 HCP(Health Consumer Powerhouse)의 보고서에 의하면 긴 대기시간 때문에 스웨덴 의료서비스 순위는 '12년 6위에서 '13년 11위로 추락

[New American, 2014.01.24]



스위스, EU 이주민 보건복지 혜택 제한 국민투표 가결

- 스위스 유권자들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EU 이주민의 보건 등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0.34%의 찬성으로 가결
 - 스위스에는 EU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의료와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초래, 의회 다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동 법안을 제정
 - 스위스 정부는 이번 국민투표 가결에 따라 EU 이주민들에 대한 유입 상한을 재설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
 - 그러나 EU집행위는 스위스가 EU와 체결한 이주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데 반발, 스위스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
 - * 집행위는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용 국가에서 받는 보건 등 복지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해당 국가의 복지 역량이 강화된다고 주장

[Wall Street Journal, 2014.02.10]



스위스연방통계청, “전체 신생아의 2%는 시험관 아기”

- 스위스연방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SFSO)은 지난 '12년 스위스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2%가 시험관 아기로 조사됐다고 발표
- '12년에는 모두 6천321쌍의 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신청했으며, 1만821건의 시술을 통해 2천267명이 임신했고 이들 가운데 1천993명의 신생아가 출산
- 신생아 중에는 297쌍의 쌍둥이(이중 10쌍은 세쌍둥이)가 포함된 가운데, 59명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
- 시험관 시술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의 연령은 평균 36세였으며 부부 중 1인은 40세가 넘는 상태에서 시술을 단행
- 시험관 시술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남성 불임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남녀 모두의 불임(30%)과 여성 불임(16%) 순
- * 한편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지난 1978년 7월 영국에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4.03.25]



노르웨이 정부, 의료진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 노르웨이 정부가 의료진에게 양심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재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
- 벤트 회이아(Bent Høie) 보건부 장관은 올 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의료진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발표
- 의료진의 낙태시술 거부권은 지난 '11년 좌파 연정에서 폐지된 바 있으나 이후 우파 연립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연정을 주도한 기독교민주당이 재도입을 추진
- 노르웨이 정부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절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낙태시술 거부 의료진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료진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결국 굴복
- 지난 3월 여성의 날에는 정부에 추진 철회를 압박하면서 낙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 오슬로에서 전개

[The Local, 2014.04.25]



러시아, 푸틴궁 건설에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자금 유용 의혹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 흑해 연안에 세워지고 있는 소위 푸틴궁(Putin's palace) 건설 자금의 일부가 러시아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자금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

- 소식통들은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10억불 규모의 러시아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료장비를 시가보다 비싼 1억9천5백만불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8천4백만불의 차액을 푸틴궁 건설을 위해 빼돌렸다고 전언

* 이 자금은 스위스 은행 계좌를 거쳐 푸틴궁 건설 자금을 담당하는 리히텐슈타인의 한 계좌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

- 푸틴궁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한 불법 자금 흐름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
- 한편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의심스러운 러시아 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

[EU-Russia Centre, 2014.05.22]



덴마크 축산 돼지 슈퍼박테리아 파문 ... 스웨덴, 수입중단 검토

○ 덴마크에서 축산 돼지의 슈퍼박테리아로 인해 4명이 사망, 스웨덴이 덴마크산 돼지 수입중단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

- 덴마크 보건부는 덴마크 축산 돼지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슈퍼박테리아 'MRSA CC 398'로 인해 지난 '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 보건부는 이 박테리아가 동물과 인간 사이 감염이 가능하고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 인체에 치명적이기는 하나 돼지고기 섭취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갈수록 확대
- 이웃 스웨덴은 덴마크 MRSA CC 398 감염 사망의 원인으로 항생제 과다사용을 지적하면서 덴마크산 돼지 수입 중단을 검토, 덴마크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덴마크 정부도 양국 교역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덴마크는 현재 스웨덴에 돼지고기를 연 19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Copenhagen Post, 2014.05.30]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결정

-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가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 파문이 확산
 - 재판소는 지난 '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은 뒤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39세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치료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
 - 재판소는 또 환자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
 - * 환자의 아내 역시 남편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과 물 제공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환자 부모와 친척들은 연명 치료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찬반양론으로 시끌
 - 프랑스에서는 이웃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달리 안락사가 불법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BioEdge, 2014.06.27]



유럽, 에볼라 방역 대책 마련 비상

-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럽이 방역 대책 마련에 비상
 - 영국 보건부는 감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에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감염환자 식별 및 대응 지침을 숙지시키는 등 출입국 현장에서 에볼라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가동
 - 프랑스 사회복지부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프랑스나 유럽에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 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의료기관에 비상 경계령을 발령
 - 유럽연합(EU)은 에볼라 감염자가 역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원국들에게 감염자 추적 및 격리 치료 시스템 마련을 촉구
 -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며, 기니·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이래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

[Express, 2014.08.03]



터키, 그리스 의사로 국립병원 의사 충원

- 터키 보건부가 그리스 의사를 수입, 국립병원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로 결정
 - 보건부는 민간병원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의사 채용을 국립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메흐메트 뮈에진오울루(Mehmet Müezzinoğlu) 보건부 장관은 그리스 보건부에 의대 졸업생이 터키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방안을 공식제안
 - 터키는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가 17.1명으로 EU 평균인 34.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그리스는 61명으로 2배에 근접
 - 현재 터키에 부족한 의사 수는 전공의 2만명과 일반의 1만명 등 3만명 정도
 - 터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병원의 외국인 의사 근무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데 이어 외국에서 활동하는 터키인 의사 2천500여명 모두에게 서한을 보내 고국에서 근무해 줄 것을 요청
 - 터키 정부는 향후 10년 내 국내 의사 수를 8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Turkish Press, 2014.08.12]



스위스, 의료보험 통합 국민여론 팽팽

- 스위스에서 의료보험 통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팽팽
 - 스위스 정부는 90여 민간 보험업체가 난립해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의료보험으로 통합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28일 실시
 - 이에 앞서 스위스 유력 일간 '20 미닛스(20 Minutes)'가 유권자 1만7천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 부동층은 2%로 나타나 투표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언어권별로는 독일어권 유권자의 43%가 찬성한 반면 프랑스어권은 66%가 찬성했는데, 전문가들은 독일어권 주민들은 보다 자유로운 체제를, 프랑스어권 주민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
 - * 또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투표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설명
 - 한편 현재 스위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90여 민간 보험업체 중 가입 업체를 선택하도록 요구

[Le News, 2014.09.10]



스위스 정부, 의료보험 통합 추진 무산

- 스위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보험 통합 추진 계획이 무산
 - 스위스 정부는 민간 보험업체가 난립해 있는 의료보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의료보험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유권자 62%의 반대로 무산
 - * 현재 스위스에서는 민간 보험업체의 의료보험에 모든 거주민이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월 보험료는 성인 1인당 평균 400 스위스프랑(미화 약 418불) 정도이고, 치과 진료비 등은 의료보험에 미포함
 - 의료보험 통합 찬성 측은 지난 20년간 의료 관련 비용이 80% 증가한 가운데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무려 125% 급증했다며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명
 - 반면 반대 진영은 스위스 인구가 노령화되고 값비싼 첨단 의료시설 이용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의료제도를 개혁해도 의료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

[CNS News, 2014.10.03]



EU, '에볼라 차르' 제도 도입 ... 물적·인적 자원 업무 총괄

- EU 정상들이 '에볼라 차르(Ebola Czar)' 제도를 도입, 키프로스 출신의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데스(Christos Stylianides) 원조·구호·위기대응 담당 선임 EU 집행위원을 책임자로 선임
 - 이에 앞서 EU 외교장관들은 모든 유럽인들이 힘을 모아 에볼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에서 요구되는 물적·인적 자원을 한 곳으로 모아 총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
 - * 미국의 경우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론 클레인(Ron Klein)을 에볼라 차르로 임명
 - 한편 EU 집행위는 에볼라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1억8천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EU 외교장관들은 서아프리카로 파견된 EU 의료진이 에볼라에 감염될 경우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기를 마련한 데 이어, 일반인의 서아프리카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

[Euro Post, 2014.10.31]



네덜란드·영국, 고병원성 AI 발생 비상

-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 관계 당국이 비상
 - 네덜란드에서는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남쪽에 위치한 헤켄도르프(Hekendorp)의 양계 농가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인근 캄퍼벤(Kamperveen)의 양계 농가에서도 검출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 지역의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주변 양계장에 대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H5N8형 AI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냥을 금지
 -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동요크셔(East Yorkshire)의 오리농장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오리 살처분을 지시한 데 이어 오리농장 반경 10km 내에 통행 제한 조치도 단행
 - 한편 EU집행위는 역내 고병원성 AI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 양계장 주변 지역의 가금류, 가금류 고기와 달걀 등 부산물의 수출을 전면 중단시킬 계획

[ABC, 2014.11.21]



EU집행위, 회원국에 에볼라 의사 5천명 파견 요청

-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정부들에게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에서 에볼라 퇴치 활동에 종사할 의사 5천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집행위는 에볼라 상황이 너무 심각해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파견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회원국 정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
 - 이와 관련, 피테니스 안드류카이티스(Vytenis Andriukaitis)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14개 회원국 장관들과 만나 에볼라 발생국에 의료진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
 - 또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디스(Christos Stylianides) EU 에볼라 코디네이터 도 회원국 장관들에게 지원 기금과 물품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에볼라 퇴치를 위한 집행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
 - 한편 집행위 요청에 앞서 EU 28개 회원국은 에볼라 퇴치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총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Sydney Morning Herald, 2014.11.27]

4.6 아시아



ADB·일본, 몽골에 건보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일본 정부가 몽골 건강보험 관련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15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금은 일본 정부 산하 신탁기금인 '빈곤 감소를 위한 일본 기금(Japan Fund for Poverty Reduction : JFPR)'으로 조성되며, 집행은 ADB가 담당
 - * 몽골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난 '94년 구축된 이후 전체 인구의 90%를 커버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증가하는 보험료 지출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ADB는 이번 지원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건강보험 담당자들이 건보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빈곤층·무직자·유목민 계층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 News Agency, 2013.12.16]



말레이시아 보건부, Dengue 比상 ... Aedes 蚊 防 疫 强 化

- 말레이시아에서 올 들어 지난 1월22일까지 Dengue 患者가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한 6천155명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도 10명으로 배로 늘어 보건부가 비상
 - 지역별로는 슬랑오르(Selangor)주에서 전체의 51%인 3천168명의 患者가 발생했고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시와 푸트라자야(Putrajaya)시에서도 각각 666명과 502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患者가 급증
 - 보건부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Dengue 被害가 지난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 Aedes 蚊(Aedes mosquito) 서식지 통제 등 방역 작업을 강화
 - * 보건부는 Aedes 蚊의 경우 극소량의 물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지적, 우기에 Aedes 蚊 서식지가 늘어난 것이 Dengue 발생이 급증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
 - 또 다툽 세리 수브라마니암(Datuk Seri Subramaniam) 보건부 장관은 정부의 방역 작업과 함께 각 가정에서도 Aedes 蚊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식지를 제거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

[The Star, 2014.01.25]



인도네시아 정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착수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 보험 프로그램(Jaminan Kesehatan Nasional : JKN) 본격 시행에 착수
 -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의 48%에 대해 단계적으로 JKN 등록을 시작했으며, 오는 '19년까지 전체 2억4천700만명에 대해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
 - 정부는 '19년에는 연간 150억불을 JKN에 투입할 예정으로, 빈곤층에는 매월 1인당 2불을 지원하는 대신 부유층에게는 월수입의 5%를 JKN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
 - * 그러나 빈곤층이나 부유층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사에 대한 수가보상이나 보험 대상 의약품 지정 등 적어도 향후 2년은 혼란이 예상
 - 인도네시아는 의사 부족 현상도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한 온라인 자문 등 정보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의약품 대량 구매를 통한 JKN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는 계획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4.03.10]



뉴질랜드 보건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책 마련 총력

- 뉴질랜드에서 신종플루(H1N1)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보건부가 방지책 마련에 총력
 - 보건부는 혹스베이(Hawke's Bay) 지역에서 지난 2월말부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8명에 이르며,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
 - * 지난 '09년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크게 번졌을 때 뉴질랜드에서는 78만여명이 감염되어 4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
 - 보건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고열·근육통·설사 등 증상을 보인다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지난 '09년 전세계에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환자는 총 1만8천명 정도로 추산

[New Zealand Herald, 2014.03.25]



호주 정부, 연금 수령시기 67세 → 70세 연장

- 호주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로 결정
 - 조 호키(Joe Hockey) 재무장관은 호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 장관은 그러나 1965년 출생자가 70세가 되는 2035년부터 연금 수령시기가 연장돼 아직 2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국민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
 - 호주의 연금 수령시기는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인 '09년 65세에서 67세로 조정
 - 호주에서는 65~84세 고령 인구가 2010~2050년 사이 2배 특히 85세 이상은 4배 급증한 가운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3명중 1명은 기대수명이 100세
 - 한편 노인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면서 호주인들의 정년퇴직 연령도 재조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Sydney Morning Herald, 2014.05.02]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지순례 자제 권고 ... ‘메르스’ 차단 포석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슬람 신자들에게 성지 순례 연기를 권고하는 등 차단 대책 마련에 고심
 - 보건부는 특히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는 메르스 감염 위험군에 속한다고 지적, 이들에게 올해 사우디 성지순례인 하지(Haji)를 연기할 것을 강력 권고
 - * 이번 권고는 인도네시아인 한 명이 사우디 제다의 킹사우드병원에서 메르스로 치료받다 숨진 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가 감염자 조사에 나서는 등 메르스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표
 - 보건부는 또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하지순례 때까지 차단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피력
 - 한편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 신자 1천명당 1명꼴로 국가별 하지 순례 쿼터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하지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

[Khabar Southeast Asia, 2014.05.09]



호주 정부, 실업수당에 약물검사 연계 논란

- 케빈 앤드루스(Kevin Andrews) 호주 사회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뉴질랜드의 사례를 따라 실업수당 수령자에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파문이 확산
 - 앤드루스 장관은 뉴질랜드의 사례는 호주의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
 - 뉴질랜드는 실업수당이 마약 구입에 사용되는 사례를 막으려고 실업수당 수령자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수당 지급을 제한
 - 그러나 비난이 빗발치자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는 실업수당에 약물검사를 연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
 - 하지만 애벗 총리의 발언 직후 집권 여당 조지 크리스텐센(George Christensen) 의원이 납세자 세금으로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앤드루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가중

[Guardian, 2014.06.05]



호주, 에볼라 불간섭 방침 철회 ... 국제압력에 의료진 파견 결정

- 호주 정부가 에볼라 불간섭 방침을 철회, 시에라리온에 의료진을 파견기로 결정
 - 당초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는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파견할 수는 없다며 대신 에볼라 퇴치 기금으로 유엔에 1천만 호주달러(미화 약 880만불)를 기부하겠다고 발표
 -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미국과 영국 등 우방국들은 에볼라가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며 호주 정부에 의료진 파견을 압박했으며,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도 자금이 의사나 간호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비판
 - * 호주 야당인 노동당도 위험하다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기 할 수는 없다며 정부를 비난
 -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호주 의료진이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다가 에볼라에 감염되면 영국으로 후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영국과 체결한 뒤 시에라리온에서 영국이 설립할 야전병원을 운영할 의료진 수백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

[Sydney Morning Herald, 2014.11.09]



호치민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 파문

- 선거법 개정을 논의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 의원 상당수가 시의회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 파문이 확산
 -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시의회 의원 가운데 몇몇이라도 5년간의 긴 임기 중 정신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 이유를 설명
 - 또 후보의 건강 기준 요건이 모호한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정신병원에서 갓 퇴원한 환자도 얼마든지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
 - * 이들은 의회 의원 후보에 적용되는 건강검진 요건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과 같아서 안 되며 각 후보는 인지능력과 정신상태, 심리 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법안 제정에는 최근 일부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의 개인 블로그에 중상·모욕하는 글을 올려 적잖은 논란을 빚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도 알려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

[Tuoitrenews, 2014.11.06]

4.7 중동



카타르, '14년 4월 건강보험제도 2단계 돌입

- 카타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 건강보험제도 도입 프로젝트 제 2단계 작업이 오는 '14년 4월 시작
 - '14년 4월부터 모든 카타르 국민은 국립건강보험공사(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any : NHIC)*를 통한 건강보험 상품 구매가 의무화
 - * 의무 건강보험제도를 이행·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
 - 또 기존 건강보험회사들은 NHIC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 수개월 전 시작된 제 1단계 작업은 카타르 국민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2단계에서는 남성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카타르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NHIC를 통한 건강보험 상품 구매가 의무화
 - 2단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건강보험제도 도입은 사실상 완성
 - 한편 카타르 국민의 건강 보험료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의 보험료는 채용 기업이 부담

[Middle East Insurance Review, 2013.12.17]



사우디 보건부, 헬스케어 시설 7곳 전격 폐쇄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가 수도 리야드 인근 광학센터(optical centre) 3곳, 종합병원 2곳, 치과병원 2곳 등 헬스케어 시설 7곳을 전격 폐쇄
 - 사드 알 카흐타니(Saad Al Qahtani) 리야드 보건국 대변인은 이들 시설이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했거나 자격이 없는 기술자들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했으며, 의료진과 장비 현황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헬스케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
 - 보건국은 향후에도 헬스케어 업체들이 적절한 절차 아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

- 이번 폐쇄에 앞서 '13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리야드에서는 24개 의료시설과 10개 약국이 폐쇄조치를 당했으며, 인근 제다이시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9개 헬스케어 시설이 폐쇄
- 한편 사우디 정부는 '12-'14년 보건 및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1천80억 리얄(미화 약 288억불)의 예산을 편성, 의료단지 2곳과 병원 11곳 등을 설립할 계획

[Arabian Business, 2013.12.29]



두바이 정부, 모든 거주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두바이 정부가 '14년부터 모든 거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 이와 관련, 두바이 정부는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4년 10월,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은 '16년 7월, 1백명 미만 사업장은 '16년 6월까지 전체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을 통고
 - 또 외국인 보험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외국인 부양가족 보험은 외국인 스스로 담당하도록 규정한 뒤, 사업주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신규 발급과 갱신을 제한할 계획
 - * 두바이보건청(DHA)은 외국인 부양가족 보험을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권유
- UAE 7개 자치정부 중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정부는 지난 '07년 아부다비에 이어 두바이가 두 번째로, 늦어도 '16년까지는 3백만에 달하는 모든 두바이 거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

[Gulf Today, 2014.01.01]



카타르, 의료분쟁 전문 재판소 설립 추진

- 자말 알 칸지(Jamal Al Khanji) 카타르 최고보건평의회(Supreme Council of Health : SCH) 대표대행이 카타르 정부는 의료분쟁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소개
 - 칸지 대표대행은 이를 위해 SCH와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 SJC) 및 카타르국제재판소분쟁해결센터(Qatar International Court and Dispute Resolution Center : QICDRC)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
 -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구축을 검토해 왔으며 의료분쟁 전문 재판소 설립은 그러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강조
 - * 정부는 일반 재판소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의료분쟁 전문 재판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한편 칸지 대표대행은 의료분쟁 전문 재판소 설립과 관련, SCH가 의료분쟁 시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

[Arabian Business, 2014.01.26]



이란, ‘로하니케어’ 추진 ... '18년까지 전체 국민 가입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 소위 ‘오바마케어’의 명칭을 따서 이란의 건강보험 정책을 ‘로하니케어(Rouhancare)’로 명명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로하니 대통령은 자신의 영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정부는 전체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 이를 위해 일단 첫 단계로 보험에 미가입된 국민 5백만명, 오는 '18년까지는 전체 국민을 로하니케어에 가입시키겠다고 설명
 - 또 로하니케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정부 보조금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소개
 - 한편 이란 정부는 기독교인들과 유대계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란 유일의 병원인 닥터사피르병원및자선센터(Dr. Sapir Hospital and Charity Center, 테헤란 소재)에 40만불을 지원

[Guardian, 2014.02.06]



카타르, 민관 헬스케어 시설 CCTV 설치 의무화

- 카타르 최고보건평의회(Supreme Council of Health : SCH)가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병원 의료진이나 임직원 등에 빈번하게 가하고 있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헬스케어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 설치 대상 업체는 종합병원 및 일반의원, 치과, 의료단지내 약국, 병원실험실, 의료분석 연구실, 의약품 제조공장, 식품보조제 상점, 특수 장애치료 센터, 뷰티상점, 사회재활 시설, 물리요법 시설 등
 - * 반면 면제 대상은 일반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점, 허브제품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양로원, 학교 응급처치 시설 등
 - 대상 업체는 내무부 보안시스템국(Security Systems Department : SSD)으로부터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 요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
 - SCH는 CCTV 설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Arabian Business, 2014.02.10]



두바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보건법 발효

- 두바이 정부가 모든 거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새 보건법이 발효
 - 이에 따라 두바이에서는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4년 10월,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은 '16년 7월, 1백명 미만 사업장은 '16년 6월까지 전체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 보건법은 또 외국인 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고, 외국인 부양가족 보험은 외국인 스스로 담당하며, 사업주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비자 신규 발급과 갱신을 제한하도록 규정
 - * 두바이보건청(DHA)은 외국인 부양가족 보험을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권유
 - 보건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는 최대 15만 디르함(미화 약 4만불), 법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
 - UAE 7개 자치정부 중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는 지난 '07년 아부다비에 이어 두바이가 두 번째

[Arabia365, 2014.03.07]



두바이보건청, 의료관광 적극 육성 ... '20년까지 50만명 유치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 DHA)이 두바이를 가격과 품질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의료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
 - 이를 위해 제1 단계로 오는 '16년까지 특수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구비하고, 의료관광 전용 포털을 구축할 방침
 - 또 제2 단계로 '20년까지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의료관광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두바이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
 - 지난 '12년 두바이를 방문한 해외 의료관광객은 이웃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회원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10만7천명이며,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6억5천270만 더햄(미화 약 1억7천750만불)
 - 그러나 오는 '16년까지 GCC외 러시아와 동유럽 및 남아시아까지로 지평을 넓혀 17만명이 11억 더햄을 사용하고, '20년까지는 50만명이 26억 더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DHA의 구상

[Medical Tourism News, 2014.04.01]



사우디, '메르스' 대책 마련 부심 ... 전문가 자문위 설립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보건부 산하에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
 - 자문위는 타릭 마다니(Tariq Madani) 보건부 특별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메르스 바이러스 규명과 메르스 감염 상황 파악 및 감염자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업무
 - 사우디에서는 2년 전 메르스가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339명이 감염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중 102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올 4월 이후 143명이 감염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
 - * 메르스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증상과 신부전증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40%에 육박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약이나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
 - 메르스는 사우디를 비롯해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 중동 전반은 물론 프랑스·독일·그리스 등 유럽으로도 확산된 가운데 동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발생

[Khaleej Times, 2014.04.28]



쿠웨이트 의회, 외국인 방문객 건강보험 의무화 검토

- 쿠웨이트 의회가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 이 법안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나, 국영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
 - * 이와 관련,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외국인에 앞서 자국민에게 진료의 우선권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자국민은 오전에 쿠웨이트 의사로부터, 외국인은 오후에 외국 출신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구분해 논란
 -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신규 병원이 하나도 설립되지 못한 가운데, 보건부는 올 초 9개의 신규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10여년 전에도 동일한 계획을 말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 한편 쿠웨이트 보건부는 자국민에게는 무료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나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연간 최소 175불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Arabian Business, 2014.05.13]



사우디, ‘메르스’ 전문 의료센터 설립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센터 설립을 추진
 - 사우디 정부는 제다이 소재 킹압둘의료단지(King Abdullah Medical Complex : KAMC) 내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알-데왈리아(Al-Dhewalia) 전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보건담당 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이미 선임
 - 또 KAMC 관계자들은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침상과 장비를 구비하는 등 설비 구축 작업에 분주
 - 사우디에는 지금까지 511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이중 157명이 사망
 -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증상과 신부전증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40%에 육박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약이나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
 - 한편 현재 KAMC에는 500 병상 규모의 메인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400 병상 이상 산부인과 병원과 200 병상 이상의 안과 병원이 건설 중

[Arabian Business, 2014.05.20]



사우디 제다시, 의료규정 위반 12개 의료센터 영업 정지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보건부(Jeddah Health Affairs)가 시내 12개 의료센터(구체적 명단은 미공개)에 대해 의료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
- 보건부는 일부 의료센터의 경우 HIV 검사에서 몇몇 외국인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보건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포착
- 또 일부 센터에서는 △혈액 샘플 분류에 오류가 있었고 △의무기록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유한 전문의와 기술자 수가 규정에 미달했고 △의료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의료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가뜰이나 의료장비가 낙후된 가운데 그나마 이들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
- 보건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면허 취소 조치까지도 부과한다는 방침

[Arabian Business, 2014.06.10]



두바이보건청, 라시드병원 마스터 계획 착수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 DHA)이 라시드병원(Rashid Hospital)을 현대화하는 마스터 계획 1단계 사업을 시작
- 두바이 정부는 지난 '13년 총 30억 더햄(미화 약 8억1천600만불)의 예산이 투입되는 라시드병원 현대화 마스터 계획을 발표
- 이번 1단계 사업에는 1억6천100만 더햄(4천400만불)을 투입, 라시드병원 중앙응급센터 병상을 160개 확충할 방침
- 중앙응급센터는 지난 '06년 설립된 이후 환자 수요가 거의 2배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16만6천여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
- 한편 라시드병원 마스터 계획에는 △전문 헬스센터 6곳 △4성급 호텔 1곳과 5성급 호텔 1곳 △빌라와 아파트 등 의료진 전용 숙소 △회교사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위락 시설 △300병상 규모의 병동 3곳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

[Healthcare Facilities Today, 2014.06.20]



카타르, '20년까지 48개 신규 헬스케어 프로젝트 완료

- 카타르 최고보건위원회(Supreme Council of Health : SCH)는 오는 '20년까지 최대 48개 헬스케어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
- 프로젝트는 헬스센터 31곳, 진단·치료 클리닉 8곳, 종합병원 1곳, 특수병원 1곳, 장기치료시설 2곳 건설 및 기존 병원 확장 공사 5건으로 구성

▼ 프로젝트 구성 및 완료 연도

구성	완료 연도 (예정)
헬스센터 건설 (14곳)	'16년
헬스센터 건설 (17곳)	'18~'20년
진단·치료 클리닉 건설 (8곳)	'16년
종합병원, 특수병원, 장기치료시설 건설	'15~'19년
기존 병원 확장 공사	'16~'20년

- 이번 계획은 지난 '13년 SCH가 발표한 카타르 보건설비 마스터플랜(Qatar Health Facilities Masterplan : QHFMP)*의 첫 번째 실행 계획
- * 오는 '30년까지 20년 동안 카타르 헬스케어 부문을 개선하는 장기 프로그램
- SCH는 헬스케어 인프라 프로젝트가 카타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

[Arabian Business, 2014.07.02]



이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사상 첫 개설

- 이란 정부가 국립 테헤란대 의과대학 산하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개설
-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가 불법인 금주 국가 이란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가 개설되기는 사상 처음
-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도 음주가 공공연히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 하지만 이란에서는 음주에 관한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이스마에일 아마디-모카담(Esmaeil Ahmadi-Moqaddam) 이란 경찰청장은 알코올 중독자 수를 20만명 정도로 추산
- 한편 이란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마약과 주류가 대량 밀반입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이란 정부는 이들 밀매업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AP, 2014.08.15]



이란 의회, 영구 피임수술 금지 법안 가결

- 이란 의회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 피임수술 금지 법안을 가결
 - 법안은 남성의 정관 절제 수술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여성의 수술을 불법화하고 있으며, 콘돔과 같은 피임용 기구의 광고도 금지
 - 이번 법안 가결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이란 인구는 7천700만명
 - 이란은 지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추진되어 온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혁명 당시 3.6명에서 현재는 1.3명으로 급격하게 하락
 - 한편 이란에서는 낙태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영구 피임수술 금지로 인해 불법 낙태가 성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BioEdge, 2014.08.23]



두바이 보건부, 신규 의료관광 정책 막바지 조율

- 두바이 보건부는 두바이보건부구상(DHA initiative)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광 정책을 준비 중으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라마단 이브라힘(Ramadan Ibrahim) 보건부 의료규제·의료관광 국장이 발표
- 이브라힘 국장은 현재 보건부, 이민부, 관광통상마케팅부 등 정부기관과 에미리츠 할리 테이스(Emirates Holidays) 등 특급호텔, 기타 관계업체들이 참여해 의료관광 정책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 또 새로운 의료관광 정책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피부시술·치과수술·건강검진·성형수술·정형외과수술·안과수술 부문에서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 한편 지난 '12년 두바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0만7천명이며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6억5천270만 더햄(미화 약 1억7천750만불)으로 집계된 가운데, 보건부는 오는 '16년까지 17만명이 11억 더햄 '20년까지는 50만명이 26억 더햄을 지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비한다는 방침

[Travel Biz Monitor, 2014.08.29]



쿠웨이트 보건부, 외국인 관광객 건강검진 의무화 검토

- 쿠웨이트 보건부가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이는 관광객에는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지 않은 점을 악용,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취업비자를 받아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무려 2천여명이 AIDS나 폐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 또 최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에볼라가 각각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창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쿠웨이트 보건부는 일정기간 이상 쿠웨이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Arabian Business, 2014.08.26]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적극 육성 ... 100만 환자 유치 기대

- 두바이 정부가 지난 상반기 두바이헬스케어시티(Dubai Healthcare City : DHCC)에서 신규 헬스케어센터 9곳을 설립하는 등 DHCC를 적극적으로 육성
 - 두바이 정부는 신규 헬스케어센터 설립에 따라 315명의 의료진을 신규 채용, DHCC 내 의료진 수는 총 4천100명을 돌파
 - 두바이 정부는 지난해 DHCC를 찾는 환자 수가 100만명 정도라고 밝힌 뒤 올해는 20% 증가한 120만명 정도의 환자가 찾을 것으로 기대
 - * 지난 상반기 DHCC를 찾은 환자는 60만명을 상회한 가운데, 이 중 15% 정도는 걸프협력회의(GCC)를 중심으로 인근 중동 국가와 동서 유럽 및 아시아 출신 의료관광객으로 집계
 - 또 DHCC가 상반기에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성공리에 체결했을 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도 정부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며 DHCC가 큰 발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이와 함께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헬스케어 부문이 인구 및 소득 증가와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당분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Dubaiye, 2014.10.22]



두바이보건청, 건강보험 가입과 체류비자 발급 연계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 DHA)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발급을 연계한다고 발표
 - DHA는 이번 조치가 모든 관계당국과의 협의 끝에 나온 것으로, 경제특구를 포함해 두바이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설명
 - DHA는 1단계로 1천명 이상의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금년 10월말까지, 2단계로 100명 이상 999명 기업에는 '15년 7월, 3단계로 100명 미만 기업에는 '16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 * 1단계에서 적용을 받는 기업 수는 300여개, 종업원 수는 7만여명으로 추산

- 이를 위반한 기업주는 최소 500 디르함(미화 약 136불)에서 최대 15만 디르함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재위반시 50만 디르함까지 벌금이 부과
- 한편 두바이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두바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주가 부담

[Arabian Business, 2014.10.29]



두바이, '15년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인상 4.22%로 제한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 DHA)이 내년도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인상 상한폭을 4.22%로 제한한다고 발표
- 에사 알 마이도어(Essa Al Maidoor) DHA 사무총장은 두바이통계센터(Dubai Statistics Centre : DSC)가 발표한 연 인플레이션에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인상 상한폭을 설정했다고 설명
- 마이도어 총장은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의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규제를 통해 헬스케어 업체의 수익성 확보와 환자의 이해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소개
- 또 가격 인상은 보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모든 병의원 뿐 아니라 보험업체에도 적용된다고 강조
- 마이도어 총장은 이와 함께 헬스케어 가격인상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11월말까지 DHA에 신청하면 DHA가 결정해 향후 12개월 동안 그 가격이 시행될 것이라고 소개

[Arabian Business, 2014.11.05]



사우디 보건부, ‘메르스’ 재발 대책 마련 비상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가 최근 들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MER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마련에 비상
 - 보건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난 9월에는 12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에 24명, 11월 들어서도 13일까지 23명으로 늘었다며 촉각을 곤두
 - * 이에 따라 메르스가 처음 발병된 '12년 이후 지금까지 사우디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802명이며 이 중 340명이 사망
 - 메르스는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와 증상은 유사하지만 치사율은 4배인 40%에 육박
 - 메르스 바이러스는 낙타에서 발견됐으나 인간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사우디 보건부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가운데 국민들에 낙타우유와 고기를 피하도록 권유하고 의료기관에 메르스 감염자 치유 준비를 갖추 것을 요구했으나 확실한 대책이 되지 못해 고심

[Global Post, 2014.11.13]

4.8 글로벌



WHO·글로벌 각국, 비만 대책 마련에 부산

-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심혈관 질환·암·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산
 - WHO는 '13~'20년 행동계획에서 비만 확산 방지를 WHO가 추구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 선정한 뒤 각국 정부에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한 과세를 권고
 - 또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비만 방지책을 마련

▼ 주요국 비만 방지 대책

국가	내용
멕시코	• '14년 1월1일부터 고열량 패스트푸드에 가격의 8%, 당분을 함유한 청량음료에는 리터 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
미국	• '12년 11월 비만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이 식품에 함유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임을 발표
헝가리	• '11년 스낵과 청량음료 등 염분이나 당분이 높은 식품에 과세하는 소위 '감자 칩 세금'을 도입
일본	• 위 국가들에 비해 비만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후생노동성은 특히 남성의 비만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

[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on Center, 2014.02.04]



WHO, “메르스 비상사태 선포 시기상조”

-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글로벌 보건에 매우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
 - WH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국제 보건규제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메르스가 글로벌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설명

케이지 후쿠다(Keiji Fukuda) WHO 사무차장은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전세계인들에게 자칫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이 있다며, 메르스에 대한 글로벌 비상사태 선포 여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 메르스는 고열 · 호흡곤란 · 폐렴 · 신부전증 등을 동반하고, 원인 동물은 박쥐, 매개 동물은 낙타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밝혀졌으나 예방이나 치료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

[MED trip, 2014.05.27]



WHO, “에볼라 통제에 4억3천만불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6~9개월 내 통제하기 위해서는 4억3천만불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4억3천만불은 WHO가 지난 8월초 각국에 긴급 요청한 7천100만불의 6배 정도로, WHO는 향후 2개월 내 현재 추세를 반전하고 6~9개월 안에 전염을 중단시킨다는 목표를 이루려면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자금은 에볼라 발병국이 대부분 빈곤국가로 의료수준도 낮은 만큼 에볼라 환자 치료와 격리, 발병 집중지역의 진료의뢰협력센터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
- 한편 에볼라 방지를 위해 세계은행이 2억불, 아프리카개발은행이 6천만불의 지원을 결정했고, 일본은 당초 52만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50만불로 증액했으며, EU는 190만 유로를 지원한 데 이어 200만 유로 추가 지원을 약속

[BusinessWeek, 2014.08.25]



국제사회, 에볼라 공포 확산 ... 공항 검역 시스템 강화

- 에볼라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가 공항 검역 시스템을 대폭 강화
 - 미국 연방정부는 뉴욕 JFK공항에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검사를 시작
 - * 입국 검사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체온을 잰 후 건강 상태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재는 입국 검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
 - 미국은 JFK공항에 이어 워싱턴DC의 덜레스공항, 시카고 오헤어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공항, 뉴욕 리버티공항으로 입국 검사를 확대할 예정
 - 또 영국은 히스로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게트윅공항과 유로스타 터미널 등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멕시코와 니카라과는 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검역 모니터링 작업에 돌입하는 등 국제사회가 검역 시스템 강화에 총력

[Wall Street Journal, 2014.10.11]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의료인력 확충에 1억불 추가 지원

- 세계은행이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서아프리카 3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억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
 - 이번 지원은 에볼라 확산으로 5천여 희생자를 낸 이들 국가에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
 - 유엔에 따르면 이들 3개국에는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감염자를 돌볼 700~1천명을 포함, 추가로 5천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황
 - 이와 관련,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에볼라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훈련된 의료인력을 에볼라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충분히 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실토
 -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세계은행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과 에볼라 퇴치와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5억불을 조성해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1억1천700만불을 집행

[World Bank, 2014.10.30]



에볼라 발병국에 대한 비자 중단 확산 ... WHO, 재고 촉구

-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싱가포르 정부가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이 재고를 촉구
 - 호주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부와 보건부가 논의해 서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 캐나다 정부 역시 캐나다인 보호를 위해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기니의 3개국 국민과 지난 3개월 사이 이들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 싱가포르 정부도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발 국가로부터의 입국인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기로 결정
 -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경 통제로 에볼라 전염을 막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발병국들과의 교역과 여행을 통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가 비자 발급 문제를 놓고 갈등

[BBC, 2014.11.03]



WHO, “고령화 추세 부합하는 의료체계 개혁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인구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성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심각한 보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에 고령화 추세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오는 '20년 전 세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5세 이하 어린이보다 많아지고, '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8억4천100만명에서 20억명으로 증가하는 데 이 중 80%는 개도국 국민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의 23% 정도는 암, 만성호흡기 질환, 심장병, 근골격계 질병, 정신이상이나 신경계 질환 등으로 고생할 것으로 예측
 - 또 현재 4천400만명인 치매환자는 '50년 1억3천5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WHO는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국가 보건체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는 고령화되는 인구의 의료 수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Medical News Today, 2014.11.06]



세계은행, ‘전염병 퇴치기금’ 창설 제안

- 세계은행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염병 퇴치 기금(Pandemic Fighting Fund)’ 창설을 제안
 - 이 기금은 전세계에서 확산되는 전염병 치료를 위해 약품 및 백신 개발, 다국적 보건인력 확보, 물자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
 - 또 유엔이 자연재해나 군사분쟁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05년 설립한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과 유사한 성격을 보유
 - * 긴급대응기금은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피해 수습과 내전으로 얼룩진 남수단 지원 등에 투입
 - 세계은행의 전염병 퇴치 기금 창설 제안은 지난 3월 기니에서 에볼라 감염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국제사회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에볼라가 다른 나라로 급속히 확산하게 됐다는 국제사회의 반성에서 비롯
 -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기금 설립에 관해 설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

[Financial Times, 2014.11.15]



유엔, 말리에 에볼라 비상대응단 파견

- 유엔이 서아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5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근 말리로 확산됨에 따라 말리에 ‘유엔 에볼라 비상대응단(UN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 : UNMEER)’을 파견하기로 결정
 - 구급장비 차량 270대와 헬기 5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응단은 유엔평화유지군과 유사한 일종의 보건유지군 형태로 운영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말리에서의 발생한 일련의 에볼라 감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뒤 말리 정부의 결단력 있는 행동과 국제적 지원이 에볼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 * 말리에서는 기니에 다녀온 2세 여아와 70세 이슬람 성직자가 에볼라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데 이어 이들을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5명도 모두 에볼라로 인해 사망
 - 특히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 에볼라 대응을 위한 더 많은 자금과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면 내년에는 에볼라를 완전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1.22]



WHO,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완화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검진 권고 횟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권고안을 채택
 - WHO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2회만 접종받아도 3회 접종과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9~13세 여아의 경우 HPV 백신을 현행 3회가 아닌 2회만 접종받도록 권고
 - 또 대다수 국가가 18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세포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올 경우 적어도 5년 동안은 재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
 - WHO는 권고안을 시행하면 HPV 백신 접종이 수월해지고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특히 개도국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전 세계에서는 매년 27만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이 중 85%는 개도국 국민으로 추정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2.08]

4.9 중남미



브라질 근무 쿠바 의사, ‘모어 닥터스’ 프로그램 이탈 확산

-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근무하던 쿠바 의사 오르텔리오 하이메 게라(Ortelio Jaime Guerra)가 브라질을 몰래 탈출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등 브라질 근무 쿠바 의사들이 잇달아 ‘모어 닥터스(More Doctors)’ 프로그램에서 이탈
 - 지금까지 게라를 포함, 총 23명의 쿠바 의사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
 - 쿠바 의사들은 브라질 정부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모어 닥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해 12월 브라질에 입국
 - * 이 프로그램은 △내국인 의사 1만 명 양성 △'15년부터 의대 졸업생은 2년간 공중보건의로 근무 △필요하면 외국인 의사들을 수입하도록 규정
 - 브라질 정부는 모어 닥터스 프로그램 이탈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쿠바 정부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
 - * 현재 브라질 정부는 1인당 월 1만 헤알(약 4천170불)을 쿠바 정부에 지급하고 있으나, 쿠바 정부는 이 중 1천불만 급여로 지급

[Wall Street Journal, 2014.02.10]



쿠바 정부, 의료진 급여 100% 이상 파격 인상

- 쿠바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월 급여를 100%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쿠바 의사는 월급여가 현재 평균 미화 26불에서 67불, 간호사의 경우에는 13불에서 25불로 인상
 - * 쿠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급여 수준은 20불 정도
 -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44만명에 달하는 의료진들이 혜택을 볼 전망
 - 이번 결정은 쿠바 정부가 최근 4년간 10만9천명의 의료진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감축해 재정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

- 쿠바 정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이들은 현재 5만명(베네수엘라에서만 3만여명)을 상회
- * 쿠바 정부는 해외 근무 의료진들의 급여를 해당국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일부 비용을 공제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

[The Times, 2014.03.25]



쿠바, 의료외교로 국제관계 개선 희망

- 쿠바 정부가 300여 의료진을 라이베리아와 기니에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 의료외교로 국제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쿠바 정부는 296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라이베리아와 기니에 추가 파견, 총 461명의 의료진이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발표
- 이에 대해 마거릿 쉐ن WHO 사무총장은 사상 최악의 에볼라 사태에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력이라며, 쿠바 정부의 관대함에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
-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펼쳐온 쿠바의 의료외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쿠바 정부의 의료진 파견이 서방을 비롯해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평가
- 쿠바는 1960년대 칠레 대지진 이후 재난이 닥친 외국에 의료진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현재 아프리카 32개국 4천여명을 비롯해 전세계 66개국에서 5만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활동 중

[Reuters, 2014.09.27]



브라질 정부, ‘치쿤구니아’ 경계령 선포

- 브라질 정부가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성 질환 ‘치쿤구니아(Chikungunya)’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
 - 브라질에서는 특히 북부 아마파주에서 치쿤구니아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마파주의 주도인 마카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감염 환자가 급증
 - * 인구 3만5천여명의 오이아포키시에서는 150여 건의 치쿤구니아 감염 사례가 보고
 - 치쿤구니아는 땀기열과 마찬가지로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옮기는 것으로 추정
 - 증상도 땀기열과 유사해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이 나타나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
 - 치쿤구니아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도미니카·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서도 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브라질로도 전파돼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비상

[AFP, 2014.10.03]



쿠바, 미국에 에볼라 퇴치 협력 제안 ... 외교관계 개선 포석

- 쿠바가 적대국인 미국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에볼라 퇴치 협력을 제안
 -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에볼라 퇴치를 정치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50여 년간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
 - 쿠바는 지난달 165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시에라리온에 파견하기로 한 데 이어 조만간 300명에 가까운 의료진을 라이베리아와 기니 등에 추가로 보낼 예정인 등 에볼라가 확산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적극적
 - * 쿠바는 인구 137명당 의사가 1명인 중남미 의료 선진국
 - 전문가들은 쿠바가 그러나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은 에볼라 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도 있지만 에볼라 퇴치 협력을 계기로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 언론들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Eurasia Review, 2014.10.27]

4.10 캐나다



캐나다 주정부, 전체 성인 대상 HIV 무상 검사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적극적 AIDS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AIDS 바이러스인 HIV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BC주 내 18~70세 연령층의 모든 주민에게는 5년마다, 동성애자·마약복용자·성매매업소 종사자·캐나다 원주민 등 고위험군으로 별도 분류된 주민에게는 매년 HIV 검사가 무료로 실시
 - * 지금까지 BC주는 임신부에 한해 HIV 검사를 무상 실시
 - 현재 BC주의 HIV 감염자는 1만2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3천500여명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18~80세 연령층에서 200~300여명이 신규 감염자로 진단
 - BC 주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2년간 주내에서 10만 건의 HIV 검사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70만 캐나다달러(미화 약 64만불) 정도의 주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Globe and Mail, 2014.05.13]

4.11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일본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 요청

- 엘렌 설리프(Ellen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에 친서를 보내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의료팀 파견을 요청
 - 설리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급증해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일본이 지원하지 않으면 에볼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간호사·후방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 긴급 의료팀 파견을 요청
 - * 앞서 일본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500만불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
 - 설리프 대통령은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아이티 지진 때 긴급 의료팀을 파견해 크게 도움을 준 전력을 거론하며 긴급 의료팀을 수도 몬로비아에 파견해 치료 거점으로 삼을 것을 호소
 - 또 말라리아 등 에볼라 이외 질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병원을 정비하거나 외국으로부터 터의 물자 운송도 도와달라고 부탁
 -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라이베리아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

[Japan Times, 2014.09.23]



나이지리아, 에볼라 발병 종료 ... GPS 추적·대면조사 등 효과

- 세계보건기구(WHO)가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발병이 종료됐다고 공식선언하면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에볼라 퇴치 전략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
 -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발병이 종료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잠재적 환자들이 신속하게 격리됐고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추적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주효
 - *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초빙한 자문관들이 권고한 규정을 따랐고 환자들을 수용할 격리 병동을 건설했다고 설명

- 나이지리아 정부는 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1만 8천500여 건의 대면조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 여기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국제조직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시킨 전문지식도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에볼라 대처를 담당하는 긴급 대응센터의 직원들에게 자문을 제공

[Wall Street Journal, 2014.10.26]

5. 보건산업 기타

5.1 미국	415
5.2 영국	440
5.3 일본	451
5.4 중국	457
5.5 EU	471
5.6 아시아	486
5.7 중동	493
5.8 글로벌	498
5.9 중남미	505
5.10 캐나다	511

5.1 미국



LA, 길거리 노숙자 급식 금지 놓고 시끌

- 미 LA 시의회가 야외에서의 노숙자 급식 금지안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확산
 - 미치 오파렐(Mitch O'Farrell), 톰 라본지(Tom LaBonge) 시의원은 노숙자에 대한 급식을 실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시의회에 제출
 - * 조례안에는 노숙자에 제공되는 급식은 LA 보건국 규정에 맞는 조리 방식과 보관 및 처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수록
 - 이들 의원은 길거리 급식 금지가 공공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
 - 그러나 여론은 길거리 급식 행사 때문에 노숙자들이 모여들고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분석
 -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주거와 관계없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강력한 반대 시위를 전개
 - 한편 뉴욕을 비롯해 미국의 상당수 대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의 노숙자 급식 행위가 금지

[Foundation Life, 2013.12.18]



콜로라도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개시 ... 연 매출 6억불 전망

- 미 콜로라도주에서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락용(recreational)으로의 마리화나 판매가 개시
 - 이로써 콜로라도주는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되었으며, 1월 첫째 주에만 판매점 40곳에서 5백만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
 - * 현재 대다수 주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만이 마리화나 구매가 가능
 - 규제 조항은 공공장소 내 사용 금지, 과다 사용 금지, 주 외 반출 금지 등

- 콜로라도 의회는 이번 합법화를 통해 오락용 마리화나의 연간 매출이 6억불에 이르고 세수입도 7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
 - * 오락용 마리화나를 포함해 미국의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올해 23억불 향후 5년내 1백억불에 도달할 전망
- 한편 히켄루퍼 주지사는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오남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

[Huffington Post, 2014.01.13]



시카고, 전자담배 규제 강화 ... 일반담배와 동일 취급

- 미 시카고 시의회가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45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 법안 통과에 대해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시카고 시장은 특히 사탕향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미성년자 흡연을 조장하고, 그 결과 일반담배 흡연으로까지 연결될 우려가 높다며 환영의 뜻을 피력
 - 전자담배 규제강화 법안은 오는 4월29일 발효

▼ 전자담배 규제 법안 주요 내용

번호	내용
1	• 식당, 주점, 사무실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 금지
2	• 건물 입구 약 5m 반경 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3	• 전자담배는 매장 선반이 아닌 카운터 뒤편에 한해 진열이 가능
4	• 판매업소는 전자담배 판매 전 구매자 연령 확인이 의무화

[Chicago Tribune, 2014.01.19]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부작용 현실화 ... 미성년자에 무방비 노출

- 미국에서 의료용에 이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역이 증가하면서 마리화나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예견되었던 부작용이 현실화
 - 또 이들 지역에서는 마리화나 성분을 함유한 캔디와 초콜릿 등 마리화나 유사 제품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유혹
 - *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경우 마리화나 유사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유망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편의점은 성인들의 마리화나 성분 스낵류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제품을 대량 입하
 -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 정부는 마리화나를 미성년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진열하고,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게는 마리화나 성분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엄격한 규제 방안을 촉구

[New York Times, 2014.02.01]



FDA, 청소년 금연 광고 대대적 실시 ... 1억1천5백만불 투입

- 미 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송인 MTV와 패션잡지 틴보그 및 소셜미디어 등에 1억1천5백만불을 투입, 청소년 금연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 이번 광고는 미국 전역 2백 곳 이상에서 적어도 1년간 계속될 예정
 - * FDA는 니코틴에 중독된 성인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정확한 폐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훈계하거나 통계수치를 주는 것이 아닌 흡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
 - 이번 광고는 흡연의 위험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FDA는 지난 '11년 향후 5년간 6억불을 금연 캠페인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 미국에서는 매년 48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성인 흡연자의 90% 정도가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매일 청소년 7백명이 상습 흡연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추정

[Great Falls Tribune, 2014.02.10]



미국 연방정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업자 ‘은행거래’ 허용

- 미 연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은행들이 이들 업체에 제공하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 ‘은행거래’를 추적하지 않을 계획
 - 이를 위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워크(FinCen)는 은행들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업자들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 대형은행들은 각종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마리화나 업체들과의 거래를 기피
 - * 올 초부터 콜로라도주에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으며 워싱턴주도 연내 판매를 허용할 계획
 - 한편 이들 은행은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혹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를 희망

[CNBC, 2014.02.21]



캘리포니아, 청량음료에 건강 경고문구 의무화 법안 추진

-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청량음료를 비롯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 병과 캔에 비만, 당뇨, 충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
 - 법안은 손님이 직접 음료를 따라 마시는 패스트푸드점에는 음료기계, 종업원이 서빙하는 음식점에는 메뉴판에 이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규정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06년 공립학교에서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를 퇴출시킨 바 있으나 청량음료 등 설탕이 함유된 음료 병과 캔에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까지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한편 이번 조치에 미국음료협회 캘리포니아지부(CalBev)가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CBS, 2014.02.20]



미국 의사, 개업보다 월급제 의사 선호 ... 과잉 진료비 청구 완화 가능성

- 일반의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사들이 개업을 통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가 되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미국 최대 의료인력 소개업체 메리트 호킨스(Merritt Hawkins)에 의하면 이 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의사 가운데 월급을 받는 '병원의'를 선택한 비율이 '04년에는 11%였으나 '13년 64%로 급증한 데 이어 '16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연 2조7천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과잉 진료비 청구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의사들이 개업 대신 월급제 의사를 선택해도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반드시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데, 이는 병원이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시설비 등 비용을 의료비 형태로 환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
- 하지만 병원들이 유능한 의사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환자를 진료하면 전반적으로 의료비용이 감소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2014.02.21]



미국 유아 비만을 급감 ... 모유 수유 장려 정책 효과 가능성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03~'04년 13.9%를 기록한 유아(2~5세) 비만율이 '11~'12년에는 8.4%로 격감했다고 발표
- CDC는 유아 비만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모유 수유 장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 또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료 소비를 억제해 온 정책과, 유아보육센터로 하여금 영양기준 및 신체활동 기준을 강화하도록 장려해 온 정책도 원인으로 언급
- 유아 비만을 격감에 대해 비만 퇴치운동 '렛츠 무브(Let's Move)'를 주도하고 있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은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로 건강한 습관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높게 평가
-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각각 35%와 17%로 지난 조사 때와 유사
- 한편 CDC는 지난해에 '08~'11년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비만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

[New York Times, 2014.02.28]



콜로라도, 오락용 마리화나 세수 대박

- 미국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에서 1월 한달에만 1천402만불 상당의 오락용 마리화나가 판매돼 201만불의 세수를 거두었다고 콜로라도 조세국이 발표
 - 이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오락용 마리화나에는 12.9%의 판매세(sales tax)와 15%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
 - 콜로라도 주정부는 향후 오락용 마리화나 수요가 더욱 급증, 차기 회계연도에는 6억1천만불 정도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주정부는 소비세로 걷는 세금 중 4천만불을 학교 건설에 사용할 계획
 - 콜로라도의 세수 대박은 워싱턴·애리조나·알래스카·오리건주 등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가운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부상

[Washington Post, 2014.03.11]



LA,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1백여 곳 폐쇄

- 미 LA 시검찰청과 경찰국이 합동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 1백여 마리화나 판매점을 폐쇄
 - LA에는 판매점 개설 요건이 강화된 '13년 6월 당시 7백개가 넘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 중이었으나 상당수가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 * 이번 단속에 걸린 판매점은 대부분 개설 제한 지역에서 영업을 해 온 곳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이나 판매점 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정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판매점에 대해 벌금 부과 혹은 폐쇄까지 가능
 - LA 시정부는 또 학교·공원·도서관·종교 시설·청소년 시설·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시설 주변에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개설을 불허하는 가운데, 시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도 135개 이하로 제한

[Los Angeles Times, 2014.03.11]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규제 확산 ... 롱비치시, 함정단속 명문화

- 미국 롱비치 시의회가 전자담배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확산
 - 롱비치 규제안은 △관청, 식당, 주점,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시당국은 전자담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함정단속 가능 등을 명문화
 - 롱비치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전자담배 규제안을 확정
 - * 로스앤젤레스 규제안은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나 롱비치 규제안은 이러한 시설 자체도 금지하는 등 더욱 엄격
 - 이 같은 규제는 전자담배에 흡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흡연자가 흡연자로 가는 경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결과
 - 캘리포니아주가 전자담배 규제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Signal Tribune, 2014.03.14]



미국 28개 주 법무부, 편의점·약국체인 담배판매 중단 촉구

- 에릭 슈나이더만(Eric Schneiderman) 뉴욕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28개 주 법무장관들이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크로거, 세이프웨이, 월마트 등 대형 편의점과 약국체인에 담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전달
 - 이들 장관은 서한에서 대형 편의점과 약국체인들이 주민의 건강 및 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해한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
 - 이들은 담배판매 중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담배를 판매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내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편 지난 2월 대형 약국체인 CVS 케어마크는 연 20억불의 매출을 손해보더라도 전국 7천6백여 점포에서 담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CBS, 2014.03.19]



텍사스주, 낙태금지 법안 파문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금지 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확산
 - 이번 판결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10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 배치
 -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해 9월1일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 △낙태 시술은 외과 병원에서만 가능 △의사의 낙태유도제 처방 금지 등 낙태 시기와 장소 및 방법을 규정한 낙태금지 법안을 제정
 - *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 40년 만에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이 등장함에 따라 텍사스주 낙태 시술 클리닉 19곳이 폐업하는 등 텍사스 지역사회가 격렬한 소용돌이에 직면
 - 이번 판결에 대해 릭 페리(Rick Perry)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지만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

[New York Times, 2014.04.03]



버웰 미국 보건부 장관 지명자 인준 난항 전망

- 실비아 버웰(Sylvia Burwell) 미국 보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목표 가입자 수가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 책임을 지고 사임한 캐슬린 시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전 보건장관 후임으로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명
 -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공식 웹사이트 개통 초기와 등록 마감 때 접속 불량으로 거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가입자가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숫자 조작 의혹을 제기
 - 공화당 의원들은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버웰 지명자에 대해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이익만 대변하는 예산 전문가일 뿐 미국 국민을 위해 오바마케어를 책임질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
 -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오바마케어를 가능한 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는 공화당의 전략도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

[Fox News, 2014.04.23]



FDA, 전자담배 포함 신종담배 규제 검토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와 물파이프담배 등 신종담배 규제 방안을 검토
 - 규제 방안은 △신종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 공개 △제품 겉포장에 건강 위해 경고문구 부착 △담배 제조사들의 FDA 등록 △FDA 심사 후 신제품 마케팅 △무료샘플 제공 금지 등이 핵심 내용
 - FDA는 '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가족금연예방및 담배통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FSPTCA)에 따라 일반담배, 수제담배, 무연담배 이외 다른 담배제품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흡연자 단체인 금연대안소비자연합회(Consumer Advocates for Smoke-free Alternatives Association : CASAA)는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
 - 한편 FDA는 올해 미국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20억불, 전체 담배 시장 규모는 1천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Forbes, 2014.05.01]



일리노이 고법, 필립모리스에 101억불 배상 판결

- 미국 일리노이주 고등법원이 '라이트(light)'와 '저타르(low tar)' 문구를 담배 제품 겉포장에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며 필립모리스가 피해자들에게 101억불을 배상하도록 판결
 - 고법은 일리노이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지난 '03년 필립모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법원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
 - * 라이트·저타르 담배를 둘러싼 미국 내 첫 집단소송으로, 현재 미 전역에서 유사소송으로 확산
 - 일리노이주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라이트·저타르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립모리스가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고 비난
 - 한편 필립모리스는 판결에 불복, 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

[Courthouse News Service, 2014.05.02]



캘리포니아, 탄산·가당음료 경고문구 부착 법안 무산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주내 판매되는 탄산음료 및 가당음료의 제품 라벨에 안전성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무산
 - 법안은 12온스당 75칼로리 이상의 감미료가 함유된 모든 탄산 및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음료 섭취와 당뇨병, 비만 및 충치 비율 증가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제품 라벨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
 - 미국 주의회에 탄산 및 가당음료 안전성 경고 문구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파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74%가 법안에 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음료업체들의 로비가 작동한 결과로 분석

[Food Navigator-USA, 2014.05.01]



미국, 국가 차원의 65세 이상 고령화 대책 시급

-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지난 '12년 4천300만명 정도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오는 '50년에는 2배 가까운 8천370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인구조사국은 '12년에 전체 인구의 21% 수준이었던 65세 이상이 '50년에는 39%(85세 이상 인구는 16.3%에서 30%)로 증가하면서 '56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18세 이하 청소년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또 이민자와 소수 민족이 급증해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43년쯤에는 백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인구조사국은 특히 노인인구 증가가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와 가족·기업·헬스케어 업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New York Times, 2014.05.07]



FDA, 선램프 위험등급 상향조정 지시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선램프 및 자외선 램프 제품들에 대해 현행 저도 위험기구로 분류되어 있는 ‘클래스 I’에서 중등도 위험기구인 ‘클래스 II’로 위험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할 것을 업체들에게 지시
 -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경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주의문을 제품 겉 포장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할 것도 요구
 - 선램프 제품에는 선텐베드(tanning bed)와 선텐부스(tanning booth) 등이 포함
 - 이와 함께 관련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발매하기에 앞서 반드시 발매 신고서를 FDA에 제출하고 성능 검사를 거쳐 기준 및 제품 디자인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한 뒤 허가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 이번 조치는 이들 제품이 자외선을 방출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미국피부과학회(AAD)에 의하면 실내 선텐을 통해 자외선에 노출되면 흑색종 발생률이 59%나 급증

[Mondaq News Alerts, 2014.06.09]



루이지애나, 8월부터 미성년자 실내 선텐 금지

-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실내 선텐을 금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바비 진달(Bobby Jindal)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
 -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에서는 오는 8월1일부터 미성년자 실내 선텐이 금지
 - 이번 조치는 야외에서 뿐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선텐도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피부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 미국에서는 매년 350만명 이상이 피부암으로 진단받고 있어 미국인 5명중 1명은 언젠가는 피부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올해 750명 이상의 흑색종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 미국에서는 매년 230만명의 청소년들이 실내 선텐을 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피부과전문의협회(AADA)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들을 피부암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피부암 발생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예방이 요구된다고 강조

[Daytona Beach News Journal, 2014.06.10]



버웰 미국 보건장관 취임

- 실비아 버웰(Sylvia Burwell) 미국 보건부 장관이 정식 취임
 -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버웰 보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8표 반대 17표로 가결
 - * 표결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시행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면서도 인준안에는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
 - 버웰은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을 지내고, 자선단체인 월마트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
 - 오바마 대통령은 '13년 3월 버웰을 OMB 국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이번에 캐슬린 시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전 보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OMB 신임 국장으로 셴 도노번(Shaun Donovan)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후임 주택장관에는 홀리안 카스트로(Julian Castro)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시장을 각각 지명

[Washington Post, 2014.06.20]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승인

- 미국 뉴욕주 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 법안은 뉴욕주 보건부가 5개 기업을 지정해 마리화나를 생산하고 이를 진료소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 또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간질·다발성 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AIDS 등 치명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한정된 뒤, 이들 환자는 보건부에 등록된 후 허가된 진료소에서만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
 - 이와 함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마리화나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이를 악용하는 환자는 중죄로 처벌
 - 법안에는 주지사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페일 세이프(fail-safe)' 조항도 수록

[National Law Review, 2014.07.01]



FDA, 소금 함량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금 과다 섭취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중시, 기업과 식당에 소금 함량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 마거릿 햄버그(Margaret Hamburg) FDA 커미셔너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DA는 기업과 식당이 자발적으로 소금량을 낮추도록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
 - 햄버그 커미셔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당장 짠맛의 차이를 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고, 기업들에게도 저염 식품을 개발할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라고 설명
 - 미국 식품업계는 지난 '10년 의약연구소(IOM)가 기업들의 소금 줄이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이후 저염 식품들을 개발하면서 정부 규제에도 대비
 - * 당시 IOM은 FDA에 소금 함유 제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으나 FDA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축

[NBC, 2014.07.04]



뉴욕 주정부, AIDS 관련법 예방 위주로 개정

- 미국 뉴욕 주정부가 현재 연간 3천명에 이르는 신규 HIV 감염자 수를 오는 '20년에는 750명으로 줄이기 위해 AIDS 관련법을 예방 위주로 개정하기로 결정
 - 뉴욕 주정부는 내년도 AIDS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예산으로 500만불을 책정한 데 이어, 감염 테스트를 위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건담당 공무원들도 의사들과 치료를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한다는 방침
 - 또 환자들이 치료약을 부담없이 구입하도록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3개 제약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업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
 - 뉴욕 주정부는 오는 '20년 HIV 감염자 수가 750명 정도로 감소하면 연간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AIDS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현재 뉴욕주에는 AIDS 환자가 15만4천명에 이르며 이중 2만2천명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New York Times, 2014.07.02]



오바마, 탄소배출 규제로 천식환자 연 10만명 ↓ 기대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발표한 탄소배출 규제 명령과 관련, 탄소 배출이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천식과 심장마비를 유발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당성을 부여
 - 규제 명령은 지난 '05년 대비 탄소배출을 오는 '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각 주 정부는 주별 감축 목표에 따른 계획을 기간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 오바마는 특히 탄소배출 규제 명령으로 인해 매년 10만여 천식 환자와 2천1백여 심장마비 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
 - 이에 대해 오바마는 정부가 발암 물질을 규제했을 때도 기업가들은 대체물질을 활용해 더 좋은 대체품을 제조했다며, 미국 기업의 능력과 창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주문

[RenewablesBiz, 2014.07.11]



미국 정부, 보건기관 관리감독 허술

- 미국 정부의 보건기관 관리감독이 허술해 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국립보건원(NIH) 실험실의 천연두균 용기에서 탕기열 바이러스와 리케차균 등 다른 병원체도 밀봉된 사실을 적발
 - * FDA는 병원체의 유출 흔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또 NIH 실험실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애틀랜타연구소와 러시아 바이러스·생명공학연구소에서 보관됐어야 할 천연두균 용기도 발견
 - 이와 함께 CDC에서는 연구원 60여 명이 탄저균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었음이 확인됐고, 실험 중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섞여버리는 어이없는 사고도 발생
 - 더 큰 문제는 보건기관들의 부실운영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는 점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

[Washington Post, 2014.07.16]



뉴욕주 대법원, 탄산음료 판매금지 위법 판결

-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뉴욕시의 계획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
 - 대법원은 뉴욕시 보건국이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16온스(453g) 이상 대용량 탄산음료를 음식점, 영화관, 경기장, 노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제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
 -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는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 뉴욕시장의 마련한 바 있으며,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현 시장은 선거유세 동안 판매금지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약
 -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2년 9월 대용량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를 제정한 뒤 작년 3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식품업계와 음식점 등이 반발해 뉴욕주 1심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
 - * 당시 1심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음식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원고에 승소 판결

[Lexology, 2014.07.18]



미국 정부, 세금 회피 목적 M&A 금지 법안 추진

- 미국 정부가 자국 애브비(AbbVie)의 영국 샤이어(Shire) 인수를 계기로 그동안 거론되어 온 세금 회피 목적의 M&A를 금지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 애브비는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샤이어 인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마침내 548억 불에 손에 넣는 데 성공
 - 애브비는 샤이어 인수로 인해 특허 만료가 임박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의 후속 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그러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노린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거론되어 온 세금 회피 목적의 M&A 금지 법안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는 법안 제정을 둘러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 최근 미국 제약업체들이 유럽 제약업체와 합병한 뒤 본사를 유럽으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애브비도 샤이어와의 통합법인 주소지를 영국에 둘 방침으로 이 경우 영국 정부로부터 적용받는 법인 세율은 13%에 불과(미국에서는 22%)

[UPI, 2014.07.25]



미국 법원, 담배업체 레이놀즈에 236억불 배상 판결

-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이 거대 담배업체 R.J.레이놀즈(R.J. Reynolds)에 대해 폐암으로 숨진 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236억불의 징벌적 배상금과 1천680만불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배심원단은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을 거두었다는 원고측 주장을 수용, 이 같이 판결
 - * 원고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 마이클 존슨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지난 1996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숨졌으며 2008년 레이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담배업체가 담배의 중독성이나 치명적 화학물질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레이놀즈는 판결이 합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
 - 한편 236억불은 지금까지 흡연자와 유족이 담배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천여 소송 중 최대 배상금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7.25]



미국 NCAA, 선수 뇌보호 기금 7천5백만불 조성

- 전미대학경기협회(NCAA)가 소속 대학 운동선수들의 뇌진탕 부상 및 후유증을 예방·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7천5백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
 - NCAA는 소속 대학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뇌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한 기금 7천500만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카고연방법원에 제출
 - * 기금에는 뇌진탕 관련 연구에 500만불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
 - NCAA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년 이스턴일리노이대 미식축구 선수 등 10여 명의 전·현직 대학 운동선수들이 NCAA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
 - * 이들 원고는 NCAA가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진탕 관련 정책을 개별 대학에 맡겨 선수 건강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한편 NCAA는 소속 대학에 운동선수들의 뇌진탕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특정 절차 및 규정 준수를 의무화할 계획

[Law360, 2014.07.31]



델라웨어, 미성년자 태닝베드 사용 금지

- 잭 마켈(Jack Markell) 델라웨어 주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태닝 베드(tanning bed)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들을 피부암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피부과전문의협회(AADA)에 의하면 태닝베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흑색종 발생 위험성이 최대 60%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 현재 델라웨어주는 부모의 허가 아래 14~18세 미성년자의 태닝베드 사용을 허용
 -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태닝베드 사용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는 추세로 델라웨어의 이번 조치에 앞서 버몬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등 10개 주도 미성년자 태닝베드 사용을 금지
 -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매년 230만명 정도의 미성년자들이 태닝베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태닝베드 접근권을 제한하는 일은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

[Delaware Online, 2014.08.01]



미국 보건부, “실내 선탠도 피부암 유발” 경고

- 미국 보건부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선탠도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 실내 선탠을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
 - 미국 보건부 산하 의무감실(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은 피부암은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실외든 실내든 과도하게 많은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이 같이 경고
 - 이번 경고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날로 증가하는 피부암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태닝 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
 - * FDA는 지난 5월말 태닝용 침대와 조명 등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
 - 현재 미국에서는 500만명이 피부암 관련 치료를 받는 가운데(치료비용 81억불), 이중 6만3천명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으로 추산되며 흑색종 환자 중 6천여명은 실내 선탠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Washington Post, 2014.08.04]



미국 29개주 법무부, FDA에 전자담배 규제 강화 압박

-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29개주 법무장관이 전자담배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식품의약국(FDA)에 전달
 - 장관들은 서한에서 FDA가 지난 4월 발표한 전자담배 규제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의 핵심인 TV광고와 온라인 판매 및 향첨가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
 - FDA는 당시 TV광고 금지 등 구체적 조치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제시했으며, 이 규제안은 지난 8일로 공청회 기간이 끝나 최종 확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
 -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3명도 이달 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마케팅, 향첨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FDA에 전달
 - 한편 전자담배는 올해 미국에서만 20억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통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

[Boston Globe, 2014.08.13]



FDA 규제완화로 안전성 미확인 식품첨가물 급증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느슨한 규제로 인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쏟아져 나와 국민건강이 위협에 노출
 - 최근 들어 미국 식품업체들은 에너지 음료에서부터 영양 간식 ‘그레놀라바(granola bar)’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에 검증되지 않은 방부제와 조미료, 농후제 등 첨가물을 추가하는 사례가 급증,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
 - 이는 FDA의 감독 규제가 느슨해 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 * 예를 들어 FDA는 감독인력 부족과 식품산업계의 불만에 따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첨가물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 GRAS)’로 평가되면 안전성 연구 내역을 의무 제출에서 자발적 제출로 전환했는데 기업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
 - 최근 몇 년간 FDA에는 식품첨가물 관련 소비자 불만이 수천여 건 접수되었으며, 시민단체인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는 식품첨가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FDA를 제소하는 사건도 발생

[Washington Post, 2014.08.17]



미국 혈액은행, 수혈 감소로 구조조정 불가피

- 미국에서 수혈이 급감함에 따라 혈액은행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미국 적십자사에 의하면 지난 '08년 1천500만건이었던 수혈 건수는 '13년 1천100만건으로 5년 사이 1/3 정도 감소
 - 이는 △의료기술 발달 △의약품 품질 제고 △수혈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어 65세 이상 환자가 증가하는데도 수혈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신체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이 발달했기 때문
 -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3~5년 사이 혈액은행 전체 일자리의 1/4인 1만2천여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혈액은행들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M&A와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일부 혈액은행은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미국내 공급 혈액의 40%를 담당하는 적십자사의 경우 1천5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부동산 매각과 사업영역 통폐합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

[IB Economics, 2014.09.02]



탄산세 부과, 청소년 비만 예방에 최고 효과

- 미국 질병예방단체 파트너십 포 프리벤션(Partnership for Prevention : PFP) 에 의하면 청소년 비만 예방에는 당분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탄산세 부과 정책이 운동 장려 캠페인 등 다른 정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
 - PFP는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 지난 '00~'12년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종합 분석
 - 그 결과 △방과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패스트푸드 TV 광고 금지 △당분 음료에 온스당 1페니의 탄산세 부과 등 3가지 정책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
 - 그러나 방과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비만율을 낮추는 효과가 1.8%,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는 0.9%인 반면 탄산세 부과는 2.4%로 나타나, 비만 예방 효과는 탄산세 부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

[Clinical Endocrinology News, 2014.09.04]



워싱턴DC, 11월 중간선거 때 마리화나 찬반투표 시행

○ 미국 워싱턴DC가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병행하기로 결정

- 워싱턴DC는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되는 흑인이 백인보다 월등하게 많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 또는 구금했던 정책을 1온스 소지까지는 25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

* 현재 워싱턴DC 주민은 64만6천여명으로 흑인이 약 절반이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워싱턴DC에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자는 흑인이 무려 91%

- 그러나 이 벌금 제도조차 흑인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예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직접 묻기로 결정
- 하지만 워싱턴DC는 주가 아니어서 자체 입법권이 연방의회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 과반이 합법화에 찬성하더라도 현행 연방법이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합법화를 추진할 지 의문

[ABC, 2014.10.17]



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 법안에 제동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텍사스주 낙태금지 법안의 일부 조항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의 법안 시행에 제동

- 대법원은 일부 낙태시술 병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낙태금지 법안 조항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찬성 6명, 반대 3명의 표결로 결정
- 이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앞서 연방고법은 낙태금지 법안의 핵심적 부분이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 주정부는 낙태금지 법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
- 고법 판결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시술 병의원이 무더기로 폐업해야 되는 위기에 직면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사회생
-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해 7월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장소와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제하는 엄격한 내용의 낙태금지 법안을 제정, 미국 사회에 논란을 유발

[New York Times, 2014.10.16]



워싱턴DC,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 법안 통과

-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중간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이 부결
 - 이에 따라 21세 이상 워싱턴DC 성인들은 2온스까지 마리화나를 기호품으로 소지할 수 있고 자택에서 마리화나 재배도 가능할 전망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와 워싱턴 2개 주에서 기호품으로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
 - * 그러나 워싱턴DC는 주가 아니어서 자체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합법화 법안을 무효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 또 미국에서는 24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용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민투표에서 오리건과 알래스카 및 콰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흡연 법안이 통과됐으나 플로리다에서는 부결
 - 한편 전문조사업체 그린웨이브 어드바이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1/4 정도에만 기호품으로의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면 오는 '20년까지 관련 산업 매출이 연 2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CBS, 2014.11.08]



미국 사회, 존엄사 찬반 논란 가열

- 미국 사회에 뇌종양으로 시한부 삶을 살다 자신이 예고한 날짜에 세상을 떠난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로 인해 존엄사 찬반 논란이 가열
 - 존엄사 찬성 측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통스럽지 않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 *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중 62%가 질병으로 고통이 심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고 대답
 - 그러나 반대 측은 존엄사 역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종의 살인이고, 다른 사람의 강압과 학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존엄사는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

- 미국에서는 몬태나와 뉴멕시코주가 법원 판결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리건·워싱턴·버몬트 등 3개 주에서 6개월 미만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환자의 존엄사를 합법화

[Washington Post, 2014.11.17]



미국 지자체 첫 ‘담배판매금지법’ 무산

- 미국 지방자치제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가 추진해 오던 ‘담배판매금지법’ 제정이 무산
- 웨스트민스터시는 당초 여론수렴을 거쳐 12월 중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보건위원회(Board of Health) 표결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 금연에 찬성하는 주민조차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입법 추진에 반대
- 이 법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및 시가는 물론, 이들과 관련된 제품의 시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
- 이 법은 미국 내 첫 담배 판매금지법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보건위원회가 지난 13일에 처음 연 공청회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분 만에 중단되는 등 험로를 예고

[New York Times, 2014.11.20]



뉴욕시, 마리화나 소지자 처벌 대폭 완화

- 미국 뉴욕시 정부가 마리화나 정책과 관련, 지금까지는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연행한 뒤 재판을 통해 실형까지 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
-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취임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을 자제하고 경범죄자에 대한 구금 등 처벌을 완화하겠지만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체포·연행한 뒤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에 입장을 선회

- 이러한 방침 선회로 뉴욕시는 향후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지나다가 적발된 자에게는 법원이 설정한 벌금(액수는 미정)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
- 이번 결정은 특히 마리화나 소지자의 80% 이상으로 추정되는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뉴욕시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 한편 쿠파피악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뉴욕시민의 70% 정도가 마리화나 소지자 처벌 완화를 지지

[New York Times, 2014.11.22]



버클리시, 비만 억제 위해 ‘소다세’ 도입

- 미국 버클리 시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1온스당 1센트의 ‘소다세(soda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ℓ 짜리 코카콜라의 경우 현재는 시중에서 2볼에 판매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64볼로 3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
- 시정부를 비롯한 소다세 찬성론자들은 담배나 주류에 ‘죄악세(sin tax)’를 붙이는 것처럼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 생수 등 칼로리가 없거나 낮은 음료를 찾아 비만이 감소하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탄산음료회사 등 소다세 반대론자들은 설탕이 함유된 음료가 비만으로 연결된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다세 부과로 비만과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없고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
-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도 버클리 시정부와 유사한 내용의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

[Washington Post, 2014.11.24]



FDA, 비만 예방 위해 식당 등 칼로리 표시 의무화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만과의 전쟁’ 일환으로 식당 등의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
- 이 규정은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 중 집 밖에서의 매식이 1/3 정도가 되는 현실에서 이들이 평소 즐기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영양 섭취를 막아 비만을 예방하겠다는 취지
- 적용 대상은 20개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과 영화관 및 놀이공원 등이며, 슈퍼마켓·편의점·잡화점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조리된 식품과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류에도 적용
- 또 자판기에서 쉽게 구입하는 식품도 대상이나 버튼을 비롯해 칼로리 표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적용을 1년 정도 유예할 계획
- 이러한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은 지난 '06년 뉴욕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8개 주 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NBC, 2014.12.06]



워싱턴DC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제동’

- 미국 연방의회가 수도 워싱턴DC 주민들이 지난 11월 중간선거 때 통과시킨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제동’
- 연방의회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1조1천억불 규모의 '1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워싱턴DC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예산을 사용 못하도록 금지
- 이에 앞서 워싱턴DC 주민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자택에서도 일정 한도 내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65%의 찬성으로 통과
- 그러나 주민투표에 의해 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워싱턴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DC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위임
- 하지만 현행 연방법이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어 연방의회가 워싱턴DC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한편 워싱턴DC 의회는 연방의회의 이번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뒤 결정 취소를 요구

[Washington Post, 2014.12.13]



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낙태규제 법안 위법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낙태규제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명시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애리조나주가 지난 '12년 확정한 낙태규제 법안은 임신 9주차까지 허용되었던 낙태를 7주차까지로 단축하고, 낙태약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등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약만 사용하도록 의무화
 -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부 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낙태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
 - 대법원은 지난 10월 여성의 건강 등을 이유로 낙태시술을 수술센터를 갖춘 병원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법안도 위법이라고 판결
 - 한편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낙태 찬반논쟁이 여전

[New York Times, 2014.12.16]



네브라스카주 등, 마리화나 합법화 콜로라도주 제소

- 미국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가 인근 콜로라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 달라는 소장을 연방대법원에 제출
 - 이들 주는 소장에서 콜로라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접경 지역에서의 불법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 콜로라도주와 인접한 네브라스카주 채플시의 경우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이후 지금까지 마리화나 불법소지로 체포된 범법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
 - 콜로라도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콜로라도주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불법
 -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는 또 콜로라도산 마리화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등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
 - 이들 주는 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과 불법적 거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접 주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New York Times, 2014.12.19]

5.2 영국



스코틀랜드, 영 연방 분리독립시 복지개혁 단행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영국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4년 9월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 알렉스 새먼드(Alex Salmond)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당수 겸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 복지개혁과 공정과세를 단행해 주민 1명당 연간 6백 파운드의 소득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공약
- 특히 △3~4세 아동에 대한 주당 30시간 무상보육 지원 △영국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삭감 환원 △안정적 국민연금 체계 구축 및 유지 △물가에 연동한 최저임금 설정 등 복지개혁을 강조
- * 그러나 파운드화는 분리독립 이후에도 국가 통화로서 계속 사용
-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영국 일간 타임스가 스코틀랜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독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33%로 이전 조사 32%에서 1% 포인트 상승하는데 불과

[The Scotsman, 2013.12.19]



영국 정부, 비만 비하 발언 추방 캠페인 시행

- 영국 정부가 과도한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비만 혐오도 사회적 차별로 간주, 비만 비하 발언을 방송 등 공식 석상에서 추방하는 캠페인을 시행
- 조 스윈슨(Jo Swinson) 문화부 평등정책 담당 부장관은 비만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이 일반화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며 캠페인 시행 배경을 설명
- * 스윈슨은 '살찐 허벅지', '쳐진 옆구리살', '종아리 발목'을 대표적 용어로 지적
- 정부는 신체적 자신감 결여가 과도한 다이어트에 따른 거식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다소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

-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미 영화배우들도 가세할 방침으로,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제니퍼 로렌스(Jennifer Lawrence)는 ‘뚱뚱한(fat)’이라는 용어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Express, 2013.12.23]



영국 보건부, 국립보형물등록소 설립 검토

- 영 보건부가 여성들이 안전하게 유방 보형물 이식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보형물등록소(National Implant Registry) 설립을 검토
 - 국가보형물등록소는 무릎과 고관절 수술기록을 관리하는 국립관절등록소(National Joint Registry)를 벤치마킹한 기관으로, 지난 '11년 프랑스 폴리엥플랑프로테즈(PIP)사의 발암 유방 보형물 사건에서 비롯된 후속 조치
 - * 당시 유럽에서는 PIP가 암을 유발하고 파열될 우려가 높은 공업용 실리콘 젤로 유방 보형물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영국에서는 성형외과 기록관리가 부실해 보형물 이식 환자(5만여명 추정)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
 - 한편 보건부는 유방성형 1명 수술비용으로 2명을 수술한다거나 유방성형 기회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성형수술 업계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금지하고, 왕립외과대학(RCS)과 일반의학위원회(GMC)를 통해 성형수술 의사의 자격 기준도 높일 계획

[Liverpool Cosmetic Clinic, 2014.01.02]



영국 정부, 여성 할레 불법시술 단속 강화

- 영국 정부가 다문화 사회의 폐해인 여성 할레 불법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검찰청은 전국적인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NHS) 네트워크를 통해 검찰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
 - 검찰청은 현재 여성 할레 불법시술 사건 10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시술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한 법정 기소도 추진
 - * 영국에서는 지난 '08년 이후 166건의 여성 할레 불법시술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43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처벌받은 경우는 전무
-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관습을 이유로 어린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할레 강요나 불법시술 행위에 대해 최대 14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법으로 금지
- 그러나 특히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매년 2만4천명 이상의 10대 소녀들이 할레를 강요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불법시술이 근절되지 않아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

[Guardian, 2014.02.12]



영국 NHS, 전자담배 금연보조 의약품 인정 가능성

- 영국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이 전자담배를 병원에서 금연보조 수단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제시
 -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니콜라이츠(Nicolites)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는 자사 전자담배 제품의 의약품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NHS에 제출
 - * 이들은 의약품으로 지정되려면 니코틴 함량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나 그만큼 안정성이 보증돼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사용 인구는 계속 증가해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NHS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해 전자담배를 의약품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과잉 규제라는 반발에 밀려 무산
- * 특히 적극적인 의약품 등록 전략으로 공신력 확보를 노리는 대형 제조사들과 달리 군소업체들이 시장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

[Birmingham Mail, 2014.02.08]



영국 하원, '15년부터 어린이 동승 차량 흡연 금지

○ 영국 하원이 오는 '15년부터 어린이가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76표, 반대 107표로 가결

- 하원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한 뒤 잉글랜드 지방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
- 그동안 영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이 동승한 어린이에게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 시민단체들은 차량 내 간접흡연 피해는 담배 연기가 가득 찬 주점보다 11배 정도 높고, 운전 중 흡연하면 환기를 시켜도 연기가 2시간 반 가량 남는다고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차량 내 금연 법안 도입을 촉구
- 전세계에서 어린이 동승 차량 흡연 금지는 미국·캐나다·호주·남아공 등 국가에서 법제화된 가운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도 어린이 동승 차량 흡연을 금지시킬 계획

[Express, 2014.02.24]



영국, 조력자살 허용 법안 통과 '유력'

○ 영국 정부가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허용 법안에 대해 각료를 포함해 집권 보수·자민당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

- 로드 팔코너(Lord Falconer) 전 상원의장이 마련한 동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현재 상원에 계류 중
 - * 이 법안은 4개월 내 상원에서 처리되며 통과할 경우 하원으로 이송
- 지난 1961년 제정된 현행 자살 관련법은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4년 전 영국 검찰은 동정심 혹은 연민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자살을 방조할 때는 불기소한다고 발표
- 조력자살 지지자들은 환자가 생애 마지막 기간을 고통없이 보낼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장애자 단체·교회는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된다고 반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3.10]



영국 보건부, 담뱃갑 상표·이미지 금지 정책 추진

- 영국 보건부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제조사명을 제외한 상표와 이미지, 로고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 제인 엘리슨(Jane Ellison) 보건장관은 담뱃갑 포장을 표준화하는 규제가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추진 배경을 설명
 - * 호주 보고서에 의하면 흡연자의 81%가 단순한 갈색 포장의 담뱃갑 영향을 받아 금연을 고려
 - 앞서 영국 정부는 담뱃갑 포장 규제 정책을 추진하려다 유보해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당초 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보건부가 이번 방안을 추진
 - 한편 영국 담배 시장 규모는 연 280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보건부는 내년 5월 이전에 담뱃갑 포장 규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04.14]



영국, 고도비만 사망자 전용 묘역 조성

- 영국에 고도비만 사망자 전용 묘역이 사상 처음으로 조성될 전망
 - 영국 링컨셔(Lincolnshire)주 서튼브리지앤윙랜드패리시(Sutton Bridge and Wingland Parish) 의회는 장의사들의 요청에 따라 고도비만 사망자를 안치하기 위한 초대형 묘역 30 구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 고도비만 사망자 전용 묘역 크기는 일반묘역(2.7×1.2m)의 2배 정도로 운구자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 묘지 입구에 위치하게 되며, 안장 비용은 일반 묘역보다 훨씬 비싼 수천 파운드로 책정될 전망
 - 이번 계획을 주도한 비키 힐스(Vicky Hills) 의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늘날 비만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
 - 지난해 11월 에세스(Essex)주 로치포드(Rochford) 의회도 거구 사망자를 위해 묘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고도비만 전용 묘역이 실제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Telegraph, 2014.04.24]



영국, 수도물에서 코카인 성분 검출 파문

- 영국 정부 수도물검사위원회(Drinking Water Inspectorate)의 영국 수도물 조사 결과 진통제 성분 이부프로펜(ibuprofen), 간질 치료제 성분 카바마제핀(carbamazepine)과 함께 코카인 성분 벤조일에코닌(benzoyllecgonine)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
 - 전문가들은 이번 성분 검출이 영국 사회에 코카인이 대량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 마약퇴치운동 기관인 드럭스코프(DrugScop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잉글랜드 지방의 코카인 중독인구는 18만명으로 추정되며, 영국 전역에서 연 1회 이상 코카인을 복용하는 인구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또 의약정책 싱크탱크 트랜스폼(Transform)은 코카인 가격 하락과 유통망 확대에 의해 영국인의 코카인 의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Water Online, 2014.05.20]



영국 통계청, “성매매와 마약, 경제에 1백억 파운드 기여('09년)”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NS)은 '09년 기준 성매매는 영국 GDP에 53억 파운드, 불법 마약거래는 44억 파운드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산
 - ONS는 런던 시정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영국에는 6만9백여 성매매 종사자들이 영업 중이고, 이들은 1인당 1주일에 25명 내외의 고객에 서비스하며, 고객으로부터 평균 67.16 파운드의 화대를 수령
 - * 또 영국에는 약 3만8천여 명이 헤로인을 사용하며, 헤로인의 시중가는 g 당 평균 37 파운드로 추산
 - 영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불법거래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면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데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성매매와 마약을 공식 경제통계에 포함시킬 계획
 - GDP 산정 시 성매매와 마약 거래를 포함시킬 경우 영국 GDP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것은 아닌 숫자 높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대두

[Financial Times, 2014.05.29]



영국의학협회, ‘2000년 이후 출생자 담배 구매 금지’ 논란

-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 BMA) 회원 의사들이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들에게는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BMA의 공식 견해로 확정
 - 그러나 금지 법안을 도입하도록 정부에게 정식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 BMA 의사들은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의 중독과 조기 사망을 초래한다며 흡연의 위해와 싸우려면 급진적 정책이 불가피한데,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의 담배 구매를 금지할 경우 첫 번째 금연 세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 * 또 흡연 문화를 바꾸려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
 - 그러나 특정 세대 전체에 담배 구매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은 논란의 여지가 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은 이 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단순한 담배포장을 의무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일들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

[Quit Smoking Community, 2014.07.03]



영국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불허 ... 인권 침해 소지는 인정

- 영국 대법원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
 - 그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법원이 불가피하게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
 -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고통 속에 사망한 제인 니클린슨(Jane Nicklinson)의 유족과 24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까지 전신마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폴 램(Paul Lamb) 등이 제기
 - * 이들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
 - 한편 조지 캐리(George Carey)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

[Daily Mail, 2014.07.17]



영국 정부, 여성 할례 방지책 마련 부심

- 영국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악습인 할례 방지책 마련에 부심
 - 영국 하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85년 이후 영국에서 13세 미만 아동 6만 5천 명을 포함해 17만 명 정도의 여성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 뒤,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영국 정부는 할례를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1985년 법으로 금지한 뒤 할례를 강요 내지 시술하는 자에게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부과
 - 그러나 할례 관습이 남아있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어린 자녀를 비밀리에 시술시키는 등 할례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최근 할례를 시도한 혐의로 72세 남성과 40세 여성을 체포
 - 영국 정부는 할례 시술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한 세대 안에 할례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목표 아래 '2014 걸 서밋(Girl Summit 2014)' 행사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Independent, 2014.07.26]



런던시, 음주 난동 주폭에 전자발찌 착용

- 영국 런던시가 음주 난동 주폭에 전자발찌를 강제 착용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
 - 프로젝트는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경찰·법원·보건 당국이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이 주도해 도입했으며 향후 1년간 시범 실시
 - 하루 24시간 착용되는 전자발찌는 주폭이 흘리는 땀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면 관찰관이 주폭의 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관에게 자동으로 음주신호를 전송
 - 런던시는 크로이든, 램베드, 사우스위크, 서튼 등 4개 자치구에서 최대 150명의 주폭을 대상으로 최장 120일간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계획
 - 한편 영국 알코올연구소(IAS)에 의하면 지난해 15세 이상 영국인은 1인당 주류 소비량이 평균 12ℓ를 상회한 가운데 음주로 인한 경제손실은 220억불, 폭력 사건의 절반 정도는 음주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London Evening Standard, 2014.08.03]



영국 하원, 주류에도 위해성 경고 문구 부착 추진

- 영국 하원이 과음 문화 추방을 위해 맥주와 포도주 등 주류 제품에도 담뱃갑처럼 위해성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 하원은 과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제품에는 알코올 도수 이외 별 다른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중시, 주류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경고 문구 표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과음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자가 25% 증가한 가운데, 과음은 영국 경제에 매년 최대 210억 파운드의 손실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 보수당의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한 해 120만명이 입원하는 상황에서 과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
 - 그러나 하원은 모든 주류 제품에 의학적 소견에 기반한 경고문을 부착하되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미지는 넣지 않는 방안을 제시
 - 하원은 경고문 부착 외에 주류제품 최저가격제 도입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The Christian Institute, 2014.08.14]



영국 NHS 의료노조, 32년 만에 임금인상 파업

- 간호사, 응급차 직원, 방사선 촬영기사 등으로 구성된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의료노조가 정부의 임금인상 거부에 반발, 32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
 - 이번 파업은 NHS 측이 제시한 직원 임금 1% 추가 인상안을 제러미 헌트(Jeremy Hunt) 보건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업에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조합원 40만여 명을 거느린 NHS 관련 6개 노조가 참여
 - * 헌트 장관은 임금을 인상하면 어렵게 늘린 간호사 등 NHS 직원 수를 다시 줄여야 한다며 기존 3% 자동 인상분에 더한 추가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발표
 - 그러나 노조는 의회 의원 세비는 10% 올리면서 의료종사자 임금 1% 추가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 NHS는 지난 1948년 설립됐으며 직원들이 파업하기는 1982년 이후 처음
 -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의 계산된 행동으로 풀이

[BBC, 2014.10.30]



영국 정부, 비만대책으로 주류제품 열량 표시 의무화 검토

- 영국 정부가 비만대책의 일환으로 맥주와 와인 등 주류제품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앞서 영국 왕립공공보건학회(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 RSPH)는 주류제품에도 일반식품처럼 열량 표시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
 - RSPH는 영국의 경우 음주자들 중 80%가 주류의 열량 정보에 무지해 과음하고 있으며, 전체 성인 섭취 열량의 10% 정도가 음주에서 비롯돼 주류제품에 대한 열량 표시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
 - * 와인 한 잔(250ml)의 열량은 8도짜리의 경우 170칼로리로 도넛 한 개(200칼로리)와 비슷하며, 14도짜리 와인의 칼로리는 230칼로리, 4도짜리 맥주 한 잔(568ml)의 열량은 180칼로리
 - 또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량이 사전에 확인되면 과음을 자제, 1회 음주 시 열량이 400 칼로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 한편 EU집행위도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한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Companies and Markets, 2014.11.17]



영국 보건부, '식품안전위생법' 강화 추진

- 영국 보건부가 식품안전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식품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
 - 개정안은 식품안전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주일 매출의 최대 700%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업주에 18개월 동안의 실형을 규정
 - * 그러나 연매출이 200만 파운드 미만인 영세기업과 200만~1천만 파운드인 소기업에 대한 벌금은 각각 최대 12만 파운드와 45만 파운드
 - 현행 식품안전위생법에 의하면 보건부는 위반 업체에 최대 2만 파운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업주가 최대 2년의 실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능
 - 한편 식품안전위생 위법 행위에는 △주방 위생상태 불량 △부적절한 재료 사용 △식중독 사고 발생 △업체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포함

[Pearson Rowe Solicitors, 2014.11.21]



영국 정부, 음주사범 전자발찌 감시제 확대 검토

- 영국 정부가 각종 음주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감시제 확대를 검토
 - 영국 정부는 과음문화 척결을 위해 지난 '12년부터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자발찌 감시제를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이 감시제에 의하면 음주 관련 범죄 용의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실형을 사는 대신 음주 여부 측정 기능이 내장된 전자발찌를 최대 120일간 착용
 - 전자발찌는 착용한 용의자의 땀을 통해 30분마다 음주 여부를 판독해 그 결과를 보호관찰 당국에 전송하는데, 금주 명령기간에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실형 등 전자발찌 이외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
 - 영국 정부는 전자발찌 감시제를 확대할 경우 연간 1천500만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5천명 정도가 착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미국에서 전자발찌 감시제로 음주사범 재범률이 14% 감소했다며 영국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Huffington Post, 2014.11.18]



영국 항소법원, 임신 중 음주행위 처벌 불가 판결

- 영국 항소법원은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현행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부가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라도 그 임신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 법원은 그러나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임신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앞서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는 친모의 임신 중 음주로 인해 선천적 장애를 갖게 된 7세 여아가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
 - * 이 아동의 친모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에 매일 보드카 반병과 맥주 8캔을 마시'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동은 현재 지자체가 보호
 -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인 80여 건의 유사 소송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Guardian, 2014.12.05]

5.3 일본



일본 정부, ‘여성 1명당 2.07명’ 출산 목표 명기 논란

-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마련에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여성의 출산 목표를 국가 전략에 명기해야 할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
 - 논란은 일본 정부 경제자문회의 소속 민간위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
 - 그는 오는 '20~'30년 합계특수출생률*을 2.07까지 회복하고, 이에 따라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자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안
 - *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로 현재 1.4 수준이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될 경우 향후 50년 후 일본 인구는 8천만명대 중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
 -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6월말 발표할 국가성장전략에 저출산 대책을 반영할 예정으로 출산 목표가 명기될 지 관심

[朝日新聞, 2014.04.22]



일본 정부, 생산연령 64세 → 70세 연장 가능성

- 일본 정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 전문가 집단인 ‘선택하는 미래위원회(選擇する未來委員會)’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5세에서 64세인 생산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
 -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70세 연장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농후

- 미래위원회는 생산활동의 주축이 되는 기준연령을 연장해 노인 인구의 사회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은 떨어뜨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최근 일본 정치권은 현재 60세인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데 합의
- 미래위원회는 또 출산과 육아에 관한 금전지원 등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구상을 함께 내놓을 예정으로, 오는 '60년 일본 인구 목표로 1억명을 제시할 방침

[讀賣新聞, 2014.05.07]



일본 9백개 도시, 고령화로 소멸 가능성

- 인구문제 민간 전문가 단체인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는 일본 전국 1천8백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시가 오는 '40년 고령화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 소멸 가능 도시는 '40년에 20~39세 여성이 지난 '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임신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여성의 급감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기능을 마비
- 특히 아키타(秋田),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야마가타(山形), 시마네(島根) 등 5개 현에 위치한 시는 80%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
- 이 중 아키타현은 25개 시 중 24개가 소멸 가능 도시로 분류돼 아키타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
- 창성회의는 그러나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長野日報, 2014.05.21]



일본 경제·재정 운용 방침, ‘50년 후 인구 1억’ 명기

- 일본 정부는 향후 50년 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정부 경제·재정 운용 방침에 명기할 방침
- 앞서 일본 정부 산하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배분을 ‘대담하게 확충’한다는 문구를 수록한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방침을 정부에 제시
- ‘13년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천730만 명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오는 ‘60년에는 8천6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 지난해 일본 인구는 전년대비 역대 가장 많은 24만 명 정도가 감소
-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50년 후 1억 명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불과
- 한편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도쿄와 오사카 등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외국 기업인들의 가사를 지원하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SankeiBiz, 2014.06.22]



일본소비자청, 식품표기 기준안 마련

- 일본소비자청이 식품표기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준안을 마련, 내각부 산하 소비자위원회에 제출
- 기준안에는 식품에 사용된 성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 이외 현재는 생략이 가능한 일부 알러지 물질도 표시하도록 강제할 것이 특징
- * 현재는 크림이나 마요네즈 같은 특정 가공식품의 경우 알러지 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예를 들어 생크림의 경우 함유된 우유 성분이, 마요네즈는 계란 성분이 알러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 부착이 필수
- 또 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은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한 반면, 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는 함유량 표시를 권장

- 이와 함께 고유 제조번호를 부착하면 지금까지는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준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
- 한편 식품표기법은 오는 '1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

[日本医療健康情報研究所, 2014.06.28]



일본, ‘건강의료 전략’ 마련 ... '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1조엔

○ 일본 정부가 의료 및 의약품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강의료 전략’안을 마련

▼ 건강의료 전략 주요 내용

번호	주요 내용
1	• '15년 4월 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 -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었던 의료 R&D 예산 일부를 집약해 대학이나 연구소에 배분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
2	• 향후 5년 내 혁신적 암치료제를 10종 이상 개발
3	• 오는 '20년까지 치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근본적 치료제 및 유도만능줄기(iPS) 세포 기술로 제작한 신규 치료제의 임상시험 실시
4	• '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을 1조엔 이상으로 '11년 대비 2배 증대
5	• '12년 현재 46%인 대사증후군 수진율을 '20년까지 80%로 끌어올려 국민 건강수명을 지금보다 1년 이상 연장

[藥事日報, 2014.07.25]



일본최고재판소, “임신·출산 이유 직책 강등은 위법”

-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 직원의 직책을 강등하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
 - 최고재판소는 임신한 병원 물리치료사가 업무 부담이 덜한 보직으로 이동을 요구하다 직책을 강등 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히로시마고법으로 환송
 - * 히로시마중앙보건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04년부터 부주임으로 재직한 원고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08년 보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부주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이익에 직면
 -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직책 강등은 여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강등시켜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판시
 - 전문가들은 직장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모성 괴롭힘'이 만연화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

[Newsweek, 2014.10.28]



일본 정부, ‘합계 출산율 1.8’ 목표 제시

- 일본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43이었던 ‘합계 출산율’을 1.8로 높인다는 출산 목표치를 제시
 - 일본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본부장 : 아베 신조 총리)’ 전문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
 - *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이 가임기간(통상 15~49세)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 자녀수
 -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해 일본 국민의 1인당 GDP 역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OECD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합계 출산율 1.8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 1.8은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

-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이 50년 후에도 최소 1억명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

[Capital Tribune Japan, 2014.11.13]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조직체계 확정

- 일본 정부가 의료 R&D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내년 4월 출범하는 독립행정법인 ‘의료연구개발기구(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의 조직체계를 확정
- 의료연구개발기구는 △전략추진부 △산학연계부 △국제사업부 △바이오뱅크사업부 △임상연구·실험기반사업부 △신약개발전략부로 구성되며, 임직원 수는 공무원 100여명과 기업 등 민간 출신 전문가 200여명 등 총 300여명
- 의료연구개발기구는 관련 부처에 배분해 온 의료연구 예산을 하나로 묶어 우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앞서 있는 재생의료 등 부문에서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가속화해 경제성장으로 잇는 기능을 수행
- 의료연구개발기구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을 벤치마킹한 기관으로, 설립에 앞서 일본 정부는 근거법으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을 제정
- * 산하에 국립암연구소·국립독성연구소·국립정신건강연구소 등 20개 연구소와 7개 연구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 보건의료 연구기관

[藥事日報, 2014.12.12]

5.4 중국



중국, 직업병 인정 115종 → 132종 확대 ... 의료인 AIDS 감염 포함

- 중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의료인과 경찰의 AIDS 감염도 직업병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병의 종류를 현행 115종에서 132종으로 확대
 - 생육위는 의료인과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DS 환자의 혈액·체액·조직 샘플·폐기물에 피부와 점막이 오염되거나 예리한 도구에 피부가 손상을 입어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
 - * 생육위로 통합되기 전 중국 위생부는 직무상 AIDS 노출 빈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직업병 인정 확대를 추진
 - 국가가 인정한 직업병 환자는 ‘직업병 예방치료법’과 ‘공상보험조례’에 따라 공상보험기금과 채용 기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
 - 새로 추가된 직업병에는 작업장의 폭발·진동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레이저로 인한 안구 손상, 광부의 라돈 노출에 따른 폐암 등도 포함

[All China Women Federation, 2014.01.02]



중국 정부, 임신부 강제 낙태에 제동

- 중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임신부에 대한 강제 낙태 수술을 엄격히 금지,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
 -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에서 신생아 출산 등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임신 5개월, 심지어 7개월이 경과한 임신부에 대해서도 강제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비인도적 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
 - * 이들 공무원은 강제유산물 물론 강제 불임수술을 자행해 온 가운데, 신생아를 부모로부터 빼앗아 고아원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 또 중국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강제 낙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다 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중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또 다른 원인
- 한편 생육위는 단독 2자녀 허용 정책에 따라 산모·유아 보건 강화, 산부인과 증설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

[All China Women Federation, 2014.01.07]



중국 생육위, 공공장소 내 흡연 전면 금지 방침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공공장소 내 흡연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
- 생육위는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학교·병원·체육관 등 각종 공공장소와 공무활동 중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판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경고
- * 국무원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공공장소 흡연으로 공공환경과 공공보건에 위해를 주고 당·정 기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
- 현재 중국에서는 타인에게도 흡연을 권하고 관공서·식당·공원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흡연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 또 중국 정부는 지난 '12년 말에도 오는 '15년까지 공공장소 전면금연을 시행키로 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대두

[Global Times, 2014.01.13]



중국, 보건 부처 공무원부터 전면 금연

- 최근 중국 정부가 모든 당·정 간부들에게 공공장소 금연령을 내린 가운데,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청사 내 금연 시행에 돌입하는 등 보건 관계 부처 공무원부터 전면적인 금연에 돌입
 - 생육위는 전체 임직원의 흡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청사 내에서 연간 3차례 이상 흡연하거나 담배를 비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
 - * 반면 기존 흡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시상해 금연을 장려한다는 당근책도 마련
 - 생육위는 또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 환자를 첫 진료할 때 개인병력 사항에 흡연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기록하고 금연을 유도하도록 권고
 - 전 세계 흡연자 11억 명 가운데 중국인이 3억명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세계 최대 흡연국가이며, 중국 담배회사들의 연간 담배 총생산량은 미국보다 2.5배 정도 많은 1조 7천억 개비

[All-China Women's Federation, 2014.02.11]



중국 정부, ‘두 자녀 정책’ 전면 도입 가능성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과학연구소 마쭈(Ma Xu) 소장이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중국에서는 올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및 안후이 등 주요 도시 및 성 7곳에서 기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 정책을 도입하는 지역은 올 연말까지 총 20여 곳으로 확대
 - 마쭈 소장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 출산되는 신생아 수는 연간 2백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지난해 3백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
 - 마쭈 소장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연간 늘어나는 신생아 수가 1천만

- 명 정도라며, 정부가 이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
- 그러나 마쉬 소장의 발언에 대해 리빈(Li Bin) 생육위 주임은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인

[Channel News Asia, 2014.03.06]



중국 보건당국, AIDS 괴담과의 전쟁 선포 ... ‘신뢰성’ 회복이 관건

- 중국 보건당국이 AIDS 관련 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
 - 최근 중국에는 1만명 이상의 AIDS 감염자가 전국 각 도시에서 음식물에 자신들의 혈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원저우시에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감염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급속히 확산
 - 이에 따라 중국 보건당국은 해당 내용이 유언비어라며 유포자를 찾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
 - * 지난 '07년에는 AIDS 환자들이 이쑤시개를 통해 AIDS를 전파한다는 괴담, '11년에는 이번처럼 AIDS 환자가 음식물에 혈액을 떨어뜨린다는 괴담, 지난해에는 AIDS 바이러스가 있는 태국산 과일 통조림이 판매되고 있다는 괴담이 확산
 - 중국에서 이런 괴담이 빠르게 퍼지는 데는 당국의 공식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결국 ‘신뢰성’ 회복이 관건
 -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1985년 처음으로 AIDS 환자가 공식 보고된 뒤 AIDS 사망자 수가 '11년 말까지 총 9만3천명으로 집계

[China Daily, 2014.03.22]



중국 지방정부, ‘단독 2자녀’ 정책 시행 확산

- 중국 광둥성 정부가 ‘단독 2자녀 정책’의 전면적 도입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 수정안을 확정하는 등 중국 지방정부 사이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이 확산
 - 중국에서는 이미 저장성을 시작으로 장시·안후이·광시·산시·쓰촨 등 성정부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시정부가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
 - 또 산둥·후난·산시·허베이·윈난·지린·헤이룽장 등 성정부와 네이멍구자치구에서도 올 상반기 중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허난성과 닙샤자치구의 경우 하반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타 지역도 준비 작업에 돌입
 - * 단독 2자녀 정책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2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중국 중앙정부는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위해 1자녀 정책을 실시했으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올 들어 1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의 점진적 시행을 공식화
 - 단독 2자녀 정책이 확산되면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 제품 산업이 활기를 띠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광둥성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인접한 홍콩으로 원정출산 가는 산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China Times, 2014.04.06]



베이징, 공공장소 흡연시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1만 위안 벌금

- 중국 베이징 시정부가 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최대 1만 위안(미화 약 1천6백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금연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결정
 -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5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연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벌금은 2백 위안으로 증가
 - 특히 공공장소 흡연을 감독해야 할 관리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5천~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도 마련
 -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은 이 같은 내용이 수록된 가칭 ‘베이징시흡연통제조례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

-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12년 '담배규제 계획 2012-2015'를 발표하고 오는 '15년까지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시행키로 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장소 흡연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China Times, 2014.04.12]



중국 정부,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시급

- 중국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 의료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의료기관에서는 총 7만 건 정도의 의료분쟁이 발생
 - * 의료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불거지는 이런 갈등 양상이 심해지면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진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종종 발생
- 생육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분쟁 해결을 의료행정의 중점 업무로 설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제3자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제정 미비로 여의치 못한 상황
-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거명화(葛明華) 저장성 대표가 '의료분쟁처리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정부 차원의 의료분쟁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中國青年報, 2014.04.08]



중국 정부, 외국 분유기업 등록제 시행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GAQSIQ)이 외국 분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정보 사전 등록 등을 의무화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
 - 이와 관련, GAQSIQ는 새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13개국 41개 분유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
 - * 미국과 일본 기업은 명단에 없는데, 이는 수입되는 분유들은 수입 전에 중국어 상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
 - 이번 조치는 박테리아 오염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사이에 외국산 분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산 분유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장치라는 분석도 제기
 - *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격담합 혐의로 외국산 유명 분유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6개 분유업체에 6억7천만 위안(미화 약 1억6백만 불)의 벌금을 부과

[China Briefing, 2014.05.08]



중국 정부, 전국적 금연 캠페인 개시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국민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신문과 TV 등 미디어를 통한 전국적 금연 캠페인을 개시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지방정부들이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해 담배 판촉을 장려하는 등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고 흡연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도 뿌리깊게 고착되어 있다며, 금연 캠페인 효과에 대해 의문시
 - * 중국은 지난 '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FCTC)에 가입했지만 금연조치 시행에는 실패
 - 생육위는 올 연말까지 학교·병원·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완전 금지시킬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이 발각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 한편 중국 담배업체들의 담배 생산량은 연 1조7천억 개비로 미국업체보다 2.5배 많은 가운데, 중국은 전세계 흡연자 11억명 중 3억명 이상을 차지해 흡연 피해가 가장 큰 국가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5.06]



중국, 산아제한 완화에도 태아 성감별 여전 ‘골머리’

- 중국 정부가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선호로 인한 태아 성감별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어 고심
 - 저장성 원저우시 공안은 최근 임산부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혈액 샘플을 홍콩으로 보내는 신중 수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 준 일당 14명을 체포
 - * 이들은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심하자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임산부의 주소지로 사람을 보내 혈액을 채취, 택배로 홍콩으로 보내 성감별을 단행해 20만 위안(미화 약 3만2천불)의 불법 수익을 취득
 - 중국 도시에서는 성감별과 낙태기술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농촌 등 낙후 지역에서는 아직도 200~300 위안(32~48불)만 내면 초음파 진단기로 성감별을 해주는 의사가 많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
 - 한편 중국은 지난 '12년 신생아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7.7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 관계 당국은 오는 '15년까지 이 비율을 115명 아래로 낮추고 '20년에는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수립

[Xinhua News Agency, 2014.05.25]



WHO, 중국에 강력한 흡연 규제 대책 촉구

-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한 흡연 규제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강한 노동력이 부족해져 인해 경제발전이 치명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
 - 마거릿 첸(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은 리커창 총리와 리빈 위생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암과 심혈관 질환 같은 흡연 관련 질병이 중국의 노동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흡연 규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 첸 사무총장은 흡연 관련 질병 때문에 중국이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성취한 경제발전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지적
 - 중국은 세계 최대 담배 제조국이자 소비국으로, 흡연 인구는 3억 명 이상이며 어린이 1억 8천만 명을 비롯해 7억 4천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가운데 매년 100여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7.10]



중국, HIV/AIDS 재소자 ‘차별 감방’ 설치 ... 인권침해 비판

- 중국 정부가 교도소 내 HIV와 AIDS 재소자들을 격리 수용한 뒤 차별대우하는 감방을 설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미국으로 망명한 AIDS 퇴치 활동가 완옌하이(Wan Yanhai)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재소자 중 HIV와 AIDS 감염자들은 교도소 내 특별 감방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폭로
 - * 완옌하이는 한 교도소의 경우 HIV/AIDS 전용 감방에 269명의 재소자들이 갇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쓰촨성 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라고 소개
 - 또 최근 장쑤성의 성도 난징에서 35 km 떨어진 교도소에 HIV/AIDS 재소자 전용 감방이 설치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에서는 지난 '04년 개정된 감염질병법에 따라 HIV/AIDS 감염자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 HIV/AIDS 재소자 전용 감방 설치는 엄연한 불법

[All China Women's Federation, 2014.07.25]



중국 정부, 남녀성비 불균형 대책 마련 시급

- 중국의 남녀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최근 발표된 제6차 국가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남녀성비(117.6대 100)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년에는 결혼 적령기 20~45세 남성이 여성보다 최소 3천만명 많아 짝을 찾기 어려울 전망
 - * 현재 중국의 30세 이상 미혼남성은 매년 120만 정도 증가
 -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11년 향후 5년 내 남녀성비를 115대 10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리빈(Li Bin)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었음을 인정
 - 또 중국은 올해 기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남아선호 현상은 여전, 불법 태아 성감별과 낙태가 성비 불균형의 주요 이유로 분석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

[人民网, 2014.08.14]



중국 법원, 기업형 장기밀매단 실형 선고

- 중국 장시성 난창(Nanchang) 법원이 신장판매 지원자를 인터넷으로 모집한 뒤 적출한 신장을 항공편으로 대도시에 공급해 온 기업형 장기밀매단 조직원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서 1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
 - 이들은 지난 '11년 10월에서 '12년 2월까지 모두 23개의 신장을 적출해 판매, 154만8천만 위안(미화 약 25만불)의 부당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
 - 공안 조사 결과 이들 밀매단은 적출 장기를 냉장고에 보관한 뒤 해산물로 속여 항공편으로 광저우 병원 등에 공급해 왔으며,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길들이고 있는 피해자만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회가 경악
 - * 밀매단은 지원자들을 여관과 임대주택에 감금한 채 동물 같은 생활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사육'
 - 전문가들은 이식용 신장 공급이 수요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 장기 밀매단에게 생존과 이윤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합리적 장기기증 제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

[Daily Mail, 2014.08.12]



중국 정부, 불법 장기매매 관리감독 강화

- 중국 정부가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장기이식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장기이식 지정 169개 병원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거나 의료진의 기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
 - 중국에서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증된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로부터 적출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 또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해 신장을 적출한 뒤 각 병원에 판매하는 대규모 장기 밀매단이 잇따라 적발돼 파문이 확산
 - 한편 중국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증을 통한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된 장기를 전산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현재까지 기증 실적은 3천여건에 불과

[China Times, 2014.08.31]



베이징시, 환자폭력 대책 마련 착수

- 중국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베이징시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환자폭력 대책 마련에 착수
 - 연구팀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병실 강제점거, 의료진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물리적 폭력 행사 등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의료진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책을 집중 모색할 계획
 - 중국병원협회(Chinese Hospital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 '12년 의료진의 96%가 환자로부터 언어폭력, 60% 이상은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것으로 파악
 - 최근 윈난성 유룽인민병원(Yulong People's Hospital) 의료진 100여명이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으며, 홍콩대가 운영하는 셴첸병원(Shenzhen Hospital)도 환자 폭력에 강경 대처하기로 결정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병원이 대부분 공공 의료기관이지만 공익성이 약해지면서 고가 약품 판매와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 영리추구에 치우친 탓에 환자와 마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9.02]



중국 정부, 비의료 목적 태아 성감별·낙태 불허

- 중국 국무원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공안부, 공상총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비의료 목적 태아 성감별 및 낙태 금지 규정' 초안을 발표
 - 초안은 의료 목적을 제외한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중국 '인구계획법'의 집행 책임과 벌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보건·공안 당국은 관할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엄격히 관리감독, 위법 적발 시 5천~3만 위안(미화 약 800~4천8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책임도 묻는다고 규정
 - 또 성감별과 낙태시술의 의료 목적 여부를 평가할 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최소 3명의 부주임급 이상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급 보건 당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이와 함께 합법적인 낙태는 태아에 심각한 유전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부 생명이 위독한 경우,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

[人民日報, 2014.09.04]



중국, 사망 부부 ‘인공수정란 재판’ 논란

- 사망한 부부가 병원에 남겨놓은 인공수정란 소유권을 놓고 중국에서 논란이 확산
 - 난징의 한 병원은 아기를 갖기 위해 찾아온 장쑤성 출신의 불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을 통해 인공수정란 4개를 만든 뒤 보관
 - 그러나 이 부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인공수정란 보관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이 대리모 출산을 위해 병원을 상대로 수정란 반환 소송을 제기
 - * 중국내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며, 인공수정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개되기는 이번이 처음
 - 1심에서는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유가족에 패소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인 우시중급인민법원(Wuxi Intermediate People's Court)은 인공수정란의 소유권이 유가족에게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환송
 -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하는 측은 법과 제도가 인정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인공수정란 역시 의학적·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9.22]



중국, ‘한자녀 정책’ 전면 해제 시기 혼선

- 중국 정부 관료들 사이 ‘한자녀 정책’ 전면 해제 시기를 놓고 혼선이 유발
 - 차이팡(Cai Fang)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인민라디오(CNR)에 출연, 정부가 향후 2년 내 모든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
 - 그는 두 자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도 출산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
 - * 현재 중국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는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
 - 그러나 익명의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두 자녀를 출산하도록 허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부인

- 이 관계자는 과도한 인구가 경제사회 발전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기본적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지난해 말 중국의 총인구는 13억6천72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0.49%로 분석

[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 2014.10.24]



중국, ‘산아제한’ 전면 해제 주장 확산

- 중국이 인구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산아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6~59세 노동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244만명 감소한 9억1천954만명으로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 * 로널드 리(Ronald Lee)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베이징에서 13~14일 열린 전중 인구변화 및 정책 반응 심포지엄에서 부부당 아이가 최소 1.65명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차이 팡(Cai Fang)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역시 이 같은 견해에 동조
-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30여년 만에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바 있으나 아직도 두 자녀를 가질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형제나 자매가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
- 이를 반영하듯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All China Women's Federation, 2014.11.15]



중국,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법안 검토

- 중국 정부가 담배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중국 전역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
 - 공공장소 흡연 금지 방안에는 신문·잡지·도서·TV·영화관 등 미디어에서도 담배광고 규제와 자판기에서의 담배판매 금지도 포함
 - 이에 앞서 베이징 시의회가 내년 6월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금연 법안을 통과
 - * 시의회 법안은 실내 공공장소와 함께 병원의 실외 공간, 실외 경기장,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50~200위안(미화 약 8~32불)의 벌금을 규정
 - 이 같은 금연 조치에 대해 중국내 담배 판매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담배전매청(State Tobacco Monopoly Administration)은 담배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2.12]



중국 정부, 흡연 대책으로 담뱃세 인상 검토

- 중국 정부가 3억명이 넘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검토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다른 정부 부처들과 공조해 담뱃세 인상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관계 당국이 재정 및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
 - 전문가들 역시 저급 담배의 경우 한 팩당 가격이 미국에서는 최대 15불인데 비해 중국에서는 6위안(미화 약 97센트)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 저렴한 담배가격이 흡연자 수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주장
 -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09년에도 담뱃세를 인상한 바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세금 인상분을 흡수하면서 실제 흡연을 줄이는 데는 실패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담배 생산·소비국으로 흡연자가 3억명을 넘고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도 7억4천만명에 이르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130만명 이상으로 파악

[China Radio International, 2014.12.15]

5.5 EU



EU 회원국·유럽의회, 흡연규제 지침 합의

-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흡연 규제 지침에 합의
 - 주요 내용은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문구와 흡연폐해 이미지로 채우고 △브랜드명은 바닥면에 표시하며 △전자담배는 광고 및 청소년 판매가 불허되며, 3개 이상 국가에서 보건상 이유로 판매를 금지할 경우 EU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소형팩(한 갑에 20개비 미만)은 생산 금지 등
 - 그러나 이번 지침은 담배업계의 적극적인 로비로 상당 부분 완화된 내용으로, 보건 단체와 금연운동가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번 지침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오는 '16년부터 시행될 예정
 - 한편 EU 역내에서는 매년 70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만 연간 250억 유로의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

[Wall Street Journal, 2013.12.18]



스페인 정부, '낙태금지법' 강행 추진 ... 야권·여성단체 반발

-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안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야권과 여성 단체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확산
 - 정부는 낙태 허용을 더욱 엄격화한 낙태법 개정안을 집권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제출할 계획
 -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 혹은 임신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의사 2명의 동의하에 낙태를 허용 △태아의 기형 혹은 장애 가능성을 이유로 한 낙태는 불허 △18세 미만 청소년 낙태에는 부모의 허락이 필수 등을 규정
 - *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

나 임산부 건강이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

- 정부 방침에 보수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야권과 여성단체 등 진보진영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원정낙태를 떠났던 19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크게 반발

[Financial Times, 2014.01.03]



헝가리, 담배 규제 정책 효과 ... 담배 소비량 33% ↓

- 헝가리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
 - '13년 1~10월 헝가리 내 담배 소비량은 80억 개비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으며, 10월 한 달 동안은 5억2천만 개비로 월평균 8억 개비보다 30% 정도 감소
 - 담배 소비량 급감은 헝가리 정부가 담배값 인상과 판매점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 담배 판매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입증
 - * 담배 가격은 2년전 한 갑에 6백 포린트(미화 약 2.78불)에서 현재 9백~1천 포린트로 인상된 상태이며, 또 담배 판매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4만2천곳에서 5천3백곳으로 급감
 -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덕분에 1년 만에 약 20만명이 금연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담배값이 비교적 저렴한 우크라이나나 세르비아 등 인국 국가로부터의 밀수가 증가하고 '13년 1~8월 거둔 담배세는 2천4백만 포린트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

[DAWN, 2014.01.05]



독 연정, 빈곤 이주민 대책 놓고 '삐걱'

- EU 노동시장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 이주민에게 전면 개방됨에 따라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제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초래
 - 보수 성향의 기독교사회당(CSU)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이 급증해 독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 첫 3개월 동안은 육아보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은 EU 노동자의 자유이주가 유럽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 사회복지 혜택 금지는 유럽은 물론 독일의 발전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판
- 이에 대해 기사당은 이주민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연정 협상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
- 한편 기사당의 근거지인 바이에른주는 동유럽 출신 불법 이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

[Wall Street Journal, 2014.01.08]



프랑스 하원, 낙태법 완화 ... 임신 12주 이내 허용

- 프랑스 하원이 보다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을 통과
 - 집권 좌파 사회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대신, 임산부가 임신을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대체
 -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내에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
 - 그러나 우파 대중운동연합(UMP)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전 총리가 정부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등 보수 진영이 강력 반발
 - * 또 파리 시내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법 개정을 둘러싸고 프랑스 사회가 시끌
 - 한편 프랑스의 낙태 완화는 스페인 정부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안을 반강제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

[Baltic Review, 2014.01.26]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시술 거부권 부여 파문

- 벤트 회이아(Bent Høie)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이 의사에게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파문이 확산
 - 회이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낙태시술 거부 의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여론의 반대를 의식한 방안도 제시
 -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은 지자체가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형평성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비판
 - * 노르웨이 최대 노조인 파그포르분데트(Fagforbundet)의 메테 노르(Mette Nord) 대표도 정부 방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
 -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은 지난 '11년 좌파 연정에서 폐지된 바 있으나, 지난해 9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우파 연정이 부활을 시도
 - 한편 노르웨이의 현행 낙태법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나,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22주까지 가능

[Views and News from Norway, 2014.01.22]



이탈리아 헌재, 마리화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동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마리화나에 대해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반마약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현재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전 총리 시절인 지난 '06년 제정된 반마약법이 마리화나 밀매에 대해 6~20년형을 규정한 것은 이전 법이 2~6년형을 규정했던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
 - 이번 결정에 진보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
 - 한편 이번 판결로 반마약법이 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복역 중인 1만 여 수감자들의 형량이 감축되거나 조기 석방되는 등 밀집된 수감자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전망
 - *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월 이탈리아 교도소가 수감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있다며, 1년 이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

[Cannabis Country, 2014.02.21]



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 확정 ... 종교계 반발

- 벨기에 필립(Philippe) 국왕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재가함에 따라 동 법안의 시행이 확정
 -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거친 데 이어, 최근에는 하원에서도 찬성 86 반대 44 기권 12로 통과
 - 법안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전문의의 판단과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등을 규정
 - *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이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
 - 법안 확정에 대해 가톨릭교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하는 등 종교계에서는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 비판
 - 한편 지난 '12년 벨기에에서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천432건의 안락사가 시행

[Forbes, 2014.03.06]



유럽의회 고강도 흡연 규제 법안 확정

- 유럽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고강도 흡연 규제 법안이 EU 회원국 정부들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확정
 - 이 규제 법안은 현재 선택 사항인 흡연 경고 이미지를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65% 비율로 부착하고, 담뱃갑 옆면의 절반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면서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
 - 또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바닐라와 초콜릿 등 특정 향이 가미된 대다수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박하향 담배의 경우 '21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불법 담배무역 추적 시스템 구축도 명시
 - 법안은 오는 '16년초부터 발효
 - 그러나 담배업체들은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음지에서 담배 밀매를 부추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

[European Voice, 2014.03.14]



체코 대법원, 마리화나 등 마약류 처벌 강화

- 체코 대법원이 마리화나 등 마약류 소지 한도를 낮춰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처벌 기준을 강화, 처벌을 완화하는 일부 국가들과 대비
 - 대법원은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류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생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소지 한도를 낮춰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 소지 한도는 1인당 마리화나 10g, 헤로인 1.5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5g, 코카인 1g, 해시시 5g
 - 또 지난 '07년부터 마약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으며, 상당수 베트남계 주민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
 - 대법원은 그러나 소지 허용 한도는 기준선이며 처벌은 마약의 농도나 범죄와 관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적용된다고 설명
 -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정책 추세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미국 콜로라도주는 올해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데 이어 워싱턴주는 하반기부터 합법화할 예정이며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에서도 합법화 움직임이 가시화

[Prague Daily Monitor, 2014.04.10]



독일 정치권,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

- 독일 야당인 녹색당(The Greens)과 좌파당(The Left)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의회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 독일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이 제기
 - 이번 제안은 지난해 11월 1백여 법학교수들이 의회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정치권의 첫 움직임으로, 두 정당은 여당인 기민당 및 기민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에게도 동참을 요구
 - * 법학교수들은 마리화나가 불법화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구하려고 암시장에서 밀매업자와 접촉하면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을 전개
 - 독일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12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녹색당과 좌파당 의원 수는 총 127명으로 위원회 구성은 무난할 전망
 - 현재 독일에서는 마리화나를 흡입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

[The Times, 2014.04.21]



이탈리아 베로나시, 노숙자에 급식 제공시 벌금 부과

- 이탈리아 베로나시가 노숙자들에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
 - 플라비오 토시(Flavio Tosi) 베로나 시장은 도시 중심지에 노숙자들이 증가해 환경오염에 따른 공중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5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 토시는 시정부 공무원들이 단테광장 주변에서 급식을 배급받는 노숙자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 노숙자들은 시정부가 마련한 보호시설을 마다하고 스스로 노숙 생활을 선택해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 그러나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노숙자들에 대한 급식 제공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며 반발
 - 관계자들은 또 공중위생과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경비원을 충원해야지 노숙자들에 대한 음식 제공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비난

[Independent, 2014.04.24]



덴마크 정치권, 남성 동성애자 헌혈 허용 추진

- 덴마크의 주요 6개 정당이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금지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닉 해커로프(Nick Haekkerup) 보건부 장관에 규제 철폐를 공식 요청
 - 스티네 브릭스(Stine Brix) 적녹연맹당 대변인은 수혈의 안정적 공급원인 젊은 남성을 비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금지 규제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 * 덴마크 인권단체 역시 남성 동성애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 위험을 이유로 헌혈대상에서 평생 제외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동성애자 혐오증 때문이라고 강조
 - 스웨덴·핀란드·영국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가 12개월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헌혈을 허용하나 덴마크에서는 무조건 금지
 - * 그러나 여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은 덴마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
 - 한편 해커로프 장관은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해 동성애자가 아닌 환자 안전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 폐지 가능성에 무게

[Copenhagen Post, 2014.05.14]



EU,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폐지 추진

- EU는 음식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기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에 한해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표시 의무제를 폐지할 방침
 - 표시 의무제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커피 · 쌀 · 드라이 파스타 · 경질 치즈(hard cheese) · 잼 피클 등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각 가구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중 1천500만t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유럽 전역의 음식 쓰레기는 연간 1억t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샤론 디익스마(Sharon Dijksma) 네덜란드 농업장관은 음식 쓰레기로 인해 역내 각 가구당 연간 500 파운드를 낭비하고 있고, 낭비되는 쓰레기의 15% 가량은 포장의 품질유지기한 표시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
 - 현재 EU 관련법은 육류와 달걀 같은 상하기 쉬운 식품과, 냉동 건조식품 · 캔류 등 구별 없이 모든 식품에 대해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
 - 그러나 장기 보관 가능한 식품은 변색하거나 향이 얼어져도 섭취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EU Observer, 2014.05.21]



스페인, GDP 산출시 성매매·마약 거래 포함

- 스페인 정부가 향후 GDP를 산정할 때 성매매, 마약, 밀수 등 지하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도 포함시키기로 결정
 - 이는 EU집행위원회가 불법 거래도 엄연한 경제 활동이니만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다는 전제 아래 회원국이 GDP를 산출할 때 지하경제 항목도 포함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결정
 - 스페인은 북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마약과 마리화나가 흘러들어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 GDP가 대폭 증가할 전망
 -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 5월 성매매와 마약 거래 액수를 GDP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영국 통계청은 이 경우 영국 GDP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유럽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5분의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

[New York Times, 2014.06.17]



터키 정부, 흡연규제 강화 ... 담뱃갑 포장 '검은색' 으로 변경

- 터키 정부가 담뱃갑 포장을 '검은색'으로 변경하는 등 흡연 규제를 강화
 - 담뱃갑 포장을 검은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담뱃갑 앞뒷면에 절반 정도의 넓이로 경고문과 폐암에 걸린 폐 등 흡연의 피해를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경고사진을 삽입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강화한 내용
 - 이번 조치는 호주가 지난 '12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단순 담뱃갑 포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호주는 모든 담뱃갑 전면을 검정 바탕에 경고문과 경고사진만 부착하도록 의무화
 - 터키 정부는 또 학교 주변 반경 100m 내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식당과 주점의 테라스와 쇼핑몰 입구도 금연구역에 포함하기로 결정
 - * 터키 정부는 지난 1997년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2만2천여 담배 소매업체들은 생계가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며 격렬히 반대

[Tobacco Reporter, 2014.08.01]



스페인 정부, 마리화나 클럽 규제안 적극 검토

- 스페인에서 마리화나 클럽이 급증, 정부가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스페인에서 마리화나 소비는 불법은 아니지만 마리화나 클럽 수는 지난 '10년 4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00개 이상으로 급증
 - 스페인 마리화나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일부 클럽들은 인터넷과 전화 및 광고지로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과도하게 경쟁
 - * 바르셀로나에서는 마리화나 클럽 회원이 16만5천명에 이르고 총 매출액은 한 달 평균 5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스페인 정부는 마리화나 확산을 우려, 마리화나 클럽의 신규 허가를 당분간 발급하지 않고, 마리화나를 피우려고 스페인을 찾아오는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회원 자격을 21세 이상 자국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등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Daily Telegraph, 2014.08.08]



터키 정부, 이슬람 관행 ‘조혼’ 해결책 마련에 부심

- 터키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관행인 ‘조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동부를 중심으로 지난 7년 동안 임신한 미성년자 수가 9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부심
- 터키 보건부는 의회에 제출한 대정부 질문 답변서에서 '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신한 미성년자는 9만1천208명이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미성년 임신사례는 2천72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 또 지난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소에 성적학대로 보호를 요청한 18세 미만 여성은 2천792명이며, 이들 중 강제결혼한 여성을 263명이라고 보고
- 터키 정부는 조혼을 사회적 악습으로 간주, 미성년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시킨 부모를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 * 최근 동부의 한 지방법원은 강제로 결혼한 미성년 여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종교결혼을 주재한 이맘(이슬람 성직자)에게 실형을 선고

[Today's Zaman, 2014.08.06]



아일랜드, 낙태금지법 논란 확산

- 아일랜드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낙태를 허가받지 못하고 조기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를 강제 출산한 사건이 발생, 경직된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 이 여성은 아일랜드 입국 전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당해 아일랜드 보건부에 낙태허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보건부는 이 여성에 대해 의료기관을 통해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뒤 아기를 보호기관에 위탁
-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폐지론자를 비롯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보건부가 인권을 짓밟은 행위를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규탄
-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12년 낙태를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낙태금지법이 개정
- 그러나 합법적으로 낙태허가를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불가피하게 외국 길에 오르고 있는 형편

[The Economist, 2014.08.23]



스위스 정부, 외국인 ‘조력자살 여행자’ 급증 고민

- 스위스의 조력자살 지원 전문병원 등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외국인 여행자가 최근 3년 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 스위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
- 스위스 내 외국인 조력자살 건수는 지난 '08년 123건에서 '09년 86건으로 감소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2년에는 172건을 기록, 스위스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 '12년의 경우 조력자살로 사망한 외국인 172명 가운데 독일인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인 29명, 이탈리아인 22명, 프랑스인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58%로 남성 4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
- *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로, 절반 가량이 신경질환 환자였고 류머티즘성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등 환자가 뒤를 이은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안락사와 함께 조력자살은 윤리적·법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락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조력자살은 스위스·알바니아·콜롬비아·일본 및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허용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8.21]



프랑스 정부, 담뱃갑 포장 규제 ... 전자담배 흡연도 제한

- 프랑스 정부가 모든 담뱃갑 포장을 동일하게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연 정책을 발표
- 프랑스 정부는 일일 1천300만명의 성인이 담배를 피우고, 젊은층 흡연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7만3천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
- 특히 젊은층에게 흡연이 매력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담배 포장을 동일하게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담뱃갑 포장을 같게 한 호주의 경우 담뱃값 인상 효과와 맞물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감소
-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고, 전자담배 판매소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New York Times, 2014.09.26]



스페인 정부, ‘낙태금지법’ 개정안 제정 철회

-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스페인 총리가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금지법’ 개정안 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
- 개정안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의사 2인의 동의 아래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 회의에서 개정안 제정을 의결
- 그러나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여성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
 - * 지난 '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원칙적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태아가 기형이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22주까지도 허용
-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은 지난 '11년 낙태법 개정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
- 한편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 제정을 철회하는 대신 미성년자가 낙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낙태 법안을 마련할 방침

[The Christian Institute, 2014.10.02]



벨기에 병원, 노인부부 동반안락사 허용 파문

-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 위치한 한 병원이 80대 후반의 부부가 결혼 64주년 기념일인 내년 2월3일 동반안락사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파문이 확산
- 남편은 지난 20년 동안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르핀 주사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어렵고, 부인은 청력을 거의 상실한 가운데 시력도 희미해진 상태이나 부부 모두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는 아닌 상황
- 그러나 이들은 동반안락사를 선택한 이유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 사망 후의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3명의 자녀들도 부모가 배우자 사별 후 홀로 됐을 때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의 계획을 수용
- 하루 평균 5명이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안락사하는 벨기에에서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함께, 안락사를 선택하기는 이번이 처음
- 벨기에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의 계획과 병원의 수용에 큰 충격

[The Christian Institute, 2014.09.30]



영국·스웨덴, 공공장소 흡연 규제 확대 추진

- 영국과 스웨덴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영국 런던시는 지난 '11년 센트럴파크 등 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한 미국 뉴욕시처럼 도심 트라팔가 광장과 하이드파크 공원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공장소를 담배 없는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
 - 런던시는 이 경우 시내에서 금연지역이 40%로 확대돼 보건 및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05년부터 식당을 비롯한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해 온 스웨덴 보건당국은 병원 병동 외부, 버스정류장, 야외식당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규제할 계획
 - * 북유럽에서는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
 - 당국이 규제안 발의를 앞두고 성인남녀 1천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 병동 외부 흡연금지는 80%, 버스정류장 70%, 야외식당 흡연금지는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

[Independent, 2014.10.15]



이탈리아, 신생아 보너스 월 80 유로 3년간 지급

- 이탈리아 정부가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월 80 유로를 3년간 지급하기로 결정
 -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이탈리아 총리는 국영 TV방송에 출연,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보너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
 - 이 정책은 월소득 1천500 유로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 제도와 함께 '15년 1월부터 시행
 - * 렌치 총리의 발표에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과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180억 유로의 세금을 삭감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출생률이 매우 저조한 국가로, 이탈리아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 성장을 위한 적정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아이가 2.1명 필요하나 현재는 1.6명 정도에 불과
 - 특히 '13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총 51만5천명으로, 앞선 5년간 연 평균보다 6만4천명이나 적었으며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1995년보다도 1만2천명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

[Economist, 2014.10.25]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귀환 미군 주둔에 강력 반발

- 이탈리아 국민들이 미국 정부가 라이베리아에서 귀환하는 미군을 미국 본토로 보내지 않고 베네치아 인근 미군기지에 머물도록 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
 - 특히 미군기지가 위치한 비첸차(Vicenza) 지역 주민들의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 보르톨로 병원(San Bortolo Hospital)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에볼라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특별 시설을 구비
 - 비첸차 의회는 비첸차 주민들이 위협해질 수 있다며 라이베리아에서 오는 미군의 격리를 이곳이 아닌 미국 본토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
 - 이탈리아 야당인 오성당(Five Star Party)도 이탈리아 정부가 미군을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 라이베리아에서 귀환하는 미군들 중 에볼라에 감염된 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미군 관계 당국만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미군의 비첸차 주둔 기간은 3주로 예정

[Wall Street Journal, 2014.10.27]



독일 연방행정법원, 전자담배 액상 비의약품 판결

-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부퍼탈시에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
 - 이 여성은 부퍼탈 시당국으로부터 지난 '12년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의 판매를 금지 당하자 하급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
 - * 시당국은 액상을 의약품으로 간주, 이 여성에게 다양한 농도로 제조된 액상 판매를 금지
 - 그러나 상급심인 연방행정법원이 이번에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독일에서는 전자담배 판매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
 - 한편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니코틴과 향료가 포함된 무취의 증기가 나오며, 일반 담배보다 중독위험이 낮은 대체 기호품으로 종종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Star Tribune, 2014.11.22]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추진

-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회복이 어려운 말기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
 - 그러나 의료진이 말기환자에게 치사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도록 돕는 것은 금지하고,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 연명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의료진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할 계획
 - * 현재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말기환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합법
 -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2년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 허용을 내세운 바 있으나 보수 성향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지지부진
 - 그러나 올해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한 환자의 연명치료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안락사 허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한편 유럽에서는 지난 '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안락사가 허용

[Life Site, 2014.12.16]



유럽사법재판소, 비만 이유 직장 내 차별에 '제동'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업무 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비만한 사람은 장애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이유로 해고 등 직장 내 차별은 위법이라고 판정
 - 이번 판정은 카르스텐 칼토프트라는 덴마크인이 비만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빌룬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 건을 심리해 온 덴마크 법원의 질의에 따른 것
 - 덴마크 법원은 EU고용법이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지, 비만을 장애로 간주할 수 있는 지 판정을 내려달라고 요청
 - ECJ는 EU고용법이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용인이 비만으로 인해 심리적·육체적으로 온전하고 효과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장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 답변
 - 다만 장애로 인정될 만한 비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지는 각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설명

[Financial Times, 2014.12.18]

5.6 아시아



인도네시아, 담배 포장·광고 규제 강화 ... '라이트' 등 용어 사용 금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2년 12월 개정된 담배 관련 규정 유효기간이 '14년 6월에 끝나며, 이후에는 담배 포장·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강조
 -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담배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한 뒤, 의회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조속한 시일 내 비준할 것을 촉구
 -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흡연 사망자가 매년 40만명, 간접흡연 사망자는 2만5천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Jakarta Globe, 2013.12.26]



뉴질랜드 정부, 금연 임신부에 상품권 지급

- 뉴질랜드 정부는 금연에 성공하는 임신부에게 최고 3백 뉴질랜드달러(미화 약 248불)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
 - 이는 임신부 흡연이 임신부 자신은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 스스로 금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
 - 상품권 지급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외국에서 시험적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결과 임신부에게 금연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1월 1일을 기해 담뱃세를 10% 인상한 데 이어 오는 '16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할 계획
 - 정부는 담뱃세 인상이 오는 '25년까지 흡연인구를 5% 이하로 낮춰 완전 금연국가를 만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 * 뉴질랜드 흡연인구는 '06년 59만8천명에서 '13년 46만3천명으로 급감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1.02]



호주, 음주폭행 형법 개정안 마련

- 최근 연이은 음주폭행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호주 최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오파렐(Barry O'Farrell) 주총리가 음주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소 8년으로 하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
 - 개정안은 또 마약이나 음주로 촉발된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8~25년으로 규정
 -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과거와 같이 법원이 음주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
 - 한편 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파렐 주총리는 소위 '뉴캐슬 모텔'*은 음주폭행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
- * NSW주 뉴캐슬시에서 6년전 도입한 주류 판매업소 단속 정책으로, 업소가 새벽 1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새벽 3시에는 폐점하도록 규정

[ABC, 2014.01.28]



태국 정부, 고령화 급진전으로 경제활력 상실 우려

- 태국 정부는 중진국 대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복지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
 - 태국노인학연구개발원(Thai Geront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TGRDI)에 따르면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과거 7대 1이었으나 현재 5대 1로 좁혀졌으며 향후 10년 내 2.5대 1에까지 이를 전망
 - * 총리실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이고, 20년 후에는 25%가 될 것으로 예상
 - 인구 고령화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반면 지난 '46~'64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며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지난 '09년부터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500~1천 바트(미화 약 15~30불)의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 유지는 턱없이 부족
 - 한편 전문가들은 이혼 증가와 고령화로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 역시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문제로 직결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Bangkok Post, 2014.04.14]



인도네시아 정부, 담뱃갑 포장 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가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 포장 규제를 강화할 방침

- 나프샤 음보이(Nafsiah Mboi) 보건장관은 담배포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09년 제정됐고 시행령은 '12년 공포됐다고 상기시킨 뒤, 담배업계는 오는 24일까지 모든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 사진을 부착할 것을 주문
- * 시행 규정에는 담뱃갑 포장의 40%에 흡연 경고 사진과 문구를 부착하고, 담배 상품명에 라이트·마일드·저타르·슬림·스페셜·프리미엄 등 흡연의 해악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신문·방송 등 미디어에서의 담배광고 제한 등 내용이 포함
- 음보이 장관은 이번 발언은 담배업계가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기간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
-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흡연자 수가 9천여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 이들 중 빈곤층은 60%, 흡연 사망자는 연간 40여만 명, 간접흡연 사망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추정

[Jakarta Globe, 2014.06.04]



말레이시아, 돼지 DNA 성분 초콜릿 혼란 가중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영국 식품업체 캐드버리(Cadbury)의 밀크와 헤이즐넛 초콜릿 제품 검사 결과 돼지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 혼란이 가중

- 이슬람개발부는 돼지 DNA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샤리아법에 근거해 이슬람 신자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할랄(halal)' 인증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계획
- * 돼지는 샤리아법에 따라 고기를 포함한 모든 성분이 이슬람 신자들이 섭취 또는 접촉을 피해야 하는 하람(haram) 중 하나로, 하람으로 규정되면 할랄 인증이 불가능
- 앞서 보건부는 캐드버리의 밀크와 헤이즐넛 두 종류의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발표, 이슬람 신자가 다수인 말레이시아 사회에 파문이 확산
- 이슬람단체들은 문제의 초콜릿 제품은 물론, 캐드버리의 모기업인 미국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격앙된 반응
- 이런 가운데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네티즌들은 캐드버리 초콜릿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시식회를 개최

[Rakyat Post, 2014.06.15]



베트남, 혼인가족법 개정안 통과 ... 제한적 대리모 허용

- 베트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1월1일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리모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통과
 - 개정안은 대리모 행위 허용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논란을 감안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기
 - 또 대리모를 구하는 부부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
 - 이와 함께 대리모가 불임부부와 친척 등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첨부, 대리모 행위가 상업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
 - 대리모 행위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해 1회로 제한
 -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대리모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매년 500~700명 정도가 대리모를 구할 것으로 전망

[VietNamNet Bridge, 2014.06.25]



인도네시아, 담뱃갑 포장 규제법 본격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갑 포장의 40%에 흡연 위험 경고 사진과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시행에 본격적으로 돌입, 그 효과가 주목
 - 이번 담뱃갑 포장 규제법은 지난 '09년에 제정됐으나 담배업체가 준비 기간 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12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마침내 이번에 본격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향후에는 공공장소의 흡연도 금지할 계획
 - 인도네시아의 흡연자 수는 9천여만 명, 성인 남성 흡연율은 60% 이상, 흡연자 중 60% 정도는 빈곤층, 흡연 사망자는 연간 40여만 명, 간접흡연 사망자는 2만5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되는 등 흡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 그러나 이번 조치에 거대 담배업체들은 대부분 개의치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소비자연맹(Indonesian Consumer Foundation)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 규제법이 어떤 효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

[Jakarta Post, 2014.07.01]



호주, ‘단순 담뱃갑 포장법’ 효과 발휘 ... 흡연율 2.3%P ↓

- 호주보건복지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AIHW)가 지난해 7~12월 2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마약류전략세대조사(NDSHS) 결과에 의하면 '10년 15.1%이던 전국 흡연율이 '13년에는 12.8%로 2.3%P 감소
 - 반면 처음으로 흡연을 경험하는 연령은 평균 14세에서 16세로 상승
 - 이러한 결과는 지난 '12년 세계 최초로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소위 '단순 담뱃갑 포장법'이 흡연자들의 태도와 흡연 문화를 바꾸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
 - 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이 담뱃값 인상으로도 연결돼 '00년 한 갑에 9.28 호주달러(미화 약 8.7불)였던 담뱃값이 지난해에는 17.10 호주달러(16.1불)까지 뛴 것도 또 다른 원인
 - 한편 아일랜드·뉴질랜드·영국 등이 호주와 유사한 단순 담뱃갑 포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인도와 프랑스는 법 도입 여부를 검토 중

[Sydney Morning Herald, 2014.07.17]



뉴질랜드 국민, 비만세 부과에 찬성

- 뉴질랜드헤럴드가 시장조사업체 디지폴(DigiPoll)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 유해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
 - 뉴질랜드 정부가 비만세 부과 방안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세 부과 방안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53.9%, 반대한다는 비율은 42.5%, 대답을 거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은 나머지 3.6%로 집계
 - * 토니 라이얼(Tony Ryall) 보건장관은 비만세 도입 보류에 대해 비만세 영향을 받는 식품들의 가격인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 또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달 니키 케이(Nikki Kaye) 식품안전장관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식품포장에 5개의 별로 영양등급을 표시하는 식품영양등급 표시제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
 -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모든 일에 간섭·규제하기보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New Zealand Herald, 2014.07.24]



태국, 일본인 남성 대리출산 파문 ... 줄기세포 추출 의혹

- 태국에서 일본인 남성이 절세 혹은 줄기세포 추출이 목적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출산을 시행, 파문이 확산
 - 태국 경찰은 일본인 재벌 2세 시케타 미쓰토키를 대상으로 15명의 신생아를 대리모로 출산시킨 사실을 적발, 대리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사 중
 - 이 남성은 변호인을 통해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기들을 재산 상속과 관련한 절세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태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
 - 전문가는 대리출산한 신생아들은 출산 직후 바로 친부모에게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 인도되지 않은 이유와 신생아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
 - * 또 태아 줄기세포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
 - 최근 태국은 대리모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는 사건도 발생, 대리출산 문제로 시끌

[Bangkok Post, 2014.08.17]



태국 군정,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제정

- 태국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 NCPO)가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계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는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 태국은 그동안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친척간 대리모 출산 이외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 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법은 없는 상황
 - NCPO는 불임부부에게 아기를 갖도록 하는 대리모 출산에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소개
 - 그러나 NCPO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불가피할 경우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ABC, 2014.09.03]



베트남, 성매매 합법화 문제로 시끌

- 베트남 의회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유교 문화권인 베트남 사회가 시끌
 -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성매매를 사회악으로 규정,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을 일반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재활센터에 수용
 - 그러나 지난해부터 재활센터 수용 대신 미화 25~100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
 - 이는 성매매에 20만명 정도가 종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 * 유명 해안도시에서는 성매매 업소들이 범죄조직의 비호 아래 공개적으로 영업
 - 합법화 찬성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정부가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수 있어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

[AsiaOne, 2014.09.25]



말레이시아, 할랄수사대 출범 ... 이슬람 금기 식품 불법유통 단속

-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식품의 불법유통을 단속해 근절하기 위한 할랄수사대 'CSI(Contamination Scene Investigation)'를 출범
 -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조된 식품으로, CSI는 유전자·단백질·지방산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진짜 할랄 식품인지와 아니라면 고의적 범행인지 실수인지를 가려내 범죄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계획
 - CSI 출범에는 올 초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할랄 식품으로 유통되던 유명 초콜릿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회가 발각 뒤집힌 돼지고기 초콜릿 파동이 배경
 - * 보건부 발표 이후 곧바로 이슬람개발부 공인 연구소에서 돼지 DNA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아 국민이 혼란에 빠지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
 - 한편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에 따르면,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규모는 1조4천억불 정도로 추산

[Utusan Malaysia, 2014.12.01]

5.7 중동



바레인 고등행정법원, 여성 → 남성 성전환 허용

- 바레인 고등행정법원(High Administrative Court)이 여성 2명이 남성으로 성전환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요청한데 대해 허가를 결정
 - 성전환 수술은 외국에서 실시되나 수술 뒤 바레인으로 돌아와 남성으로의 합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레인 법원의 허가가 필수
 - 허가를 요청한 여성은 모두 20대 공무원으로, 파위지 야나히(Fawzia Janahi) 변호사는 이들이 잘못된 신체를 타고나 성정체성을 겪어 왔다고 설명한 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남성으로서의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야나히 변호사는 또 성전환 수술 후 바레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제 때 제출하겠다고 다짐
 - * 야나히는 아랍인으로서 유일한 성전환 관련 전문 변호사로, 지난 '05년과 '08년 바레인 여성 각각 1명을 성전환시켜 남성으로의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데 성공

[Arabian Business, 2014.01.02]



두바이 정부, 물담배 ‘시샤’ 흡연 규제

- 두바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시샤(Shisha)’ 흡연자들에게 5백 디르함(미화 약 136불)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2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도 5백 디르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두바이 정부는 '09년부터 공원과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시샤 흡연을 금지해 왔지만 적발 시 경고에 그쳤을 뿐, 실제 벌금 부과를 실행에 옮기기는 이번이 처음
 - * 시샤는 담뱃잎을 솥으로 데운 뒤 물이 담긴 용기의 관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물담배로, 중동권의 대표적 관광 상품
 - 시샤의 경우 보통 1시간여에 걸쳐 천천히 피우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1백배 가까운 유해연기를 들이 마실 우려가 있으며 솥을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두바이 정부의 판단

- 한편 아부다비 정부도 해변의 모든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시샤 판매를 금지하는 등 공공 장소 내 시샤 흡연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

[Dubai Eye, 2014.02.04]



사우디 정부, 공공장소 내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공장소 내 모든 식당과 카페 및 체육관 같은 스포츠 시설에서의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
- 이 같은 금지 결정은 에너지음료가 소비자 건강 특히 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무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음료 한 캔에는 다량의 카페인 뿐 아니라 설탕도 무려 30 티스푼 정도가 함유
- 사우디 정부는 에너지음료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사회·문화·스포츠 행사를 지원하는 행위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 현재 사우디에서의 에너지음료 판매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간 60억 리얄(미화 약 16억 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
- 한편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에너지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음료 규제 움직임이 확산

[Arab News, 2014.03.17]



UAE, 모유 수유 의무 법안 추진

- UAE의 의회적인 연방국가위원회(Federal National Council : FNC)가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의무적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
 - FNC는 모유 수유를 권하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근거, 이번 법안을 마련
 - 그러나 염증 등 건강 상 이유로 모유 수유를 못하는 산모가 적지 않고, 직장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으며, 법 시행 방안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
 - 지난 '13년 UAE 정부 통계에 의하면 UAE에서는 생후 6개월 동안 아이에게 분유나 물 등을 먹이지 않고 순수하게 모유만 먹이는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이후 만 2세까지는 이유식을 곁들인 모유 수유를 권장

[Aljazeera, 2014.04.22]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결혼·출산 장려 정책 주문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
 - 이와 관련, 하메네이는 여성의 출산과 남성의 정관복원 수술비용 지원,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14개항으로 구성된 지침을 전달
 - 이란은 이슬람혁명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 1986년 3.2%였던 출산율이 현재 1.22%로 급락한 가운데 총 인구수는 7천700만 명
 - 그러나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향후 20년 내 인구 성장률이 제로에 이르면서 사회와 경제가 총체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고조
 -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전 대통령은 이란 인구가 1억2천만 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하메네이는 1억5천만 명을 제시

[Boston Globe, 2014.06.08]



사우디 정부, 에너지 음료 광고금지·판매제한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7월1일부터 에너지 음료의 광고를 금지하고 판매를 제한
 - 정부는 또 에너지 음료업체들로 하여금 에너지 음료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영어와 아랍어로 음료 표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 이 같은 조치로 사우디에서 에너지 음료는 온라인과 인쇄매체 및 방송을 통한 광고가 금지된 가운데, 정부기관 등 공공시설·학교 등 교육기관·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에서는 판매도 금지
 - 사우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에너지 음료가 카페인 과다 함유로 불면증은 물론, 심장박동 이상과 발작 같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내무부 자체 분석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
 - 이번 조치로 미국 레드불(Red Bull) 등 에너지 음료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
 -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음료의 위해성과 관련, 에너지 음료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

[Arabian Business, 2014.07.01]



모로코 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검토 ... 중동·북아프리카 최초

- 모로코 의회가 마리화나의 일종인 해시시(hashish)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모로코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해시시 최대 재배 국가로, 생산된 해시시는 대부분 유럽으로 밀반입
 - * UN에 의하면 모로코 북부 리프(Rif) 산악지대에서는 8만여 가구가 생업으로 해시시 재배에 종사
 - 모로코의 현행법 상 해시시 재배는 엄연한 불법이나 정부는 그동안 묵인
 - 하지만 해시시 재배 가구는 정작 수익은 별로 챙기지 못하면서 밀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반복
 - 또 단속 경찰들은 뇌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현재 모로코 교도소에는 1만5천 재소자가 해시시 불법 재배로 투옥
 - 모로코 의회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의료 및 산업용으로 해시시를 재배해 고용을 늘리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법화 방안을 검토
 -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마리화나 합법 여부가 검토되기는 이번이 처음

[Morocco World News, 2014.10.10]



중동, 외국인 포함 음주 전면 금지 움직임 확산

- 이슬람권인 중동 국가 사이에서, 외국인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음주를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 오만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음주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의회가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주류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의결
 - 이에 대해 보수 여론은 환영하고 있지만, 자칫 관광업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 * 오만은 원유 매장량이 적어 관광·무역 등 비석유 부문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
 - 바레인 의회도 지난 6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음주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하는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카타르 역시 정부가 호텔의 수영장과 해변 등 실외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침을 확정하는 등 전면 금주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현재 외국인까지 음주할 수 없는 중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뿐이며, UAE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호텔과 일부 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음주할 수 있도록 허용

[Gulf News, 2014.12.10]

5.8 글로벌



다국적 담배업체, 개도국 금연정책 의도적 방해

- 필립모리스와 BAT 등 다국적 담배업체들이 개도국 금연 관련 정책이 기존 국제 무역·투자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남발, 정책 시행을 의도적으로 방해
 - 이들 업체는 선진국의 금연 확대 정책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제무역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 각종 규정을 들이대며 공포감을 조성
 - *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흡연율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담배 광고 제한과 청소년 교육 등 각종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이 시행되기 무섭게 다국적 담배업체들이 금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다국적 담배업체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상당수 무역협정들이 기업들에 직접 상대국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
 - 더욱이 개도국들은 담배업체들이 근거없이 제소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 관련 노하우가 없어 당하고만 있는 상황
 - 한편 오늘날 전세계 담배의 4분의 3은 개도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

[Boston Globe, 2013.12.22]



WHO, 일일 당분 섭취량 25g 이하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일 당분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
 - WHO는 지난 '02년 일일 당분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당분 섭취량을 5% 이하로 절반이나 감축
 - * 하루 섭취 열량의 5% 이하는 일반 성인 남성 기준으로 25g(6 티스푼) 정도에 해당
 - WHO가 의미하는 당분에는 식품 제조업체나 요리사가 첨가하는 모든 단당류 및 이당류와 함께 꿀·시럽·과일주스 등 자연 상태의 당분들도 포함

- WHO는, 예를 들어, 케첩 1 스푼에는 약 4g의 당분이 포함됐다고 표시된 가공식품들이 시판되고 있지만, 표시되지 않은 숨겨진 당분들도 대거 함유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며 과다 당분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
- WHO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일반인과 단체들의 의견을 홈페이지에서 취합한 뒤 WHO 권고안 재검토위원회에서 당분 섭취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Wall Street Journal, 2014.03.05]



미국·독일, 장애인 채용 확산 ...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 효과

- 미국과 독일에서 단순한 장애인 배려 차원을 넘어 사업 자체를 위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확산, 경제·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국책 모기지 전문 금융기관 프레디 맥(Freddie Mac, 옛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
 - 독일의 SAP는 오는 '20년까지 직원의 1%를 장애인으로 충원한다는 목표 아래 소프트웨어 오류 탐지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대거 모집
 - 이들 기업은 장애인들이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현상이나 사물에 집중하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는 데 주목
 - 장애인 채용 확산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
 - * 현재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3백만 명 가량이 장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85%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Wall Street Journal, 2014.04.04]



WHO,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검토

-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 WHO는 일단 전자담배를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FCTC)*에서 일반담배로 규정할 방침
 - * WHO가 국제사회의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담배 규제 정책의 기본틀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전세계 176개국이 가입
 - WHO는 전자담배가 흡연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전자담배 위협에 국제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WHO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제할 경우 △광고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담뱃세 부과 등의 각국 정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자담배의 급속한 성장세를 꺾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
 - 한편 미국 투자기관 캐나코드 제누이티(Canaccord Genuity)에 의하면 전세계 전자담배 매출은 '08년 2천만불에서 '13년 30억불로 급증

[Financial Times, 2014.04.21]



WHO, 글로벌 소아마비 비상사태 선포

-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소아마비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
 - WHO는 성명을 통해 올 들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가,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국제사회 소아마비 근절 노력이 수포가 되면서 전세계 공중 보건이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 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시급하다고 주장
 - WHO는 위험국가에서 소아마비 감염 사례가 6개월간 없고 면역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비상사태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 특히 위험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 · 적도 기니 · 에티오피아 · 이라크 · 소말리아 · 나이지리아를 거론
 - 이와 함께 현재 소아마비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긴급 투여하도록 권고

[New York Times, 2014.05.07]



UN, 국제 정크푸드 규제 협정 제정 제안

- 올리비에 드 셔터(Olivier De Schutter)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이 글로벌 각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크푸드가 담배보다 건강에 더 유해하다며, 국제 정크푸드 규제 협정을 제정하자고 제안
 - 셔터 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7차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정크푸드가 담배보다 소비자 건강을 더 위협한다며 전세계가 담배를 함께 규제하는 것처럼 정크푸드에도 강력한 규제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 WHO가 '음식과 신체활동,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략에 착수한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비만은 여전히 당뇨병·심장병·기타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함께 △정크푸드 과세 및 광고 제한 △지방과 설탕 함유에 대한 규제 △유해식품이 저렴하게 생산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보조금 중단 등 각 정부가 검토 가능한 일련의 대책들도 제시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2014.05.22]



글로벌 식품·유통업계, 영양정보 표시 공통화 합의

- 글로벌 식품 및 유통업체 400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서밋)에서 오는 '18년까지 식품 영양정보 표시 공통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
 - * 식품과 유통 등 글로벌 소비재 업체들의 협의체로 지난 '09년에 출범
 - 서밋에 참가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당분과 나트륨 같은 영양정보와 함께 알러지 등 유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 표면 라벨과 그 내용에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 업체들은 또 일정 영양 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자제할 계획으로, 당분이나 나트륨 함유량이 해당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과자와 음료 등이 해당될 전망

- * 업체들은 이들 제품에 대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 그러나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유

[日本經濟新聞, 2014.06.19]



WHO, 실내 흡연 금지 등 전자담배 규제강화 촉구

- 세계보건기구(WHO)가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강화를 각국 정부에 촉구
- 또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한다거나 건강에 무해하다는 등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자담배는 독성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권고
- * 실제로 지난 '07년부터 미국 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된 사실이 거의 없는 상황
- 이와 함께 과일이나 사탕, 알코올 음료 향을 내는 전자담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러한 향의 첨가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부터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위해성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

[Wall Street Journal, 2014.08.26]



글로벌 지도자들, 국제사회에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 촉구

-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폴 볼커 전 미국 연준리 의장, 페르난도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 등 글로벌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
- 이들은 모두 '글로벌 마약정책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회원으로,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보다 폐해가 적다며 마리화나 소지자와 사용자에 대한 투옥 중단 등 국제사회의 정책 전환을 요구
- * 마약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줄이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과학 기반의 토론을 통해 강구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10년 설립된 단체

- 또 전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마취성 진통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약품은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정부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허용, 주마다 △전면 불법 △의료용 사용 가능 △오락용 사용 가능 등 마리화나 금지법을 저마다 다르게 적용

[New York Times, 2014.09.09]



WHO, 일일 소금 섭취량 5g 이내 준수 촉구

- 세계보건기구(WHO)가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공식품이나 집에서 만든 음식에 포함된 소금을 비롯, 전체 소금 섭취량을 일일 5g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
- WHO는 심장병과 뇌졸중이 21세기 들어 조기 사망의 대표적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
 - * WHO는 지난 '13년 1월 성인의 소금 섭취 권장량을 하루 5g 미만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
- 또 식품업계가 WHO 및 각 국가 보건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제품에 함유되는 소금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 WHO는 이와 함께 오는 '25년까지 소금 섭취량을 30%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 비전염성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제정한 글로벌 행동계획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해 줄 것을 주문

[WHO, 2014.09.25]



WHO, 담뱃세 인상 가이드라인 채택

-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6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 회원국이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채택

- 가이드라인은 특히 젊은 층이 담배가격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담뱃값을 올리는 어떠한 조세정책도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
 - * 이와 관련, 회원국 대표들은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연간 600만명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동조
-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세율은 국가별 재량에 맡기도록 해 담배 소비자가격의 70%를 세금이 차지해야 한다던 기존 WHO의 입장에서 후퇴
- 또 담뱃세 증진에 따른 수익금을 담배사용 억제를 돕기 위한 인식제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같은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권고
- 한편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체들은 국제기구가 각국의 조세체계와 세율에 간섭하면 안 되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WHO, 2014.10.18]



WHO, 에너지음료 규제강화 촉구

-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회원국 정부에 카페인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판매·마케팅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에너지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
 - WHO는 에너지음료에 다량 함유된 카페인에 고혈압·구토·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며, 에너지음료의 남용을 막지 않으면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WHO는 또 에너지음료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과 각 정부 당국의 느슨한 규제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
 - 이와 함께 최근 카페인 함량이 과도한 에너지음료가 대거 출시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과라나와 타우린 등 에너지음료에 함유된 다른 성분이 카페인과 결합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
 - 한편 유럽의 경우 성인의 30%와 청소년의 68% 정도가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가운데, 지난 '12년 에너지음료의 전세계 매출은 120억불 정도로 추산

[Fox News, 2014.10.23]

5.9 중남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서명

- 우루과이가 호세 무히카(Jose Mujica) 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로 등장
 -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13년 7월말 하원, 12월초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뒤 이번에 무히카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공식 발효
 - * 그러나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 정도는 지나야 할 전망
 - 법안은 △마리화나 재배·생산·판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사전에 정부에 등록된 개인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 소비를 허용하며 △일반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하면 정부 허가 아래 6그루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 이번 합법화에 대해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비난
 - 한편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뿐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

[U.S. News & World Report, 2013.12.26]



우루과이 정부, 마리화나 이어 주류 판매도 직접 관리 검토

-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데 이어 주류 판매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 이와 관련, 집권 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는 주류 광고와 판매 장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
 - * 에르네스토 아가시(Ernesto Agazzi) 농수축산부 장관은 주류가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의 주요인이 된다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
 - 우루과이 의회는 '13년 12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 우루과이는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등장
 - *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마리화나 재배·생산·판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사전에 등록된 개인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 소비를 허용하는 등 내용

[Diario El País, 2014.01.19]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효

-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로 등장
 -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우루과이 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
 - 합법화 법안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하시장에서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 법안은 △정부에 등록된 자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구매 가능(가격은 g당 미화 1불 미만) △일반 가정에서는 480g 미만 한도에서 6그루까지 재배 허용 △국내 거주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구매 가능 등을 규정
 - 한편 무히카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루과이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도 정부가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자국 법안이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보다 우수하다고 강조

[Fox News, 2014.05.16]



우루과이, 마리화나 생산·판매 면세 혜택 검토

-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 생산·판매 업체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이는 인접 파라과이로부터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대량 유입되는 현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우루과이 정부는 파라과이산 마리화나가 불법 유입돼 저가에 유통되면 자국 마리화나 생산·판매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 우루과이는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및 소비를 허용하는 국가로 등장, 글로벌 사회의 관심이 집중
 - * 우루과이 정부는 현재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1~12월 정도에 일반 약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루과이 국민은 18세 이상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만 구매가 가능
 -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마리화나를 무조건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 소비를 규제하고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

[Huffington Post, 2014.05.22]



칠레, 제한적 낙태 합법화 허용 추진

-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 같은 제한적 낙태 허용은 공공보건 문제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한동안 치료 목적의 낙태가 허용된 적이 있다며 더 이상 논의가 금기시되면 안된다고 강조
- * 낙태 문제는 칠레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가운데, 낙태의 제한적 허용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바첼레트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
- 칠레는 중남미에서도 대표적 보수 국가로 낙태가 불법이며, 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산모에게는 최대 10년 의료진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
- 전문가들은 낙태 합법화 법안이 확정될 경우 칠레에서는 연평균 500~700명의 산모가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할 것으로 전망

[Latina, 2014.05.28]



페루 정부, 90년만에 낙태법 시행령 공포

- 페루 정부가 낙태법을 제정한 지 90년만에 구체적 방침을 수록한 시행령을 공포
- 낙태법 시행령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
- 페루 정부는 90년 전인 지난 1924년 낙태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낙태법 시행이 보류
-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중남미에는 멕시코·쿠바·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낙태 허용 움직임이 확산
- * 칠레의 경우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 이루어졌을 때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할 때 및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합법화를 내세운바 있으며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

[Thomson Reuters Foundation, 2014.07.10]



멕시코 정부, 비만 식품 TV광고 제한

- 멕시코 정부가 청량음료 등 열량이 높은 비만 식품의 TV광고를 제한
 - 이에 따라 평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비만 식품 TV광고가 금지
 - 대상은 200ml당 40kcal 이상의 열량을 함유한 청량음료와 30g 당 160kcal가 넘는 시리얼 제품, 50g 당 190kcal 이상의 열량이 있는 빵 종류 등
 - 멕시코는 성인 1명이 연간 소비하는 설탕 음료가 163ℓ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인의 70% 어린이의 30%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고
 - 한편 멕시코 정부는 올해부터 땅콩버터와 아이스크림 등 100g 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정크푸드에 가격의 8%를 과세하고 청량음료 1ℓ 당 1페소(미화 약 8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 * 또 '15년부터 설탕이나 포화지방 성분이 들어간 식품 용기에 함유된 성분과 열량을 정확히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7.18]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시행 내년 초로 연기

-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고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된 법안 시행 시기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
 -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 5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공식 채택
 -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정부에 등록된 자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구매 가능 △일반 가정에서는 480g 미만 한도에서 6그루까지 재배 허용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구매 가능 등을 규정
 - 우루과이 정부는 현재 마리화나 재배·생산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 한편 중남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루과이를 따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

[American Green Zine, 2014.08.15]



콜롬비아 대통령,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이 보고타 마약정책포럼에 참석,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
 - 산토스 대통령은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이 중병 말기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마리화나의 불법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
 - 콜롬비아 의회에는 지난 1989년 코카인 밀매업자에게 부친이 살해된 후안 마누엘 갈란(Juan Manuel Galan) 상원의원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이 법안은 마리화나 배급을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
 -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각국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자메이카의 경우 의료용 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의 마리화나 합법화도 추진
 - 한편 현재 콜롬비아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는 농장부지 규모는 1.5 제곱마일(약 390 헥타르) 정도로 추정

[American Live Wire, 2014.08.22]



우루과이, 마리화나 국가 등록 시스템 구축

-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 재배자·구매자를 국가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
 - 오는 10월말 실시되는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여당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타바레 바스케스(Tabare Vazquez) 후보는 마리화나 재배자와 구매자의 국가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마리화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공약
 - * 우루과이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바스케스는 지난 '04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해 우루과이 역사상 첫 중도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인물로 이번에 다시 출마
 - 이와 관련, 리오넬 브리오조(Leonel Briozzo)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국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마리화나를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마리화나 소비를 중단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강조

[PanAm Post, 2014.09.30]



칠레, 중남미 최초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착수

- 칠레 정부가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라 플로리다(La Florida)에서 중남미 최초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 마리화나 씨를 뿌리는 행사를 진행
 - 칠레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이 마리화나 씨가 발아하면 미리 확보해 놓은 지역에 옮겨 심어 본격적인 재배 과정을 거칠 예정
 -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작업을 총괄하는 다야재단(Daya Foundation)의 아나 구스무리(Ana Gazmurri) 대표는 칠레가 합법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국가가 됐다면 보다 많은 환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우루과이 정부가 지난 5월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세계 최초로 공포한 데 이어 8월에는 마누엘 산토스(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중남미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일종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
 - * 산토스 대통령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말기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마리화나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

[Fox Business, 2014.10.30]



쿠바, 대미 관계 정상화로 시가 수출 합법화

- 쿠바와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쿠바산 시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진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 전망
 -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50여년 동안 쿠바산 시가를 대쿠바 금수조치 탓에 직접 수입할 수 없어 영국이나 멕시코에서 구매한 뒤 미국으로 불법 반입
 - * 국내 반입이 불법인 상황에서도 미국은 쿠바 시가의 최대 소비국
 - 그러나 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로 쿠바의 대미 시가수출이 허용되고,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 여행객은 100불까지 쿠바산 시가 미국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
 - 전문가들은 미국의 쿠바산 시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쿠바산 시가로 인해 도미니카·온두라스·멕시코·에콰도르의 시가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 쿠바산 시가는 매년 4억불 이상 수출액을 올리는 효자 상품으로, 쿠바 국영담배업체인 쿠바타바코가 ‘코이바(Cohiba)’, ‘파르타가스(Partagas)’, ‘몬테크리스토(Montecristo)’ 등 브랜드 제품을 생산

[Reuters, 2014.12.21]

5.10 캐나다



캐나다, 마리화나 사범 처벌 규정 완화 검토 ... 형사처벌 → 벌과금 대체

-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 소량을 소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벌과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피터 맥케이(Peter MacKay) 법무장관은 경찰이 현행법을 계속 집행하겠지만,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 발부로 대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
 - 이러한 방침은 캐나다경찰청장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CACP)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야당과 일부 여론도 마리화나의 완전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주장
 - * CACP는 현행법에 따른 마리화나 사범 처벌이 시간과 비용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소량 소지범에 한해서는 교통법칙금 부과 같은 벌과금 부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것을 제안
 - 맥케이 장관은 그러나 정확한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마리화나를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4.03.07]



캐나다 경찰,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앞두고 비상

- 캐나다 경찰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 시행을 앞두고 비상 체제에 돌입
 -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업체의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경찰은 마리화나 제조 및 판매가 전면 시행될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보안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
 -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 현장의 보안 수칙이 제대로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소비자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전달되는 유통·수송 과정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 경찰은 범법자가 마음만 먹으면 마리화나 수송 차량의 운송 경로나 배송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수송 차량 탈취로 대량의 마리화나를 가로챌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암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대해 마리화나의 상업용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부여

[CBC, 2014.03.24]



캐나다, 상습 음주운전 표시 특별 번호판 도입

-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주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상습범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특별 표시를 추가 기재토록 하는 새로운 교통 법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
- 이 표시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의 한쪽에 추가되는 특수 문자나 숫자로, 일반인들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교통 경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한눈에 식별이 가능
- 특별 번호판은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10년간 시동잠금 장치를 장착하는 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이 장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부착
- * 시동 잠금장치는 처벌 대상인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부착된 음주 측정기를 통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고안돼 있어 운전자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
- 음주 운전 표시 번호판은 오하이오 등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PEI주가 처음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4.05.12]



퀘벡주, 연방정부 반대 불구 존엄사 법안 통과

- 퀘벡주 의회가 캐나다 주의회로는 처음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존엄사 법안을 찬성 94, 반대 2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
 - 법안은 존엄사를 스스로 선택 가능한 성인 말기 환자의 요건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건디기 어려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통증을 지속적으로 겪고,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이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
 - 법안을 발의한 베로니크 이봉(Véronique Hivon) 의원은 이 법안이 말기 환자의 삶을 품위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결코 죽음을 고의로 앞당기거나 방조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
 -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이 존엄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 형법에 위배된다며 법리적 타당성을 따질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
 - 한편 존엄사는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이후 스위스는 소극적 안락사와 자살협조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각국마다 존엄사에 대한 정책이 상이

[Toronto Sun, 2014.06.12]



캐나다 보건부, 소비자 위주 식품성분 표시제 도입

- 캐나다 보건부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개선한 식품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새 방안은 식품 제조업체가 식품 성분을 표시할 때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성분을 앞줄에 배치하고, 함량 표시 단위를 '토스트 두 쪽' 등 끼니 당 섭취 함량으로 환산해 표기하도록 의무화
 - 또 당분 함량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분 종류별로 나열하지 않고 식품에 함유된 모든 당분의 총량을 명기하도록 규정
 - 반면 캐나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타민 A와 C는 표시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추가 섭취가 권장되는 비타민 D와 포타슘은 반드시 기재할 의무화
 - 보건부는 향후 60일 동안 각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

[National Post, 2014.07.18]



캐나다,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판매 신청 쇄도

- 캐나다 정부가 지난 4월 의료용 마리화나의 상업적 제조판매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한 업체의 신청이 쇄도
 - 캐나다 보건부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판매 허가 신청 건수가 1천건을 상회한 가운데 3백여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
 - * 신청 건수 중 462건이 기준 미달로 반려됐고, 불허 201건, 자진 철회가 32건 등으로 지난 3개월 사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2곳에 불과한데, 이는 허가 신청이 밀려들자 정부가 시설 및 보안 기준을 강화하면서 탈락률이 증가했기 때문
 - 캐나다에는 현재 13개 업체가 정부 허가를 획득해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9개 업체도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
 - 보건부는 캐나다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이 연간 13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12억불) 규모로 50여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가 현실화할 경우 시장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9.03]

제 3 부

산업 동향

- 1. 제약 / 바이오 517
- 2. 의료기기 / 정보화 711
- 3. 화장품 733
- 4. 의료서비스 775
- 5. 보건산업 기타 789

1. 제약 / 바이오

1.1 미국	519
1.2 영국	591
1.3 일본	620
1.4 중국	638
1.5 EU	639
1.6 아시아	671
1.7 중동	682
1.8 글로벌	685
1.9 중남미	702
1.10 캐나다	704

1.1 미국



미국 CVS·카디널 헬스, 제네릭 전문 구매 합작사 설립

- 미 CVS 케어마크(CVS Caremark)와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가 제네릭 전문 구매·유통 합작사를 50대 50 지분 투자로 설립하기로 합의
 - 합작사는 '14년 7월부터 가동에 돌입해 일단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동 기간 카디널 헬스는 CVS 케어마크에 매분기 2천5백만불을 지급
 - * 합작사는 양사에 매년 4억5천만~6억불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
 - CVS 케어마크는 미국 전역에 산재한 약국 체인과 통신판매 약국을 통해 '12년에만 1억 건 이상의 처방전을 소화한 거대 제약 유통업체
 - 카디널 헬스 또한 하루 10만 곳 이상의 유통업체와 약국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메이저 도매업체
 - 한편 양사는 합작사 설립과 별도로 의약품 공급계약 유효기간을 오는 '19년 6월까지 3년 연장한다는 데도 합의

[PR Newswire, 2013.12.23]



워싱턴대, DNA에 제2 유전암호 존재 확인

- 미 워싱턴대 연구팀이 DNA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2의 유전암호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그 동안 DNA가 단백질 제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DNA의 반쪽만을 해독한 결과이며, 나머지 반쪽인 제2 암호는 제1 암호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다고 주장
 - 또 DNA의 유전암호는 코돈(codon)이라는 64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듀온(duon)으로 하나는 단백질 서열, 또 하나는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고 소개

- 따라서 질병은 제1 암호에 담긴 단백질 제조 방법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유전자 발현 방법을 조절하는 제2 암호가 잘못됐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암호가 동시에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 DNA에 제2의 암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 암호가 1960년대 처음 해독된 이래 이번이 처음

[Science World Report, 2013.12.17]



글래드스톤 연구소, 간질 치료제에 HIV 억제 효과 발견

- 미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연구소는 간질 치료제로 개발 중인 'VX-765'가 HIV 면역세포 파괴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소는 HIV가 외부침입자와 싸우는 핵심 면역세포인 CD4세포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에 초점을 맞춰 인체조직에 대한 시험관 실험을 시행
 - * HIV가 일부 CD4세포를 공격해 사멸케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변의 다른 CD4세포들까지 대거 사멸하는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
- 그 결과 HIV가 감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CD4세포는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 '카스파제-1(caspase-1)'을 방출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바로 VX-765가 이 효소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
- 연구소는 향후 VX-765의 이러한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확인되면 표준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표준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HIV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IDS MEDS, 2013.12.20]



듀크대, “단일염기다형성 변이 시 심근경색 위험 ↑”

- 미 듀크대 연구팀이 단일염기다형성(SNP)이 변이될 때 심장병 환자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6천1백여 심장병 환자의 6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로토닌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 ‘5HTR2C’에 SNP 변이*가 발생하면 심근경색 위험과 이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변이가 없을 경우보다 38% 높아짐을 확인
 - * 특정 유전자 DNA의 염기 하나와 다른 하나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현상
- 연구팀은 이에 대해 SNP 변이로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이 대거 생성되고 이에 따라 혈액 속 MMP9 성분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
 - * MMP9은 동맥 내막에 쌓인 딱딱한 혈전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혈전 파편이 혈류를 순환하다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
- 한편 세로토닌 수용체 유전자에 SNP가 변이된 사람은 코티솔의 혈중 수치가 2배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는 이미 발표

[Bioscience Technology, 2013.12.20]



스탠포드대, “테스토스테론이 백신 효과 떨어뜨려”

- 미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백신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미 국립과학아카데미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연구팀은 ‘08~’09년 독감시즌 동안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53명과 남성 34명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유전자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항체 반응 사이 연관성을 분석
-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생산했음을 발견
 - * 또 지방 신진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높은 발현 수준을 가진 남성일수록 백신 반응에 취약함도 확인
- 연구팀은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은 남성이 여성 및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항체 반응이 약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

[MedPage Today, 2013.12.30]



캘리포니아대, “LDL 콜레스테롤이 알츠하이머 위험 높여”

- 미 캘리포니아대(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Neur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70세 이상 남녀 노인 74명에 뇌조영으로 측정한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치를 공복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 * 실험대상 노인 중 3명은 가벼운 알츠하이머 환자, 38명은 알츠하이머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나머지 33명은 뇌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
 - 연구팀은 콜레스테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증가시키는지 확인 되지 않았지만, 실험 결과는 기억력 저하 조짐이 있는 노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 한편 미국의사협회의 기준에 의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는 LDL은 70mg/dL 이하, HDL은 60mg/dL 이상

[Health Day News, 2013.12.30]



GE, 생명과학 진출 확대 ... 서모 피셔 세포배양 사업 인수

- 미 GE가 자회사인 GE 헬스케어를 통해 같은 미국의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의 세포배양, 유전자 조작, 마그네틱 비드(magnetic beads) 관련 사업을 10억6천만불에 인수
 - GE는 소비자금융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생명과학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3개 사업 인수도 이 같은 배경에서 진행
 - 세계 최대 생명공학 장비업체인 서모 피셔는 유전자 검사기기 제조업체 미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
 - 한편 세포배양 등 3개 사업은 '13년 글로벌 시장에서 2억5천만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GE의 이들 사업 매입은 관계 당국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

[Wall Street Journal, 2014.01.06]



텍사스대, “갑상선기능저하, 인지기능 저하와 무관”

○미 텍사스대 연구팀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인지기능 저하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Neur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이 1천9백여 노인(70~89세)의 의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 저하 발생비율은 갑상선기능저하가 심한 집단이 17% 가벼운 집단이 18%로 나타나 정상인 집단의 16%와 별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

* 이 결과는 연령, 성별, 체중, 기타 건강 문제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도출

- 이번 분석 결과는 갑상선 기능을 포함한 내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인지기능을 떨어뜨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상반
- 갑상선은 인체 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저하 등 질환이 발생

[Aspirus Senior Health, 2014.01.02]



애보트, 뇌물혐의 550만불 벌금 납부 합의

○미 애보트(Abbott)가 제품 판촉을 위해 의료진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 547만5천불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

- 애보트는 유명 의료진들이 소속 병원에 자사의 경동맥·담관·말초혈관 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강연·회의 등 참석 경비를 지원

- 법무부는 애보트의 이 같은 지원이 ‘뇌물금지법(Anti-Kickback Act)’과 ‘허위 보험료 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

* 법무부는 환자가 의료적 필요에 따라 갖게 되는 치료방법과 치료제를 결정할 권리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재정적 이익에 의해 침해되면 안 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애보트는 자사가 항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처신해 왔다고 반박한 뒤, 하지만 불확실한 소송 결과와 막대한 소송비용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합의에 임했다고 설명

[Pharma Certify, 2014.01.07]



AZ, 프로비오드릭 CDK9 저해제 확보

- 미 AZ가 독 프로비오드릭(Probiobdrug)으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 9(cyclin-dependent kinase 9 : CDK9) 저해제를 확보
 - CDK9 저해제는 항암제와 염증 치료제 분야의 유망 물질 중 하나로, 암 증식 및 염증과 연관된 유전자들의 전사조절(transcriptional regulation)에 관여
 - AZ가 확보한 CDK9 저해제에는 프로비오드릭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선도물질과 예비 물질이 포함
 - AZ는 표적 항암제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CDK9 저해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 이나 유망성이 입증된 만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한편 프로비오드릭은 이번 CDK9 저해제 매각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분야에 전력투구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In-Pharma Technologist, 2013.01.07]



포레스트, 애플리스 인수 ... 대장염 치료제 등 제품 다양화

- 미 포레스트 레보라토리스(Forest Laboratories)가 프랑스 애플리스 홀딩스(Aptalis Holdings)를 29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이번 인수는 수익 창출원인 항우울제 렉사프로(Lexapro)가 특허만료 이후 매출이 1/10 이하로 급감함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찾는 전략의 일환
 - 포레스트는 이번 인수에 앞서 지난해 말 미 머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사프리스(Saphris)의 미국 시장 독점 판매권도 인수
 - 애플리스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카나사(Canasa), 소화성 궤양 치료제 카라페이트(carafate)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13년 매출은 총 6억8천8백만불
 - 포레스트는 애플리스 인수로 인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크게 다양화함과 동시에 1억2천5백만불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모든 인수 절차는 올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

[Wall Street Journal, 2014.01.08]



미 공동연구팀, 치매환자 뇌조직으로 iPS 세포주 제작

- 미 뉴욕줄기세포재단(NYSCF)과 콜롬비아대 공동연구팀이 사망한 치매환자의 뇌조직을 이용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주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신경병리학회보(Acta Neuropathologica)에 발표
- 연구팀은 사망한 후 11년 동안 콜롬비아대 뇌조직은행에서 냉동보존된 치매환자의 뇌조직을 iPS로 역분화시켜 iPS세포주를 제작
 - *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 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를 주입해 분화 이전의 세포 단계로 되돌린 iPS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전문가들이 이번 실험 성공으로 치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세포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또 치매환자의 살아있는 뇌세포와 정상인의 뇌세포를 비교하는 작업과, 치매환자의 뇌세포를 이용해 치매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Genetic Engineering News, 2014.01.08]



마운트사이나이대, “비타민E에 알츠하이머 지연 효과”

- 미 마운트사이나이대 연구팀이 비타민E를 고용량 섭취하면 경·중등도 알츠하이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평균 연령 79세인 경·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 613명을 대상으로 각각 비타민 E, 메만틴(memantine), 위약을 매일 투여하는 실험을 실시
 - * 투여된 비타민E 용량은 합성 알파-토코페롤 2천 IU로, 일반 멀티비타민의 20배
- 그 결과 2.3년 뒤 비타민E만 섭취한 집단은 일상 생활기능 저하가 위약 집단에 비해 6.2개월 지연된 반면, 메만틴 집단의 경우 위약 집단과 일상생활 기능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비타민E의 항산화 효과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한 뒤, 비타민 E가 알츠하이머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

[Washington Post, 2014.01.07]



악타비스, 중국 시장 철수 ... 법 적용 일관성 부재 비판

- 미국의 대표적 제네릭업체 악타비스가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
 - 이번 결정은 중국내 사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악타비스는 중국내 지사 한 곳을 매각한 데 이어 다른 지사도 매각을 추진
 - 악타비스는 영 GSK와 달리 중국에서 불법행위로 고소당한 적은 없으나, 중국은 정부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등 공평하지 않아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 친화적이지 아닌 위험한 시장이라고 평가
 - * 중국에는 13억명 이상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법적 문제 발생 시 공정한 공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
 - 지금까지 악타비스는 중국에서 연 4백만~5백만 유로의 수익을 기록
 - 한편 악타비스는 중국 시장 철수와는 별도로 미 화이자 제네릭 사업부를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1.17]



스크립스연구소, 혈액검사로 심장마비 예측

- 미 스크립스연구소 연구팀이 혈액 속 순환혈관내피세포(circulating epithelial cell : CEC)로 심장마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물리생물학(Physical Biology)지에 발표
 - 심장마비는 관상동맥 내막에 쌓인 지방층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경화반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막혀 발생하고, CEC는 관상동맥 내막 지방층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혈류를 따라 떠돌아다니는 특성을 보유
 - 연구팀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 심장마비 환자 79명, 심혈관질환 환자 7명, 일반인 25명을 대상으로 CEC 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심장마비 환자와 심혈관질환 환자가 일반인보다 CEC가 훨씬 많았음을 확인
 - * 또 이 혈액검사법은 검사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성(sensi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이 모두 높은 것으로 판명
 - 연구팀은 CEC 수가 급증하면 심장마비가 임박한 신호라며 이 혈액검사법이 단기적으로 심장마비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

[SelectScience, 2014.01.27]



머크, 나노바디 항암제 개발 본격화

- 미 머크(Merck)가 나노바디(Nanobody) 항암제 개발에 본격 나서기 위해 벨기에 에이블링스(Ablynx)와 공동 연구 협정을 체결
 - 양사는 에이블링스가 면역 체크포인트 조절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나노바디를 발굴하면 머크가 항암제로 제품화한다는 데 합의
 - * 나노바디는 신계열 항체 유래 단백질로, 크기가 기존 항체의 1/10에 불과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특성을 보유
 - 협정에 따라 머크는 에이블링스에 선금 2천만 유로 및 초기 3년간 연구지원금 1천70만 유로와 함께 향후 개발·승인·판매 성과에 따른 로열티 등 명목으로 최대 17억 유로를 지급할 예정
 - 한편 향후 10년 뒤 글로벌 항암 면역 치료제 시장은 미 BMS의 흑색종 치료용 항체항암제 여보이(Yervoy)가 최대 60억불 매출이 기대되는 등 총 350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Financial Times, 2014.02.03]



루이빌대, 복부비만 유발 변이유전자 발견

- 미 루이빌대 연구팀이 복부비만을 유발하는 5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인간분자유전학(Human Molecular Genetic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유럽 태생 남녀 5만7천여 명으로부터 심혈관과 대사에 관여하는 2천여 유전자에서 나온 5만여 돌연변이를 분석
 - 그 결과 허리-엉덩이둘레 비율(waist-to-hip ratio : WHR)* 증가와 연관된 5개 유전자가 복부비만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
 - * 0.8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간주되며, 유전적 요인에 의해 30~60%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
 - 이 중 3개는 남녀 모두, 2개는 여성의 WHR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2개 유전자 중 하나인 SHC1 유전자의 경우 지방조직에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비만과 연관된 17가지 단백질과 상호작용
 - * SHC1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결핍된 쥐는 다른 쥐들에 비해 몸집이 빈약한 것으로 확인

[Bio News, 2014.01.27]



펜실베이니아대, iPS 세포로 탈모 치료 가능성 제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상피줄기(epithelial stem) 세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지에 발표

- 상피줄기 세포는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인 상피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세포로, 연구팀은 iPS 세포를 18일 만에 25% 이상 상피줄기 세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
- 연구팀은 이어 상피줄기 세포를 쥐의 모유두(dermal papilla)와 섞어 면역결핍 쥐의 피부에 이식한 결과 인간의 모낭과 비슷한 구조가 생성됐음을 확인
- 그러나 상피줄기 세포만으로 모낭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는 모낭이 상피세포와 모유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머리가 빠지면 이 두 세포 모두 상실되기 때문
- 연구팀은 따라서 현 단계는 이 두 세포 중 하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향후 나머지 세포를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소개

[Medical News Today, 2014.01.29]



미 연방항소법원, 화이자 ‘리리카’ 특허 인정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 화이자가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Lyrica, 성분명 : 프레가발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테바 등 제네릭 업체들을 제소한 소송에서 화이자의 미국 내 특허가 오는 '18년 12월까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

- 이에 따라 테바를 비롯해 루핀, 악타비스, 선파마, 밀란 등 피고업체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리리카 제제의 발매가 금지
- * 이번 소송은 리리카의 주성분인 프레가발린의 특허권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 업체들은 프레가발린이 화이자가 새롭게 개발한 물질이 아니라 다른 화합물을 변형한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리리카는 매년 130억불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던 고지혈증약 ‘리피토(Lipitor, 성분명 : 아토르바스타틴)’ 특허만료 이후 화이자의 주력 품목으로 성장, 지난해 매출은 46억불 정도

[Businessweek, 2014.02.06]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 당뇨 사업 철수

- 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가 당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당뇨 사업부를 영아스트라제네카(AZ)에 총 50억불에 매각
 - 매각 대금 내역은 계약금 27억불, 포시가(Forxiga)의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에 따른 6억불, '25년까지 포시가 이외 다른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 및 출시 및 판매에 따른 최대 14억불, 일부 자산 이전 시 2억2천5백만불 등
 - BMS는 이번 매각으로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Onglyza), 콤비글라이즈(Komboglyze), 지그듀오(Xigduo), 바이에타(Byetta), 바이듀리언(Bydureon), 심린(Symlin) 등의 지식재산, 신약개발,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권한을 AZ에 이양
 - AZ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핵심 전략 분야이자 기업 성장 회복에 중요한 플랫폼인 당뇨병 치료제 부문에서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02.07]



미시간주립대, “과체중이 대장용종 발생 유발 요인”

- 미 미시간주립대 연구팀이 과체중 또는 비만 남성은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장용종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건강한 백인 남성 126명(48~65세)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조사 분석
 - 그 결과 체질량지수(BMI)나 허리둘레 기준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78%)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하나 이상 발견된 경우가 체중이 정상인 남성에게 비해 30% 많았음을 확인
 - * 특히 고도비만인 남성은 용종이 3개 이상일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6.5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
 - 또 렙틴 호르몬의 혈중수치가 높을수록 대장용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는 렙틴 분비가 증가하면 대장의 전암성(前癌性) 세포에 대한 혈액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성장도 촉진되기 때문으로 추정

[News Medical, 2014.02.05]



머크, ‘누바링’ 피해자들에 1억불 지급 합의

- 머크가 여성용 피임기구 ‘누바링(NuvaRing)’의 피해자들에게 총 1억불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누바링은 의료용 특수 재질인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로 제작되어 자궁에 삽입하는 투명한 링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01년부터 사용
 - 그러나 제품을 사용해 온 3천8백여 환자들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 혈전 발생에 대해 머크가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 머크는 이들 원고를 비롯해 누바링을 사용한 모든 여성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누바링의 혈전 유발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

[TIME, 2014.02.12]



임신과 피임약, 여성 뇌졸중 위험 요인

- 미국심장학회(AHA)와 미국뇌졸중학회(ASA)가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및 흡연은 남녀 공통의 뇌졸중 위험 인자로, 여성의 경우 임신과 피임약 등 특수 요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
 - 이들 학회는 임신 중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출산 마지막 3개월과 출산 직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임신 중 단백뇨 증상을 보이는 자간전증이 오면 출산 중이나 직후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
 - 또 혈압이 160/110mmHg를 넘는 임산부는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고, 150/100mmHg 대인 임산부도 약물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와 함께 폐경 이후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는 안 되며, 심방세동 증상이 있는 75세 여성도 뇌졸중 위험에 주의할 것을 촉구
 - 한편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아스피린을 매일 저단위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소개

[Dubai Chronicle, 2014.02.14]



미국 웨일코넬대, “출산 12주까지 혈전 위험 지속”

○미 웨일코넬대 연구팀이 혈전 위험은 출산 12주까지 계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

- 연구팀은 '05년부터 '10년 사이 출산 여성 168만7천930명의 의료기록을 분석
- 그 결과 혈전 발생률은 출산 후 첫 6주 동안이 일반 여성의 혈전 발생률에 비해 11배, 7~12주 사이에도 2배 이상 높았으며, 12주가 경과한 이후에야 일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에 따라 출산 여성의 경우 △흉통 △가슴 압박 △호흡 곤란 △다리 부종/통증 △심한 두통 △시력 저하 △몸 한 쪽의 무기력감 등이 나타나면 의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 AHA)는 임신 전 고혈압 병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혈전 예방을 위해 출산 후 3개월 동안 저단위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을 권고

[Tech Times, 2014.02.17]



조지아공대, 뇌종양 치료 ‘모노레일 요법’ 개발

○미 조지아공대 연구팀이 뇌종양 세포로 하여금 다른 부위로 전이될 때 통로가 되는 신경 섬유 및 혈관과 유사하게 제작된 나노섬유를 모노레일처럼 타고 들어가 미리 만들어진 함정으로 이동해 죽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네이처소재(Nature Materials)지에 발표

- 이 방법은 뇌종양을 수술하기 어려운 최초 발생 부위로부터 접근이 손쉬운 뇌 이외 부위로 끌어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쥐의 뇌종양을 93%까지 줄이는 데 성공
- 뇌종양 세포가 뇌의 다른 건강한 부위로 침투할 때는 효소를 분비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나노섬유는 폴리카프로락톤(PCL) 폴리머에 폴리우레탄 소재로 둘러싸여 있어 뇌종양 세포가 추가 에너지 없이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저항을 최소화
-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뇌종양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BC, 2014.02.17]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 경쟁 치열

- 미 머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를 놓고 독 바이엘과 스위스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업체와 미 P&G와 영 레킷벤키저 등 종합 생활용품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는 자외선 차단제 코퍼톤(Coppertone),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틴 (Claritin)과 닥터솔(Dr. Scholl's) 등 제품으로 유명
- 머크 헬스케어 소비자 사업부 가치는 100억~120억불 가량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머크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며 3월 말 정도에 2차 제안을 받을 계획
- 바이엘은 이미 진통제 얼리브(Aleve)와 제산제 알카-셀처(Alka-Seltzer) 등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지만 머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인수한 뒤 헬스케어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
- 한편 노바티스는 자사의 동물의약품 등 일부 사업부와 머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교환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

[FiercePharma, 2014.02.20]



존스홉킨스대, “ ‘셀렉사’ 가 치매환자 흥분 행동 제어”

- 미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항우울제 ‘셀렉사(Celexa, 성분명: 시탈로프람)’에 치매 환자의 흥분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치매환자 186명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뒤 각각 하루 최고 30mg의 셀렉사와 위약을 9주 동안 투여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셀렉사 집단에서는 40% 정도에서 흥분 행동이 진정된 반면 위약 집단에서는 26% 정도에 불과했음을 확인
- * 흥분 행동은 대표적 치매증세 중 하나로, 현재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나 부작용이 많다는 단점이 지적
- 또 셀렉사 집단에서는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장마비 위험이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셀렉사가 저용량 투여될 경우 이러한 위험은 항정신병약물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PsychCentral, 2014.02.20]



예일대, 뇌졸중과 기온·습도 연관성 규명

○미 예일대 연구팀이 뇌졸중이 기온과 습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4 미국뇌졸중 학회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American Stroke Association’s 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2014)’에서 발표

- 연구팀은 지난 ‘09~‘10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 환자 13만4천510명이 입원한 날과 전국기후자료센터(NCDC)의 데이터를 비교분석
- 그 결과 기온이 화씨 1도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율은 0.86%, 뇌졸중 사망률은 1.1% 떨어진 반면, 습도는 5% 올라갈 때마다 입원율이 2% 증가했음을 확인
- * 일교차의 경우 화씨 5도 확대될 때마다 입원율이 6% 증가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온이 높으면 혈관이 이완돼 혈압이 낮아져 심장 부담이 감소하면서 혈액이 물러져 혈전 위험이 낮아지고, 습도는 올라가면 탈수로 인해 혈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DailyRx, 2014.02.20]



펜실베이니아대, “ ‘토피라메이트’ 음용 시 과음 억제 ”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이 간질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항경련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에 과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정신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

- 연구팀은 과음을 한 남녀(남성 1주일에 24잔 이상, 여성 18잔 이상)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는 토피라메이트 200mg, 대조집단에는 위약을 매일 복용토록 하는 임상 시험을 12주에 걸쳐 진행
- 그 결과 실험집단의 과음 빈도가 대조집단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날도 실험집단이 대조집단에 비해 훨씬 많았음을 확인
- 연구팀은 특히 미국·유럽계 주민의 40%에서 발견되는 특정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커 큰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가 타인종에서도 나타나는 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

[Bio Research, 2014.02.21]



마운트사이나이대, “조리한 육류, 치매 발병 높여”

- 미 마운트사이나이대 연구팀이 육류를 조리할 때 생성되는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 AGE)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국립과학원저널(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AGE가 높은 먹이를 먹도록 한 집단에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인지기능이 손상된 반면, AGE가 낮은 먹이를 먹도록 한 집단에서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개
- 또 60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높은 AGE 수치가 인지 기능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
- * AGE는 단백질 혹은 지방이 당분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오븐 · 그릴 · 프라이팬 등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
- 연구팀은 높은 AGE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식생활에서 AGE 섭취를 줄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Emax Health, 2014.02.27]



신시내티 공동 연구팀, 종양세포 면역 증진 백신 개발

- 미 신시내티대와 신시내티암센터 공동 연구팀이 종양세포에 대한 인체 면역 시스템의 반응을 높이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유전자요법(Gene Therapy)지에 발표
- 이들이 개발한 백신은 인터루킨-15(Interluekin-15, IL-15)과 IL-15R α 를 생성하기 위해 제작된 종양 세포로 구성
- * IL-15는 인간 면역시스템에 반응하는 세포 살해를 촉진하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이고, IL-15R α 는 IL-15 단백질 수용체
- 연구팀은 백신을 쥐에 투여하는 실험에서 유방과 전립선 종양 세포 성장이 둔화됐고 생존율이 높아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IL-15와 IL-15R α 가 세포 표면 생성과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종양 세포 재생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이 백신을 흑색종과 신장암에 대해 임상시험할 계획

[World Pharma News, 2014.03.03]



일라이릴리, 독일 동물 백신업체 ‘로만 애니멀 헬스’ 인수

- 미 일라이릴리가 자회사인 엘란코(Elanco)를 통해 독일 동물 백신업체 ‘로만 애니멀 헬스 (Lohmann Animal Health)’를 인수하기로 결정
- 로만 애니멀 헬스는 가금류 백신과 사료 첨가제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업체 중 하나로, 유럽·아시아·북미 등 18개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80여개국에 다양한 제품들을 발매
- 엘란코는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가금류 백신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는데, 일라이릴리는 엘란코를 통해 지난 '10년 3월에도 미 화이자의 동물약 사업 부 자산 상당 부분을 인수
- 이번 인수대상 자산에는 각종 백신과 사료 첨가제 등 제품과 영업인력 및 독일 쿡스하펜과 미국 메인주 윈슬로우에 위치한 제조시설이 모두 포함
- 인수는 2/4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

[Western Producer, 2014.03.07]



화이자, ‘리피토’ OTC 전환 추진

- 미 화이자가 특허가 만료된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의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리피토의 OTC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 화이자는 이를 위해 1천2백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을 위한 자가 혈액검사를 통해 리피토를 처방없이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
- * 리피토는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나 근육 관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
- 리피토의 OTC 제품 전환이 성공할 경우 지난 '11년 특허만료 이후 상실했던 매출을 일부 회복, 연간 10억불 정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 AHA)와 미국심장병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 ACC) 등 의료집단이 리피토 OTC 전환에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

[Lab Soft News, 2014.03.08]



미 민관 공동 연구팀, 피부 부착 패치형 독감백신 개발

○ 미 조지아공대와 에모리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구성된 미국 민관 공동 연구팀이 피부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 패치형 독감백신을 개발

- 이 패치형 백신에는 길이가 머리카락 굵기 정도인 초미세 바늘 50개가 있어 팔에 눌러 부착하면 바늘을 통해 백신이 표피층 속으로 들어가 면역반응을 유발



- 연구팀은 91명의 지원자에게 식염수를 주사기에 넣어 재래식 방식으로 주사하고 아픈 정도를 패치형 백신과 비교한 결과 아픈 정도의 최고치를 100으로 했을 때 주사형 백신은 15, 패치형 백신은 1.5로 나타났다고 설명

- 이 패치형 백신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스스로 구입해 피부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 만큼, 기존 주사형 백신

보다 접종률을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Med Device Online, 2014.03.10]



하버드대, 당뇨병 위험 낮추는 유전자 변이 발견

○ 미 하버드대 연구팀이 비만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2형 당뇨병으로 발전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지에 발표

- 연구팀은 미국과 스웨덴에 거주하는 15만명의 게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기능을 차단하는 10여 개의 다양한 변이를 발견
- 특히 정상 혈당인 과체중 노인의 'SLC30A8' 유전자를 집중 분석한 결과, SLC30A8의 변이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65% 낮았음을 확인

* SLC30A8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은 체장의 인슐린 분비 베타 세포 기능을 지원

- 연구팀은 SLC30A8 유전자 변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2형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연구는 미 화이자와 암젠이 후원

[Bio News, 2014.03.10]



예일대, “혈압약 복용 시 낙상 위험 ↑”

-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과학 (Internal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조사 분석한 결과 혈압약을 복용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낙상으로 인해 크게 다칠 위험이 30~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발견
 - * 또 낙상에 의한 신체기능 상실 또는 사망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의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 △침침해지는 눈 등 혈압약의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뒤, 그러나 혈압약이 아닌 고혈압 자체가 낙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 연구팀은 따라서 노인의 경우 고혈압을 공격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지는 득과 실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Pharmacy Times, 2014.03.18]



미국 노트르담대, 신종 항생물질 ‘옥사디아졸’ 발견

- 미국 노트르담대 연구팀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비롯해 슈퍼 박테리아를 괴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생물질 ‘옥사디아졸(oxadiazole)’을 발견했다고 미국화학학회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발표
- 연구팀은 120만여 물질에 대한 실리코 스크리닝(silico screening)을 통해 옥사디아졸을 발견했으며, 쥐실험에서 옥사디아졸이 MRSA의 항생제 내성을 가능케 하는 페니실린 결합단백질(PBP2a)과 세포벽의 생합성을 억제함을 확인
 - * 옥사디아졸은 경구 투여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MRSA는 지난 1960년대부터 글로벌 보건을 위협, 미국에서만도 매년 27만8천명이 MRSA에 감염되고 이 중 1만9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RSA 감염에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는 3가지뿐이며 이 항생제들마저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옥사디아졸 발견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

[Observer, 2014.03.20]



미국 신경유전학연구소, “인간 후각으로 1조 가지 냄새 식별”

- 미국 록펠러대 신경유전학연구소 연구팀은 인간의 후각이 적어도 1조 가지의 냄새를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20~48세의 일반인 26명을 대상으로, 128개의 다른 향을 혼합한 뒤 같은 향 2개와 다른 향 1개가 담긴 3개의 병 냄새를 동시에 맡는 실험을 264회 진행하면서 이들이 다른 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혼합물의 성분이 49% 이상 다를 경우 향을 식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인간은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며, 인간의 후각이 시각이나 청각과 비교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만 식별할 수 있다는 통설을 반박
 - * 연구팀은 인간의 후각은 섬세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냉장기술과 개인 위생이 발달하면서 악취 등 냄새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후각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

[Daily Mail, 2014.03.22]



미국 카이저연구소, “임신성 당뇨가 심장병 위험 높여”

-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노던캘리포니아 연구소 연구팀이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여성은 나중에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져 심장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출산한 경험이 있는 18~30세 여성 898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당뇨병과 기타 대사질환 검사를 시행
 - 그 결과 평균적으로 출산 12년 후에는 경동맥벽 두께가 임신성 당뇨를 겪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0.023mm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
 - * 경동맥벽 두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임신성 당뇨가 심장병을 예고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

[Diabetes In Control, 2014.03.20]



하버드대, 치매 연관 추정 단백질 발견

-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73~106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한 집단의 뇌에서는 알츠하이머나 경도인지장애 같은 치매 혹은 치매로 진전될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보다 ‘레스트(REST)’ 단백질이 3배 정도 많음을 발견
 - * 레스트는 태아의 뇌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 레스트 단백질에 세포 사멸 및 치매 진행에 연관된 유전자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
 - 한편 글로벌 의료계는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타우 단백질을 낮추는 것으로 기대되어 온 기존 약물들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Healthline, 2014.04.02]



워싱턴대, 정맥질환 치료 위한 미니심장 제작

-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정맥질환 치료를 위한 미니심장을 제작하는데 성공
 - 연구팀은 심장 조직을 취해 정맥의 주변을 싸서 이식, 심장근육 세포로 이루어진 미니심장을 제작해 박동하도록 만드는데 성공
 - 그러나 이번 제작은 아직 실험실 연구 단계로, 연구팀은 일단 미니심장의 최적 디자인을 설계한 다음 쥐를 시작으로 동물실험을 시행할 계획
 - 그 뒤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향후 환자의 성인 줄기세포로 미니심장을 배양할 예정으로, 연구팀은 배양에 성공해 하지에 이식하면 정맥의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의 25% 정도가 정맥질환을 겪고 있으나 피부 근처 정맥질환은 치료가 가능해도 심정맥 질환에는 대책이 없어 의료계는 이번 미니심장 제작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Medical Daily, 2014.04.06]



캘리포니아대·앨런연구소, 자폐증 유발 과정 규명

-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캠퍼스)와 앨런뇌과학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자폐증은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
 - 연구팀은 2~15세 자폐증 아동 11명과 일반 아동 11명의 사후 뇌조직을 분석
 - 그 결과 자폐증 아동 10명의 대뇌피질에서 자폐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포조직이 불규칙하게 산재된 반면, 일반 아동에게서는 1명에서만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음을 발견
 - * 태아는 임신 중 뇌 발달 과정에서 6겹의 대뇌피질이 형성되는데, 자폐증 아동 11명 중 10명의 대뇌피질에서 사회성·감정·소통 등을 관장하는 세포조직이 불규칙
 - 연구팀은 자폐증과 연관이 있는 뇌조직 결함은 임신 2~3기(15~40주) 중에 형성된다고 설명한 뒤, 이번 연구 결과는 자폐증이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초래함을 시사한다고 평가

[Guardian, 2014.04.09]



미국 NICHD, “아스피린이 임신 가능성 높여”

- 미국 국립아동건강인간발달연구소(NICHD) 연구팀이 유산한 여성이 아스피린을 섭취할 경우 재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랜셋(Lancet)지에 발표
 - 연구팀은 유산 경력이 있는 여성 1천여 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실험군에는 저단위(81mg) 아스피린을, 대조군에는 같은 용량의 위약을 투여하면서 6개월 동안 임신 성공률을 지켜보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실험군은 임신 성공률이 78% 대조군은 66%로 나타난 가운데, 출산 성공률도 실험군이 62%로 대조군의 53%보다 높았음을 확인
 - * 특히 지난 1년 사이 임신 4.5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은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재임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아스피린이 유산을 막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아스피린이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아스피린이 자궁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추정

[Medical News Today, 2014.04.10]



화이자, AZ에 인수 제의 ... 글로벌 공룡 제약업체 탄생 가능성

-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미국 화이자가 영국 2위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Z)에 1천10억 불을 들여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업계 소식통들이 전언
 - 화이자와 AZ 두 회사의 시장 가치는 각각 1천930억불과 800억불에 육박, 인수가 성공할 경우 2천700억불 이상 규모의 글로벌 공룡 제약업체가 탄생
 - AZ는 인수에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이자는 신약 개발 강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
 - 업계는 특히 AZ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간판 제품들의 특허 만료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미래 성장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점도 화이자의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부여
- * AZ 주력 제품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넥시움(Nexium)'의 미국 특허권은 금년 5월 만료

[Wall Street Journal, 2014.04.21]



듀크대, 온전한 형태의 근육 제작 성공

-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온전한 형태와 기능을 보유한 근육을 만들어 쥐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이 근육은 수축성 근섬유와 위성세포(satellite cell)* 로 제작
 - *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만 활동하는 예비세포로, 줄기세포의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실험용 쥐의 등에 작은 틈새를 만들어 이 근육을 이식한 뒤 그 위에 유리판을 덮고 이틀에 한 번씩 2주일 동안 이 유리창을 통해 근육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관찰
 - 그 결과 근육 섬유에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면서 근육이 주변 근육과 동일한 수축력을 나타냈으며, 근육을 뱀독으로 손상시키자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도 발휘했음을 확인
 - 온전한 형태로 자연 근육과 똑같은 수축력과 재생 능력을 지닌 근육이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14.04.17]



브라운대, “비아그라가 피부암 발병 위험 높여”

-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이 화이저의 블록버스터 말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가 피부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평균 연령 65세인 미국과 중국 남성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 흑색종을 비롯한 피부암 발병 인자에 가족력과 햇빛 노출 정도와 함께 비아그라 복용량을 더한 데이터를 10여 년에 걸쳐 추적 조사
 - 그 결과 비아그라를 꾸준히 복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악성 흑색종 유병률이 평균 84% 정도, 다른 피부암 발병 확률은 2배 가량 높아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비아그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을 통해 피부암을 유발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아그라의 유효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피부암 유발 특정 유전자에 작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

[RH Reality Check, 2014.04.18]



USC 노리스종합암센터, 커피에 간암 예방 효과 발견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노리스종합암센터(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연구팀이 커피에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연차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백인, 흑인, 아시안 등 서로 다른 인종의 성인 남녀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비만 △당뇨 △음주 △흡연 같은 간암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커피와 간암 사이 관련성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
 - 그 결과 커피를 하루 1~3잔 마시는 집단은 1잔 미만인 집단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29% 낮았으며, 4잔 이상 마시는 집단은 42%까지 떨어져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간암 위험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 그러나 연구팀은 커피에 카페인과 폴리페놀 등 100여 종류의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 어떤 성분이 간암 위험을 떨어뜨리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

[Health AIM, 2014.04.14]



미국예방의료특위, 임신중독증 완화에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권고

- 미국예방의료특별위원회(USPSTF)가 임신중독증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산부들에게 임신 12주 뒤부터 일일 81mg의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
 - 아스피린은 산모와 태아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료계의 일반적인 정설
 - 그러나 USPSTF는 과거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저용량 아스피린이 임신중독증 위험을 24%, 조산 위험은 14%, 자궁에서 태아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도 20% 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설에 의문을 제기
 - USPSTF는 또 다태임신, 만성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
 - * 이와 함께 비만이거나, 가족 중 임신중독증 병력이 있거나, 35세 이상 등의 경우에도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Preeclampsia Foundation, 2014.04.17]



아이오와대, “다이어트 음료, 폐경기 여성 심장에 유해”

-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팀이 여성이 하루에 다이어트 음료를 2캔 정도만 마시더라도 폐경기가 되면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연차총회에서 발표
 - 연구팀은 평균 연령 62.8세인 폐경기 여성 6만여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에 걸쳐 추적 조사
 - 그 결과 다이어트 음료를 하루에 2캔 이상 마시는 집단은 전혀 혹은 거의 마시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정도, 이와 연관된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50% 가량 높았음을 확인
 - 또 다이어트 음료를 1주일에 1~4회, 5~7회, 1개월에 0~3회 마신 집단에서는 각각 6.8%, 6.9%, 7.2%에서 관상동맥심장질환과 울혈성심부전 및 심장마비가 발생한 반면, 하루 2회 이상 마신 집단에서는 8.5%에서 발생
 -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이어트 음료가 폐경기 여성 심장에 유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Newsday, 2014.04.24]



LA생의학연구소, 혈중 칼슘수치로 심장병 발병 예측

○ 미국 LA생의학연구소(LA BioMed) 연구팀이 칼슘수치(calcium score)가 높으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연차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고혈압 · 고지혈증 · 당뇨 · 흡연 · 가족력 등 심장병 위험인자가 없거나 미세하게 있는 성인 5천593명을 대상으로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관상동맥의 칼슘수치를 측정한 뒤 20년 동안 추적 관찰
- 그 결과 관상동맥 칼슘수치가 0인 집단에 비해 1~99인 집단은 심장병 사망 위험이 50%, 100~399이면 80%, 400 이상이면 3배 높은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장병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관상동맥에 미량의 칼슘이 침착되면 플라크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고조돼 심장병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정

[Medical News Today, 2014.04.19]



웍스너메디컬센터, 척추부상 환자 뇌에 컴퓨터 칩 이식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웍스너메디컬센터(Wexner Medical Center) 의료진이 ‘뉴로브릿지(Neurobridge)’ 기술을 이용, 손을 비롯해 가슴 아래 부위가 모두 마비된 20대 척추부상 환자의 뇌에 폭 4mm의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

- 이번 수술은 컴퓨터 칩을 통해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의료진은 오는 6월 칩의 기능을 가동시켜 결과를 확인할 예정
- 뉴로브릿지 기술은 환자의 뇌에 삽입된 칩이 뇌의 생각을 감지한 뒤 이를 컴퓨터 신호로 변환해 환자 팔에 부착된 전극 장치로 전달해 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환자 생각대로 팔이 움직이도록 지원

* 이 기술은 미국 바텔연구소와 오하이오주립대가 공동개발

- 웍스너메디컬센터 의료진은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판명되면 뉴로브릿지 기술이 척추 마비뿐 아니라 부분 신체 마비를 겪는 뇌졸중 환자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ashington Post, 2014.04.30]



뉴욕줄기세포재단, 당뇨병자 복제배아로 베타세포 분화

- 미국 뉴욕줄기세포재단 연구팀이 10세부터 1형 당뇨병을 앓아온 32세 여성 환자의 피부세포로 체세포 복제배아를 만든 뒤 이 복제배아의 줄기세포를 베타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건강한 여성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당뇨병자의 피부세포를 주입해 복제배아를 제작했으며, 이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특수 화학물질을 첨가해 베타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
- 이 베타세포는 췌장에 있는 자연 베타세포처럼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연구팀은 이 기능이 안정적인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 베타세포를 면역체계를 약화시킨 쥐에 주입해 관찰할 계획
- 한편 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처럼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 복제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직접 주입하면 복제인간 탄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Christian Today, 2014.05.01]



BMS, 아이피에리언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부문 인수

-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가 같은 미국 생명공학업체 아이피에리언(Ipierian)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부문을 최대 7억2천500만불에 인수
- 이에 따라 BMS는 아이피에리언측이 보유한 'IPN007'*의 전권을 확보하면서 IPN007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 파킨슨병과 유사한 진행성 핵상마비(PSP)와 타우병증 등을 치료하는 모노클로날 항체 기대주
- 그동안 아이피에리언은 뇌 내 '타우 단백질(Tau protein)*'의 병적인 축적과 관련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타우병증 치료제 개발에 주력
- * 세포의 내부골격 부위와 결합해 뇌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나,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섬유 매듭이 형성되면서 뇌세포들의 활동에 교란이 초래
-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가 타우 단백질의 기능 이상을 예방하거나 되돌려 타우병증 진행 과정에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BioWorld Online, 2014.05.12]



보스톤아동병원, 혈액세포로 조혈모세포 제작

- 미국 보스톤아동병원 연구팀이 쥐의 혈액세포로 각종 혈액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줄기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셀(Cell)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에서 채취된 골수세포를 일종의 유전자 스위치인 8가지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에 노출시키자 조혈모세포로 환원됐으며 이를 다시 쥐에 주입하자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각종 혈액세포가 형성됐다고 소개
- * Hlf, Runx1t1, Pbx1, Lmo2, Zfp37, Prdm5, Myn, Meis1
- 이 조혈모세포는 유전자 발현 패턴이 정상 조혈모세포와 매우 흡사, 정상 조혈모세포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
-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식 가능한 조혈모세포가 매우 많아야 하나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는 2만개에 1개꼴에 불과
-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통해 환자의 다른 세포를 이용해 자가 조혈모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며, 이는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에 커다란 진전이라고 자평

[Mass Device, 2014.05.02]



하버드대, “커피가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

-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커피가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당뇨병학(Diabetologia)지에 발표
- 연구팀은 총 1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16~20년에 걸쳐 실험이 진행된 3건의 연구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집단은 1잔 미만인 집단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37% 감소했음을 확인
- 또 지난 4년 사이 커피 섭취량을 하루 1잔 이상(평균 1.69잔) 증가시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다음 4년 동안 당뇨병 발병률이 11% 낮아진 것으로 분석
- * 반면 지난 4년 사이에 커피 섭취량을 하루 1잔 이상(평균 2잔) 감소시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다음 4년 동안 당뇨병 발병률이 17% 높아진 것으로 분석
- 이러한 효과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에 한해 나타났으며, 연구팀은 커피가 항산화 성분과 다른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

[San Francisco Chronicle, 2014.05.06]



BMS, 셀렉스와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제휴

-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가 같은 미국 셀렉스(Celldex)가 보유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를 자사의 제품과 병용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
- BMS는 PD-1 체크 포인트 억제제 ‘니보루맵(nivolumab)’을 셀렉스의 CD27 타깃 항체 ‘바리루맵(varlilumab)’과 병용해 폐암, 난소암, 대장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해 단일 1·2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
- * 전임상시험에서는 각각의 면역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이 더욱 뛰어난 결과가 도출
- 임상시험은 올 4분기에 셀렉스가 진행하며 비용은 양사가 공동분담
- 양사는 이번 제휴로 BMS가 셀렉스에 5백만불을 지급하고,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셀렉스가 바리루맵을 라이선스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데 합의
- 한편 셀렉스는 지난 '09년 BMS가 인수한 미국 메다렉스(Medarex)로부터 독립한 회사로, 면역 치료제 ‘여보이(Yervoy)’를 개발한 업체로도 유명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5.15]



캘리포니아대, “클로토 단백질이 인지기능 높여”

-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클로토(Klotho)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노화 억제는 물론, 사고력·기억력·학습능력 등 인지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셀리포츠(Cell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52~85세 남녀 718명을 대상으로 클로토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각종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유전자 두쌍 중 한쌍이 변이되면 클로토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인지기능이 향상됨을 확인
- * 변이된 클로토 유전자(KL-VS)를 가진 실험군(20~25%)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지능지수(IQ) 등 모든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은 실험군이나 대조군 모두 마찬가지
- 이러한 결과는 연령, 성별, 치매위험 유전자(ApoE-4) 유무와 무관
-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로토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형태의 치매 치료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Daily Mail, 2014.05.17]



스탠포드대, 무정자증 피부세포로 정자 제작

-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Y염색체 이상으로 정자가 없는 남성의 피부세포로 정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셀리포츠(Cell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무정자증 남성 3명과 생식 기능이 정상인 남성 2명의 피부조직 샘플에서 채취한 섬유모세포를 유전자조작을 통해 유도만능줄기(iPS) 줄기로 환원시킨 뒤 이를 쥐의 고환에 주입
 - 그 결과 iPS 세포가 초기단계 정자세포인 정자전구세포로 분화
 - 연구팀은 정자전구세포가 인간의 완전한 생식세포로 자라지는 못했지만 이는 이종간 진화장벽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iPS 세포를 불임 남성의 고환에 이식하면 완전한 정자세포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지난 '12년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일반 남성의 피부세포로 정자전구세포를 만든 바 있지만, 생식 기능이 없는 무정자증 남성의 피부세포로 정자전구세포를 만들기에는 이번이 처음

[News Fiber, 2014.05.19]



유타대, 신경줄기세포로 다발성경화증 치료 가능성 제시

- 미국 유타대 연구팀이 다발성경화증*을 신경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쥐 실험에 성공했다고 줄기세포리포츠(Stem Cell Reports)지에 발표
 - * 면역체계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산발적으로 공격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평형·운동·시력·언어·감각·성기능·배뇨·배변 등에서의 장애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현재 완치 방법은 없고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법만이 존재
 - 연구팀은 다발성경화증 모델쥐에 인간의 신경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10-14일 만에 마비된 운동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음을 확인
 - 이 쥐들은 신경이 손상돼 오래 서지 못해 먹어도 먹여주어야 했는데 신경줄기세포 주입 후 걷기 등 운동기능이 회복됐으며, 이 효과는 6개월 후에도 지속
 - 연구팀은 인간의 세포를 주입했는데도 거부반응이 없었다며, 인간에게도 줄기세포를 이 용할 경우 다발성경화증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Genetic Engineering News, 2014.05.16]



오하이오주립대, “토코트리에놀이 뇌졸중 치료에 효과”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이 비타민E의 주요 성분인 토코트리에놀(tocotrienol)이 뇌졸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
 - 연구팀은 뇌졸중이 진행되면서 ‘동맥 리모델링(arteriogenesis)’이 나타나는 뇌혈관과 뇌조직을 레이저 미세절제술을 통해 분석, 이러한 효과를 확인
 - * 토코트리에놀은 아자기름에 함유된 자연성분으로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차단, 혈중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뇌혈관이 막히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해 다른 뇌동맥들의 직경이 확대되면서 뇌혈류의 우회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토코트리에놀이 이러한 우회 공급을 지원한다고 설명
 - 또 뇌혈류의 우회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2차 뇌졸중에 의한 뇌손상이 차단 내지 줄어들 수 있어 회복도 빠르다고 강조
 - 연구팀은 현재 뇌졸중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

[AANS Neurosurgeon, 2014.05.13]



애보트, 칠레 최대 제네릭 업체 CFR 인수

- 미국 애보트가 칠레 최대 제네릭 업체 CFR 파마슈티컬스를 현금 29억불을 지급하고 CFR 부채 4억3천만불을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결정
 - 애보트는 이를 위해 먼저 CFR 지분 73%를 보유한 지주회사를 인수하고, 나머지 CFR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
 -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애보트는 중남미 제약시장 매출을 현재보다 2배 늘리면서 역내 톱10 제약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
 - CFR은 콜롬비아 시장의 30%, 칠레 21%, 페루의 16%를 점유하는 등 중남미 15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올 초에는 남아공의 애드콕 잉그램 홀딩스(Adcock Ingram Holdings)의 12억불 인수 제의를 거부
 - * 애보트의 임직원 수는 6만9천여명, CFR는 7천여명
 - 한편 시장조사업체 미국 IMS 헬스에 의하면 중남미 제약시장 규모는 현재 740억불에서 오는 '18년에는 1천240억불로 급증이 예상

[Chemistry World, 2014.05.21]



일라이릴리, 항암제 ‘알림타’ 특허 소송 패소

○ 미국 일라이릴리가 같은 미국 악타비스를 상대로 영국에서 제기한 항암제 ‘알림타(Alimta)’ 특허 소송에서 패소

- 영국고등법원은 알림타의 유효성분인 페메트렉시드(pemetrexed) 기본특허가 오는 '15년 12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 만료된다고 지적, 따라서 이후 악타비스가 페메트렉시드의 염 형태 제품을 제조해 이들 국가에서 판매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

* 일라이릴리는 알림타를 통해 지난 1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6억3천200만불의 매출을 기록

- 이번 판결로 악타비스는 '16년부터 알림타의 제네릭 제품을 유럽시장에서 발매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나, 일라이릴리는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
- 일라이릴리는 페메트렉시드의 염 형태 제품 제조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일 뿐 아니라 비타민B 용법 등 다른 특허권은 '21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 자사의 알림타 독점 판매권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Kilburn & Strode, 2014.05.19]



코넬대, 커피에 시력보호 효과 발견

○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커피가 시력 손상 심지어 실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농업식품화학저널(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발표

- 연구팀은 저산소증으로 인해 망막신경절세포가 손상된 생쥐에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을 투여하는 실험을 실시

* 체중감량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일반 커피에 7~9% 정도 함유

- 그 결과 세포 손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시력이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
- 연구팀은 클로로젠산에 'Thy-1-a' 라는 세포 표면 단백질의 하향 조절을 막아 망막신경절세포 피사를 저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연구팀은 저산소증 여파로 인한 망막의 손상은 클로로젠산으로 호전될 수 있다며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Rewordit, 2014.05.27]



캘리포니아대, 폐색전증 진단 소변검사법 개발

-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폐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변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연차총회에서 발표
 - 이 검사법은 폐동맥 혈전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피브리노펩티드-B(Fibrinopeptide B : FPB)의 소변 수치를 측정해 폐색전증 여부를 파악
 - * 폐색전증은 심부정맥혈전의 파편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순환하다 폐동맥을 막을 때 발생
 - 연구팀은 폐색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법과, 혈전이 붕괴될 때 혈액 속에 생성되는 단백질 조각인 D-다이머를 찾아내는 방법인 기존 D-다이머(D-dimer) 검사법을 비교
 - 그 결과 양 검사법이 민감성(sensitivity)은 동일하나 특이성(specialty)은 소변검사법이 높은 것으로 확인
 - * 민감성은 질병이 있는 환자를 양성으로, 특이성은 질병이 없는 일반인을 음성으로 식별하는 능력
 - 또 소변검사법은 D-다이머 테스트와 달리 혈전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FPB를 찾아내기 때문에 혈전의 진행을 추적 가능한 장점도 보유

[New York Times, 2014.05.22]



스크립스연구소, 인공 DNA로 새로운 생명체 제작

-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연구팀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자연 DNA에 인공 DNA를 합성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살아있는 대장균 박테리아의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의 4종류 염기쌍으로 구성된 자연 DNA에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인공 염기쌍 X와 Y를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
 -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A, T, G, C의 4가지 염기로 이루어진 DNA 유전암호를 보유
 - 그 결과 모두 6종류의 염기쌍을 가진,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생성된 가운데, 이 생명체의 DNA는 자연 DNA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
 - 한편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기반으로 자연 DNA만 지니고 있는 세포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항생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신독스(Synthorx)라는 바이오 업체를 설립

[Singularity Hub, 2014.05.30]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FTO 유전자 변이가 비만 유발”

-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팀이 FTO 유전자가 변이되면 미각과 식감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위축돼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분자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지에 발표
 - 연구팀은 볼티모어노화중단연구(BLSA)에 참가하고 있는 700명(평균 연령 46세)을 대상으로 뇌에 대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FTO 정상유전자와 변이유전자를 가진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
 - 그 결과 FTO 변이유전자 집단이 미각과 식감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된 가운데, FTO 유전자 한쌍 중 하나 또는 둘 다 변이된 집단은 장기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높아짐을 확인
 -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FTO 유전자가 변이되면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그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는 그 관련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

[Bio News, 2014.06.02]



BMS, 사이툰엑스.인사이트와 항암 면역치료제 R&D 제휴

-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쿼브(Bristol Myers Squibb : BMS)이 미국의 사이툰엑스(Cytomx) 및 인사이트(Incyte)와 각각 항암 면역치료제 R&D 제휴를 체결
 - BMS는 사이툰엑스로부터 임상적으로 검증된 CTLA-4 등 최대 4개 타겟에 대한 프로바디(Probody)*의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양받는데 성공
 - * 종양의 미세환경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단클론 항체
 - 대신 BMS는 사이툰엑스에 5천만불의 선금과 함께 연구지원금, 향후 개발·승인·판매 목표 달성에 따른 최대 2억9천800만불의 중간로열티, 매출에 따른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할 계획
 - BMS는 또 인사이트와 BMS의 PD-1 제제 ‘니볼루맵(nivolumab)’과 인사이트의 경구 IDO1 억제제 ‘INCB24360’을 병용, 다양한 종양에 대해 인사이트 주도로 1·2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

[Chemistry World, 2014.06.12]



J&J, 비브와 HIV 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 미국 존슨앤존슨(J&J)이 자회사인 얀센(Janssen)을 통해 영국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와 새로운 HIV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 얀센과 비브는 얀센의 에듀란트(Edurant)와 비브의 티비케이(Tivicay)를 결합한 복합제를 개발할 방침으로, 내년에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시작
 - * 이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기존 콕테일요법보다 독성이 적은 치료대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티비케이는 비브가 일본의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은 약물로, 티비케이를 이용한 복합제 개발 시도는 이번이 처음
 - * 비브는 지난 '09년 영국 GSK와 미국 화이자가 HIV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
 - 한편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HIV 치료제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아트리플라(Atripla)로 지난해 36억불의 매출을 기록

[CNBC, 2014.06.16]



머크, 감염증 치료제 업체 아이데닉스 인수

- 미국 머크가 미국 아이데닉스(Idenix)를 주당 24.5불 총 38억5천만불에 인수
 - 아이데닉스는 뉴클레오사이드(nucleoside),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프로드럭(prodrug)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C형 간염 치료제 분야에서 유망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감염증 치료제 전문업체
 - * 현재 아이데닉스는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ribavirin)과 병용하지 않으면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범유전자형 요법제로 기대되는 C형 간염 치료제 'IDX21437'과 'IDX21459' 및 '사마타스비르(samatasvir)'의 개발을 진행 중
 - 머크는 자사가 C형 간염 치료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혁신의 전통을 구축해 왔다고 소개한 뒤, 이번 인수로 머크 주주들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
 - 한편 현재 전세계 C형 간염 환자는 1억7천만 명 정도인 가운데, 만성 감염자의 1~5%는 간암이나 간경화로 사망

[Wall Street Journal, 2014.06.20]



화이자, 셀렉티스와 ‘CAR-T’ 면역항암제 기술 제휴

○ 미국 화이자가 프랑스 셀렉티스와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 CAR-T)’ 면역항암제 기술 R&D 협력 제휴를 체결

- 양사는 화이자가 셀렉티스에 계약금 8천만불과 연구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의약품 개발 성과에 따라 최대 1억8천500만불을 추가 지급한다는데 합의
- 화이자는 셀렉티스의 미국 지사를 설립해 양사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 셀렉티스는 신체 면역계를 토대로 항암제를 개발해 온 생명공학기업으로, T세포를 키메릭 항원 수용체로 재프로그래밍해 항암제로 제작하는 CAR-T 면역항암제 개발 기술을 보유

*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셀렉티스는 '15년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

- 화이자는 셀렉티스와의 제휴로 최첨단 바이오 항암치료 플랫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명한 뒤, CAR-T 면역요법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6.19]



애보트, 베로팜 인수 ... 러시아 사업 강화

○ 미국 애보트가 러시아 베로팜을 인수해 러시아 시장 사업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애보트는 베로팜의 모기업인 미국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가든 힐스 (Limited Liability Company Garden Hills)를 합병할 계획
- 애보트는 가든 힐스 인수 금액으로 3억9천500만~4억9천500만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1억3천600만불 상당의 베로팜측 부채도 떠안을 방침
- 애보트는 베로팜 인수를 통해 여성건강 제품에서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위장병, 암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한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비
- 또 베로팜의 러시아 현지 제약공장과 현재 신축공사 중인 첨단공장을 확보, 자사가 보유한 제조 노하우를 베로팜의 기존 인프라에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애보트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장기 공략 전략에 따라 지난 40여년 전 러시아 시장에 진출

[Pharmaceutical Online, 2014.06.26]



옥실리움, 캐나다 생명공학업체 QLT 합병

- 미국 옥실리움 파마가 캐나다 생명공학업체 QLT를 합병
 - 옥실리움은 남성 건강관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업체로 최근에는 피부과와 정형외과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QLT는 그동안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등 안과질환 관련 제품 개발에 주력
 - 이번 합병으로 옥실리움은 QLT의 제품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R&D 투자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옥실리움측은 이번 합병이 회사의 명확한 성장 전략과 공격적인 제품 라이선싱과 M&A를 통해 글로벌 조직을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뒤 가까운 시일 내 가치증대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합병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합병된 회사의 본사가 미국보다 법인세가 낮은 캐나다에 위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Businessweek, 2014.06.26]



존스홉킨스대, iPS 세포로 미니 망막 제작

-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로 미니 망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먼저 iPS 세포를 이용해 망막 전구세포를 만들고 이를 비커에서 분화시킨 뒤, 망막 전구세포가 망막으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인 28주가 경과한 후 생성된 망막에 빛을 비추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망막에 위치한, 생명체가 빛을 받았을 때 이를 수용하는 기관인 ‘광수용기 (photoreceptor)*’가 반응하는 것을 확인
 - * 빛을 신경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물을 보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이전에도 줄기세포를 활용해 망막세포를 만든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기능을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
 -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망막 관련 여러 질병을 iPS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

[Drug Discovery & Development, 2014.06.24]



브리검영대, “심혈관 건강, 인지기능에도 영향”

- 미국 브리검영대 연구팀이 심혈관 건강이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45세 이상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을 평가하고 4년 후 다시 인지기능 테스트를 미국심장학회의 심혈관 건강 평가법(Life's Simple 7)*을 이용해 시행
 - * △흡연 △식습관 △운동 △체중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의 7가지 심혈관 건강 위험인자를 점수화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점수에 따라 심혈관 건강 상태를 상·중·하로 평가
 - 그 결과 조사기간 중 인지기능이 떨어진 피검사자는 심혈관 건강 평가점수 하위집단이 5% 정도로 가장 많은 반면, 상위집단 2.6%, 중위그룹은 2.7%
 - * 이 결과는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도 동일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면 무증상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

[Meridian Magazine, 2014.06.27]



펜실베이니아대, 알츠하이머 환자 기억 형성 차단 원인 규명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형성을 차단하는 근본 원인을 규명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해마로의 출입구인 치상회(dentate gyrus)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치상회에 위치한 성상세포가 모양이 변하고 그 안의 신경전달물질 가바(Gamma-AminoButyric Acid : GABA)*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억의 해마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
 - * 뇌에서 억제와 진정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사망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성상세포에서 크게 증가해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
 - 연구팀은 일반쥐와 알츠하이머 모델쥐의 가바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알츠하이머 모델쥐에서 가바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알츠하이머 모델쥐의 가바 활동을 억제한 결과 다른 알츠하이머 모델쥐에 비해 기억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Munich Eye Weekly, 2014.06.28]



예일대, “저단위 아스피린 장기 복용 시 췌장암 예방”

○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저단위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경우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암 역학과 생물표지 및 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 & Preven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05~'09년 사이 코네티컷주 소재 30개 종합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362명과 췌장암이 없는 일반인 690명의 자료를 비교분석
- 그 결과 저단위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사람은 전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별에 관계없이 췌장암 발생률이 평균 48% 낮았음을 확인
 - * 췌장암 위험은 아스피린 복용기간이 길수록 낮아져 10년 이상 복용할 경우 60%까지 감소
- 반면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다 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 2년 이내 중단한 사람은 복용을 계속한 사람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체중·흡연·당뇨병 등 다른 췌장암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며, 저단위 아스피린 장기복용이 췌장암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고 주장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7.03]



콜롬비아대, 장조직 세포 → 인슐린 세포 전환 실험 성공

○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장조직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FOXO-1'을 제거하면 인슐린 세포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줄기세포로 만든 인간의 미니 장조직 세포에서 대사조절과 관련된 FOXO-1 유전자를 제거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7일 후부터 장조직 세포에서 인슐린이 생산됨을 확인
 - * 장조직 세포에서는 베타 세포처럼 포도당이 있을 때만 인슐린이 분비
- 앞서 연구팀은 당뇨병 모델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장조직 세포에서 FOXO-1 유전자를 제거하면 인슐린이 생산되어 혈관에 방출되면서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사실도 파악
-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1형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Tech Times, 2014.07.02]



하버드대, “이식용 장기, 체외서 4일까지 보존 가능”

-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기증된 이식용 장기를 체외에서 최장 4일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의 간을 체외에서 최장 4일까지 과냉각(supercool)* 상태에서 보존했다가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
 - * 액체가 빙점 이하의 상태에서도 액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
 - 연구팀은 쥐의 간에 부동액과 포도당 성분을 주입한 결과, 섭씨 영하 6도에서 얼지 않고 과냉각 상태에 있었다며 이렇게 4일 동안 과냉각 상태에서 보존된 간을 이식받은 쥐들은 56%가 3개월 동안 생존했다고 설명
 - 연구팀은 이 새로운 기술이 간뿐 아니라 심장·망막·피부·신장 등 다른 장기의 장기 간 보존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 의료진들이 조직 적합성이 높은 이식환자를 선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면서 이식수술 준비에도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CBS, 2014.07.01]



박스터, 에스알엑스 인수 ... 희귀질환 사업 강화

- 미국 박스터 인터내셔널이 같은 미국의 에스알엑스(AesRx)를 인수
 - 에스알엑스는 유전성 질환의 일종인 겸상 적혈구 빈혈 치료용 신약후보물질 ‘에스-103(Aes-103)’ 등 개발을 진행해 온 업체로, 박스터는 이번 인수가 희귀질환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 겸상 적혈구 빈혈은 전 세계 환자 수가 1천300만명을 상회하며, 중증 겸상 적혈구 빈혈의 경우 만성적 통증을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스-103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친화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겸상 적혈구를 감소시켜 혈관폐쇄와 통증 및 피로감 등 증상들이 수반될 위험성을 낮추고 있음이 입증
 - * 현재 에스-103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국립병진과학센터(NCATS)의 희귀질환 치료 프로그램(TRND) 아래 임상 2상 시험이 진행 중
 - 한편 인수에 수반되는 구체적 금액 내역은 미공개

[PharmExec, 2014.07.17]



매사추세츠안이과병원, 줄기세포 이식으로 각막 재생

○ 미국 매사추세츠안이과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 Infirmary) 연구팀이 인간의 각막 줄기세포를 쥐에 이식, 완전한 각막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각막과 공막 접점 부위인 윤부(limbus)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는 각막을 유지·보수하면서 몇 주마다 완전한 각막을 재생하나 그 수가 적고 복잡한 구조 속에 숨어 있어 식별해 내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나 연구팀은 윤부 줄기세포 표면에 ‘ABCB5’라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 여기에 형광 분자표지를 붙이는 기술을 개발
- 연구팀은 이 꼬리표를 이용, 기증된 인간 각막에서 줄기세포 무리를 식별해 냈고, 이들을 분리해 각막 실명 상태인 쥐에 이식하자 줄기세포는 투명하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각막을 재생
- 연구팀은 이 각막 재생법이 각막 손상 환자의 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2014.07.17]



메이요클리닉, “안구 검사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팀이 안구 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4 국제알츠하이머협회컨퍼런스(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에서 발표

- 연구팀은 뇌와 안구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비침습적 안구 화상기술을 통해 확인
 - *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뇌 뿐 아니라 안구에도 축적되는 것으로 분석
- 알츠하이머 환자는 일반적으로 기억력 손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뇌에 이상이 시작되는 데, 연구팀은 안구 검사가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더 간단하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근래 알츠하이머 진단법으로 혈액검사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conomist, 2014.07.19]



화이자, 이노파마 인수 ... 무균 주사제 포트폴리오 강화

- 미국 화이자가 무균 주사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같은 미국의 이노파마(InnoPharma)를 총 3억6천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화이자는 2억2천500만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특정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1억3천500만불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3분기 내 인수를 완료한다는 방침
 - 현재 이노파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제네릭 의약품 10개와 검토 단계에 있는 시험약 1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사용 약물과 안과질환 치료제 30여개를 개발 중
 - 화이자는 이번 인수가 무균 주사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화이자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정교한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 측면에서 제조하기 어려운 기존 항암제 및 중추신경계 치료제의 새로운 제제를 개발할 예정

[American Bazaar, 2014.07.25]



세다스시나이 연구소, ‘심장박동 치료’ 유전자 주사법 개발

- 미국 세다스시나이 심장연구소 연구팀이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사이언스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돼지를 대상으로 유전자 주사법을 시험한 결과 심장박동수가 분당 70~90회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음을 확인
 - 연구팀은 기존 심장박동 조절기를 이식할 경우 기기가 고장나면 심장박동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나 유전자 주사법은 그럴 위험이 없다고 강조
 - * 심장박동 조절기 이식술은 시술 방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약 2%는 감염으로 추가치료를 받거나 기기를 교체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신체 성장에 맞춰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
 -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치료법의 안전성과 지속성 및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2~3년 뒤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

[Med Device Online, 2014.07.23]



위스콘신대, 줄기세포로 혈액세포 제작

-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유전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 각종 혈액세포를 제작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에 발표
- 연구팀은 DNA와 결합해 유전정보 흐름을 제어하는 단백질인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27개를 관찰한 결과 2개 인자에서 줄기세포를 조혈발생 내피세포로 직접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
- 그 뒤 연구팀은 이 2개 전사인자를 발현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동안 배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혈액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
- * 신생 조혈발생 내피세포에 의해 조혈줄기세포 · 백혈구 · 적혈구 · 거핵구 등 각종 혈액세포들이 제작되었으며, 제작 효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혈액도 유전적 메커니즘을 조절해 제작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실험이 혈액장애 및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Journal Sentinel, 2014.07.21]



텍사스대, 갈색지방에 비만·당뇨 억제 효과 발견

-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이 갈색지방에 비만과 당뇨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당뇨병(Diabetes)지에 발표
- 연구팀은 갈색지방이 많은 남성 7명과 적은 5명을 대상으로 다소 춥게 느껴지는 섭씨 19도, 쾌적한 섭씨 24도, 덥게 느껴지는 섭씨 27도에서 각각 5~8 시간을 쉬도록 하면서 에너지 소모, 포도당 사용, 인슐린 민감성을 비교분석
- 또 전신의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측정하고, 갈색지방과 백색지방 조직 샘플을 채취해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유전자 발현도 분석
- 그 결과 섭씨 19도 온도에서 갈색지방의 에너지 소비와 칼로리 연소가 30~40% 증가한 가운데, 특히 갈색지방이 많은 남성일수록 전신의 에너지 소모량과 포도당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갈색지방이 비만과 당뇨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다소 온도가 낮을 때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설명

[Diabetes In Control, 2014.08.01]



화이자·23앤드미, 염증성 장질환 공동연구 파트너십 체결

- 미국의 화이자와 23앤드미(23andMe)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 IBD)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체결
 - 양사는 크론병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 총 1만여명에게 23앤드미의 타액 유전자 검사 키트를 전달한 뒤 온라인 설문을 통해 IBD 발병·진행·중증도·치료제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 IBD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할 계획
 - * 23앤드미는 탁월한 유전정보 분석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과거에도 로슈, J&J, 키타일즈과도 IBD 공동연구를 진행한 전력을 보유
 - 화이자는 현재 토파시티닙(tofacitinib)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각각 임상 3상 및 2상 시험을 진행 중
 - 미국에서는 140만명 정도가 IBD 환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 지출은 17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터프츠대, 쥐 신경세포로 3D 구조 뇌조직 제작

-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이 쥐 신경세포로 3D 구조의 뇌조직을 제작했다고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연구팀은 실크 단백질과 콜라겐젤 등 물리학적 성질이 상이한 2가지 생물소재로 만든 도넛 모양의 스펀지 모형에 쥐의 뉴런을 심고 도넛 중심을 콜라겐젤로 채워 3D 구조의 뇌조직을 제작하는 데 성공
 - *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시험관에서 뉴런을 배양해 2D 구조의 뇌조직을 제작
 - 뇌의 핵심구조인 회색질과 백질을 갖춘 이 3D 구조 뇌조직은 최장 2개월까지 생존한 가운데, 뉴런의 성장과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2D 구조 뇌조직에서보다 훨씬 활발
 - 연구팀은 3D 구조의 뇌조직 제작을 통해 뇌에 기억이 저장되는 메커니즘이 밝혀질 경우 알츠하이머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 원인과 과정이 규명되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



브리검여성병원, “카페인 다량 섭취하면 이명 위험 ↓”

- 미국 브리검여성병원 연구팀이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면 이명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
- 연구팀은 간호사보건연구 II(Nurses' Health Study II)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30~44세 여성 6만5천여 명의 18년간 생활습관 자료와 의료기록을 분석
- 그 결과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450~599mg인 여성은 150mg 미만인 여성에 비해 이명 발생률이 15% 정도 낮았음을 확인
- *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참가자들은 대부분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을 섭취
- 연구팀은 카페인 섭취와 이명의 역관계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카페인에 내이(內耳)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설명
- 한편 이명은 음파를 받아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내이의 섬모세포가 감염이나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해 약해지거나 손상돼 비정상 신호를 뇌에 보낼 때 발생

[Reuters, 2014.08.15]



미시간대, 장내 미생물 구성 분석으로 대장암 진단

-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gut microbiome) 구성을 분석하는 작업만으로도 대장에 용종 혹은 암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암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Research)지에 발표
-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30명, 대장용종이 있는 사람 30명, 대장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미생물 구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분석하면 내시경 검사 없이도 대장용종과 대장암 진단이 가능하다고 주장
- * 특히 대장용종의 경우 이 분석 결과에 연령·인종·체중 등 위험인자 자료를 추가해 종합평가하면 대장용종 발생 예측 정확도를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연구팀은 또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진단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분변 속의 혈흔을 통해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진단하는 분변잠혈검사보다 우수하다고 주장

[Oncology Nurse Advisor, 2014.08.19]



텍사스대, NSAID에 유방암 재발 ↓ 효과 발견

-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가 비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암연구(Cancer Research)지에 발표
 - 연구팀은 1987~2011년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평균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 유방암 환자 440명(55~60세)의 자료를 분석
 - * 이들 중 NSAID를 복용한 환자는 159명,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281명
 - 그 결과 NSAID를 복용한 집단에서 유방암 재발률이 평균 6%로 복용하지 않은 집단의 12%보다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 또 유방암이 재발한 경우, 재발까지 소요된 기간도 NSAID를 복용한 집단이 평균 6.5년으로 복용하지 않은 집단의 4.2년보다 긴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 비만 환자는 비만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 아로마타제 억제제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NSAID에 염증 억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Medical News Today, 2014.08.22]



브리검여성병원, DNA 메틸화와 알츠하이머 관련성 규명

- 미국 브리검여성병원 연구팀이 유전자 형질 발현을 조절하는 화학적 변형 중 하나인 DNA 메틸화와 알츠하이머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신경과학(Nature Neuro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708개의 뇌 샘플을 분석한 결과, 사이토신(cytosine)과 구아닌(guanine)이 인접해 있는 DNA 빌딩 블록의 쌍인 CpG 표지자 중 71개 표지자가 알츠하이머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
 - 71개 표지자는 모두 ANK1, RHBDF2, ABCA7 및 BIN1 유전자 내 위치한 가운데, ANK1, CDH23, DIP2A, RHBDF2, RPL13, RNF34, SERPINF1, SERPINF2 유전자의 경우 뇌에서 변형된 RNA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DNA 메틸화가 알츠하이머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게놈의 영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Medscape, 2014.09.03]



구글·애브비, 항노화 치료제 개발 제휴

- 미국 구글이 산하 칼리코(Calico)를 통해 애브비와 공동으로 암과 신경퇴행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항노화 치료제 개발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일단 각각 2억5천만불 총 5억불을 투자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칼리코사에 새로운 노화질환 연구 시설을 설립하는 등 총 15억불을 항노화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기로 결정
 - * 칼리코는 인간의 노화 문제를 연구하는 헬스케어 업체로 지난해 구글이 설립했으며, 최고경영자는 지넨텍의 CEO를 역임한 아트 레빈슨(Art Levinson)
 - 그 뒤 칼리코가 10년 동안 애브비의 과학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약을 발굴해 2a상 임상시험까지 진행시키면 이후 애브비가 말기 임상시험 및 신약 판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데 합의
 - 또 신약 개발 비용 및 수익은 양사가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
 - 한편 칼리코는 미국 2M 컴퍼니스(2M Companies)로부터 신경보호 합성물질 'P7C3'에 대한 판매 권리도 취득

[PMLive, 2014.09.12]



캘리포니아대, 1형 당뇨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개시

-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이 생명공학기업 바이어사이트(ViaCyte)가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험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VC-01'을 1형 당뇨병 환자에 투여하는 1-2상 임상시험을 개시
 - VC-01은 줄기세포 유래 세포를 특수 캡슐화한 것으로, 연구팀은 VC-01을 환자 피부 밑에 이식한 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로 성장하는 지 관찰하는 동시에 치료제의 안전성과 내약성 및 효능을 평가할 계획
 - * 1형 당뇨병은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 인슐린이 극히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는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서 임상시험에서는 VC-01이 인간에게 안전한 지를 중점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임상시험은 캘리포니아대 부속병원을 비롯한 4~6개 의료기관에서 약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향후 2년 동안 진행될 예정

[Science Daily, 2014.09.10]



MIT대, “기억 전환 통해 PTSD 치료 가능”

- 미국 MIT대 연구팀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기분좋은 기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할 수 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수컷 쥐에 특정 파장의 빛과 전기자극을 동시에 가해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반응하도록 하는 환경을 설정
- 그 뒤 빛을 보면 전기자극을 떠올리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 쥐들을 대상으로 암컷 쥐와 함께 놓고 다시 빛을 비추는 실험을 진행
-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컷 쥐에게 또다시 빛을 비추자 트라우마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도출, 전기자극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암컷 쥐와 어울렸던 좋은 감정으로 대체되면서 공포감이 사라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인간에게도 기억이 저장된 해마와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사이 연결을 바꾸는 방법으로 기억에 대한 감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실험 결과가 PTSD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IAS Institute, 2014.09.08]



길리어드, 인도 7개 업체와 ‘소발디’ 제네릭 판매 제휴

○ 미국 길리어드가 인도 7개 제네릭 제약업체*와 C형간염 신약‘소발디(Sovaldi)’제네릭을 인도 등 전세계 91개 개도국에 판매하는 제휴를 체결

* 카딜라(Cadila), 시플라(Cipla), 헤테로 랩스(Hetero Labs), 밀란(Mylan), 란박시(Ranbaxy), 시퀀트 사이언티픽(Sequent Scientific), 스트라이즈 아코랩(Strides Arcolab)

- 이들 개도국에는 전세계 C형간염 환자의 절반이 넘는 1억명 이상의 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 업체들은 소발디 제네릭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길리어드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소발디 제네릭 판매는 내년 2~3분기부터 가능할 전망

- 길리어드 역시 소발디를 개도국에 저가에 판매할 계획으로, 소발디의 미국 가격은 1정에 1천불에 달하지만 인도에서는 10불 정도에 판매를 고려 중이며, 인도 업체들은 이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

- 이번 제휴는 개도국에서의 소발디 접근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브라질이 ‘비리어드’ 특허를 거부한 예와 같이 외국 정부가 소발디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

[Healthcare Professionals Network, 2014.09.24]



보스턴대, “고단백 식사가 고혈압 위험 낮춰”

○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고혈압저널(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에 발표

- 연구팀은 30~54세의 건강한 남녀 5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혈압 사이 관계를 10년 이상에 걸쳐 추적 관찰

- 그 결과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100g 정도 되는 집단은 절반인 집단에 비해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40% 가량 낮은 가운데,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까지 다량 섭취할 경우 60% 정도까지 떨어짐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물성이나 식물성 단백질에는 아르기닌(Arginine)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따라서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덜 섭취하게 돼 혈압 상승 억제와 같은 대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

[Aus Food News, 2014.09.29]



일리노이대, ‘올레인산’에 심부전 치료 효과 발견

-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올리브유와 카놀라유에 다량 함유된 불포화지방 ‘올레인산(oleate)’에 심부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순환(Circula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심장기능이 저하된 쥐에 동물성 포화지방인 팔미트산(palmitate)과 올레인산을 주입하고, 핵자기공명분광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NMRS)으로 심근의 지방대사를 관찰
 - 그 결과 팔미트산을 주입했을 때에는 지방대사와 저장 기능이 위축된 상태 그대로였고, 지방대사에 도움이 되는 효소는 생산되지 않았음을 확인
 - 반면 올레인산을 주입했을 때에는 불과 30여분 만에 심근세포 내 지방산 저장량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심장의 수축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대사를 돕는 유전자의 발현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올레인산은 심부전으로 연료가 부족한 엔진과 같은 상태가 된 심장에 연료 공급이 재개되도록 도와준다는 이번 실험 결과가 식이요법에 의한 심부전 치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

[Deccan Chronicle, 2014.10.02]



UCLA,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로 여드름 치료”

- 미국 UCLA대 연구팀이 적포도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피부과학과 치료(Dermatology and Therapy)지에 발표
 - 연구팀은 레스베라트롤과, 레스베라트롤 및 산화 성분인 벤조일 퍼옥사이드(benzoyl peroxide)이 혼합된 물질을 각각 시험관에서 여드름균에 투여하고 열흘 동안 항균 효과를 관찰
 - 그 결과 레스베라트롤은 투여량이 50ug/mL 이상일 때 여드름균이 죽었고 그 효과는 48시간 지속되었으며, 두 가지가 함께 투여됐을 때는 용량에 관계없이 여드름균이 죽었고 효과는 48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에 대해 항산화 성분과 산화 성분이 서로의 효과를 상승시켰기 때문으로 추정
한 뒤,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여드름 치료제가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산화 성분은 독성이 강해 여드름 치료제로는 부적합

[Dermatology Times, 2014.10.06]



대너파버암연구소, ‘BCAA 혈중수치’ 로 췌장암 초기 진단

- 미국 대너파버암연구소 연구팀이 ‘분지사슬 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ids : BCAA)’의 혈중 수치가 높아지면 췌장암의 초기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1천500여명으로부터 취합한 혈액샘플에서 100여 대사물질을 파악한 뒤, 후에 췌장암이 발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대사물질을 비교 분석
- 그 결과 췌장암 진단 집단의 혈중 BCAA 수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췌장암 집단은 췌장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2~25년이었으며 진단 전 몇 년 사이에 BCAA 수치가 가장 높았음을 확인
- * BCAA 혈중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근육조직이 분해되면서 BCAA가 혈액 속으로 방출되기 때문
- 췌장암은 증상이 없어 진단됐을 때에는 말기인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췌장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혈중 BCAA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장차 췌장암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Cancer Network, 2014.10.02]



BMS ‘옵디보’, 머크 ‘키트루다’ 와 치열한 경쟁 예상

- 미국 BMS의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Opdivo)’가 같은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Keytruda)’보다 판매가 약간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양 제품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옵디보는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를 받은 PD-1 억제제(체내 면역체계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약제)로, 임상시험 결과 흑색종 환자의 1년 생존율이 62%, 2년 생존율은 43%로 나타나는 등 악성 피부암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
- 그러나 문제는 천문학적 가격(환자 1인 연비용 14만3천불)으로 지난 7월부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은 또다시 가격과의 싸움에 나서야 할 판
- 전문가들은 옵디보가 머크의 키트루다(Keytruda)보다 판매가 약간 우세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나 그래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옵디보/여보이 결합제의 안정성 여부와 관련된 3상 임상시험 결과는 ‘16년 가을에 나올 예정

[DATAMONITOR Healthcare, 2014.10.03]



워싱턴주립대, “사과가 비만 억제에 도움”

- 미국 워싱턴주립대 연구팀이 사과에 비만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식품화학(Food Chemistr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사과, 특히 그레니스미스(Granny Smith) 품종의 사과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생물활성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체중이 증가해 비만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
- 연구팀은 이 성분들이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돼 부티르산(butyric acid)을 생성하면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
- * 비만한 사람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일반적
- 이 같은 사실은 사과를 먹인 비만 쥐들과 정상체중 쥐들의 분변 속 세균총에서 유익균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에서 입증

- 연구팀은 또 그래니스미스, 후지, 갈라 등 7가지 품종의 사과 성분과 이들 성분이 장내 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래니스미스 품종에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많았고 장내 유익균 증가 효과도 가장 컸음을 확인

[Health Feed, 2014.10.09]



MIT대, 요구르트 한 스푼으로 결장암 검사

- 미국 MIT대 연구팀이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대신 한 스푼의 요구르트만 섭취함으로써 간단히 결장암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지에 발표
- 연구팀은 요구르트 속 박테리아를 변형, 신체 내부에 들어가면 결장암 종양으로 다가가는 합성분자를 개발
- 연구팀은 이 합성분자가 결장암 세포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미세하게 분리된 뒤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소변검사를 통해 이를 포착하면 결장암에 걸린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
- 이 합성분자는 입을 통해 흡수되고, 소변검사도 특수기구 대신 임신 테스트용과 같은 검사지로 시행이 가능
-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로 결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물론 검사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특히 검사 여건이 취약한 개도국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Colon Cancer News Today, 2014.10.13]



BMS, 안센·파마사이클릭스와 항암제 개발 제휴

- 미국 BMS와 안센 및 파마사이클릭스가 대세포성 림프종과 여포성 림프종 등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항암제를 공동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이들 업체는 BMS의 오펜디보(Opdivo)와 안센·파마사이클릭스의 임브루비카(Imbruvica)의 복합제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미치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및

2상 연구를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

- * 오피디보는 체내 면역체계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PD-1 억제제이고, 임브루비카는 암세포 성장과 분화를 막는 경구용 브루톤스 티로신 키나제(Bruton's tyrosine kinase : BTK) 억제제
- 이들 업체는 약물 각각이 악성 종양에 대해 효과를 나타냈으며, 임상 전 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피디보와 임브루비카를 병용할 경우 단독요법을 실시한 것보다 유익성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
- 한편 오피디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받았는데 이어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신속 심사 중에 있으며, 임브루비카는 외투세포 림프종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

[Outsourced Pharma, 2014.10.16]



매사추세츠아동병원, “브로콜리가 자폐증 완화에 도움”

- 미국 매사추세츠아동병원과 존스홉킨스대 공동 연구팀이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폰라페인(sulforaphane)’이 자폐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연구팀은 증상이 보통 내지 중증인 13~27세의 자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군(26명)에는 설폰라페인 캡슐, 대조군(14명)에는 위약을 18개월 동안 투여하면서 4주, 10주, 18주 및 투약 중지 4주 후의 행동 변화를 비교평가
- 그 결과 전체 기간에서 실험군은 46%가 사회성이 개선되고 42%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으며 54%는 비정상 행동이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사회성과 언어적 의사소통은 그대로였고 9%에서만 비정상 행동이 감소
- * 부모의 관찰평가에서도 실험군은 대체로 4주째부터 흥분, 반복행동, 과잉행동이 개선되면서 사회성이 호전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브로콜리에서 직접 추출한 설폰라페인을 이번 실험에 사용했다며, 설폰라페인을 이용한 자폐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

[BusinessWire, 2014.10.17]



피츠버그대, 식도에도 줄기세포 존재 확인

-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식도에도 자체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셀 리포트(Cell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의 기도조직에서 채취한 샘플을 배양한 뒤 기도조직의 기저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식별·분석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일반 기도세포와 달리 분열속도가 느리고 원시세포의 특징을 지닌 소수의 세포 집단이 여러 형태의 식도세포로 분화한다는 사실을 확인
 - 연구팀은 이에 대해 기도의 기저층에 휴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증식하는 줄기세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
 - * 선행연구에서는 기도의 모든 세포는 줄기세포의 특징인 휴지상태가 아니고 항상 분열하기 때문에 식도에는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추정
 -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식도암과 전암성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Medical Xpress, 2014.10.16]



화이자, 밀란에 ‘수텐’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 미국 화이자가 같은 미국의 밀란 파마슈티컬스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췌장암 항암제 ‘수텐(SUTENT)’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
 -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밀란이 수텐의 기본특허와 L-말산염(L-malate salt) 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침해했다고 판결
 - 이에 따라 화이자는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1년까지 수텐을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
 - 앞서 화이자는 밀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텐’의 제네릭 제형 발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지난 '10년 6월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
 - 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치료하는 표준요법제로 자리매김한 수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밀란은 아쉬움을 표명

[Pierce Pharma, 2014.10.24]



J&J,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전문 ‘앨리오스 바이오파마’ 인수

- 미국 존슨앤존슨(J&J)이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인 미국 ‘앨리오스 바이오파마(Alios BioPharma)’를 17억5천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이번 인수로 J&J는 주로 5세 이하 소아들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합포체성 바이러스(RSV) 치료제로 현재 임상 2상시험 중인 경구복용형 항바이러스제 신약후보물질 ‘AL-8176’ 등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기대주들을 확보
 - * 현재 RSV로 인해 유발되는 소아질환의 경우 예방 백신으로 ‘시나지스(Synagis)’만 시판되고 있을 뿐 별다른 치료제는 없는 상황
- J&J는 자체적으로 RSV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가 RSV 치료제 개발과 보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양사 합의에 따른 인수 절차는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art - Scott - 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 HSR Act)에 따라 올 4/4분기 중에 완료될 전망

[BioWorld, 2014.10.29]



신시내티아동병원, iPS 세포로 장 조직 제작

- 미국 신시내티아동병원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로 장 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든 iPS 세포를 유사장기(organoid)인 미완성 장조직으로 분화시킨 뒤 유전조작으로 면역체계의 거부반응을 차단시킨 쥐의 신장피막에 이식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미완성 장조직이 쥐의 체내에서 혈액을 공급받으며 스스로 자라 모든 세포를 갖추면서 흡수·소화 능력도 지닌 완전한 장조직을 형성
- 연구팀은 이 장기재생 방법에 대해 환자 자신의 피부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이식과 관련된 거부반응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가 실제 인체에 적용되기까지는 향후 수 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및 암으로 장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에 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Guardian, 2014.10.23]



캘리포니아대, “탄산음료가 DNA 노화 촉진”

○ 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이 콜라나 레모네이드처럼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마시면 DNA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미국공공보건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

- 연구팀은 20세에서 6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5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량과 백혈구 DNA 사이의 관계를 분석
- 그 결과 탄산음료를 하루에 350ml 이상 습관적으로 마시는 집단은 염색체 끝 부분에 달린 DNA 조각인 텔로미어(telomere)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짧아졌으며 많이 마실수록 텔로미어는 더 짧아졌음을 확인
- * 텔로미어는 세포분열이 진행될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매듭만 남게 되고 세포복제가 멈추어 죽게 되기 때문에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추정
- 선행연구를 통해 탄산음료가 비만과 2형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노화 촉진과 관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

[ABC, 2014.10.28]



피츠버그대, “대기오염 노출 시 자폐증 위험 ↑”

○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대기오염 물질이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에어로졸 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Aerosol Research)에서 발표

- 연구팀은 '05~'09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중 자폐증 진단 아이를 둔 217개 가구(실험군)와 일반 가구(대조군)를 대상으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공기오염물질평가(NATA) 방식에 따라 내분비 교란이나 신경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30 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여부를 비교분석
-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된 가운데 특히 스티렌(styrene)과 크로뮴(chromium)에 노출되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자폐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1.4~2배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
- * 이는 산모의 연령, 흡연, 인종 등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경우에도 동일

- 연구팀은 지난 20년 사이 자폐증 발생률이 8배나 급증한 것은 자폐증 진단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며 대기오염 물질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Daily Digest, 2014.10.26]



메이요클리닉, 내시경 필요없는 새 대장암 검사법 개발

-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고통스러운 내시경 검사 없이 암세포의 DNA 분석을 통해 간편하게 대장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 ‘콜로가드(Cologuard)’라는 명칭의 이 검사법은 대장 내막세포에서 떨어져 분변에 섞여 나오는 DNA를 잡아내 암세포의 DNA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변 속에 감추어진 잠혈도 함께 잡아내는 기능도 보유
- 분변에 섞여 나오는 DNA는 대부분 장박테리아의 것이고 대장 자체 세포의 DNA는 0.0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잡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
- 그러나 콜로가드 검사법은 기존 검사법으로 대변 속에 감춰진 혈액을 잡아내는 분변면역화학검사(FIT)보다 정확도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
- * 미국과 캐나다의 90개 의료기관에서 남녀 약 1만명(50-84세)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정확도가 대장 내시경 검사의 92% 정도로 파악
- 또 피검자는 가정에서 자신의 분변 샘플을 채취해 의료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돼 절차가 간단한 장점도 보유

[Science World Report, 2014.10.26]



BMS, 갈렉토 바이오텍 인수 옵션 확보

-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가 덴마크 생명공학기업 갈렉토 바이오텍(Galecto Biotech)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
 - 이 옵션은 갈렉토의 주력제품으로 현재 제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TD139’와 관련이 있는데, BMS는 TD139의 1상 임상 후기단계 시험이 완료된 이후 60일 이내 갈렉토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
 - * TD139는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 IPF) 및 기타 폐 섬유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흡입형 갈렉틴-3(galectin-3) 저해제 계열의 약물
 - BMS 측은 인수가 확정될 경우 옵션 행사비용, 후속 임상시험 비용, 허가 취득 시 성과금 등을 포함해 총 4억4천만불을 갈렉토에 지급할 계획
 - BMS 측은 TD139를 확보함에 따라 자사가 특발성 IPF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소포스파이트산1(LPA1) 수용체 길항제인 ‘BMS-986020’을 포함, 섬유성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harmaceutical-Technology, 2014.11.05]



존스홉킨스대, “임신중 고지방식 섭취, 유전될 가능성”

-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임신 중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은 자녀에 유전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행동과 인지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비만학회(The Obesity Society) 연차총회에서 발표
 - 연구팀은 새끼를 뱀 어미쥐 24마리를 절반씩 나누어 12마리(실험군)엔 고지방 먹이를, 다른 12마리(대조군)엔 일반 먹이를 준 뒤 태어난 새끼들의 식습관과 행동을 관찰
 - 그 결과 실험군에서 나온 새끼들은 대조군에서 태어난 새끼들에 비해 많이 먹고 고지방 먹이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몸무게도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
 - 또 실험군 새끼들은 대조군 새끼들보다 덜 움직이고, 식욕억제제인 암페타민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기억중추인 해마의 유전자 발현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일지는 실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보아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News Medical, 2014.11.05]



페리고, ‘오메가 파르마’ 인수 ... OTC 시장 진출 확대

- 미국 페리고(Perrigo)가 유럽 5위의 OTC 업체인 벨기에 오메가 파르마(Omega Pharma)를 총 36억 유로에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페리고가 오메가에 현금 24억8천만 유로를 지급하고 11억 유로 상당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에 합의
 - 페리고는 총 3천여종에 달하는 OTC 제품 및 비타민제, 미네랄 보충제, 유아용 유동식, 건강기능식품, 동물용 의약품, 원료의약품(API) 등을 개발·제조 및 발매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 오메가 파르마는 매출 기준 유럽 5위의 OTC 업체로, 기침·감기약, 스킨케어, 진통제, 체중조절제, 위장관계 치료제 등 분야에서 2천여 제품들을 발매
 - 페리고 측은 이번 인수가 OTC 분야에서 제품력을 크게 강화해 글로벌 특히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페리고는 지난해 아일랜드 엘란(Elan)을 인수하면서 본사를 미시간주 앨러간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

[Outsourced Pharma, 2014.11.12]



잭슨연구소, 성체줄기세포로 폐포 구조 형성

- 미국 잭슨연구소 연구팀이 폐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 폐포와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또 폐조직이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체줄기세포가 증식하면서 염증이 발생한 부위로 이동해 폐포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
 - 연구팀은 유전조작을 통해 만든, 성체줄기세포가 결여된 쥐를 H1N1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결과 폐조직 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기 기능이 위축되었는데 폐 줄기세포를 채취해 손상된 폐조직에 주입하자 새로운 폐포가 형성되면서 환기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설명
 - * 폐포는 폐의 세기관지 말단 부분에 위치한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로, 혈액 속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환하는 환기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근거, 질병으로 손상된 조직도 폐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할 경우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Pulmonary Fibrosis News, 2014.11.14]



세븐일레븐, OTC 자체 브랜드 사업 착수

- 미국의 편의점 체인업체 세븐일레븐이 OTC 자체 브랜드(PB) 사업에 착수
 - 세븐일레븐은 그동안 유명 OTC 제품들을 1회용 블리스터팩 형태로 포장, 진열 및 판매해 왔으나 향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자사를 브랜드명으로 하는 OTC 제품들을 취급하기로 결정
 - 세븐일레븐 브랜드로 출시되는 OTC 제품들은 진통제, 몸살·인플루엔자 및 알러지, 복통, 기침·인후통, 수면보조제 등 5개 약효군에 걸쳐 총 34종
 - * 이들 제품 중에는 애브빌, 타이레놀, 아스피린, 클라리틴, 베나드릴, 지르텍, 알레그라, 잔탁, 펍시드, 지르텍 등 유명 약품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약품들도 포함
 - 세븐일레븐은 OTC 자체 브랜드 사업을 위해 미국 내 최대 제네릭 의약품 공급업체인 페리고(Perrigo)와 제휴 협정을 체결
 - 세븐일레븐은 전세계 16개국에서 5만4천400여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에서만 1만400여 매장을 운영

[Seeking Alpha, 2014.11.20]



하버드대, “심장병 환자 항응고제 장기복용해도 안전”

-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가 재발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함께 장기간 복용해도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차총회에서 발표
 - 연구팀은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겪은 환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총 14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종합분석
 - 그 결과 항응고제 플라빅스(Plavix) 또는 에피엔트(Effient)와 아스피린을 함께 12개월 이상 복용한 집단과, 단기간에 항응고제 하나 또는 아스피린과 병용한 집단 사이에는 사망률에 별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후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해도 사망위험이 높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재발 차단을 위한 항응고제와 아스피린 병행 투여는 실보다 득이 크다는 약물안전 지침을 발표

[Healthcare Professionals Network, 2014.11.18]



국립노화연구소, 혈액검사로 10년 후 알츠하이머 발병 예측

-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팀이 10년 후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혈액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회지(Journal for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특정 인슐린 수용체 단백질인 'IRS-1(insulin receptor substrate-1)'의 혈중 수치를 측정할 경우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 70명, 인지기능이 정상인 당뇨병 환자 20명, 건강한 성인 84명의 혈액샘플을 비교분석
 - 그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비활동성 IRS-1 수치가 높은 반면 활동성 IRS-1 수치는 낮았으며, 당뇨병 환자는 이들 단백질 수치가 알츠하이머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중간치였음을 확인
 - 연구팀은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 22명은 진단 1~10년 전에 채취한 혈액에서도 채취 시기와 상관없이 결과가 100% 동일했다며, 이는 최장 10년 후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지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설명

[Businessweek, 2014.11.17]



조지워싱턴대, 머리둘레로 자폐증 조기 진단

-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팀이 머리둘레 측정 및 머리기울임반사(head tilt reflex) 시험으로 자폐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립아동메디컬센터(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생후 9개월 때 머리둘레가 75 퍼센타일(percentile) 이상이거나 머리기울임반사 시험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자폐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연구팀은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는 영아 1천24명을 대상으로 생후 4개월, 6개월, 9개월 때 이 두 가지 검사를 실시

- 그 결과 49명이 생후 9개월 때 비정상(자폐증 15명, 발달성 언어장애 34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폐증 판정을 받은 15명 중 14명(93%)은 생후 3년이 되었을 때도 자폐증 진단이 그대로 유지
- 연구팀은 머리둘레 측정 및 머리기울임반사가 자폐증 진단 도구로 얼마나 효율적인 지 계속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이 두 검사가 자폐증 조기 진단과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Autism Center of Pittsburg, 2014.11.26]



머크 앤 컴퍼니, 뉴링크 에볼라 백신 판권 획득

- 미국 머크 앤 컴퍼니(Merck & Co)가 같은 미국 뉴링크 제네틱스(NewLink Genetics)가 개발 중인 에볼라 백신 'rVSV-EBOV'의 판권을 획득
 - 양사는 머크가 rVSV-EBOV의 R&D 및 제조, 글로벌 판매에 대한 전권을 갖는 대신 뉴링크에 5천만불과 추가적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
 - rVSV-EBOV는 에볼라 유전자 하나가 바이러스에 삽입돼 제조된 백신으로, 백신 접종 시 에볼라에 대한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작용
 - * 이 백신은 이미 10년 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00% 효과를 발휘
 - rVSV-EBOV는 현재 미국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 시험 중이며, 또 다른 임상 1상 시험이 세계보건기구(WHO) 중재에 따라 독일, 스위스, 캐나다, 가봉, 케냐, 등 임상 연구기관에도 진행 중이거나 곧 착수될 예정
 - 한편 머크는 rVSV-EBOV의 후기 임상시험을 내년 초 실시할 방침

[Zenopa, 2014.11.27]



에브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첫 제약공장 인수

- 미국 에브비가 싱가포르 서부 투아스 바이오의료 단지(Tuas Biomedical Park)에 위치한 저분자량 원료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
 - 이 공장은 에브비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보하게 된 원료의약품 생산공장으로, 12만m² 부지에 생산 시설·관련 건물·보조 설비 등을 보유
 - 그러나 인수에 따른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에브비 측은 오는 '16년까지 이 공장이 완전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방침
 - 이번 인수로 에브비는 저분자량 의약품 뿐 아니라 생물 의약품 분야의 생산역량을 강화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면역요법제 및 항암제 부문의 제품력을 확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한편 싱가포르경제개발청은 자국이 글로벌 제약업체들에게 지리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입지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할 경우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장담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11.25]



악타비스, 글로벌 톱 10 제약업체 부상

- 미국 악타비스(Actavis)가 같은 미국의 앨러간(Allergan)을 총 660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톱 10 제약업체로의 부상이 임박
 - 앨러간은 최근 캐나다 벨리언트(Valeant)가 제시한 530억불의 인수금액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업체 사이에는 앨러간을 인수할 유력한 업체로 악타비스가 거론
 - 악타비스는 이번 인수로 '16년부터 매년 18억불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앞서 '15년 매출이 230억불을 상회하는 등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톱 10 업체 중 하나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 * 특히 북미시장 내 안과 치료제 부문, 신경과학 및 중추신경계 치료제 부문, 메디컬 에스테틱·피부질환 치료제 및 성형외과 부문에서 각각 한해 30억불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악타비스는 내년 2분기에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부 직종이 겹치는 부문에서 감원을 실시하고, 중국에서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Fierce Pharma, 2014.11.25]



사우스플로리다대, 마리화나 성분으로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

-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 연구팀이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 THC)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알츠하이머병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
 - 연구팀은 시험관 실험을 통해 극소량의 THC로도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뇌 신경세포 표면에 응집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
 - *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신경세포 표면에 쌓이면서 플라크를 형성하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
 - 또 THC가 세포에서 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선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사실도 파악
 - 그동안 THC는 신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인식되어 왔지만,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발병을 낮추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

[Psych Congress Network, 2014.12.03]



오하이오주립대, “포화지방 증가해도 혈중 지방량 늘지 않아”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이 포화지방 섭취량이 증가해도 혈중 지방량은 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지(PLoS One)에 발표
 - 연구팀은 대사증후군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3주마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비율을 6단계에 걸쳐 바꾸면서 18주 동안 진행한 실험에서 이 사실을 확인
 - * 연구팀은 이들에게 하루 2천500칼로리를 섭취하되 첫 3주는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47g) 포화지방은 가장 많게(84g) 섭취하도록 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3주마다 탄수화물 비율은 늘리고 포화지방은 줄여 마지막 3주 동안은 탄수화물은 346g, 포화지방은 32g을 섭취하도록 지시
 - 실험 결과, 첫 3주 동안에는 이들의 혈중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함이 없었지만 그 뒤로는 팔미톨레산(palmitoleic acid) 수치가 점점 높아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고지방-저탄수화물 식사 때는 팔미톨레산이 감소하고 저지방-고탄수화물 식사 때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연구팀은 이에 대해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혈중 지방량이 체내 저장되기보다 에너지로 연소되는 반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혈중 지방량이 연소되기 보다 저장되기 때문으로 추정

[Deutsche Welle, 2014.11.27]



USC, 손발톱 재생 기능 줄기세포 존재 확인

- 미국 남가주대(USC) 연구팀이 손발톱 뿌리의 연조직에 손발톱을 자라게 하고 손발톱 손상을 회복시키는 두 가지 기능을 지닌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
- 연구팀은 쥐의 손발톱 세포들에 색소를 부착해 표지를 만든 다음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대부분의 세포는 분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표지 색소가 점점 없어졌으나 손발톱 뿌리의 연조직에 위치한 소수의 세포들은 분열하지 않거나 분열 속도가 아주 느려 표지색소가 생생하게 남아있었음을 확인
- 또 이 소수의 세포들은 손발톱을 자라게 하고 손발톱이 손상되었을 때는 골형성단백질(BMP)로부터 신호를 받아 수리에 나선다는 사실도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들 세포가 줄기세포임을 시사한다며, 손발톱 줄기세포는 손발톱의 결합은 물론 주변 피부의 심각한 손상 회복을 돕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Science Blog, 2014.11.30]



하버드대, 요구르트에 당뇨병 예방 효과 발견

○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요구르트에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바이오메드 센트럴 의학(BMC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20만여명(25~75세)을 대상으로 30년간 진행된 3건의 대규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요구르트를 매일 28g 정도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18% 가량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

* 조사 시작 때 당뇨병·심혈관질환·암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2년에 1회 설문조사를 통해 식습관, 생활습관, 만성질환 발생을 확인했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1만5천여명이 당뇨병으로 진단

- 또 연령, 체중, 식습관 등 당뇨병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탈지우유, 전지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개별 유제품과 당뇨병 위험 사이 연관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요구르트만이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요구르트에 함유된 유익균이 소화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식욕조절에 중요한 호르몬 생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추정

[Your Health Magazine, 2014.12.08]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척수손상 치료 물질 개발

○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연구팀이 척수손상 치료 물질 '세포내 시그마 펩티드(intracellular sigma peptide : ISP)'를 개발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 상처 부위와 신경세포주위연결망(PNN)에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이라는 물질이 몰리면서 반흔조직이라는 장벽을 형성해 신경세포 재생과 신경 연결을 저해하는데 ISP는 바로 이 프로테오글리칸과 결합, 지나친 반흔조직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신경통로가 막히는 것을 억제

- 연구팀은 ISP를 척수마비 쥐 26마리에 매일 7주 동안 투여한 결과 21마리에서 마비된 기능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었음을 확인

* 21마리 모두 걸거나 신체의 중심을 잡고 일어서거나 방광근육을 조절하는 3가지 기능 중 하나가 회복되었고, 3가지 중 2가지 기능이 회복된 쥐들도 있었으며, 일부는 3가지 기능 모두가 회복

- 이번 연구를 지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측은 척수손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는 사실상 없으며 이번 결과가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

[Health Management, 2014.12.08]



솔크연구소, “먹는 시간대 제한하면 체중 감소”

○ 미국 솔크연구소 연구팀이 하루에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이를 정해진 시간대에 먹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먹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셀대사(Cell Metabolism)지에 발표

- 연구팀은 정상 체중이거나 비만한 쥐 400 마리를 대상으로 실험군에게는 하루에 일정한 칼로리의 고지방·고당분 먹이를 일정 시간대(9~12시간)에서만 먹게 하고 대조군에게는 아무 때나 먹게 한 뒤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과 달리 불과 며칠 만에 체중이 5% 감소했으며, 이 실험을 38주 계속한 결과 실험군은 체중이 25%나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
- 또 연구팀이 실험군 중 일부 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먹도록 한 결과 일주일 내내 제한시간 대에만 먹은 쥐들과 체중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는 시간대 제한을 잠시 해제하는 것은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

[Evoke, 2014.12.07]



머크, 항생제 업체 ‘큐비스트’ 인수 발표

- 미국 머크가 미국 ‘큐비스트(Cubist)’를 84억불에 인수한다고 발표
- 그러나 11억불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이 있어 실제 인수 비용은 총 95억불
- 큐비스트는 각종 감염성 질환을 치유하는 항생제를 개발해 온 업체로, 황색포도상구균과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증에 1일 1회 복용하는 약물로는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취득한 ‘큐비신(Cubicin)’을 보유
- * 또 FDA의 허가 취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항생제 ‘저박사(Zerbaxa)’도 갖고 있어 머크의 다제 내성 그람 양성 감염증과 음성 감염증 등 치료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
- 머크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항감염증 분야와 핵심 공략부문의 하나인 병원 응급진료 부문을 강화하면서 당장 '15 회계연도에 10억불 이상의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머크의 병원 응급진료 부문은 올 들어 3/4분기까지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거듭

[Boston Globe, 2014.12.14]



바이오마린, ‘프로센사’ 인수 ... 희귀병 치료제 사업 강화

-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마린(BioMarin)이 네덜란드 생명공학업체 ‘프로센사(Prosensa)’를 최대 8억4천만불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 바이오마린은 프로센사 전체 주식을 6억8천만불에 매입하고, 프로센사가 뒤시엔느 근위축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드리사퍼센(drisapersen)’의 미국과 유럽 승인 여부에 따라 각각 8천만불씩 조건부 지급하기로 결정
 - * 미국 승인은 '16년 5월15일 이전, 유럽 승인은 '17년 2월15일까지가 한도
 - 바이오마린은 이번 인수를 통해 드리사퍼센이 포함된 다수의 희귀 약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희귀병 치료제 사업의 글로벌 강자로 부상
 - 프로센사의 파이프라인은 RNA 조절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유전자형의 뒤시엔느 근위축증에 대한 치료제와 유전질환 치료제 등으로 구성
 - 한편 뒤시엔느 근위축증 환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큐어뒤시엔느(CureDuchenne)는 이번 인수로 뒤시엔느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

[Business Wire, 2014.12.10]



뉴욕주립대, “우울증은 정신질환 아닌 감염질환”

-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캠퍼스) 연구팀이 우울증은 기생충 등 미생물 감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아닌 감염질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기분불안장애생물학(Biolog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는 기력이 없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일상사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감염질환의 증상이고, 실제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염증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발견됐다고 강조
 - * 염증 표지는 기생충 같은 병원균 침입에 대한 반응으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었음을 시사
 - 연구팀은 또 우울증 관련 논문 28편을 분석한 결과 향신경성의 RNA 바이러스인 ‘보르나병 바이러스(BDV)’, 단순포진을 유발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두의 원인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선열을 일으키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 연구팀은 감염질환인 우울증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치료법 연구의 방향 전환을 주장

[Huffington Post, 2014.12.10]



스탠포드대, “소교세포 기능 장애 시 알츠하이머 유발”

-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뇌와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인 소교세포(microglia)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소교세포 기능을 개선시킨 결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제거되고 기억력과 공간인지 기능이 되살아났음을 확인
- 소교세포는 전체 뇌세포의 10~15% 정도를 차지하며, 젊었을 때는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 표면에 있는 EP2 수용체 단백질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이번 쥐 실험에서도 입증
- 한편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때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EP2만을 억제하는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Science News, 2014.12.11]



화이자, 스파크와 B형 혈우병 치료제 개발 협약 체결

- 미국 화이자가 미국 생명공학업체 스파크 테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와 B형 혈우병 치료제 개발 협약을 체결
- 양사는 B형 혈우병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 ‘SPK-FIX’ 임상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예정으로, 스파크가 임상 1상 및 2상시험을 담당하고 화이자는 후기 임상시험과 약물 승인 및 상업화를 책임지기로 합의
- 양사는 이를 위해 화이자가 스파크에 2천만불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치료제 개발 성과에 따라 2억6천만불을 단계별로 추가 지급한다는 데 서명
- 화이자 측은 이번 제휴와 관련, 희귀 유전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SPK-FIX 프로그램이 자사의 혈우병 포트폴리오를 강화함과 동시에 출혈 장애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현재 글로벌 혈우병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약물로는 화이자의 ‘베네피스(BeneFix)’가 거론

[Outsourced Pharma, 2014.12.15]



USC, 과당에 식욕 촉진 효과 확인

○미국 남캘리포니아대(USC) 연구팀이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단순당인 과당에 식욕을 촉진키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신경정신약리학회(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16~25세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포도당 음료 또는 과당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초콜릿케이크 같은 다양한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를 질문함과 동시에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시상하부 및 시상하부의 보상중추인 측중격핵(nucleus accumbens)의 실시간 활동을 관찰
- 그 결과 포도당은 시상하부의 활동을 떨어뜨리지만 과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특히 포도당 음료를 마신 집단보다 과당 음료를 마신 집단이 배고픔의 정도가 강했고 측중격핵도 훨씬 활성화되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시상하부 활동이 떨어지지 않고 측중격핵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식욕이 강해짐을 의미한다며,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식욕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추정

[Food World News, 2014.12.21]



하버드대, 비만 치료 알약 개발 착수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비만의 주범인 백색지방세포를 갈색지방세포로 전환시키는 분자를 발견, 이를 이용한 비만 치료 알약 개발에 착수했다고 네이처셀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인체가 과도한 열량을 흡수하면 체내 성체줄기 세포가 백색지방세포를 만들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백색지방세포 내 지방질로 축적되나 특정 분자가 증가할 경우 줄기세포가 백색 또는 갈색지방세포로 변환됨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개시하는 등 백색지방세포를 제거하는 알약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부 제약업체들과는 알약 생산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
- 한편 현재 영국의 경우 전체 성인 1/4이 비만으로, 정부가 비만과 당뇨병 퇴치에 연간 6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0년에는 성인 남성의 60%, 여성의 50%가 비만이 되고 재정부담도 550억 파운드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

[Science.Mic, 2014.12.16]



성누가병원, “설탕이 나트륨보다 고혈압에 더 위험”

- 미국 성누가병원 연구팀이 선행 연구논문과 임상시험을 종합분석한 결과 설탕이 나트륨보다 고혈압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오픈 하트(Open Heart)지에 발표
 - 엄격한 조건 아래 진행된 한 임상시험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3천500~4천mg에서 2천400mg으로 줄였을 때 수축기 혈압은 4.8mmHg, 확장기 혈압이 2.5mmHg 떨어진 것으로 확인
 - 이에 비해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설탕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8주 이상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최고혈압이 6.9mmHg, 최저혈압이 5.6mmHg 높아진 것으로 분석
 - * 특히 설탕 생산업체로부터 연구비가 지원된 임상시험을 제외하면 최고혈압은 7.6mmHg, 최저혈압은 6.1mmHg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탕이 나트륨보다 고혈압에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설탕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나트륨보다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설명

[People's Pharmacy, 2014.12.18]

1.2 영국



AZ, BMS와의 공동 당뇨 사업부 완전 인수

- 영 AZ가 BMS와 공동 운영하던 당뇨 사업부를 완전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그 대신 AZ가 BMS에 27억불과 함께 항당뇨제 승인에 따라 최대 14억불 및 추가 자산이전과 관련해 2억2천5백만불을 지급하고, 오는 '25년까지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이번 결정으로 온글라이자(Onglyza), 콤비글라이즈XR(Kombiglyze XR), 포시가(Forxiga) 등 항당뇨제와 연관된 제조·마케팅 등 모든 권리가 AZ로 이전되며, BMS측 직원 4천1백여명 역시 모두 승계
 - AZ는 전 세계 당뇨 환자가 5억5천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항당뇨제 전망이 밝다고 판단, 심혈관 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
 - 반면 BMS는 이번 매각으로 당뇨 사업에서 완전 철수한 뒤, 항바이러스제 등 특수약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

[Business Standard, 2013.12.20]



벨파스트퀸스대, “암로디핀에 혈관성 치매 치료 효과”

- 영 벨파스트퀸스대 연구팀은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 혈압약 암로디핀(Amlodipine)에 혈관성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
- 이 임상시험은 영국알츠하이머병학회와 영국심장재단의 지원 아래 혈관성 치매 환자 6백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
 - *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형태의 치매로, 뇌졸중이나 기타 뇌혈관 손상에 의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뇌에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발생

- 환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암로디핀과 위약이 투여되며, 임상시험 시작과 1년 및 2년 후 뇌조영과 함께 기억력과 인지기능 검사가 실시
- 암로디핀은 혈관협착을 유발하는 칼슘의 활동을 억제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칼슘통로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으로, 암로디핀이 혈관성 치매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칼슘이 뇌세포의 사멸에도 관여하기 때문으로 추정

[Lancastria, 2013.12.23]



노팅엄대, 특정 뇌회로 결함시 틱장애 발생 확인

- 영 노팅엄대 연구팀은 틱장애(Tourette Syndrome, 투렛증후군)는 운동기능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신경망 결함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심리학저널(Journal of Neuropsych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틱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뇌를 영상촬영해 비교한 결과 틱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조절 신경회로의 과흥분(hyper-excitability) 상태를 통제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 * 틱(tic)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운동틱)이나 소리(음성틱)를 내는 현상으로 아동 1백명 중 1명 정도에서 발생하나, 틱장애 아동 중 30%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틱장애가 지속
-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특정 형태의 뇌 자극을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진정시키는 비약물요법으로도 틱장애가 통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

[PsychCentral, 2013.12.30]



GSK, 마케팅 목적 의사 강연료 지급 전면 중단

- 영 GSK가 시장조사를 위한 자문료 이외 제품 마케팅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강연료와 학회 참석 비용 등을 지급하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 글로벌 제약업체 중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GSK가 처음으로, 제약업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품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임상시험 등 결과를 학회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하는 의사들에게 강연료를 지급
- GSK는 이번 조치가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뇌물 스캔들로 인해 추락된 이미지를 다시 높이겠다는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
- * GSK는 지난 7월 중국에서 여행사를 통해 의사·의료기관·정부관료에 최대 30억 위안(미화 약 4억9천4백만불)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위 경영진들이 체포
- GSK는 또 제품이 처방된 실적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결정

[Chemical & Engineering News, 2013.12.23]



GSK, 아스펜에 대한 항응고제 제품 매각 마무리

- 영 GSK가 남아공 아스펜에 대한 항응고제 제품 ‘아릭스트라(Arixtra, 성분명 : 폰다파리누스)’와 ‘후락시파린(Fraxiparine, 나드로파린)’ 매각 절차를 마무리
-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아릭스트라와 후락시파린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공식적으로 아스펜에 넘어간 가운데, 프랑스 노트르담 드 봉드빌(Notre-Dame de Bondeville)에 소재한 관련 제조시설은 올 중반 경 인도 절차가 끝날 전망
- 아스펜은 지난 '13년 7월 아릭스트라와 후락시파린을 7억 파운드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GSK에 전달한 바 있으며, GSK는 같은 해 9월 비핵심 브랜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에 합의
- 개도국의 대표적 제네릭 제약업체이자 아프리카 최대 제약업체인 아스펜은 160여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현재 전세계 150여개국에 진출
- * 아스펜은 전세계 6개 대륙에 16개 제약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총 8천2백여명

[Pharma Times, 2014.01.02]



UCL, “40세 이전 대상포진 겪으면 뇌졸중 위험 높아”

- 영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대 연구팀이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을 겪으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Neur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대상포진을 겪은 10만6천여명과 그렇지 않은 21만3천2백여명의 최고 24년, 평균 6년 동안의 의료기록을 조사 분석
 - 그 결과 18~40세에 대상포진을 겪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각각 74%와 50% 높았으며, 일과성 허혈발작은 2.4배나 빈발
 - * 반면 40세 이후에 대상포진을 겪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률이 10% 정도 높는데 불과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수두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인 삼차신경 중 안구와 연결되는 안구분지를 침범한 뒤 뇌동맥까지 가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CBS, 2014.01.06]



영국 대학 공동연구팀, “초콜릿레드와인에 2형 당뇨병 위험 ↓ 효과”

- 영 이스트앵글리아대와 킹스칼리지대 공동연구팀이 초콜릿과 레드와인에 2형 당뇨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영양학저널(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
 - 연구팀은 건강한 여성 2천여 명의 식습관을 관찰한 결과, 초콜릿과 레드와인을 통해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 저항* 발생 가능성이, 안토시아닌을 섭취할수록 만성 염증에 걸릴 확률이 낮았음을 확인
 - * 세포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
 -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 건강에 무익하다고 인식되어 온 식품들에도 유익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평가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NHS)은 레드와인이나 초콜릿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간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비만과도 연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Endocrine Today, 2014.02.02]



영국 링컨·노팅엄대, “독감백신 접종시 뇌졸중 위험 ↓”

- 영국 링컨대와 노팅엄대 공동연구팀이 겨울철 독감백신 접종과 뇌졸중 위험 감소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백신(Vac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지난 '01~'09년에 뇌졸중이나 미니 뇌졸중(일과성 허혈발작)을 경험한 4만7천여명의 의료기록을 분석
 - 그 결과 독감백신을 맞은 집단이 맞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독감시즌 중 뇌졸중 발생률이 평균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
 - * 연구팀은 뇌졸중 위험요인의 절반 이상인 △연령 △흡연 △고혈압을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
 - 특히 독감계절 초기에 백신을 접종한 집단일수록 뇌졸중 위험이 낮은 가운데, 접종은 그러나 미니 뇌졸중 위험 감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뇌졸중과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RT Magazine, 2014.03.03]



AZ, 오사카대와 순환기 질환 ‘드럭 리프로파일링’ 실시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일 오사카대와 순환기 질환 분야에서 임상개발이 중단된 화합물에 대해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연구하는 ‘드럭 리프로파일링(Drug Reprofiling)’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양사 합의에 따라 AZ는 순환기 분야에서 특정 화합물 및 임상·비임상 연구 정보를 오사카대에 제공
 - 그러면 오사카대는 이들 정보를 정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AZ와 함께 임상개발이 중단된 화합물을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연구에 돌입하며, 연구 제휴 계약 기간은 5년
 - * 드럭 리프로파일링은 의약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장점
 - 한편 AZ는 이번 제휴가 순환기 질환 분야에서 뛰어난 신약연구 실적을 자랑하는 일본의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자평

[Pharma Japan, 2014.03.13]



영국 공동 연구팀, 지방줄기세포로 귀 제작 실험 추진

-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공동 연구팀이 지방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로 인공 귀를 제작하는 실험을 추진
 - 연구팀은 환자 복부지방 샘플에서 연골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채취해 배양한 다음, 폴리머로 만든 귀 모양의 나노틀(nano-scaffold)을 배양액에 넣어 줄기세포가 연골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그 뒤 줄기세포가 연골로 성장하면 환자의 피부 밑에 삽입, 생물학적 귀의 모양으로 자라게 한다는 방침
 - 연구팀은 나노틀은 생분해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귀 모양을 지닌 연골만 남게 되며, 피부 밑에 삽입되는 연골은 환자 자신의 지방줄기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피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실험이 성공할 경우 선천성 소이증 환자에게는 물론, 코를 포함해 암 수술로 손상된 조직 재생에도 도움이 될 전망

[Business Standard, 2014.03.15]



케임브리지대,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은 무관”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포화지방이 심장 관련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포화·불포화 지방의 심장 관련 질환과의 연관성을 추적해 온 기존 80개 연구 결과를 취합해 분석, 이 같은 결론을 도출
 - * 포화지방은 버터·쇠고기·돼지고기 등 동물성 지방이나 코코넛유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으로, 혈관을 좁게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흔히 인식
 - 또 콩과 올리브 같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을 주로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Irish Times, 2014.04.01]



GSK, 중동에서 불법 금품 제공 파문 ... 도덕성에 치명타

- 영국 GSK가 중국 내 뇌물 살포와 성접대 범죄 적발로 매출 급락 등 수난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라크와 요르단 및 레바논 등 중동에서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파문이 확산
- 업계 소식통들은 GSK 이라크 지사의 경우 의약품 사용 및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이라크 정부 공무원인 의사와 약사 80여명을 판매 대리인으로 불법 채용해 금품을 지급했다고 전언
- GSK 본사는 중동에서 비윤리적 혹은 비합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 관계를 파악중으로,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GSK는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전사적 차원에서 불법 금품 제공 금지 정책을 선포한 바 있어, 이번 중동 파문으로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을 위기에 직면

[Guardian, 2014.04.25]



옥스퍼드대, “심장병 치료에는 자가골수줄기세포 이식이 효과”

-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심장병을 치료할 때 자가골수줄기세포 이식 방법을 이용할 경우 표준치료보다 5배나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코크레인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지에 발표
- 연구팀은 1천255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 23건의 임상시험을 종합분석
- 그 결과 자가골수줄기세포를 채취해 손상된 심근에 주입한 집단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1년 후 사망률이 3%로 표준치료를 받은 집단의 15%에 비해 1/5에 불과했음을 확인
- * 재입원율도 줄기세포 치료 집단이 2% 정도로 표준치료 집단 9%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자가골수줄기세포 치료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부전 등 심장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고무적인 증거임을 시사한다고 평가

[Daily Mail, 2014.05.02]



임피리얼칼리지런던대, “아세테이트가 뇌의 식욕 신호 차단”

○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대 연구팀이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단쇄지방산 아세테이트(acetate)에 뇌의 식욕 신호를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일단의 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2개월 동안 실험군에는 고지방 먹이와 함께 치커리와 사탕무 등식이섬유 이눌린(inulin)이 다량 함유된 먹이를 주고 대조군에는 고지방 먹이만 주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덜 먹고 살이 덜 켜지며, 대장물질에 아세테이트(acetate)가 많아졌음을 확인

* 또 아세테이트를 이들 집단의 정맥과 대장에 주입한 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추적한 결과 아세테이트는 식욕을 조절하는 뇌부위인 시상하부에 집결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세테이트가 식욕을 억제하는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추정한 뒤, 이번 실험은 식욕을 차단하는 약이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Science World Report, 2014.05.05]



에든버러대, 흉선 기능 재생 방법 개발

○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흉선(thymus)*의 기능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발달(Development)지에 발표

*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T세포를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내는 내분비기관으로, 나이와 함께 쇠퇴

- 연구팀은 늙은 쥐 체내에 화학신호를 통해 FOXN1 단백질을 증가시켜 주자 미성숙 세포들이 늙은 쥐의 흉선을 재생하기 시작했음을 확인
- 또 늙은 쥐의 쇠퇴한 흉선에서는 감염과 싸우는 핵심 면역세포인 T림프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생성되고 흉선 크기도 다른 늙은 쥐들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 혹은 면역력이 손상된 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흉선의 기능을 재생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포유동물의 신체기관 재생이 단일 단백질의 조작만으로 가능함을 시사한다며 재생생물학 분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Daily Star, 2014.05.03]



샤이어, 루메나 인수 ... 유전·소화관 질환 사업 강화

- 영국 샤이어(Shire)가 미국 루메나(Lumena)를 2억6천만불 및 향후 신약후보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비공개의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인수
 - 샤이어는 이번 인수로 희귀 유전 질환 및 소화관 질환 사업을 강화
 - 루메나는 간질환 치료제 개발업체로 현재 담즙산 흡수를 감소시키는 ASBT 억제제 'LUM001'을 2상 임상시험 중이며, 올해 안으로 'LUM002' 2상 임상시험도 예정
 - 전문가들은 이들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경우 지난해 5억2천9백만 불의 매출을 기록해 샤이어의 대표 제품으로 부각한 켄양성 대장염 치료제 '리알다(Lialda)'의 성장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12년 취임한 샤이어의 플레밍 온스코브(Flemming Ornskov) 회장이 성사시킨 6번째 인수합병으로, 지난 11월에는 바이로파마(ViroPharma)를 42억 불에 매입

[Businessweek, 2014.05.12]



AZ,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협력업체 물색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BACE 저해제*를 공동 개발할 파트너 업체를 물색 중
 - * 알츠하이머의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과 연관된 베타 세크레타제(beta secretase) 효소를 억제하도록 작용
 - 이와 관련, AZ는 자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알츠하이머를 연구했거나 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와 접촉했다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 AZ는 BACE 저해제가 향후 50억불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료제 개발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 * 미국 화이자와 일라이릴리도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개발에는 실패
 - 한편 현재 BACE 저해제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업체는 미국 머크로, 임상 3상 시험 결과는 오는 '17년경 나올 전망

[Pharmaceutical Online, 2014.05.09]



AZ, 화이자 최종 인수 제안 거부 ... 세계 1위 업체 등장 무산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이사회는 미국 화이자가 주당 55 파운드 총 700억 파운드로 인수하겠다는 최종 제안에 대해 기업가치를 저평가한 것이라며 거부
 - 이에 따라 미국 J&J를 제치고 세계 1위 제약업체로 부상하겠다는 화이자의 꿈이 무산된 가운데, 인수를 둘러싼 영국 의회와 정부의 갈등도 일단 봉합
 - 영국 의회는 화이자 AZ를 인수한 뒤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7천여 AZ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 * 이에 따라 의회는 이언 리드(Ian Read) 화이자 CEO가 최소 10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 그러나 캐머론 총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등 그동안 집권 보수당 정부와 의회 사이에는 인수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

[Guardian, 2014.05.25]



사우스햄튼대, 제2의 피부 ‘지능형 라이너’ 개발

- 영국 사우스햄튼대 연구팀이 팔과 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이 의수나 의족에 특정부위가 쓸려 고통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제 2의 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 센서들을 부착한 ‘지능형 라이너(intelligent liner)’를 개발
 - 이 제품은 금으로 만든 작은 우표처럼 매우 얇고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수나 의족 안쪽에 붙여 사용
 - 지능형 라이너와 유사한 제품은 시중에 이미 나와 있지만, 지능형 라이너는 피부쓸림 현상을 감지해 환자의 통증이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
 - * 현재 영국에는 5만명 정도의 절단환자가 있으나 이중 1/4 정도는 피부쓸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의수나 의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연구팀은 많은 절단환자들이 신경손상으로부터의 고통을 겪으면서 피부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능형 라이너가 통증이나 감염 심지어 절단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Foundation for Biomedical Research, 2014.06.02]



GSK, 50여 기존 제품 매각 추진

- 영국 GSK가 잔탁·세로자트·조프란·이미트렉스·로바자·말라론 등 미국과 유럽 등 주로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50여 기존 제품에 대한 매각을 추진
 - GSK는 126억불 정도에 이들 제품을 매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리자드를 자문회사로 선정
 - 이들 제품의 매출은 제네릭 경쟁으로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한 8억1천400만 파운드에 그쳤으며, 특히 말라론의 경우 34%나 급락
 - GSK는 지난해 9월에도 혈전약 아릭스트라와 후락시파린을 11억7천만불에 남아공 아스펜에 매각
 - 한편 화이자·사노피·머크·애보트 등 거대 제약업체들도 특허가 만료된 기존 제품들의 매각을 물색 중으로 알려져 글로벌 제약업계에는 가까운 장래에 손바뀜 현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FiercePharma, 2014.06.04]



히크마파마, 베링거 제네릭 주사제 업체 베드퍼드 인수

- 영국 히크마파마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의 미국 자회사 베드퍼드를 계약성사금 2억2천5백만불과 향후 5년 동안 도출될 주사제 개발 성과에 따른 7천5백만불 등 최대 3억불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베링거의 계열사 벤베뉴와 합의
 - 베드퍼드는 현재 미국 내 제네릭 주사제 부문에서 3위에 올라 있는 유력업체
 - 히크마파마는 이번 합의로 베드퍼드의 84개 제품 포트폴리오 및 마케팅 권한, 지식재산권, 원료물질 비축분, R&D 및 사업개발 파이프라인, 일부 인력까지 관련 자산을 모두 확보
 - 히크마파마는 지난해 주사제 사업부문에서 그룹 전체 실적의 39%에 해당하는 총 5억3천6백만불의 매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인수로 미국에서 굴지의 제네릭 주사제 전문업체로 위상을 크게 제고할 전망
 - 한편 미국의 제네릭 주사제 시장 규모는 76억불 정도로 추산

[Pharmaceutical Online, 2014.06.03]



이스트 앵글리어대, 암세포 체외배양 최초 성공

- 영국 이스트 앵글리어대 연구팀이 세포를 체외에서 장기간 배양하는 데 성공
 -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로부터 절제한 종양의 일부를 시험관 속 특수 용액에서 대량 증식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
 -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암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며, 배양된 종양조직과 함께 건강한 조직을 이용하면 암세포만 괴멸시키고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또 환자의 종양이 어떤 치료제에는 반응하는 반면 다른 치료제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종양의 유전자 패턴 분석을 통해 암세포의 공격성 여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영국에서 대장암은 유방암·폐암·전립선암 다음으로 4번째로 발생빈도가 높은 암으로, 매년 4만1천600여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집계
 -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조만간 의학전문지에 게재할 방침

[Daily Mail, 2014.06.04]



영국암연구소, “BRCA2 변이유전자 보유시 폐암 발병 ↑”

- 영국암연구소 연구팀이 BRCA2 변이유전자를 지닌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지에 발표
 - 연구팀은 폐암환자 1만1천348명과 일반인 1만5천861명의 DNA를 비교분석
 - 그 결과 BRCA2 변이유전자를 지닌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25%로, 일반 흡연자의 13%(남성 16%, 여성 9.5%)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
 - *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가장 흔한 형태의 폐암인 평편상피세포 폐암에서 현저
 - BRCA2 변이유전자는 BRCA1 변이유전자와 함께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팀은 BRCA2 변이유전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폐암 관련 변이유전자 중 그 영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추정
 - 한편 CHEK2 변이유전자도 폐암 발병과 관련이 있으나,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Public Health Genetics Foundation, 2014.06.12]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고용량 스타틴 복용시 당뇨 위험 높아”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연구팀이 미국 머크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Statin)’을 40mg 이상 고용량 복용할 경우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의학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

- 연구팀은 1997~2011년 사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으로 입원 후 스타틴을 처방 받기 시작한 비당뇨 환자 1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 그 결과 3천600여 명이 스타틴 복용 2년 이내 당뇨로 진단됐으며, 특히 매일 40mg 이상 고용량을 처방받은 환자는 그렇지 환자보다 당뇨로 진단될 위험이 15% 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질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처방

-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량 스타틴 처방이 심장질환과 당뇨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본 뒤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Mother Nature Network, 2014.06.12]



AZ, 시너젠 천식 약물 권리 취득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같은 영국 시너젠(Synairgen)으로부터 천식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는 흡입형 인터페론 베타 약물 ‘SNG001’에 대한 권리를 취득

- 양사는 AZ가 SNG001을 취득하는 대가로 시너젠에 725만불의 계약금과 연구의 단계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금 2억2천500만불 및 향후 치료제 매출에 연동해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
- SNG001은 영국 사우스햄튼대가 개발한 흡입형 인터페론 베타 계열의 약물로 천식에 대한 면역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Z는 오는 '15년초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2a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

* AZ는 SNG001이 중증 천식과 더불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의 큰 변화를 불러올만한 잠재력이 있는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라고 강조

- 한편 AZ는 최근 들어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핵심 분야에서 라이선싱 계약을 이용한 사업 확장 전략을 적극 추진

[Bioresearch Online, 2014.06.16]



GSK, 어댑티문과 종양 면역치료 전략적 제휴 체결

- 영국 GSK가 미국 어댑티문(Adaptimmune)과 종양 면역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어댑티문은 독창적인 T-세포 수용체 조작 기술을 이용해 다발성 골수종·흑색종·육종 및 난소암 등을 겨냥해 진행 중인 'NY-ESO-1' 임상시험으로 주목받아 온 생명공학업체로, 양사는 향후 이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
 - 또 GSK는 NY-ESO-1 임상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16년 종료되면 그 결과와 관련한 전권을 확보
 - GSK는 대신 어댑티문에 향후 7년간 3억5천만불 및 임상시험 및 상업화 성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데 합의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제휴가 GSK의 면역치료제뿐 아니라, 자가유래 세포 유전자 분야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Inter-Active Magazine, 2014.07.02]



노리치·이스트앵글리아대, 슈퍼 박테리아 제거 해법 제시

- 영국 노리치·이스트앵글리아대 공동 연구팀이 웬만한 처방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그람음성균(gram negatives)에 세포막을 구축하는 분자인 지질다당류를 세포 외부로 이동시키는 분이 존재하며 이를 차단하면 박테리아 방어벽이 사라져 결국 박테리아가 죽는다는 사실이 실험에서 확인됐다고 소개
 - * 그람염색법은 덴마크 의사 그람(Gram)이 고안한 특수 염색법으로, 자주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은 그람양성균, 붉은색으로 염색되면 그람음성균으로 명명
 - 슈퍼 박테리아 증가는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도전 중 하나로 이번 연구 결과가 슈퍼 박테리아를 실제 제거시키는 신약 개발로 이어질 지 주목
 -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구 대상이 그람음성균에 한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 뒤,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하면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orwich Research Park, 2014.06.26]



킹스칼리지런던, 뇌졸중·심장마비 위험 ↑ 유전자 규명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단일 유전자를 규명했다고 폴로스원(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5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총 80종 이상의 관련 논문을 분석
 - 그 결과 백인 10명중 1명 정도에서 발견되는 PIA2 변이 유전자가 혈전 생성을 유발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
 - * PIA2 변이 유전자는 뇌졸중 위험을 평균 10~15% 높이는 가운데, 흡연·식습관·체중·운동 같은 개인별 위험인자에 따라 위험 증가는 상이하며, PIA2 변이 유전자를 2쌍 가질 경우 심장마비 위험은 70%까지 증가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PIA2 변이 유전자가 혈소판에 존재하는 당단백 IIIa(glycoprotein IIIa)에 영향을 미쳐 혈소판이 과잉 활성화되면서 혈전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추정
 -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유전자 검사로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높은 사람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Guardian, 2014.07.10]



바츠암연구소, 공격적 유방암 연관 물질 ‘ $\alpha v\beta 6$ ’ 발견

- 영국 퀸메리대 바츠암연구소 연구팀이 공격적 형태의 유방암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 ‘ $\alpha v\beta 6$ ’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암연구소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
 - 연구팀은 기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암세포 샘플을 분석, 40%의 종양에서 $\alpha v\beta 6$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
 - * $\alpha v\beta 6$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낮은 환자에 비해 유방암 판정 후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2배 정도 ↑
 - 또 동일한 암세포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항체약물 264RAD과 허셉틴을 병행 치료한 결과 6주 후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
 - * 허셉틴 단독 투여는 77.8%의 종양 감소, 병행요법은 94.8%의 종양 감소 효과를 기록
 - 연구팀은 $\alpha v\beta 6$ 물질이 종양의 성장 및 전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괴멸시키는 항체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National Health Service, 2014.07.07]



옥스퍼드대 등,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혈액검사법 개발

- 영국 옥스퍼드대와 런던대, 킹스칼리지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알츠하이머와 치매(Alzheimer's & Dementia)지에 발표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 △경미한 인지기능 손상 환자 △건강한 노인의 3개 집단 1천148명의 혈액 표본을 분석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10가지 단백질 성분을 확인
 - * 이들 성분은 모두 알츠하이머 환자의 손상된 뇌조직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연관
- 연구팀은 10가지 성분을 측정하는 검사로 1년 내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정확도가 87%에 이른다고 주장
- 연구팀은 이 검사법을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2년 내 상용화할 계획으로, 이 검사법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 약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Pharma Times, 2014.07.09]



임피리얼칼리지런던, 소변검사로 조산 위험 예측

-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 연구팀이 소변검사를 통해 조산 위험을 임신 3개월 이내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BMC 메디신(BMC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임신부 438명의 소변샘플에 함유된 대사물질을 분석한 결과 조산 여성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과,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분자인 N-아세틸 당단백(N-acetylated glycoprotein) 수치가 높았음을 확인
 - * 또 아세트산염, 포름산, 티로신 등이 적으면 태아의 발육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라이신과 N-아세틸 당단백 수치가 정상 이하인 임신부는 고혈당 등 임신성 당뇨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소변에 과도하게 많거나 부족할 수 있는 이 대사물질들을 좀 더 연구하면 조산과 임신성 당뇨 등이 미치는 유전적·환경적 위험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Science World Report, 2014.07.13]



GSK 뇌물 비리, 중국·시리아 등 전세계로 확산

- 중국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성상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영국 GSK가 13년 전에도 중국 관리에 뇌물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에서도 리베이트를 전달한 사실이 적발, 비리가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GSK 해외영업 비리 조사에 나선 미국과 영국 검찰은 GSK가 지난 '01년 백신 사업과 관련해 중국 의료진과 관계당국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포착
 - 이에 따라 GSK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FCPA) 등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부패방지 관련법을 적용받아 한층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 GSK는 현재 마크 라일리(Mark Reilly) 전 중국사업 본부장이 직원들에 제품 판촉을 위해 현지 의사와 공무원들에게 5억불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
 - GSK는 중국 이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폴란드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는 등 비리 혐의가 전세계로 확산

[Fierce Pharma, 2014.07.25]



에든버러대, “비타민D 섭취 시 대장암 생존율 ↑”

-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비타민D가 대장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임상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환자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혈중수치를 측정하고 예후를 추적
 - 그 결과 비타민D 혈중수치 상위집단은 5년 생존율이 75%인데 비해 하위집단은 66%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
 -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종양은 크게 자랐지만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전인 2기 환자에게서 가장 뚜렷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향후 항암치료만 받은 대장암 환자와, 항암치료와 함께 비타민D 보충제를 투여한 환자의 예후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비타민D와 대장암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할 계획

[Oncology Nurse Advisor, 2014.07.23]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클로로퀸’에 간암 억제 효과 발견

-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팀이 말라리아 예방약 ‘클로로퀸(chloroquine)’에 간암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실험을 통해 클로로퀸이 간암 종양을 축소하면서 간암 발생을 80% 정도 차단한다는 사실을 확인
- 연구팀은 클로로퀸이 간세포가 괴멸될 때 활성화되는 단백질로 알려진 ‘TLR7(Toll-like protein 7)’과 ‘TLR9(Toll-like protein 7)’의 활동을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추정
- * 간 손상으로 간세포가 죽으면 만성 염증이 나타나면서 간세포의 재생이 차단돼 간암이 발생
- 퀸린(quinine) 유도체인 클로로퀸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특히 아프리카로 떠나는 여행자들의 필수 의약품

[Oncology Nurse Advisor, 2014.07.24]



AZ, 케임브리지에 기업본부·글로벌 R&D센터 설립

- 영국 AZ가 3억3천만 파운드를 투입, 자국내 대표적 대학도시인 케임브리지의 케임브리지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에 기업본부와 R&D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
- 이 프로젝트는 내년 초부터 진행되며, 케임브리지에 총 2천개 정도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
- AZ는 기업본부와 R&D센터 설립을 통해 저분자량 약물 및 생물약품 R&D 부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물약품과 저분자량 약물의 복합제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 AZ는 지난 2월 영국 캠브리지암연구소(CRUKCI)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최대 60여 명의 연구 인력을 연구소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들어 캠브리지 과학계와 한층 활발한 교류를 추진
- 한편 AZ의 영국 내 인력은 6천700여명이며 이들은 지난 '11년 38억 파운드 상당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

[Business Weekly, 2014.07.29]



종합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 제약사업 부문 분사

- 글로벌 메이저 종합 생활용품업체인 영국의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가 제약사업 부문에 대해 별도의 상장기업으로 분사를 결정
 - 제약사업 부문 분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레킷벤키저가 착수한 전략적 경영쇄신 방안의 일환
 - 분사는 향후 12개월여에 걸쳐 단행될 예정으로, 레킷벤키저는 제약사업 부문이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장기적으로 괄목할 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 것으로 확신
 - 한편 레킷벤키저의 제약부문은 아편양 제제 의존성 치료제 분야의 선도주자로 손꼽히는 ‘서복손(Suboxone)’ 등을 발매
 - * 서복손은 한해 10억불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 아편양 제제 의존성 치료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드럭

[New York Times, 2014.07.28]



브래드포드대, 암 진단 범용 혈액검사법 개발

- 영국 브래드포드대 연구팀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범용 혈액검사법을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실험생물학학회연합회지널(FASEB Journal)에 발표
 - 이 혈액검사법은 혈액속 백혈구를 자외선에 노출해 DNA가 얼마만큼 손쉽게 파괴되는가에 따라 암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연구팀은 지금까지 대장암, 폐암,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백혈구의 DNA가 정상인에 비해 손쉽게 파괴된다는 사실을 확인
 - * 암 발생 전단계에 있는 환자의 경우 암환자보다 DNA 파괴의 정도가 약하다는 사실도 파악
 - 연구팀은 향후 다른 종류의 암에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장암 등 3가지 암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는 고무적이며, 이들 암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 진단에 이 검사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Fox News, 2014.08.01]



GSK, 특허만료 의약품 국제입찰 ... 루핀·밀란 등 긍정 검토

- 영국 GSK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국제입찰 매각을 실시할 예정
 - GSK는 북미와 서유럽에서 연간 17억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 중인 특허만료 의약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매각액이 최소 35억불에서 최대 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입찰 대상 의약품에는 항우울제 ‘팍실(Paxil)’, 편두통 치료제 ‘이미트렉스(Imitrex)’, 위산분비 억제제 ‘잔탁(Zantac)’, 구토 억제제 ‘조프란(Zofran)’ 등 브랜드 제품들이 포함
 - 입찰에는 인도 루핀(Lupin)과 미국 밀란이 긍정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며, 사모투자업체인 미국 KKR과 워버그핀커(Warburg Pincus)도 참여의사를 피력
 - *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한 특수약품 회사가 GSK 자산을 취득한 뒤 과세상 주소를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Pharma Letter, 2014.08.05]



퀸메리대, “하루 한 알 아스피린 복용 시 암 위험↓”

- 영국 퀸메리대 연구팀이 아스피린을 하루 한 알씩 장기 복용할 경우 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중앙학연보(Annals of Onc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아스피린의 효능에 관한 각종 연구와 임상시험을 종합분석
 - 그 결과 아스피린을 하루 한 알씩 10년 정도 장기 복용할 경우 암 발생률은 최대 35%, 사망위험은 50%까지 낮아진 가운데, 식도암과 위암 발생률은 30%, 이로 인한 사망위험은 35~50% 감소함을 확인
 -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50~65세 연령대의 경우 75~100mg 용량의 아스피린을 하루 한 알씩 최소 5~10년은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 아스피린 복용기간이 짧을 때는 암 예방 효과가 전혀 없으며 최소 5년은 경과해야 암 발병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전문가들은 아스피린이 유방암과 췌장암 등 예방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이번 연구가 가장 종합적이라고 평가

[Reuters, 2014.08.10]



AZ, 알미랄 호흡기·흡입기 제품 사업부문 인수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스페인 알미랄(Almirall)의 호흡기 제품 사업부문과 흡입기 사업부문을 인수할 계획
 - 이를 위해 AZ는 알미랄에 8억7천500만불의 계약금을 비롯, 향후 개발 및 판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금액 등 최대 22억불을 지급할 계획
 - 이번 인수로 AZ는 ‘에클리라(Eklira, '13년 매출 8천400만 유로)’와 ‘에바스텔(Ebastel, 7천600만 유로)’ 등 알미랄 제품과 함께 일부 임상시험도 함께 확보
 - * 알미랄은 유럽에선 이미 승인된 에클리라와 포모테롤(Pomoterol)의 복합제를 미국에 승인 신청 중이며, 1일 1회 투여 장기 지속형 베타2 항진제(LABA)인 아베디테롤(abediterol)을 2상, M3 길항 베타2-작용제(MABA)를 1상 임상시험 중
 - 아스트라는 이번 인수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의 특허만료에 대비하면서 COPD 제품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ioWorld, 2014.08.20]



벨파스트퀸즈대, “스타틴 고지혈증 치료제가 대장암에 특효”

- 영국 벨파스트퀸즈대 연구팀이 스타틴(Statin)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대장암 생존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임상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새로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7천600여명의 의료기록(1998~2009년)을 분석(조사기간 중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1천650명)
 - 그 결과 리피토(Lipitor)와 조코(Zocor) 같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1년 이상 및 1년 미만 복용한 집단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각각 36%, 21% 낮았음을 확인
 - * 전체적으로는 치료제 사용 집단의 대장암 사망률이 미사용 집단보다 29% 낮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타틴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막거나 암세포를 괴멸시키는 것으로 추정한 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조군을 설정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실시할 방침

[2 Minute Medicine, 2014.08.12]



임피리얼칼리지런던 병원, 골수 줄기세포로 뇌경색 치료

-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 병원 연구팀이 뇌경색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뇌경색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줄기세포중개의학(Stem Cells Translational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45~75세의 뇌경색 환자 5명(남성 3명, 여성 2명)에 대해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CD34+ 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6개월 만에 모두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마비 증세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 특히 전체전방순환계 뇌경색(Total Anterior Circulation Stroke : TACS)* 환자 4명 중 3명이 기초적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 * 뇌의 한쪽 반구 앞부분에 혈액 공급이 끊겨진 경우로, TACS 환자는 약 50%가 6개월 내 사망하고 46%는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며, 스스로 생활할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4%에 불과
 - 연구팀은 CD34+ 줄기세포가 뇌경색으로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뇌조직과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한 것으로 추정된 뒤, 이 물질이 치료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io News, 2014.08.18]



케임브리지대, “염증 면역반응이 우울증 위험 높여”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염증으로 인한 면역반응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사협회정신의학저널(JAMA Psychiatry)에 발표
 - 연구팀은 9세 아동 4천500명을 대상으로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인터류킨-6(IL-6)*’의 혈중 수치를 측정하면서 우울증세가 나타나는지를 추적관찰
 - * 감염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면역세포들이 방출하는 단백질로, 염증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
 - 그 결과 혈중 IL-6 수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IL-6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집단은 질병이나 외상 또는 출생시 저체중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염증이 지속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염증이 우울증 발생에 특정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설명

- 연구팀은 따라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News Medical, 2014.08.28]



에딘버러대, 배아세포로 흉선 제작 성공

○ 영국 에딘버러대 연구팀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핵심 면역기관인 흉선을 배아세포를 이용해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셀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의 배아에서 채취한 결합조직세포인 섬유모세포를 유전조작을 통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인 흉선내피세포(Thymus Endothelial Cell : TEC)로 전환시킨 뒤 쥐에 이식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피질과 수질은 물론, CD4 세포와 CD8 세포가 모두 생성되면서 완벽한 조직과 기능을 갖춘 흉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 * CD4 세포는 보조 T세포(helper T-cell)로 면역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율하는 신호를 전달하고 CD8 세포는 킬러 T세포(killer T-cell)로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파괴
- 연구팀은 특히 골수이식 환자의 경우 흉선에 결함이 생겨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ashington Post, 2014.09.12]



AZ, 인도에 IT센터 개소 ... 제약기술 아웃소싱 내부화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9천만불을 투입해 인도 첸나이(Chennai)에 설립한 IT센터가 마침내 개소
 - AZ측은 제약기술 아웃소싱을 내부화할 IT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첸나이 IT센터 개소는 이 같은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 또 첸나이 IT센터에 이어 내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두 번째 센터, 후년에는 동유럽에 세 번째 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소개
 - AZ측은 세 번째 센터까지 개소되면 제약기술 아웃소싱 IT 비용이 현재 전체 IT 비용의 7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13년 AZ의 전체 IT 비용 지출은 약 13억불
 - 한편 첸나이 IT센터는 일단 75명의 인력으로 출범하나 AZ는 올 연말까지 300명 정도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

[Outsourcing Pharma, 2014.09.25]



케임브리지대, 줄기세포 완전 원시상태 전환 성공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인간의 만능줄기세포를 완전 원시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셀(Cell)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인간의 만능줄기세포에 특정 유전자 2개(NANOG, KLF2)를 주입, 7~10일 지난 배아의 세포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
 - * 이 상태는 인간의 배아에서 조직이 형성되는 실질적인 출발점
 - 과학자들은 인간 만능줄기세포를 초기단계 배아에서 추출하거나 성체세포를 환원시켜 만든 바 있지만 원시단계까지 되돌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오로지 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원시상태로 전환
 - * 쥐의 만능줄기세포는 LIF라는 단백질을 이용하면 아주 초기의 만능상태에서 동결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만능줄기세포는 LIF 단백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배아가 어떻게 잘못되고 유산과 발달장애를 일으키는지 등 배아 발달에 관한 보다 많은 사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cience Weekly, 2014.09.20]



브리스톨대, “혈중 칼슘 과다가 암 유발 가능성”

-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혈중 칼슘이 과도한 고칼슘혈증(hypercalcaemia)이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영국암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발표
-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NHS)의 암 발견 프로그램(Discovery Program)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칼슘혈증 환자 5만4천여명의 의료기록을 분석
- 그 결과 남성은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치(2.1~2.5mmol/L)에서 다소 벗어나지 않은 2.6~2.8mmol/L만 되어도 향후 1년 내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1.5% 높아지고, 2.8mmol/L을 넘으면 28%까지 급증함을 확인
- * 그러나 여성은 두 경우 각각 4.1%, 8.7%로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이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으로 추정
- 암환자의 10~20%는 고칼슘혈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칼슘혈증이 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

[Science World Report, 2014.09.26]



사우스햄튼대, 줄기세포로 망막 광수용체 세포 분화 성공

- 영국 사우스햄튼대 연구팀이 안구 특정 부위의 줄기세포를 이용, 망막을 구성하는 광수용체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각막과 결막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각막윤부(corneal limbus)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실험을 통해 광수용체 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주장
- 광수용체 세포는 안구의 맨 뒤쪽에 있는 망막의 내막을 형성하는 감광세포로, 명암과 색깔을 구분하는 막대기 모양의 간상세포와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수용체 세포가 손상되면 실명을 유발
- * 광수용체가 손상되는 대표적 안질환으로는 노인성 황반변성, 색소성 망막염, 당뇨병망막증 등
- 연구팀은 환자의 각막윤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감광세포를 만들어 다시 환자에 주입할 수 있으면 이 같은 안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BioNews, 2014.10.06]



AZ, 암조직 분석업체 ‘디피니엔스’ 인수 ... 동반기술 경쟁력 강화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자회사인 메드이뮤넬(MedImmune)을 통해 독일 암조직 분석업체 ‘디피니엔스(Definiens)’를 인수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양사는 AZ가 1억5천불의 계약금과 향후 단계별 성과 달성 여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디피니엔스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디피니엔스는 198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게르트 비니히(Gerd Binnig)가 설립한 회사로 중앙 조직에 바이오마커 식별을 크게 개선시키는 조직 발현형체학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뮌헨과 캘리포니아에 위치
 - AZ는 이번 인수로 항암 면역치료제 사업 부문, 특히 동반진단 기술을 소분자 및 생물학적 제제 포트폴리오에 응용하는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Bio-IT World, 2014.11.05]



브리스톨대 등, 전립선암 치료 물질 ‘스핑크스’ 개발

- 영국 브리스톨대와 노팅엄대 공동 연구팀이 전립선암의 증식과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 ‘스핑크스(Sphinx)’를 개발했다고 종양유전자(Oncoge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전립선암에 걸리도록 만든 쥐에 일주일에 3회 스텍스스를 주사한 결과 SPRK1(serine arginine protein kinase-1) 분자* 활동이 억제되면서 종양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소개
 - * 전립선암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자로, 신생혈관 형성이 차단되면 암세포는 성장을 중단
 - 이에 앞서 연구팀이 인간의 전립선암 종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SRPK1 분자가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는 사실과, 이 분자가 증가할 때 종양은 더욱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
 - 한편 스텍스스는 현재 영국의 생명공학기업 엑소네이트(Exonate)가 임상시험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Prostate Cancer News Today, 2014.11.13]



킹스칼리지런던대, “유전자가 체중에 영향 미쳐”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연구팀이 유전자가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장박테리아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셀(Cell)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171쌍과 이란성 쌍둥이 245쌍으로부터 채취한 분변 샘플 속 장박테리아의 분포를 분석
 - 그 결과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50%만 같은 이란성 쌍둥이들에 비해 특정 장박테리아의 비율이 비슷했음을 확인
 - 또 체중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장내 크리스텐세넬라 미누타(Christensenella Minuta) 박테리아가 흔히 발견되었다고 소개
 - * 연구팀이 이 박테리아를 쥐의 장에 주입하자 이 쥐들은 박테리아가 주입되지 않은 다른 쥐들에 비해 체중 증가 속도가 느렸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할 때 장박테리아 중에는 비만을 억제하는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이 박테리아가 많고 적음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Doctors Health Press, 2014.11.13]



AZ, 2억불 투입 생물의약품 공장 확충

- 영국 AZ가 갈수록 높아지는 생물의약품 수요 충족을 위해 2억불을 투입,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에 위치한 생물의약품 생산공장을 확충한다고 발표
 - AZ는 생물의약품이 저분자량 의약품 및 단백질 공학과 함께 자사의 핵심 사업 부문이라며 공장 확충의 의의를 강조
 - AZ는 자회사인 메드이문을 통해 120여종에 달하는 생물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여 제품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
 - 프레더릭 공장이 확충되면 AZ는 신약후보 물질 개발에 더욱 주력하면서 생물의약품 부문의 글로벌 강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전망
 - 공장 확충은 12월에 착수돼 오는 '17년 마무리될 예정이며, AZ는 새 공장에 300여 신규 인력을 투입할 계획

[Commercial Property Executive, 2014.11.29]



케임브리지대, 채소 속 질산염이 혈전 억제 확인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시금치 · 상추 · 샐러리 같은 푸른 잎 채소에 다량 함유된 질산염이 혈전을 억제한다고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회저널(Journal of the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에 발표
 -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수가 정상치 이상으로 증가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이 끈적끈적해 지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전이 쉽게 생성
 - 그러나 연구팀은 푸른 잎 채소 속 질산염이 적혈구 수를 조절하기 위해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의 생산을 억제,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 연구팀은 따라서 질산염이 다량 함유된 채소를 섭취하면 적혈구 수가 줄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이 예방되고 그 결과 심장발작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진다고 주장
 -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세포에 산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Irish Health, 2014.12.08]



알츠하이머병학회 등, 발기부전 치료제로 혈관성 치매 임상시험

- 영국 알츠하이머병학회(Alzheimer's Society)와 알츠하이머병치료제개발재단(Alzheimer's Drug Discovery Foundation)의 공동 연구팀이 혈관성 치매 예방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
 -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매로, 뇌의 소혈관이 좁아져 기억증추 등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
 - 연구팀은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좁아진 음경조직의 소혈관을 넓혀 발기를 돕는다는 사실에 착안, 발기부전 치료제가 뇌의 소혈관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임상시험을 계획
 - 임상시험은 뇌혈관이 손상되거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50명에게 비아그라와 성분이 동일한 ‘타달라필(Tadalafil)’ 또는 위약을 투여하고 투여 전후에 특수 자기 공명영상(MRI)인 동맥스핀표지(arterial spin labelling : ASL)로 뇌 각 영역에 도달하는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Independent, 2014.12.12]



랭커스터대 등, “당뇨병약 ‘리라글루티드’가 치매에 효과”

- 영국 랭커스터대와 얼스터대 공동연구팀이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와 ‘릭시세나티드(Lixisenatide)’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경약리학(Neuropharmac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 쥐에 이들 약을 10주 동안 매일 투여한 결과 기억력과 물체 인지 능력이 개선되고, 치매의 특징적 표지로 뇌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감소했음을 확인
 - *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와 프랑스의 사노피아가 각각 개발한 리라글루티드와 릭시세나티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 또 이들 쥐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신호전달 시스템인 시냅스의 수가 증가했는데, 연구팀은 이 사실이 리라글루티드와 릭시세나티드에 손상된 뉴런의 수리를 돕는 기능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리라글루티드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전망

[Biowebspin, 2014.12.24]

1.3 일본



다이닛폰, 항암제 개발 주력 ... 종양임상개발사업부 신설

- 일 다이닛폰 스미토모 제약이 '14년 1월1일부로 종양임상개발사업부(Oncology Clinical Development Unit : OCDU)를 신설
 - OCDU 신설은 기존의 정신·신경의학 치료제 부문과 함께 항암제 부문을 핵심 영역으로 선정, 혁신적 신약 개발에 주력한다는 기업 전략의 일환
 - OCDU는 항암제 임상연구 및 시험과 의무(醫務) 등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혁신적 항암제 신약이 조속히 개발·발매되도록 미국 내 자회사 보스턴 바이오메디컬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계획
 - * 다이닛폰은 OCDU 신설에 앞서 항암제 임상개발 연구소와 보스턴 바이오메디컬로 구성된 통합 글로벌 R&D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
 - 한편 다이닛폰은 지난 '13년 10월 미국에서 항암제 영업 부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재생·세포의약사업 부문의 신설 계획도 공개

[大日本住友製藥, 2013.12.25]



다케다, '내츄라 알파' 독점 개발권 취득

- 일 다케다약품이 미 나트로젠으로부터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내츄라 알파(Natura-alpha)'의 독점 개발권을 취득
 - 현재 내츄라 알파는 궤양성 대장염을 표적으로 한 2상 후기 임상시험 중으로, 다케다는 향후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제품화시킨다는 방침
 - * 내츄라 알파는 염증이나 염증성 반응에 의해 초래되는 조직 파괴를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인터류킨-1, 6, 10)의 발현을 저해하고 소화관의 염증을 억제하는 경구용 저분자화합물
 - 다케다는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인 단클론항체 '베돌리주맙(Vedolizumab)'도 개발 중으로, 이번에 내츄라 알파 독점 개발권을 취득함으로써 소화기 질환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 한편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미공개

[QLife Pro, 2013.12.31]



일본 아크레이, 신흥시장 감염증 시약 판매 강화

- 일 의료기기업체 아크레이(Arkray)가 인도·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감염증 시약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시약업체 스파ن 다이어그노스틱스(Span Diagnostics)를 7억 3천4백만 루피(미화 약 1천160만 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스파는 그동안 임상검사용 시약을 개발·제조해 온 업체로 독감 바이러스나 C형간염 시약 분야에서 인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 특히 결핵과 같은 감염증과 생화학 분야에 강한 기업으로 평가
- 한편 아크레이는 인도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07년 현지에 합작회사 아크레이 헬스케어 프라이빗(Arkray Healthcare Private)을 설립한 이래 주로 당뇨병 시약을 판매하면서 판로 개척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
- 아크레이는 모든 인수 절차를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

[Pharmabiz, 2014.01.24]



오사카대, 안지오텐신-2 표적 고혈압 치료백신 개발

- 일 오사카대 연구팀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2(angiotensin 2)를 표적으로 하는 고혈압 치료백신을 개발했다고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
-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안지오텐신-2의 DNA 조각을 보유하고 있어 6개월에 1회만 접종하면 면역체계가 반응해 안지오텐신-2를 파괴하는 항체가 생성, 안지오텐신-2가 혈관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
- * 안지오텐신-2는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안지오텐신-2가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벽에 대한 압력이 증가해 혈압이 상승
- 이 백신을 고혈압 모델쥐에 실험한 결과 혈압이 6개월 이상 안전한 수준을 유지
- 연구팀은 이 치료백신이 실용화되면 고혈압 환자가 매일 혈압약을 잊지 않고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준비

[Indus Asia Online Journal, 2014.01.25]



일본 이화학연구소,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분화되는 세포 제작

- 일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쥐실험을 통해 신체의 여러 조직으로 분화되는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갓 태어난 새끼 쥐의 림프구를 약산성 액체에 30분 정도 담근 후 배양한 결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었음을 발견
- 연구팀은 이 활성화된 유전자가 있는 세포를 실험용 쥐의 체내에 이식하자 피부나 근육 등 다양한 세포로 변화, 유전자 주입 절차가 필요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와 달리 외부 자극만으로도 세포가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
- 전문가들은 일단 역할이 정해진 세포가 외부의 약한 자극만으로도 여러 조직으로 분화됨을 발견한 것은 그동안의 과학계 상식을 뒤집는 획기적인 성과라며 높게 평가

[日本經濟新聞, 2014.01.29]



히사미츠제약, 붙이는 파킨슨병 치료물질 임상시험 성공

- 일 히사미츠제약(久光製藥)이 신체에 부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도록 개발 중인 약물 'HP-3000'이 2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발표
- '13년 9월부터 레보도파(levodopa)를 병용하는 중등도~중증 파킨슨병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HP-3000 집단은 위약 집단보다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로 개선 효과를 발휘
- HP-3000은 비맥각계 도파민D2 수용체 작용제 로피니롤(ropinirole)이 성분인 패치제로,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경화되거나 팔다리가 떨리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개선시킬 것으로 관심을 모으는 약물
- * 특히 HP-3000에 히사미츠의 경피흡수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히사미츠제약은 이번 시험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방침

[Mix Online, 2014.02.07]



일본 구루메대, 돌연사 발병 저해 단백질 발견

- 일 구루메대 연구팀이 돌연사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대동맥해리(大動脈解離)의 발병을 저해하는 단백질을 발견
 - 연구팀은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테네이신C’의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쥐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집단에서는 대동맥해리가 발병하지 않은 반면, 생성하지 못하도록 한 집단에서는 절반에서 발병했음을 확인
 - * 대동맥해리는 혈관벽 내측에 금이 생기고 여기에 혈액이 흘러드는 돌발성 질환으로, 뇌로 전달되는 혈액이 감소해 수분 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동맥해리의 발병 메커니즘 규명과 예방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로 자평한 뒤, 혈액검사로 테네이신C의 양을 측정해 대동맥해리 및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한편 대동맥해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앓는 5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만 연간 1만명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추산

[日本經濟新聞, 2014.02.18]



도시바, 헬스케어 사업 강화 ... '18년 매출 1조엔 목표

- 일 도시바가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 현재 4천억엔 정도인 헬스케어 사업 매출 규모를 오는 '18년 3월 회계연도까지 1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
 - 이를 위해 △질병예방 △개호 △건강증진을 3개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제품을 집중 출시하기로 결정
 - 도시바는 이들 핵심사업 매출을 '16년 3월 회계연도까지 6천억엔, '18년 3월 회계연도까지는 1조엔 규모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수립
 - 특히 질병예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게놈해석 사업에 주력, 각 개인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발병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
 - 한편 도시바의 '14년 3월 회계연도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3천738억엔

[News-Medical, 2014.02.25]



일본 교토대, iPS 세포 이용 암치료법 개발 추진

- 일 교토대 연구팀이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로부터 대량으로 제작해 암환자에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추진
- 연구팀은 면역세포로부터 iPS 세포를 만들어 증식시킨 뒤 이를 다시 한 번 면역세포로 변화시키는 실험에서 면역세포 수명이 연장된 결과가 도출된 데 착안, 암환자 본인의 iPS 세포로 만든 면역세포를 대량 투여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
- *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수명도 짧으며, 체외에서 수를 늘린 뒤 환자에 투여해도 짧은 수명은 변함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지 않은 단점을 보유
- 연구팀은 현재 피부·위·혈액 등 다양한 암을 표적으로 한 면역세포를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5년에 걸쳐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확인한 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방침

[読売新聞, 2014.03.05]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 ‘실로스타졸’ 에 치매 예방 효과”

- 일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연구팀이 혈액 응고를 막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실로스타졸(cilostazol)’에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실로스타졸을 복용한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조 집단으로 나눈 뒤 인지기능의 변화를 비교
- * 치매 환자는 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로스타졸을 복용하는 사례가 다수
- 그 결과 경증 환자의 경우 실험 집단의 연간 인지기능 저하율은 대조 집단의 80% 정도로 억제된 가운데, 기억력이나 본인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개선되었음을 확인
- *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억제 및 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로스타졸이 뇌 밖으로 뇌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

[日本經濟新聞, 2014.02.27]



올림푸스, 골형성 단백질 사업 철수

- 일 올림푸스가 바이오 관련 골형성 단백질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골형성 단백질 제품의 개발과 제조를 담당해 온 미국내 자회사 올림푸스 바이오텍을 오는 '17년 청산하고, 골형성 단백질을 포함해 바이오 제품을 판매하는 유럽 자회사에 대해서도 매각 교섭을 진행할 계획
 - 올림푸스는 골형성 단백질 사업에서 지난해 80억엔 흑자를 기록한 뒤 올해 130억엔으로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대 40억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우려
 - 향후 올림푸스는 중기경영 계획으로 내시경 등 의료사업과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다는 방침
 - 한편 올림푸스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정기반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7월 1천100억엔 규모의 공모 증자를 실시

[日經 BP, 2014.03.03]



아스텔라스·다이이치, ‘화합물 라이브러리’ 공유

- 일본 아스텔라스 파마와 다이이치 산쿄가 화합물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한 ‘화합물 라이브러리(compound library)’를 향후 3년간 공유하는 파트너십 제휴를 체결
 - 양사는 각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규 조성물들을 포함해 총 40만개에 달하는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면서 품질 또한 높은 화합물 라이브러리는 성공적 신약 개발을 위한 요소
 - 양사는 또 표적질환 영역에 대한 별도 제한없이 공유 화합물들을 이용해 ‘고효율 다중 약효검색(High Throughput Screening : HTS)’도 진행할 계획
 - * 이와 함께 HTS의 결과로 신약개발에 사용될 조성물 후보물질을 선정한 업체는 어떠한 질병을 겨냥하든 관계없이 후속 개발절차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데도 합의
 - 일본 제약업계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공유 파트너십 제휴가 체결되기는 이번이 처음

[BioResearch, 2014.03.24]



후지필름·교토대, iPS세포 이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개발

○ 일본 후지필름과 교토대 iPS세포연구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교토대 iPS세포연구소가 환자 유래 iPS세포를 제작하면 이 세포를 현재 후지필름이 미국에서 계열사인 도야마(富山)를 통해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약물 'T-817MA'*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기로 합의

* 신경세포 괴멸의 억제와 축색·수상돌기의 성장을 촉진하는 약물로, 도야마 연구팀이 베타아밀로이드를 뇌실 속에 주입해 신경세포에 손상을 가한 쥐에게 T-817MA를 2.5주간 투여한 결과 뇌손상 진행이 억제되면서 뇌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

- 양측은 또 일본에서 조만간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
- 전문가들은 양측이 T-817MA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藥事日報, 2014.04.01]



다케다·오츠카, 위산질환 치료제 제휴

○ 일본 다케다와 오츠카가, 다케다의 위장관계 유망 치료제 'TAK-438(푸마르산염 보노프라잔)'을 공동 마케팅하는 제휴 계약에 합의

- 이를 위해 다케다는 오츠카에게 계약일시금으로 2백억엔을 지급할 예정
- TAK-438은 기존 프로톤 펌프 저해제(PPI)들과 달리 위산 속에서도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다 속효성 제제여서 장용 코팅 등과 같은 최적의 제형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을 보유
- * 현재 일본에서는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로 PPI가 1차 선택약으로 주로 처방되고 있으나, PPI 계열 약물은 항상 충분한 수준의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위산분비 억제 효과도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유

- 이번 제휴로 양사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치료 등 위산 관련 질환제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선두주자들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日本經濟新聞, 2014.03.27]



다이이찌산쿄, UCSF와 신경퇴행 질환 약물 개발 제휴

-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 캠퍼스, UCSF)와 신경퇴행 질환 약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양측은 UCSF 과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단백질 변형체 ‘프리온(Prion)’이 신경퇴행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연구할 계획
- * 프리온은 광우병과 크로이츠펔트-야콥병을 일으키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 장애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
- 또 다이이찌는 UCSF 산하 신경퇴행질환연구소에 제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자사 생명공학자들을 파견해 UCSF 연구팀들과 고속대량 제제 스크리닝 및 신약발굴을 위한 분자 최적화를 수행할 방침
- 다이이찌는 이번 제휴와 관련, 비공개의 연구지원금 및 임상 진행 및 상업화에 따른 중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발굴되는 유망 제제에 대해 개발·판매할 라이선스 권한을 확보

[BioWorld, 2014.04.16]



노바티스, 일본 약사법 위반 논란 ... 부작용 보고 은폐

- 스위스 노바티스의 일본법인이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부작용 정보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 노바티스 일본법인의 한 직원은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의료진을 대신해 회수·보관하는 과정에서 환자 2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취득
- 그러나 일본 약사법에 지정된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후생성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회사측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가 사외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뒤늦게 후생성에 보고
- 일본 약사법은 제약업체가 자사 제품과 관련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나온 것을 알게 된 경우 15~30일 내 후생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노바티스 직원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
- 또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임상연구 결과를 입수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日本經濟新聞, 2014.04.18]



니프로, 뇌경색·척수손상 치료제 생산 추진

- 일본 니프로(ニプロ)는 삿포로대가 개발한 뇌경색 치료기술을 이용, 이르면 오는 '18년 뇌경색 및 척수손상 후유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제 생산에 착수할 계획
- 이를 위해 일단 내년에 10억~20억엔 정도를 투입해 삿포로공장을 신설하고, 이후 도호쿠·간토·긴키·규슈에도 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
- 삿포로대가 개발한 치료기술은 뇌경색 환자로부터 골수세포를 채취한 뒤 1만배 정도 증식시키는 것으로, 니프로는 삿포로대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치료제를 생산한 뒤 정부에 의약품 승인을 신청할 계획
- * 이 치료기술은 골수세포가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해 뇌경색 및 척수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
- 한편 삿포로대는 지난 '13년 봄부터 뇌경색을 대상으로 한 최종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같은 해 12월에는 골수손상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도 시작

[日本經濟新聞, 2014.04.28]



산텐, 머크 안과 사업부문 인수

- 일본 산텐제약(参天製藥)이 미국 머크의 안과 사업부문을 8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산텐은 올해 안으로 머크의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9개 제품*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전권을 확보
- * 코소프트(COSOPT), 코소프트 PF, 트루소프트(TRUSOPT), 트루소프트 PF, 티모프틱(TIMOPTIC), 티모프틱 XE, 티모프틱 PF, 사플루탄(SAFLUTAN), 탭티콤(TAPTIQOM)
- 산텐은 일본 최대 안과 의약품 제조업체로 '14년 3월 연결결산 매출액은 1천486억엔 영업이익률은 20% 정도이며, 안과제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80%를 상회
- 산텐은 이번 인수로 현재 전체 매출의 18% 정도에 불과한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16년 3분기에는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한편 머크측은 안과 사업부문 매각이 암백신과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 집중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QLife Pro, 2014.05.23]



시스멕스, 머크KGaA와 대장암 혈액 검사약 공동 개발

○일본 의료검사 장비업체 시스멕스(シスメックス)가 독일 제약업체 머크KGaA(Merck KGaA)와 대장암 혈액 검사약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양사는 현재 머크KGaA가 판매하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얼비투스(erbitux)’가 개개인의 환자에도 유효한지 여부를 투여 전 혈중 암유전자 검사로 진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검사약을 개발할 계획
- 양사는 이 검사약을 시스멕스 독일 자회사가 보유하는 BEAMing 기술*을 이용해 개발, 의료진들로 하여금 혈중 암유전자 검사에 따라 간편하면서도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

* 혈액 속으로 방출되는 미량의 혈중순환 암유전자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기술로, 환자의 암조직에서 유전자 변이 양상을 파악하는 생체검사를 대신해 비침습적으로 항암제 적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술을 통한 조직적출이나 생체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보유

[Medicalcare News, 2014.06.07]



메이지홀딩스, 메드라이크 합병 ... 아시아·아프리카 진출 강화

○일본 메이지홀딩스(明治ホールディングス)가 산하 제약업체 메이지세이카파마(明治セイカファルマ)를 통해 인도의 중견 제네릭업체 메드라이크(Medreich)의 전체 주식을 2억9천만불에 취득하고 오는 연말까지 완전 합병한다고 발표

- 메이지홀딩스는 합병을 통해 메드라이크가 강점을 보이는 아시아·아프리카 판매망과 저비용 생산거점을 활용, 제네릭약의 해외 판매를 확대할 계획
- 메드라이크는 인도 방갈로르에 거점을 두고 글로벌 제약업체들로부터의 의약품 수탁제조를 맡고 있는 업체로, 지난 '05년부터는 인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에서의 제네릭약 사업에도 진출

* 메드라이크의 지난해 연결매출액은 약 1억5천700만불

- 한편 메이지세이카파마는 주로 일본 국내에서 제네릭약을 판매해 온 업체로, 메이지홀딩스는 최근 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흥지역에서의 제네릭약 판매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을 피력

[日本經濟新聞, 2014.06.11]



교와학코기린, 아르키메데스 M&A 추진

- 일본 제약업체 교와학코기린(Kyowa Hakko Kirin)이 2억3천만 파운드로 영국 제약업체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에 대한 M&A를 추진하기로 결정
 - 교와학코기린은 영국 자회사 프로스트라칸(ProStrakan)을 통해 아르키메데스 주식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모든 절차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 이번 인수로 교와학코기린은 주력 부문인 암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
 - 아르키메데스는 동통과 암 분야에서 고도의 혁신적인 처방약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로, 대표 제품은 오피오이드계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펙펜트(PecFent)’
 - * 펙펜트에는 아르키메데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물전달시스템이 사용
 - 아르키메데스는 유럽 특히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에서 직접판매를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4천100만 파운드

[Pharma & MedTech Business Intelligence, 2014.07.17]



다카라바이오, 셀렉티스AB 인수 ...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 강화

- 일본 바이오업체 다카라바이오(Takara Bio)가 스웨덴 바이오업체 셀렉티스 AB(Collectis AB)를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다카라바이오가 셀렉티스의 모든 주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취득 금액은 비공개
 - 다카라바이오는 셀렉티스의 기술을 활용, iPS세포로부터 간세포 등을 만들어 제약업체나 대학에 공급하고 신약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
 - * 이 경우 다카라바이오는 5년 후 10억엔 정도의 매출을 기대
 - 지난 '11년 설립된 셀렉티스는 iPS세포 등 줄기세포를 간세포나 췌장세포 등으로 분화를 유도시키는 노하우를 확보, ES세포와 iPS세포도 제조하고 있으며 iPS 세포로부터 만든 체세포는 의약품 개발 등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
 - 한편 다카라바이오는 최근들어 벤처업체인 ‘아이하트재팬(iHeart Japan)’을 통해 심근세포 제조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간과 췌장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BioResearch Online, 2014.07.31]



일본 공동연구팀, 유전자로 혈우병 쥐 치료 성공

○ 일본 교토대와 나라현립의대 등 공동연구팀이 혈우병에 걸린 쥐를 유전자 치료로 낫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

- 연구팀은 혈우병에 걸린 쥐의 간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혈액응고인자)을 만드는 유전자를 특수 운반 분자를 이용해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혈액응고인자가 생성됐으며, 기능도 300일 이상 지속됐음을 확인
 - *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가 없거나 부족해 출혈시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으로, 혈액응고인자는 간에서 생성되지만 혈우병 환자의 경우 그 인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결여
-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인간 유도만능줄기(iPS) 세포에 응용할 계획으로, 인간 iPS 세포로부터 혈액응고인자를 생성하는 간세포를 만들어 이식하는 등 혈우병 환자 치료에 적용할 방침

[QLife Pro, 2014.08.22]



노바티스, 후생성에 중증 부작용 2천500여건 보고 누락

○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백혈병 치료제 등 의약품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후생성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어도 2천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 노바티스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1만여건을 후생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인과 관계가 확실한 부작용 사례가 2천579건 있었다고 시인
 - * 이들 사례는 △백혈병 치료제‘글리벡’1313건 △백혈병 치료제‘타시그나’514건 △항암제‘아피니토’261건 △암 골전이 등 치료제‘조메타’130건 등
- 노바티스는 2천579건 이외 8천697건의 미보고 부작용 의혹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인과관계 분석 등 조사 작업을 마칠 계획
- 노바티스는 보고 누락 원인에 대해 영업담당자가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데다 관리자의 감독 역시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 한편 노바티스는 부작용 정보 취급 교육강화와 자체 점검체제 정비 등 조치를 수록한 부작용 보고 개선계획서를 후생성에 제출

[読売新聞, 2014.08.30]



교토대, 줄기세포로 폐포세포 추출

-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이용해 폐포세포(허파파리세포)를 제작한 뒤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줄기세포리포트(Stem Cell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폐포가 되는 세포의 표면에 'CPM'이라는 특유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 iPS세포를 폐조직세포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CPM을 가진 세포를 분리해 배양한 결과 폐포세포가 형성되었다고 설명
- * 폐포는 폐의 맨 끝에 있는 포도송이 모양의 공기주머니로, 호흡할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기교환을 담당
- 글로벌 각국에서 iPS세포나 배아줄기세포(ES세포)를 사용해 폐포세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폐포세포만 추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
-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성과가 폐 관련 난치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財經新聞, 2014.08.25]



도쿄대,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 세포증식 메커니즘 규명

-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팀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으로 인해 위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에 발표
-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킨 쥐의 위 표면세포를 관찰한 결과, 위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인 'miR-210'이 건강한 쥐에서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
-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위암에 걸린 환자의 암세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miR-210의 양이 일반인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의 점막에 붙으면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하고, 그 결과 암세포가 쉽게 증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
- * 헬리코박터균은 위의 점막에 붙어 있는데, 위산에 의한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만성 위염과 함께 궤양 및 암을 쉽게 유발

[Global Post, 2014.09.09]



다이이찌산쿄, 엠빗 바이오사이언스 인수

-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최대 4억1천만불을 투입, 미국 엠빗 바이오사이언스(Ambit Biosciences)를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다이이찌산쿄가 엠빗의 주식을 주당 15불에 공개매수한 뒤 엠빗을 다이이찌산쿄의 계열사와 합병하고, 일정한 경영 성과가 달성됐을 때 엠빗 주주들에게 주당 최대 4.5불을 추가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엠빗은 암, 자가면역질환, 염증성 질환 분야에서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약품 개발에 주력해 온 업체
- * 엠빗은 현재 FLT3 돌연변이로 인해 1차 치료 이후에도 병이 치유되지 않거나 재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퀴자티닙(quizartinib)'을 임상 3상시험 중으로, FLT3 변이를 가진 환자는 일반적으로 FLT3 음성 환자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경향
- 다이이찌산쿄는 이번 인수가 암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 경영방침과 부합되는 전략이라고 강조

[Outsourced Pharma, 2014.10.02]



기타사토연구소, “지방세포 염증 억제로 당뇨병 치료 가능”

- 일본 기타사토연구소 연구팀이 지방세포의 염증을 억제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당뇨병(Diabetes)지에 발표
- 연구팀은 비만 쥐를 대상으로 실험군에게는 세포 접착기능이 있는 막관통 단백질(transmembrane protein)의 일종인 'CD44'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대조군에게는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실험군 쥐들은 대조군 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세포의 염증이 억제된 가운데 혈당치가 떨어지고 체중 증가는 억제되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번 연구가 지방세포의 염증 억제를 통해 당뇨병을 치유하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는 대부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수행

[朝日新聞, 2014.10.10]



요코하마시립대, 상처자국 없는 유방재건법 개발

-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연구팀이 절제된 유방에 상처자국을 남기지 않아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방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유방재건법을 개발
 - 이 유방재건법은 유방암 수술로 절제된 유방에 플라스틱 브래지어 같은 특수 장치를 장착한 뒤 모터로 기압을 낮추고 피부를 잡아당겨 늘린 뒤 복부나 대퇴부 지방을 주입하는 방식
 - * 실리콘을 이용한 기존 방법은 비교적 시술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유방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식을 통한 시술은 유방형태가 자연스러운 반면 상처 흔적이 크게 남는 단점을 보유
 - 연구팀은 최근 2년간 80여명을 대상으로 이 재건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소개
 - 그러나 피부염증이 나타났고, 유방 크기에 따라 3~4회 지방 주입이 필요하며, 특수 장치를 장시간 부착해야 하는데다, 시술 비용이 수십만엔에 달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

[朝日新聞, 2014.10.19]



교토대, iPS 세포로 심장병 치료 가능성 제시

-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사용해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iPS 세포를 이용, 심장을 구성하는 심근 세포와 혈관 내피세포 및 혈관벽 세포를 만든 다음 지름 1cm 미만의 원형 시트 형태로 심근경색이 발병한 쥐의 심장에 이식하는 실험을 시행
 - 그 결과 이식 2개월 후까지도 심근경색 쥐의 심장 펌프 기능이 정상 쥐의 70~8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장기능이 회복되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심근 세포를 이식해도 곧 사멸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심근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심장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日本經濟新聞, 2014.10.22]



후지필름, 바이오업체 ‘칼론 바이오세러퓨틱스’ 인수

- 일본 후지필름이 미국 바이오업체 ‘칼론 바이오세러퓨틱스(Kalon Biotherapeutics)’를 인수하기로 결정
 - 후지필름은 칼론을 공동 설립한 텍사스 주정부와 텍사스A&M대로부터 향후 수개월 내 칼론 지분 49%를 사들인 뒤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식을 취득한다는 방침(주식 매입 금액은 미공개)
 - 지난 '11년 설립된 칼론은 치명적 병균에 맞서는 백신을 집중적으로 연구·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업체로, 최근 미국 정부는 생화학적 테러 또는 긴급한 공공보건 위기에 대비한 칼론의 백신 개발 사업에 1억7천만불을 지원
 - 후지필름은 전통적으로 카메라 필름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동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의약품 같은 신사업 부문 개발에 주력
 - 이와 관련, 후지필름의 헬스케어 사업부는 지난 '13~'14 회계연도에 총 3천800억엔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매출은 대부분 의료기기 판매에서 발생했으며 제약 부문이 기여하는 비중은 미미

[Outsourced Pharma, 2014.10.30]



후지필름, PET용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 추진

- 일본 후지필름이 심질환과 치매 등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용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을 추진
 - 후지필름은 이를 위해 일단 60억엔 정도를 투자, 국제전략종합특구로 지정된 사이토 서부지구와 도노마치 지구에 R&D 거점을 신설하기로 결정
 - * PET 검사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약품을 환자에게 정맥주사 후 이 약품이 전신에 퍼진 모습을 영상으로 관찰하여 질병의 정보를 얻어내는 검사로, 다른 검사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공간분해 능력이 뛰어나 의료진이 각종 질환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
 - 후지필름은 지금까지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자회사인 후지필름RI과마를 통해 뇌혈류 검사 등 일부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향후에는 PET용 검사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한편 현재 후지필름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T-817MA’를 개발 중으로, 동물실험에서는 이미 그 효과를 확인

[Fujifilm Holdings Corporation, 2014.11.11]



오츠카, ‘아바니어’ 인수 ... 신경질환 분야 입지 강화

- 일본 오츠카제약이 미국 생명공학업체 ‘아바니어 파마슈티컬스(Avanir Pharmaceuticals)’를 4천200억엔에 인수한다고 발표
 - 오츠카는 주력 제품인 항정신병제 ‘아빌리파이(Abilify)’ 등 특히 신경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 신경질환 분야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
 - 아바니어는 무의식적이고 돌발적이면서 과도하게 웃거나 우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정서적 불안정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 ‘뉴덱스타(Nuedexta)’를 개발, 지난 ‘11년부터 미국과 EU 등에서 발매
 - * ‘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뉴덱스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한 9천400만불
 - 아바니어는 또 알츠하이머병 관련 불안 증상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 ‘AVP-786’과 경비 흡입형 분말제 편두통 치료 물질 ‘AVP-825’도 보유

[藥事日報, 2014.12.08]



아이로姆홀딩스, AIDS 예방 백신 안전성 확인

- 일본 아이로姆홀딩스(アイロムHD)가 자회사인 디나백이 도쿄대학의과학연구소 등과 공동 개발한 AIDS 예방 백신의 인체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발표
 - 이 백신은 유전자를 숙주에 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DNA인 벡터로 센다이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AIDS 원인 바이러스인 HIV의 ‘Gag단백유전자’를 항원으로 활용한 제제로, 코 점막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투여
 - 임상시험은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AIDS 백신 추진 구상(IAVI)’에 의해 지난 ‘13년부터 르완다, 영국, 케냐 등에서 건강한 사람 65명에 대해 고용량군(실험군)과 저용량군(대조군)으로 투여량을 구분해 시행
 - 아이로姆홀딩스는 임상시험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미하게 항체가 생산된 가운데 인체에는 아무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

[日本經濟新聞, 2014.12.01]



도쿄대, 슈퍼박테리아 살균 항생물질 발견

-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대부분의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슈퍼박테리아 ‘메티실린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을 살균시키는 새 항생물질을 발견했다고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Nature Chemical Bi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2년7개월에 걸쳐 일본 각지에서 채취한 1만4천여 종의 토양 세균을 조사·분석한 결과 오키나와현에서 채취한 세균이 MRSA를 살균시키는 항생물질을 생성함을 확인하고 ‘라이소신E’로 명명
- * MRSA는 인간의 비강 등에 붙어 있어 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환자에게는 폐렴과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위험성도 내포
- 연구팀은 쥐실험을 통해 라이소신E가, 기존 항생제가 투여 후 약 30분이 경과해야 비로소 MRSA 살균이 시작되는 데 비해, 1분 만에 99.99% 살균을 했으며 생체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 연구팀은 향후 7~8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조만간 MRSA 치료약 개발 실험에 착수한다는 방침

[Huffington Post, 2014.12.13]



도시바, 헬스케어 사업 확대 ... 가와사키 헬스케어개발센터 개소

- 일본 도시바가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와사키시에 헬스케어개발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16년 헬스케어 분야 R&D 비용으로 '14년 대비 30% 증액된 500억엔을 편성
- 120여 임직원으로 출범한 가와사키 헬스케어개발센터는 게놈 해석과 빅데이터 분석 등 헬스케어 사업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한 곳에서 연구해 첨단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 이와 관련, 도시바는 자회사인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가 제조하는 초음파진단장치 및 자기공명영상장치(MRI) R&D 기능도 가와사키센터로 이전할 계획
- * 초음파진단장치 및 MRI는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도시바는 수도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해 제품을 조기출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
- 도시바는 에너지와 반도체에 이어 헬스케어 사업을 제3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헬스케어 사업 매출을 '15년 6천억엔, '16년 7천200억엔, '17년에는 1조엔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

[Nikkei Asian Review, 2014.12.18]

1.4 중국



칭화대, 골절 뼈 신속 치료 기술 개발 추진

-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골절된 뼈를 신속히 치료할 뿐 아니라 뼈에 강한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뼈 치료 기술 개발을 추진
 - 연구팀은 창연과 인듐, 주석, 아연 등을 원료로 액체성 금속 합금을 제작해 가열한 뒤 골절 부위나 주위에 주입하면 이 합금이 빠르게 굳어지면서 골절된 뼈를 치료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
 - 또 금속 성분을 조정하면 합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 뒤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이 기술은 뼈 상처나 질병 치료에 큰 변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울버린(Wolverine)* 같은 초인적인 전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
- * 뼈에 강력한 힘을 주는 가상의 금속이 연결되어 있는 만화'엑스맨'에 등장하는 돌연변이 인간
- 한편 연구팀은 뼈 치료 기술 개발과는 별도로, 힘과 체력을 키우는 외골격을 생성할 수 있는 합금 연구도 진행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11.02]

1.5 EU



로슈·프로테나,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개발

- 스위스 로슈와 아일랜드 프로테나가 PRX002를 비롯해 ‘알파시뉴클레인(α -synuclein)’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약물 파킨슨병 치료제의 개발과 마케팅을 공동 진행하는 제휴를 체결
 - 이 항체약물들은 프로테나가 현재 전임상 단계의 개발을 진행 중으로, 특히 PRX002는 파킨슨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기대
 - * 알파시뉴클레인인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1형 신경퇴화, 다계통 위축증을 포함한 일부 신경퇴행성 장애 증상들에서 주요한 병태생리학적 원인을 제공
 - 양사는 로슈가 프로테나에 계약성자금 및 단기 임상성과금으로 4천5백만불과 개발 성과·허가 취득·매출목표 달성 등에 따라 최대 3억8천만불을 추가 지급한다는 데 합의

[Burrill Report, 2013.12.15]



사노피, 엘나일람 지분 인수 ... RNAi 치료제 권리 확보

- 프랑스 사노피가 희귀 유전질환 RNA간섭(RNAi)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인 미 엘나일람(Alnylam)의 지분 12%를 7억불에 인수
 - 사노피는 이번 인수로 오는 '20년까지 RNAi 치료제의 일종인 파티시란(patisiran)에 대한 권리를 기존 일본 및 아태지역에서 북미와 서유럽을 제외한 글로벌 모든 지역으로 확대
 - * 또 현재 2상 임상시험 중인 가족성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와 1상 임상시험 중인 혈우병 및 유전적 출혈장애 치료제 등 엘나일람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권리도 확보(북미 및 서유럽 제외)
 - 반면 엘나일람은 사노피로부터 R&D 자금과 함께 향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

- 한편 RNAi 치료제는 효소나 수용체 등 단백질에 작용하는 기존의 저분자 치료제와 달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mRNA)에 직접적·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유

[Burrill Report, 2014.01.17]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심장병·심근경색 병력 여성, 치매

위험 ↑ ”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연구팀이 심장병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저널(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65~79세 여성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심장병·심근경색 병력을 조사하고 매년 1회씩 8년에 걸쳐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기능을 검사
 - 그 결과 심장병을 겪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29%, 심근경색을 겪었으면 2배 정도 높았음을 확인
 - * 또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우회로수술을 받은 여성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동맥과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단순히 심장병과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로의 혈액 공급을 방해해 뇌세포를 서서히 괴멸시키기 때문으로 추정

[Hamilton Spectator, 2014.01.17]



스웨덴 룬트대, “링곤베리에 체중증가 억제 효과 탁월”

- 스웨덴 룬트대 연구팀이 링곤베리(lingonberry)에 체중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영양과 대사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Metabolism)에 발표
 - 연구팀은 일단의 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고지방과 저지방 먹이를 주고, 다시 이들을 소집단으로 분류해 각각 링곤베리·빌베리·라스베리·크로베리·블랙베리·아사이베리·블랙커런트·자두를 3개월간 먹이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고지방 먹이와 함께 링곤베리를 먹은 집단이 저지방 집단보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혈당과 인슐린 분비에도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
 - * 같은 고지방 집단 내에서도 링곤베리를 함께 먹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간 수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
 - 다른 베리류도 링곤베리만큼은 아니지만 효과가 다소 있었으나, 의외로 아사이베리를 먹은 쥐들에게서 체중과 지방간이 증가
 - 연구팀은 향후 링곤베리의 체중증가 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인간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계획

[Medical Daily, 2014.01.26]



노바티스, 미국과 일본에서 뇌물제공·과장광고 수난

- 스위스 노바티스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뇌물제공과 과장광고 혐의로 수난
 - 미 뉴욕 주정부와 워싱턴 주정부는 노바티스가 철분 배출제 엑스제이드(Exjade) 판매 촉진을 위해 기업형 약국 바이오스크립(BioScrip)에 뇌물을 제공해 ‘부당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했다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소
 - 이들 주정부는 바이오스크립측이 뇌물을 수령한 뒤 신부전과 위출혈 등 치명적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엑스제이드를 판매했으며,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재투약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혐의를 부인한 뒤, 자사는 의사 처방을 받아 자사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
 -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바티스 일본 법인을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Diovan)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를 부풀려 과장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Law365, 2014.01.27]



취리히대아동병원, 모세혈관 갖춘 인조피부 제작

- 스위스 취리히대아동병원 연구팀이 완전한 모세혈관과 림프관 시스템을 갖춘 인조피부 제작에 성공했다고 사이언스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채취된 피부 모세혈관과 림프관 세포를 용액에 넣어 피부 모양의 젤 위에 뿌린 후 이를 인큐베이터에서 피부조직으로 배양
- 그 뒤 이 인조피부를 쥐에 이식하자 피부의 림프관이 쥐 자체의 림프관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피부조직의 체액을 모아 배출함을 확인
 - * 뇌와 내이를 제외한 모든 신체조직에는 림프관이 존재하며, 이 림프관은 신체조직에서 나오는 체액을 혈관으로 방출·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손상된 피부조직에 체액이 고이는데 이 체액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장액종(seroma)이 형성돼 피부 봉합과 재생이 방해받는 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조피부에는 모세혈관과 림프관 같은 복잡한 조직이 없었다고 강조

[Science World Report, 2014.02.10]



프랑스 INMED, “분만 시 호르몬·화학물질로 자폐증 유발 가능성”

- 프랑스 지중해신경과학연구소(Mediterranean Institute of Neurobiology : INMED) 연구팀이 분만 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자폐증 행동을 보이는 새끼를 낳도록 유전자 조작한 임신 쥐에 염화물의 체내 수치를 낮추는 약물 ‘부메타나이드(bumetanide)’를 투여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새끼 쥐가 자폐증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소개
- 또 유전자 조작 없이 정상적인 임신을 한 쥐에게서는 분만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옥시토신(oxytocin)’의 작용을 저해한 결과, 태어난 새끼 쥐가 자폐증과 같은 행동을 보였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 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자폐증의 발병 메커니즘에 분만 시 호르몬과 화학물질이라는 새로운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Medical News Today, 2014.02.09]



노바티스, “기저세포암 경구 치료제 물질 효과”

- 스위스 노바티스가 진행성 기저세포암 경구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 ‘LDE225’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
- 회사 측은 가장 흔한 종류의 피부암인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기저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LDE225 200mg과 800mg을 투여한 임상 2상시험 결과 목표 수준의 종양반응률이 나타났다고 소개
- LDE225는 골수섬유증, 백혈병, 고형 종양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SMO* 저해제 계열의 약물
- * 줄기세포 유지와 조직 회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헤지혹(hedgehog)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 노바티스는 기존 기저세포암 치료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번 시험 결과는 LDE225의 잠재성을 입증한다고 강조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2.20]



노바티스, 영국 호삼 R&D 연구소 폐쇄

- 스위스 노바티스가 영국 잉글랜드 남부 웨스트 서섹스주의 상업도시 호삼(Horsham)에 소재한 R&D 연구소를 올해 안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 호삼 연구소가 폐쇄되면 최대 370여 인력이 직장을 잃게 되는 가운데, 노바티스는 지난해 11월 호삼 연구소의 미래에 대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폐쇄 가능성을 시사
- 노바티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자와 고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배치 조정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연구소 인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 또 이번 결정이 처방약 마케팅, OTC 제품, 백신, 안과질환 치료제, 동물약 부문 등 영국 내 다른 사업부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노바티스는 영국에서 그림스비(화학), 리버풀(백신), 던디(동물약), 서리(영업), 시팅번(진단의학) 등에 다양한 부서를 보유

[PMLiVE, 2014.02.28]



사노피, 악타비스 ‘드로네다론’ 특허침해 소송

- 프랑스 사노피가 ‘드로네다론(Dronedarone)’ 4백mg 정제 승인 신청서를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아일랜드 악타비스를 대상으로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사노피는 드로네다론 정제가 자사의 심부정맥 치료제 ‘멀택(Multaq)’의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이라고 주장
 - * 멀택은 급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율동(sinus rhythm)을 유지시켜 심방세동 위험성을 낮추는 약물
- FDA는 사노피가 ‘해치-왁스먼법(Hatch-Waxman Act)’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드로네다론의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을 오는 '17년 1월1일 또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보가 불가피
- 한편 악타비스의 경우 멀택 제네릭 제형의 승인을 가장 먼저 신청한 제약업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취득할 경우 6개월 동안 독점발매권이 보장

[Drug Discovery & Development, 2014.03.04]



바이엘, 혈우병 치료제 공장 신축에 5억 유로 투자

- 독일 바이엘이 자국 부퍼탈(Wuppertal)과 레버쿠젠(Leverkusen)시에 총 7억 유로 정도를 투자해 혈우병 치료제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
- 이들 공장에서는 현재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인 ‘BAY 81-8973’와 ‘BAY 94-9027’ 등 ‘재조합 인자 VIII(rFVIII)’ 혈우병 치료제들을 생산
- 바이엘은 특히 BAY 81-8973의 경우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물질이라고 소개한 뒤, 신축공장에서는 동물 또는 사람 유래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생산된다고 발표
- 현재 바이엘이 발매하고 있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코지네이트(Kogenate)’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 한편 글로벌 혈우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 '11년 85억불에서 연평균 5.9% 성장, 오는 '16년에는 114억불로 확대될 전망

[World Pharma News, 2014.03.18]



사노피·UCB, 면역 매개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제휴

- 프랑스 사노피와 벨기에 UCB가 류머티스 관절염과 위장병 면역 매개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염증 저분자량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제휴에 수반되는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이익 또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사노피는 계약성자금과 전임상 및 임상별 목표 달성에 따른 기술료 등으로 최소 1억 유로를 UCB에 지급할 계획
 - * UCB는 비경구 경관투여용 생물학적 치료제가 환자에게 효과를 입증해 온, 생물학적 경로를 겨냥한 저분자량 조절제 개발에 뛰어난 역량을 보유
 - 양사는 면역 매개성 질환들이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대한 공중보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 한편 미국에서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치르는 사회경제 비용만 매년 4백억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BioCentury, 2014.03.17]



코펜하겐대, 골수줄기세포로 심부전 기능 개선

-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이 중증 심부전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환자의 손상된 심근조직에 직접 주입, 심장기능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제 63회 미국심장학회(American Academy of Cardiology) 연차총회에서 발표
 - 연구팀은 중증 심부전 환자 59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실험군(39명)에는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인 중간엽기질세포를 증식시켜 주입하고 대조군(20명)에게는 식염수를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좌심실의 수축기말용적(end systolic volume)이 실험군은 6개월 만에 8.2ml 줄어든 반면 대조군은 6ml 증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심장의 혈액박출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
 - * 또 실험군은 손상된 심근조직이 대조군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향후 유럽인 심부전 환자 120~180명을 대상으로 보다 큰 규모의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

[Gene Therapy, 2014.04.02]



독일·프랑스 공동연구팀, 알츠하이머 치료물질 ‘MSX-3’ 개발

○ 독일 본대학과 프랑스 릴대학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의 핵심병변 중 하나인 뇌세포 내 타우 단백질 엉킴 현상을 억제하는 물질 ‘MSX-3’를 카페인에서 추출했다고 노화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Aging)지에 발표

- 연구팀은 아데노신 수용체의 과생형인 A2A를 차단했을 때 타우 단백질 엉킴 현상이 억제되고 부작용도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카페인에서 A2A를 억제하는 성분을 추출해 물에 잘 녹는 형태로 MSX-3 물질을 제작

* 아데노신은 뇌에서 여러 가지 수용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카페인은 이 수용체들의 활동을 차단

- 연구팀은 쥐 실험을 실시한 결과 뇌의 해마에서 진행되던 병변이 완화되고, 특히 공간기억이 크게 좋아지는 등 기억력 개선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설명

- 지금까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는 몇 가지 있었지만 효과가 미약한 한계가 있어 의학계에서는 이번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Pharma Times, 2014.04.09]



로열DSM, 중국 비타민C 제조업체 인수 추진

○ 네덜란드의 생명공학·종합화학업체 로열DSM이 중국 비타민C 제조업체 올랜드 뉴트라슈티컬 홀딩(Aland Nutraceutical Holding) 인수를 추진

- 로열DSM은 올랜드 이사회로부터 인수 단독협상자로 선정되어 올랜드측과 인수와 관련된 의견 조율 절차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향후 적절한 방식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

- 로열DSM은 올랜드를 인수할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비타민C와 함께 △뉴트리션 △동물사료 △퍼스널케어 등 부문에서도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로열DSM의 비타민C 제조공장은 영국 스코틀랜드 달리, 올랜드 공장은 중국 장쑤성에 위치해 있으며, 올랜드는 지난해 총 9천만불 상당의 비타민C 매출 실적을 기록

- 한편 미국 보건부는 하루 비타민C 섭취 권고량을 남성의 경우 90mg, 여성은 75mg로 설정

[Ardrossan & Saltcoats Herald, 2014.04.17]



바르셀로나자치대, 알츠하이머 치료 유전자 요법 개발

-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 연구팀이 초기단계의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유전자 요법을 개발했다고 신경과학저널(Journal of Neuroscience)에 발표
- 연구팀은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단백질 'Crtc1'의 생산 유전자를 초기 알츠하이머 모델 쥐의 해마에 주입시키자 Crtc1이 회복되면서 장기기억 응고화(memory consolidation)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되었음을 확인
- 또 DNA 마이크로칩을 이용해 건강한 쥐와 알츠하이머 쥐의 해마 유전자 발현을 비교분석했을 때에도 기억 응고화에 관여하는 일단의 유전자가 Crtc1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 집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
- 연구팀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면 Crtc1 단백질의 활동에 변화가 유발되고 이는 다시 뉴런의 신호전달 부위인 시냅스 담당 유전자들의 발현을 막아 기억력 상실을 가져온다며, 이번 유전자 요법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Medical Daily, 2014.04.26]



노바티스·GSK, 사업부문 빅딜 ... 글로벌 제약업계 지각변동 예고

- 스위스 노바티스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암치료 의약품 사업부문을 160억불에 인수하고, GSK는 노바티스 백신 사업부문을 71억불에 인수하기로 합의, 글로벌 제약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빅딜이 성사
- 이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의약품 합작사를 36.5(노바티스)대 63.5(GSK)의 지분율로 신설한다는 데 합의
- 이번 빅딜을 통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는 주력 사업인 항암제 분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GSK 역시 주력 사업인 백신·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여유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 이들 업체의 대규모 빅딜은 글로벌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업계 수익성을 높이는 계기도 될 전망
- 한편 노바티스는 이번 빅딜과는 별도로 동물의약품 사업부문을 미국 일라이릴리에 54억불에 매각하는 등 전면적 사업 개편을 추진

[Genome Web, 2014.04.30]



바이엘 헬스케어, 중국 베이징 공장 대폭 증설

- 독일 바이엘그룹 헬스케어 사업부가 중국 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억3천800만불을 투입, 베이징 현지 공장을 대폭 증설하기로 결정
 - 증설 공장은 물류시설과 분석실험실, 고속포장 라인 설비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가동되면서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와 항당뇨제 등 바이엘 헬스케어 사업부의 핵심 제품들을 생산
 - 바이엘그룹은 이번 조치가 중국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중국은 바이엘그룹의 아시아 최대이자 글로벌 투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지난 '13년 중국내 매출은 51억불
 - 현재 바이엘그룹은 광저우·청두·치둥 등에 공장을 가동 중이며, 베이징에는 1억 유로 상당이 투자된 연구소도 운영

[BioWebSpin, 2014.05.04]



웁살라대, “Y염색체 소실하면 암 사망 ↑ 수명 ↓”

-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생률이 높고 수명이 짧은 것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소실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지에 발표
 - 연구팀은 70대와 80대 초반 노인 1천150여 명에게서 채취한 혈액샘플에서 DNA를 분석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도출
 - * 이들 중 8%에서는 혈액세포에 Y염색체 소실이 있었고, 2%에서는 혈액세포의 35%에 Y염색체가 없었는데, 이들은 Y염색체가 정상인 자들에 비해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수명은 5.5년 짧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Y염색체가 소실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이 방치되기 때문으로 추정
 -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Y염색체가 X염색체에 비해 짧고 빈약해 정자 생산 이외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Y염색체에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가 상당히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

[Medical News Today, 2014.04.29]



바이엘, 머크 소비자 사업 부문 인수

○ 독일 바이엘이 미국 머크 소비자 사업 부문을 142억불에 인수

- 이에 따라 바이엘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클라리틴(Claritin), 코막힘 제거제 아프린(Afrin), 자외선 차단 로션 코퍼톤(Coppertone), 풋케어 제품 닥터솔스(Dr. Scholl's) 등 머크의 핵심 제품들을 확보
- 현재 바이엘의 소비자 사업 부문은 미국 J&J와 영국 GSK에 이은 글로벌 3위로 지난해 39억불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 인수로 입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2위로 올라서게 될 전망
- 이번 인수는 GSK와 스위스 노바티스의 소비자 보건 합작법인 설립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약업계에 글로벌 나온 대형 M&A
- 한편 바이엘은 고혈압 및 다른 심혈관계 질환 약물 아템파스(Adempas)의 일부 권리를 머크에 양도하기로 결정

[Chemical & Engineering News, 2014.05.12]



머크 KGaA, 이탈리아 생물의약품 공장 대폭 증설

○ 독일 머크 KGaA가 생물의약품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6천8백만불을 투입, 이탈리아 바리(Bari) 소재 공장을 대폭 증설하기로 결정

- 머크 KGaA는 나날이 증가하는 생물의약품 수요에 부응해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오는 '18년까지의 중기 사업전략인 'Fit for 2018'의 일환이라고 설명
- * 바리 공장은 독일 다름슈타트 및 스위스 오본 공장과 함께 머크 세로노(Merck Serono, 머크 KGaA의 제약 사업부)의 종진·완제품 생산 핵심 공장
- 머크 KGaA는 바리 공장에서 증설되는 제조시설을 주로 각종 액제를 시린지·바이알·앰플 형태 등으로 멸균 충전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며, 오는 '1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
- 한편 머크 세로노는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생물의약품 부문에서 올리고 있으며, 불임 치료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업체로 명성

[BioPharma, 2014.05.23]



노바티스, 옵토테크 ‘포비스타’ 판권 확보

- 스위스 노바티스가 10억불 이상을 투입, 미국 옵토테크의 안과질환 치료 후보 약물 포비스타(Fovista)에 대한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 양사는 노바티스가 포비스타 판권을 얻는 대신 계약금 2억불, 3상 임상시험 성과금 최대 1억3천만불, 향후 미국 외 지역 판매 승인 여부에 따라 최대 3억불과 매출로부터 최대 4억불을 옵토테크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현재 옵토테크는 포비스타를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 리제네론의 에일리아(Eylea), 로슈의 아바스틴(Avastin)과 루센티스(Lucentis) 같은 표준치료제와 병행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결과는 오는 '16년에 나올 전망
- * 망막 내 혈관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포비스타는 해당 질환에 대한 표준치료제가 혈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신생 혈관을 둘러싼 세포를 벗겨 내는 기능을 수행
- 한편 양사는 포비스타를 1회용 주사제 형태로 공동 개발 및 판매한다는 데도 합의

[US Trade Voice, 2014.05.29]



베링거인겔하임, 6억5천만불로 ‘프라닥사’ 소송 합의

-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이 혈액 응고저지제 ‘프라닥사(Pradaxa)’의 부작용과 관련된 미국 내 소송에서 6억5천만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원고측과 합의
- 이에 따라 베링거는 프라닥사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진행된 소송 4천여 건을 일괄 타결
- * 미국에서는 프라닥사를 복용한 뒤 심각한 출혈성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사망
- 그동안 베링거는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근거가 부족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자사에 잘못이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
- 그러나 소송이 법률사무소의 광고 수단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배심원단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의약품의 부작용 같이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과학적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판단, 합의키로 결정
- 한편 베링거는 소송에 합의했지만 프라닥사가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취득,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

[Wall Street Journal, 2014.05.28]



마드리드자치대, 레드와인에 치주질환 예방 효과 발견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 연구팀이 레드와인에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농업식품화학저널(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발표

- 연구팀은 치주질환 유발 세균을 배양해 바이오필름을 형성시킨 뒤 이를 △포도씨 추출물 첨가 레드와인 △알코올 없는 레드와인 △일반 레드와인 △물 △12% 에탄올 용액 등에 수분 동안 담근 후 나타난 반응을 관찰
- 그 결과 포도씨 추출물을 첨가한 레드와인과 알코올 없는 레드와인 및 일반 레드와인에 서 치주질환 세균이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 포도씨 추출물과 레드와인을 사용할 경우 치주질환을 예방하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치주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60~90%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한편 구강 내부에서 세균들에 의해 형성된 바이오필름에 레드와인의 항균 효과를 입증한 연구 사례는 이번이 처음

[Medical News Today, 2014.05.27]



로슈, 유전자 분석 업체 제니아 인수

○스위스 로슈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생명공학 업체인 미국 제니아 테크놀로지스(Genia Technologies)를 인수

- 양사는 로슈가 제니아를 인수하는 대가로 우선 1억2천5백만불의 계약성자금과 향후 유전자 분석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 최대 2억2천5백만불 등 최대 총 3억5천만불을 제니아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제니아는 나노기공(nanopore) 기술을 이용한 단일분자 반도체 기반 DNA 염기서열 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업체로, 플랫폼 개발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신속성과 감도는 배가시키는 기술을 보유
- 로슈는 인수 후속 절차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니아를 자사의 DNA 염기서열 분석 부문에 통합, 첨단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

[Forbes, 2014.06.12]



루벤가톨릭대, 당뇨병약 ‘메트포르민’ 이 노화 억제 확인

○ 벨기에 루벤가톨릭대 연구팀이 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metformin)’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발표

- 연구팀은 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에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결과 몸체가 줄어들며 현상이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주름이 생기지 않았으며, 노화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오랫동안 건강 상태를 유지했음을 확인

* 꼬마선충은 인간 유전자를 40% 이상 공유, 알파 치매 같은 질병과 노화 등 연구에 자주 이용

-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소량 증가시켜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뒤, 이번 실험이 인간 노화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산소분자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팀은 소량의 활성산소는 세포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EmaxHealth, 2014.06.06]



로잔연방공대, 약물 농도 따라 변색하는 분자 개발

○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가 혈중 약물의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분자를 개발했다고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Nature Chemical Biology)지에 발표

- 이 분자는 △특정 약물의 분자와 결합하는 단백질 수용체 △대상 약물의 분자와 유사한 소형분자 △발광효소 △발광효소가 발생시키는 빛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형광색소분자로 구성

- 연구팀은 면역 억제제 3종과 항간질약, 항부정맥약, 항암제 각각 1종을 대상으로, 이 분자가 주위의 약물 농도에 따라 변색함을 확인

- 이 분자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부작용이나 과소복용에 따른 무효과 등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연구팀은 당뇨병환자가 혈당치를 스스로 측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가 바늘로 채취한 혈액을 시험지에 올려놓고 작은 해독기에 삽입하면 검사 결과를 금방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Laboratory Equipment, 2014.06.17]



머크세레노, 머사나와 차세대 항체-약물 결합체 공동 개발

- 독일 머크KGaA의 자회사인 머크세레노가 미국 머사나(Mersana)와 차세대 항체-약물 결합체(ADC)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양사는 머사나의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세포독성 약제를 결합체로 시험함으로써 다수의 표적에 대한 ADC를 개발한다는 방침
- 이와 관련, 머사나는 플렉시머-ADC 제조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시행 및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제품의 상업화를 책임
- 대신 머크세레노는 머사나에 계약금과 성과금 및 출시될 제품의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제공(구체적 금액은 미공개)
- 머크세레노는 자사가 암 치료 개선과 환자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제휴가 최첨단 연구 및 기술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BioResearch Online, 2014.06.27]



로슈, 세라곤 인수 ... 항암제 개발 가속화

- 스위스 로슈가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세라곤 파마슈티컬스(Seragon Pharmaceuticals)를 최대 17억2천500만불에 인수
- 양사는 로슈가 세라곤에 7억2천500만불의 계약성사금을 전달하고, 향후 항암제 개발 성과 여부에 따라 최대 10억불을 추가 지급한다는 데 합의
- 대신 로슈는 세라곤이 그동안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해 왔던 차세대 경구용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ARN-810'에 대한 전권을 확보
- * 현재 ARN-810은 기존약에 저항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 중으로, 지금까지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 호르몬의 활성을 제한하는 긍정적 효과가 도출
- 한편 미국에서는 올해 4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새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들 중 최대 절반 정도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의한 유방암에 걸릴 것으로 전망

[Pharma Times, 2014.07.03]



UCB·더미라, ‘심지아’ 건선 치료제 개발 제휴

- 벨기에 UCB와 미국 더미라(Dermira)가 UCB의 종양괴사인자(TNF) 저해제 ‘심지아(Cimzia)’를 건선 치료제로 개발·마케팅하는 제휴를 체결
 - 이에 따라 더미라는 미국과 캐나다 및 EU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건선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심지아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3상시험을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권을 확보
 - * 현재 심지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확고히 자리잡은 반면, 피부질환인 건선 치료제로는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
 - 더미라는 대신 임상 3상시험에서 개발 성과가 도출되면 최대 4천950만불의 성과금을, 또 건선 치료제로 발매가 이루어질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4천만불을 UCB로부터 지급 받는다는 데 합의
 - 한편 UCB는 이번 제휴와는 별도로 양사간 협력 강화를 위해 500만불 상당의 더미라 주식을 매입하고, 향후 최대 1천500만불 상당의 주식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

[PharmaBiz, 2014.07.07]



사노피 파스퇴르·큐어백, mRNA 백신 파트너십 제휴

- 프랑스 사노피의 백신사업 자회사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와 독일 큐어백(CureVac)이 mRNA 백신 파트너십 제휴 협정을 체결
 - 양사는 큐어백이 보유한 RNActive 기술*을 이용해 새로 개발하는 mRNA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사노피 파스퇴르가 확보한다는 데 합의
 - * 백신의 온도가 증가하거나 예상치 않게 얼어붙더라도 성능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을 갖춘 mRNA 기반 백신을 만드는 신기술
 - 대신 사노피 파스퇴르는 mRNA 백신의 R&D, 제조 및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로열티 등 최소 1억5천만 유로를 큐어백에 지급
 - 사노피 파스퇴르는 큐어백의 혁신적 기술과 자체 보유한 기술이 결합되면 광범위한 적용증을 대상으로 한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양사는 지난 '11년에도 사전 정의된 병원체에 대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제휴 협정을 체결

[FierceDrugDelivery, 2014.07.09]



레겐스부르크대, 비만과 COPD 연관성 규명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연구팀이 비만, 특히 복부비만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캐나다의사협회저널(CMAJ)에 발표
- 연구팀은 50~70세의 일반인 11만3만279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허리둘레가 110cm 이상인 여성과 118cm 이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COPD 발병 위험이 72% 높았음을 확인
- 또 1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COPD 발병 위험이 29% 낮은 반면, 체중이 표준에 미달인 사람은 표준인 사람에 비해 56% 높은 것으로 분석
- * 조사 결과는 COPD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흡연과 무관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비만과 COPD 모두 호흡곤란을 유발하는데, 체중이 표준에 미달인 사람의 경우 영양부족·근육량 감소·염증 등으로 폐의 자가 치유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추정

[Tech Times, 2014.07.09]



독일 신경퇴행성질환센터, “액토스 복용하면 치매 위험 낮아져”

- 독일 신경퇴행성질환센터 연구팀이 다케다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에 치매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2014 국제알츠하이머협회컨퍼런스(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에서 발표
- 연구팀은 60세 이상 14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04~’10년 실시된 독일 헬스케어 플랜 자료를 분석(동기간 1만4천여 명에서 치매가 발생)
- 그 결과 액토스를 복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치매 발병률이 평균 6% 정도 낮았으며, 추가 처방받았을 때마다 위험은 더 큰 폭으로 감소
- * 컨퍼런스에서는 액토스와 같은 티아졸리딘디온(TZD) 계열의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집단이 인슐린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20% 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액토스가 모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뇌와 신경계 속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치매가 억제되는 것으로 추정

[Medscape, 2014.07.24]



AZ.로슈, 동반진단검사 개발 제휴

- 영국 AZ와 스위스 로슈가 항암제를 투여할 때 시행되는 동반진단검사(companion diagnostic test)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제휴를 체결
 - AZ는 이번 제휴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물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AZD9291’*의 임상시험을 최적화한다는 방침
 - * 특히 1세대 내피세포성장인자(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저해제들에 내성을 나타내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
 -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80~85% 정도를 차지하는 다빈도 암이나 진단시점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70% 가량이 이미 진행기 또는 전이기에 접어든 상태로 수술을 통한 절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
 - 한편 로슈는 이번 제휴로 혈액표본을 이용한 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 합병증 없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명

[Zenopa, 2014.07.31]



로슈, 산타리스 인수 ... RNA 타겟 치료제 R&D 강화

- 스위스 로슈가 생명공학업체 덴마크 산타리스(Santaris)를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로슈가 산타리스에 선금으로 현금 2억5천만불을 지불하고, 향후 연구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2억불 등 최대 4억5천만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산타리스는 RNA 타겟 치료제에서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LNA(Locked Nucleic Aci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생명공학업체
 - * BNA(Bridged Nucleic Acid) 기술로도 불리며, 기존의 안티센스나 siRNA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전의 항체나 저분자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로슈는 산타리스 인수를 통해 LNA 기술을 확보, 각종 난치성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
 - 한편 로슈는 산타리스를 인수하더라도 명칭만 로슈 코펜하겐 혁신센터로 개명한 뒤 지금까지처럼 계속 덴마크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

[FierceBiotech, 2014.08.07]



바이엘, 디멘션 테라퓨틱스와 혈우병 치료제 개발 제휴

- 독일 바이엘이 미국 디멘션 테라퓨틱스와 A형 혈우병의 발병원인을 세포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양사는 바이엘이 2천만불의 계약금과 연구결과에 따른 2억3천200만불 및 향후 출시될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를 디멘션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유전자 치료는 기능이 중단된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물이 아닌 교정 기능이 있는 유전자를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디멘션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널리 알려진 생명공학업체
 - * 현재 유전자 치료법은 네덜란드 생명공학업체 유니큐어(UniQure)가 초희귀질환인 지단백 지질 분해효소 결핍증(LPLD)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글리베라(Glybera)를 판매하는 단계까지 도달
 - 한편 일반적으로 A형 혈우병 치료제들은 평생에 걸쳐 1주마다 수차례 투여 받아야 하는 정맥주사용 제제로, 바이엘이 개발한 코지네이트(Kogenate)의 경우 '13년에 12억 유로 상당의 매출을 기록

[BioWorld, 2014.08.13]



민헨헬름홀츠센터, “당뇨병 치료제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

- 독일 민헨헬름홀츠센터(Helmholtz Zentrum München) 연구팀이 특정 당뇨병 치료제 2가지를 병용하면 2형 당뇨병 치료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당뇨병학(Diabet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SGLT2 억제제(SGLT2 inhibitor)를 병용하는 쥐실험을 실시
 - 그 결과 혈당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특히 식후 피크 혈당이 감소한 가운데 당화혈색소(A1c)*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 *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 분자가 혈액 속 포도당과 결합한 것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혈색소의 한 형태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SGLT2 억제제가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배설되게 만들지만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간에서는 포도당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때 메트포르민이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추정

[Diabetes in Control, 2014.08.08]



마기오레 병원, “비타민D 부족하면 체외수정 임신 가능성 ↓”

- 이탈리아 오스페달레 마기오레 병원(Ospedale Maggiore Policlinico) 연구팀이 비타민D가 부족하면 체외수정(IVF)에 의한 임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 발표
- 연구팀은 체외수정을 통해 불임치료를 받은 여성 335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혈중수치가 낮은 집단(실험군, 154명)과 정상인 집단(대조군, 181명)으로 구분한 뒤 임신 성공률을 비교
-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임신 성공률이 1/2 정도에 불과한 가운데, 비타민D 혈중수치가 20-30ng/ml 정도로 높으면 질 좋은 난자가 생성되고 체외수정된 배아의 질도 우수해 배아의 자궁착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가 비타민D와 체외수정 임신 사이 뚜렷한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2014.08.15]



노바티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가미다셀 인수

- 스위스 노바티스가 이식·재생의학용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이스라엘 가미다셀(Gamida Cell)을 인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노바티스가 일단 3천500만불로 가미다셀 지분 15%를 매입한 뒤, 오는 '16년 상반기 중 1억6천500만불을 투입해 나머지 지분 75%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는 데 합의
- 또 가미다셀이 현재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니코드(NiCord)*’의 개발과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허가 취득, 매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4억3천500만불을 추가로 노바티스가 가미다셀에 지급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
- * 백혈병과 림프종, 소아 겸상적혈구 빈혈 등의 혈액암을 겨냥해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로 현재 2상 시험이 진행 중

[PharmaBiz, 2014.08.20]



노보노디스크, 염증성 질환 R&D 중단

-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그동안 각종 염증성 질환들과 관련해 진행해 왔던 R&D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당뇨·비만 R&D에 전력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는 노보노디스크 경영진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신약후보물질들 중 항-인터루킨-20(anti-IL-20)의 개발 중단을 선언한 뒤 치료제 영역 설정에 대한 기업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출
- 노보노디스크측은 항-IL-20의 개발 중단은 자사가 항염증제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빨라야 오는 '20년대 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
- 그러나 당뇨병과 당뇨병 합병증, 비만 등 분야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R&D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
- 이번 결정으로 노보노디스크 임직원 400여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가운데, 회사측은 이들을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신속한 후속 작업 마련에 착수

[Bioresearch Online, 2014.09.04]



로슈, 인터문 인수 ... 호흡기 질환 사업 강화

- 스위스 로슈가 호흡기 질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생명공학업체 인터문(InterMune)을 총 83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인터문은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 IPF)* 치료제 '에스브리에트(Esbriet)' 개발업체로, 에스브리에트는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안 승인이 무난할 전망
- * 섬유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폐 기능이 상실되고 폐 내부에 반흔을 남기는 치명적인 질환이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승인된 IPF 치료제가 없는 상황으로, 에스브리트가 승인을 받으면 오는 '19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연 10억불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로슈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낭성섬유증 치료제 '폴모자임(Pulmozyme)'과 천식 치료제 '졸레이어(Xolair)'를 발매하고 있으며, 중증 천식 치료제 '레브리키주맵(lebrikizumab)' 등 새로운 호흡 질환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

[San Francisco Business Times, 2014.09.02]



머크세레노, 중국에 대규모 제약공장 착공

- 독일 머크KGaA의 자회사 머크세레노가 8천만 유로를 투입, 중국 상하이 난통경제기술연발구(Nantong Economical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 NETDA)에 대규모 제약공장을 착공
 - 4만m² 부지에 설립되는 이 공장은 머크KGaA가 글로벌 각국에 설립한 제약공장 중 두 번째이자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
 - 오는 '16년 완공될 이 공장에서는 항당뇨제 ‘글루코파지(Glucophage)’, 고혈압·심부전 치료제 ‘콩코르(Concor)’, 갑상선 호르몬제 ‘유로타이록스(Euthyrox)’ 등 제품들의 양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
 - * 이 제품들은 머크세레노가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필수약품 리스트를 참조해 선정
 - 머크세레노는 이번 제약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필수약품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들을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제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전망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09.05]



사노피, 상하이에 ‘아태 R&D 허브’ 구축

- 프랑스 사노피가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태평양 R&D 허브’를 구축
 - 아태 R&D 허브는 △바이오의약품(사노피 바이오파마) △희귀질환 치료제 (사노피 젠자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동물약품(사노피 메리알)의 R&D 역량을 결집한 사노피 R&D의 중심체
 - 1천400여 인력들이 상주하는 상하이 허브는 사노피 글로벌 R&D 허브 중 5번째이며 아태 지역에서는 처음
 - 사노피는 아태 R&D 허브 구축과 함께 중국 GPCR 연구소 및 ZAI랩과 아태 지역에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과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치료 솔루션을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모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사노피는 아시아태평양이 경영 전략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R&D 허브 구축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자평

[ChinaBio Today, 2014.10.02]



머크, 시그마 알드리치 인수 ... 생명공학 사업 강화

- 독일 머크가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Sigma-Aldrich)를 170억불에 인수키로 결정
 - 양사는 머크가 시그마 알드리치의 주식 100%를 최근 1개월 평균 주가에 36%의 프리미엄을 붙인 주당 140불에 매입한다는 데 합의
 - 이번 인수로 머크는 향후 3년간 매년 3억4천만불 상당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1천 300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머크는 이번 인수가 제약, 화학, 생명공학의 3개 사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완벽하게 어울리는 두 회사가 R&D, 제약 및 바이오제약 관련 제조, 진단의학, 테스트 랩(testing lab)과 관련해 제품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13 회계연도 양사 매출은 총 61억불이며, 이자와 법인세 및 감가상각 차감전 영업 이익(EBITDA)은 20억불

[Life Scientist, 2014.10.01]



신경과학의학연, 카레 원료에 뇌 손상 치유 효과 발견

- 독일 신경과학의학연구소 연구팀이 카레의 원료인 강황에 함유된 물질 '방향성 정유 (aromatic-turmerone)'가 뇌 손상을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를 줄기세포연구와 치료(Stem Cell Research & Therap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 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신경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한 뒤 방향성 정유에 노출시키고 관찰한 결과 신경줄기세포가 증가했으며, 방향성 정유 노출량이 많을수록 증식 효과는 더욱 컸음을 확인
- 연구팀은 또 이 신경줄기세포에 방향성 정유를 첨가한 뒤 쥐의 뇌에 주입하고 신경줄기세포와 결합할 수 있도록 추적자인 브로모디옥시우리딘을 투여한 뒤 7일 후에는 양전자 방출단층촬영(PET)으로 쥐의 뇌를 관찰
- 그 결과 포유동물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장소인 뇌실하 영역(subventricular zone : SVZ)이 넓어지고 기억증추인 해마가 확대된 가운데, 방향성 정유가 다양한 뇌세포의 분화를 촉진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 카레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Daily Times, 2014.10.11]



제네바대, MRI로 알츠하이머 위험 예측

- 스위스 제네바대 연구팀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장래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영상의학(Radi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70대의 건강한 노인 148명(실험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 65명(대조군)을 대상으로 MRI의 일종인 ASL(동맥스핀라벨링) 촬영과 함께 기억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표준검사를 시행하고 18개월 후에 다시 검사
- 그러자 실험군 중 73명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18개월 전에 촬영했던 이들의 ASL 차트를 대조군의 차트와 비교분석
-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조직관류율이 저하되는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으며, 특히 공간감각, 기억, 감정 자극 등에 관여하는 후대상회(posterior cingulate cortex)의 조직관류율이 크게 떨어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후대상회 부위의 혈류량이 감소하면 신경세포의 활동도 위축된다고 하며, 이번 실험은 비침습적 수단인 ASL를 통해 알츠하이머 위험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설명

[Food World News, 2014.10.12]



노바티스, BMS와 폐암 치료제 임상시험 협력

- 스위스 노바티스가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와 폐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협력하기로 결정
- 노바티스는 합의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3개의 분자 표적 화합물과 BMS의 PD-1 저해제 옹디보(Opdivo)의 병용요법을 연구하는 임상 1상 및 2상 시험을 자사가 주도해 진행한다고 발표
- * 또 화이자의 젤코리(Xalkori)로 치료받은 이후에도 병이 진행됐거나 젤코리를 사용할 수 없는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옹디보와 자사 제품 자이카디아(Zykadia)의 병용요법도 연구한다고 소개
- 노바티스는 이번 제휴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항암면역 치료제 부문에서 양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노바티스는 올해 미국 생명공학 업체 코스팀 파마(CoStim Pharma)를 인수하면서 항암면역 치료제 사업을 강화

[CURE, 2014.10.16]



사노피,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 판권 획득

- 프랑스 사노피가 미국 맨카인드(MannKind)로부터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Afrezza)’의 판권을 획득
 - 이를 위해 사노피는 맨카인드에 1억5천만불의 계약금과 향후 제품화에 성공하면 7억7천500만불 등 총 9억2천500만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
 - * 현재 맨카인드는 미국 코네티컷주 덴버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아프레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 흡입형 인슐린은 기존의 주사제형 제제보다 사용이 편리한 반면 인슐린이 폐로 들어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아프레자가 오는 '19년에는 10억불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아프레자는 1형, 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속효성 인슐린 치료제로, 환자가 식사를 시작할 때나 식사 시작 후 20분 안에 소형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며 미국 출시는 '15년 1분기로 예정

[BioWorld, 2014.10.22]



스웨덴 공동 연구팀, 뇌졸중 자가치유 메커니즘 규명

- 스웨덴 룬드대와 카롤린스카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에서 성상세포(astrocyte)가 새 신경세포를 생산해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상세포가 뇌졸중으로 손상된 부위에서 미성숙 신경세포로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한 신경세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유전자 세포지도 방법을 통해 확인
 - * 중추신경계에서 패킹 조직을 형성하는 신경교세포인 성상세포는 물질대사에 관계하고, 손상된 조직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등 뇌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연구팀은 또 성상세포가 신경세포로 변화될 때 나오는 신호체계도 파악
 - 이번 메커니즘 규명은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 같은 뇌손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기능을 잃은 뇌세포를 대체하는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Hattiesburg American, 2014.10.19]



우메아대, 헤르페스와 알츠하이머 상관관계 규명

- 스웨덴 우메아대 연구팀이 입술 등 얼굴 부위에 주로 물집 형태로 나타나는 헤르페스(Herpes)에 감염되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지에 발표
- 연구팀은 3천432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11.3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가끔 헤르페스가 나타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
- 또 알츠하이머 환자 360명과 이들과 연령대가 같은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유자는 비보유자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
- *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혈액 샘플이 채취된 시기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기 평균 9.6년 전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신체 면역력이 취약해졌을 때 감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뇌에까지 침입해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병변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추정

[Medical Daily, 2014.10.26]



머크, 영국암연구소·웰컴트러스트와 항암제 개발 제휴

- 독일 머크가 자회사 머크세레노(Merck Sereno)를 통해 영국암연구소(Institute of Cancer Research) 및 웰컴트러스트재단(Wellcome Trust Foundation)과 공동으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이들은 뇌 허혈(brain ischemia)로 인한 DNA 손상 및 신경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효소인 탄키라제(tankyrase) 저해제를 공동 개발한다는 데 합의
- 이를 위해 머크세레노와 영국암연구소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자의 독립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탄키라제 저해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머크세레노와 웰컴트러스트가 공동 분담하기로 결정
- 또 머크세레노는 탄키라제 저해제가 개발되면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대신, 출시되는 제품의 판매출을 기반으로 영국암연구소와 웰컴트러스트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

[Pharma Field, 2014.11.05]



신시내티아동병원, 줄기세포로 소형 위 제작

- 미국 신시내티아동병원 연구팀이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의 2가지 줄기세포를 이용해 시험관에서 소형 위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이 소형 위는 직경이 3mm 정도이며, 실제 인간의 위처럼 속이 비고 내막은 위선(gland)과 위공(pit)들로 주름이 잡혀있음이 확인
- 연구팀은 또 위에만 존재하는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를 이 소형 위에 집어넣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자신의 단백질을 주변의 상피조직 속에 주입하면서 소형 위를 감염시키기 시작했음을 확인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식품을 통해 감염되며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으로 추정
- 연구팀은 줄기세포로 만든 위조직을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질병을 유발시키는 경로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이 소형 위조직을 위궤양으로 위벽에 뚫린 구멍에 이식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Diabetes Insider, 2014.11.02]



웁살라대, “Y염색체가 수명 유지 역할 가능성”

-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이 남성이 보유한 Y염색체가 암에 대항하고 수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인간유전학회(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70~84세의 노인 1천153명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DNA를 분석한 뒤 최장 40년 동안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혈액세포 속 Y염색체가 크게 줄어든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암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수명은 평균 5.5년 짧은 것으로 분석
- *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와 무관
- 지금까지 Y염색체는 나이가 들면서 체세포 속에서 점차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Y염색체의 소실이 암으로 인한 사망과 수명 단축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Y염색체 유전자들이 종양억제 같이 건강한 삶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추정

[Medscape, 2014.10.31]



노보노디스크, 1억2천600만불로 첨단 당뇨 R&D 시설 신축

-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1억2천600만불을 투자, 수도 코펜하겐 서쪽에 위치한 몰뢰브(Måløv)시에 첨단 당뇨 R&D 시설을 신축
 - 총 건평 1만6천500㎡의 이 R&D 시설의 명칭은 ‘당뇨병 연구동(Diabetes Research House)’으로 이미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오는 '16년 초부터 350여명의 당뇨병 전문 인력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
 - * 몰뢰브 시당국은 공사 기간 동안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당뇨병 연구동은 중앙에 오피스와 4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중심으로 양 날개 부분에 2곳의 연구시설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
 - 노보노디스크 측은 당뇨병 연구동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생명공학·단백질·화학 등 분야에서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1형 및 2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11.04]



로슈, 중국에 대규모 진단의학 생산공장 신축

- 스위스 로슈가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위치한 산업 집적단지 ‘쑤저우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에 향후 3년간 총 4억5천만 스위스프랑(미화 약 4억6천500만불)을 투자해 대규모 진단의학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
 - 이번 계획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단의학 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축 공장은 특히 면역화학 및 임상화학 분야의 검사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주력
 - * 로슈측은 쑤저우 공장에 앞으로 2~3년여 동안 600명 이상의 인력을 총원할 계획
 - 쑤저우 공장은 진단의학 부문에서 로슈의 8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번째 공장으로, 오는 '18년부터 완전가동 체제에 돌입될 예정
 - 로슈 측은 쑤저우 공장이 완공되면 아태지역 내 공공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harma & MedTech, 2014.11.17]



UCB, 미국 제네릭 자회사 ‘크레머스’ 매각

- 벨기에 UCB가 미국내 제네릭 자회사 ‘크레머스 어번 파마슈티컬스(Kremers Urban Pharmaceuticals)’를 15억불에 미국 민간투자회사 애드벤트 인터내셔널과 에비스타 캐피털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결정
 - UCB 측은 매각 대금을 회사 부채를 감축하고 전략적 투자 역량을 강화해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매각에 대해 신경의학과 면역학 등 핵심 사업 부문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
 - 애드벤트와 에비스타는 민간투자회사 특성상 인수한 크레머스를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번 매각에 따라 크레머스 자산들이 UCB에서 완전히 분리되면서 당장 '14 회계연도 성과들이 UCB의 경영실적에 불포함
 - * 이에 따라 UCB 측은 '14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31억5천만~32억5천만 유로, 수익은 5억9천만~6억2천만 유로, 주당순이익은 1.40~1.55 유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Outsourced Pharma, 2014.11.13*]



사노피, 세계 최초 Dengue 백신 내년 시판

- 프랑스 사노피가 세계 최초의 Dengue 백신을 내년 하반기에 시판할 계획
 - 사노피는 현재 개발 중인 Dengue 백신이 아시아와 중남미 10개국 3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Dengue 중증화로 인해 입원할 위험을 80.3% 감소시켰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 또 오는 '20년까지 최대 18개의 획기적 신약을 개발할 계획임을 피력
 - 이와 관련, 사노피는 지난 20여 년간 Dengue 백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총 17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년 최고 1억명 정도가 Dengue 에 감염되고 이중 인도에서는 600만명 정도가 감염돼 Dengue 백신이 출시되면 사노피는 인도에서만 10억불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

[*Financial Times, 2014.11.20*]



바헤닝언대, “비타민B12·엽산, 기억력 개선 효과 없어”

-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연구팀이 비타민B12와 비타민B의 일종인 엽산에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Neur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평균연령 74세인 노인 3천여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군에는 비타민B12 500 μ g과 엽산 400 μ g을, 대조군에는 위약을 매일 2년 동안 복용하게 하고 임상시험 시작과 종료 때 기억력 및 사고력 검사를 진행
- 그 결과 처음엔 양 집단 모두 혈중 호모스테인(homocysteine) 수치가 높았고 2년 후에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호모스테인 혈중수치가 감소했으나 기억력과 사고력 검사 성적은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 그동안 학계에서는 비타민B12와 엽산이 기억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과다를 억제하므로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를 볼 때 비타민B12와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맞지만 기억력을 개선하지는 않아 치매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Pharmaceutical Journal, 2014.11.20]



스위스 연구소, 커피에 알츠하이머 ↓ 효과 발견

- 스위스 커피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on Coffee : ISIC)가 하루에 커피를 3~5잔 마실 경우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유럽 알츠하이머병학회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과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이 염증을 감소시켜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의 손상을 억제한다고 설명
- 특히 커피를 하루 3~5잔 섭취하면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과 타우 단백질 엉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고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
- * 그러나 이 효과는 4년 정도로, 이후에는 효과가 점점 감소한다고 언급
- 한편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와 마이애미대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도 경미한 인지능력 손상을 겪는 이들이 카페인을 다량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1.29]



바이엘, 실적 부진 당뇨병 장비 사업 매각 검토

- 독일 바이엘이 당뇨병 장비 사업 매각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 이는 의료기기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의약품 사업에 주력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생명과학 사업에도 한층 중점을 두기 위한 목적
 - 바이엘은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매각 작업을 위탁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매각 금액이 10억~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바이엘의 당뇨병 장비 사업은 그동안 치열한 경쟁과 의료비 절감 압력으로 인해 고전해 온 가운데, 올 들어 9개월간 혈당측정기 ‘콘투어(Contour)’를 비롯한 제품의 매출은 4억7천8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 바이엘은 당뇨병 장비 사업을 매각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사업도 분리를 검토하는 등 주변사업 정리에 본격 착수
- * 바이엘은 지난 9월 중재시술 의료기기 사업을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4억1천500만불에 매각했으며, 10월에는 머크의 OTC 사업을 142억불에 인수

[Med Device Online, 2014.12.02]



웁살라대, “흡연이 Y염색체 소실 가속화”

-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이 담배를 피울 경우 Y염색체의 소실 속도가 빠르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속도는 가속화된다고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노인 남성 6천여명의 혈액샘플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Y염색체가 감소했으며 특히 흡연자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확인
- * 70세 이상 노인 15%에서 최소 10% 이상 Y염색체 소실이 나타난 가운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Y염색체 소실 가능성이 2~4배 높았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
- 또 고혈압, 과체중, 당뇨병, 운동부족 등 다른 위험요인들을 살펴봤지만 오로지 흡연만이 Y염색체 소실과 연관이 있었으며, 흡연하다 금연한 사람은 비흡연자와 Y염색체 소실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Y염색체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종양 억제 같은 건강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남성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연구는 흡연이 특히 남성 흡연자에 유해함을 시사한다고 설명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2.09]



로슈, 오스트리아 두탈리스 인수 ... 생명공학 사업 강화

- 스위스 로슈가 두타맵(DutaMab) 플랫폼 기술로 휴먼 이중특이성 항체 개발에 주력해 온 오스트리아 생명공학기업 두탈리스(Dutalys)를 인수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로슈는 두탈리스에 계약금 1억3천400만불과 향후 도출될 성과에 따라 최대 3억5천500만불 등 총 4억8천900만불을 지급할 계획
 - 두타맵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먼 이중특이성 항체들은 특정 치료제 분야에서 최고의 약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
 - * 지금까지의 이중특이성 항체는 유전적 조작을 거쳐 2개의 모노클로날 항체들이 서로 별개의 항체들과 결합되도록 한 인조 단백질인 반면, 두타맵 플랫폼 기술을 이용할 경우 고도의 친화성과 높은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별 휴먼 이중특이성 항체들의 결합이 지원
 - 로슈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생명공학 사업을 강화하면서 특히 치료용 항체 분야 개발에서 선도주자의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명

[Bio Spectrum, 2014.12.21]

1.6 아시아



애브비, 싱가포르에 바이오로직 원료 생산 신규 공장 건립

- 미 애브비가 바이오파마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3억2천만불을 투자, 신규 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
 - 신규 공장은 애브비의 종양과 면역 제품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소분자 제품과 바이오로직 원료를 생산하면서 애브비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
 - 애브비는 싱가포르 공장이 미국, 유럽,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 12개 제조공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며, 오는 '19년 250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된다고 소개
 - 한편 애브비는 현재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에 R&D 부서 그 밖의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팅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이들 R&D와 마케팅 부서를 지원하는 120명의 인력을 운영

[Asia One, 2014.02.09]



호주 애들레이드대, 포도씨에 대장암 치료 효과 발견

-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이 포도씨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탄닌(Tannin)이 대장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포도씨에서 추출한 탄닌을 냉동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뒤, 시험관에서 대장암 세포를 이 분말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탄닌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제의 효과를 26% 높여 준 가운데, 항암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인 염증 발생은 최고 55%까지 감소시켰음을 확인
 - * 그러나 건강한 대장 조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탄닌이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

[EmaxHealth, 2014.02.17]



랜박시, 원료약 토안사·데와스 공장 가동 중단

- 인도 랜박시가 자국 내 원료약 생산 토안사(Toansa)와 데와스(Dewas) 공장 가동을 중단
 - 이번 조치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토안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자 토안사 공장과 함께 데와스 공장의 생산과 품질관리 공정에서의 문제점도 품질관리 부서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목적
 - * 이들 공장은 인도·미국·남아공 등 8개국의 랜박시 제제공장에 원료약을 공급
 - 이에 앞서 랜박시는 의약품 안전실태 조사차 인도를 방문한 마가렛 햄버그(Margaret Hamburg) FDA 국장에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했으나 실패
 - * 햄버그 국장은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원료는 생산지에 상관없이 FDA의 품질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도에서는 허술한 안전기준에다 의약품 실험결과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한편 FDA는 지난 '13년 3억불을 투입,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160곳에 달하는 인도 내 제약공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

[The Hindu, 2014.02.25]



인도네시아 제약업계 실적 양극화

- 지난해 인도네시아 제약업계에는 원료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영기업이 루피아의 가치폭락으로 고전한 반면, 민간기업은 사업 다각화로 성장을 지속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 실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
 - 국영 제약업체인 키미아 파마(Kimia Farma)는 '13년 2천140억 루피아(미화 약 1천875만 불)의 순익을 기록, 순익 증가율이 '12년 19.4%에서 '13년 46%로 급락
 - 반면 민간업체의 실적은 호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 외자계 기업인 독일 머크 현지법인의 순익은 1천754억 루피아로 전년대비 62.7% 증가(순매출은 9천3백억 루피아에서 28% 증가한 1조2천억 루피아)
 - * 전문가들은 머크의 경우 처방약 이외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사업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의 의료 컨설팅업체 퍼시픽 브리지 메디컬(Pacific Bridge Medical)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은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12.5%에 이르는 가운데 현재 규모는 65억불 정도로 추산

[Jakarta Post, 2014.03.21]



호주 애들레이드대, 단백질 수치 변화로 위암 진단

-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이 단백질의 혈중 수치 변화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생화학-생물물리학 회보(Biochimica et Biophysica Acta)에 발표
- 연구팀은 △아파민 △클루스테린 △합토클로빈 △비타민D 결합 단백질 등 4가지 단백질의 혈중 수치 변화를 종합하면, 위암 진단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민감도(sensitivity)와 선택도(selectivity)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
- 연구팀은 초기 위암환자 11명이 포함된 37명의 위암환자와 위장질환이 있지만 위암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법을 실험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4가지 단백질의 혈중 수치가 크게 차이났음을 확인
- * 이 단백질 표지 각각은 기존 위암 식별 임상표지인 CA72-4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연구팀은 이 혈액검사법이 향후 3~5년 내 실용화되고, 대장과 식도 같은 다른 위장관에서 발생한 암의 진단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

[Radio Adelaide, 2014.03.23]



화이자·GSK,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 미국 화이자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새로운 제약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로의 진출을 확대
- 화이자는 자카르타 동부 파사르르보(Pasarrebo) 소재 공장을 증축해 경구용 의약품 생산을 현재 연간 1억7천만정에서 3억정으로 76% 정도 늘릴 계획
- * 화이자는 현재 파사르르보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80% 정도를 내수시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20%는 홍콩·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수출
- GSK는 4천100만불을 투입해 인도네시아 사라스바티 벤처캐피탈(Sarasvati Venture Capital)의 컨슈머 헬스 사업권 지분 30%를 인수하는 데 성공
- 현재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18년에는 제약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

[Jakarta Post, 2014.04.05]



디킨대, “고령자에게 BMI 기준은 부적절”

○ 호주 디킨대 연구팀이 체질량지수(BMI)*를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미국 임상영양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서 주장

*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18.5~24이면 정상, 25~29.9 과체중, 30 이상 비만, 35~39.9 고도비만, 4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

-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20여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12년 동안의 BMI 자료를 조사
- 그 결과 BMI 27.5 집단이 사망률이 가장 낮고 22~23 집단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도 23~33 집단이 18.5~25 집단에 비해 장수함을 확인
- * 25~29.9 집단은 23~23.9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21~22 집단은 12%, 20~20.9 집단은 19% 높은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은 과체중 집단이 아니라 정상 범위 내 하위집단임을 시사한다며, 고령자들은 이상적인 체중조절보다는 만성질환과 신체활동 등 다른 요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University World News, 2014.04.04]



선파마, 램박시 인수 ‘파란불’

○ 인도 안드라프라데쉬주 고등법원이 선파마(Sun Pharma)의 램박시(Ranbaxy) 인수 시도 중단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선파마의 램박시 인수가 가시권에 진입

- 앞서 안드라프라데쉬 고등법원은 선파마의 램박시 인수 시도와 관련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2건의 조사 청구 요청이 제기됐다고 당분간 인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선파마에 명령
- 안드라프라데쉬 고법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SEBI)에 관련 주식거래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SEBI는 아직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불법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 이와 관련, 선파마는 어떠한 법과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
- 양사는 지난 4월초 선파마가 램박시 지분 100%를 40억불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인수가 실현될 경우 세계 5위의 제네릭 전문 제약업체이자 인도 최대 제약업체가 탄생

[Economic Times, 2014.05.27]



필리핀 의약품 시장, '20년 80억불 규모 성장 전망

- 시장조사사업체인 영국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는 지난해 43억불 정도였던 필리핀 의약품 시장 규모가 향후 연평균 9.4% 증가, 오는 '20년에 이르면 80억불로 확대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 글로벌데이터는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의약품 시장이라는 사실을 강조
- 또 필리핀에는 전반적으로 약가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진출을 서두를 충분한 유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
- * 필리핀건강보험공단(PHIC)은 아직까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높은 약제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수입 의약품 시장은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형성
- 그러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정부의 긴축 정책기조 등이 가까운 장래에 의약품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05.27]



모나쉬대, 출산 진통 스위치 'hERG' 발견

- 호주 모나쉬대 연구팀이 임신 내내 자궁이 수축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가 출산 때에 이르면 이를 풀어주는 스위치'hERG'를 발견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지에 발표
- 연구팀은 임산부 70명으로부터 채취한 자궁근육 조직의 전기신호를 분석
- 그 결과 자궁에 있는 hERG라는 칼륨이온 통로가 임신 중에는 자궁수축을 차단하는 전기적 브레이크로 작용하다가 출산이 임박하면 특정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풀리고 자궁수축이 시작됨을 확인
- 지금까지는 자궁수축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자궁수축을 직접 촉발시키는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
-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분만시 진통을 유도하는 새로운 약과 함께 조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Futurity, 2014.06.23]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비타민D 부족하면 혈압 상승”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연구팀이 비타민D가 부족하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랜싯 당뇨병과 내분비학(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유전자료를 이용하는 멘델집단 무작위(Mendelian Randomisation) 방식을 통해 유럽계와 북미계 주민 14만6천500여명의 자료를 분석
 - * 이 방식은 △교란요인 △편향 △인과관도를 피하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
 - 그 결과 혈중 비타민D 수치가 10% 높아질 때마다 최저혈압인 확장기혈압은 0.29mmHg, 최고혈압인 수축기혈압은 0.37mmHg 낮아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비타민D의 혈중 수치가 10%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은 8.1%씩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 한편 인체가 요구하는 비타민D는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90%가 공급

[Pharmacy News, 2014.07.04]



인도 시플라, 영국 자회사에 1억 파운드 투자

- 인도 시플라(Cipla)가 호흡질환 치료제에서 항암제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영국 자회사에 최대 1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
 - 시플라는 또 이번 투자를 통해 영국 내에서 R&D와 임상시험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플라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되기를 희망
 - 이와 함께 올해로 66돌을 맞이한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 제도 아래 고품질 의약품을 적절한 약가로 환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NHS 제도의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기대
 - 시플라는 영국 정부와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자회사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
 - 한편 시플라는 전세계 170여개국에 진출해 65개 약효군에 걸쳐 2천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의약품을 발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실적은 17억불 정도

[BioPharma Reporter, 2014.07.18]



퀵즐랜드의학연구소, “일광욕 시 췌장암 등 위험 ↓”

- 호주 퀵즐랜드 의학연구소 연구팀이 햇빛에 피부를 충분히 노출하면 췌장암 등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낮춰질 수 있다고 주장
 - 연구팀은 역학조사 결과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한 지역 주민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30~40%, 난소암과 식도암 발병 위험은 각각 30%와 40% 정도 낮았다고 발표
 - * 동일한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흰 피부를 가진 주민은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최고 47%나 낮았다는 내용도 포함
 - 또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체내 비타민D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어린이에게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골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 지난 '11~'12년 호주 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호주인 4명 중 1명은 비타민D가 부족
 - 한편 연구팀은 60세 이상 일반인 2만5천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5년 동안 비타민D 알약과 비타민D 성분이 없는 위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

[Sunday World, 2014.08.05]



애들레이드대, “생활습관 등 환경정보도 유전”

-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이 생활습관 같은 환경정보도 정자와 난자에 저장되었다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정자와 난자는 유전정보와 함께 음주·흡연·식습관·비만·약물 노출 같은 환경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며, 이 환경정보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의 건강을 미리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
 - 또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는 출생된 아기에게 대사질환, 심혈관질환, 면역기능 장애 등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
 - 연구팀은 환경정보가 정자와 난자에 유전정보와 함께 들어있는 후생유전학적(epigenetic) 정보로, 다음 세대까지 유전된다고 강조
 - * 후생유전학은 유전자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DNA의 구조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Science Alert, 2014.08.18]



인도 제약업체, 정부 규제 피해 해외에서 R&D 진행

- 선파마(Sun Pharma), 루핀(Lupin), 시플라(Cipla) 등 인도의 주요 제약업체들이 자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R&D를 진행
 - 선파마와 루핀은 미국에 R&D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시플라는 호흡기와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위해 영국에 1억 파운드를 투자
 - 이러한 움직임은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규정 마련 등 과도한 정부 규제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인도 대법원은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인도 제약업체 162개 연구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
 - * 또 인도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을 취득하는데만 1년이 걸리지만 미국에서는 28일 정도에 불과
 - 인도 제약업체들은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을 저가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다 수익성이 높은 안과, 경구 피임제, 흡입제 등 다양한 제품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개발
 - 한편 시장조사업체 CRISIL은 인도 20대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이 현재 5.8%에서 오는 '18년에는 6.5%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utsourced Pharma, 2014.09.11]



선파마, 머크 건설표제 ‘틸드라키주맵’ 판권 획득

- 인도 선파마가 미국 머크로부터 시험단계의 건설표제 ‘틸드라키주맵(tildrakizumab)’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
 - 양사는 선파마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틸드라키주맵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대신 머크에 8천만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
 - 또 머크는 틸드라키주맵과 관련된 모든 임상 개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선파마가 부담하기로 결정
 - * 현재 머크는 만성 판상형 건선에 대한 치료제로 틸드라키주맵을 임상 3상시험 중
 - 이와 함께 선파마는 제품 승인과 약물 부작용 검토, 승인 후 연구, 제조, 상용화 등 활동을 담당하고, 일정 단계별 지급금과 제품 매출 중 일부를 로열티로 머크에 지급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
 - 선파마는 이번 계약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 피부과 제품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IP Pro Life Sciences, 2014.09.25]



인도 OTC 의약품 시장, '16년 66억불 규모 성장

- 국산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 캠페인 ‘메이크 잇 인디아(Make In India)’를 전개하고 있는 인도 제약업체가 지난 '11년 30억불을 기록했던 자국 OTC 의약품 시장 규모가 오는 '16년에는 66억불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전망은 생활습관병의 확산으로 OTC 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약업체들이 낙후지역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거 나서면서 이들 지역에도 OTC 의약품이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
- 제약업체는 또 '11~'16년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2천550억불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는 브랜드 약물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 OTC 제약업체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
- 제약업체는 이와 함께 현재 세계 6위 제약시장인 인도가 '20년에는 3위로 뛰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
- * 현재 인도 제약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치 기준으로 약 2.4%

[New Indian Express, 2014.10.06]



세인트빈센트병원, 심장 재생 뒤 이식수술 성공

- 호주 세인트빈센트병원이 박동이 중단되었던 심장을 되살려내 심장질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
- 그동안 심장이식 수술은 장기 기증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심장이 뛰는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심장이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
- 그러나 세인트빈센트병원 측은 박동이 멈춘 심장을 적절히 보존하고 되살릴 수 있도록 미국에서 개발한 소위 ‘상자 속 심장(heart in a box)’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특수 보존법을 활용해 이식에 성공
- 병원 측은 20분 정도 박동이 멈췄던 심장을 기증자 체내에서 식염수로 세척한 뒤 떼어내 특수 기계에 연결한 뒤 산소가 함유된 따뜻한 피를 흘려 넣어 박동을 되살리고 환자에게 이식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
- 병원 측은 이번 수술 성공이 심장이식 수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호주에서만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더 많은 환자가 심장이식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자평

[Straits Times, 2014.11.03]



오클랜드대 등, 임산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예측

-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와 국립성장발달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임산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
 - 연구팀은 싱가포르국립대의 협조 아래 싱가포르 임산부 83명의 머리카락 표본을 취합, 미숙아 출산 집단(실험군)과 정상아를 출산한 집단(대조군)의 머리카락에 존재하는 화학성분을 분석
 - 그 결과 양 측의 화학성분이 상당히 다른 가운데, 특히 실험군에서도 저체중 정도가 심한 신생아를 출산한 임산부들의 머리카락에는 ‘헵타데케인(heptadecane)’이라는 화학성분이 고농도로 존재함을 확인
 - * 연구팀은 화학성분 비교를 통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미숙아 출산 여부를 99.8% 정확도로 예측
 - 혈액이나 조직이 아닌 머리카락을 통해 미숙아 출산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가 미숙아 출산 위험 예측은 물론 출산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New Zealand Herald, 2014.11.07]



인도 제약시장, 만성 생활습관병이 성장 견인

- 전인도화학자약사기구(All India Organization Of Chemists & Druggists : AIOCD) 발표에 의하면 인도 제약시장은 만성 생활습관병이 성장을 견인
 - 인도 제약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기록
 - 부문별로는 항당뇨병제(연평균 8%)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비뇨기 약물(7.6%)과 피부 치료제(+7.2%)도 평균 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한 반면, 항생제와 진통제 등 전통적 급성 치료제들은 평균 성장률을 하회
 -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도 지난 5년간 당뇨병, 비뇨기질환, 피부병 등 만성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의약품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전통적 급성 치료제보다 만성 생활습관병 치료제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이동
 - * 인도 정부의 약가 통제 정책이 주로 급성 치료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제약업체들이 주력 사업을 변경하게 된 하나의 원인
 - 이러한 추세는,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만성 생활습관병 발병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계속될 전망

[Economic Times, 2014.11.19]



자이더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 출시

- 인도 제약업체 자이더스 카딜라(Zydus Cadila)가 미국 애브비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익셈프티아(Exemptia)’제품 명으로 출시
 - 가격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휴미라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바이알 당 200불로, 카딜라는 인도에서 익셈프티아의 연매출이 10억~20억 루피(미화 약 1천600만~3천200만불)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카딜라는 또 오는 '16년과 '18년에 휴미라 특허가 각각 만료되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과도 바이오시밀러 시판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중
 - 휴미라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연매출은 120억불을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지난 3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7.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 한편 미국 암젠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로 개발 중인 ‘ABP 501’도 최근 3상 임상시험에서 휴미라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

[Bio Spectrum, 2014.12.13]

1.7 중동



이스라엘 테바, 미 뉴패스 합병 성공

- 이스라엘 테바가 편두통약 개발업체 미 뉴패스(NuPathe) 합병에 성공
 - 당초 뉴패스는 미 엔도가 합병하기로 했지만, 테바가 엔도가 제시한 금액에 28%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역전
 - * 테바는 뉴패스 인수에 주당 3.65불 총 1억4천4백만불을 지급
 - 또 테바는 뉴패스 매출이 연속 4분기, 혹은 편두통 진통 패치 제큐이티(Zecuity)* 출시 9년 이내에 1억불을 상회하면 주당 2.15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
 - * 편두통 치료제 약물인 수마트립탄(sumatriptan)을 패치제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1회 부착하면 4시간여에 걸쳐 피부를 통해 약물이 지속적으로 전달
 - 테바는 뉴패스와의 합병을 통해 중추신경 사업을 확장하고, 경피 전달 시스템 기술을 타 분야에도 확대·적용할 계획

[Businessweek, 2014.01.21]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A1c 수치가 2형 당뇨병 예고 지표”

-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당화혈색소(A1c) 수치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예고 지표로 정확도가 대단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가정의학저널(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에 발표
 - 연구팀은 '02~'05년 A1c* 검사를 받은 1만2백여명의 의료기록을 분석
 - *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혈액 속 포도당과 결합한 혈색소
 - 그 결과 A1c 수치가 정상 기준치인 5.5%에서 0.5% 올라갈 때마다 최대 7%까지 2형 당뇨병 위험이 2배씩 증가한 가운데, 5.5%에 못 미치는 사람도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히 높았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A1c와 2형 당뇨병 발병위험 사이의 관계를 수량화한 것으로, A1c 수치가 지금까지 인식됐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당뇨병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Daily RX, 2014.02.03]



사우디 제약업체·말레이 HDC, 향후 3년 내 할랄 백신 개발

○ 무스타파 모하메드(Mustapa Mohamed)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ITI) 장관이 사우디 제약업체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HDC)가 제휴, 향후 3년내 할랄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월드 할랄 컨퍼런스에서 발표

- 모하메드 장관은 그러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업체가 총 1억불을 투입해 HDC와 함께 뇌막염 백신을 중심으로 간염과 수막염균 감염증(meningococcal disease) 백신을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

* 할랄 백신은 이슬람의 '샤리아법(Sharia law)'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제조된 백신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돼지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슬람 교리에 맞게 진행

- 할랄 백신이 개발될 경우 무슬림들이 그동안 백신 제품에 대해 가졌던 샤리아법 위배 여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한편 할랄 식품과 화장품 등 할랄 제품은 정결하고 위생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Arabian Business, 2014.04.10]



테바, 라브리스 바이올로지스 인수 ... 통증 치료제 사업 강화

○ 이스라엘 테바가 미국 생명공학 업체 라브리스 바이올로지스(Labrys Biologics)를 인수

- 라브리스는 만성 및 발작성 편두통 치료제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으로, 양사는 테바가 라브리스에 우선 2억불의 계약성자금과 향후 치료제 개발 성과에 따라 최대 6억2천5백만불 등 총 8억2천5백만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

- 테바의 이번 인수는 라브리스가 현재 개발 중인 편두통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LBR-101'*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20~30억불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약물임을 감안한 결정

*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에 결합하는 휴먼 모노클로날 항체약물의 일종으로, 현재 만성 및 발작성 편두통 예방약물로서의 임상 2상 후기단계 연구가 진행 중

- 또 오는 '20년까지 통증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전략을 이행하는 데도 라브리스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인수 배경으로 작용

[Wall Street Journal, 2014.06.03]



텔아비브대, “유청 단백질에 혈당 저하 효과 탁월”

○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유청 단백질(whey protein)*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당뇨병학(Diabetology)지에 발표

* 탈지유를 pH4.6으로 조정하였을 때 침전되는 케이신을 제거한 나머지 용액에 함유된 단백질

- 연구팀은 표준 당뇨약인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를 복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는 물 250ml에 유청단백질 50g을 타서 아침식사 30분 전에 마시게 하고 대조군에는 위약을 주는 실험을 실시
- 이어 식후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에 각각 혈당을 측정한 뒤 2주일 후에는 두 집단을 서로 바꾸어 동일한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식후 혈당이 28% 낮아진 가운데 이러한 효과는 식후 초기에서 3시간이 경과하기까지 꾸준히 지속됐으며, 특히 식후 첫 30분 동안의 초기 인슐린 반응은 98%나 증가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청단백질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호르몬을 증가시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추정

[Diabetes, 2014.08.08]



테바, 14개 비핵심 약물 개발 중단 ... 중추신경계 연구 주력

○ 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업체인 이스라엘 테바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항암제와 여성 건강 관련 약물 등 14개 비핵심 약물 개발을 중단하고, 중추신경계 및 호흡기 약물 분야의 연구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

- 테바는 이번 결정으로 '15년에 1억5천만불 정도, '16년과 '17년에는 각각 2억불 이상의 R&D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테바는 절감된 비용을 호흡기와 중추 신경계 약물 등 핵심 제품 개발에 사용할 계획으로, 회사 전체적으로는 R&D 비용 증가 없이 핵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테바는 현재 중추 신경계 및 호흡기 약물에 대해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 중

- 테바는 오는 '19년까지 20개 정도의 중추 신경계 및 호흡기 계통의 약물을 비롯해 총 30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19년에는 이들 제품으로 40억불 정도의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Zenopa, 2014.10.15]

1.8 글로벌



룬드벡·오츠카,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 제휴 확대

- 덴마크 룬드벡과 일 오츠카가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 업무 제휴를 확대, 'Lu AF20513'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
 - 양사는 오츠카가 룬드벡에 계약금 4백만 유로를 지급하는 대신 룬드벡은 '14년부터 시행되는 임상 1상 시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데 합의
 - * Lu AF20513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과 축적을 억제하는 항베타 아밀로이드 백신
 - 양사는 현재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제로 '브렉스피프라졸(brexipiprazole)'과 'Lu AE58054'를 공동으로 개발 중
 - * 브렉스피프라졸은 차세대 도파민 D2 수용체 부분 작용제이고 Lu AE58054는 선택적 5HT6 수용체 길항제로, 두 약물 모두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

[QLife Pro, 2013.12.20]



글로벌 연구팀, 류마티스 유전학적 치료 가능성 제시

- 영 유전학연구소(Centre for Genetics)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구팀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전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와 일반인 총 3만여명의 DNA를 비교, 유전자 돌연변이인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 SNP)이 발현되는 부위가 존재함을 확인
 - 이에 따라 미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물론,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 질병에 대한 표적약물을 개발하는데 유전적 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을 전망
 - *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특정 SNP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은 이미 존재
 - 한편 이번 연구 도중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나타난 SNP가 특정 혈액암 환자들에서도 발견, 특정 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

[BBC, 2013.12.25]



글로벌 제약업체, 우루과이산 마리화나 구매에 관심

-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우루과이산 마리화나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디에고 카네파(Diego Cánepa) 우루과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스라엘·칠레·캐나다 제약업체가 우루과이 정부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의약 연구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
 - *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했으며, 법안은 서명 이후 120일이 경과하면 공식 발효
 - 법안은 △마리화나 재배·생산·판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에 등록된 개인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 소비를 허용하며 △일반 가정집에서는 정부 허가 아래 6그루까지 마리화나 재배가 가능하도록 규정
 -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루과이 국민 중 2/3 정도가 합법화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

[Cronista, 2014.01.07]



머크·노바티스, 사업 맞교환 가능성 제기

- 머크와 스위스 노바티스가 50억불 규모의 사업을 맞교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 양측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소비자보건 사업(머크), 동물보건과 백신 사업(노바티스)을 서로 맞교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
 - 거래가 성사될 경우 머크는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물보건과 백신사업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바티스는 미래 성장을 위한 암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 노바티스의 소비자보건 사업에는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틴(Claritin), 항진균제 로트리민(Lotrimin) 등에 대한 마케팅이 포함
 - 그러나 양측은 사업 맞교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

[Fierce Vaccines, 2014.01.13]



마이크로빅스, 노바티스에 백신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

- 캐나다 생명공학기업 마이크로빅스 바이오시스템스(Microbix Biosystems)가 스위스 노바티스를 상대로 백신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제기
- 마이크로빅스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지난 '04년 개발, '06~'11년 전세계 21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인플루엔자 백신 '바이러스맥스(VIRUSMAX) 기술'*이 노바티스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
- *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량을 크게 늘리는 데 유용한 기술
- 마이크로빅스는 바이러스맥스 기술이 백신 제조업계에 획기적인 효율성 향상을 초래하면서 전세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에 크게 기여했다며, 노바티스의 특허 침해 행위를 비난
-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시장은 최근 10여년 동안 급성장을 거듭해 온 분야로, '14년에는 시장 규모가 40억불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Patent Docs, 2014.01.12]



미·일 공동연구팀, 환상염색체 환자 염색체 이상 복원

- 미 케이스웨스턴대와 일 교토대 공동연구팀이 염색체의 구조가 변화된 환상염색체(ring chromosome)를 지닌 환자로부터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만들면 염색체 이상이 스스로 복원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이 환상염색체가 포함된 세포로부터 iPS 세포를 제작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10주가 경과하자 고리 모양의 염색체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2개의 염색체를 지닌 세포가 생성
- * 환상염색체는 한 쌍의 염색체 가운데 1개가 고리 모양인 염색체로, 발육불량이나 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연구팀은 환상염색체가 사라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염색체를 해석한 결과, 정상적인 1개가 증폭해 2개가 되었음을 확인
- 전문가들은 iPS세포 제작 과정에서 염색체가 스스로 복원됨을 발견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복원된 iPS 세포로부터 장기를 만들어 이식치료 혹은 염색체 이상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cience Daily, 2014.01.13]



악타비스, 오로빈도에 유럽 7개국 제네릭 영업권 이양

- 미국의 대표적 제네릭업체 악타비스가 서유럽 7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제네릭 영업권을 3천만불에 인도 제약업체 오로빈도(Aurobindo)에 이양하기로 결정
 - 인도될 영업권에는 이들 7개국에서 취득한 제네릭 제품 판매 허가과 라이선싱 및 영업 인프라가 포함
 - 악타비스는 중·동부 유럽과 동남아 같은 급성장 중인 시장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영업권 이양을 결정
 - * 오로빈도는 제네릭 제품과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인도 최고 제약업체 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 125여개국에 진출
 - 한편 악타비스는 오로빈도와 전략적 장기 공급 제휴관계도 체결했다고 발표

[Business Line, 2014.01.22]



포레스트, 설파마글로벌 등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미 포레스트가 인도 설파마글로벌, 스위스 보크하르트바이오, 이스라엘 테바 및 이들의 자회사를 상대로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멘다 XR(Namenda XR, 성분명 : 메만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포레스트는 이들 업체가 나멘다 XR과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5,061,703’, ‘8,039,009’, ‘8,168,209’, ‘8,173,708’, ‘8,283,379’, ‘8,329,752’, ‘8,362,085’, ‘8,598,233’의 일부 또는 전부를 침해했다고 주장
 - 그러나 나멘다 XR의 제네릭 제형들의 허가 신청서를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이들 피소업체들은 미국 특허법 제 4조*를 근거로 제네릭 제형 제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
 - *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
 - 한편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나멘다 XR 제네릭 제형들에 대한 승인은 오는 '16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자동 유보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2.03]



미·일 연구소, STAP 세포 활용 방안 연구 활발

- 미국과 일본에서 신형 만능세포(STAP 세포) 활용 방안 연구가 활발
 -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신생아 피부 세포에 약산성 용액으로 자극을 가해 약 1주일 후 쥐의 STAP 세포와 거의 비슷한 둥근 모양의 세포 덩어리를 만드는 데 성공
 - * 연구팀은 현재 이 세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 중이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대로 미 식품의약국(FDA)에 인체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
 - 일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STAP 세포가 자극에 의해 변화하고 특정 배양 방법에 의해 무제한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암세포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착안, 암 예방 및 치료 연구에 STAP 세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 * 암세포는 체세포가 화학물질과 같은 각종 자극을 받았을 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산성 용액에 담그는 형태의 저자극만으로도 생성되는 STAP 세포와 유사점을 보유

[朝日新聞, 2014.02.06]



글로벌 공동 연구팀, “ ‘IRX3’ 유전자 결핍 시 체중 ↓ ”

- 미국·캐나다·스페인 공동 연구팀이 과체중을 유발하는 FTO 변이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유전자 ‘IRX3’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정상 쥐와 IRX3가 결핍된 쥐에 같은 양의 먹이를 주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활동량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IRX3가 결핍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평균 30% 정도 체중이 덜 나갔음을 확인
 - * 또 고지방 먹이를 계속 공급했을 때도 일반 쥐는 체중이 두 배로 증가했지만 IRX3가 없는 쥐들은 체중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과학자들은 그동안 FTO 변이유전자만이 비만을 일으킨다고 여겼으나 이번 연구 결과 비만은 FTO 변이유전자가 IRX3와 결합한 결과로 추정
 - 연구팀은 IRX3가 결핍된 쥐들은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해 당뇨나 비만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IRX3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비만 및 당뇨 치료제도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io News, 2014.03.17]



화이자·머크세레노, 브로드연구소와 루푸스 연구협력 합의

- 미국 화이자와 독일 머크세레노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및 루푸스 신염 환자들의 게놈 프로파일링(profiling) 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해 미국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협력하기로 합의
 - 합의에 따라 브로드연구소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및 루푸스 신염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임상표본들을 이용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화학적 배열기술 적용 가능성 여부 등 분석 작업을 시행
 -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화이자와 머크세레노가 지원하며, 대신 양사는 브로드연구소의 분석 자료 및 내용들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을 확보
 - 또 양사는 자사의 연구진을 브로드연구소에 파견해 게놈 프로파일링 분야의 기술을 습득한다는 데도 합의
 - 한편 브로드연구소는 미국 하버드대와 MIT대의 공식 제휴 연구기관으로 생물학과 게놈 분야 연구에 정평

[Lupus World, 2014.04.09]



머크·페링, 출혈 예방 약물 ‘카벤토신’ 신제형 개발 협력

- 미국 머크앤컴퍼니와 스위스 페링 파마슈티컬스가 분만 후 수반되는 과도한 출혈을 예방하는 약물인 카벤토신(carbetocin)의 신제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양사는 상온에서는 물론 열대기후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제품을 개발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
 - * 현재 분만 후 과도한 출혈을 예방하는 약물로 옥시토신(oxytocin)이 사용되고 있으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열대기후 아래에서는 냉장보관이 필수
 - 이와 관련, WHO는 상온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카벤토신의 약효를 옥시토신과 비교평가하기 위해 케냐·나이지리아·이집트 등 전세계 12개국 2만9천여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
 - 머크와 페링은 카벤토신 신제형이 개도국 여성들에게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가격에 공급할 계획

[Pharmaceutical Technology, 2014.04.08]



미·영 공동 연구팀, iPS로 인간 피부 표피 제작

○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메디컬센터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공동 연구팀이 유도만능 줄기(iPS) 세포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인 표피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스템셀 리포트(Stem Cell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를 역분화시켜 iPS를 만든 뒤 iPS를 표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각질세포로 분화시켰으며 이 각질세포들을 이용해 투과장벽을 지닌 폭 1cm의 표피 조각을 제작
- 그러자 이 표피 조각은 자연 표피와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
 - * 표피는 신체와 외부 환경 사이에서 보호벽 구실을 하는 경계면으로 체내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 독성 물질과 세균이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인공 표피를 대량 제작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인공표피가 아토피성 피부염, 어린선(ichthyosis) 같은 피부질환 연구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olumbia Chronicle, 2014.05.05]



글로벌 공동 연구팀, 비타민D에 간암 억제 효과 발견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미국 에모리대 공동 연구팀이 비타민D를 섭취하면 간암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간장병학(Hepat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유럽 암·영양전향연구(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 프로젝트에 참여한 52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
- 그 결과 혈중 비타민D 수치 상위 30% 집단은 하위 30% 집단보다 간암 발생률이 49% 낮았음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과거 간 손상 병력과 만성 B형, C형 간염 등 간암 위험인자들을 고려했을 때도 동일
- 연구팀은 비타민D에 간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뒤, 이 밖에도 비타민D에는 대장암 등 다른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소개

[Bioscience Technology, 2014.06.09]



바이오노믹스, 머크와 알츠하이머·중추신경계 파트너십 체결

○ 호주 바이오노믹스(Bionomics)와 미국 머크가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 BNC375를 비롯해 정신분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파킨슨병 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 양사는 파트너십에 따라 머크가 선금으로 2천만불과 R&D 목표 달성에 따른 최대 5억600만불 및 제품 발매에 따른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바이오노믹스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
- 대신 바이오노믹스는 머크에게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권을 이양
- 바이오노믹스가 머크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는 지난해 7월 신경병증성 통증을 비롯한 만성통증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저분자량 신약후보물질 탐색·개발을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 한편 BNC375는 α7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양성 알로스테릭 조절제로, 동물실험에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07.01]



밸리언트, 프리시전 인수 ... 피부질환 사업 강화

○ 캐나다 최대 제약업체 밸리언트가 미국 피부질환 치료제 전문업체 프리시전 더마톨로지(PreCision Dermatology)를 인수

- 양사는 밸리언트가 프리시전에 4억7천5백만불을 지급하고, 향후 피부질환 치료제 판매 성과에 따라 최대 2천5백만불을 추가 지급한다는 데 합의
- 밸리언트는 이번 인수가 피부질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그러나 밸리언트는 최근 주름개선제 보톡스 업체로 널리 알려진 앨러간을 인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앨러간 대신 앨러간과 성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프리시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

* 프리시전의 주력 제품은 습진과 피부염 치료제‘로코이드(Locoid)’, 아토피 피부염 및 접촉성 피부염 치료제‘하일라토픽(Hylatopic)’, 여드름 치료제‘클린다젤(Clindagel)’ 등 국소도포제

[Wall Street Journal, 2014.07.08]



일라이릴리·야바오, 항당뇨제 개발 제휴

- 미국 일라이릴리와 중국 야바오 파마슈티컬스(Yabao Pharmaceuticals)가 항당뇨제 개발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선도 포도당 인산화효소(glucokinase) 촉진제 'LY2608204'* 개발을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
 - * 다른 경구용 약물들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당뇨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물질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시험이 성공리에 완료
 - 또 야바오는 중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시장에서 LY2608204와 관련된 마케팅 등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이와 함께 양측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항당뇨제 개발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는 가운데 야바오가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개발 과정을 맡고, 일라이릴리는 향후 중국 시장 내 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
 - 한편 인수에 수반되는 구체적 금액 내역은 미공개

[Pharmaceutical Online, 2014.07.15]



일라이릴리·이뮤노코어, 면역 항암제 R&D 협력 제휴

- 미국 일라이릴리와 영국 이뮤노코어(Immunocore)가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에 대항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R&D 협력 계약을 체결
 - 양사는 이뮤노코어의 '항암 면역동원 단클론 T-세포 수용체 기술(ImmTAC 기술)*'을 활용, T세포 기반 면역조절항암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
 - * 항-CD3 항체조각과 관련된 고친화성 T세포 수용체를 조작하는 기술로, 건강한 조직세포를 피해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항암 면역조절치료제와 구분
 - 대신 이뮤노코어는 일라이릴리로부터 ImmTAC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마다 1천500만불을 지급받고, 향후 성과에 따라 성과금과 제품 로열티도 받는다는데 합의
 - 한편 일라이릴리는 지난 2분기 미국시장 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한 23억8천만불을 기록

[Wall Street Journal, 2014.07.24]



로슈·아모캠, ‘근긴장성 이영양증’ 치료제 공동개발

○ 스위스 로슈와 캐나다 아모캠이 소위 스타이너트 병(Steinert's disease)으로 불리는 ‘근긴장성 이영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

- 양사는 근긴장성 이영양증 1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스플라이싱 과정 결함에 따른 결과를 교정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아모캠은 해당 기술을 로슈에 이전한다는 데 합의
- 또 로슈가 독점적 약물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대신 아모캠은 최대 1억700만불의 성과금과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는다는데도 합의
- 근긴장성 이영양증은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13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진적 퇴행성 질환이나 현재는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

[Outsourced Pharma, 2014.07.31]



국제 공동연구팀, 정신분열증 관여 유전자 108개 발견

○ 국제 공동연구팀인 정신게놈컨소시엄(Psychiatric Genomic Consortium : PGC)*이 정신분열증 발병 관여 유전자 108개(관련성이 거론되어 온 유전자 25개와 새로운 유전자 83개)를 발견했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정신분열증 발병 관여 유전자를 밝히기 위해 영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Institute of Mental Health)를 비롯,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35개국 연구소의 300여 연구자들로 구성

- PGC는 각 연구소에서 취합한 정신분열증 환자 3만4천여 명의 유전정보 데이터를 건강한 사람(4만5천여 명)의 게놈과 비교
- 그 결과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 108개 유전자 중 하나라도 보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분열증 발병률이 1.1~1.2배 높아짐을 확인
-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신분열증 치료제가 108개 유전자 가운데 1개에 작용하는 약물만 제품화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Domain-B, 2014.08.02]



국제 공동연구팀, 제3의 유방암 변이유전자 ‘PALB2’ 발견

-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중심으로 8개국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제3의 유방암 변이유전자 ‘PALB2’를 발견했다는 연구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
 - 연구팀은 PALB2 변이유전자를 가진 362개 가구의 유방암 관련 자료를 분석
 - 그 결과 PALB2 변이유전자를 지닌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70세까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3% 정도 높아진 가운데 유방암 가족력까지 있을 경우에는 거의 60%까지 올라감을 확인
 - * 지금까지 알려진 유방암 변이유전자는 ‘BRCA1’과 ‘BRCA2’로, 이 변이유전자 중 하나라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45~65%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BRCA1 · BRCA2 · PALB2 유전자 모두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PALB2 변이유전자를 지닌 여성은 1천명에 1명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 유방암을 발생시킬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강조

[Cancer Network, 2014.08.08]



일루미나, AZ 등 글로벌 제약업체와 범용 암검사법 제휴

- 유전자 시퀀싱업체인 미국 일루미나가 영국 AZ, 프랑스 사노피, 미국 안센바이오텍과 범용 항암제 동반진단 검사법을 공동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이번 제휴는 기존 단일분석 동반진단 검사에서 탈피, 다중-유전자 검사 패널을 이용한 범용 차세대 시퀀싱(NGS) 기반 종양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 환자에 가장 적합한 항암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연구는 일루미나의 미세크디엑스(MiSeqDx) 시퀀싱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법이 개발되면 우선 제휴 제약업체들의 타겟 항암제 임상시험에 사용된 뒤 일반 임상현장으로 보급될 예정
 - * 일루미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12개 세포신호 통로를 통해 종양성장을 일으키는 54개 종양유전자와 71개 종양억제 유전자 등 총 125개 암 유전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 전문가들은 이번 제휴를 통해 다양한 유전자들이 기존 DNA 시퀀싱에 비해 더욱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퀀싱되는 가운데, 단 1회의 검사로도 방대한 임상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Chemistry World, 2014.08.22]



AZ·미쓰비시다나베, 당뇨병성 신장질환 R&D 제휴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Mitsubishi Tanabe)가 당뇨병성 신장질환 부문에서 향후 3년 동안 R&D를 공동 진행하기로 결정
 - 양사는 새로운 연구타깃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확보된 신약후보물질들의 임상개발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양사는 일단 각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신약후보물질 포트폴리오에서 유사한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추려내기로 결정
 - R&D는 미쓰비시다나베의 일본 내 R&D 부서와 AZ의 심혈관계·대사계 질환 혁신 의약품 부서(CVMD iMed)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
- * CVMD iMed는 스웨덴 서남부 도시 뮐른달에 위치
- 한편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말기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전체의 50%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8.21]



국제 공동연구팀, 혈액 한방울로 말라리아 감염 진단

- 국제 공동연구팀인 싱가포르-MIT 연구기술연합(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이 혈액 한방울로 수분 내 말라리아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의료용 스캐너에 활용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기술과 유사한 자기공명 완화측정(MRR) 기술을 사용, 혈액 한방울에 불과한 10 μ l 미만의 혈액샘플로 수분 내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성공
 -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혈중 영양분이 풍부한 헤모글로빈을 섭취해 대사하는데, 연구팀은 이 때 생성되는 노폐물의 결정을 측정해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판단
 - 지금까지 말라리아 진단에는 현미경으로 혈중 말라리아 원충을 찾아내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검사원의 화상해석 능력, 현미경과 검사용 의약품 품질, 슬라이드 유리에 바른 혈액샘플 두께 등에 의해 좌우되는 단점이 있어 이번 방법에 의학계의 관심이 고조

[Guardian, 2014.09.12]



‘TKM-에볼라’, 에볼라 응급치료에 사용 임박

○ 캐나다 테크미라(Tekmira)의 RNAi* 치료제 후보 ‘TKM-에볼라’가 에볼라 응급치료에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캐나다와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획득

* 유전자 발현에 대해 선택적이면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며, 특정한 dsRNA를 합성하여 표적 유전자의 억제를 유도하는 특성도 보유

- TKM-에볼라는 지질 나노입자에 쌓인 3개의 siRNA 분자를 이용해 에볼라 단백질 3개를 타깃으로 파괴시켜 에볼라 증식을 저해하는 약물로, 그동안의 임상시험에서 약의 효능과 안전성이 일부 입증
- 이번 승인에 따라 TKM-에볼라는 에볼라 응급치료에 긴급하게 사용될 전망
- * 그러나 TKM-에볼라 공급량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한편 테크미라는 그동안 미국 국방부와 의 계약을 통해 TKM-에볼라를 개발

[\[GenomeWeb, 2014.09.25\]](#)



사노피·미오카디아, 유전적 심장병 연구계약 체결

○ 프랑스 사노피와 미국 미오카디아(MyoKardia)가 유전적 심장병인 심근증에 대한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

- 미오카디아는 심근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업체로, 비후성 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 HCM) 프로그램 2개와 확장성 심근증(dilated cardiomyopathy : DCM) 프로그램 1개를 시행 중
- 이번 계약 이행에는 오는 '18년까지 최대 2억불이 투입될 예정으로, 양사는 HCM 프로그램 개발 비용은 균등하게, DCM 프로그램 개발 비용은 사노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데 합의
- 또 미오카디아는 전 세계에서 효능성 임상시험을 통해 HCM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미국 내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
- 반면 사노피는 DCM 관련 제품 개발 및 상용화와, 미국 이외 지역 HCM 프로그램 개발 및 상업 활동을 담당할 방침

[\[Zenopa, 2014.09.23\]](#)



화이자·교와학코기린, 암면역요법 개발 제휴

- 미국 화이자와 일본 교와학코기린이 암면역요법을 공동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양사는 교와학코기린이 개발 중인 항CCR4 인간화 단클론항체 ‘모가물리주맙 (mogamulizumab)’에 대해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항4-1BB(CD-137) 작용형 완전인간항체 ‘PF-05082566’과의 병용요법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 * 모가물리주맙과 PF-05082566은, 생체 자신의 자가면역시스템을 조절하면서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하는 암면역요법의 새로운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약물
 - 양사는 이번 제휴에 따라 우선 고형암환자를 대상으로 1b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로 결정
 - 또 화이자가 모가물리주맙과 PF-05082566의 병용에 관한 권장용량을 결정하고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초기단계 유효성을 평가하며, 이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은 양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데 합의

[BioCentury, 2014.10.06]



CSL, 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 인수

- 호주 제약업체 CSL이 스위스 노바티스의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 부문을 2억7천500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인수한 백신 사업 부문은 CSL의 계열사인 바이오CSL에 합병될 예정
 - CSL은 이번 합병으로 현재 40억불 정도로 추정되는 글로벌 인플루엔자 산업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
 - * CSL은 노바티스의 플루 백신 사업은 작년 5억2천700만불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번 인수로 향후 3~5년간 연평균 10억불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
 - CSL은 현재 전세계 27개국에 진출한 가운데 임직원 수가 1만3천여명에 이르는 글로벌 제약업체로, 백신 부문과 함께 혈장 분획 치료제, 해독제 및 면역혈액학 치료제 부문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한편 노바티스는 지난 4월 인플루엔자 이외의 백신 부문을 영국 GSK에 71억불과 향후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각

[Businessweek, 2014.10.27]



미·영 공동연구팀, “자폐증 관련 유전자변이 100개 넘어”

○ 미국 마운트시나이대와 영국 레이트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공동연구팀이 자폐증과 관련된 유전자변이가 100개를 상회한다고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이 엑솜 염기서열분석법(exome sequencing)*을 통해 자폐증 환자와 환자 부모, 일반인 1만5천80명으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두 107개 유전자변이가 자폐증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

*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과 관련된 DNA 염기서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차세대 유전체 검사법

- 이들 변이유전자 중에는 조현병 및 지능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도 발견
- 특히 자폐아들에게서 발견된 변이유전자들은 그들 부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폐증의 유전성을 시사
- 연구팀은 변이유전자가 대부분 신경세포 사이의 새로운 연결 형성 등 뇌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 뒤, 체외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유전자변이가 없는 배아를 골라낼 수 있다면 자폐아 출생을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Tech Times, 2014.10.30]



단백질 연구 ‘GPCR 컨소시엄’ 결성

○ 미국 암젠, 프랑스 사노피, 일본 오노와 중국 상하이기술대, 중국과학원,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대가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진전에 관여하는 G단백질연결수용체(GPCR)의 입체구조를 규명하는 ‘GPCR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합의

- 이 컨소시엄은 GPCR의 구조생물학적 최신 정보를 신약 연구에 신속하게 활용, 암과 대사질환 및 중추질환 등을 치유하는 신약 개발로 연계함을 목표
-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826종의 인간 GPCR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 200종의 GPCR 입체구조를 먼저 규명한다는 방침
- 호르몬 등 호르몬 등 생리활성 물질의 대부분은 세포표면에 발현하는 수용체단백질과 결합해 정보를 세포에 전달하게 되는데, GPCR은 G단백질과 긴밀하게 결합해 정보를 전달
- 한편 GPCR은 대부분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 중에는 GPCR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

[Pharma & MedTech, 2014.11.05]



화이자.머크,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

- 미국 화이자와 독일 머크가 면역항암제를 공동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양사는 화이자가 머크의 항-PD-L1 항체 'MSB0010718C'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머크에 선금 8억5천만불을 지급하고, 향후 승인 및 매출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불을 추가 지급하며, 개발 비용은 분담한다는 데 합의
 - * 현재 MSB0010718C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한 1~2상 임상시험 중으로, 특히 난소암과 비소세포 폐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또 양사는 내년에 각종 암에 대한 2~3상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화이자의 항 PD-1 항체 면역항암제를 함께 개발하며, 양사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병용한 임상시험도 공동 진행하기로 결정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제휴에 대해 화이자가 그동안 항-PD-L1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포기한 대신 다른 파트너 업체를 찾은 것으로 평가

[Techsonian, 2014.11.21]



다케다·GE헬스케어, 간질환 치료제 개발 제휴

- 일본 다케다약품과 영국 GE헬스케어가 간질환 치료제 개발 제휴를 체결
 - 이번 제휴는 전 세계적에서 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로 인해 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일종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 NAFLD는 지난 20년간 2배 급증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간질환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부상했으나 증상이 없고 간염증과 함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
 - 특히 아직 파이프라인에 간질환 치료제가 없는 다케다는 이번 제휴를 통해 GE헬스케어로부터 최소침습적으로 간의 경화 정도를 파악하는 진단 영상기술을 제공받아 신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
 - 현재 간 섬유증에 가장 흔하게 수행되는 진단법은 생검이지만 GE헬스케어의 MR 탄성 초음파(elastography) 영상을 통한 경우 비침습적으로 간조직의 경화도 측정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지난 '12년부터 이 기술이 사용

[Pharma & MedTech, 2014.11.17]



일라이릴라·AZ,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 대규모 임상시험 착수

- 미국 일라이릴라와 영국 AZ가 전 세계 15개국에서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1천500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AZD3293/LY3314814’에 대한 대규모 2상 임상시험에 착수
 - AZD3293/LY3314814는 경구용 베타 세크레타제 절단효소(BACE) 억제제로, 제약업계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과 연관된 효소인 BACE를 억제할 경우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물질은 임상 1상 시험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건강한 자원자들의 뇌척수액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의미 있게 감소시켰음이 확인
 - * 양사는 지난 9월 AZD3293/LY3314814를 개발하기 위한 5억불 규모의 제휴 계약을 체결
 - 한편 로이터통신은 현재 BACE 억제제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약업체는 지난해 임상 3상시험 계획을 발표한 미국 머크앤컴퍼니라고 보도

[Alzheimer News Today, 2014.12.05]



국제 공동연구팀, 뎅기열 치유 가능 항체 발견

-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와 호주 멜버른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지금까지 밝혀진 4개 유형의 뎅기열에 모두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뎅기열 환자 7명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뎅기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45개의 항체를 선별한 뒤 각각 항체의 중화 효율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1개의 항체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뎅기열 바이러스 4개의 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표면 구조에 결합했음을 확인
 - * 뎅기 바이러스는 유전자배열이 크게 다른 4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항체는 어느 유형이더라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
 - 연구팀은 이 같은 특성의 항체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뎅기열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2.17]

1.9 중남미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대, 당뇨병에 폐경 촉진 효과 발견

-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대 연구팀은 당뇨병 여성은 폐경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폐경(Climateric)지에 발표
- 연구팀은 11개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40~49세 여성 6천7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평균 폐경 연령이 당뇨병 여성은 48.5세로 당뇨병이 없는 여성의 50.1세보다 1.6년 짧았음을 확인
- * 40~44세의 당뇨병 여성 중 3분의 1에서는 폐경이 이미 진행
-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뇨병 여성은 당뇨병이 없는 여성에 비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훨씬 빨리 고갈된다는 의미라며, 에스트로겐 공급이 끊어지면 뇌졸중·심근경색·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
- 한편 폐경 자체가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갱년기 장애 치료를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 HRT)은 당뇨병 위험을 14%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EmaxHealth, 2013.12.26]



아메리소스버겐, 브라질 시장 사업 확대에 1억불 투자

- 미국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아메리소스버겐(AmerisourceBergen)이 브라질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해 총 1억불을 투자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브라질 굴지의 의약품 도매업체 프로파르마(Profarma)의 지분 19.9%를 매입하고, 프로파르마와 함께 50대 50의 비율로 의약품 공급 및 서비스 부문 합작사를 올상반기 설립하는 데 총 1억불을 사용한다고 발표
- 아메리소스버겐은 △브라질 의약품 시장의 장기 성장 전망이 밝고 △인구 구성이 시장 확대에 유리하며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와 각종 의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단행
- 이번 결정이 아메리소스버겐과 함께 북미 의약품 도매업계를 3분하고 있는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와 맥케슨(McKesson)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

[T&B Pharma Consulting, 2014.04.02]



상파울루대, “비만치료 수술 시 알츠하이머 위험 ↓”

○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팀이 비만치료 수술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춘다고 임상내분비학 대사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발표

- 연구팀은 위 절제술이나 위 밴드삽입술 같은 비만치료 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뇌의 활동을 비교 분석

* 비만치료 수술 전후 뇌 활동을 분석해 비만치료 수술과 알츠하이머 발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

- 그 결과 수술 이전에는 알츠하이머 발병과 연관된 뇌 부위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수술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여성 수준으로 둔화되는 등 수술을 기점으로 알츠하이머와 관계있는 뇌 활동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

-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된 신경심리학적 조사에서는 비만치료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조직 및 기획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비만치료 수술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춘다며, 뇌 역시 비만치료 수술의 영향을 받는 인체기관이라고 설명

[Sci-Tech Today, 2014.09.02]

1.10 캐나다



캐나다 웨스턴대, “임신중 니코틴대체요법 사용 시 자녀 비만 유발”

- 캐나다 웨스턴대 연구팀이 임신중 니코틴대체요법을 사용한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향후 비만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독성학 및 응용 약리학회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지에 발표
 -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니코틴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이 중성지방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였음을 확인
 - * 흡연자들이 흡연 욕구를 느낄 때 니코틴을 함유한 패치, 껌, 스프레이 등을 복용함으로써 흡연 욕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드는 요법
 - 연구팀은 임신중 니코틴대체요법 시행이 금연의 차선택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 임신중 흡연은 유산, 미숙아 출산, 영아돌연사증후군, 구순열 발병 등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Medical News Today, 2014.01.19]



캐나다 세인트마이클병원, AIDS 치료제를 예방용으로 임상시험

- 캐나다 세인트마이클병원이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AIDS 치료제 ‘트루바다(Truvada)’를 예방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
 - 병원측은 트루바다를 미리 선정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집단에 투약해 예방효과와 위험 요인, 내성 증가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한다는 방침
 - 이와 함께 트루바다를 복용하는 집단이 예방효과를 과신하면서 다른 예방조치들에 방심할 가능성 등 실생활의 복용 실태도 면밀히 추적할 예정
 - * 트루바다는 약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최우백 박사가 1988년 미 에모리대에서 개발한 AIDS 치료제로, '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AIDS 바이러스인 HIV의 감염을 막는 예방약으로도 승인을 획득
 - 병원측은 이번 시험의 결과에 따라 트루바다의 예방약 임상시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eCanadaNow, 2014.02.23]



캐나다 맥길대, “IQ는 대뇌 피질 두께와 연관”

-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지능지수(IQ)는 대뇌의 피질 두께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영상(Neuro Image)지에 발표
- 연구팀은 18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IQ와 대뇌 피질 두께 변화를 2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IQ가 상당히 높아진 아동들은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지는 속도가 정상보다 느린 반면 IQ가 크게 떨어진 아동들은 빨랐으며, IQ에 변함이 없는 아동들은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속도가 정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IQ는 뇌의 해부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IQ가 달라지는 이유는 테스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
- * 인간의 대뇌는 신경세포체로 구성된 겉부분인 피질과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신경섬유망이 깔린 속부분인 수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뇌 피질은 5~6세부터 얇아지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

[McGill Reporter, 2014.03.17]



맥길대, “멜라토닌 보충제가 골다공증 예방”

-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멜라토닌 보충제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를 회춘연구(Rejuvenation Research)지에 발표
- 연구팀은 인간으로 치면 60세에 해당하는 22개월 된 숫쥐 20마리(실험군)에 멜라토닌 보충제를 물에 희석시켜 10주 동안(인간의 6년에 해당) 투여한 뒤 대퇴골을 채취해 멜라토닌 보충제가 투여되지 않은 대조군 쥐들과 비교
- 그 결과 실험군 쥐들의 대퇴골에서 골밀도와 골량이 크게 증가하고 뼈의 힘이 강화돼 잘 부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멜라토닌 보충제가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추정
- 연구팀은 향후 멜라토닌 보충제가 뼈의 분해 과정을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

[Arthritis Digest, 2014.06.02]



캐나다, 피부암 발병 급증 ... 자외선 차단제 이용 필요

- 캐나다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는 연례 암 실태 보고서에서 캐나다에 피부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 이용을 권고
 - 특히 다른 주요 암환자의 사망률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
 - 지난 1986~2010년 사이 흑색종 발병률은 남성이 연평균 2%, 여성은 1.5%씩 증가해 온 가운데, 여성 사망률은 매년 0.4% 남성 사망률은 1.2%씩 증가해 남성이 여성보다 흑색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 이는 전통적·직업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
 - 보고서는 올해 신규 피부암 환자가 8만2천600여명 발생하고 이 중 흑색종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6천5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
 - 보고서는 피부암을 막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될 경우 그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인공 선풍을 하지 말 것을 권고

[AFP, 2014.06.02]



성미카엘병원, 카놀라유에 혈당 관리 효과 확인

- 캐나다 토론토대 성미카엘병원 연구팀이 카놀라유(Canola oil)가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당뇨병 치료(Diabetes Ca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141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카놀라유 빵(실험군)과 통곡빵(대조군)을 중심으로 한 저혈당 지수 식사를 12주 동안 제공
 - 그 결과 실험군은 당화혈색소(A1c)* 수치가 0.47% 떨어진 데 비해 대조군은 0.31% 낮아지는 데 그쳤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히 종전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최상위 집단에 속했던 환자들에게서 뚜렷한 것으로 파악
 - *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헤모글로빈) 분자가 혈액 속의 포도당과 결합한 것으로, 장기혈당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
 - 실험군은 LDL 콜레스테롤 혈중수치도 대조군보다 더 많이 감소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놀라유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도 개발돼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maxHealth, 2014.06.17]



온타리오암센터, “유방암 위험 여성은 X선에 MRI 병행 필요”

- 캐나다 온타리오암센터 연구팀이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성은 X선 검사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병행해야 유방암 여부를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임상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
- 연구팀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BRCA-1 혹은 BRCA-2 변이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계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여성 2천207명(30~69세)을 대상으로 X선 촬영과 MRI 촬영 두 가지 검사를 시행
- 그 결과 모두 35명이 유방암으로 판명되어 X선 검사만 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23명의 환자를 추가 발견
 - * 이들 23명 환자는 X선 검사에서는 음성, MRI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판명
- 연구팀은 특히 유방암 관련 변이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30세부터 매년 X선과 MRI 검사를 모두 받아야 유방암을 초기 단계에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강조

[News Max Health, 2014.06.24]



캐나다 국립연구위, “종격지방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재발 방지”

-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연구팀이 심근경색 수술 시 폐기하는 종격지방 조직 줄기세포를 심근경색 재발 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학술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시킨 쥐 18마리 중 13마리(실험군)에 종격지방 조직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6주 후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을 분석
- 그 결과 실험군 쥐는 심장 좌심실의 박출계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심실 수축 기능이 회복되는 등 대조군 쥐보다 심장 기능이 강화됨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격지방 조직 줄기세포가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시사한다며, 심근경색 수술 시 폐기처분하는 종격지방 조직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 * 종격이란 가슴 중간 양쪽 폐 사이의 공간으로, 심장수술 시 심장을 노출시키기 위해 심장 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종격지방 조직을 잘라야 하며 이 조직은 나중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

[New York Daily News, 2014.07.07]



성미카엘병원, 나무 견과류가 당뇨병 치유에 도움 확인

○ 캐나다 토론토 소재 성미카엘병원이 호두, 캐슈넛, 아몬드, 헤이즐넛, 피칸, 피스타치오, 잣, 밤 등 나무에서 나는 견과류가 당뇨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공중과학도서관 (PLoS O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총 450명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나무 견과류 관련 임상시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나무 견과류를 하루 평균 56g 정도를 섭취하면 공복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A1c) 혈중 수치가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
-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지방이 다양하게 함유된 나무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만 하루 56g 가량으로는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특히 당뇨 환자가 나무 견과류를 하루 30g씩 2회 정도 섭취하면 혈당을 낮춰 당뇨병을 치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고 설명

[Medscape, 2014.08.06]



캐나다 보건과학센터, “항정신병 약물이 신장 손상 가능성”

○ 캐나다 런던보건과학센터 연구팀이 항정신병약물인 케티아핀(Quetiapine), 리스페리돈(Risperidone), 올란자핀(Olanzapine)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과 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

- 연구팀은 이 3가지 약물 중 하나가 처방된 65세 이상 노인 9만7천여명(실험군)과, 성별·연령대·기저질환이 유사하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거의 동일한 수의 노인들(대조군) 의료자료를 비교분석
- 그 결과 급성 신장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실험군 1% 대조군은 0.6%로 나타났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실험군 6.8% 대조군은 3.1%로 집계
- 이들 약물은 조울증·조현병·기타 심각한 정신장애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치매 등 신경퇴행질환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적응증외로 처방되는 경우가 다수
- 연구팀은 치매환자의 단순한 불안장애나 수면장애에는 이들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US News and World Reports, 2014.08.19]



맥길대, 메트포르민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 효과 확인

-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항당뇨제 메트포르민(Metformin)을 복용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저하될 수 있다고 캐나다의사협회저널(CMAJ)에 발표
 - 연구팀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년 동안 메트포르민 또는 설폰닐유레아(sulfonylurea)를 단독복용한 당뇨병자 7만4천명 이상을 추적조사
 - * 이들 중 갑상선 기능저하도 같이 있는 환자는 5천689명
 - 그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495명에서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 저하가 나타나 발생률이 1천명당 119.7명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322명에서 수치 저하가 나타나 1천명당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 특히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중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집단은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 저하가 나타난 비율이 1천명당 125.2명에 달해 설폰닐유레아 복용집단의 79.5명과 비교했을 때 55%나 높은 수치를 보여 주목
 - 연구팀은 메트포르민 복용 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는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

[Endocrinology, 2014.09.29]



맥마스터대, “비만 원인은 ‘세로토닌’ 과다 분비”

-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비만 원인은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serotonin)’의 과다 분비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세로토닌이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라제(tryptophan hydroxylase : Tph1)’라는 효소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Tph1을 억제하면 갈색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칼로리 연소량이 증가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
 - *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은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지방과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의 두 가지 지방조직을 보유
 - 연구팀은 고지방 먹이를 준 쥐들을 대상으로 Tph1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하자 갈색지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만·지방간·당뇨병 등 위험이 낮아졌다고 설명
 - 한편 연구팀은 세로토닌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방 과다섭취 같은 환경적 요인을 지목

[Radio Canada International, 2014.12.10]

2. 의료기기 / 정보화

2.1 미국	713
2.2 영국	721
2.3 일본	724
2.4 EU	727
2.5 글로벌	729

2.1 미국



GE, 병원 인력관리 업체 API 헬스케어 인수

- 미 GE가 같은 미국의 병원 인력관리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제공 업체 API 헬스케어를 인수하기로 결정(인수 금액은 미공개)
 - GE는 미국 병원 예산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중시, 이번 인수를 통해 API의 병원 인력관리 서비스를 확대·발전시켜 병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방침
 - * API는 병원의 △인적자원/인사 관리 △스케줄 관리 △환자 분류 △급여 관리 △출퇴근 관리 △기타 부대사업 분석 등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천6백개 업체를 상회하는 고객을 확보
 - GE는 또 이번 인수를 통해 병원경영 관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병원자산·환자흐름·인력 최적화 분야로도 사업을 강화할 계획

[Wall Street Journal, 2014.01.21]



P&G, 세계 최초 스마트 칫솔 6월 출시

- 미 P&G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된 스마트 칫솔을 오는 6월 출시할 계획
 - 이 스마트 칫솔은 칫솔질 개선을 위한 개인맞춤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칫솔질을 가이드하고 잘 닦지 못한 부분도 지적해 줄 뿐 아니라, 너무 세게 칫솔질을 할 경우에는 경고도 전달
 - P&G는 이 칫솔을 ‘오랄-비(Oral-B)’ 브랜드로 시판할 방침
 - 이 스마트 칫솔은 시험결과 칫솔질 시간을 1분 미만에서 2분16초로 연장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프랑스의 신생 기업인 콜리브리(Kolibree)도 P&G와 유사한 무선연결 전기 칫솔을 3분기에 출시할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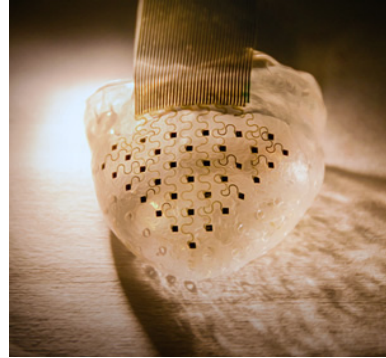


[Wall Street Journal, 2014.03.02]



일리노이·워싱턴대, 3D 프린터로 심박기 제작

- 미 일리노이대와 워싱턴대 공동 연구팀이 3D 프린터와 고해상도 이미지 및 컴퓨터 모델링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심장박동 조율기를 제작하는데 성공
- 연구팀은 먼저 토끼의 심장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고 3D 프린터로 틀을 찍어내 실리콘으로 토끼 심장에 적합한 얇고 유연한 막을 제작
- 그 뒤 이 막에 센서망을 부착해 고르지 못한 이상이 감지되면 전극을 통해 자동 교정되도록 만듦으로써 토끼의 심장이 일정하게 뛰도록 유지
- 연구팀은 향후 3~5년 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10년 후에는 맞춤형 심박기 시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현재 시판 중인 심박기는 각 개인에게 특화되지 않은 단점을 보유



[MIT Technology Review, 2014.03.04]



노스웨스턴대, 임신·HIV·헤르페스 동시 방지 피임기구 개발

-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임신과 AIDS 바이러스(HIV) 및 헤르페스 감염을 동시에 방지해 주는 질 내 삽입 피임기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공공과학도서관학술지(Plos ONE)에 발표
- 연구팀은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피임용 루프와 비슷한 이 기구를 질 내 삽입했을 때 90일간 임신과 HIV 및 헤르페스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 이 기구에는 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과, HIV 및 헤르페스 감염을 막는 약인 테노포비어(tenofovir)가 들어가 있는데, 두 약의 용해 속도에 차이가 커 그동안 수많은 실험이 진행
- 한편 테노포비어가 든 젤 형태의 약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관계 전과 후에 질 내에 삽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 현재 전 세계에서는 350만 HIV 감염 환자들이 매일 테노포비어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CBS, 2014.03.12]



짐머, 바이오메트 인수 ... 의료기기 시장판도 개편 예고

○ 미국 인공관절업체 짐머(Zimmer)가 경쟁사인 같은 미국 바이오메트(Biomet)를 133억5천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특히 근골격 치료기기 분야에서 강자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판도 개편을 예고

- 짐머는 바이오메트 인수를 통해 스포츠 의학 및 외상 분야의 의료기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뿐 아니라, 회사 전체로는 인수 첫째 1억3천500만불, 3년까지는 2억7천만불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 1~2위인 J&J나 스트라이커(Stryker)의 스미스앤네퓨(Smith & Nephew)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료기기 업계에 M&A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 * 전문가들은 유력 피인수 대상으로 컨메드(Conmed), 카디오바스쿨러 시스템스(Cardiovascular Systems), 스펙트라네틱스(Spectranetics), 라이트 메디컬 그룹(Wright Medical Group) 등을 거론

[Wall Street Journal, 2014.04.24]



UCLA, 구글글래스 의료용 진단 앱 개발

○ 미국 UCLA대 연구팀이 구글글래스를 이용한 의료용 진단 앱을 세계 최초로 개발

- 이 진단 앱은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신속진단 검사(RDT) 및 서버 플랫폼으로, 핸드프리 음성조절 구글글래스의 카메라로 RDT 기기의 사진을 찍은 뒤 QR 코드와 함께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받아 실시간으로 구글글래스로 다시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



- * 어떤 외부 하드웨어 부착도 필요 없으며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단 8초에 불과
- 연구팀은 이 앱을 현재 시판 중인 정성적 HIV 검사 및 정량적 PSA 신속 검사에 400회 이상 적용한 결과 99.6% 판독에 성공
- 연구팀은 구글글래스가 모바일폰처럼 일반화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iMedical Apps, 2014.04.29]



FN, 뇌심부자극 장치로 알츠하이머 치료 실험

- 미국의 신경조절장치 개발업체 FN(Functional Neuromodulation)사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뇌심부자극(Deep Brain Stimulation : DBS) 장치를 뇌에 심어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실험을 미국과 캐나다 소재 7개 치매연구센터에서 진행
 - DBS란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전극을 뇌 심부에 심고 이를 통해 환자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기술로, FN은 경증의 알츠하이머 환자 42명(45~85세)에게 DBS 장치를 심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
 - 환자 중 실험군은 DBS 장치를 켜고 대조군은 끈 상태에서 기억과 관련된 뇌부위의 변화를 관찰하는 뇌조영 검사와 함께 인지기능 테스트가 1년 동안 예정
 - * 실험은 누가 실험군이고 대조군인지 환자도 검사자도 알지 못하게 해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법인 이중맹(double-blind) 방식으로 진행
 - 한편 독일에서 경증 또는 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는 DBS 장치의 효과가 확인

[Fox News, 2014.05.06]



구글, 암 데이터 신생업체 플랫티런 헬스에 대규모 투자

- 미국 구글이 자회사인 구글벤처스를 통해 같은 미국의 암 데이터 신생업체 플랫티런 헬스(Flatiron Health)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
 - 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플랫티런이 최근 증액한 1억3천만불의 자본금 중 대부분이 구글벤처스의 자금이라고 전언
 - 플랫티런은 실시간으로 암 데이터를 취합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온콜로지클라우드(OncologyCloud)*’를 베타 서비스 중
 - * 전 세계 25개 암센터에 연결돼 전자의무기록 및 청구시스템으로부터 집계된 임상·재무 등 데이터를 이용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현재 1천여 종양학 전문의들이 이용
 - 한편 구글벤처스는 지금까지 DNA 정보 구축업체 DNA넥서스, 종양분석업체 파운데이션 메디슨, 병원 입·퇴원 추적업체 프리딜리틱스, 생명공학업체 트랜스크립틱 등에도 투자

[Wall Street Journal, 2014.05.13]



J&J, '16년까지 의료기기·진단 제품 30개 승인 추진

- 미국 존슨앤존슨(J&J)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약 부문에 뒤처져 왔던 의료기기 및 진단 부문에서 오는 '16년까지 30개 제품의 승인을 신청할 방침
-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J&J는 의료기기 및 진단 부문의 성장을 위한 제품 출시 및 시험 약물 개발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발표
- 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진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첨언
- * J&J는 특히 전세계 당뇨병 환자의 25%가 있는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당뇨병 사업부가 위치해 활동 중이며, 러시아에서는 안과제품 사업부가 의료진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고 소개
- 한편 지난 '13년 J&J의 의료기기 및 진단 부문은 285억불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올 1분기에는 70억6천만불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Med Device Online, 2014.05.28]



캘리포니아대, '광 펄스' 자극으로 기억 재생 가능 입증

-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이 신경세포의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시냅스를 빛의 파동인 '광 펄스(pulse of light)'로 자극하면 기억을 되살리거나 반대로 지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
- 연구팀은 광선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유전조작된 쥐들의 시냅스를 광 펄스로 자극하는 동시에 발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실시
- 그 결과 쥐들은 고주파의 강한 자극에서는 겁에 질린 행동을 보인 반면 저주파의 약한 자극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연구팀이 다시 고주파의 강한 자극을 보내자 또다시 겁에 질린 행동을 보이는 등 자극 강약에 따라 반응이 상이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억이 광 펄스로 인해 되살아나거나 지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한 시냅스의 약화를 되돌리는 작업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주장

[Science World Report, 2014.06.04]



애플, 건강정보 ‘헬스키트’ 시스템 구축

○ 미국 애플이 여러 보건 및 휘트니스 앱과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취합,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헬스키트(HealthKit)’ 시스템을 구축

- 헬스키트는 보건 및 휘트니스 앱과 기기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해 서로 교류하고 있는 운동·칼로리·혈압 등 각종 보건 데이터를 추적·기록해 한 곳에 모아 공개하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이에 따라 헬스키트 사용자들은 자신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파악 및 관리가 가능
- 헬스키트는 애플의 M7칩과 함께 작동하며, iOS8과 함께 올해 말부터 구현될 예정
- 한편 애플은 헬스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 휘트니스 앱도 개발해 자사의 웨어러블 기기 ‘아이워치(iWatch)’에 탑재할 계획



[Apple Insider, 2014.06.10]



마이크로칩스, 리모컨 조종 ‘피임약 칩’ 제작

○ 미국 신생 IT기업인 마이크로칩스(MicroCHIPS)가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피임약 칩’을 제작

- 이 마이크로 칩은 둔부나 복부 혹은 상완의 피부 밑에 이식되는, 가로 20mm 세로 20mm 높이 7mm 크기의 삼입 장치에 내장
- 칩 내부에는 최장 1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피임약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으며 하루 최대 30mcg씩 리모컨에 의해 방출



- * 이 칩은 티타늄과 백금 실(seal)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가 실을 통해 흐를 때 실이 일시적으로 녹으면서 레보노게스트렐 호르몬이 방출
- 이 칩은 전문가의 조작이 필요한 다른 피임 임플란트와 달리 사용자 스스로 작동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마이크로칩스는 내년부터 임상시험을 거쳐 오는 '18년 정식 출시할 예정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7.12]



구글, 인체지도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스터디’ 착수

- 미국 구글이 인체의 방대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인체지도를 작성하는 ‘베이스라인 스터디(Baseline Study)’ 프로젝트에 착수
 - 이 프로젝트는 기존 의학 연구보다 훨씬 방대한 인체 유전자 정보를 취합, 구글의 강력한 연산 시스템으로 건강한 신체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 구글은 일단 참가자 175명의 인체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향후 듀크대 및 스탠퍼드대와 함께 수천 명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할 계획
 - * 베이스라인 스터디 프로젝트는 미국 거대 임상시험 전문기업 랩코프의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3월 다양한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구글 내 연구조직 구글X에 합류해 생명과학팀을 이끌고 있는 앤드루 콘라드(Andrew Conrad) 박사가 주도
 -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구글이 단지 헬스케어 산업 R&D를 진행하는 차원을 넘어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간주하고 동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평가

[Mint Press News, 2014.08.05]



인텔, 웨어러블·빅데이터 기술로 파킨슨병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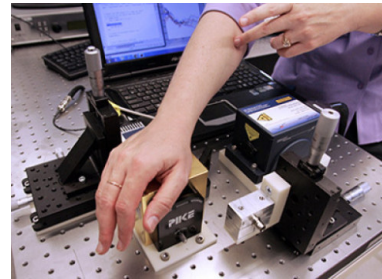
- 미국 인텔이 웨어러블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파킨슨병 환자를 모니터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이클 제이 폭스재단(Michael J. Fox Foundation)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 인텔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밴드 등 기기로 성장 중인 웨어러블 시장에서 단순히 소비자들을 늘려가기보다 그 기술을 이용해 파킨슨병 같은 질병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
 - 웨어러블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할 경우, 수전증으로 대표되는 파킨슨병 증상에 대한 측정과 치료 방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예를 들어, 환자의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환자가 손 떨림 증상을 보일 때 마다 그 증상을 기록한 뒤 빅데이터를 이용해 치료법을 개발하는 방식
 - 인텔은 이번 정책이 파킨슨병 측정과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질병 특성을 의료계가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Tech Times, 2014.08.15]



프린스턴대, 채혈없이 혈당 측정하는 레이저 장치 개발

-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이 손바닥만 갖다 대면 혈당이 측정되는 ‘양자 폭포 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 장치를 개발
- 이 장치는 피부세포를 통과하는 레이저가 체내 당분자에 의해 흡수되는 양으로 혈당을 측정
-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3인에게 혈당을 높이는 젤리빈 20개를 먹게 하고, 먹기 전후에 일반적인 핑거프릭(finger-prick) 검사와 이 레이저 장치로 각각 혈당을 측정해 비교하는 실험을 수 주간 반복해 진행
- 그 결과 레이저 측정이 핑거프릭 검사에 비해 평균오차가 다소 컸으나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정확도 범위 이내 임이 확인
- 연구팀은 현재 양자 폭포 레이저 장치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



[Science World Report, 2014.08.22]

2.2 영국



리즈대, 알츠하이머 진단 바이오센서 개발

- 영 리즈대 연구팀이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바이오센서즈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지에 발표
- 바이오센서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칩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만나면 전자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의 강도에 따라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수량을 표시
 - * 아밀로이드 단백질 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진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 바이오센서는 분자인식장치를 이용해 미세한 분량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 연구팀은 이 바이오센서가 아직 개발 초기단계라고 소개한 뒤, 향후에는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나온 피 한방울로 알츠하이머 진단이 가능한 측정 장치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01.09]



AZ, R&D 시설 ‘앨덜리 파크’ 매각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잉글랜드 북서부 체셔(Cheshire)주에 위치한 R&D 시설 ‘앨덜리 파크(Alderley Park)’를 민·관 제휴 첨단과학 연구단지 운영업체 ‘맨체스터 사이언스 파크(Manchester Science Parks)’에 매각
- 앨덜리 파크 매각은 AZ가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혁신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했던 글로벌 본사 이전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의 일환
 - * 당시 AZ는 오는 '16년까지 글로벌 R&D 센터 및 본사를 케임브리지로 이전하면서 2천500여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개

-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은 생명공학의 경우 영국이 글로벌 무대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라며, 맨체스터 사이언스 파크의 앨덜리 파크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한편 매각에 수반되는 구체적 금액 내역은 미공개

[Wall Street Journal, 2014.03.12]



워릭대, 특수 MRI로 갈색지방 촬영 성공

- 영국 워릭대 연구팀이 성인의 체내에 존재하는 갈색지방 조직을 특수 MRI로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발표
- 지금까지 의학계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갈색지방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관찰해 왔으나, PET 영상은 갈색지방의 실물이 아닌 활동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부 기온 같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한계를 보유
- 그러나 워릭대 연구팀은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은 수분과 지방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촬영을 시도했으며, 갈색지방의 분포 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맞춤형 비만 치료법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지방과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 등 두 종류의 지방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갈색지방이 태아와 신생아 때를 제외하곤 인간 체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

[MedPage Today, 2014.04.28]



프라이머디자인, 에볼라 속성 진단키트 개발

- 영국 사우스햄프턴대가 설립한 프라이머디자인(Primerdesign)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속성 진단키트를 개발
- 이 진단키트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혈액 속에 있는 극소량의 바이러스 물질을 잡아내 에볼라 감염 여부를 판단
 - * 에볼라 바이러스 특유의 유전자 지문인 RNA(리보핵산)를 혈액 속에서 찾아내는 기능이 있어 에볼라 의심 환자의 혈액에서 RNA를 채취해 특수 성분이 든 튜브에 넣고 이 튜브를 분석기에서 처리하면 90분 안에 에볼라 감염 여부가 확인
- 프라이머디자인은 이 진단키트를 에볼라 발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를 진행 중



[Mirror, 2014.10.17]

2.3 일본



일 NTT·도레이, 심박 측정 신개념 웨어러블 기기 개발

- 일 이동통신업체 NTT도코모와 소재개발업체 도레이(東レ)가 나노섬유를 이용, 입을 것만으로도 심전도와 맥박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신개념 웨어러블 기기 '히토에(Hitoe)'를 공동개발
 - 히토에는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있는 폴리머를 폴리에스터 극세섬유에 스며들게 한 제품으로, 도레이가 개발한 특수 나노섬유로 제작
 - 히토에는 표면에 부착된 두 개의 정사각형 센서가 티셔츠에 장착된 나노섬유로부터 사용자의 혈압과 심박수 같은 신체 건강 정보를 취함
 - 그 뒤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의 NTT 앱으로 정보를 전달, 사용자가 앱을 통해 신체 변화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NTT와 도레이는 올해 안으로 히토에를 양산해 시판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4.01.30\]](#)



일본 의료기기 업체 테르모, 프랑스 ART 인수

- 일본 의료기기 업체 테르모(テルモ)가 프랑스 의료기기 업체 ART(Arterial Remodeling Technologies)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 테르모는 생체흡수성 스텐트 제조로 유명한 ART 인수를 통해 기능이 더욱 향상된 생체흡수성 스텐트와 함께 금속제 약물용출형 스텐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
 - 테르모는 생체흡수성 및 금속제 약물용출형 스텐트를 합한 전체 스텐트 매출 목표 500억엔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ART를 완전 자회사화한다는 방침
 - * 스텐트는 전 세계에서 연간 500만개 정도 사용되는 가운데, 오는 '20년까지 650만개로 증가하고 이 중 과반을 생체흡수성 스텐트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테르모는 관동맥치료 분야에서 금속제 약물용출형 스텐트 '노보리(Nobori)'를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
 - 한편 ART 인수 금액은 최대 150억엔 정도로 예상

[\[日本經濟新聞, 2014.03.14\]](#)



히타치, 헬스케어 사업 강화 ... IT 서비스 주력

- 일본 전자업체인 히다치제작소(日立製作所)가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 헬스케어 관련 매출을 '13 회계연도('13년 4월 ~ '14년 3월) 3천2백억엔에서 5년 후인 '18 회계연도에는 6천억엔으로 2배 정도 끌어올릴 방침
- 이를 위해 헬스케어사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 산재돼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온 헬스케어 리소스를 통합 운영할 계획
- 또 정보기술(IT)과 의료기술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헬스케어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별 대응 의료기기 및 병원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
- * 헬스케어 IT에서는 IT를 활용한 예방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별 대응 의료기기에서는 수술전후 심기능 평가에 사용하는 초음파장치 등을 개발하며, 병원용 솔루션에서는 지역의 거점병원과 진료소를 연결해 역할을 분담시켜 지역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

[東洋經濟, 2014.03.25]



클라리온·세인트케어, 고령자 ‘복약 지원 로봇’ 개발

- 일본 클라리온과 세인트케어 홀딩이 고령자를 위한 ‘복약 지원 로봇’을 개발, 양사가 공동 설립한 개호로봇 기획·판매회사 케어봇(CareBot)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약국과 요양원 등에 판매한다고 발표
- 이 로봇은 케어봇이 판매하는 첫 번째 제품으로, 고령자와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약을 과잉섭취하거나 복약 자체를 잊는 실수를 방지하도록 지원
- 로봇 제작에는 CD 및 DVD 기술, 인체공학적 설계(Human-Machine Interface) 기술, 노이즈 대책 기술 등이 활용되었으며, 설정한 시간이 되면 음성으로 복약을 안내할 뿐 아니라 화면에도 관련 내용이 표시되도록 설계
- * 복약시간 설정은 아침·점심·저녁·취침전 등 사용자 편의에 따라 최대 4개까지 가능
- 사용자가 약을 꺼내려면 음성과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단추를 누르면 로봇에 내장된 약품 케이스가 장치의 전면 입구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편리
- 케어봇은 일단 '15년 한해 3천대 판매를 목표로 한 뒤 이후 판매량을 계속 증대시킨다는 방침

[Japan Times, 2014.10.03]



테루모, 심부전 환자 심장 재생의료 실용화 추진

- 일본 의료기기 업체인 테루모(テルモ)가 심부전 환자 자신의 세포를 배양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심장 재생의료 실용화를 추진
 - 이 회사가 추진하는 심장 재생의료는 환자의 다리 근육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 제작한 세포 시트를 병원에 공급, 시트를 심장에 붙이는 수술을 통해 중증 심부전 환자의 심장을 회복시키는 내용
 - 이 같은 재생의료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위험성이 낮은 장점을 보유
 - 테루모는 후생노동성에 세포 시트 판매에 필요한 승인을 신청했으며, 안전성 등 심사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심부전이 악화되면 심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심부전 환자가 20만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수천명 정도로 추산

[Bio Impact, 2014.11.02]



모리나가유업, 1분만에 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키트 개발

- 일본 모리나가유업(森永乳業)이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1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 항원 검출 키트 '골드사인 플루(ゴールドサインFLU)'를 개발
 - 골드사인 플루는 항원항체 반응을 수행하면서 색깔을 통해 항원을 검출하는 '이뮤노크로 마트법'을 원리로 한 체외 진단용 의약품
 - 이 키트는 양성 검체는 1분부터, 음성 검체도 8분이면 판정이 가능
 - 모리나가는 실험 결과 골드사인 플루가 양성 검체의 90% 이상을 5분 이내 판정하고, 발열부터 12시간 이내에는 81.5%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소개
 - 모리나가는 현재 이 키트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검출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 검증 중



골드사인 플루

[Nurse-Senka, 2014.11.22]

2.4 EU



EU 연구팀, 촉감 느끼는 생체공학 의수 제작

-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와 이탈리아 바이오로보틱스연구소(BioRobotics Institute) 공동연구팀이 촉감을 느끼는 생체공학 의수 제작에 성공
- 연구팀은 폭죽 사고로 왼손을 절단한 덴마크인 환자 데니스 아보 소렌슨(Dennis Aabo Sørensen, 아래 사진)에게 생체공학 의수를 부착해 한 달간 실험한 결과 환자가 물체의 형태와 촉감을 구별해 냈다고 소개
- 생체공학 의수의 무게는 약 640g이며, 5개의 모터와 40개의 센서 및 1개의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
- 이 의수는 의수 끝 부분에 부착된 촉감 센서가 촉감 신호를 포착해 환자의 팔 위쪽 신경에 이식된 4개 전극을 통해 팔의 신경으로 전달
- 이번 실험에 사용된 의수는 시제품으로, 연구팀은 크기는 줄이고 정교함은 강화한 의수로 만드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



[PR Web, 2014.02.18]



지멘스,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 강화

- 독일의 전기전자 업체인 지멘스가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강화, 도시바 등 일본 국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지멘스는 자회사인 지멘스재팬을 통해 피폭량을 대폭 줄여 환자에 미치는 부작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와 ‘소마톰 스코프(SOMATOM Scope)’를 출시
- * 이들 기기는 0.1초대 고속촬영이 가능하고 검사 중 피검사자가 숨을 쉬어도 되는 장점을 보유

- 또 케이블 없이 의사의 진단 작업을 효율화한 새로운 소형 초음파 화상 진단장치 ‘아쿠손 프리스타일(ACUSON Freestytle)’도 선을 보일 예정으로, 획기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일본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
- 그러나 일본 의료기기는 도시바와 히타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기전자 업체들도 수익성 제고를 노리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여서 이들 업체와의 치열한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

[Siemens Japan, 2014.04.11]



스웨덴 공동연구팀, 뇌졸중 진단 헬멧 제작

- 스웨덴 살베르스공대, 살그렌스카아카데미, 살그렌스카대병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뇌졸중 여부를 긴급 진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헬멧을 제작
- 이 헬멧을 환자에게 씌우면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에서와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신호가 방출되면서 환자 뇌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 영상으로 나타나 뇌졸중이 확실한지, 그렇다면 원인이 뇌경색인지 아니면 뇌출혈 인지 파악이 가능
- 연구팀은 환자의 머리 크기와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의 헬멧을 제작해 45명의 환자에 실험한 결과 뇌졸중 및 뇌졸중 원인 여부를 성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강조
- 이 헬멧은 환자를 이송하는 앰블런스에서 구급요원이 사용할 수 있어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Press TV, 2014.06.22]

2.5 글로벌



미·유럽 제약산업, 임상정보 공유 개시

- 미국제약협회(PhRMA)와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이 미국과 EU에서 허가를 취득한 신약들의 임상시험 정보를 1월1일부터 공유하기 시작
 - 양 기관은 지난 '13년 7월 '책임감 있는 임상시험 자료 공유 원칙'에 합의
 - 이번 조치로 미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EU 각 회원국 약무 당국에 제출된 임상시험 보고서의 개요와 신약 및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되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 등이 공개
 - 제약업체에게는 자사가 제출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 지 추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 이번 임상정보 공유는 학계와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따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구축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약업계의 임상시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PMLiVE, 2014.01.03]



미·일 기술업체, 무통증 주사 실용화 추진

- 미국 3M과 일본의 닛토덴코(日東電工) 등 기술업체들이 통증이 거의 없는 주사에 대한 실용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3M은 벤처 제약업체와 함께 5분 정도 피부에 붙이면 약이 체내로 투여되는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한 뒤 향후 수년 내 실용화한다는 계획
 - 닛토덴코는 바늘을 사용하는 대신 열을 가해 피부 속으로 약이 투여되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오는 '20년 시판할 예정
 - 이러한 무통증 주사는 고령화가 확산되면서 환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투약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백신 접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일본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인 항체의 약 등을 피부를 통해 투여하는 연구도 시작
 - 한편 전 세계 주사제 시장 규모는 오는 '17년 4조3천억엔에 이를 전망

[日本經濟新聞, 2014.01.08]



국제 공동연구팀, 세포 유전자 DB 구축

-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피부와 장기 등 180종에 이르는 세포의 유전자 활동 특징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조만간 공개할 예정
- 연구팀은 이 세포 유전자 DB를 통하면 뇌, 피부, 혈액, 모낭 등의 각종 세포를 움직이는 유전자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혹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DNA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
- * 이 DB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을 비롯, 전세계 20여개국 250여명의 과학자들이 '팬텀5(fantom 5)'라는 프로젝트 아래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해 완성
- 또 특정 신체조직 또는 기관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핵심 변이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항암제 개발 등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Lab Online, 2014.04.02]



미·일 연구팀, 3D 화상처리시스템 개발 ... 의료현장 활용 기대

- 미국 벤처업체인 지스페이스(zSpace)와 일본 도쿄대 공동 연구팀이 3D 영상을 손으로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 화상처리시스템을 개발
- 이 시스템은 3차원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와 2대의 카메라로 구성
- 디스플레이에 비춰진 화면을 3D 안경으로 보면 화면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조작자 손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2대의 카메라가 손 형태와 위치를 인식
- * 기존 기술로는 처리속도가 손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연구팀은 처리속도를 기존에 비해 15배 빠르게 해 시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성능을 개선
- 이 시스템은 의료진이 수술중 환부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또 MRI 등 3D 화상을 회전시키면서 환자에 상태를 설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이용, 심장의 입체화상 위치를 바꾸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심장 내부도 간단한 동작으로 볼 수 있게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4.05.23]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에볼라 진단기 개발 붐 ... 시판에는 미흡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에볼라 감염 여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진단기 개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시판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오파이어, 코제닉스, 나노 바이오심, 나노믹스, 프랑스에서는 원자 에너지위원회, 파스퇴르연구소, 독일에서는 제노바 등 의료기기 업체와 연구소가 에볼라 진단기 시장에 진입
 - 보통 에볼라 진단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증폭시켜 적은 양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폴리메라아제 연쇄반응을 반전복사하는 기술(RT-PCR)을 사용하나 숙련된 전문가만 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도 건당 100불로 비싼 편
 - 지난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파이어의 테스트 장치(이미지 참조)의 경우 1시간이면 진단 결과가 나오나 유전자를 증폭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리는 신속해도 정확도가 감소

[New York Times, 2014.11.05]

3. 확장품

3.1 미국	735
3.2 영국	742
3.3 일본	743
3.4 EU	748
3.5 아시아	768
3.6 중동	770
3.7 글로벌	771
3.8 중남미	773

3.1 미국



미국 IFF, 이스라엘 향수원료업체 AFF 인수

- 미 향수원료·방향성 물질 업체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앤 프래그런스(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 IFF)가 이스라엘 향수·향신료 원료업체 아로모 플레이버스 앤 프래그런스(Aromor Flavors & Fragrances : AFF)를 8천8백만불에 인수
 - IFF는 이번 인수로 AFF가 강점을 보이는 향수원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R&D 인력을 확보, 향수 제품 개발과 매출 확대에 큰 진전을 기대
 - AFF도 자사의 노하우와 IFF의 역량이 결합되면 신제품 개발과 기술진보 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 IFF는 독일 짐리제(Symrise), 스위스 지보단(Givaudan) 및 피르메니히(Firmenich) 등과 업계 선두를 겨루어 온 가운데 지난 '11년에는 27억8천만불의 매출 실적을 기록
 - AFF는 그동안 IFF에 향수 원료를 공급해 온 파트너업체로 지난 '13년 매출은 총 3천5백만불 정도

[CosmeticsDesign-USA, 2014.01.22]



미국 TPG 그로스, E.l.f. 코스메틱스 인수

- 글로벌 투자기업인 미국 TPG 그로스(TPG Growth)가 같은 미국 E.l.f. 코스메틱스(E.l.f. Cosmetics)의 지배 지분을 인수
 - 양사는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TPG 그로스가 E.l.f. 코스메틱스에 2억~3억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
 - E.l.f. 코스메틱스는 아이케어·립케어·페이셜케어·화장도구·네일컬러 등 다양한 화장품 및 관련 제품들을 대부분 3불 이내 중저가로 발매해 온 매스마켓 브랜드 업체로, 혁신성을 바탕으로 명성을 구축하면서 성장을 지속
 - * 이 회사는 타겟(Target)을 비롯한 메이저 유통채널들과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자사의 프리스텐딩 스토어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유통
 - TPG 그로스는 자사가 소비자 및 패션 및 유통에 정통한 기업이라고 자평한 뒤, 이번 지배 지분 인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osmeticsDesign-USA, 2014.02.04]



J&J, 주름개선제 ‘퍼톡스’ 개발 중단

- 미국 존슨앤존슨(J&J)이 제 2의 보톡스로 기대를 모아 온 주름개선제 ‘퍼톡스(PurTox)’ 개발을 중단
 - 퍼톡스는 그동안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연구팀 주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왔는데, J&J는 개발을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 J&J는 지난 '08년 멘토 코퍼레이션(Mentor Corporation)을 10억700만불에 인수하면서 당시 멘토가 한창 개발 진행 중이었던 퍼톡스를 확보
 - * 멘토는 유방확대 및 재건에 사용되는 유방보형물과 안면성형술에 필요한 피부이식 관련 제품 등 각종 미용기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제조해 온 업체
 - J&J는 지난 '13년 1월 퍼톡스의 허가신청서를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 법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까지 승인 신청이 지연
 - J&J는 퍼톡스 개발이 중단됨에 따라 멘토가 유방보형물 등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CosmeticsDesign-USA, 2014.04.16]



미국 화장품 업계, 마이크로비드 퇴출 움직임 ... 대체재 확보는 난항

- 미국 화장품 업계에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진 마이크로비드(microbeads)*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
 - * 박피제 · 클렌저 · 샤워젤 등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에 스크럽 용도로 사용되는, 특유의 클렌징 효과와 함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작은 입자
 - 일리노이주 상원에는 마이크로비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완전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마이크로비드 퇴출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법안 통과를 압박
 - 이에 앞서 유니레버, 로레알, P&G, J&J 등 글로벌 업체들도 마이크로비드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7년까지 대안 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각종 미네랄 입자와 과일씨앗 등에서 마이크로비드 대신 사용가능한, 마이크로비드와 유사한 효능과 안전성이 있는 천연 대체재를 찾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CosmeticsDesign-USA, 2014.05.07]



네일아트숍 자외선 불빛, 피부암 유발 가능성

- 미국 조지아리전츠대 연구팀이 네일아트숍에서 손톱을 건조시키거나 젤을 굳히기 위해 구비한 램프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이용자들의 피부건강을 위협하면서 피부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 연구팀이 무작위로 네일아트숍 16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24~42개월 사이 8~14회 이상 네일아트숍을 찾아 램프의 불빛을 쬔면 피부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피부암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네일아트숍에 구비된 램프에서 나오는 불빛은 선풍용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종류인 자외선A가 대부분
- 연구팀은 네일아트숍 방문은 3개월에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손톱케어를 받을 때는 로션 마사지 대신 선스크린을 바르거나, 끝 부분을 잘라낸 자외선 차단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Scientific American, 2014.05.06]



칼라일그룹, ADA 코스메틱스 매각

-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미국 칼라일그룹이 계열사인 독일 ADA 코스메틱스(ADA Cosmetics)를 프랑스 민간투자기업 아디아(Ardian)에 매각하기로 결정
- ADA 코스메틱스는 독일의 국경도시 켈(Kehl)에서 1979년 설립된 이래 4~5성급 고급 호텔에 고품질 화장품과 보디케어 및 액세서리를 공급해온 업체로, 독일 브렌너스 파크와 스위스 바트루트 팔라스 등이 주요 고객
- * 최근에는 아부다비의 이티하드타워 등 중동과 아시아로도 진출을 확대
- 특히 ADA 코스메틱스는 지난 '11년 칼라일그룹이 투자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5천300만 유로 매출이 예상되고, 동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70% 증가가 전망될 정도로 경영이 호조
- 한편 매각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투자한 기업을 부가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영 행태를 감안할 때 칼라일그룹이 충분한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

[CosmeticsDesign-Europe, 2014.07.29]



미국 립케어 제품 매출 호조 ... 올해 14억불 가능

○글로벌 시장조사사업체인 영국 민텔(Mintel)은 지난 '12년부터 올 연말까지 미국에서 립케어 제품 매출이 9% 정도 증가하면서 올해 14억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립케어 부문이 전체 색조화장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넘보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과시
- 립케어 제품들은 10명당 9명꼴로 대다수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운데, 제품 유형별로는 립밤이 60%에 달하는 여성이 사용해 가장 높은 사용도를 보였고, 립스틱이 58%로 그 뒤를 바짝 추격
- 이런 가운데 립밤을 비롯한 립케어 사용자들은 일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경향이 뚜렷,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페이스케어 및 아이케어 사용자와 차이
- 민텔은 립케어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보습효과와 유연한 입술 연출 등 스킨케어 기능까지 추가로 겸비함에 따라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Beauty Packaging, 2014.08.21]



블루베리 추출물,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사용 전망

○미국 화장품 원료업체 크로마덱스(ChromaDex)가 캘리포니아대(어바인 캠퍼스)에 의뢰한 연구에 의하면 블루베리에 함유된 성분 '프티로스틸벤(pterostilbene)'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이 실험용 쥐들을 자외선에 노출시키기에 앞서 프티로스틸벤을 부분적으로 바른 결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
 - * 프티로스틸벤은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과 피부발적(reddening), 피부세포의 과다증식, 피부막 기능 소실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
- 프티로스틸벤을 포도와 와인 등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과 비교했을 때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분석
- 크로마덱스는 캘리포니아대가 보유한 프티로스틸벤의 국소도포용 스킨케어 제품 적용 특허권과 관련해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받고 있어 조만간 프티로스틸벤을 함유한 화장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

[CosmeticsDesign-USA, 2014.09.24]



라이스브랜, 쌀겨 추출물 화장품 출시 임박

- 미국의 식품원료·동물용 사료업체인 라이스브랜 테크놀로지스(RiceBran Technologies)가 쌀겨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 개발 과정을 마무리
- 라이스브랜은 그동안 텍사스주 어빙에 소재한 생산 공장과 브라질 남부도시 펠로타스에 위치한 공장에서 쌀겨 추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의 개발을 진행
 - * 이들 제품은 핸드크림, 스킨크림, 향노화 세럼, 박피제, 모이스처라이저 및 각종 트리트먼트
- 라이스브랜은 금년 내 또는 '15년 1/4분기 중 제품 공급과 발매에 착수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
- 쌀겨에는 감마 오리자놀, 세라마이드, 비타민E 및 자외선 흡수물질 등 보습과 탄력성 제고를 촉진시켜 피부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라이스브랜은 자사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Cosmetics Technology, 2014.09.25]



고급 란제리·여성의류 업체 '소마' , 향수시장 진출

- 미국의 고급 란제리·여성의류 업체 '소마(Soma)'가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우아함까지 결합한 신제품 향수인 인타이싱 소마(Enticing Soma) 컬렉션을 통한 미국 향수시장 진출을 선언,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
- 인타이싱 소마는 블랙커런트를 톱노트로, 가드니아·삼페인 로즈·프레쉬 프리지아·화이트 머스크 등을 주요 방향성 성분으로 함유
- 향수병은 감각적인 곡선미와 핑크빛 색채를 채택해 마치 보석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제작
- 소마는 인타이싱 소마를 2.5 온스 용량의 오데 퍼퓸 스프레이와 0.23 온스 용량의 오데 퍼퓸 롤러볼로 우선 선을 보인 뒤 다음달 추수감사절 시즌에 6.2 온스 제품까지 내놓으면서 향수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방침
- 인타이싱 소마 향수 컬렉션은 총 270여 곳에 육박하는 미국 내 소마 부티크 매장과 인터넷 사이트 www.soma.com을 통해 발매될 예정

[Mimi Froufrou, 2014.10.12]



에스티 로더, 최고급 스킨케어 업체 ‘로딘 올리오 루쏘’ 인수

○ 미국 에스티 로더가 이탈리아의 최고급 스킨케어 업체 ‘로딘 올리오 루쏘(RODIN olio lusso)’를 인수

- 지난 '07년 설립된 로딘은 뷰티 감각이 돋보이는 ‘럭셔리 페이스 오일(Luxury Face Oil)’을 비롯해 최고급 브랜드 제품을 출시, 소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온 스킨케어 업체

* 럭셔리 페이스 오일에는 각종 화훼류 및 식물들로부터 추출된 11종의 에센셜 오일들이 함유

- 로딘 제품들은 바니스(Barney's)를 비롯한 최고급 백화점과 유행을 선도하는 부티크 매장, 전문점 등 유통경로를 통해 발매

- 에스티 로더 측은 로딘이 뛰어난 창의력으로 럭셔리 제품라인을 구비해 뷰티 업계에서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 이번 인수로 자사가 제품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업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

- 한편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은 미공개

[CosmeticsDesign-USA, 2014.11.03]



에스티 로더, 최고급 향수 업체 ‘에디시옹’ 인수

○ 미국 에스티 로더가 프랑스의 최고급 향수 업체 ‘에디시옹 드 파르페 프레데릭 말(Editions de Parfums Frédéric Malle)’을 인수

- 에디시옹은 지난 '00년 세계적 조향사 프레데릭 말(Frédéric Malle)이 설립한 업체로, 유행을 선도하는 고객들이 감별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향기를 위해 그동안 가내수공업으로 최고급 향수 컬렉션을 제조

- 이들 향수는 파리와 뉴욕에 위치한 5개 단독 매장과 런던 리버티(Liberty)와 미국 바니스(Barney's) 등 최고급 백화점에서 판매

- 에스티 로더 측은 에디시옹이 최고급 향수에 대한 헌신으로 오늘날의 향수 컬렉션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이번 인수는 에스티 로더가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된 최고급 향수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인수 금액 등 구체적 조건은 미공개된 가운데, 에스티 로더는 특히 최근 들어 이탈리아 스킨케어 업체 ‘로딘 올리오 루쏘(RODIN olio lusso)’를 인수하는 등 M&A에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

[CosmeticsDesign-USA, 2014.11.10]



인터파폼스,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와 향수 제휴

- 미국의 화장품업체 인터파폼스가 활동적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미국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 Fitch)’와 향수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인터파폼스가 오는 '16년 ‘아베크롬비 앤 피치’ 및 ‘홀리스터(Hollister)’를 브랜드 명으로 하는 신제품 향수들을 개발하기로 합의
 - 또 인터파폼스가 이 제품들을 향후 7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점·고급백화점·면세점 등에 독점 공급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면세점과 아베크롬비 앤 피치 및 홀리스터 브랜드숍 등에도 독점 공급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
 - * 이 제품들이 시판되면 5년 동안 4억~5억불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를 비롯해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길리 Hicks(Gilly Hicks)’ 등 브랜드의 남·녀 및 소아용 고급 캐주얼 의류들을 제조해 왔으며, 현재 미국에 834곳, 유럽과 캐나다, 아시아, 호주 및 중동 지역 등에 166곳의 자체 매장을 보유
 - 한편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미공개

[Fashion Magazine, 2014.12.16]

3.2 영국



마스카라 독성 동물실험 대체 방법론 개발

- 영 리버풀대 연구팀이 지금까지 마스카라 제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신뢰도는 높은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
 - 연구팀은 원생동물(protozoa)들을 먹이와 함께 서로 다른 6가지 브랜드의 마스카라 제품들이 들어 있는 시험관에 주입한 후 원생동물들의 증식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마스카라 제품들의 독성을 평가
 - * 사용된 원생동물은 짚신벌레와 블레파리스마 자포니쿰(Blepharisma japonicum)
 - 그 결과 일부 마스카라 제품들은 원생동물들을 괴사시킨 반면 다른 제품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화장품 업계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최근의 글로벌 흐름으로 인해 더 이상 토끼를 사용해 마스카라의 독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실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CosmeticsDesign-Europe, 2014.01.07]



영국 색조화장품 시장, 15억 파운드 돌파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영국 민텔(Mintel)은 올해 영국의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가 15억 파운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일반 색조화장품 10억 파운드, 고급 색조화장품은 5억5천200만 파운드)
 - 지난해 영국 여성들은 93%가 색조화장품을 사용한 가운데, 일반 색조화장품에 9억8천600만 파운드, 고급 색조화장품에는 5억3천100만 파운드를 지출
 - 지난해 고급 색조화장품 부문은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4천만 파운드 정도 증가했지만, 올해는 혁신의 영향이 일반 색조화장품까지 파급되고 현명한 소비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
 - * 고급 색조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 사이 작은 제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 색조화장품은 업체들이 소비자들과 소통에 힘쓰면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뚜렷
 - 한편 영국 여성(16~24세)의 56%는 색조화장품 광고가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SkinInc, 2014.08.11]

3.3 일본



일본 고세, 미국 화장품 업체 ‘타트’ 인수

- 일본 화장품 업체 고세(KOSE)가 미국 화장품 업체 ‘타트(Tarte)’ 인수를 결정
 - 이번 인수는 동남아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사업 전략에서 탈피, 해외 특히 북미 시장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중기(中期) 경영계획의 일환
 - 타트는 피부활성 성분으로 불리는 고효능 천연물 원료를 소재로, 색조화장품과 스킨케어 분야에 특화한 업체로, 매출 대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발생
 - * 지난 '12년에는 매출 5,241만불, 영업이익 978만불, 순이익 559만불을 기록
 - 타트의 제품들은 타트의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와 TV 홈쇼핑 채널은 물론, 세포라(Sephora)·울타(ULTA)·메이시스 펄스(Macy's Impulse) 등 프리미엄급 유통 채널을 통해서도 발매
 - * 타트 제품은 특히 20~30대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
 - 고세는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자사의 존재감을 강화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Premium Beauty News, 2014.03.19]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몸살

- 일본 가네보화장품이 백반증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몸살
 - 가네보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가 하얗게 얼룩지는 백반증 피해를 입은 40~50대 4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1억3천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제기
 - * 이에 앞서 지난 4월초에는 30~70대 남녀 14명이 1인당 5백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제기
 - 이들 원고는 지난 '11~'13년 멜라닌을 억제하는 미백 성분이 함유된 화장수 등 가네보

제품을 사용한 이후 얼굴·목·손 등에 백반증이 발생했다며 제품 안전성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네보가 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

- 가네보는 백반증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확산됨에 따라 곤혹스러운 입장
- 한편 지난 2월 현재 가네보 측에 신고된 백반증 피해자는 약 1만5천여 명

[日本經濟新聞, 2014.04.24]



시세이도, 탈모증 치료연구소 개소

○ 일본 화장품업체 시세이도가 탈모증 치료연구소인 시세이도세포가공배양센터(資生堂細胞加工培養センター)를 개소

- 연구소는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고베의료산업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상업화를 목표로 한 모발 재생의학 R&D 활동에 전념

* 일본에서 재생의학은 대표적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의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 시세이도는 그동안 모발 재생의학 제품 개발에 힘써 지난해 7월에는 캐나다 바이오벤처 기업 레플리셀 라이프 사이언시스(RepliCel Life Sciences)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발재생의료기술 ‘RCH-01’*을 확보

* 두피 부위의 모낭에서 분리된 특정한 세포를 배양하고 탈모가 나타난 두피 부위에 이식하는 ‘자가유래 세포 이식 기술’의 일종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

[朝日新聞, 2014.04.25]



시세이도, 자딕 앤 볼테르와 향수 라이선싱 제휴

- 일본 화장품업체 시세이도가 프랑스 패션업체 자딕 앤 볼테르(Zadig & Voltaire)와 향수 라이선싱 제휴를 체결(제휴기간 15년)
 - 양사는 자딕 앤 볼테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한 신제품 향수를 시세이도가 자회사인 보떼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Beaute Prestige International : BPI)을 통해 개발·제조하고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는 데 합의
 - 이번 제휴로 시세이도는 글로벌 향수 라인업에 또 하나의 전략 브랜드를 추가하면서 향수 부문 포트폴리오를 6개 브랜드로 확대
 - 자딕 앤 볼테르는 한때 대중적인 로큰롤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뉴웨이브 프렌치 패션’을 대표하는 업체로 명성
 - BPI의 경우 지난 1990년 시세이도의 자회사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향수제품들을 시판해 왔을 뿐 아니라 메이저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향수도 개발

[GCI Magazine, 2014.06.24]



키라리토, ‘네일허브’ 앱 서비스 준비 박차

- 일본 최대 게임 그래픽 솔루션 제공업체 키라리토(Kirarito)가 ‘앱으로 미용 산업을 혁명한다’는 모토 아래 ‘네일허브(Nailhub)’ 앱 서비스 준비에 박차
 - 네일허브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네일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지원하는 앱으로, 다음 달 일본·북미·한국·중국에서 공식 출시
 - 네일허브 앱 사용자는 스마트폰은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네일 전문가와 연계되며, 비용과 서비스 시간대 등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
 - 또 앱에는 각 네일 전문가의 과거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대한 평가도 공개
 - 키라리토는 네일허브 앱이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 사정으로 뷰티숍에 나가기 어려운 네일 아티스트들에 자신의 전문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강조

[High Beam Research, 2014.07.09]



롯데제약, ISCO와 R&D 제휴 ... 첨단 화장품 출현 관심

- 일본 롯데제약(Rohto Pharmaceuticals)이 미국 생명공학업체 인터내셔널 스템셀 코퍼레이션(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 ISCO)과 R&D 협약을 체결, 첨단 화장품이 개발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
- 롯데제약은 화장품 부문에서도 오랜 연륜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로, ‘하다라보(Hadalabo)’, ‘옥시(Oxy)’, ‘오바기(Obagi)’ 등 브랜드 제품을 보유
- 양사는 롯데제약이 ISCO가 확보한 인간 줄기세포들을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안전성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한 뒤 ISCO와 공동으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스킨케어 등 첨단 화장품을 제조한다는 데 합의
- 또 이렇게 제조한 줄기세포 화장품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 양사 제휴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로 결정
- 한편 ISCO가 일반 기업과 제휴하기는 이례적인 일로, ISCO는 지금까지 주로 대학과 R&D 협력을 진행

[CosmeticsDesign-Asia, 2014.07.10]



시세이도, 어린이 미용실 사업 투자 ... 미래 소비자 확보 포석

- 일본 화장품업체 시세이도가 어린이들을 겨냥한 미용실(kid's beauty salon) 사업에 투자하고 나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고조
- 시세이도는 지난 7월 혼슈 서부지역 효고현(兵庫縣)에 어린이 미용실을 개설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수도 도쿄에 어린이 미용실을 오픈할 계획
- 시세이도는 어린이 미용실에 소속 미용사들을 보내 메이크업 캠프와 스킨케어 강좌, 네일케어 교실 등 화장 교육을 진행
- 이러한 움직임은 이른 나이에서부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촉발, 미래의 소비자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전략의 일환
- 한편 시장조사업체 영국 커네티언에 의하면 9~15세 연령대 소비자들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138억불 상당의 각종 화장품을 소비한 가운데 오는 '18년에 이르면 소비 규모가 181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Salon Magazine, 2014.08.13]



고세, iPS 세포 화장품 개발 본격 추진

- 일본 고세가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해 67세 일본인 남성의 피부세포를 36세 때 피부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iPS 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
- 고세는 이 남성에게서 1980년 이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온 36~67세 각기 다른 연령의 피부세포를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에 의뢰해 iPS 세포로 제작
- 그 뒤 이 iPS 세포를 분석한 결과, 노화 지표인 염색체 상태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67세 때의 염색체도 36세 때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했음을 확인
- 고세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피부노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화장품 개발에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5년 내 iPS 세포를 이용해 피부에 미치는 부담이 적은 새로운 신개념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
- 또 iPS 세포로 제작된 피부를 바탕으로 민감성 피부를 재현하고 보다 안전한 화장품 개발에 대한 평가방법 등도 확립할 방침

[QLifePro, 2014.10.28]

3.4 EU



독일 헨켈, 모스크바 노긴스크 뷰티케어 공장 인수

- 독일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업체 헨켈(Henkel)이 오스트리아 벨켄 홀딩(Wellchem Holding)의 러시아 모스크바 노긴스크(Noginsk) 뷰티케어 공장을 인수
 - 이번 인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헨켈 글로벌 전략의 일환
 - 헨켈의 뷰티케어 사업부문은 이번 인수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획기적인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헨켈 뷰티케어 사업부는 지금까지 동유럽 시장에서 ‘슈바츠코프(Schwarzkopf)’, ‘파(Fa)’, ‘사이오스(Syoss)’ 등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을 앞세워 뷰티케어 업계 선두 주자의 위치를 고수
 - 헨켈은 향후에도 동유럽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의 투자 확대와 M&A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

[Premium Beauty News, 2013.12.24]



코티, 중동 진출 확대 ... UAE에 합작 유통업체 설립

- 프랑스 화장품업체 코티가 UAE의 럭셔리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 칼후브 (Chalhoub) 및 자산말(Jashanmal)과 공동으로 합작 유통업체 코티 디스트리뷰션 에미리트(Coty Distribution Emirates)를 설립
 - 코티는 합작사 설립으로 UAE를 중심으로 중동 각국에 화장품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
 - * UAE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매우 개방적이어서 인근 중동 각국과 유럽은 물론 전세계에서 소비자들이 고급 화장품 구매 등 쇼핑 등을 즐기기 위해 찾는 글로벌 관광 국가
 - 코티는 UAE가 대표적 신흥 뷰티시장의 하나라며 합작사 설립에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칼후브와 자산말도 합작사 설립을 통해 중동지역 내 시장과 소비자 니즈에 한층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칼후브는 예전부터 코티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

[Moodie Report, 2013.12.29]



코티, 레나 화이트 인수 ... 유럽 화장품 시장 공략 가속화

- 프랑스 코티가 영국 화장품 유통업체 레나 화이트(Lena White) 인수를 결정
 - 레나 화이트는 지난 30여년 동안 코티의 파워 네일케어 브랜드 OPI의 영국 시장 유통을 전담해 온 업체로, 전문가 채널과 소매유통 채널을 통해 OPI를 공급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파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
 - 코티는 이번 인수로 레나 화이트의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에서의 OPI 브랜드 마케팅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
 - * 미셸 스카나비(Michele Scannavini) 코티 회장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유럽 내 네일케어 투자를 확대, OPI 브랜드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
 - 코티는 그러나 전문가 채널과 소매유통 채널을 위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전략은 레나 화이트 인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
 - 한편 양사는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

[Wall Street Journal, 2014.01.06]



로레알, 중국 페이스 마스크 부문 진출

-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이 중국 상무부로부터 페이스 마스크 제조업체 매직 홀딩스 인터내셔널(Magic Holdings International : MHI)에 대한 인수 승인을 취득
 - 로레알은 지난 '13년 8월 MHI에 주당 81센트 총 8억4천3백만불의 조건으로 인수를 제안
 - 광둥성 광저우에 소재한 MHI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세가 급격한 페이스 마스크 부문에서 돋보이는 행보를 지속, MG 브랜드의 경우 페이스 마스크 부문의 리딩 브랜드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도록 만드는 데 성공
 - * MHI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12년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억5백만불
 - 이번 인수로 로레알은 랑콤과 같은 기존 고급 브랜드와 함께 페이스 마스크 부문에서도 제품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로레알은 현재 중국에서 3천5백여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쑤저우와 이창에 공장을, 상하이에 리서치센터를 운영

[China Daily, 2014.01.14]



로레알, 중국 시장에서 ‘가르니에’ 브랜드 철수

-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이 중국 시장에서 ‘가르니에(Garnier)’ 브랜드를 철수하는 대신 ‘랑콤(Lancome)’, ‘메이블린(Maybelline)’, ‘로레알 파리(L’Oréal Paris)’ 같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
- 로레알은 지난 '97년 랑콤을 필두로 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선도적 화장품 업체로 부상했으나 가르니에 브랜드 제품의 경우 '12년 매출이 중국 내 로레알 전체 매출 15억 유로의 1%에 불과
- 전문가들은 고급 제품도 아니고 일반 대중용 제품도 아닌 가르니에 브랜드 제품 이미지가 어정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
- 또 지역물류센터가 쑤저우와 상하이 2곳뿐이어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철수 요인으로 거론
- 한편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59억불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이며 '15년까지 63%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Economic Times, 2014.01.15]



오스트리아 스토즐 글라스, 프랑스 베레리·보르미올리 인수

- 오스트리아의 고급 향수병·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스토즐 글라스 그룹(Stolzle Glass Group)이 동종업체인 프랑스 베레리 드 마스니에르(Verreries de Masnieres)와 보르미올리 로코 발로리싸시옹(Bormioli Rocco Valorisation)을 인수
- 베레리와 보르미올리는 모두 보르미올리 로코 그룹(Bormioli Rocco Group)의 자회사로 프랑스 북부에 제조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수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효력이 발효
- 스토즐 글라스는 향수와 화장품, 와인, 고급 주류 및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최고급 패키징 글라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유럽 굴지의 메이커로, 이번 인수를 통해 역내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
- * 스토즐 글라스는 지난 1990년 이래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유럽 5개국(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에 39곳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총 2천여명

[Beauty Packaging, 2014.01.20]



로레알, 네슬레 보유 자사 지분 4천850만주 환매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세계 최대 식품기업 스위스 네슬레가 보유한 자사 지분 총 4천850만주(60억 유로 규모)를 환매하기로 결정
 - 로레알은 주식 매입 금액 중 34억 유로는 현금으로, 또 일부는 자사가 보유한 스위스 제약업체 갈더마의 지분 50%(2천120만주)를 처분해 지급하며 나머지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
 - * 갈더마는 로레알과 네슬레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 로레알은 환매 주식을 전량 소각해 회사에 대한 오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면 베탕쿠르 마이어스(Bettencourt Meyers) 가문의 로레알 지분율은 30.6%에서 33.31%로 증가
 - * 또 로레알 이사회에 참여하는 네슬레측 이사 수가 종전의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고, 지분 상한 조항이 적용되는 등 변화도 예상
 - 한편 로레알은 그 동안 밝혀왔던 대로 10억명의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화장품 사업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Businessweek, 2014.02.11]



솔베이, 싱가포르 연구혁신센터 개소 ... 화장품 원료 사업 강화

- 종합화학그룹인 벨기에 솔베이가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Biopolis) 내 1천1백m² 부지에 연구혁신센터를 개소, 화장품 원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
 - 센터 설립에는 2백만 유로가 소요됐으며, 향후 5년간 운영에 5백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
 - 센터는 화장품 원료를 중심으로 홈케어 · 퍼스널케어 · 코팅제 · 석유 및 가스 부문 자회사인 노브케어(Novecare)의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 또 농화학 사업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내 고객업체들과 생산 공장들에 기술적 지원도 제공
 - 솔베이 측은 지난 수 년 동안 싱가포르가 엄청난 변혁을 거친 끝에 이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식 및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며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
 - * 실제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 EDB)은 솔베이 연구혁신센터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

[CosmeticsDesign-Asia, 2014.02.13]



로레알, 에볼바와 화장품 첨단원료 개발 제휴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스위스 뷰티·헬스·영양 원료 전문업체 에볼바 홀딩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첨단원료를 새로운 생합성(biosynthetic) 방식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에볼바측이 보유한 발효 플랫폼 기술을 이용,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고부가가치 화장품 첨단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곧바로 착수, 오는 '1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 양사는 이와 함께 공동개발을 진행할 화장품 원료의 타깃을 추후 확대할 수 있는 옵션 조항에도 합의
- 로레알은 공동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연구비를 에볼바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개발 성과가 도출될 경우 연구목표 부합 정도에 따라 성과금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Financial Express, 2014.02.12]



코티, 피아지오와 ‘베스파’ 향수 제휴

- 프랑스 화장품 업체 코티가 이륜 스쿠터 ‘베스파(Vespa)’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스쿠터 제조업체 피아지오와 제휴, 새로운 향수를 선보이기로 결정
- 베스파는 지금까지 1천800만대 이상 판매된 가운데 150편 이상의 영화에서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 단순한 스쿠터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이콘격 브랜드의 하나로 성장
- * 전문가들은 베스파를 이탈리아 특유의 스타일, 기술, 창의성, 우아함 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
- 코티는 이번 제휴로 인해 베스파를 브랜드명으로 하는 남·녀 공용 듀오향수를 개발해 독점적으로 발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오는 5월경에는 베스파 듀오향수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코티는 우선 유럽시장에서 베스파 듀오 향수 반응을 살핀 뒤 성과 여부에 따라 글로벌시장에도 선을 보일 계획

[Le Monde, 2014.02.19]



로레알, 시세이도 ‘드끌레오’ · ‘카리타’ 인수 타결

- 프랑스 로레알이 일 시세이도의 뷰티 브랜드 ‘드끌레오(Decleor)’와 ‘카리타(Carita)’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던 협상이 최종 타결
- 드끌레오와 카리타는 시세이도의 프로페셔널 사업 부문에서 시판되는 제품으로, 드끌레오는 전세계 80개국 카리타는 56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13년 두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1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
- * 드끌레오와 카리타는 특히 글로벌 뷰티 인스티튜트, 스파, 헤어살롱 등에서 프로페셔널 스킨케어 브랜드로 각광
-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시세이도의 경우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힘을 쏟고 있는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브랜드 ‘조이코(Joico)’를 비롯해 주력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 증대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 간에 오고갈 금액은 총 2억2천75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Premium Beauty News, 2014.02.24]



BASF, 중 난징에 퍼스널케어 원료 공장 신축

- 독 BASF가 중국 난징화학산업단지(Nanjing Chemical Industry Park)에 퍼스널케어 원료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
- 난징 공장은 오는 '15년 말 완공되며, 퍼스널케어 원료인 디메칠아미노프로필아민(DMAPA)과 폴리에테르아민(PEA) 등을 생산
- * DMAPA와 PEA는 샴푸와 보디워시를 비롯한 각종 퍼스널케어 제품들을 제조할 때 함유되는 보조 계면활성제
- 난징 공장은 독일 루트비히샤펜(Ludwigshafen) 및 미국 가이스마(Geismar) 공장과 함께 퍼스널케어 원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BASF의 퍼스널케어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
- BASF는 자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DMAPA와 PEA의 주요 공급업체라고 강조한 뒤, 난징 공장 신축은 날로 증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사업 전략이라고 설명

[World Press Online, 2014.03.03]



지보단, 화장품 원료업체 ‘솔리앙스’ 인수 협의

- 스위스의 국제적 향수원료·방향성 물질 업체 지보단(Givaudan)이 프랑스 ‘솔리앙스(Soliance)’ 및 솔리앙스 계열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협의에 돌입
 - 솔리앙스는 각종 식물·미생물·미세조류 등을 소재로 한 혁신적인 화장품 원료와 고부가가치 유효 성분들을 공급해 온 업체로,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 포마클(Pomacle)과 그랑드(Grande)에 공장을 보유
 - 인수가 확정되면 지보단은 2천5백만 스위스프랑(미화 약 2천8백만불)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지보단은 솔리앙스가 화장품 원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R&D 역량이 뛰어나 자사의 사업 확대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인수 추진 배경을 설명
 - 한편 인수에 따른 구체적 금액 내역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인수에 따른 세부절차들은 관계 당국의 승인 및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2/4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

[Fashionbi 247, 2014.02.27]



네슬레, 피부관리 사업 본격 진출 ... 갈더마 완전 합병

- 세계 최대 식품기업 스위스 네슬레가 피부관리 사업에 본격 진출할 전망
 - 이는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네슬레에 자사주 환매 비용의 일부로 피부관리 업체 스위스 갈더마의 지분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 * 지금까지 갈더마 지분은 로레알과 네슬레가 각각 50%씩 보유
 - 네슬레는 로레알의 결정으로 갈더마를 완전 합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갈더마를 처방약에서 비누·선크림·헤어케어·네일케어 등 OTC 브랜드를 총괄하는 신설 네슬레 스킨헬스 사업부의 산하로 편입시킬 계획
 - 최근 들어 네슬레는 성장이 정체된 식품사업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고 마진도 높은 피부관리 등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적극 추진
 - 한편 갈더마의 '13년 미국 시장 내 매출은 전년 대비 3.9% 정도 증가한 22억불 정도

[Businessweek, 2014.03.06]



로레알,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 단계적 퇴출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스크럽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 (Polyethylene microbead)*’를 오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

* 박피제 · 클렌저 · 샤워젤 등 3가지 유형 화장품에 스크럽 용도로 사용되는, 특유의 클렌징 효과와 함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작은 입자

- 로레알은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 조사 작업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이 결정
- 로레알은 올해에는 비오템(Biotherm) 브랜드 제품, 내년에는 보디숍(Body Shop) 브랜드 제품에서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를 퇴출시킨 뒤, 오는 '17년에는 전체 제품으로 퇴출을 확대할 계획
- 한편 로레알은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드와 동일한 수준의 효능과 안전성이 있는 천연 대체재를 각종 미네랄 입자와 과일씨앗 등에서 물색 중

[IDO, 2014.03.17]



스위스 지보단, 중국 저장신화화공과 향수원료 합작사 설립

○ 스위스의 국제적 향수원료·방향성 물질 제조업체 지보단(Givaudan)이 중국에서 향수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저장신화화공고빈유한공사(浙江新化化工股份有限公司, Zhejiang Xinhua Chemical)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

- 양사간 합의에 따라 지보단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향수원료 중 일부에 대해 제조처를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합작사로 이관
- 또 지보단은 장기적으로 합작사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제조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 저장신화화공은 뛰어난 품질의 방향성 화학물질 제조업체로 명성

- 지보단은 이번 합작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시장 고객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사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저장신화화공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사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

[Fashion Forward, 2014.03.20]



머크KGaA, 러보러토리 스킨케어와 화장품 성분 제휴

- 독일의 화학업체 머크KGaA가 미국의 화장품업체 러보러토리 스킨케어(Laboratory Skin Care)와 화장품 성분 제휴 계약을 체결
 - 양사는 화장품 주성분인 ‘하이드록시솜 칼슘(Hydroxysomes Calcium)’을 머크가 오는 10월부터 ‘로나케어 하이드록시솜 칼슘(Ronacare Hydroxysomes Calcium)’ 브랜드로 러보러토리에 공급한다는 데 합의
 - * 하이드록시솜 칼슘은 피부 심층부까지 칼슘을 전달해 피부에 활력을 주는 기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피부의 수분유지에 필수적인 천연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주로 노화 방지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
 - 또 이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시판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판매 · 영업 · 물류 · 고객지원을 공동 수행한다는 데도 합의
 - 한편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노화방지용 화장품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260억불에 도달하고 이후 수 년 동안 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CosmeticsDesign-Europe, 2014.03.25]



로레알파리, 흑색종 퇴치·자외선 차단 활동 착수

- 프랑스 로레알 산하 로레알파리가 미국의 흑색종연구연대(Melanoma Research Alliance : MRA)와 공동으로 흑색종 퇴치 및 자외선 차단 활동에 착수
 - 이 활동은 피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흑색종을 예방하고, 첨단 흑색종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이 목적
 - 로레알파리는 MRA에 총 75만불을 기부해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비는 흑색종의 민감성과 진행 상황 및 증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6개 변이 유전자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사용
 - * 로레알파리는 어드밴스 선크어 라인 제품이 하나 판매될 때마다 1불씩 올 한해 최대 25만불을 지원한다는 방침
 - 흑색종은 전체 피부암 사망자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피부암인 동시에 최근 30년 사이 발생률이 3배나 급증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대표적인 암

[CosmeticsDesign-USA, 2014.04.10]



로레알, 중국 매직 홀딩스 인수 최종 확정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중국 화장품 업체 매직 홀딩스 인터내셔널(Magic Holdings International)의 인수가 최종 확정
 - 매직 홀딩스 주주들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 1월 인수를 승인
 - 이번 인수는 로레알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단행한 최대 규모의 투자(약 6억1천만 유로)로, 로레알은 세계 3위의 거대 화장품 시장에서 선도업체로서의 위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 * 페이스 마스크 스페셜리스트 업체인 매직 홀딩스는 대표적인 브랜드 'MG'로 지난해 1억6천6백만 유로의 매출 실적을 기록
 - ** 페이스 마스크는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부문으로 주목
 - 한편 로레알 중국지사는 지난 '13년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32억8천만 위안(약 15억5천만 유로)의 매출 실적을 올려 1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Wall Street Journal, 2014.04.14]



헨켈, 볼 코퍼레이션과 화장품 용기 경량화 제휴

- 독일 화장품·퍼스널케어 업체 헨켈(Henkel)이 미국 에어로졸 패키징·알루미늄 음료용 캔 재활용 전문업체 볼 코퍼레이션(Ball Corporation)과 화장품 용기 경량화 제휴 협정을 체결
 - 헨켈은 협정 체결을 계기로 자사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화(Fa)' 제품의 산업용 알루미늄 에어로졸 캔 용기 경량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 볼 코퍼레이션은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해 용기 자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는 높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진 금속합금을 제조하는 신기술을 보유
 - 헨켈은 볼 코퍼레이션의 이 기술을 접목해 알루미늄 에어로졸 용기를 제조하면 기존 화제품 용기 무게가 10% 정도 줄어들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용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저감,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Premium Beauty News, 2014.05.05]



로레알·네슬레, 유산균으로 피부 민감성 개선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과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가 유산균을 이용해 여성들의 피부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데 성공
 - 양사는 64명의 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는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 NCC 2461(Lactobacillus paracasei NCC 2461)’이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대조군에는 위약을 2개월 동안 매일 섭취토록 한 뒤 캡사이신 피부 테스트를 진행
 -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다리와 뺨 부위에서 건조한 정도 및 거친 정도가 감소되면서 피부 민감성이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됐음을 확인
 - 양사는 유산균을 섭취하면 피부의 장벽기능 회복도가 향상되어 피부 내 수분증발이 감소한다며 유산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가능성을 제시
 - 전문가들은 각종 국소도포용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Caruso Clinic, 2014.05.15]



네슬레, 밸리언트 주름 개선제 매입

- 글로벌 식품업체인 스위스 네슬레(Nestle)가 14억불을 투입, 캐나다 제약업체 밸리언트(Valeant)가 보유한 주름 개선제를 매입
 - 네슬레가 매입한 주름 개선제에는 보톡스의 대항마로 널리 알려진 레스틸렌(Restylane)을 비롯, 펄레인(Perlane), 에머벨(Emervel), 스컬트라(Sculptra), 디스포트(Dysport) 등이 포함
 - 네슬레는 오는 7월 피부미용 업체 스위스 갈더마(Galderma) 인수 작업이 완료되면 갈더마를 통해 주름 개선제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
 - 네슬레는 피부미용 사업부인 ‘네슬레 스킨 헬스(Nestle Skin Health)’의 몸집을 늘려 글로벌 피부미용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
 - 반면 밸리언트는 네슬레와의 이번 합의가 보톡스 제조업체인 미국 앨러간(Allergan)을 인수하기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

[New York Times, 2014.05.28]



코티, 리엔펑과 중국 시장 공급 제휴 계약

- 프랑스 화장품업체 코티가 홍콩의 다국적 소비재업체 리엔펑(Li & Fung)과 중국 시장 내 제품 공급 제휴 계약을 체결
 - 이번 계약으로 코티는 리엔펑이 중국시장 매스마켓 채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아디다스’, ‘립멜’, ‘플레이보이’ 등 파워 브랜드 제품들을 공급,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 또 양사는 코티가 ‘TJoy(丁家宜)’ 브랜드의 중국시장 발매를 중단하는 대신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리엔펑은 이를 중국시장에 유통시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 합의
 - 이번 제휴는 코티가 이전에 내놓았던, 스킨케어 및 보디케어 부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국시장 매스마켓 비즈니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조치로, 중국시장 내 코티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
 - 양사의 공급 제휴 계약은 오는 7월1일부로 발효

[Premium Beauty News, 2014.06.05]



헨켈, 섹시헤어 등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브랜드에 ‘눈독’

- 독일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업체인 헨켈이 3억7천만불을 투입, 미국의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브랜드 섹시헤어(SexyHair)와 알터나(Alterna) 및 켄라(Kenra)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
 - 헨켈은 이를 위해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전개해 온 미국 민간투자기업 TSG 컨슈머 파트너스와 제휴
 - 섹시헤어·알터나·켄라는 지난 '13 회계연도에 총 1억9천만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시장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은 향후 연평균 6.6% 성장해 '18년에는 770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헨켈이 이들 3개 브랜드 확보에 성공하면 케어(Care)와 스타일링(Styling) 영역을 중심으로 미국 및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 특히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부문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헨켈은 이번 계획이 선진국 시장의 유망 화장품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Estetica Magazine, 2014.06.03]



로레알, 색조화장품 업체 ‘닉스’ 인수

-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미국의 색조화장품 업체 ‘닉스 코스메틱스(NYX Cosmetics)’를 인수(구체적 인수 조건은 미공개)
 - 닉스는 우수한 품질과 함께 유행을 선도하는 프로페셔널 색조화장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주목받아 왔던 업체로, 특히 소셜 미디어를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풀뿌리 마케팅 전략’으로 명성
 - 로레알은 닉스가 기초 색조화장품과 특별한 날에 필요한 색조화장품 뿐 아니라, ‘더 커브(The Curve)’ 아이라이너 및 ‘버터(Butter)’ 립글로스 라인 같은 매우 다양한 제품 스펙트럼을 보유한 것을 높이 평가
 - 로레알은 이번 인수를 통해 고품질의 혁신적 프로페셔널 화장품을 전세계에게 공급한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
 - 한편 닉스는 로레알의 소비제품 부서의 일부문으로 편입될 전망

[CosmeticsDesign-USA, 2014.06.19]



뷰티 패키징 업체 알베아, 쑤저우에 첨단공장 준공

- 프랑스의 국제적 뷰티 패키징 업체 알베아(Albea)가 중국 광둥성 쑤저우에서 새로운 첨단 공장을 준공
 - 알베아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퍼스널케어, 오럴케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패키징 업체로 손꼽히는 기업
 - 쑤저우 공장은 지난 15개월 동안 1천400만불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3만m² 규모의 부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와 함께 통합적인 생산라인이 구축
 - 알베아는 쑤저우 공장을 중국시장에서 튜브에서부터 마스크라와 립글로스 등 화장품 강직포장, 분류포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핵심기지로 활용할 방침
 - 이에 따라 알베아는 쑤저우 공장이 신속한 시장 공급과 함께 공급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한편 알베아는 중국시장에서 쑤저우 외에도 광둥성과 상하이 등에도 패키징 공장을 가동

[CosmeticsDesign-Asia, 2014.07.03]



향수 원료 업체 짐리제, M&A로 지보단 추격

- 독일의 향수 원료·방향성 업체 짐리제(Symrise)가 M&A를 통해 최대 경쟁업체인 스위스 지보단(Givaudan)을 추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짐리제는 화장품 물질 개발업체인 프랑스 다이애나(Diana)를 18억 유로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 5억 유로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
- 그동안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짐리제가 다이애나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어 왔으며, 실제 인수가 이루어지면 최대 경쟁업체인 지보단과의 매출 등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앞서 짐리제는 지난해 3월에도 미국 벨메이(Belmay)의 글로벌 향수 및 향수오일 사업 부문을 인수, 이들 부문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
- 한편 짐리제의 지난 2분기 매출은 4억7천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CosmeticsDesign-Europe, 2014.07.08]



스위스 인두켄,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시아 진출 확대

- 화장품 원료업체인 스위스 인두켄(Induchem)이 아시아에서 영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첫 번째 지사를 싱가포르의 중심지역인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에 설립한다고 발표
- 인두켄은 고품질 화장품 원료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적, 첫 번째 아시아 지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
- 이와 관련, 페터 슈바이케르트(Peter Schweikert) 인두켄 회장은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소개한 뒤,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아시아 소비자들이 고품질 화장품 원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
- * 특히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인두켄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평가

[Industry Sourcing, 2014.07.16]



짐리제, 생강뿌리 추출물로 다용도 미용성분 개발

- 향수 원료·방향성 물질 제조업체인 독일 짐리제가 100% 천연 생강뿌리 추출물로 다용도 피부미용 성분 ‘짐비탈 AR(SymVital AR)’을 개발
 - 짐리제는 짐비탈 AR을 바르면 2주 이내 피부 손상 징후들이 감소되고 3주 이내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 조직의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주름과 안색의 상태가 개선된다고 설명
 - * 짐리제는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반점이 생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짐비탈 AR 0.2%를 1일 2회 바르는 실험을 통해 짐비탈 AR에 피부반점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 또 짐비탈 AR이 자연친화적 공정을 거쳐 유효성분을 추출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효능이 탁월해 연령과 피부 특성에 무관하게 전체 여성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
 - 한편 생강은 항염증·진정·항산화·소독 등 효과가 있어 식품과 의약품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Premium Beauty News, 2014.08.30]



BASF, ‘티노조브 A2B’ 허가 취득 ...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

- 독일 종합화학그룹 BASF가 EU집행위로부터 크기가 100 나노미터 이하인 자외선 필터 ‘티노조브 A2B(Tinosorb A2B)’ 승인을 취득, 유럽화장품법에 따른 자외선 필터 제품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
 - 티노조브 A2B는 효과적인 광대역 자외선 필터로, 특히 입자 크기가 100 나노미터 이하 자외선 필터가 유럽에서 허가를 취득하기는 이번이 처음
 - BASF는 티노조브 A2B가 장파장자외선(UVA) 뿐 아니라 중파장자외선(UVB)으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개발되었다며, 피부암 예방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 티노조브 A2B는 기존 지용성 자외선 필터들에 사용된 UVA 및 UVB 흡수제들 사이의 틈새를 메우면서 자외선 전체 스펙트럼에 균일한 보호 효과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 또 티노조브 A2B 덕분에 각종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효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뒤, 가까운 시일 내 티노조브 A2B가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한다는 방침

[Euro Trading, 2014.09.15]



로레알, ‘니엘리 코스메티코스’ 인수 ... 중남미 뷰티사업 강화

○ 프랑스 로레알이 브라질 최대 염모제·헤어케어 업체 ‘니엘리 코스메티코스(Niely Cosmetics)’를 인수

- 니엘리 코스메티코스는 슈퍼마켓, 약국, 화장품 전문점 등 도·소매 유통채널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염모제와 헤어케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대표상품은 ‘코르 앤 톤(Cor & Ton)’과 ‘니엘리 골드(Neily Gold)’
- 로레알 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오늘날 세계 최대 염모제 및 헤어케어 시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뷰티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니엘리 코스메티코스 측은 ‘코르 앤 톤’과 ‘니엘리 골드’ 등 자사 제품이 로레알이 보유한 마케팅 및 R&D 역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고객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
- 한편 인수 비용과 고용 승계 등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미발표

[Household and Personal Products Industry, 2014.09.10]



코티, 샤넬 ‘부르조아’ 브랜드 인수 추진

○ 프랑스 코티가 샤넬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부르조아(Bourjois)’ 인수를 추진

- 코티는 자사 주식 1천500만주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르조아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샤넬에 공식 전달했으며, 샤넬은 코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
 - * 부르조아는 서유럽과 중동 및 아시아 등 전세계 50여개국 2만3천여 유통채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색조화장품 브랜드
- 코티는 이번 인수로 색조화장품 포트폴리오가 대폭 보완되는 효과가 예상될 뿐 아니라, 자사가 특히 희망하는 서유럽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대에 부르조아의 고품질 이미지와 위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샤넬은 양사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특히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잠재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샤넬이 코티의 주주가 되면 부르조아가 가일층 성장하는 데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

[Financial Times, 2014.10.07]



스페인 푸이그,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빠이요’ 매각

- 스페인의 뷰티·패션업체 푸이그(Puig)가 프랑스 민간투자업체 LBO 프랑스에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빠이요(Payot)’를 매각
 - 푸이그는 LBO 프랑스가 운용하는 ‘에그자곤 III 펀드(Hexagone III fund)’에 빠이요 지분 80%를 매각(매각 금액은 미공개)
 - * 빠이요는 지난 1927년 프랑스의 사업가 나디아 빠이요(Nadia Payot)가 파리 인근 뇌이시에서 설립한 스킨케어 브랜드로, 지난 2001년 푸이그에 인수
 - LBO 프랑스 측은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탈리아 디비 코스메틱스(Dibi Cosmetics)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역임한 안드레아 수를리우가(Andrea Surliuga)를 회장으로 선임해 경영을 총괄하도록 맡길 방침
 - 빠이요는 전체 매출의 70% 가량을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올려온 글로벌 브랜드로, 드클레오(Decleor)와 까리타(Carita) 등과 치열하게 경쟁
 - 한편 빠이요는 지난해 2천500만 유로를 상회하는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은 3천500만 유로 정도로 추산

[Professional Beauty, 2014.10.09]



로레알, 다문화 뷰티업체 ‘캐롤스 도터’ 인수

- 프랑스 로레알이 자회사인 로레알USA를 통해 미국의 다문화 뷰티업체 ‘캐롤스 도터(Carol's Daughter)’를 인수하기로 결정
 - 지난 1993년 창업한 캐롤스 도터는 다문화 뷰티브랜드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스킨케어와 바디케어 등 다양한 제품으로 다수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확보해 온 화장품 업체로 유명
 - * 오프라 윈프리, 나오미 캠벨, 안젤리나 졸리, 할리 베리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표적
 - 캐롤스 도터는 뷰티전문점에서부터 매스마켓, TV 홈쇼핑 채널, 인터넷, 브랜드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발매해 오고 있는 가운데, '13년 10월~'14년 9월 회계연도 매출액은 2천700만불 정도

- 로레알 측은 캐롤스 도터가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다양한 부류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다문화 뷰티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한편 인수와 관련된 상세한 조건은 미공개

[Businessweek, 2014.10.23]



에스티 로더, 고급향수 업체 ‘르 라보’ 인수 ... 글로벌 진출 강화

- 미국 에스티 로더가 프랑스 고급향수 업체 ‘르 라보(Le Labo)’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하기로 결정
- 르 라보는 프랑스풍으로 섬세한 장인정신 및 개성이 가미된 고급향수와 감각적인 화장품을 발매해 온 업체 겸 브랜드
- 에스티 로더 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고급 뷰티 부문 제품력을 보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
- 르 라보 측은 에스티 로더가 르 라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존중하고 있어 르 라보 사업이 더욱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양사는 합의에 수반되는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인수는 11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에스티 로더는 지난 ‘10년에도 젊은 층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던 미국 화장품 업체 ‘스매쉬박스(Smashbox)’를 인수

[Pursuitist, 2014.11.05]



로레알, 글로벌 여행소매 사업 부문 강화

- 프랑스 로레알이 글로벌 여행소매 사업 부문을 강화, 혈액순환을 돕는 약국용 화장품 브랜드 ‘비쉬(Vichy)’와 ‘라 로슈 포제(La Roche-Posay)’ 및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스타즈(Kérastase)’를 런칭하기로 결정
 - 로레알은 이들 브랜드를 올해 말까지 아시아 여행소매 시장에, 내년 초에는 미주 여행소매 시장에 선보일 계획
 - 이번 조치는 공항·항공기·연락선·크루즈선· 시내 면세점 등을 포괄하는 여행소매 부문이 매년 24억명의 여행자들이 거쳐 가는 글로벌 유통채널로 확고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
 - * 글로벌 여행소매 유통채널 규모는 지난해 600억불 규모를 형성한 데 이어 오는 '25년까지는 2배인 1천200억불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로레알 측은 비쉬 등 제품이 국적과 구매력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아시아 및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Cosmetics Business, 2014.11.03]



유니레버, 물·알코올 없는 신개념 발한억제제 개발

- 다국적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가 물과 알코올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드라이 스프레이 타입 발한억제제를 개발
 - 이 드라이 스프레이 발한억제제에는 정밀하게 설계된 액추에이터(actuator)가 장착, 사용자들이 정확한 양의 공기를 분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니레버는 새로 개발된 제품에는 발한억제제 특유의 끈적거림과 습윤감 및 잔류물이 없다는 것이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라며, 드라이 스프레이 타입 발한억제제는 혁신적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
 - * 발한억제제는 가장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는 퍼스널케어 제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제품으로 평가
 - 유니레버의 드라이 스프레이 발한억제제는 ‘디그리 위민(Degree Women)’, ‘디그리 맨(Degree Men)’, ‘도브(Dove)’, ‘도브 맨케어(Dove Men-Care)’ 및 ‘엑스(Axe)’ 등 5개 브랜드로 발매될 예정

[Examiner, 2014.11.18]



로레알·네슬레, 미용식품 합작사업 중단

-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과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가 내년 1분기에 미용식품 합작 회사 ‘라보라뚜와 이네오브(Laboratoires Inneov)’의 문을 닫기로 결정
 - 이네오브는 약국판매용 특수 미용식품(cosmetic nutritional supplements) 전문업체로, 지난 '02년 양사가 50대 50의 지분으로 프랑스 파리에 공동 설립
 - 그러나 이후 이네오브의 성과가 양사의 기대에 모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이네오브는 지난해 5천200만 유로 정도의 매출 실적을 기록
 - 로레알과 네슬레는 그 동안 이네오브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와 확보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각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로 합의
 - 이와 함께 이네오브에 몸담아 왔던 임직원 전원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계획은 프랑스 및 스위스 양국의 관련법에 따라 노조 대표자들에게 전달

[Consumer Goods Technology, 2014.12.03]



네슬레, 피부건강 증진 사업 강화 ... 화장품 업체들 긴장

-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스위스 네슬레가 피부건강 증진 사업 부문에도 사세를 집중할 계획 이어서 화장품 업체들이 긴장
 - 네슬레는 내년 미국 뉴욕에 ‘네슬레 피부건강, 연구, 교육 및 장수 개발센터(Nestle Skin Health Investigation, Education and Longevity Development Centre)’를 필두로 전 세계에 동일한 성격의 연구기관을 10개 개설할 예정
 - 앞서 네슬레는 지난 2월 피부건강을 위한 혁신적 제품들을 개발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자회사 네슬레 스킨헬스(Nestle Skin Health)를 설립
 - * 네슬레 스킨헬스는 전 세계 각국 과학자들과 의료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스킨 헬스케어 제품 혁신을 모색
 - 네슬레가 피부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오는 '20년에는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10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운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가능케 하려면 피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사업적 판단에서 비롯

[Cosmetics-Technology, 2014.12.12]

3.5 아시아



화장품 방부제 ‘MIT’ 퇴출 위기

- 화장품 및 화장용 거즈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부제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 MIT)이 퇴출될 위기에 직면
 - 아세안화장품연합(ASEAN Cosmetic Association : ACA)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MIT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
 - MIT가 피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유럽접촉성피부염학회(ESCD) 발표에 따라 소비자 안전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
 - * 피부의학계에서도 MIT의 피부 부작용 위험성을 언급하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
 - 그동안 ACA 10개 회원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최대 허용농도 0.01%(100ppm) 범위 내에서 각종 화장품에 MIT의 사용을 허용
 - ACA에 앞서 유럽 화장품협회도 ESCD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MIT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채택

[Cosmetics Europe, 2014.02.14]



아시아 미용성형수술, 글로벌 점유율 30%

- 시장조사업체인 미국 마켓리포트즈온라인(MarketReportsOnline)은 지난 '11년 아시아에서 시행된 미용성형수술(cosmetic procedure) 건수가 총 430만건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29.5%를 기록, 북미(28.5%)와 유럽(24.1%)을 능가했다고 발표
 - '11년 글로벌 각국에서 시술된 미용성형수술 건수는 총 1천470만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640만건 정도는 외과적 수술로 지난 '05년 대비 5배 정도 증가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된 미용수술(aesthetic surgery)의 경우 한국이 '11년 당시 외과적 수술 25만8천350건 및 비외과적 수술 39만1천588건으로 1위 국가에 등극
 - 한국의 뒤로는 인도가 외과적 수술 19만1천439건 및 비외과적 수술 27만4천792건으로 2위에 올랐고, 태국이 외과적 수술 5만5천642건 및 비외과적 수술 8만555건으로 3위에 랭크

[News Medical, 2014.05.19]



호주, 화장품·향수 온라인 판매 급증 ... 올해 2억6천만불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호주 IBIS월드는 호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향수 및 화장품 매출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7.1% 증가, 올해 2억5천900만불의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

- 이는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화장품과 향수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익숙한 제품이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또 여성 온라인 쇼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 여성 소비자들 가운데서도 네티즌 그룹에 새로 편입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도 온라인 판매 급증의 배경
- 이와 함께 젊은층 소비자들의 증가와 남성 소비자들의 이미지 연출에 대한 관심 고조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
-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메이저급으로 평가받아 왔던 유통업체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앞다투어 온라인으로 진출

[IBIS World, 2014.08.31]



에코트레일, 인도 첫 할랄 화장품 브랜드 출시

○인도 화장품업체 에코트레일 퍼스널케어(Ecotrail Personal Care)가 인도 국내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시판되는 할랄 화장품 브랜드 ‘아이바 할랄 케어(Iba Halal Care)’를 출시

- 관계 당국의 할랄 인증을 거친 아이바 할랄 케어 브랜드 제품들에는 돼지기장이나 기타 동물 추출원료, 알코올, 황산 및 파라벤 등 이슬람 경전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비할랄 원료들이 100% 배제
- 아이바 할랄 케어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들로, 립스틱은 195루피(미화 약 3.2불), 페이스 워시가 100루피(1.6불) 등 부담없는 가격에 유통되면서 전국구 화장품으로 발돋움
- 전문가들은 엄격한 신앙을 중시해 이슬람 경전에 위배되는 부산물이 함유되었을 수 있는 일반 화장품을 멀리하는 무슬림 여성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할랄 화장품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인도 할랄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Mintel, 2014.11.26]

3.6 중동



이스라엘 시네론, 첨단 피부미백 제품으로 중국 시장 공략

- 이스라엘 화장품 업체 시네론 메디컬(Syneron Medical)의 첨단 피부 미백 제품 ‘일루어어드밴스드 스킨 브라이트닝 로션(Elure Advanced Skin Brightening Lotion)’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승인을 취득
 - 베이징대학 제1 부속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이 로션을 바른 집단은 사용 후 7일 만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피부톤 균일성 개선 및 우수한 미백 효과가 확인
 - * 한국과 미국 등에서의 임상시험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한 집단은 7~8일 만에 피부 변색이 확연히 감소했고, 피부톤의 균일함이 회복되었으며, 안색도 보다 밝고 윤기있게 개선
 - 시네론은 중국이 자사의 아시아·태평양 공략 전략에서 핵심을 이루는 국가라며 이번 승인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돌풍이 일게 될 것이라고 자신
 - 한편 중국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96억불에 이르며, 이 중 피부 미백제 부문이 19억불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Beauty Packaging, 2014.07.24]

3.7 글로벌



미 나르시소.프랑스 보떼, 화장품 합작사 설립

○ 미국의 패션업체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가 프랑스 럭셔리 향수업체 보떼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Beaute Prestige International)과 화장품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

- 합작사 설립은 글로벌 화장품 및 향수 시장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나르시소는 기성복과 액세서리 부문에서 거둔 성공을 이들 시장에 접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

* 이를 반영하듯 합작사 지분은 나르시소가 70%, BPI가 30%

- 양사는 여성용 향수 ‘포 허(For Her)’가 발매된 지난 ‘03년 라이선싱 제휴관계를 체결, 파트너 관계를 10년 이상 지속

* 이 향수는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면서 스테디셀러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12년에는 프랑스 향수재단(FFF)이 발표한 최고의 여성용 향수에도 선정

- 한편 합작사의 신제품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

[Premium Beauty News, 2014.01.19]



코티.포드차, 한정판 네일래커 7월 발매

○ 프랑스 화장품업체 코티가 계열사인 OPI 프로덕츠를 통해 미 포드자동차와 오는 7월 글로벌 시장에서 한정판 네일래커 라인을 선보이기로 합의

- 네일래커 발매는 포드차의 대표적 제품인 ‘포드 무스탕(Ford Mustang)’의 발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드 무스탕은 처음 출시된 이후 대중적 인기를 모으면서 그 동안 총 920만대 이상이 판매

- 코티측은 자동차와 네일래커가 고객의 개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제품들이라며, 새로운 네일래커 컬렉션을 통해 OPI 뿐 아니라 포드차 고객들에게도 세련미와 우아함, 파워와

스타일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포드차측은 OPI가 네일래커 컬렉션에 포드 무스탕 특유의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코티는 이번 포드차와의 합의에 앞서 코카콜라와 손잡고 오는 6월 한정판 네일래커 라인을 발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In Style, 2014.03.07]

3.8 중남미



에이본·코티, 브라질 향수시장에서 협력

- 미 화장품 업체 에이본과 프랑스 화장품 업체 프랑스 코티가 브라질 향수시장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 양사는 에이본 브라질 지사에서 활동 중인 150만 직관영업 인력들이 코티가 발매하는 일부 향수 및 관련 제품들을 취급한다는 데 합의
 - 또 에이본측이 코티의 유명스타 향수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향수 컬렉션 제품들을 자사의 브라질 시장 브로슈어에 소개하고 직관영업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
 - 양사는 에이본측이 브라질 시장에서 가동 중인 강력한 직관 영업력과 광범위한 진출 지역, 폭넓은 서비스 모델 등이 이번 협력을 통해 코티의 각종 향수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에이본과 코티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절차들을 향후 수개월 내 마무리지를 계획

[CosmeticsDesign-USA, 2014.02.24]



코티·에이본, 브라질 향수시장 마케팅 제휴

- 프랑스 코티와 미국 에이본이 브라질 향수시장에서의 마케팅 제휴에 합의
 - 양사는 에이본의 브라질 시장 내 150만 직관 영업인력들이 코티의 유명스타 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향수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데 의견이 일치
 - * 브라질은 에이본의 최대시장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로벌 최대 향수시장으로도 부상
 - 양사는 이번 제휴로 브라질 현지시장에서 소비자 충성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윈윈 효과를 기대
 - 전문가들은 이번 제휴로 코티의 글로벌 진출 범위가 확대돼 신흥시장 공략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에이본에게도 더 많은 수익창출과 고객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양사는 지난 2월 브라질 향수시장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키로 하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교환한 바 있으며, 마침내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정된 최종안이 도출되면서 실행이 확정

[Premium Beauty News, 2014.05.16]

4. 의료서비스

4.1 미국	777
4.2 영국	780
4.3 일본	781
4.4 EU	784
4.5 중동	786

4.1 미국



머크, 체중관리 신규 사업 착수

- 미 머크가 고용주, 병원, 의료단체, 건강보험업체 및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착수
 - 프로그램은 임상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체중감량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식이요법과 행동교습, 모니터링 및 신체활동으로 구성
 - 머크는 신규 사업을 위해 자회사 헬스 매니지먼트 리소시스(HMR)의 자산을 이용, 새로운 회사 HMR 웨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HWMS)를 설립
 - * HMR은 지금과 같이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나, HWMS에 대한 핵심적 지원 활동을 수행
 - 렌 타코니(Len Tacconi) HMRS 사장은 비만과의 전쟁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론들에 기반을 둔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머크의 사업 다각화에 기대감을 표명

[Drug Store News, 2013.12.30]



24주째 임신부, 당뇨병 검사 바람직

- 미 보건부 산하 질병예방특별위원회(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 PSTF)는 임신 24주째 모든 임신부는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PSTF는 임신성 당뇨병*이 임신부 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24주째에 접어드는 모든 임신부는 당뇨 증세가 없더라도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
 - * 임신중에 처음 발견되는 모든 당뇨병을 통칭
 - 그러나 임신 24주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사의 득실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해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
 - 임신성 당뇨병은 방치하면 임신 중독증이 발생하고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출산이 위험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아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산모는 2형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고조

[Diabetes Health, 2014.01.19]



메릴랜드대, “경동맥 협착 시 인지기능 저하”

-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간선동맥인 경동맥이 좁아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연차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경동맥 지름이 50% 좁아졌지만 증상은 없는 경동맥 협착 환자 67명(실험군)과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동맥경화 위험 요인은 있지만 경동맥 협착이 없는 60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테스트를 진행
 -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기억력·사고력·학습능력·결정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정보처리 속도도 상당히 느린 것으로 확인
 - * 다만 언어 능력 테스트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도 입증되면 경동맥 협착을 약물 투여와 수술 등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HealthCentral, 2014.04.25]



UCLA, “MUL1 유전자가 파킨슨병과 연관”

- 미국 UCLA대 연구팀이 MUL1 유전자가 파킨슨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라이프(eLife)지에 발표
 - 연구팀은 변이된 PINK1/PARKIN 유전자를 가진 쥐와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MUL1 유전자가 활성화될 경우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개선되는 반면 MUL1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 손상이 더욱 악화됨을 확인
 - * PINK1과 PARKIN 라는 두 종의 유전자가 적절하게 작동하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유지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나, 변이 시에는 그 반대로 작용하면서 파킨슨병을 유발
 - 또 파킨슨병에 걸린 쥐의 신경세포에서 MUL1을 제거하자 건강하지 못한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면서 신경이 퇴행
 -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통해 MUL1 유전자가 PINK1과 PARKIN 병리를 중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MUL1을 이용해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ealth Canal, 2014.06.09]



루서런 종합병원, “정확한 유방암 진단에 3D 유방조영술 필요”

- 미국 애드보케이트 루서런 종합병원이 유방암 진단율을 높이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3D 유방조영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사협회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
 - 연구팀은 펜실베이니아대병원을 비롯한 1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45만건 이상의 유방조영술 자료를 분석
 - 그 결과 일반 유방조영술 검사로는 전체적인 유방암 진단율이 4.2%였던 데 비해 3D 유방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5.4%로 높아졌음을 확인
 - * 3D 유방조영술 검사에서 진전된 심부 유방종양 발견율은 41% 높아진 가운데, 1차 촬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촬영을 받은 여성은 15% 감소
 - 연구팀은 일반 유방조영술 검사는 2개 앵글에서 유방을 촬영하는 데 비해 3D 유방조영술 검사는 스캐너가 유방 위를 활 모양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

[Contemporary Ob/Gyn, 2014.07.03]



월그린, 헬스클리닉 확대운영 ... 본사 유럽 이전 계획은 철회

-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이 올해 말까지 텍사스주 델러스-포트워스 지역에 13개 헬스클리닉(Health Clinic)을 확대·운영하기로 결정
 - 헬스클리닉은 진단과 처방 권한이 있는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 NP)와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 : PA)가 상주하면서 경미한 부상·질환·통증 등을 치료하고 각종 검사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간이 의료원
 - 헬스클리닉은 의료소비자가 사전 예약 없이도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월그린은 현재 23개주 400여 곳에서 헬스클리닉을 운영
 - 한편 월그린은 다국적 의약품 판매업체 얼라이언스 부츠(Alliance Boots)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이를 계기로 본사를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직면해 결국 포기
 -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M&A를 이용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비록 합법적이라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이 같은 이전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News Medical, 2014.08.15]

4.2 영국



킹스칼리지병원, “도플러 스캔으로 사산 2/3 예방 가능”

- 영국 킹스칼리지병원 연구팀이 태반과 태아 사이의 혈류를 측정하는, 간단하고도 비용이 저렴한 ‘도플러 스캔(Doppler scan)’을 실시하면 신생아 사산을 2/3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
 - 영국에서는 매년 75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 중 3천명이 사산되는데, 이는 임신 말기 태반의 혈류가 비정상적이어서 태아가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태반부전이 주요 원인
 - 이에 대해 연구팀은 도플러 스캔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태반부전이 나타나기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사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 연구팀은 킹스칼리지병원을 내원한 산모에게 임신 12주, 22주, 32주마다 도플러 스캔을 시행한 결과 12주차 검사에서 문제의 90% 이상을 발견했으며, 검진 과정에서 간단한 처치를 통해 쉽게 사산을 예방했다고 소개
 - 한편 영국 보건부는 도플러 스캔의 국민건강보험(NHS)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Telegraph, 2014.09.30]

4.3 일본



로토제약, 동남아에서 난치병 전문병원 운영 추진

- 일 로토제약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암을 비롯해 난치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운영을 추진
 - 이를 위해 병원을 직접 설립할지 혹은 현지 의료기관과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병원을 운영할지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
 - 이러한 계획은 동남아에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
 - 일본 내에서는 의료법인에 한해 병원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병원 경영을 위해 아시아로 진출하는 경우는 향후에도 많이 나타날 전망
 - 한편 로토는 '16년부터 간사이국제공항 인근 린쿠타운(りんくうタウン)에서 지역 암센터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설을 설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방침

[産経新聞, 2014.01.03]



나고야대, 수초 만에 DNA 해석하는 신기술 개발

- 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이 지금까지 수시간 걸리던 DNA 해석을 단 수초 만에 가능케 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지에 발표
 - 연구팀은 십자 모양의 홈에 두께 10nm의 산화주석 막대기 '나노와이어'가 수십만 개 나열된, 가로 1cm 세로 2cm, 높이 0.1cm의 특수 유리판을 제작
 - 이 홈에 채취한 혈액을 떨어뜨리면 혈액 속 세포에 포함된 DNA가 나노와이어 사이를 통과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DNA를 크기 별로 분리
 - 암이나 감염증 바이러스 DNA는 일반 DNA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 미량의 혈액만 조사하면 환자의 큰 부담 없이 암의 전이나 감염증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

- * 지금까지는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넣은 뒤 증식시키는 등 여러 공정이 필요
- 연구팀은 이 기술에 대해 이미 국제특허를 신청했으며 2~3년 후에는 실용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SankeiBiz, 2014.07.10]



나가사키대, 에볼라 바이러스 ‘30분 진단법’ 개발

- 일본 나가사키대 연구팀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30분만에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
 - 이 방법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물질에만 반응하는 ‘프라이머(primer)*’를 활용한 것으로, 진단 시간을 기존 검사의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
 - * DNA 복제를 유도하는 짧은 인조 DNA로, 바이러스 DNA와 프라이머를 혼합한 뒤 60~65℃ 온도로 가열하면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다면 30분안에 용액이 탁해짐
 - 또 기존 검사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 비싼 검사 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현행 에볼라 진단법은 혈액 샘플 속 모든 바이러스의 리보핵산(RNA)을 추출한 뒤 유전물질 양을 늘리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로, 유전물질 증폭을 위해 최대 2시간 동안 열을 가하고 내리는 과정이 필수
 - 그러나 프라이머를 활용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물질만 증폭시켜 육안으로도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9.03]



국립장수연구센터, 소량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

-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와 시마즈제작소 공동 연구팀이 0.5cc 정도의 소량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이 뇌에서 증가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일본학사원(日本學士院) 학술지에 발표
- 연구팀은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이 증가한 고령자와 건강한 고령자 62명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한 혈액에서는 ‘APP669-71’로 불리는 단백질의 양이 근소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
- * 알츠하이머는 발병 15~2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 물질이 뇌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알츠하이머 검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특수 시약, 뇌척수액 채취를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
- 혈액 분석 결과는 뇌 화상진단 결과와 92% 이상의 정확도로 일치
- 연구팀은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건강검진 때의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진단,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ospital News Checker, 2014.11.13]



도시바, ‘재포니카 어레이’ 게놈 해석 서비스 개시

- 일본 도시바가 도호쿠대와 공동구축한 ‘재포니카 어레이(japonica array)’ 시스템을 이용, 대학과 의료기관 및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게놈 해석 서비스를 개시
- 이번 서비스는 고령화와 건강의식 향상을 배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중심으로 의료와 IT를 융합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
- 재포니카 어레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일본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67만5천개의 게놈을 1장의 칩에 탑재해 단시간에 해석이 가능
- 서비스 가격은 1인당 2만1천384엔이며 내년 매출 목표액은 30억엔
- 도시바는 또 당뇨병과 신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질환별 게놈 해석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
- 한편 게놈 해석 서비스는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해석 결과의 신뢰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GenomeWeb, 2014.12.09]

4.4 EU



이탈리아 후마니타스병원, 개 후각으로 전립선암 진단

- 이탈리아 후마니타스연구병원(Humanitas Research Hospital) 연구팀이 훈련시킨 개로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비뇨기과학회(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연차총회에서 발표
 - 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320명과 일반인 357명에게서 소변을 채취한 뒤 2마리 개에게 냄새로 전립선암 환자 소변을 가려내는 훈련을 실시
 - * 훈련은 개들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이 담긴 용기를 찾아 그 앞에 앉으면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훈련 과정에서 처음 사용한 소변 샘플을 다른 샘플로 교체하기도 했음
 - 그 결과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찾아내는 정확도가 한 마리는 평균 97.3%, 다른 한 마리는 98.9%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공기 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방출하게 되는데, 후각이 예민한 개는 이 냄새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Newsday, 2014.05.27]



루마니아, 유럽 최초 원격 온라인 병원 포털 개설

- 루마니아 의사들이 유럽에서 최초로 온라인을 이용해 원격 진료를 하는 온라인 병원포털 ‘스피탈 온라인(Spitalonline)’을 개설
 - 이 포털은 150여 명의 의사가 30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접속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
 - 서비스는 포털에 등록한 환자가 85레이(미화 약 26불) 정도의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진료 분야를 선택하면 곧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방식

- 포털 창립자 미하이 라스쿠(Mihai Rascu)는 일반병원보다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요법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
-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의료장비도 낙후돼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실한 상황으로, 의사들은 보수가 낮고 정부가 개혁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서유럽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유행
- * 루마니아 의사 초임은 영국의 20% 수준에 불과

[Business Review, 2014.06.19]



이탈리아 바리대, 전자기 요법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

- 이탈리아 바리대 연구팀이 전자기 요법으로 전립선비대증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립선(The Prostate)지에 발표
- 연구팀은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수캐 20 마리를 대상으로 하루 5분씩 2회 3주 동안 맥동 전자기장(pulsed electromagnetic field : PEMF) 치료를 시행
 - * PEMF는 약한 전자기장에서 나오는 저주파수의 맥동파로, 수술 후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증가시켜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
 - ** 수캐는 80%가 5살이 넘으면 전립선비대증이 나타나며 인간처럼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
- 그 결과 전립선 비대가 57% 축소된 가운데 정자의 질은 변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
- 또 치료 후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 전립선 동맥의 배측분지(dorsal branch)의 혈류 저항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전립선비대증이 하부 요로로 가는 혈류 장애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

[Tech Times, 2014.06.27]

4.5 중동



UAE 알누어병원, 걸프인터내셔널암센터 인수

- UAE 알누어병원(Al Noor Hospital)이 같은 UAE의 걸프인터내셔널암센터(Gulf International Cancer Centre : GICC)를 2천180만불에 인수
 - 알누어병원은 '13년 6월 런던증시에 상장된 이후 조달한 자금 3억4천200만불 중 일부를 GICC 인수에 사용
 - 지난 '04년 아부다비에 설립된 GICC는 UAE 최대 암치료 기관으로, 방사선 요법·종양 예방 및 제거·PET/CT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13년 3월말 현재 2천170만불
 - 알누어병원은 227 병상에 504명의 전문의를 보유 중인 가운데, 카셈 알롬(Kassem Alom) CEO는 이번 GICC 인수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표명
 - 한편 알누어병원은 '13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억7천950만불의 수익을 기록

[Middle East Economic Digest, 2014.01.05]



사우디 DSFH, '17년까지 두바이에 파케이대학병원 설립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헬스케어 업체 닥터솔리만파케이병원(Dr Soliman Fakeeh Hospital : DSFH)이 1억 디르함(미화 약 2억7천230만불)을 투입, 두바이실리콘오아시스(Dubai Silicon Oasis)에 파케이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
 - 파케이대학병원은 3백 병상 규모로 당초 지난 '11년초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이번에 DSFH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7년에는 개원이 가능할 전망
 - 파케이대학병원은 모자보건 등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심장병·척수수술·성형수술·비만 관리 등 환자중심 의료 서비스에 주력하게 되며, 연 70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2만건의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파케이대학병원은 기술특구인 두바이실리콘오아시스 내 15만㎡ 부지에 설립

[United Arab Emirates News, 2014.01.16]



아라맥스, 중동·북아프리카 ‘바이오케어’ 서비스 개시

○ UAE의 대형 물류운송업체 아라맥스(Aramex)가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요르단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메디컬 속달‘바이오케어(Biocare)’서비스를 개시

- 주요 고객은 의약품/의료기기 실험기관·병원·클리닉 및 제약업체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포장 규정을 준수하는 온도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된스티로폼 박스를 통해 72시간 내 배송이 가능
- 아라맥스는 바이오케어 서비스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서비스 기업에 안전한 샘플 및 약품을 안전하게 배송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관련 프로젝트 및 사업을 지원한다고 설명
- 한편 아라맥스는 바이오케어 서비스를 확대, 전세계를 대상으로 제약 허브 국가와 신흥국을 연계할 방침

[Postal Technology International, 2014.04.30]



웰니스업체 VLCC, UAE에 비만 퇴치 캠프 개설

○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웰니스업체로 명성이 높은 UAE의 VLCC가 자국 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프를 개설

- 비만 퇴치 캠프는 UAE 전역에 위치한 VLCC 슬리밍뷰티피트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건강 및 의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
- 캠프 설립은 비만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UAE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를 관리해 생활을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
 - * 이와 관련, VLCC는 비만이 심장마비 등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UAE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비만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VLCC는 현재 중동 및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6개국 120개 도시에 슬리밍뷰티피트니스센터와 뷰티영양연구소 등을 운영
- 한편 UAE에서는 10월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두바이보건청(DHA)이 마련한, 건강식품 섭취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영양 가이드라인 준수가 의무화

[Arabian Business, 2014.09.29]



TVM 캐피탈, 중동·북아프리카 헬스케어 업체들에 2억불 투자

- 두바이 소재 사모투자업체인 TVM 캐피탈 헬스케어 파트너스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헬스케어 업체들에 향후 2~3년간 총 2억불을 투자한다고 발표
 - TVM은 '09년부터 독일의 프로비타(Provita)와 영국의 본 홀 인터내셔널(Bourn Hall International)과 UAE 헬스케어 업체들에 1억2천만불을 투자
 - 이번 투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업체들로 지평을 넓힌 것으로, TVM 측은 조만간 이집트의 아메코 메디컬 인더스트리스(Ameco Medical Industries)의 지배지분을 확보할 계획
 - TVM 측은 글로벌 10대 당뇨병 국가 중 5개국이 중동 국가일 정도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소득과 함께 생활습관병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이 밝다며 이번 투자에 대한 배경을 설명
 - 한편 스위스 투자은행 알펜캐피탈(Alpen Capital)에 의하면 중동 지역 헬스케어 산업규모는 지난해 394억불로 추정되는데 이어 연평균 12% 증가, 오는 '18년에는 694억불에 이를 전망

[AME Info, 2014.11.10]

5. 보건산업 기타

5.1 미국	791
5.2 영국	793
5.3 일본	794
5.4 중국	795
5.5 EU	796
5.6 아시아	798
5.7 글로벌	799

5.1 미국



근육 증강 건기식 ‘매스 디스트럭션’ 퇴출 위기

- 미국에서 근육을 증강시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매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매스 디스트럭션(Mass Destruction)’이 퇴출 위기에 직면
 - 미 식품의약국(FDA)은 블루 포스 뉴트리션(Blunt Force Nutrition)이 생산한 매스 디스트럭션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노스캐롤라이나 보건국의 보고를 받은 후 동 제품의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 노스캐롤라이나 보건국은 28세의 건강한 남성이 동 제품을 복용한 수주 후 간부전(liver failure)이 발생해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 전문가들은 매스 디스트럭션에 함유된 합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성분이 간부전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
 - FDA는 매스 디스트럭션에 합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외 유해성분도 있다고 판단, 제품 성분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

[The Nutrition Post, 2013.12.27]



예일대, “고지방 섭취 임신부, 비만아 출생 가능성 높아”

- 미 예일대 연구팀이 고지방 식품을 다량 섭취하는 임신부는 비만아를 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셀(Cell)지에 발표
 - 연구팀은 새끼를 뱀 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실험군에는 고지방 먹이, 대조군에는 일반 먹이를 주고 뇌 구조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
 - 그 결과 실험군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뇌의 대사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신경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가운데, 특히 인슐린 신호전달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
 - 연구팀은 실험군에서 나온 새끼들은 대조군에서 나온 새끼들보다 자라면서 체중이 훨씬 증가했고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설명
 -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비만 부모에게서 비만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말해 준다고 분석

[BBC, 2014.01.25]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CVS, 담배 판매 중단

-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업체인 CVS 케어마크(CVS Caremark)가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 다른 드럭스토어 업체들도 따를 지 귀추가 주목
 -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1일부터 CVS 케어마크 산하 7천6백여 체인점에서 시행되며, 담배 뿐 아니라 담배 관련 모든 제품들까지 판매가 중단
 - 래리 J. 메를로(Larry J. Merlo) CVS 케어마크 회장은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방침은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자평,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
 - * 그는 또 자사 소속 약사와 간호사(nurse practitioner)의 역할을 확대해 고객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 질환을 감소시키며, 의료비 절감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
 - 미국 드럭스토어 체인업체 중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는 CVS 케어마크가 처음
 - 그러나 담배업체로부터 유치한 1천7백만불 이상의 투자자금은 그대로 보유한다는 방침

[USA Today, 2014.02.12]

5.2 영국



영국 흑색종 발병률, 40년 사이 5배 급증

- 영국에서 지난 40년 사이 치명적 피부암인 흑색종 발병률이 무려 5배나 증가
 - 영국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지난 1975년에는 매년 1천800명 정도가 흑색종 환자로 진단받았으나 이제는 1만3천명을 상회, 발생률로 환산하면 10만명당 3명 남짓에서 17명으로 5배나 급증했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흑색종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에 대해 영국인들이 여름휴가 때 가격이 저렴한 피서지 패키지여행을 선호하면서 인공 선탠인 '선베드(sunbed)' 사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
 - * 국제암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이 국제암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35세 이전에 선베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선베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흑색종 발병 위험이 75%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현재 영국에서는 흑색종이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흑색종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2천여 명

[National Health Service, 2014.04.22]

5.3 일본



오츠카, 자스민 인수 ... 중남미 건기식 시장 본격 진출

- 일본 오츠카제약(大塚製薬)이 브라질 최대 건강기능식품 업체 자스민(Jasmine)을 인수, 중남미 건기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오츠카는 프랑스 자회사인 뉴트리션 앤 상테(Nutrition & Sante)를 통해 자스민의 전체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금액은 미공개)
- 오츠카는 이번 인수를 통해 뉴트리션 앤 상테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브라질에서 출시함과 동시에, 글루텐 프리 식품, 환자용 식품, 유기농 식품 등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 중남미 건기식품 시장 진출을 서두른다는 계획
- 오츠카는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제휴회사를 통해 처방약을 판매해 왔을 뿐, 중남미 지역에서 건기식품 사업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
- 한편 자스민은 브라질 남부 최대 도시인 쿠리치바(Curitiba)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07년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통밀 비스킷을 출시

[Nikkei BP, 2014.08.29]



오츠카제약, 건기식품업체 푸드스테이트 인수

- 일본 오츠카제약이 미국 자회사인 파마바이트(Pharmavite)를 통해 미국 건강기능식품업체 푸드스테이트(FoodState)를 인수하기로 결정
- 오츠카는 파마바이트가 푸드스테이트의 발행주식 전체를 100억엔 정도에 취득하고, 관련 제품 및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
- 푸드스테이트는 인공 첨가물 사용을 배제하고 유기농 등 천연 첨가물 사용만 고집해 온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로, '13년 매출액은 3천200만불
- 특히 푸드스테이트의 주력 브랜드인 '메가푸드'는 미국과 캐나다 계약 농가가 재배한 과일과 채소로부터 영양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슬로푸드 프로세스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
- 한편 파마바이트의 주력 브랜드는 7년 연속 미국의 1위 영양보조제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는, 인공착색료가 첨가되지 않은 비타민·미네랄 영양보조제 '네이처메이드'

[日本經濟新聞, 2014.12.18]

5.4 중국



패스트푸드 업체, 중국에서 유통기간 지난 육류 사용 파문

- 맥도날드, KFC, 버거킹, 스타벅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확산
 - 상하이에 본사를 둔 동방위성TV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사용해 왔다고 폭로
 - * 맥도날드의 중국 내 매장 수는 2천여 개
 - 이들에게 육류를 공급한 업체는 미국 OSI그룹의 자회사 상하이후시푸드(Shanghai Husi Food)로,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들은 TV 보도 내용을 시인
 - 상하이 식품의약국은 즉각 상하이후시푸드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단행했으며, 셸던 라빈(Sheldon Lavin) OSI 그룹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
 - 그러나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상하이후시푸드와 관련된 식품의 수입을 일시 중지

[U.S. News & World Report, 2014.07.24]

5.5 EU



프랑스, 말고기 파동 재현 우려

- 지난 '13년 초 유럽을 발각 뒤집었던 말고기 파동이 프랑스에서 다시 재현될 조짐
 - 프랑스 경찰은 의료 실험에 사용된 말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된 사실을 포착, 남부 지역 11곳에서 축산업자와 의사 등 용의자 21명을 체포
 - * 이들 일당은 지난 '10~'12년 의사 서류를 위조해 사노피(Sanofi) 등 유명 제약업체들이 보유한 실험용 말 수백 마리를 도축장에 넘긴 혐의
 - '13년 2~4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에서는 말고기가 쇠고기로 둔갑해 햄버거 패티·미트볼·파스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전유럽이 경악
 - 당시 사건은 엄격한 규제로 유명했던 유럽 식품산업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계기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EU는 논란이 커지자 모든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 특히 프랑스는 자국 육가공업체 스팅헤로(spanghero)가 말고기 유통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불량 먹을거리 국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말고기 사건으로 또 다시 위기에 직면

[Financial Times, 2013.12.16]



사노피,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전 합류

- 프랑스 사노피가 미국 머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전에 참여
 - 업계 소식통들은 사노피가 이번 인수를 위해 120억불 이상의 실탄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전언
 - 머크 소비자 헬스케어는 자외선 차단제 코퍼톤(Coppertone), 알러지 치료제 클라리틴(Claritin)과 닥터솔(Dr. Scholl's) 등 제품으로 유명하며, 사업부 가치는 100억~120억불 정도로 평가

- 현재 머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전에는 사노피 이외 독일 바이엘과 스위스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업체와 미국 P&G와 영국 레킷벤키저 등 종합 생활용품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 * 이와 관련, 바이엘은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레킷벤키저가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

[Fierce Pharma, 2014.04.10]

5.6 아시아



동남아시아, H5N1형 AI 확산 조짐

- 올 들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H5N1형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급속 확산
 - 베트남에서는 지난 1월 빈푹(Binh Phuoc)에서 50대 남성 1명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데 이어 지금까지 동탑(Dong Thap) 등 11개성에서 24건의 H5N1형 AI 발생이 보고
 - * 베트남은 지난 '03년 AI가 첫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65명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지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AI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 지난해에만 모두 13명이 사망한 인접 캄보디아에서도 북부 캄퐁툼(Kampong Thom)주에서 5세 어린이 1명이 H5N1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올 들어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
 - *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04년에 AI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48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

[CCTV, 2014.02.18]

5.7 글로벌



온라인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 ‘맛’ 과 ‘모양’ 마케팅 효과

- 온라인 전자담배 시장이 매월 10개꼴로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현재 500여 브랜드가 난립할 정도로 급성장
 - 보건저널 토바코 컨트롤(Tobacco Control)에 의하면 지난 1월 기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브랜드는 466개이며, 향 종류는 후르츠 · 초콜릿 · 알코올 · 스낵 향 등 무려 7천76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또 지난 '12년 EU에서는 2천900만 명이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을 보유
 - 전자담배 시장 성장 요인으로서는 마케팅 전략 수정이 지적되는 데, 예전에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고 저렴하며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 온 반면 최근에는 담배에 관한 언급 대신 ‘맛’과 ‘모양’에 중점
 - 한편 전자담배 이용자 대부분은 흡연자이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시민단체들은 전자담배가 흡연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니코틴에 의존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Washington Post, 2014.06.17]

제 4 부

신규보고서

1. 제약 / 바이오	803
2. 의료기기 / 정보화	845
3. 화장품	863
4. 의료서비스	879
5. 보건산업 기타	895

1. 제약 / 바이오

1.1 미국	805
1.2 일본	812
1.3 중국	814
1.4 EU	815
1.5 기타	816
1.6 글로벌	821

1.1 미국



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역할

-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 미래의 성장전망 및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The U.S. Biopharmaceutical Industry : Perspectives on Future Growth and The Factors That Will Drive It)' 보고서를 '14년 4월 발표
 - 현재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은 81만4천여명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고용까지 감안하면 미국 경제에 340만명에 육박하는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총 7천890억불의 경제산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 또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에서는 혁신 친화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오는 '21년까지 3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전망
-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은 전체 산업 국내 R&D 투자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 국내 R&D 투자가 많은 특징을 보유
 - PhRMA 회원업체들만 해도 지난 '13년 총 511억불을 R&D에 투자, 연방·주 정부 및 일반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또 전체 인력 중 R&D 인력의 비중도 바이오제약 산업은 '11년 12.4%로, 반도체 산업의 10.1%, 자동차산업 8.3%, 우주산업의 7.1%를 크게 상회
 - 특히 부문에서도 지난 '11년 6천777건을 출원해 4천405건의 승인을 취득하는 등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선도
 - 이와 함께 바이오제약 업체들은 임상시험에서 법무지원, 전산·정보통신 기술, 제조·설비, 위탁생산, 수송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적 기능을 담당
- 바이오제약 산업은 향후에도 혁신친화적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지난 30여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
 - 특히 △경쟁적 자유시장 시스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합리적 성과보상 체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는 요인
 - 그러나 혁신은 공공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미래에는 혁신을 우선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



미국 제약업체들의 유럽 업체 M&A 추진 배경

- 영국의 유력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지는 미국 제약업체들의 유럽 업체 인수합병(M&A) 추진 배경을 분석한 특집기사‘미 상원, 화이자·AZ 인수 협상 등 조세회피 대응책 마련(Senator takes aim at tax inversion deals like Pfizer-AstraZeneca)’를 ‘14년 5월 보도
 -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미국 제약업체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업체들을 대상으로 M&A에 적극 나서는 데는 조세회피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
- 미국 화이자사는 영국 AZ에 대한 M&A에 성공하면 통합 지주회사를 영국에 설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세금을 미국이 아닌 영국 정부에 납부할 계획
 - 이는 영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1%로 미국(32.8%)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으로, 화이자사는 M&A가 성사되면 27%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
 - 또 최근 엔도헬스솔루션스, 포레스트랩스, 악타비스 등 미국 제약업체들이 잇따라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 내지 현지 업체에 투자하고,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 주주들이 본사를 유럽으로 옮기라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는 배경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

▼ 미국과 유럽 평균 법인세율 비교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프랑스	34.4	네덜란드	25.0
미국	32.8	영국	21.0
스페인	30.0	아일랜드	12.5
이탈리아	27.5		

- 이와 관련,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 그러나 미국 내 법인세 문제는 정·재계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세율이 유럽보다 높은 한 미국 제약업체들의 유럽업체 M&A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 * 더욱이 ‘13년 말 미국 기업이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천470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보유



미국 J&J, 존경받는 제약업체 1위 ... 미국 배런스 선정

- 미국의 경제잡지 배런스(Barron's)는 '2014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The World's Most Respected Companies)'특집 기사를 '14년 6월 보도
 - 배런스는 지난 '05년부터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전세계 1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존경도 설문 조사 결과를 계량화해 각 기업의 순위를 발표
 - 설문의 주요 구성 항목은 △강력한 경영 리더십(비중 24%) △윤리경영(22%) △건전한 사업전략(17%) △경쟁우위(16%) △제품 혁신(7%) 등
 - 조사 결과 전체 1위는 애플('13년 3위)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버크셔해서웨이는 2위로 떨어졌고 26위였던 보잉은 3위로 대폭 상승
- 제약업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기업은 J&J로 '12년 32위에서 '13년에는 13위로 뛰어 오르더니 올해는 5위에 안착한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해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J&J는 제약업체 중 지금까지 줄곧 1위 혹은 2위의 자리를 유지
 - 올해는 BMS가 전년 대비 21단계,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15, 노바티스 13, 노보노디스크 12, 바이엘 8, 로슈 7단계 등 제약업체들이 큰 폭 상승
 - * 반면 사노피는 7단계, GSK 3단계, 머크와 화이자는 각각 2단계 하락
 - 한편 지난해 평가를 받지 못했던 AZ는 올해 48위를 기록

▼ 글로벌 제약업체 존경도 종합 순위 ('14년),* N/R = Not Rated

순위		평균점수	국 적	업체명
'14년	'13년			
5	13	3.52	미국	J&J
15	30	3.02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22	35	2.93	스위스	노바티스
24	25	2.91	미국	암젠
25	33	2.84	독일	바이엘
27	48	2.83	미국	BMS
31	38	2.80	스위스	로슈
43	41	2.63	미국	머크
48	N/R	2.57	영국	AZ
51	49	2.44	미국	화이자
54	66	2.40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59	56	2.30	영국	GSK
74	67	1.91	프랑스	사노피



미국 국립보건원이 투자하는 핵심 질환 분야

○ 미국의 의료정보 분석기관 피어스바이오텍 리서치(FierceBiotech Research)는 ‘미국 국립 보건원이 자금을 투자하는 15대 질환 분야(Top 15 NIH-funded disease areas)’ 특집 기사를 '14년 7월 보도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IH)은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300억불을 상회하는 세계 최대 생의학 연구기관
- NIH는 암과 감염질환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암에는 지난해 52억7천400만불에 이어 올해와 내년(예정) 각각 54억1천800만불, 감염질환에는 지난해 48억8천700만불과 올해와 내년(예정) 각각 50억1천500만불을 투자
- 한편 NIH는 △당과학 프로그램, △4D 뉴클레옴 프로그램 △질환완화를 위한 말초활성 자극 프로그램을 향후 5~10년 내 생의학 연구를 변혁시킬 혁신 프로그램으로 선정,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 당과학 프로그램- 당 변경이 단백질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4D 뉴클레옴 프로그램- 세포 내 DNA의 시공간적 4차원 배열의 기능적 영향 연구
 - 질환완화를 위한 말초활성 자극 프로그램- 신경 조종을 통한 장기기능 치료법 개발

▼ NIH 투자 15대 핵심 질환 (단위 : 100만불)

순위	질환	2013	2014	2015(예정)
1	암	5,274	5,418	5,418
2	감염질환	4,887	5,015	5,015
3	뇌장애	3,708	3,796	3,799
4	희귀질환	3,456	3,553	3,553
5	소아장애	3,266	3,339	3,339
6	HIV/AIDS	2,898	2,978	3,005
7	노화	2,429	2,494	2,494
8	정신건강	2,174	2,215	2,215
9	심혈관	1,964	2,015	2,015
10	신흥감염질환	1,804	1,853	1,853
11	신경퇴행	1,619	1,662	1,662
12	소화질환	1,575	1,617	1,617
13	심장질환	1,230	1,262	1,262
14	폐질환	1,230	1,261	1,261
15	혈액질환	1,020	1,050	1,050



미국, 제네릭 사용으로 10년간 의료비 1조5천억불 절감

○ 미국제네릭제약협회(GPhA)는 ‘미국 내 제네릭약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GENERIC DRUG SAVINGS IN THE U.S)’ 보고서를 ‘14년 9월 발표

- 보고서는 미국에서 지난 ‘04~’13년의 10년 동안 제네릭약 사용이 급증하면서 1조5천억불 정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
- 특히 ‘13년 한해에만 제네릭약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사상 최대인 2천390억불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제네릭약 사용으로 인한 연도별 의료비 절감(단위: 10억불)

○ 브랜드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약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절감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신경 및 심혈관계 질환 제네릭약이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지난 ‘12년의 경우 포레스트의 항우울증제 ‘렉사프로(Lexapro)’, 다케다의 항당뇨병제 ‘악토스(Actos)’, 머크의 항천식제 ‘싱글레어(Singulair)’ 등 브랜드약이 특허만료돼 ‘13년 의료비 절감을 견인

* 베스트셀러약인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는 ‘08년에 특허가 만료

- ‘04~’13년 사이 신경·심혈관계 계열 제네릭약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은 8천510억불로 전체의 58%를 차지한 가운데, 의료비 절감은 특히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
- 이와 관련, 현재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13년 84억불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J&J의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Remicade)’ 등을 표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에 박차



오바마, 제약업체 특허권 해외이전으로 고민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의약품 특허권, 세금회피 해외이전(Drug Patents Held Overseas Can Pare Makers’ Tax Bills)’ 특집 기사를 ‘14년 9월 보도
 - NYT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금회피를 위한 본사 해외이전을 규제하자 고가 의약품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제약업체와 생명공학회사들이 특허권을 외국으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고 진단
- 자금난으로 고전하다가도 블록버스터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제약업체와 생명공학회사로서는 본사가 아닌 특허권만 외국으로 이전해도 절세 효과가 상당
 - 1정 가격이 무려 1천불에 달하는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를 만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지만 특허권들은 아일랜드의 자회사가 보유
 -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유일한 치료제 ‘솔리리스’를 생산하는 알렉시온 파머슈티컬스도 일부 특허권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
 - 그 결과 소발디가 판매되더라도 과세는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는 데, 미국 내 세율은 35%이지만 아일랜드에서는 12.5%에 불과
 -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의 경우 소발디 매출 60억불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미국의 공공의료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수익은 미국에서 챙기고 정작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회피한다는 논란을 유발
- 특허권 해외이전은 단순히 특허권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으로, 전문가들은 길리어드의 경우 본사만 미국에 유지할 뿐 제조와 유통 활동도 세율이 낮은 국가를 거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당근과 채찍으로 제약업체와 생명공학회사들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



'18년 미국 특수약품 산업, 2천350억불 규모 전망

- 미국 드럭스토어 체인 업체 CVS헬스는 ‘특수약품: 약제비 지출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적 및 새로운 대안(Specialty Medications: Traditional And Novel Tools Can Address Rising Spending On These Costly Drugs)’ 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미국 특수약품* 산업이 오는 '15~'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이상의 고속 성장을 거듭, '18년에 이르면 전체 의약품 산업에서 50%를 상회하는 2천350억불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 만성·복합질환 및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처방용 의약품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암·류머티스 관절염·다발성 경화증 및 C형 간염 등 치료제가 대표적 사례
 - 미국 특수약품 산업은 지난 '12~'13년 기간에도 1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반 의약품 산업의 증가율 0.8%를 압도적으로 능가
- 그러나 특수약품이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환자들의 니즈에 폭넓게 부응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세가 약제비의 비용 상승을 유발함에 따라 저렴한 약가에 최고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 개발의 중요성은 갈수록 고조
 - 이런 상황에서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가격경쟁을 촉발하면서 고가 약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등 방식으로 특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세를 낮출 수 있어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전망
 - 이와 관련, 특수약품의 비용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전체론적인 전략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 예를 들면 증거기반 의학에 근거를 둔 스텝 테라피(step therapy) 시행,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단계별 처방(tiered formularies) 제도 도입, 별도의 특수약품 관리제도 채택 등
 - 이와 함께 그동안 전통적 의약품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비용증가 억제 노하우를 특수약품 부문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

1.2 일본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현재와 미래

- 일본의 종합 마케팅 비즈니스 업체 후지경제(富士經濟)는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전망 조사 보고서(國內のジェネリック医薬品市場を薬効領域別に調査)’를 ‘14년 3월 발표
- 보고서는 오는 ‘16년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지난 ‘12년 대비 40% 이상 급성장해 7천 779억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고혈압 치료제와 지방이상증 치료제 및 항암제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장기등제 의약품(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은 위축, ‘16년에는 동 시장 규모가 ‘12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제네릭 수량 점유율 목표(‘18년 3월까지 60%) 설정과 정부의 제네릭 사용 촉진책(DPC 병원 평가 시 해당 병원 입원의료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반영 등)이 거론

▼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

	‘12년 (엔)	‘16년 (엔)	‘12년 대비 (%)	구성비 (%)
의료용 의약품	8조731억	8조8천375억	109.5	100.0
(제네릭 의약품)	5천512억	7천779억	141.1	8.8
(장기등제 의약품)	2조3천372억	2조2천795억	97.5	25.8

* 표에서 의료용 의약품 중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의학 등 제품은 제외

▼ 약효 영역별 의약품 시장 규모

	‘12년 (엔)	‘16년 (엔)	‘12년 대비
고혈압 치료제	580억	1천50억	181.0%
정신분열증 치료제	36억	86억	2.4배
기타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61억	155억	2.5배
알러지 치료제	124억	275억	2.2배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360억	625억	173.6%
항암제	432억	753억	174.3%
골다공증 치료제	73억	143억	195.9%



'16년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780억엔 규모 전망

- 아일랜드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스(Research & Markets)는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개관(The Overview of Japanese Generic Drug Market)' 보고서를 '14년 8월 발표
 - 보고서는 '12년 550억엔으로 추산된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정부의 적극적 장려 의지에 힘입어 '16년에는 780억엔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처방약 시장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비중은 정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지난 '07년 이래 물량과 금액 양 측면에서 모두 증가일로
 - * 그 결과 '12년 제네릭 의약품은 물량 측면에서 전체 처방약 시장의 25.8%, 금액 측면에서는 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
 - 특히 정부의 약가개혁으로 인해 스테디셀러 의약품들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향후 제네릭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
- 그러나 △의료진들이 신약들에 확고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병·의원 및 약국도 이윤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약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시장과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네릭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평가
 -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매년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네릭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
 - 그러나 제네릭 부문에 특화한 해외의 메이저 제약업체조차 일본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
 - * 상당수 업체들이 일본 제네릭 시장의 경직된 사업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유독 엄격하게 강조되고 있는 품질기준을 통과하는 데도 실패
 -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해외 제약업체들에 편의 제공을 확대하면서 화이자 등 업체들은 일본 제네릭 시장에 전사적으로 진출
 - 따라서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강세가 가까운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으며 국내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M&A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농후
 - 한편 오는 '16년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50억엔을 상회하는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3 중국



글로벌 및 중국 인슐린 시장 전망

- 미국의 시장조사·컨설팅업체 트랜스페어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는 ‘2013~2019년 글로벌 및 중국 인슐린 시장(Global and China Insulin Market, 2013- 2019)’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2년 199억9천만불 규모를 형성했던 글로벌 인슐린 시장이 ‘13년부터 연평균 6.1%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오는 ‘19년에는 322억4천만불 규모에 도달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세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및 중국 인슐린 시장의 확대를 견인하는 요소로는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제약업체들의 광범위한 R&D 활동이 거론
-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 인슐린은 소스별 및 작용기전별로 구분이 가능
 - 소스별로는 합성 인슐린(modern insulin)과 휴먼 인슐린(human insulin)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합성 인슐린이 ‘13~’19년 기간 동안 글로벌 및 중국 인슐린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을 전망
 - 또 작용기전별로는 속효성·단시간 작용형·중간시간 작용형·장기지속형·프리믹스형 유사체로 분류가 가능하며, 특히 장기지속형 유사체가 ‘13~’19년 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장기지속형 유사체는 지난 ‘12년 글로벌 인슐린 시장에서 42.7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속효성 유사체가 추격
 - 반면 환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업체들의 R&D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단시간 작용형과 중간시간 작용형 및 프리믹스형 유사체는 해당기간 동안 갈수록 위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
- 글로벌 인슐린 시장에서는 향후에도 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사노피 등이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지속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는 상하이 포선 파마슈티컬스(Shanghai Fosun Pharmaceuticals, 復星醫藥)와 통화 동바오(Tonghua Dongbao, 通化東寶)가 로컬 강자로 군림할 전망
 - 이런 가운데 중국 인슐린 시장은 새로운 인슐린 유사체 및 제형을 개발하는 R&D 활동이 활발한 만큼 당분간 성장세가 꺾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

1.4 EU



유럽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 분석

- 미 컨설팅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글로벌 2형 당뇨병 치료 시장(Global Type 2 Diabetes Therapeutics Market)’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유럽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 ‘09년 95억 유로에서 오는 ‘17년에는 154억6천만 유로로 연 3.8%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
- 국제당뇨병연맹(IDF)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12년 현재 5천5백만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추산되며, 그 수는 오는 ‘30년 6천4백만명에 이를 전망
 - 이에 따라 지난 ‘12년 인슐린(유사체 포함)은 유럽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52%의 점유율을 차지한 가운데, 성능이 더욱 개선됨에 따라 향후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 될 것이 확실
 - * 최근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인슐린 성능을 개선시킬 때 ‘표적화된 활성화(targeted action)’를 추구, 보다 뛰어난 제품 개발에 주력
- 이런 가운데 유럽은 당뇨병 치료와 관련, 각 국가별로 상이한 현황과 과제에 직면

▼ 당뇨병 치료 현황 및 과제

국가	현황 및 과제
영국	• 정부가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 406.1억 유로의 예산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당뇨병 치료의 품질 사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시급
독일	• 국가 당뇨 치료 프로젝트가 일관성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향후 2년 동안 어떠한 신제품이 출시되는가와 함께 당뇨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의해 좌우될 전망
프랑스	•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치료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에 재정적 부담이 없는 상황
이탈리아	• 정부 차원에서 당뇨병 치료제의 추가 적응증을 찾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당뇨병을 원스톱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네덜란드	• 정부 차원의 당뇨병 예방 활동과, 당뇨병을 포함한 헬스케어 부문의 ‘묶음지급접근법(bundled payment approach)’ 영향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활동에 주력
노르웨이	• 향후 2년간 당뇨병 등록 기관 설립과 재정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당뇨병 관련 전략을 추진할 계획
스웨덴	• 향후 2년간 환자 중심의 당뇨병 관리,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방침
핀란드	•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년마다 당뇨병 종합 검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5 기타



이스라엘, 글로벌 생명과학 중심지로 부상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미국의 PwC는 “13년 PwC 이스라엘 하이테크 출구 보고서(The PwC Israel Hi-Tech Exit Report)’를 ’14년 1월 발표
 - 보고서는 ’13년 이스라엘 생명과학 부문에서의 투자 회수가 전년 대비 2배에 근접, 이스라엘이 글로벌 생명과학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
- 지난 ’13년 이스라엘 하이테크 업체의 투자 회수 규모는 총 76억불에 이른 가운데, 형태별로는 인수합병(M&A)으로 64억5천만불 기업공개(IPO)로 12억불이 회수되었으며, 평균 규모도 1억7천만불로 전년 대비 54.5% 증가
 - 이중 생명과학 부문의 투자 회수 규모가 총 25억불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92%나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13건, 평균 규모는 1억9천만불에 육박
 - 이스라엘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신장 신경차단 △초음파 치료 △심뇌자극 등 최신 의료 부문에 대한 벤처투자가 급증, 인구 당 의료기기 특허와 제약 특허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 ’13년 생명과학 부문에서 IPO 시장에 뛰어든 업체로는 메디컬푸드 회사인 엔지모테크(Enzymotec)가 미 나스닥 상장을 통해 7천1백만불을 조달한데 이어 ADHD 치료제 개발업체 알코브라(Alcobra)도 나스닥 상장에 성공
 -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카디마스템(Kadimastem)은 이스라엘 국내증시에 상장
- 이스라엘의 혁신 투자는 국방부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관실이 주도적으로 진행
 -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인구당 하이테크 신생업체 수 및 R&D 지출 규모(GDP의 4.4%)가 세계에서 최상위권
 - 또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생명과학 업체 수의 경우 지난 ’96년 186개에서 ’13년에는 1천1백개로 급증
 - * 이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가 절반 이상인 7백개 가까이 육박, 의료기기 업체가 생명과학 부문의 성장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



인도 제약산업의 성장 배경과 과제

- 미국의 컨설팅업체 딜로이트(Deloitte)는 '2014 글로벌 라이프 사이언스 전망-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탄성과 재발명(2014 Global life sciences outlook- Resilience and reinvention in a changing world)' 보고서를 '14년 3월 발표
 - 딜로이트는 인도 제약산업 규모가 '12년 226억불, '13년 236억불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는 '16년에는 270억불로 '13년 대비 1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 헬스케어 산업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22.6%, '13년 23.6%에서 '16년에는 2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인도 제약산업이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한 배경에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 △만성병의 지속적 증가 △중산층 확산 △생활습관병의 높은 발병 △정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존재
 - 또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R&D 비용도 국내외 제약업체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도 제약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
- 인도는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 허브로 주목받고 있으나,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한 인도 제약산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
 - 인도는 60개 치료계열의 6만여 제네릭 의약품과 4백여종의 원료의약품(AOI)을 보유,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과 AOI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를 상회
 - * 인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증한 의약품 제조공장 119개를 보유, 글로벌 제약업체들에 사업 확대 기회를 제공
 -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는 '15년까지 46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것도 제네릭 의약품이 강한 인도 제약산업에는 커다란 기회가 될 전망
 - 그러나 인도 제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약 특허 과정 △부적절한 약가 통제 △미흡한 규제절차 △부족한 숙련 인력 △높아지는 환자 기대 △느슨한 의약품 품질관리 △미진한 글로벌 기준 채택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중남미, 글로벌 제약업체에 기회의 땅

- 미국의 컨설팅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중남미에서의 부적절한 HIV, 샤가스, 뎅기 및 인플루엔자 H1N1 치료와 높은 발병(High Incidence and Inadequate Treatments Boost Prospects of HIV, Chagas, Dengue and Influenza H1N1 Therapeutics in Latin America)’ 보고서를 ‘14년 3월 발표
 - 보고서는 중남미에서 발병률이 높은 HIV와 샤가스 등 질환과 관련해 진단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업체에 중남미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중남미에는 HIV, 샤가스, 뎅기열, 인플루엔자 H1N1의 발병률이 높은 특징
 - 특히 상대적으로 샤가스병의 유행이 빈번하나 치료받는 환자는 50% 정도에 불과
 - * 샤가스병에 이어 HIV가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는 뎅기열, 인플루엔자 H1N1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남미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오리지널 제품 대신 효과가 동일한 반면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 제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
 -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환자들의 증세를 다소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질병 자체를 치유하지는 못하고 있어 보다 뛰어난 성능의 약물 개발이 시급
 - 이와 관련, 뎅기열의 경우 프랑스 사노피 파스퇴르(Sanofi-Pasteur)가 바이러스의 혈청형 I, III, IV를 예방하는 백신을 오는 '16년 시판할 예정
 - * 샤가스 치료제로는 미국 BMS의 라부코나졸(ravuconazole)과 머크의 포사코나졸(posaconazole)의 개량약물이 유망한 것으로 기대
- 중남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제약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평가
 -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HIV와 인플루엔자 H1N1 환자의 약제비를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어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제네릭 제약업체는 중남미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



브라질, 세계 최대 헤어케어 시장

-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은 ‘2013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을 이끈 브라질(Brazil leads for haircare launches globally in 2013)’ 보고서를 ‘14년 4월 발표
 - 보고서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가운데 하나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13년에는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제품이 발매된 국가로 부상했다고 강조
 - 이 같은 사실은 브라질 헤어케어 시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탄탄하고 확고한 내수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음을 시사
- 지난 ‘13년 브라질 헤어케어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인 신제품 가운데 9%가 발매되어 그 동안의 최대 시장인 영국(8%)과 미국(7%)을 상회했으며, 샴푸와 헤어 컨디셔너만으로도 29억2천만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
 - 특히 샴푸는 사용도가 가장 활발한 헤어케어 제품으로, 전체 인구의 91%가 사용
 - * 이 같은 사용도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90%와 영국의 89%를 넘어선 수치이자 독일의 92% 및 프랑스의 91%와 유사한 수준
 - 또 브라질 헤어 컨디셔너 소비자 중에는 75%가 세척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소비자들의 31%, 영국 소비자들의 59%를 크게 따돌리면서 동 제품에 대한 인기를 입증
 - * 이와 함께 헤어 컨디셔너 소비자들은 39%가 잔류성(leave-in) 제품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프랑스의 11%와 영국의 10%를 크게 상회하면서 동 제품에 대한 시장 전망도 밝음을 시사
- 브라질 헤어케어 시장은 탄탄하고 확고한 내수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매년 두자릿 수 성장세를 지속, 오는 ‘17년에는 124억5천불 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
 - 이런 상황에서 향노화 제품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각 지역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브라질 헤어케어 시장이 더 큰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명과 암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국의 디시전 리소시스(Decision Resources)는 ‘2014년 베트남 시장 접근성 추적(Vietnam Market Access Tracker- 2014)’ 보고서를 ‘14년 4월 발표
-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지난 ‘13년 17%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0억불 규모를 상회했으며, 오는 ‘17년까지 20%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할 전망
 - 이처럼 급속한 성장세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정부의 공공의료보험 확대 정책 등이 거론
 - * 베트남 정부는 오는 ‘1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할 계획
 - 더욱이 베트남 인구가 ‘13년말 9천만명에 도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3위 전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올라선 사실은 해외 제약업체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
- 그러나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도 존재
 - 첫째, 민간의 의료비 부담이 베트남 전체 의료비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베트남 국민들은 국산 의약품 생산이 저조하고 의료비 절감 정책이 미흡한 탓에 주로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에 부담
 - * 이에 따라 베트남 국민들은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 가계 재정에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크게 저해
 - 둘째, 베트남은 의료시스템이 지역적으로 제각각인 데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미약하고, 의약품 허가·유통 측면에서도 느장행정이 만연해 많은 해외 제약업체들이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호소
 - * 미국제약협회(PhRMA)는 법적 시스템의 투명성 결여와 위조 의약품의 높은 시장침투도 등을 감안, 올해에도 베트남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고서에 따른 우선감시 대상국 지위를 유지시키도록 미국 정부에 건의
 - 셋째, 베트남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
 - * 이 같은 분석은 TPP 가입이 실현될 경우 베트남 정부의 약제비 억제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

1.6 글로벌



2050년 전세계 치매환자 1억3천5백만명

- 글로벌 치매단체연합회인 알츠하이머병인터내셔널(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 ADI)은 '13~'50년 치매의 글로벌 영향(The Global Impact of Dementia 2013-2050)' 보고서를 '13년 12월 발표
 -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를 4천4백만 명으로 추정한 뒤, 오는 '30년에는 7천6백만 명, '50년에는 1억3천5백만 명으로 증가를 예상
 - * '50년 치매 환자 예상치는 지난 '09년 ADI 추정치보다 17% 증가한 수치
 - 지난 '10년 각국 정부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사용한 비용은 전세계 GDP의 1% 정도인 6천40억불로 추산되며, 이 비용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증가세가 현격할 전망

▼ 각 지역별 치매 환자 수 및 증가율 (예측치)

지역	치매환자 수, 백만명 (%는 전세계에서의 비중)			증가율 (%)	
	'13년	'30년	'50년	'13-'30년	'13-'50년
G8	14.02 (32%)	20.38 (27%)	28.91 (21%)	45	106
G20	33.93 (76%)	56.40 (75%)	96.61 (71%)	66	185
OECD	18.08 (41%)	27.98 (37%)	43.65 (32%)	55	142
고소득 국가	17.00 (38%)	25.86 (34%)	39.19 (29%)	52	131
중저소득 국가	27.84 (62%)	49.76 (66%)	96.27 (71%)	79	246
전세계	44.35	75.62	135.46	71	205

- 현재 전세계 치매 환자의 38%가 선진국 국민이지만 '50년에는 사회보호시스템이 취약한 저개발국과 개도국에 환자의 71%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남아와 아프리카가 치매 위험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치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된 가운데 향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국 정부의 치매 케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필요
 - 각국 정부는 흡연, 저활동, 비만, 고혈압, 당뇨 예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이 요구



글로벌 죽상혈관 질병 치료제 시장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 디지전 리소시스(Decision Resources)는 ‘죽상혈관 질병 (Atherothrombotic Diseases)’ 보고서를 '13년 12월 발표
 - 글로벌 죽상혈관 질병 치료제 시장은 지난 '12년 360억불 규모에서 오는 '22년에는 470억불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이는 관상동맥 심장질환·말초동맥질환·허혈성 뇌졸중·일과성 허혈증 등 죽상혈관 질병 치료제 시장에 출시되는 고가 신약들이 제네릭 약품으로 인한 시장 잠식을 상쇄하면서 시장을 다시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특히 '17년에는 콜레스테릴 에스터 전이 단백질(cholesterol ester transfer protein) 저해제와 전구단백질 전환 효소 썬틸리신/켁신 9형(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저해제 등 2종류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출시, 고위험군 환자에게 빠르게 활용되면서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전문가들은 2상 임상시험에서 이들 제품이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감소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높이 평가
 - * 이들은 주사제 및 고가 약물이라는 단점이 광범위한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
 - 또 AZ의 브릴린타/브릴리퀴(Brilinta/Brilique), 바이엘/얀센의 자렐토(Xarelto) 등 고가 경구용 제품들의 적응증 추가에 힘입어 글로벌 죽상혈관 질병 치료제 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일라이일리의 CETP 저해제 에버세트라립(evacetrapib)과 머크의 심근경색 치료제 보라팍사(vorapaxar)의 발매 역시 시장 성장에 일조할 것이 확실
- 한편 개선된 건강검진과 예방효과에 따른 위험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죽상혈관 질병으로 진단 받는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 같은 전망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및 뇌졸중 발생 후의 사후관리 개선 및 진단 환자 비율 증가, 인구 노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서 비롯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 현황과 전망

- 시장조사업체인 아일랜드 리서치 앤 마켓스(Research and Markets)는 ‘제품별, 기능성 의약품 부형제 시장- ‘18년까지의 글로벌 전망(Pharmaceutical Excipients Market by Products & Functionality- Global Forecast to 2018)’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3년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 규모를 57억1천600만불로 추정
 -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은 기능성 부형제를 찾는 제약업계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팽창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그러나 각국 정부가 제품 공급의 투명성 제고 명목 아래 부형제 업체들에 강요하는 과도한 품질관리 및 법적요건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
-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은 제품별, 기능별 및 지역별로 분류가 가능
 - 제품별로는 유기화학물질, 무기화학물질 및 기타로 구분
 - 기능별로는 충전제, 희석액, 결합제, 현탁액, 증점제, 피복제, 방향제, 정제 봉해제, 안료, 윤활제, 활택제, 방부제 및 기타 도포제로 분류
 -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
- 특히 지역별 의약품 부형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시장 점유는 북미,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순이나, 북미 및 유럽의 경우 아시아에 비해 연평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뚜렷
 - 북미 및 유럽 의약품 부형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제네릭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
 - 아시아에서 의약품 부형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로는 중국·인도·일본 등이 손꼽히는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면 주로 저렴한 인건비에 기인한 아웃소싱 생산을 장점으로 보유
 - *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릭 제품들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
- 한편 글로벌 의약품 부형제 시장의 주요 업체들로는 BASF,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로케트(Roquette), FMC, 에보닉(Evonik), ABF, ADM, 루브리졸(Lubrizol), 크로다(Croda) 등이 거론



희귀의약품,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견인

- 시장조사업체인 인도 퀵 리서치(KuicK Research)는 “18년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 전망 (Global Orphan Drug Market Outlook 2018)’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시장이 △오리지널 제품 특허만료 △제네릭 제형 부상 △각국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 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희귀의약품 부문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제품에서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희귀의약품은 글로벌 제약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유도하고 시장 내부적으로 안정성을 강화시키면서 오는 ‘18년 1천2백억불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제약업계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필수약품 제조에서 탈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주력하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희귀의약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때 제약업체들은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 극복이 가능
 - *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대부분이 향후 5년 이내 특허가 만료
 - 그러나 제약업체들이 희귀의약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희귀의약품 개발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등 각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와 EU 등 국제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
- 글로벌 제약업계가 희귀의약품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촉진할 전망
 - 특히 각국 정부가 희귀의약품에 대해 상당 기간 독점발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업체들은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의약품 시장 전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미국의 경우 희귀의약품이 개발돼 정부 승인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간 경쟁제품 출시가 금지



환자들이 평가한 주요 제약업체 평판

- 보건산업 정보업체인 영국의 페이션트뷰(Patient View)는 ‘13년 환자들이 평가한 제약업체 평판(The corporate reputation of pharma in 2013 : the Patient Perspective)’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43개국 8백여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13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3개 글로벌 제약업체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조사
- 페이션트뷰는 △환자중심 전략의 효과성 △환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환자 안전 기록 △의약품 품질 및 효과 △외부와의 투명한 관계 △진실된 기업 활동의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
 - 조사 결과 35.4%가 글로벌 제약업체에 대해 우수(excellent) 혹은 양호(good)라고 응답해 34%를 기록했던 ‘12년에 비해 이들의 평판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11년(42%)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 업체 중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HIV/AIDS 전문 제약업체인 바이브(ViiV)가 1위로 깜짝 등극했으며,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와 애브비가 각각 2, 3위를 기록

▼ 글로벌 제약업체 평판 종합 순위

‘13년	‘12년	국적	제약업체
1	N/A	영국	바이브
2	2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3	6	미국	애브비
4	5	미국	화이자
5	4	미국	얀센
6	8	스위스	로슈
7	9	미국	일라이릴리
8	19	이탈리아	메나리니
9	3	스위스	노바티스
10	11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 바이브는 6개 항목 중 환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길리어드는 환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에브비는 외부와의 투명한 관계에서 5위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모두 3위를 기록
- 보고서는 제약업체들이 신뢰를 얻으려면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신약 개발 △소수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 개발 △적절한 마케팅 △임상결과 공개 확대 △환자 중심의 약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균 감시 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항생제 내성균 감시 보고서(ANTIMICROBIAL RESISTANCE-Global Report on surveillance)’를 ‘14년 5월 발표
 - 보고서는 각종 바이러스의 항생제 내성 강화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각국 보건당국이 협력해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 WHO가 전 세계 114개국에서 취합한 항생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폐렴·혈액 감염·신생아 감염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카바페넴(carbapenem)’과 대장균 유발 요로감염의 대표적 항생제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이 환자 절반에게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확인
 - * 또 전 세계에서 매일 100만명 이상이 임질에 감염되는 가운데 최후의 치료제인 3세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um)’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효과를 상실했고, 결핵에 대한 항생제 저항도 심각하며, 말라리아와 HIV 및 독감 치료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추세로 파악
 - 이에 따라 전 세계에는 ‘항생제 이후 시대(post-antibiotic era)’가 도래 중으로, 지금까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감염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WHO는 글로벌 각국 정부와 제약업체들이 긴밀하게 공조해 각종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을 갖는 과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강력한 항생제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 또 항생제는 의료진 처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때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생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의료시설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백신접종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 한편 글로벌 제약업체 중에서는 미국 큐비스트 파마(Cubist Pharma)가 항생제 개발에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 회사는 올해에만 R&D에 4억불을 투자하면서 오는 ‘20년까지 4종류의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계획



글로벌 제약업계의 M&A 열풍

- 영국의 유력 텔레그래프(Telegraph)지가 ‘바이엘, 142억불로 머크 OTC 의약품 부문 인수 (Bayer pays \$14.2bn for Merck’s OTC drugs unit)’ 특집 기사를 ‘14년 5월 보도하는 등 외신들은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의 M&A 열풍에 주목
 - 올 들어 글로벌 제약업계에는 대형 M&A가 잇따라 시도되면서 업계 판도가 요동
- 특히 글로벌 M&A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예전에는 기업 단위로 M&A가 성사된 반면, 최근에는 사업부문 단위로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
 - 이는 특허권 만료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업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음을 시사
 -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 수정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불가피한 움직임으로 평가

▼ 제약업계 주요 M&A

업체	내용
바이엘	•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클라리틴’과 자외선차단제 ‘코파톤’ 등으로 유명한 머크의 OTC 사업부문을 142억불에 인수
노바티스 · GSK	• 노바티스는 GSK의 암치료 사업부문을, GSK는 노바티스의 독감 분야를 제외한 백신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약 200억불의 자산교환에 합의
일라이릴리	• 노바티스 동물약품 사업부문을 54억불에 인수
선파마	• 제네릭 전문업체 랜박시에 대해 40억불로 인수 제안
벨리언트	• 주름 개선제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에 대해 460억불로 인수 제안
사노피	• 특허만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70억~80억불에 매각 검토
포레스트 러보러토리스	• 퓨리엑스 파마슈티컬을 14억6천만불에 인수



R&D 생산성, 바이오파마 > 빅파마

○글로벌 시장조사사업체인 미국의 히든파이프라인(HiddenPipeline)은 ‘바이오파마 R&D 생산성 : 메트릭스, 벤치마크 및 미국 증시 상장 22개 기업 순위(Biopharmaceuticals R&D Productivity: Metrics, Benchmarks, and Rankings for the 22 Largest US-Listed Firms)’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R&D 투자 회수율 △1백만불 R&D 지출 대비 특허수(5년 평균) △특허 피인용수(5년 평균) △혁신지수(특정 분야에서 혁신이 차지하는 정도) △내부편견지수(신제품을 타부서에서 적대시 내지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 등 5가지 지표를 계량화, 미국 증시에 상장된 22개 제약업체들의 순위를 선정
- 그 결과 BMS와 셀젠 같은 바이오파마의 R&D 생산성이 머크와 일라이릴리 등 빅파마를 능가, 보다 효율적으로 R&D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제약업체 R&D 생산성 순위(R&D 대비 특허(1백만불)와 인용수는 5년 평균)

순위	업체	R&D 투자회수율	R&D 대비 특허수	특허 피인용수	혁신지수	내부편견지수
1	BMS	1.5%	0.22	1.2	1.9	23
2	셀젠	32.3%	0.23	1.5	8.4	98
3	버텍스	-125.4%	0.81	2.5	4.2	53
4	길리아드	20.8%	0.16	1.1	6.4	185
5	엘러간	8.0%	0.46	1.4	8.1	96
6	로슈	7.7%	0.09	0.9	2.0	24
7	암젠	9.4%	0.09	1.1	5.3	58
8	J&J	8.2%	0.07	1.0	4.8	34
9	노보노디스크	17.5%	0.11	1.7	10.8	439
10	애브비	11.1%	0.12	1.0	9.4	54
11	화이자	-3.2%	0.11	0.9	2.5	24
12	AZ	3.9%	0.10	1.0	7.1	43
13	바이오젠	9.1%	0.13	1.1	13.1	155
14	사이어	18.6%	0.11	1.4	15.4	338
15	사노피	1.5%	0.09	0.9	4.2	28
16	머크	3.0%	0.08	0.9	5.4	35
17	GSK	1.0%	0.09	1.0	6.0	36
18	노바티스	8.4%	0.05	0.7	5.3	37
19	레제네론	8.3%	0.16	0.7	13.7	638
20	바이엘	-2.1%	0.07	0.9	10.3	82
21	일라이릴리	4.5%	0.05	0.8	11.7	131
22	알렉시온	12.8%	0.03	0.4	21.4	8,012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현황과 전망

- 영국의 시장조사·컨설팅업체 비전게인(Visiongain)은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14~’24년 세계 시장 전망 및 주요 제약업체들의 미래 조망(Osteopor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World Drug Market Forecast 2014-2024 & Future Prospects for Leading Companies)’ 보고서를 ‘14년 5월 발표
 -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이 83억6천만불 규모를 형성하는데 이어 향후 10년 동안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골다공증은 현재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는 골 관련 질환이며, ‘침묵의 질병’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될 때 까지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
- 오는 ‘50년에는 골다공증 유병률이 지금의 4배 정도까지 증가할 전망
 - 이는 글로벌 각국에서 매년 166만 명에 이르는 고관절 골절 환자들이 새로 발생하는 데다, 인구 전반의 고령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서 비롯
 - 특히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비외상성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지금도 골절 예방을 목적으로 골강도 및 골밀도를 높이하고자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
 -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골형성 촉진제 △골흡수 저해제 △이중작용 약물 등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전개하는 활동에 더욱 주력해야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지난해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일라이릴리의 ‘포르테오(Forteo)’와 ‘에비스타(Evista)’ 및 암젠의 ‘프로리아(Prolia)’빅 3 제품이 지배
 - 또 아직 개발 중에 있지만 시장에 시판될 경우 블록버스터 드럭 대열에 오를 유망 신약 후보 물질로는 UCB의 로모소주맙(Romosozumab)과 머크의 오다나카티브(Odanacatib)이 거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복병, 바이오시밀러

- 영국의 리서치·컨설팅 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는 ‘제약업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법적 체계와 제품 파이프라인(PharmaSphere: Regulatory Frameworks and Product Pipelines in the Global Biosimilars Market)’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3년 1천620억불 규모를 형성했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Biologics) 시장이 향후 연평균 8.3%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거듭, 오는 '19년에 이르면 2천620억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s) 제품들이 각국 정부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19년 이후로는 이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유명 바이오의약품들이 잇달아 특허보호 기간 종료에 직면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법적인 체계가 명확하게 도입·정착됨에 따라 오는 '19년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잠식이 본격화할 전망
 - 미국 정부의 긴축정책과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서부터 인구 전반의 고령화,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의료수요 증가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의료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택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증가
 - 바이오시밀러 제품 가격은 유명 바이오의약품들보다 20~30% 낮게 형성될 전망으로, 상당수 환자들의 바이오의약품 비용 부담액이 연간 수천불에 이르는 현실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
-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제조업체(CMO)와 임상시험 위탁기관(CRO)들도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진입
 - 이러한 CMO로는 론자(Lonza)와 셀트리온(Celltrion), CRO로는 키타일즈(Quintiles)와 파락셀(Paraxel)이 대표적
 - 한편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지난 7년 동안 각종 제품 개발과 관련, 100건 이상 총 107억불 상당의 계약이 성사



암 치료제, 의약품 성장 둔화 속 ‘독야청청’

- 영국의 유력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지는 '14년 6월, 'AZ, 새로운 암 치료제 출시 준비(AstraZeneca seeks to bring new cancer drugs to market)'와 같은 일련의 특집 기사를 통해 글로벌 암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를 조명
-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지난 10년 사이 40%대에서 5%대로 급락했지만 암 치료제는 '13년에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
 -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암 발병률이 5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암 치료제 시장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주요 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17년, 10억불)

분야	규모	분야	규모	분야	규모
암	91	고혈압	37	피부질환	32
통증	53	항생제	36	면역반응촉진	23
신경질환	46	천식/COPD	34	HIV 항바이러스	22
당뇨	44	항종양과사인자	32	콜레스테롤	22

- 이에 따라 AZ와 로슈는 각자의 치료제를 공유해 가능한 조합을 시도 중이고, 노바티스는 T세포를 추출해 암세포 공격 능력을 향상시킨 뒤 재주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거대 제약업체들이 새로운 암치료제 개발에 주력
- 특히 자체 면역세포를 갖고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면역요법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부작용도 적고 항암 효과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
 - *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통적인 화학요법과 방사능 요법을 '무차별 용단폭격', 새로 대두되는 표적 치료를 '정밀타격 미사일 요법'으로 비유
- 이와 관련, 미국 시티그룹은 향후 10년 내 항암제 시장의 60%를 면역요법이 차지하고 면역요법 시장규모는 연 3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는 어느 업체가 선두에 나서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최적의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항생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 ... 내성 문제 해결이 관건

-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BCC 리서치는 ‘항생제 : 기술 및 글로벌 시장(ANTIBI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항생제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향후에도 당분간 제자리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13~'18년 사이 연평균 0.8%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오는 '18년에는 412억불 규모를 형성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 이 같이 저조한 성장세는 항생제 내성이 전세계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성 박테리아를 괴멸시킬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은 미진하기 때문
 -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 114개국의 항생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현저
 - * 특히 폐렴·혈액 감염·신생아 감염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카바페넴(carbapenem)’과 대장균 유발 요로감염의 대표적 항생제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이 환자 절반에게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확인
 - ** WHO는 이에 따라 전세계에 ‘항생제 이후 시대’가 도래 중으로, 지금까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감염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의약품청(EMA)도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지 못하면 전세계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
 - 결국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이 향후 항생제 시장 성장의 관건으로, 글로벌 각국 정부와 제약업체 및 연구기관들이 긴밀하게 공조해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고령화 가속화 △GDP 증가 △헬스케어 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 항생제 시장이 '13~'18년 사이 연간 1.2% 정도의 성장률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4 ~ '20년 글로벌 제약시장, 연평균 5.1% 성장 전망

-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이밸류에이트파마(EvaluatePharma)는 '2014~2020년 글로벌 제약시장 전망(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4, Outlook to 2020)'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14~'20년 사이 글로벌 제약시장이 연평균 5.1% 성장을 거듭, 오는 '20년에는 처방약 매출이 마침내 1조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성과는 동기간 매년 평균 180억불에 이르는 제품이 특허만료에 직면하는 가운데서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4~'20년에는 글로벌 톱셀러 약물로 바이오의약품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제약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22%에서 '20년에는 27%로 확대될 전망
 - 특히 '카드사이라(Kadcyla)', '니볼루맵(Nivolumab)', '팜브로리주맵(Pembrolizumab)' 등 현재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제품들은 향후에도 매출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약물 승인 기록 △신약 출시 성공 △고용 기록과 임원 보수 등 요인은 바이오 기업들이 빅파마 지배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지난 '13년 글로벌 처방약 매출 1위 업체인 노바티스는 '20년까지 1위(544억불 전망)를 수성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젠과 길리어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
 - 바이오젠의 '20년 매출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Tecfidera)' 덕에 현재 54억불에서 84억불 급증한 130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동기간 길리어드의 매출은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로 인해 108억불에서 237억불로 129억불 급등할 것으로 전망
 - * 화이자 28억불, 아스트라제네카 25억불, 머크는 21억불 매출 증가가 예상
 - 한편 향후 글로벌 빅파마들은 성장 동력으로 인수합병(M&A)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MR)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동등 바이올로직 시장(Global Biosimilars/Follow-on-Biologics Market)’ 보고서를 ‘14년 7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3년 13억불을 기록했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오는 ‘20년에는 35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16년 ‘휴미라(Humira)’를 시작으로 주요 바이올로직의 특허가 수년 내 만료되는 가운데, 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훨씬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서 근거
- 특히 특허만료가 활발한 종양학 분야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규모는 ‘15년에 17억~27억불을 기록한 뒤 ‘20년에는 60억~120억불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허셉틴(Herceptin)’의 특허는 올해 유럽에서, ‘19년에는 미국에서 만료되며, ‘맵테라(Mabthera)’ 특허는 이미 유럽에서 만료됐고 ‘18년에는 미국에서 만료되는 등 종양학 분야의 바이올로직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대기
-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개도국 진출에 주력해 왔지만 향후에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선진국에도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
 -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20년까지 바이올로직 시장의 2~5%를 바이오시밀러가 점유하면서 60억~120억불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를 이끄는 요인으로는 면역질환의 광범위성과 비용효율적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적되는 가운데, 특히 폴리티로핀 · 인터페론 · 인슐린 부문의 바이오시밀러가 수익성이 높을 전망
 - 한편 글로벌 주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로는 산도스, 신평, 테바, LG생명과학, 셀트리온, 바이오콘, 호스피라, 머크세로노, 바이오젠아이텍, 지넨텍이 거론



글로벌 제약업계 성장 견인 의약품

- 미국의 의약 전문매체 퍼스트워드 파마(FirstWord Pharma)는 ‘14년 상반기 제약업체의 최대 성장 동력 의약품(Pharma's biggest growth driver drugs- H1 2014)’ 특집 기사를 '14년 8월 보도
 -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약품 부문은 C형 간염(HCV) 치료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소발디(Sovaldi)는 매출이 58억불 정도 증가해 압도적 1위를 차지
 - * 소발디는 비싼 가격(12주 치료 과정에 하루 1천불씩 총 8만4천불)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약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록
 - 동기간 J&J의 C형간염 올리시오(Olysio)는 약 12억불 증가해 2위로 집계
 - 염증 치료제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애브비의 휴미라는 매출 증가가 11억불 정도로 소발디와 올리시오에 이어 3위에 랭크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문도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 바이오젠 아이텍의 텍피데라는 미국 내 점유율 확대를 배경으로 10억불 이상 증가
 - 이 밖에 항응고, 당뇨, 황반변성/황반부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전형적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부문도 매출 증가 추세가 뚜렷

▼ '14년 상반기 블록버스터 의약품 (매출증가 순, 100만불)

순위	제품명	부문	제약업체	매출증가(전년동기 대비)
1	소발디	C형 간염	길리어드	5754
2	올리시오	C형 간염	J&J	1185
3	휴미라	염증	애브비	1075
4	텍피데라	다발성 경화증	바이오젠 아이텍	1014
5	자렐토	항응고	바이엘/J&J	834
6	란투스	당뇨	사노피	511
7	아이레아	황반변성/황반부종	바이엘/리제네론	509
8	솔리리스	PNH/aHUS	알렉시온	371
9	자이타카	전립선암	J&J	335
10	퍼제타	유방암	로슈	322

주 : PNH(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HUS(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 비전형적 용혈성 요독 증후군



주목되는 글로벌 제약업계 산학제휴

○ 미국의 의료정보 제공업체 피어스 바이오텍 리서치(Fierce Biotech Research)는 “14년 주목되는 제약업계 산학제휴(Notable academic-pharma alliances of 2014)’ 특집 기사를 ‘14년 9월 보도

- 피어스 바이오텍 리서치는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체 기초과학 연구를 축소하는 대신 학계 및 비영리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다음 7개 산학제휴(‘14년 상반기 체결)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

▼ 주요 제약 관련 산학제휴 (체결일 순)

체결일	업체	대학	주요 내용
1.8	바이엘	베이징대	• 베이징대에 약물전달중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심장학, 종양학, 혈액학, 부인과 부문에서 신약을 발굴 • 바이엘은 연구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신약 발굴 및 일반 생명과학 축진을 위한 연구자상을 제정
1.30	베링거인겔하임	듀크대	•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특발폐섬유증(IPF) 진행의 이해를 위한 연구 제휴 • 이를 위해 미국에서 IPF 환자를 등록해 대규모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위험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및 유전적 바이오마커를 발굴
2.12	메드이문	UCSF	• 메드이문은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의 임상전환 과학연구소를 지원하면서 동 연구소와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종양학, 호흡기, 염증 및 자가면역, 신경과학, 감염질환 분야에서 연구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
3.31	AZ	센첸대	• AZ와 피브로젠의 만성 및 말기 신장질환 신약후보 ‘FG-459’에 기반한, 만성 신장질환에 관한 전임상 연구협력
4.30	젠자임	클리블랜드 클리닉	• 진행형 다발경화증의 신경퇴행과 관련된 병리학적 이해를 위한 기술 및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5.9	화이자	GMEC	• 6천여 희귀질환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한 인간 게놈 연구 * GMEC는 케임브리지대, 임페리얼칼리지런던, 런던퀸메리대, 옥스퍼드대로 구성된 컨소시엄
5.21	다이이치산쿄	샌포드-번햄 의학연구소	• 심혈관 및 대사질환에서 신약을 발굴하기 위한 전임상 연구협력 제휴



글로벌 건선성 관절염 시장 전망

- 미국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시전 리소시스는 “14년 건선성 관절염(Psoriatic arthritis-2014)’ 보고서를 ‘14년 9월 발표
 -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글로벌 7대 제약시장에서 건선 관절염 치료제 부문이 신약 및 고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로 향후 10년간 66% 성장, ‘23년에는 37억불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지난 ‘13년에는 애브비/에자이의 ‘휴미라(Humira)’ 등 TNF 알파 억제제가 23억불로 추산되는 글로벌 7개국 건선 관절염 시장의 90%를 장악했으며, 이들 억제제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매출 선두 자리는 무난히 지킬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최근 출시된 얀센의 ‘스텔라라(Stelara)’와 셀젠의 ‘오테즐라(Otezlat)’ 및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이 ‘23년에는 건선 관절염 시장의 21%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
 - 개발 중인 신약으로는 항인터루킨-17 단클론 항체인 노바티스의 ‘세쿠키누맙(secukinumab)’, 릴리의 ‘이제키주맙(ilekizumab)’, 암젠/AZ의 ‘브로달루맙(brodalumab)’, 화이자의 야누스 키나아제 억제제 ‘젤잔즈(Xeljanz)’ 등
 - 특히 오테즐라와 젤잔즈는 경구제이면서도 독특한 활성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 상태가 심각한 환자 및 일반 치료요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런 가운데 바이오시밀러는 ‘23년 건선 관절염 매출의 36% 정도를 차지하면서 TNF 알파 억제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
 - ‘15년에는 화이자의 ‘엔브렐(Enbrel)’과 J&J의 ‘레미케이드(Remicade)’의 저가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정
 - 한편 전문가들은 건선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부문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병 징후와 관련해 효과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강조



글로벌 RNA 기반 치료제 시장 전망

-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MR)는 ‘2013~2020년 글로벌 RNA 기반 치료제 시장(Global RNA Based Therapeutics Market, 2013- 2020)’ 보고서를 ‘14년 9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RNA 기반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부터 연평균 28.4%씩 급성장, 오는 ‘20년에는 12억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RNA 기반 치료제 시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RNA간섭(RNAi) 타겟 및 전달 기술이 개선되는 등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
 - 또 최근 임상시험 성공사례도 증가해 다양한 RNAi 치료제들이 곧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배경
 - * RNA 기반 치료제의 구현 기술은 미세배열, 라벨링, 정제, 선형 증폭, qRT-PCR 등이고, 이를 바탕으로 크게 siRNA와 miRNA 같은 RNAi 및 RNA 안티센스 기술로 구분
- RNA 기반 치료제는 다양한 만성 질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운데 심혈관, 신장질환, 암, 감염질환, 대사장애 등 치료를 위한 R&D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종양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저분자 생물약이 종양성장 유발 변이 단백질을 억제하는데 그치는 것과 달리 RNA 기반 치료제는 특정 단백질 자체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등 기존 약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종양유전자에 대해 효과가 있음이 확인
 - 이와 관련, 아이시스(ISIS)는 이미 안티센스 기술을 이용한 유전병 치료제 키남로와 비트라빈을 판매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퀴크(Quark)와 사일런스 세러퓨틱스(Silence Therapeutics)도 강력한 연구 파이프라인을 구축
 - 이들 업체와 함께 파티시란을 비롯해 15개 RNAi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엘나일람(Alnylam)과, 종양유전자 K-RAS를 타겟으로 하는 RNA를 실은 매트릭스를 직접 종양으로 주사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일런시드(Silenseed), 다발 골수종 및 림프종 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디서나(Dicerna)도 주목



글로벌 희귀약 시장 전망 ... '20년 1천760억불 규모 성장

- 글로벌 제약산업 분석업체인 미국 이벨류에이트파마(EvaluatePharma)는 '2014년 희귀약 보고서(ORPHAN DRUG REPORT 2014)'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희귀약 시장이 연평균 10.5%씩 성장, 오는 '20년에는 전체 처방약 매출의 19%인 1천760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아직은 희귀약 급여 환경이 우호적이지만 희귀약이 각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국가가 비용관리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인하를 위한 제약업체들의 노력을 촉구
- 오는 '20년 글로벌 희귀약 시장에서 제품별로는 다발골수종 표적치료제 '레블리미드(Revlimid)' 매출이 지난 '13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80억1천200만불에 이르러 희귀약 중 단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레블리미드에 이어 면역항암제 '옵디보(Opdivo)'가 60억3천300만불로 2위, 류마티스 치료제 '리툭산(Rituxan)'은 '18년 특허만료로 인해 56억8천900만불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Soliris)'는 연평균 20%씩 매출이 증가해 55억1천만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년 글로벌 10대 희귀약

(단위 : 100만불)

순위	제품	매출('13년)	매출('20년)	연평균 성장률(%)
1	레블리미드	4,280	8,012	9
2	옵디보	-	6,033	-
3	리툭산	7,503	5,689	마이너스 4
4	솔리리스	1,551	5,510	20
5	VX-809+이바카프토	-	4,227	-
6	키트루다	-	3,879	-
7	임브루비카	14	3,602	122
8	가지바	3	2,528	159
9	오메티콜산	-	2,522	-
10	일레이소	49	2,480	75



글로벌 제약업체, 마케팅 비용 > R&D 비용

- 영국 공영 BBC는 ‘제약산업, 높은 이익만 추구(Pharmaceutical industry gets high on fat profits)’ 특집 기사를 ‘14년 11월 보도
 - BBC는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R&D보다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
- BBC가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 글로벌 10대 제약업체 중 9곳에서 마케팅 비용이 R&D 비용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
 - 마케팅 비용(90억불)보다 R&D 비용(93억불)이 많은 기업은 로슈가 유일
 - J&J는 마케팅 비용이 175억불로 R&D 비용(82억불)의 2배 이상을 기록
 - 노바티스는 마케팅 비용으로 146억불 R&D에는 99억불을 지출해 47억불, 화이자사는 각각 114억불과 66억불로 48억불의 격차를 기록
 - 한편 AZ의 경우 마케팅 비용 73억불과 R&D 비용 43억불로 40억불 격차가 났는데, 블록버스터 항궤양제 ‘넥시움(Nexium)’의 특허만료에 대비해 항혈전제 ‘브릴린타(Brilinta)’ 등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
 - 이 같은 통계는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R&D 활동을 강화해 보다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기보다 눈앞의 단기적 수익에 연연해하고 있음을 입증

▼ '13년 10대 제약업체 R&D 마케팅 지출 비교

(단위 : 10억불)

기업	국적	매출	마케팅	R&D	마케팅 R&D 격차(억불)	수익	수익률(%)
J&J	미국	71.3	17.5	8.2	9.3	13.8	19
노바티스	스위스	58.8	14.6	9.9	4.7	9.2	16
화이자	미국	51.6	11.4	6.6	4.8	22.0	43
로슈	스위스	50.3	9.0	9.3	-0.3	12.0	24
사노피	프랑스	44.4	9.1	6.3	2.8	8.5	11
머크	미국	44.0	9.5	7.5	2.0	4.4	10
GSK	영국	41.4	9.9	5.3	4.6	8.5	21
AZ	영국	25.7	7.3	4.3	4.0	2.6	10
일라이릴리	미국	23.1	5.7	5.5	0.2	4.7	20
애브비	미국	18.8	4.3	2.9	1.4	4.1	22



'18년까지의 글로벌 제약시장 전망

- 미국의 제약 컨설팅업체 IMS 헬스는 ‘18년까지의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Global Outlook for Medicines Through 2018)’ 보고서를 ‘14년 11월 발표
 -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제약시장이 연평균 4~7% 성장, 오는 ‘18년에는 지난 ‘13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1조3천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암과 C형간염(HCV) 등 혁신적 치료제 개발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로 인한 약물접근 개선 △특허만료 제품 감소 등이 예견된다는 데서 비롯
 - 특히 지난해 650억불 정도였던 항암제에 대한 지출이 효능이 뛰어난 혁신적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18년에는 1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관측
 - *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현재 120개 정도의 항암제 신약후보 물질을 3상 임상시험 중
 - 또 동기간 항암제를 비롯한 HCV, 자가면역, 항바이러스제, 면역억제제 등 특수 의약품이 전체 제약시장 성장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40%에 달할 전망
- 지역별로는 ‘18년까지의 글로벌 제약시장 매출 증가분 3천50억~3천350억불 중에서 북미가 40%, 아시아·태평양이 36%로 대다수를 차지하겠고, 중남미와 유럽이 각각 9%, 아프리카·중동은 6%에 그칠 것으로 예상
 - ‘18년 글로벌 제약시장 내 비중은 북미가 38%로 최대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아시아태평양이 36%로 바짝 뒤따르겠으며, 유럽은 19%, 중남미가 7%, 아프리카·중동은 4%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제약시장 성장이 기대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만은 제네릭 사용 확대 및 강력한 가격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장 위축이 예견
 - 글로벌 제약시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1인당 평균 의약품 지출이 ‘13년 1천75불에서 ‘18년에는 1천409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미국에 이어 2대 제약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우 지난해 72불이었던 1인당 의약품 지출이 ‘18년에는 124불로 급증하면서 1천550억~1천850억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제약업계에 지속되는 ‘특허절벽’ 한파

- 영국계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Data)는 ‘제약 선도업체 : 글로벌 제약시장 벤치마킹 보고서(PharmaLeaders : Global Pharmaceutical Market Benchmark Report)’를 ‘14년 12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업계에 특허 만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특허절벽(Patent Cliff)’ 현상이 비록 정점을 지났어도, 주요 제약업체들은 특허절벽으로 인해 오는 ‘19년까지 총 650억불 상당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허절벽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업체로는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부문에서 상당 폭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AZ와 일라이릴리 및 오츠카
 - AZ와 일라이릴리는 지난 ‘10년 이래 CNS 치료제 부문에서 이윤이 하락해 온 가운데, 특히 AZ는 최근 3년여 동안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
 - * AZ는 ‘세로켈(Seroquel)’ 특허만료에 따라 테바와 산도스가 제네릭 제형을 내놓으면서 고전
 - 동기간 일라이릴리의 시장점유율 또한 블록버스터 제품 ‘자이프렉사(Zyprexa)’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14.3%에서 11.2%로 후퇴
 - * 자이프렉사의 경우 지난 ‘11년 미국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된 여파로 인해 그 전 해인 ‘10년에는 매출이 50억불을 상회했지만, ‘13년에는 12억불로 급감
 - 이에 따라 오츠카가 BMS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아빌리파이(Abilify)’가 지난해 97억불 매출로 중추신경계 치료제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
 - * 아빌리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우울장애 및 조증 발작을 동반하는 양극성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보조요법제로 처방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국가 의료보험제도에 아빌리파이가 포함되면서 매출이 급증
 - 하지만 아빌리파이 역시 ‘15년 미국시장에서 특허만료가 도래해 제네릭 제형들이 시장을 잠식할 경우 오는 ‘19년까지 62억불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특허절벽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

2. 의료기기 / 정보화

2.1 미국	847
2.2 일본	850
2.3 EU	851
2.4 글로벌	852

2.1 미국



'14년 미 헬스케어 업계에 예측되는 변화

○글로벌 의학정보 제공업체 미 메드스케이프(Medscape)는 '14년 헬스케어 예측 :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Predicting Healthcare in 2014: What Will the Year Bring?)' 특집 기사를 '13년 12월 발표

▼ '14년 헬스케어 예측(무순)

번호	주요 내용
1	• 기존 검사법의 1/1000에 불과한 혈액으로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테라노스의 '바이러스 핵산 증폭 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NAAT)'가 각광을 받을 전망. 테라노스는 이미 대형 약국체인 월그린과 제휴를 체결, 동 검사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
2	• 중증 및 재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 감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대변이식 및 대변 박테리아 캡슐 치료가 확산될 전망
3	• 미국심장학회가 기존의 LDL 수치에서 탈피해 특정 조건 아래에서의 맞춤형 치료를 권고하는 심혈관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심혈관 진료에 변화가 예상
4	•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투석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정 투석이나 이동식 착용 신장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
5	• 항암제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미 정부는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신약에는 각종 보험의 급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
6	•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이 개정되면서 파탄적 기분 조절곤란 장애가 추가돼 지금도 과잉 진단되고 있는 정신질환이 초과잉 진단되면서 치료제 남용이 우려
7	•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각 환자의 증상·위험·바이오마커·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점점 더 맞춤형 치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8	• 심장학 부문에서 에제티미브(ezetimibe)/심바스타틴(simvastatin) 병용과 심바스타틴 단독을 비교하는 IMPROVE-IT 시험 결과 및 난치성 고혈압에 대한 신장신경차단 치료에 대한 첫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9	• 현재 유일한 인공 경도관 대동맥판막 사피엔(Sapien)에 대한 경쟁제품으로 코어밸브(CoreValve)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
10	• 종양 분류가 바이오마커를 통해 더욱 세분화되면서 종양 형태에 따른 보다 정확한 투약이 기대



미·중, 글로벌 모바일헬스 시장 장악

-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중국과 미국의 모바일헬스(mHealth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14년 3월 발표
 - 글로벌 모바일헬스의 최대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오는 ‘17년 두 나라 시장 규모는 각각 59억불과 25억불로 전세계 시장의 1/3 이상을 차지할 전망
-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바일헬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 증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로 인해 전통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
 - 또 모바일헬스를 이용하면 의료진의 처방이나 진료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확성이 높아지며,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의료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
 - 특히 모바일헬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데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환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
-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바일헬스 시범사업이 시행 중
 -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거리가 멀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장병 환자들에게 무선 장비를 제공해 체중과 혈압 등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
 - 중국에서는 일부 무선통신 업체들과 지역 진료소들이 공동으로 지난 ‘11년 7월 ‘무선 심장 건강’ 프로그램에 착수, 지금까지 1만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이상 증상이 발견된 1천1백여명에게 정밀 검진 등 추가 조치가 진행
-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각국이 모바일헬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바일헬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환경을 구비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병원·지역 진료소·환자 사이 협조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필수
 -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모바일헬스를 통해 상담만 할 뿐 치료나 처방을 못한다거나, 모바일헬스에 참여한 의사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모바일헬스 시장의 발전은 요원



미국 텔레헬스 시장 성장의 배경과 조건

-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2014 텔레헬스의 추동력 (Pulse of Telehealth 2014)’ 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고령자 인구 증가 및 기술발전과 함께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미국 텔레헬스(telehealth, 원격의료) 산업이 급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진단
- 미국에서 텔레헬스 수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급격히 확대될 전망
 - 첫째, 고령자 인구 증가는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증가를 수반하기 마련으로, 만성질환을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해서는 텔레헬스를 활용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가 직면 대면하는 것보다 의료비용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효율적
 - 둘째, 기술발전으로 인해 화질과 오디오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텔레헬스 기기들이 속속 출현
 - * 특히 구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술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혁신적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텔레헬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셋째,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에 새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지리적 등 이유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사례 역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텔레헬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
-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텔레헬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 비용의 명확한 규정 △당국의 규제완화 등 조치가 필요
 -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선도 기술업체 및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텔레헬스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
 - 이와 함께 토털 솔루션을 환자 등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 모바일앱 기업, 의료기기 업체, 제약업체, 병원체인 등의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

2.2 일본



일본 정부·산업체, 의료용 로봇 공동 개발

- 영국 로이터통신은 ‘규제완화, 일본의 새로운 로봇 혁명의 핵심(Deregulation at heart of Japan’s new robotics revolution)’ 특집 기사를 ‘14년 11월 보도
 -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산업체와 공동으로 의료용 로봇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관련 규제 철폐와 투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
 - 일본은 원래 미국에 앞서 의료용 로봇을 연구한 바 있으나 엄격한 규제에 의해 개발이 뒤쳐졌는데, 의료용 로봇을 비롯한 로봇 산업으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야심
- 일본 정부는 의료용 로봇을 중심으로 한 국내 로봇 시장을 오는 ‘20년까지 210억불 규모로 지금보다 3배 정도 성장시킬 계획
 - 정부는 이를 위해 일단 체장종양 제거 같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와사키중공업 및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다빈치 수술 로봇의 경쟁제품을 개발, ‘19년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방침
 - 이 방침은 50억엔의 예산이 편성된 의료용 로봇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
 - 일본 정부가 이처럼 로봇 개발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1년 전 구글이 로봇개발 벤처업체 웨프트(Schaft)를 인수한데 따른 여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 웨프트는 도쿄대 교수 2명이 운영해 온 회사로, 차량 운전을 하고 사다리도 오르내릴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으며 이 로봇은 미국 국방부의 구조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연간 290억불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로봇은 이제 공장에서 나와 가정과 병원 및 전쟁터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 강국 일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 후생성은 의료용 로봇 인증절차를 완화하고 요양 로봇에 대한 안전성 표준을 마련한 뒤 요양원에도 시험적으로 로봇을 사용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접하면 휠체어로 변신하는 파나소닉의 요양용 침상로봇을 승인
 - 한편 일본의 로봇 벤처업체 사이버다인(Cyberdyne)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행보조 장착형 로봇 수트 ‘HAL(Hybrid Assistive Limb)’ 승인을 신청

2.3 EU



유럽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그 조건

- 미국의 시장조사·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유럽 원격의료 시장 분석(Analysis of the Video Telemedicine Market in Europe)’ 보고서를 '14년 7월 발표
 - 보고서는 향후 유럽 원격의료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 원격의료 보급률이 지난 '13년 30%에서 오는 '20년에는 50%까지 높아지고, 매출 규모는 1억5천120만불에서 4억1천440만불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럽 원격의료 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는 기술진보로 인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가격 하락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의료 솔루션의 이용 증가가 거론
 - 또 각국 정부가 의료시설 접근이 쉽지않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요인
 - * 현재 유럽에서는 전체 헬스케어 비용의 70%가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홈 헬스케어 서비스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 증가는 이런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 헬스케어 전문가들도 환자의 병원 재입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격의료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원격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고, 진료비용 산정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원격의료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전체 유럽에 통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과, 진료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 올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건강보험 정책 개선과 관련된 입법이 예고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 또 원격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과 관련한 상호 이용 및 표준화 역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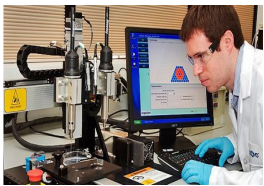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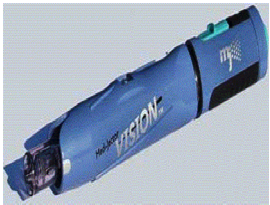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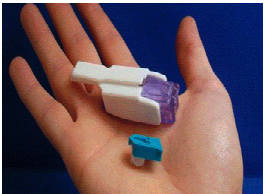
2.4 글로벌



의료 변혁을 초래하는 혁신기술

- 투자전문회사 미 모틀리 폴(Motley Fool)은 ‘투자 유망한 파괴적 의료혁신 기술 3선(3 Disruptive Medical Innovations You Can Invest In)’ 특집 기사를 ‘13년 12월 발표
 - 이들 기술은 3D 프린터 간독성 평가 제품, 무바늘 주사기, 흡입 인슐린

▼ 혁신 의료기술 (무순)

기술	개발업체	주요 내용
 <3D 프린터 간독성 평가 제품>	오가노보 (Organovo)	• 기존 2D 세포배양을 통해 간독성을 평가하는 것보다 동일한 약물을 용량을 달리해 수회에 걸쳐 시험할 수 있고 40일까지 주요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14년 말 판매 예정 • 오가노보는 장기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실제 3D 프린터 장기도 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기대 아래 오가노보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3백% 이상 급등
 <무바늘 주사기>	안타레스 (Antares)	• 바늘 사용을 기피하는 환자를 위한 주사기로, 흡입기가 스프링을 통해 약물을 빠른 속도로 피부 속 지방층 아래까지 방출 • 인간 성장 호르몬인 테바의 ‘테브-트로핀(Tev-Tropin)’과 페링의 ‘조마젯(Zomajet) 2 비전’ 및 ‘조마젯 비전 X’를 투여하는 데 사용 • 최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정용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자동 주사기 ‘오프렉스업(Otrexup)’의 경우 관절염·건선 환자를 중심으로 연매출 1~2억불이 예상
 <흡입 인슐린>	맨카인드 (MannKind)	• 기존에 실패한 화이자 등의 흡입 인슐린 제품에 비해 크기가 작고 사용이 용이한 기기로 속효성 인슐린을 전달 • ‘14년 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매출 20억불도 무난할 전망



글로벌 무선 EHR 시장, '18년 235억불 규모

- 시장조사업체인 미국의 BCC 리서치는 ‘무선 전자건강기록 : 기술 및 글로벌 시장 (Wireless Electronic Health Record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보고서를 '14년 1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2년 96억불 정도였던 글로벌 무선 전자건강기록(EHR) 시장 규모가 '13년에는 112억불로 증가한 데 이어, 향후 연평균 16.1%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18년에는 23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무선 EHR은 건강증진기관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강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하나로 연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
 - 첫째, 종이문서 작업에 투입했던 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의료진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환자에게 다음번 예약을 무선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통보하면 이들이 예약 시간에 오지 않는 확률이 크게 감소
 - 둘째, 의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고 한데 모으고 이동시키는 데 드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진료 업무와 진료비 청구업무의 효율이 제고
 -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EHR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 하드웨어나 IT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
 - 넷째, 요건에 맞고 읽기 쉬운 문서가 작성되어 정부로부터의 급여 수취율이 제고
- 무선 EHR은 1960년대 초 이후 일부 제한된 부분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미국의 경우 대다수 의료기관이 사용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
 -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이 급성장함에 따라 병원 전반에서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 EHR 채택이 확산
 - 무선 EHR 휴대기기는 데이터 간소화와 데이터 저장 기능을 보유, 의료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활용이 제고
 - * 이 같은 데이터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대단히 유용
 - 이런 가운데 모바일 기술 분야에서 증가하는 R&D 지출과 기술 발전 및 의료기관에서의 강력한 관심은 무선 EHR 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



제약업계 소셜미디어 활용도 평가

-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미 IMS 헬스(IMS Health)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환자와의 소통 (Engaging patients through social media)’ 보고서를 ‘14년 1월 발표
 - 보고서는 대다수 업체와 규제기관들이 의사와 환자 간 제한적 토론만을 허용하면서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평가
- 글로벌 톱 5 제약업체 중 23개 업체만이 환자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의료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를 모두 사용하는 업체는 10곳에 불과
 - 이 중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가장 우수한 업체로는 J&J가 1위로 평가되었으며, 2위는 GSK 3위는 노보노디스크로 분석
 - 또 베링거인겔하임과 UCB는 업체 규모에 비해 효과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업체로 파악

▼ IMS 헬스 소셜미디어 소통지수 순위

순위	국가	업체	순위	국가	업체
1	미국	J&J	6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2	영국	GSK	7	독일	바이엘
3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8	미국	머크
4	미국	화이자	9	영국	AZ
5	스위스	노바티스	10	벨기에	UCB

-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 역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FDA)은 페이스북, 유럽의약품청(EMA)은 트위터를 통한 소통이 특히 활발
 - 의약품 규제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채널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채널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런 가운데 정확한 의약품 관련 정보습득을 위해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리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규제기관들은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 이와 관련, 젊은층일수록 치료시작 전에 처방 및 치료 약물과 관련해 온라인 검색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50대 이상 노년층은 그 반대로 대조적



글로벌 신경조절기 시장 선도업체 4사

- 의료기기정보 제공업체인 미국의 피어스메디컬디바이스(Fierce Medical Device)는 ‘신경조절기 부문에서의 4개 선도업체(So far, just 4 companies have a shot at winning the neuromodulation race)’ 특집 기사를 ‘14년 2월 보도
 - 글로벌 신경조절기 시장은 치료 범위를 더욱 넓히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
 - 오는 ‘18년까지 메드트로닉(Medtronic)이 시장에서 선두를 이끄는 가운데 그 뒤를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과 세인트쥬드 메디컬(St. Jude Medical)이 추격하고, 사이버로닉스(Cyberonics)는 신흥 주자로 떠오를 전망

▼ 신경조절기 선도업체 4사

업체	특징
메드트로닉	• 의료기기 업체 중 신경조절기 투자가 가장 적극적 • 운동 및 정신 장애, 위장 전기자극, 만성통증 타깃 약물전달, 척수자극, 천골자극 분야에 강점 • 지난해에는 심뇌자극(DBS)을 통해 파킨슨병을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엑티바 PC+S’를 공개하면서 주목 • ‘13년 신경조절기 매출은 14억5천만불로 추산되며, ‘18년에는 18억9천만불 예상
보스턴 사이언티픽	• 척수 자극기 ‘프리시즌(Precision)’, 요통 치료기 ‘프레시즌 스펙트라(Precision Spectra)’, 3D 기술로 맞춤형이식 가능한 파킨슨병 치료기 ‘버사이즈(Vercise)’ 제품이 유망 • ‘13년 신경조절기 매출은 4억2천200만불로 추산되며, ‘18년에는 6억4천800만불 예상
세인트쥬드 메디컬	• 만성통증 치료기 ‘프로디지(Prodigy)’와, 기존 기기보다 에너지를 95%나 절약하는 하지통증 치료기 ‘엑시움(Axium)’이 유망 • ‘13년 신경조절기 매출은 4억2천600만불로 추산되며, ‘18년에는 5억8천만불 예상
사이버로닉스	• 불응성 간질 및 치료저항 우울증을 치료하는 미주신경자극(VNS) 치료 시스템과 환자의 간질 활성화에 따른 심장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자동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에스파이어SR(AspireSR)’이 유망 • ‘13년 신경조절기 매출은 2억8천400만불로 추산되며, 18년에는 4억4천100만불 예상



헬스케어 혁명을 이끄는 3D 프린팅

- 미국의 투자전문회사 모틀리폴(Motley Fool)은 '3D 프린팅이 헬스케어를 어떻게 혁명화 시키는가(How 3-D Printing Is Revolutionizing Health Care)' 특집 기사를 '14년 3월 보도
 -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3D 프린팅은 시험 제작을 넘어 직접 생산에 적용되는 도입 초기 단계로 평가되는 가운데, 시장 규모는 지난 '12년 22억불에서 오는 '17년에는 60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 3D 프린팅은 기존 제조 방식에 비해 디자인 후 제작까지의 절차가 단축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맞춤형 생산에 장점이 있어 특히 치과 및 정형외과 부문에서 유망
 - 미국 3D 시스템사와 엑소 바이오닉스(Ekso Bionics)사는 최근 3D 프린팅을 통해 하이브리드 로봇 수트의 외관을 제작하는 데 성공
 - 이 같은 고가의 정교한 로봇 의족 이외 저소득 개도국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해 저렴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유통·변경이 가능한 오픈 소스 3D 프린트 로봇 의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도 추진
 - * 미화 1천불 이하에 3D 프린트 로봇 의수인 '덱스트러스 핸드(Dextrus Han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핸드 프로젝트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작된 데 이어 단 150불에 조립식 3D 의수를 제공하려는 로보핸드 프로젝트도 개시
- 이 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3D 프린팅은 다음과 제품을 제작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
 - 미국 오가노보(Organovo)사는 40일 동안 간 기능 수행이 가능한 '3D 리버 어사이(3D liver assay)'를 올해 말 판매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10~20년 뒤에는 간·심장·신장 등을 이식할 수 있는 고형 장기도 생산한다는 방침
 -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재생의학연구소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이식용 조직을 제작하는 데 성공
 - 스웨덴 아캄(Arcam)사는 전자빔용해(Electron Beam Melting : EBM) 3D 프린팅 기술로 표준 및 맞춤형 정형외과 이식제품을 생산 중



글로벌 10대 의료 기술업체 M&A

○ 미국의 의료기기 정보업체 피어스 메디컬 디바이시스(Fierce Medical Devices)는 '2013년 10대 의료 기술업체 M&A(The top 10 med tech M&A deals of 2013)' 특집 기사를 '14년 3월 보도

▼ 10대 기술업체 M&A

(단위 : 백만불)

번호	인수업체	파인수업체	금액	평가
1	더모 피서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13,600	• 실험실 제품 시장의 선두업체가 DNA 시퀀싱 업체를 인수하면서 진단계의 슈퍼 거인으로 재탄생
2	박스터	갬프로	3,900	• 아시아·중남미 투석 및 신장기기 시장을 지배
3	스트라이커	마코 서지컬	1,700	• 무릎 이식기기 '리스토리스(Restoris)' 및 로봇-보조 수술 기기 '리오 시스템(Rio system)'으로 정형외과 시장 진출을 확대
4	바이엘	컨셉터스	1,100	• 영구 이식 피임기 '에슈어(Essure)'로 견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함과 동시에 여성건강 사업을 강화
5	코비디엔	기븐 이미징	860	• 위장관을 따라가며 압력·산성도·온도를 측정하는 '스마트필(SmartPill)' 확보에 성공
6	스트라이커	트라우손 홀딩스	764	• 중국 현지 R&D 기지 및 지역 유통망을 취득, 급성장하는 중국 정형외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
7	비오메리으	바이오 파이어	450	• 진단 플랫폼 '필름어레이(FilmArray)'를 통해 패혈증, 설사, 수막염, 폐렴 등 부문의 체외진단 사업을 강화
8	보스턴 사이언티픽	바드	275	• 심장 카테터 절제 및 기록·매핑, 치료·진단 카테터 제품을 통해 급팽창하는 전기생리학 시장 진출을 확대
9	텔레플렉스	비다케어	262.5	• 골수 시스템 '온콘트롤(OnControl)'과 골내 혈관 접근 시스템 '이지-아이오(EZ-IO)'를 토해 혈관 접근·응급 의학·중양학·척추 수술 분야 사업을 강화
10	세인트 쥬드 메디컬	나노스팀	123.5	• 심장과의 연결 필요가 없어 합병증을 줄인 무선 심장 박동조율기를 통해 근래 부진한 박동조율기 분야에서의 돌파를 시도



의료 3D 프린팅 기술, 산업화 임박

- 의료정보 제공업체 미국 피어스메디컬디바이스(FierceMedicalDevices)는 ‘산업으로 진입하는 3D 프린팅(3-D printing grows to scale within industry)’ 특집 기사를 ‘14년 7월 보도 - 의료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틈새시장을 넘어 제약, 의료기기, 이식, 수술, 임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화가 점점 더 현실로 대두

▼ 의료 3D 프린팅 주요 진행사항 (무순)

번호	업체	주요 진행사항
1	아프레시아	• 소아·고령·특수 환자들을 위해 빨리 녹는 알약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뒤 올해 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
2	오가노보	• J&J와 3D 프린팅을 통한 신약 발굴 제휴를 체결 • 궁극적으로 모든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 방침으로, 현재는 기능이 떨어진 장기를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세포 스트립이나 튜브 형태의 3D 프린팅 제품을 연구
3	브리검여성병원	• 3D 프린팅을 이용, 합성 혈관 제작에 성공
4	머티리얼라이즈	• 관절 및 두개안면 이식 등 14만6천여 환자 맞춤형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뒤 바이오메트, DJO 서지컬, 신서스, 짐머 등 제휴사를 통해 유통
5	스트라이커	• 3D 프린팅으로 접합제 없는 무릎 시스템 제작에 성공
6	메트로닉	•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심혈관 기기 및 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최신 연구시설을 구축
7	뉴캐슬 어판타인병원	• 3D 프린팅과 티타늄 파우더로 고령 암환자의 골반을 제작한 뒤 이식에 성공
8	미시간대	• 기관지연화증 영아에 3D 프린팅으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식하는 데 성공
9	프린스턴대	• 3D 프린팅으로 안테나가 든 생체공학적 귀 제작에 성공
10	위트레흐트대	• 아나토믹스(Anatomics)가 제작한 3D 프린팅 이식물로 환자의 두개골을 성공적으로 교체
11	워싱턴대	• 스포츠 부상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 골 이식물을 5~6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LENS(Laser engineered net shaping)’ 기술을 개발
12	럭스엑셀	• 기존 3D 프린팅과 달리 레이어가 아닌 방울로 형성된 덩어리를 레이저로 측정해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는 새로운 안경 제작 기술을 개발



올 상반기 의료기기 업계 M&A 분석

- 미국의 의료정보 제공업체 피어스메디컬디바이스(FierceMedicalDevices)는 ‘훨씬 더 커진 ’14년 상반기 의료기기 업계 M&A(Med tech M&A gets much, much bigger during the first half)’ 특집 기사를 ’14년 8월 보도
 - 올 상반기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에서 이루어진 5대 M&A 모두 지난해 상반기 5대 M&A보다 규모가 큰 특징을 보유했다
 - 특히 올 상반기 M&A는 수요업체인 병원의 경비절감 추진에 의해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를 통해 간접비용을 줄이는 한편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유했다
 - 한편 ’13년 상반기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 5대 M&A는 더모 피셔가 라이프 테크놀로지스를 136억불, 발린트가 바슈콤을 87억불, 바이엘이 컨셉터스를 11억불, 스트라이커가 트라우손을 7억6천400만불, 일루미나가 베리나타를 3억5천만불에 M&A한 거래

▼ '14년 상반기 의료기기 업계 M&A (규모 순)

순위	인수업체	피인수업체	금액	특징
1	메트로닉	코비디엔	429억불	• M&A 이후 본사 주소를 세율이 높은 미국에서 세율이 낮은, 코비디엔이 소재한 아일랜드로 이전 • 수술기구 포트폴리오를 확대
2	짐머	바이오메트	134억불	• 짐머 척추·치과 사업부가 2배 규모로 성장 • 골·무릎·대퇴골 부문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고속성장 중인 스포츠 의학 시장에 진출
3	칼라일그룹	J&J 오소 체외진단 사업부	42억불	• 급성 신장손상 검사 부문에서 영향력 확대
4	스미스앤네퓨	아스로케어	17억불	• 스포츠의학과 함께 외상, 사지, 부인과, 첨단상처기 기 부문에 진출
5	쿠퍼 컴퍼니스	사우폴론	17억불	• 유럽 진출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J&J와 알콘에 이은 3위 업체로 부상



클리블랜드 클리닉 선정 '15년 10대 의료혁신

○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15년 10대 의료혁신(Top 10 Medical Innovations For 2015)'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의료혁신 리스트는 110명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의료진들이 선정, '14년 의료 혁신 서미트에서 발표

▼ '15년 10대 의료혁신

순위	혁신	주요 내용
1	이동실 뇌졸중 치료실	• 광대역으로 연결된 영상을 통해 병원 신경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현장의 구급의료사 및 CT기술자가 직접 신경학적 평가 및 t-PA를 투여, 분초를 다투는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구하도록 지원하는 첨단 텔레메디신 장비를 갖춘 구급차
2	헤파염 백신	• 제약업체들이 '16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년에는 FDA 등 관계기관에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3	신속하고 통증없는 비용효과적 혈액검사	• 주사기 없이 손가락에서 채혈한 혈액 한 방울만으로 수시간 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 등 검사가 가능할 전망
4	콜레스테롤 저하제	• 스타틴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첫 PCK9 억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
5	항체 약물 결합	• 건강한 조직을 피하면서 종양 세포에 세포독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화학요법이 개발될 전망
6	체크포인트 억제제	• 전이성 흑색종 등 암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통적 화학요법제와 방사선 치료가 결합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될 전망
7	무선심장박동 조율기	• 본체와 심장을 연결하는 유도선(lead) 없이도 기능을 수행하는 심장박동 조율기가 시판될 전망
8	새로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 인터문의의 '피르페니돈(pirfenidone)'과 베링거인겔하임의 '닌테다닙(nintedanib)'이 유망
9	유방암 수술 방사선 요법	• 수술 중 1회 방사선 치료(IORT)가 기존의 수술 후 수 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과 재발 예방에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입증돼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
10	심부전 신약	• 노바티스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Angiotensin Receptor Neprilysin Inhibitor : ARNI)'가 유망



가까운 미래 의료계 변화를 주도할 11대 기술

○ 미국의 경제전문 포브스지는 ‘미래 의료계 변화를 가져올 기술 트렌드(Tech Trends Shaping The Future Of Medicine)’ 특집 기사를 '14년 11월 발표

- 포브스는 저명한 의료 미래학자 버탈란 메스코(Bertalan Meskó)의 견해를 통해 가까운 미래 글로벌 의료계에 변화를 주도할 11대 기술을 소개

▼ 11대 의료기술 (무순)

	의료기술	주요 내용
1	건강의 게임화	•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서 널리 보급된 게임이 단지 시간을 보내려는 수준을 넘어 헬스케어 앱으로 기능, 취합된 생활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
2	자율권이 부여된 환자	• 환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증상·진단·치료법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파트너로 부상
3	원격의료	• 아이로봇의 ‘RP-VITA’가 시술 전후 환자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등 의사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
4	의대 교과목 개정	• 현장의 의료진과 연결된 디지털 교실을 통해 최신 혁신기술 및 정보를 접하는 방향으로 의대 교과목이 개정
5	수술 및 휴머노이드 로봇	• 정확한 원거리 수술이나 덜 침습적인 시술이 가능케 되는 등 수술 및 휴머노이드 로봇이 의료 현장에 깊이 관여
6	유전체학 및 개인맞춤의학	• DNA 분석이 치료 처방에 표준적인 전단계가 됨으로써 개인의 대사적 배경에 맞춘 최적 치료가 가능
7	신체 센서	• 소형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중요한 신체지표 데이터를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상태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측정·취합함으로써 보다 정량적이고 개선된 치료 결정이 가능
8	의료 트라이코더 및 휴대용 진단기기	• 만능 의료진단 스캐너인 ‘트라이코더(tricorder)’가 현실화되면서 가정에서도 진단이 가능해지며, 환자에 맞춤형 의료앱이 처방돼 스마트폰이 개인건강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
9	DIY 바이오기술	• DIY 바이오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사회 생물학 연구소가 출현
10	3D 프린팅	• 혈관, 뼈, 심장판막, 귀 연골, 합성 피부, 장기 등 각종 조직을 만들어 내면서 재생의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11	동력 외골격 및 보철기기	•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보행할 수 있고 모터조절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자연적인 감각도 되살려 내는 등 영화 아이언맨이 현실화될 가능성

3. 확장품

3.1 미국	865
3.2 영국	866
3.3 중국	867
3.4 기타	868
3.5 글로벌	876

3.1 미국



'18년 미 스킨케어 시장, 122억불 전망

- 시장조사사업체인 아일랜드의 리서치 앤 마켓스(Research and Markets)는 ‘미국 스킨케어 산업: 2018년까지 트렌드, 전망 및 기회 분석(US Skincare Industry: Trend, Forecast and Opportunity Analysis to 2018)’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미국 스킨케어 시장이 준수한 성장을 거듭, 오는 '18년에 이르면 122억불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글로벌 스킨케어 업체들은 미국 스킨케어 시장에 막대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스킨케어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
 - 첫째, 천연·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
 - 둘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각, 화학합성 물질에 대한 인식과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중요시하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
 - 셋째, 수명 연장에 따라 항노화 제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
 - 넷째, 베이비 붐 세대의 높은 소득수준 또한 스킨케어 시장 확대에 기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이 담보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현재 스킨케어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요인
 - 소비자들은 갈수록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더욱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모순된 소비성향을 피력
 -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과 품질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이 스킨케어 업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지속적인 혁신 또한 당면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스킨케어 시장에서 성공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면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는 전략 수립과 시행이 요구
- 한편 미국 스킨케어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트렌드로는 장시간 지속되는 도포 효과와 안전성 및 친환경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고소득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선호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

3.2 영국



영국 프리미엄 뷰티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 영국의 뷰티 컨설팅업체인 이모젠 매튜스 어소시이츠(Imogen Matthews Associates : IMA)는 조만간 발간될 ‘14년 프리미엄 시장 보고서(Premium Market Report 2014)’의 주요 내용을 ‘14년 1월 공개
- 보고서는 올해 영국 프리미엄 뷰티 시장에서 다음 6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첫째, P&G·로레알·코티·에스티로더 등 다국적 기업들이 틈새 브랜드 확보를 위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 * 매력적인 M&A 브랜드들로는 ‘버버리’와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House of Fraser)’가 거론되는 가운데,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의 경우 현재 프랑스 갈레리 라파예트(Galleries Lafayette)와 M&A 협상을 진행 중
 - 둘째, 온라인 업체들의 오프라인 매장 진출이 현저해질 전망
 - * 근래 들어 대도시 변화가에 오프라인 매장 공백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이 틈새를 온라인 매장이 노리고 있으며, 여전히 다수 소비자들은 직접 보고, 느끼고, 시연하며,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쇼핑을 선호
 - 셋째, 유통업체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확보·진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소비자들도 과도하게 많은 제품들이 진열된 매장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매장 내 레이아웃도 단순한 형태로 변모할 전망
 - * 소비자들이 구매목록을 갖고 쇼핑에 나서는 만큼 너무 많고 다양한 제품들을 진열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 ‘덜 집적된 환경(less cluttered environment)’이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각광받을 전망
 - 넷째, 소비자들이 더욱 현명해짐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기능이 아닌 할인 혜택만으로 이들의 지갑을 열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다섯째,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에 힘입어 특히 18~34세 연령대 남성들의 스킨케어·헤어케어·향수 등 그루밍 제품 소비가 가일층 증가할 전망
 - BB크림 이후로 알파벳 이니셜을 앞세운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식상함이 앞서면서 BB크림처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전망
 - * 오히려 틴티드 세럼(tinted serum)들이 페이스 세럼 제품들의 평균적인 성장세를 앞지르면서 차기 유망 제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

3.3 중국



중국 스킨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 아일랜드의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앤 마켓스(Research and Markets)는 ‘2017년까지의 미래 중국 스킨케어 시장(The Future of the Skincare Market in China to 2017)’ 보고서를 ‘14년 4월 발표
 - 보고서는 중국 스킨케어 시장이 거대한 인구규모와 함께 급속한 경제발전 및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이미 지난 ‘12년에 미국과 일본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거대 화장품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스킨케어 시장 규모도 확대일로를 거듭
 - ‘12년 중국 스킨케어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550억 위안(미화 약 88억불)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13년 1~10월 기간 동안에도 총 479억 위안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
 - 이런 가운데 중국의 스킨케어 시장은 화장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브랜드의 홍수 속에 치열한 경쟁 상태를 지속
 - 특히 중국의 스킨케어 시장 수요는 젊은 여성층의 인구수와 소득수준, 소비 콘셉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유
 - * 경제가 성장할수록 중년층 및 고령층 여성들 또한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 높은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스킨케어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 사용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남성들의 화장품 소비 또한 증가
- 최근 들어 글로벌 브랜드들이 M&A 내지 현지 브랜드 통합을 통해 중국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 속속 침투, 중국 화장품 업계는 바야흐로 통합기에 진입
 - 중국 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럽-미국’ 세력과 ‘한국-일본’ 세력이 통합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으로 부각
 - 한편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중국 민간기업이 58%, 중국 국영기업 10%, 외국기업이 32%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3.4 기타



할랄 화장품,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

- 시장 조사·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테크나비오(TechNavio)는 “‘14~’18년 글로벌 할랄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시장(Global Halal Cosmetics and Personal Care Market 2014-2018)’ 보고서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중동 국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할랄(Halal)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포함)이 이제는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가 할랄 제품 생산과 소비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할랄 제품이 인기
 - * 할랄 화장품은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 동물로부터 추출된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샤리아법(Sharia law)’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제조된 화장품을 통칭
 - 현재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0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할랄 화장품은 이슬람 신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유럽과 이슬람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미주에서도 인지도가 확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
 - 이는 샤리아법이 피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합성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 할랄 화장품이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 특히 유럽에서는 화장품의 순도와 안전성, 천연원료 여부에 관심이 높아 할랄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 또 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등 미주에서도 이슬람 신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랄 화장품을 찾는 수요도 증가
- 건강에 유익하고 위생적인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할랄 화장품 성장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격으로, ‘14~’18년 글로벌 시장에서 할랄 화장품은 한층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전망

- 할랄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에서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에 충실한 프리미엄급 화장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 * 특히 천연·유기농 화장품과 할랄 인증을 접목한 제품들이 유망
- 한편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의 핵심 업체들로는 아마라 코스메틱스(Amara Cosmetics), IMED 랩, 이니카 코스메틱스(INIKA Cosmetics), 마르샤 틸라 그룹(Martha Tilaar Group) 등이 거론



브라질 향수시장의 특징과 미래

- 영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커내디언(Canadean)은 ‘2017년까지 브라질 향수시장의 미래(The Future of the Fragrances Market in Brazil to 2017)’ 보고서를 ‘14년 3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3년 브라질 향수시장이 총 60억불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첫째, 브라질 향수시장에 소비자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둘째, 특히 향수 다빈도 소비집단인 젊은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셋째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
 - * 지난 ‘07년부터 ‘12년 사이 1인당 소득은 4천불 이상 증가
 - 브라질은 1인당 평균 향수 사용량에 관한 한 단연 독보적인 거대시장으로, 지난해 브라질 소비자들은 2위인 미국 소비자들보다 향수를 3배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
- 브라질 향수시장에는 소비자층이 두터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품의 유형과 가격대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유
 - 또 지난해의 경우 남성용 향수 비중이 전체 향수의 48.7%를 점유할 정도로 높고, 소득수준 하위 50%에 속하는 소비자들의 향수 사용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이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
 - 이 같은 특징은, 달리 말하면 매스마켓용 향수와 고급향수 모두 시장에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의미
 - 이와 함께 지난해 브라질에서 판매된 전체 향수 가운데 1/4 정도가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서 여성성 또는 남성성에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제품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 전체 향수 중 25% 정도는 새로운 향을 경험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
- 향수 제조업체들은 특히 브라질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명이 16~35세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층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이들 젊은층은 다른 어떤 연령대 보다 향수 사용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충성고객들이 될 가능성도 충분



인도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 전망

- 캐나다의 시장조사·컨설팅 업체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는 ‘19년까지 인도의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 전망 및 기회(India Fertilizers Market Forecast & Opportunities, 2019)’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인도의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 전망이 밝다며 ‘14~’19년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인도의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주요 표적시장일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들 업체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이 확실
 - 이 같은 전망은 인도에서 고성능 및 다기능 퍼스널케어 제품들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천연 원료 및 다기능 원료*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퍼스널케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근거
 - * 미백, 매끄러움, 항노화,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원료
 - 또 방대한 인구 규모와 함께 BB크림의 부각, 남성용 그루밍 제품 부문의 부상은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 성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
 - 그 결과 BASF·클라리언트(Clariant)·갤럭시 서팩턴츠(Galaxy Surfactants)·파인 오가닉스(Fine Organics) 등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의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나 다부르(Dabur) 등 인도 토종업체들도 가세
 - 한편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이 전체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인도 화장품용 화학물질 시장에서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계면활성제로, 샴푸에서부터 페이스워시와 클렌저에 이르기까지 계면활성제의 산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13~’19년 기간에 돋보이는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
 - 이와 함께 피부재생 및 항노화 효과를 표방한 각종 크림류와 로션류 또한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20년 브라질 미용시장, 세계 2위로 부상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영국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는 '브라질 미용시장에 대한 친환경적 접근(Going Green to Access the Brazilian Beauty Market)' 보고서를 '14년 8월 발표
 -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이미 빅3에 진입한 브라질 미용시장이 오는 '2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면서 한 계단 더 올라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브라질 미용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현지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브라질 소비자들은 미용 제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유의 환경친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상황
 - 시장조사업체 독일 GfK에 의하면 브라질 소비자 중 50% 이상이 미용 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다른 어느 국가 소비자들보다 높은 비율
 - 브라질에서 자국 미용업체인 나투라 브라질(Natura Brasil)이 최고의 지속가능성 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 * 이 업체는 아마존 지역에서 윤리적으로 채취한 천연물 원료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천연 미용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
 - 브라질 2위의 미용업체인 그룹 보티카리우(Group Boticario) 역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나투라 브라질에 버금가는 환경친화성 업체로 평가
- 글로벌 미용업체들이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환경친화성을 중시하는 현지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
 - 친환경 마인드를 표방한 스위스 벨레다(Weleda)와 브라질산 원료를 사용해 현지화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한 프랑스의 로레알과 영국·네덜란드의 유니레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
 - 또 브라질 미용시장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유통망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최근 영국 바디샵이 현지업체 인수를 통해, 프랑스 이브로셰(Yves Rocher)는 컨셉트 스토어망 구축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한 것은 이 같은 배경



아시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 ... 중국 쇠퇴, 홍콩 부상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영국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는 ‘아시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The Asian Market for Natural & Organic Cosmetics)’ 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중국이 화장품과 관련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이후 기술적인 장벽에 직면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반면, 홍콩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요 급증에 힘입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
- 아시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5% 내외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황금 시장으로,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조되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확대일로
 - 하지만 중국업체들은 상당수가 원료나 제형, 기술부족 등 문제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다수의 서구 천연·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들이 동물실험을 못하게 된 여파로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
 - * 벨레다(Weleda), 라베라(Lavera), 판게아 오가닉(Pangea Organic), 로고나(Logona), 주스 뷰티(Juice Beauty)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닥터 하우스슈카(Dr. Hauschka)와 바디샵(BodyShop) 또한 동일한 사유로 중국시장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
- 중국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반면, 홍콩 시장은 부상
 - 글로벌 천연·유기농 화장품 업체들은 소비자 수요 급증과 홍콩 당국의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대거 홍콩시장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매년 20여 신규 브랜드들이 홍콩시장 진출을 추진
 - * 아피비타(Apivita), 자스민 스킨케어(Jasmin Skincare), 아베다(Aveda), 닐스 야드 레머디스(Neal's Yard Remedies), 줄리크(Jurlique), 멜비타(Melvita), 콤비타(Comvita)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홍콩에 콘셉트 스토어를 개설
 - 홍콩은 세계적으로도 소위 ‘그린 코스메틱(green cosmetic)’ 유통업체들이 가장 밀도높게 분포하고 있는 국가
 - 중국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쇠퇴와 홍콩 시장의 부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이들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



'18년 브라질 색조화장품 시장, 51억불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영국 커내디언(Canadean)은 ‘소비자 트렌드 분석: 브라질 색조화장품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 및 행동 견인 요소의 이해(Consumer Trends Analysis : Understanding Consumer Trends and Drivers of Behavior in the Brazilian Make-up Market)’ 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해 71억 헤알(미화 약 32억불) 규모였던 브라질 색조화장품 시장이 오는 '18년에는 134억 헤알(51억불)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경제가 최근 4분기 동안 3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부의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색조화장품 시장은 성장을 지속
 - 브라질 여성들은 지난해에만 총 240억회에 걸쳐 각종 색조화장품을 사용한 가운데, 이중 피부도포용 색조화장품이 85%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
 - 특히 16~34세 사이 여성들이 전체 색조화장품 사용의 40%를 점유
- 브라질 화장품 시장에서는 마케팅 활동이 고정된 특정 소매유통 매장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방문판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브라질 소비자들은 화장품 직판 영업인력과 돈독한 인간관계를 구축한 뒤 이들로부터 전달받는 카탈로그를 보고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
 - ‘에이본(Avon)’, ‘나투라(Natura)’, ‘세포라(Sephora)’ 등 메이저 방판 업체들은 브라질 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
 - *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을 직접 방문해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뒤 이윤 창출에만 매몰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을 제시
 - 글로벌 색조화장품 업체들이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효과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특히 젊은 층 여성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요구



아-태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화두, ‘안티폴루션’

-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은 ‘아시아태평양 안티폴루션 뷰티제품, 2년 사이 40% 증가(Anti-pollution claims on beauty products in Asia Pacific grow by 40% in two years)’ 보고서를 ‘14년 11월 발표
 - 보고서는 자외선 못지않게 공해가 피부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주목하고 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티폴루션(Anti-pollution)’이 아태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
 - * 지난 ‘11~13년 아태지역에서 안티폴루션 뷰티 및 퍼스널케어 제품 판매는 40% 증가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7%로 증가
- 안티폴루션 화장품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도시 소비자들에게 다른 어떤 이슈보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로 부각
 - 중국에서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 2.5’가 스킨케어 업체들의 마케팅 포인트로 부상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들이 인기
 - 특히 20~49세 연령대의 젊은 소비자들이 공해와 오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강력한 성장을 예고
 - 이에 따라 ‘아이솔레이션 크림(isolation cream)’ 등 공해와 스킨케어를 접목한 화장품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메이저 트렌드의 하나로 부상
- 클라란스(Clarins)나 에이본(Avon), 심플(Simple) 등 서구 브랜드들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오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친 연구결과들을 앞 다퉈 내놓는 등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클라란스의 경우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환경오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화장품 ‘에트모스퍼릭 안티폴루션 콤플렉스(atmospheric anti-pollution complex)’를 시판
 - 이렇듯 아태지역에서는 안티폴루션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들의 발매가 확산되면서 향후 페이스 스킨케어에서부터 색조화장품, 비누 및 샤워용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3.5 글로벌



글로벌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 클라인 앤 컴파니(Kline & Company)는 ‘천연 퍼스널케어 : 글로벌 시장 개요(Natural Personal Care: Global Market Brief)’ 보고서를 ‘13년 12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13년에도 10.6% 성장해 295억불 규모를 형성하고, 오는 ‘18년에 이르면 460억 불 규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전망은 퍼스널케어 업체들이 새로운 천연원료를 확보하면서 더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소비자들은 제품 속 함유 물질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시하고 있는 데서 비롯
- 중국은 ‘13년 24%에 이르는 고도 성장률로 글로벌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성장을 주도
 - 반면 미국과 유럽의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은 각각 7%와 6% 성장에 그칠 전망
 - 중국의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 중의학이 접목된 결과로 분석
 - 그러나 해외의 천연 브랜드들도 고품질을 무기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지난 ‘09년 진출한 ‘줄리크(Jurlique)’와 ‘키엘(Kiehl’s)’ 및 ‘10년에 진출한 ‘오리진스(Origins)’가 대표적
- 최근 글로벌 천연 뷰티시장은 매우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
 -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아비노(Aveeno)’와 ‘베어 에센츄얼스(Bare Escentuals)’, 일본에서는 ‘룩시땅(L’Occitane)’과 ‘사이쉰칸(Saishunkan)’, 중국에서는 ‘샨도(Chando)’과 ‘이노허브(Inoherb)’, 유럽에서는 ‘이브로쎄(Yves Rocher)’와 ‘오리플람(Oriflame)’이 파워 브랜드로 자리매김
 - 마케팅 채널도 다양해져 유럽에서는 약국의 기여도가 높고 매스 아울렛 시장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브라질에서는 직접판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헬스·천연 푸드 스토어가 1위



'14년 뷰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믹솔로지스트'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영국 민텔(Mintel)은 '14년 뷰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믹솔로지스트'(Mintel Beauty & Personal Care forecasts Mixologist as key beauty trend for 2014)' 보고서를 '13년 12월 발표
- '14년 글로벌 뷰티업계에는 뷰티기술간 영역 구분의 불분명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스킨케어에서부터 헤어케어 및 색조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기능이 중첩된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믹솔로지스트*는 이미 새로운 트렌드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영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14년에는 이 같은 트렌드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
 - * 원래는 칵테일을 블렌딩하는 기술자를 의미하지만, 민텔은 다기능(multifunctional) 화장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이 같은 전망은 BB크림의 커다란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과 포장, 마케팅, 제품 진열 등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
 - * BB크림의 성공은 화장품 업체들로 하여금 제2의 BB크림을 개발해 선보이려는 노력을 촉발
- 지난 20~30년 전부터 투-인-원 샴푸(2-in-1 shampoo) 같은 믹스 제품들이 시장에 선을 보였지만, 최근의 위세에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 사실
 - 현재는 특히 스킨케어가 크로스-오버(cross-over)와 관련된 기회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릴 수 있는 분야로, BB크림과 CC크림 뿐 아니라 DD크림과 EE크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향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어 모을 전망
 - 또 염색한 색채가 변색되지 않으면서 최적의 보습·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헤어퍼퓸(hair perfume), 헤어스타일링과 헤어 파운데이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헤어스타일-익스텐더(hair style-extender)도 유망한 제품
 - 이 같은 믹솔로지스트의 장점으로서는 효능이 단일목적 제품에 뒤지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거론
- 한편 믹솔로지스트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등 뷰티부문 뿐 아니라 식·음료 영역에서도 '뷰티푸드'라는 형태로도 부상
 - 크로넛(cronuts: 크라상+도넛)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은 단적인 사례



'20년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160억불 전망

- 시장조사업체 미국 그랜드뷰리서치(GVR)는 “20년까지 제품별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분석 및 영역별 시장전망(Organic Personal Care Market Analysis By Products And Segment Forecasts To 2020)’ 보고서를 ‘14년 7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이 성장을 거듭, 오는 ‘20년에는 160억불에 근접한 159억8천만불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배경에는 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들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 제고와 함께 글로벌 각국의 우호적인 법제도 및 구매력 확산이 존재
 - 이런 가운데 천연 추출물, 향산화 성분, 박피제 등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제품 혁신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한결 넓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스킨케어 부문은 ‘20년 27억3천만불 규모 형성이 가능할 전망
 - 스킨케어 부문은 ‘13년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32% 이상을 점유하면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데 이어 ‘14~‘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9.8%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 스킨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부문은 헤어케어로, ‘13년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에서 2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오는 ‘20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지역별로는 북미가 ‘13년 29억5천만불의 매출을 창출하면서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의 3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 최대 시장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품 발매가 활발해지면서 ‘20년까지 연평균 9.8%의 성장세가 가능할 전망
 -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매출이 20억1천만불을 기록한 가운데, ‘14~‘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9.3%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 오는 ‘20년에는 37억7천만불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될 전망
 - * 이 과정에서 특히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유럽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해 각각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가운데 오는 ‘20년까지 각각 연평균 10.0% 및 9.6%의 성장이 예상

4. 의료서비스

4.1 미국	881
4.2 영국	882
4.3 일본	883
4.4 기타	887
4.5 글로벌	891

4.1 미국



메이요클리닉, 미국 최우수 병원 등극

- 미국의 시사주간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2013~2014년 미국의 최우수 병원(U.S. News Best Hospitals 2014-15)' 특집 기사를 '14년 7월 보도'
 - 유에스뉴스는 미국 5천여 병원을 대상으로, 암·심장병·당뇨병 등 16개 전문분야에서 △환자 대비 의료진 수 △중환자 생존율 △서비스 접근성 △응급대처 능력 △의학계 평판 등 각종 자료를 계량화해 선정한 순위를 발표
 - 유에스뉴스는 최우수 병원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25년 째
- 2013~2014년 순위에서는 지난해 존스홉킨스대병원과 매사추세츠종합병원에 이어 3위에 그쳤던 메이요클리닉이 29점을 기록하면서 1위로 등극
 - 올해 메이요클리닉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및 존스홉킨스대병원과 함께 16개 전문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10위 내 병원으로 평가된 가운데, 당뇨 및 내분비내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 8개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

▼ 미국 종합병원 순위 ('13~'14년)

순위	병원	점수	10위내 전문분야 수
1	메이요클리닉	29	15
2	매사추세츠종합병원	28	15
3	존스홉킨스대병원	26	15
4	클리블랜드클리닉	26	14
5	UCLA 메디컬센터	23	15
6	뉴욕-프리스비테리안대병원	22	12
7	펜실베이니아대병원	19	11
8	UCSF 메디컬센터	17	10
9	브리검여성병원	15	10
10	노스웨스턴메모리얼병원	13	10
11	워싱턴대 메디컬센터	12	9
12(동률)	세다스사이나이 메디컬센터	11	8
12(동률)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	11	8
14	듀크대병원	11	6
15	뉴욕대랑군병원	10	7
16	마운트사이나이병원	10	6
17	반스주이시병원	9	8

4.2 영국



영국 정부의 헬스케어 구상 프레임워크

- 영국 보건부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Board : NIB)는 ‘2020 개인맞춤형 헬스 및 케어 구상 프레임워크(Personalised health and care 2020 : a framework for action)’ 보고서를 ‘14년 11월 발표
- NIB는 국민의 건강과 치료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보건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구상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 헬스케어 구상 주요 내용

목표 연도	주요 내용
‘15년	• 환자와 의료진이 앱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국민 건강관리 앱 스토어를 개발, 국민건강보험(NHS) 인증 앱을 환자에게 공급
‘16년	• 부모가 모바일로 자녀의 건강 및 치료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앱 ‘레드북(red book)’을 개발
‘18년	• 병의원 방문, 처방, 검사결과, 부작용, 약물 알러지, 정신건강 등 일부 의료기록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환자가 의료기록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에서 공식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0년	• 환자의 동의 아래 모든 건강 및 치료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 NHS가 지원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 서류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관료주의적 폐해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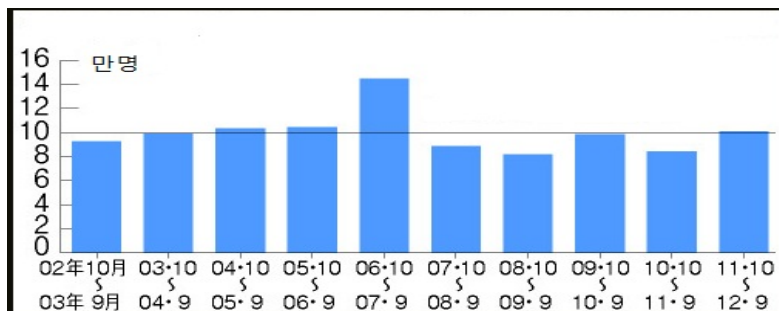
- 한편 영국 정부는 현재 인간 게놈 해독 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보건부와 NHS가 게노믹스 잉글랜드(Genomics England) 등 과학단체와 실무집단을 구성해 유전체학 및 분자 병리학에 대한 미래 아젠다도 수립할 필요
 - 이와 관련, 정부는 신약 및 첨단 치료법 개발 R&D를 전폭 지원하면서 산학연과 함께 새로운 산업전략 개발에 적극 나서는 정책적 의지가 요구

4.3 일본



일본 내 간병 직장인 현황과 정부 대책

- 일본의 유력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보상하지 않는 국가- 개호 결근, 고용 중지(報われぬ国- 介護で欠勤, 雇い止め)’ 특집 기사를 '14년 4월 보도
- 일본에서는 연간 10만명 이상이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가운데, 이들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취업을 희망하나 결국 7만3천명 정도는 ‘간병 실업자’로 전락
 - 또 현재 간병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291만명 정도로, 전업주부를 포함해 무직으로 간병하는 266만명을 오히려 상회
 -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 증가로 인해 간병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주요 원인



▲ 간병 직장인 수

- 일본 정부는 지난 '05년 연간 93일까지 휴가를 보장하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3.2%에 불과, 실천 방안 마련이 시급
 - 간병휴가 제도는 보통 휴가 2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간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 정착을 저해
- 한편 일본 정부는 간병 직장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
 - 첫째, 100개 회사를 선정해 ‘간병과 직장생활 공존모델’을 보급
 - 둘째, 간병 직장인에 대해 △근무시간 탄력 조정 △재택근무 제도 도입 △근무지 이동 면제 등 혜택을 부여
 - 셋째,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해 간병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



일본 기업의 아시아 의료시장 공략

- 일본의 유력 니혼게이지신문(日本經濟新聞)은 ‘미쓰비시상사, 아시아에 병원(三菱商事, アジアに病院)’ 특집 기사를 ‘14년 5월 보도
 - 니혼게이지는 미쓰비시의 사례를 통해 일본 기업의 아시아 의료시장 진출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의료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같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의료기관에 지분을 출자한 적은 있지만 병원 건설에서 장비 공급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괄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미쓰비시의 진출에 의미를 부여
- 미쓰비시상사는 오는 ‘15년부터 6년 동안 필리핀에 10개 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 총 사업비는 300억엔이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최대 70%까지 지원
 - 미쓰비시는 현재 필리핀 현지 의료기관과 병원을 건설·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방안을 협상 중으로, JICA가 수요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면 ‘15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
 - 병원은 50~150 병상의 중소형 규모로, 현지 의료기관이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미쓰비시는 시설과 의료기기를 리스해 수익을 회수
 - 미쓰비시는 일본 의사와 간호사를 현지 병원에 파견, 최신 기술을 이용한 수술법과 간호법 등도 전수할 계획
 - 미쓰비시는 일본 국내에서도 10개 이상의 병원을 설계한 경험이 있으며, 필리핀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도 추진할 방침
- 다른 일본 기업들도 아시아 의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부 역시 이들 업체의 의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세콤은 도요타통상과 공동으로 지난 3월 인도 방갈로르에 종합병원을 개원
 - 아베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년까지 의료 기술·서비스 수출을 1조5천억엔으로 3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아시아 의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13년 일본 국민의료비 40조엔 육박

- 일본 후생노동성은 '평성 25년도 의료비의 동향(平成 25年度 医療費の動向)' 보고서를 '14년 8월 발표
 - 보고서에 의하면 평성 25년도('13년) 일본 의료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39억3천억엔으로 추산되면서 11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 또 개호를 포함한 보건의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사상 처음 10%를 넘는 가운데 OECD 평균치와 영국(각각 9.3%)을 모두 상회
 - * 이는 일본의 의료비가 반드시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사회의 주장이 허구임을 시사
- 의료비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전이 거론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7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5년 2천179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등 일본의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 속도를 능가할 가능성이 농후
 - * '13년 현재 75세 이상 인구는 1천560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1인당 의료비는 74세 이하의 4.5배인 92만7천엔
 - 또 신형 의료기기 도입 등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역시 의료비 팽창을 초래
 - * 의료비 단가인 1일 의료비는 '13년에 1만5천213엔을 기록, 전년대비 3.1% 증가
-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제네릭약 보급 확대 △혼합진료 시스템 활용 △고액 서비스의 의료보험 대상 적용 제외 등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
 -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60% 이상을 제네릭약이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4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
 - 한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조치는 세수 증가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위기의 일본 의료기관, 생존에 몸부림

- 미국 비즈니스위크는 일본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헬스펀드까지 찾는 일본 병원의 생존 전투(Battle for Survival Among Japan Hospitals Lures Health Funds)’ 특집 기사를 ‘14년 10월 보도
- 근래 일본 의료기관에는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처절
 - 일본은 전체 인구의 1/4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 ‘15년에는 ‘12년 대비 54% 급증한 54조엔에 이를 전망
 - 그러나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험수가를 낮추면서 의원의 경우 3/4이 적자 상태이고, ‘13년 4월~‘14년 3월까지의 1년 동안 3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일본 의료계는 지난 ‘06년 이래 최악의 상황
 -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이 평균 17.5일로 세계에서 가장 긴데, 이는 대부분의 입원비가 국가보험에서 나오는 만큼 요양원에 가야 할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의료기관 역시 매출 증가 때문에 환자를 수용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입원기간을 OECD의 평균인 7.4일로 줄여도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장기입원에 따른 수가를 낮추는 대신 자택요양 및 첨단기술 치료에 대한 지원금은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
 -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적응 못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자로 전락한 가운데 도쿄 주코우카이병원의 경우 지난 2년간 100개 이상의 병상을 49개로 감축
-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오히려 성장 기회로 보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도 증가, 향후 의료기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
 - 일본은행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의료 및 요양 사업 대출은 지난 5년 동안 11.7% 증가했는데 이는 산업 전체의 증가율 4.2%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
 - 또 미쓰비시UFJ리스엔파이낸스가 일본개발은행과 지역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1천억엔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바은행과 미즈호은행 등은 100억엔 규모의 헬스펀드를 조성해 의료기관에 투자할 예정
 -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재건축돼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인력도 채용할 전망인 등 향후 의료기관에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고조

4.4 기타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조건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미국의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가 시급한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Asia-Pacific healthcare’s “urgent need for business process change”)’ 보고서를 ‘14년 1월 발표
-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치사슬의 파괴로 인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중
 - 민간 헬스케어 업체들은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연 15~20%의 매출 증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공공 헬스케어 업체들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책임감 공유를 통해 보다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활동이 요구
 - 이런 가운데 일본·호주·싱가포르 등 특히 역내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급증해 외과수술은 물론, 지지요법(supportive care)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홈 헬스케어 부문으로도 인프라 구축 확대가 시급하나 미흡한 것이 현실
- 향후 아태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헬스케어 서비스 주체들의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가 요구
 - 첫째, 여전히 병원 중심·치료 중심인 전통적 운영 모델들은 오늘날의 헬스케어 환경과 더 이상 관련이 없음을 이해할 필요
 - 둘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율성과 가치기반 케어(value-based care)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
 - 셋째, 각국 정부는 규제 간소화와 약가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사회 노인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약품급여제도(drug reimbursement regime)를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
 - * 이러한 작업은 보다 엄격한 가격관리를 통해 제약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강제 가격인하, 처방통제, 비용억제와 제네릭 사용 장려 등은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 및 결과와 연관된 소비자 지불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아라비아의 헬스케어 산업 붐

- 투자 전문매체인 미국의 비즈니스인사이드(Business Insider)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조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헬스케어 산업 붐(The Saudi Healthcare Industry Is Booming)' 특집 기사를 '14년 1월 발표
 -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곧 글로벌 제약과 의료기기 및 서비스 업체들에 거대한 기회가 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분석
- 그동안 사우디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때문에 발전이 저해
 - 사우디는 인구 1천명당 병상 수가 2.2개에 불과, 전 세계 평균인 3개와 선진국 평균 5.5개에 비해 크게 미흡
 - 아직도 사우디 병원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의약품은 부족하며, 국립병원의 경우 예약에서 의사를 면담하기까지 수개월을 대기하고, 환자가 복도에서 정맥주입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헬스케어 환경이 열악
- 그러나 최근 사우디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 사우디에서는 지난 '08년 의료지출이 80억불에서 '13년 270억불로 급증한데 이어 '17년까지는 460억불로 급증할 전망
 - 사우디 정부는 병원 수백 곳을 설립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무이자 대출까지 나섰으며, 향후 수년 내 공무원 1백만명과 그 가족 5백만명에 대해 국영 의료보험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헬스케어 산업에 붐이 예견
 - * 사우디 최대 민간병원기업 술라이만 알-하비브 메디컬그룹(Sulaiman Al-Habib Medical Group)과 알마나종합병원(Almana General Hospital)은 자금 확충을 위해 증시 상장을 앞둔 상태이며 GE는 사우디에 의료기기 조립공장을 설립할 계획
 - 헬스케어 업체 인력의 20%는 사우디 시민이어야 한다는 규제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사우디 정부는 GE 같은 외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인난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
- 이런 가운데 사우디는 젊은층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습관 관련 질환 발병률도 높아 향후 헬스케어 산업은 밝은 미래를 약속
 - 특히 사우디 국민의 1/3 정도가 비만이고, 당뇨병·심장질환·선천적 장애의 유병률도 높은 만큼 의료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박차

-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디시전 리소시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의 비용억제 노력 (Government Cost Containment Efforts in the Asia-Pacific Region)’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정책적 노력을 소개
- 아시아·태평양에서 헬스케어 부문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아태 국가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헬스케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비용을 억제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
 - 이런 전략들로는 △보건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HTA) △의약품 가격 조정 △제네릭 의약품 장려 △병행수입 허용 등이 거론
 - 아태 국가들은 특히 직간접 효과가 뚜렷한 의약품 가격 조정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HTA의 경우 호주·한국·대만·태국 이외 중국·말레이시아·일본 등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전망
 - * HTA의 적절한 사용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헬스케어 개혁에서도 강조
 - 이 같은 상황 아래 아태 지역 헬스케어 업체는 HTA 수용력과 보건경제 수행력, 제품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 기반 연구를 강화할 필요
 - 또 각국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장려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 사업 확대 방안도 검토가 요망
 - 한편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사이의 결속력은 역내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조 요건을 표준화해 헬스케어 비용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아태 국가들은 헬스케어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가치 기반 가격설정(value-based pricing) △위험 공유 협정 △국제 참조 가격설정 등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은 선진국과 비교해 제한적으로 활용
 - 이런 가운데서도 호주·일본·한국·대만은 가격사용량연동제와 실거래가제 등 약제비 통제를 위한 비용억제 전략을 추진



주목받는 쿠바의 에볼라 의료외교

- 미국의 유력 뉴욕타임스(NYT)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쿠바의 인상적인 역할(Cuba’s Impressive Role on Ebola)’ 특집 기사를 ‘14년 10월 보도
 - NYT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에볼라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쿠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칭찬받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 같은 주장은 에볼라 퇴치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이 적대관계인 쿠바 정부를 호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에볼라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과 쿠바가 한시적이거나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올바른 상황인식
 -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쿠바가 피해국 현장에 수백 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한 것은 의료외교를 통해 서방과의 국제관계를 개선하려는 포석도 있지만 그렇다고 에볼라 퇴치를 위한 견실한 노력 자체가 평가절하 되면 안 될 것
 -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원이 자금이 그쳤을 때도, 쿠바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보낸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
 - * 쿠바는 이미 165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시에라리온에 파견한 데 이어 조만간 300여 의료진을 라이베리아와 기니 등에 추가로 보낼 예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상 최악의 에볼라 사태에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력이라며, 쿠바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
- 미국은 에볼라 퇴치를 위해 쿠바와 외교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미군 병력은 쿠바의 의료인력이 에볼라에 감염됐을 경우에 현지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현장 철수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쿠바 의료인력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에볼라 퇴치 노력에 힘을 보태기 때문에 충분한 인정을 받아야 하나, 미국 정부가 쿠바 의료인력과 협조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4.5 글로벌



IARC의 '14년 세계 암 보고서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는 ‘14년 세계 암 보고서(World Cancer Report 2014)’를 ‘14년 2월 발표
 -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 수가 크게 증가, 오는 ‘30년에는 ‘1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천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암으로 인한 사망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 암 사망 건수가 ‘12년 820만건에서 ‘30년에는 60% 정도 증가한 1천300만건이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지난 ‘10년 전 세계에서 암 예방과 치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조1천600억불로 추산
- 이렇듯 암 발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암 예방 및 치료에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 오는 ‘25년경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80% 정도가 개도국 국민일 것으로 전망
 - 이들 개도국에서는 예상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과 인프라가 거의 갖춰지지 않아 국민 다수가 보건 체계를 위협하는 암 위험에 노출
 - 더욱이 서구화된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와 흡연이 증가하는 반면 운동은 부족해지면서 암 발병이 유발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
- 향후 암 발병과 사망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요구
 - 첫째, 각 국가에 적합한 중장기 암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할 것
 - 둘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 발병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것
 - 셋째, 국민들이 암 진단을 쉽게 받도록 암 진단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것
 - * 암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암은 25%까지 발병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넷째, 특히 개도국의 경우 다수의 암이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 HPV) 등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 이와 관련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3대 성장 동력

-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 제공업체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형성하는 동력(Forges Shaping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보고서를 '14년 5월 발표
-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3대 동력으로 △선진국 인구 고령화 △신흥국 중산층 부상 △과학적 혁신을 지적
 - UN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7%에서 '35년까지 24%로 증가해 의료 시스템에 압박을 가할 전망
 - 또 근래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중산층 소비자들의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사용이 향후 수년 동안 연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경제의 빅2로 부상한 중국이 주목
 - 이와 함께 제약·생명공학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헬스케어 산업계에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 제약·생명공학 산업계 혁신 중에는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면역항암제에 관한 혁신에 관심이 집중
 - 이러한 전망은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야 성공이 가능함을 시사
- 한편 미국의 경우 주요 보건 프로그램 지출이 '15년 GDP의 5.6%에서 '38년 8.1%로 급증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에 장기적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미국은 정부·학계·기업이 헬스케어 산업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으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 발전이 경제·금융시장 위협을 다소 상쇄할 수 있을 전망
 -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의료기술의 비용 및 효율을 추적할 수 있게 돼 보다 가치추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의 전조

- 미국 IMS 헬스케어 인포머틱스 연구소(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는 ‘헬스케어 변화의 전조(Harbingers of Change in Healthcare)’ 보고서를 '14년 9월 발표
-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나타난,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변화의 전조를 소개

▼ 헬스케어 변화의 전조(무순)

번호	전조	주요 내용
1	소비자 기술기업의 헬스케어 진출	• 구글, 애플, 삼성 등 기술업체가 모바일, 클라우드,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SW개발자,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업체, 보험사도 앱과 센서를 통한 시장참여가 예상
2	혁신적 C형 간염 치료제 개발	• C형 간염은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으로 혁신적 치료제는 장기적으로 수십억불의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
3	혁신적 백신·바이오 약물 사용 증가	• 새로운 치료 옵션과 신흥시장 확대를 초래하면서 저·중 소득국 공중보건 개선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됨을 시사
4	비오리저널생물약(NOB)·바이오시밀러 사용 급증	• 현재 NOB 및 바이오시밀러는 세계적 생물약 사용의 7%에 불과하나 신흥시장에서는 21%에 근접 - 중국과 인도에서는 다수의 저가 제품, 러시아와 브라질에서는 소수의 고가 제품이 시장을 주도
5	정부의 데이터 공유	• 영국에 이어 미국이 그동안 정부만 갖고 있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
6	의약품 지출 증가	• 의약품 지출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제품의 차별성과 경제적 가치를 입증해야 할 필요
7	미국 지급·전달 시스템의 결과와 성과 중심으로 이동	• 미국에서 책임의료기관(ACO) 및 병원간 제휴를 통해 위험을 공유하는 임상적통합기관(CIO)이 출현하면서 의료비 지급이 서비스당 양적 지급에서 비용·품질·결과에 따른 가치적 지급 모델로 이동
8	임상치료 결정에 비용 고려	•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 임상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비용을 분명하게 지적
9	중국의 저가 필수약 가격 상한제 폐지	• 제약업체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는 수준으로 가격인상 허용
10	글로벌 공급망 구축	•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도매업자, 체인, 제네릭 메이커와 브랜드 메이커 사이 힘의 균형에 변화가 초래

5. 보건산업 기타

5.1 미국	897
5.2 영국	900
5.3 일본	902
5.4 EU	906
5.5 기타	907
5.6 글로벌	909

5.1 미국



2013 미국 보건 현황 비교 보고서

- 미국의 비영리기관 보건연합재단(United Health Foundation : UHF)은 ‘13년 미국 보건 순위(America's Health Rankings 2013)’ 보고서를 '13년 12월 발표
 - UHF는 △비만 △흡연 △당뇨 △신체적 비활동의 4개 항목에 대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의학협회 자료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작성
 -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비만율이 '12년 27.8%에서 '13년 27.6%, 흡연율은 21.2%에서 19.6%, 신체적 비활동률은 26.2%에서 22.9%로 떨어졌으나 당뇨병을 9.5%에서 9.7%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 * 비만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 주별로는 하와이를 선두로 버몬트와 미네소타 순으로 주민의 보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미시시피를 비롯해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등 빈곤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동남부주는 최하위권에 위치

▼ 주별 종합 보건 종합 순위(평점은 최고 1점, 최저 -1점)

순위	주	평점	순위	주	평점	순위	주	평점
1	하와이	0.919	18	아이오와	0.317	35	노스캐롤라이나	-0.247
2	버몬트	0.868	19	로드아일랜드	0.317	36	텍사스	-0.250
3	미네소타	0.731	20	위스콘신	0.313	37	네바다	-0.294
4	매사추세츠	0.725	21	캘리포니아	0.310	38	조지아	-0.315
5	뉴햄프셔	0.703	22	사우스다코타	0.284	39	미주리	-0.373
6	유타	0.695	23	몬테나	0.277	40	오하이오	-0.407
7	코네티컷	0.649	24	메릴랜드	0.276	41	인디애나	-0.487
8	콜로라도	0.565	25	알래스카	0.275	42	테네시	-0.579
9	노스다코타	0.557	26	버지니아	0.259	43	사우스캐롤라이나	-0.635
10	뉴저지	0.531	27	캔자스	0.122	44	오클라호마	-0.666
11	네브래스카	0.460	28	애리조나	0.020	45	켄터키	-0.716
12	아이다호	0.442	29	펜실베이니아	-0.022	46	웨스트버지니아	-0.727
13	오리건	0.426	30	일리노이	-0.096	47	앨라배마	-0.822
14	워싱턴	0.403	31	델라웨어	-0.097	48	루이지애나	-0.844
15	뉴욕	0.370	32	뉴멕시코	-0.175	49	아칸소	-0.893
16	메인	0.366	33	플로리다	-0.210	50	미시시피	-0.894
17	와이오밍	0.355	34	미시간	-0.218			



미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 관전 포인트

- 미 유력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집기사 ‘마리화나 실험(The Marijuana Experiment)’을 '14년 1월 발표
 -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가 '14년 1월1일부터 미국 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조만간 워싱턴주가 합법화 대열에 동참하고 뉴욕주는 기존 규제를 완화할 방침
 - 그러나 합법화는 찬반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이들 주의 합법화 정책 성공 여부는 미국 사회가 마리화나의 전면적인 합법화로 나아갈 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
-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두고 진행 사항을 지켜볼 필요
 - 암시장 운명 :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암시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하나 현재로서는 얼마나 신속히 또 어느 정도까지 암시장의 양성화가 이루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
 - * 상점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면 세금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밀거래 업자들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
 - 미성년자 흡연 : '1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고교 졸업반 학생의 36%가 마리화나를 피운 경험이 있는데,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돈다면 합법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
 - 마케팅 : 콜로라도주는 미성년자가 전체 독자의 30%를 밀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 인쇄매체에만 마리화나 광고를 허용하고, 워싱턴주는 학교나 도서관 주변에서 마리화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장치가 요구
 - * 미 연방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리화나 판매가 이루어지면 언제든 지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
 - 주간 거래 : 콜로라도 주정부는 콜로라도 주민에게는 1회에 최대 1온스, 다른 주 주민에게는 4분의 1온스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마리화나 가격이 다른 주보다 저렴할 경우 반출이 불가피
 - 알코올 소비 : 마리화나가 널리 보급되면 알코올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마리화나와 알코올이 상호간의 중독성을 부추길 경우 예상치 못한 참담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마리화나 금지법 폐지의 정당성

- 미국의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폐지 정책을 촉구하는 특집기사 ‘지방정부가 마리화나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라(Let States Decide on Marijuana)’를 ‘14년 7월 보도
 -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론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
 -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및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 정부에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용인, 각 주는 △전면 불법 △의료용으로 허용 △오락용으로 허용 등 마리화나 금지법을 저마다 다르게 적용
 - 특히 올 들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
- 마리화나 금지법은 지난 1920년에 시행된 ‘금주법’과 유사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금주법은 주류 밀수와 밀매 확산, 무허가 주점 속출, 범죄조직 기승 등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한 끝에 13년 만에 폐지
 - 마리화나는 주류보다 위험성이 훨씬 덜한 물질인데도 40여년 전에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이 미국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
 - 미국연방수사국(FBI) 통계에 의하면 ‘12년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자는 65만8천명에 달할 정도로 마리화나 금지법 시행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며, 특히 흑인 청년들이 일찌감치 범죄 전력을 쌓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
- 담배나 주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완벽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리화나를 금지한다고 보건에 대한 우려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
 - 마리화나의 중독성은 담배나 주류에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으로, 마리화나가 보다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근거가 희박
 -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정당한 과세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
 - 물론 마리화나의 적절한 사용이 건강한 성인에게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뇌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21세 이하에게는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5.2 영국



영·EU, 이주민 복지혜택 문제로 갈등 ... 분열 위기 고조

- 영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영국 정부가 이주민 복지혜택 문제로 EU와 갈등을 야기, 역내 분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특집기사 ‘영, EU 이주민 복지혜택 축소(UK rushes through benefit curbs for EU migrants)’를 ‘12년 12월 발표
- 영국 정부는 EU 이주민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이주민 유입 한도 설정을 EU집행위에 요구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연속해서 발표
 - 영 정부는 ‘14년 1월부터 영국 내 EU 이주민들이 첫 3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직업이 없으면 주택수당을 못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 또 구걸에 나서거나 노숙하는 이주민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도 강화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도 4배 증액함으로써 저임금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도 시행
 - 이와 함께 연 7만5천명의 역내 이주민 유입 한도 설정을 EU집행위에 요구
- 이러한 움직임은 ‘14년 1월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에 대한 이주 제한이 풀려 이들 국가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면 복지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
 - 지난 ‘12년 영국 내 EU 이주민 중 실업자는 61만2천여명으로 ‘06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 실업자도 무상 의료체계인 국민건강보험(NHS)을 이용하면서 한 해 15억~20억 파운드의 재정부담을 야기
 - 그러나 해당 국가와 EU집행위는 물론, 닉 클렉 자민당 대표도 영국 정부가 이주민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외면한 채 복지비용만 계산에 두고 있다고 비난한 뒤 역내 자유로운 이동은 EU 회원국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
 - * 영국 정부는 EU 이주민들에 투입되는 복지비용 등 이주민 현안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발표를 보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주민 유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역내 강대국은 영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
 -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복지만 노리는 이주민은 결코 환영하지 않으며,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7년 이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 빈부격차에 따른 EU 분열 위기가 고조



영국 정부, 아시아 경로문화에서 고령화 해법 모색

- 영국의 유력 텔레그래프(Telegraph)는 고령화 관련 특집기사 ‘영국은 인도 가족 가치에서 배워야(Britain should learn from India’s family values)’를 ‘14년 4월 보도
 -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아시아 경로문화에서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분석
 - 영국 정부는 가족 단위의 ‘효’와 ‘돌봄’을 중시하는 아시아 경로문화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
- 영국 정부는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복지 제도를 정비했지만 갈수록 복지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아시아식 ‘가족을 통한 복지’에 시선을 집중
 - 사이먼 휴즈(Simon Hughes) 법무장관은 연로한 친·인척이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영국인은 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경로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 제레미 헌트(Jeremy Hunt) 보건장관 역시 고령의 집안 어른이 요양원으로 직행하는 영국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삶을 영위한다고 하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는 가족 사이 존중과 신뢰라고 강조
- 영국은 이미 지난 ‘1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5%로 고령사회(기준 14%)에 진입한 데 이어 향후 10년 내 초고령사회(20%)에 들어갈 것이 확실
 - 특히 7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420만명에서 20년 뒤에는 63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년 사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30% 가까이 증가
 - 영국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을 지금보다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등 복지 시스템 개혁을 실시 중이며 그 일환으로 아시아 경로문화 도입도 추진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다수 아시아 노인들이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은 서유럽의 국가 주도 복지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시아 경로문화가 고령화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

5.3 일본



일본 근로자의 후생연금 수령 상황별 시나리오

-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가입자가 향후 수령하게 될 금액을 상황별 시나리오로 전망한 ‘미래 후생연금·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견해(將來の厚生年金・国民年金の財政見通)’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14년 현재 62.7%로 추산되는 소득대체율(후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처음 수령할 때의 금액을 당시의 직장인 평균 급여로 나눈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안정될 전망
 - 그러나 이는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4~1.4%를 유지하고 연금 적립금 운용 이율이 3.0~3.4%인 경제상황이 비교적 좋은 시나리오 아래에서로 이 경우 ‘43년부터 50.6% 정도에서 소득대체율 감소세가 멈출 전망

▼ 후생연금 소득대체율 (실질 경제성장률 0.4~1.4%, 적립금 운용 이율 3.0~3.4%)

연도	직장인 평균 급여(엔)	연금 수령액(엔)	소득대체율(%)
2014	34만8천	21만8천	62.7
2019	34만7천	20만7천	59.7
2030	40만8천	23만1천	56.5
2043	48만2천	24만4천	50.6
2050	52만7천	26만6천	50.6

- 하지만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1%이고 운용이율이 2.8%이면 소득대체율은 45.7%로 낮아지고, 성장률 마이너스 0.2%, 운용이율 2.2%이면 42.0%,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운용이율 1.7%이면 37%까지 폭락
-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는 오는 ‘60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신생아 평균 수를 의미하는 합계특수출산율이 1.35로 증가하고, 평균수명은 남성 84.19세, 여성 90.93세(‘10년 남성 79.55세, 여성 86.30세)로 출산과 사망이 비교적 중간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는 가정을 전제
-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
 - 그러나 노동 인구 공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면 소득대체율은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중장기 경제성장률과 노동 인구를 유지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초고령사회 일본의 그늘 ... 노인끼리 돌보는 가정이 과반

- 일본의 유력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그늘을 집중 조명한 ‘노노개호 처음으로 절반 넘어, 급속한 고령화 가속(「老老介護」初の5割超え急速な高齢化浮き彫り)’ 특집 기사를 ‘14년 7월 보도
- 일본은 지난 ‘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같은 노인을 돌보는 가정이 절반을 상회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3년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 중 51.2%는 노인이 같은 노인을 보살피는 이른바 ‘노노개호(老老介護)’ 가구로 집계
 - * 이 비율은 ‘10년도 조사 때보다 5.3%p 증가한 것이며, ‘0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
 - 75세 이상 노인끼리 거주하는 가구는 ‘10년도 대비 3.5%p 늘어난 29.0%
-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천657만 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30%를 넘을 전망이나,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제도는 충분하지 못해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지사모임은 일본이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
 - * 야마다 게이지(山田啓二) 전국지사모임 회장(교토부 지사)은 국가의 대책이 폭넓게 마련된 것이 없어 일본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
 - 이들은 인구 유출로 장래에 많은 지역 사회가 소멸하고 그 영향이 도시에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출산 장려와 노인 돌봄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후생노동성이 지난 ‘12년 신설한 24시간 순회 노인 돌봄 서비스는 채산성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일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안간힘 ... 육아체험 교육 시행

- 일본의 유력 아사히신문은 ‘저출산 대책, 초등학교의 육아체험(少子化対策、小學生から赤ちゃんに触れあい子育て学ぶ)’ 특집 기사를 ‘14년 9월 보도
 - 아사히는 아베 정부가 채택한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체험 교육을 소개
 - 긴급대책은 임신·출산 정보 제공과 산후 돌봄 강화 및 상담·지원 센터 설치 등 인구 감소를 막고 결혼과 육아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수록
- 긴급대책에는 중고생이 영·유아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
 - 이는 영·유아와의 접촉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고 그 결과 장래에 아기를 출산해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취지
 - * 이를 위해 중학교 가정 과목에 ‘유아와의 접촉’을 필수 단원으로 지정
 - 이와 유사한 시도는 지자체에서도 활발해 야마가타현(山形縣)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결혼·양육 긍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을 주제로 한 ‘인생 디자인 세미나’도 개최
 - 도야마현(富山縣) 우오즈시(魚津市)의 경우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저출산 대책 ‘황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아와 부모를 초청해 학생이 직접 유아를 안아보고 돌보는 체험하는 수업을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
 - * 우오즈시에서는 지난 ‘02년 400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11년에는 300명 이하로 급감
- 그러나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나,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대두
 - 또 아이를 낳지 않을 개인의 선택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한편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49만 6천391명(잠정치)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신생아 수는 100만명에도 미달할 것으로 우려
 - * 지난해는 약 103만명이 태어나 연간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



일본의 고민, ‘인구병’ ... 인구 감소로 도시 소멸 우려

- 일본경제신문은 ‘하코다테 야경의 어둠- 인구병 극복 대책 시급(函館の夜景に過疎の闇「人口病」克服へ街を小さく強く)’ 특집 기사를 ‘14년 9월 보도
 - 신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구병(人口病)’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
 - 현재 일본 인구는 지난 ‘08년 이후 100만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특히 15~64세 인구는 400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00만명 이상 증가
- 인구병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 소멸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
 - 이와 관련, 일본창성회의는 아오모리·아키타·아사히카와 등 259개 도시를 포함, 896개 지자체에서 ‘40년까지 20~39세 여성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
 - 또 일본 정부는 ‘30년까지 전국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81개 뿐 나머지 1천 600여 시·군·구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30년까지 일본내 시군구의 인구증감 추이 전망

구분	시군구 수	구분	시군구 수	구분	시군구 수
증가	81	10% 이상 20% 미만 감소	647	30% 이상 40% 미만 감소	71
10% 미만 감소	443	20% 이상 30% 미만 감소	432	40% 이상 감소	6

- 인구병이 일본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 일본 정부는 민관 합동의 인구병 대책 마련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 특히 중요한 방재 부문까지 인구병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지진 위험지역인 아이치현 세토시는 대지진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소방대원 충원은 엄두도 내지 못해 구할 수 있는 생명도 구할 수 없는 상황
 - 또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 비율이 60%를 상회해 지자체 예산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35% 폐쇄함과 동시에 40년 연한인 건물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 이와 함께 ‘13년 도쿄에 거주하는 단신 고령자 중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자가 2천869명으로 10년 만에 배로 증가하는 등 고독사 문제도 심각

5.4 EU



아일랜드의 이탈리아 ‘폭음 예방 문화’ 따라하기

- 영국의 유력 가디언(Guardian)지는 ‘법이 아닌 문화에 초점을 맞춘 폭음 예방 정책(Want to curb binge drinking? End the focus on laws and look at culture)’ 특집 기사를 ‘14년 5월 보도
 - 가디언은 아일랜드가 지난 10년 동안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20% 이상 줄인 것은 이탈리아 음주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
- 폭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세 인상 △음주연령 상향 △음주광고 제한 등 규제와 함께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 관건으로,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사례
 - 이탈리아에서는 빠르면 7·8세부터 가정에서 주류를 접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17세부터 음주가 가능하며, 가정·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와인을 반주로 가볍게 마시는 문화가 정착해 있으나 만취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금기
 - 이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22세부터 음주가 가능한 미국이나, 오후 11시에는 법적으로 주점 문을 닫아야 하는 영국보다 규제 강도는 약하지만 음주 문제가 훨씬 적은 이유로 판단
- 폭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일랜드 정부는 이탈리아 배우기에 나서 음주 관련 제도를 새로 정비하면서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추진
 - 지난 1987년 아일랜드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9.7L였으며 2001년에는 14.3L로 늘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폭음자 비율(48.2%)도 급증하는 등 과거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음주 국가로 악명
 - 위기감을 느낀 아일랜드 정부는 ‘06년 알코올액션아일랜드(Alcohol Action Ireland)를 발족하면서 자신의 주량에 따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음주를 하자는 음주 문화 쇄신 운동 ‘페이싱(Pacing)’ 캠페인을 시작
 - 또 일반적으로 식사류를 판매하지 않던 주점들도 반주 개념으로 음주하는 이탈리아를 본받아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를 강조하면서 식사를 제공
 - 이와 함께 ‘06년 개설된 드링크어웨어(DrinkAware) 사이트도 ‘음주 시의 대화’, ‘음주 없는 여가생활’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음주 문화 개선에 일조
 -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일랜드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08년에는 12.3L로 줄었고 오는 ‘15년에는 10L까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

5.5 기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골칫거리, ‘비만’ 그리고 ‘당뇨’

- 미 유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르시아 걸프만을 휩쓰는 당뇨 대란(Diabetes Epidemic Hits Persian Gulf Region)’ 특집 기사를 ‘14년 2월 보도
 - WSJ는 대표적인 선진국병으로 간주되는 비만과 이에 따른 당뇨병이 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역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
-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아동과 여성의 비만 증가가 심각한 상황
 - 중동 지역 미취학 아동 비만율은 6%, 취학 아동 비만율은 9.3%로 미국 아동 평균(18%)보다 낮지만, 미국이 하락세인 반면 중동은 가파른 상승세
 - 여성 비만율도 높아, 쿠웨이트(48%)·카타르(45%)·사우디아라비아(44%)는 모두 여성 2명 중 1명 꼴로 비만
 - 비만과 밀접한 당뇨병도 급속히 증가해 중동 지역에서는 현재 5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추정
 -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15년 중동 지역은 사우디의 24억불 등 전체 GDP의 2% 정도를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게 될 전망
- 이 같은 비만·당뇨 증가에는 환경 조건, 특유의 자녀양육 문화, 도시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
 - 첫째, 사막이 많고 날씨가 더워 중동인들은 일반적으로 야외활동을 기피
 - 둘째,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보모와 요리사를 두는 가구가 많아진 가운데, 이들 부유층은 자녀의 식생활과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무관심
 - 셋째,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 대거 건설되면서 맥도날드·버거킹·KFC 등 서양식 패스트푸드 체인이 급격히 증가
- 중동 국가들은 비만과 당뇨가 심각해지자 UAE가 감량한 체중만큼 금을 지급하는 기발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
 - 이런 가운데 비만 수술도 유행, 지난 ‘12년 사우디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3~14세 소아비만 환자를 포함 총 1만1천명에 육박
 - *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뇌 발달장애, 성기능 장애 등 후유증을 이유로 14세 미만에는 위절제 수술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과 대비



동남아, 출산율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미국의 유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도국, 출산율 하락으로 노동력 부족 우려 야기 (Slump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ing Countries Spark Labor Worries)’ 특집 기사를 '14년 3월 보도
 - WSJ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동남아 개도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진단
- 동남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현저한 대표적인 국가는 태국으로, 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년 현재 1.6명으로 1970년대의 6명에 비해 급격히 감소
 - 이는 농촌의 많은 노동인구들이 고임금 직업을 찾아 수도 방콕 주변으로 몰리면서 주택 가격과 교육비가 올라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으로, 태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오는 '17년 정점에 오른 뒤 내려갈 전망
 - 싱가포르의 오는 '30년 이후, 베트남 '33년, 말레이시아 '47년, 인도네시아는 '58년 이후 노동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리핀만 '85년까지 노동가능 인구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여유를 확보
 - *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 1인당 2.1명 이하를 낳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 살고 있으며,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 동남아의 출산율('13년, %)과 노동가능 인구 정점 연도

국가	출산율	노동가능 인구 정점 연도	국가	출산율	노동가능 인구 정점 연도
태국	1.6	2017	말레이시아	2.6	2047
싱가포르	1.2	2030	인도네시아	2.1	2058
베트남	1.8	2033	필리핀	3.1	2085

- 인구성장의 둔화는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경제 성장 지연이나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남아 각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는 곧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쌓아왔던 그동안의 성장 전략에서 탈피,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임을 시사

5.6 글로벌



연금수령 시기 연장, 사회적 갈등 유발

- 영국의 유력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글로벌 각국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특집기사 ‘은퇴 : 연장된 라이프사이클 (Retirement: Extended life cycles)’을 '13년 12월 발표
- 글로벌 각국 정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점점 연장
 - 최근 영국 정부가 65세인 연금수령 연령을 오는 '28년부터 67세로 늦추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물론 미국도 연금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
 - * 연금수령 시기 연장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도 마찬가지
-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직종간, 빈부간, 세대간 갈등을 야기
 - 첫째, 사무직인 화이트칼라 입장에서는 은퇴가 늦어지면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그만큼 연장해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산직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오래 일할 수록 일찍 사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직종간 갈등이 예상
 - 둘째,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으면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한 해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해야 유리하다는 점에서 빈부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존재
 - * 영국의 대표적 부촌인 런던 첼시 거주민들은 은퇴 후 평균 22.4년을 생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북아일랜드에서는 생존기간이 15년에 불과
 - 셋째, 조만간 연금을 수령하게 될 50·60대와 달리 20·30대들은 저출산 시대에 출생했기 때문에 노령층의 연금을 부담할 절대 수가 적어 세대간 갈등이 심각해 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도 언제든 부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납부한 돈으로 정부가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만큼 연금에 대한 거부감과 심리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분석



인터내셔널 리빙 선정 ‘은퇴 후 살기 좋은 국가’

○ 미국의 해외투자정보 제공업체 인터내셔널 리빙(International Living)은 ‘14년 전세계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국가(The World’s Best Places to Retire in 2014)’ 보고서를 ‘14년 1월 발표

- 선정 기준은 △부동산 가격 △연금 등 특별혜택(special benefit) △생활비 △국민통합 △엔터테인먼트/생활편의시설 △헬스케어 △교통 등 은퇴 인프라(retirement infrastructure) △기후의 8가지이며, 각 1백점 만점

○ 인터내셔널 리빙의 은퇴 후 살기 좋은 국가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강세

- 1위는 특별혜택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파나마(전체 평균 91.2점)가 차지했으며 2위는 에콰도르(91.2점)로 평가되는 등 24개국 중 12개국이 중남미 국가

- 아시아에서는 전체 3위인 말레이시아를 선두로 태국(10위), 뉴질랜드(12위), 필리핀(17위), 캄보디아(24위)가 포함

* 말레이시아는 특히 부동산·국민통합·엔터테인먼트·헬스케어 등 4개 항목에서 90점을 넘겼으며, 8개 조사 항목 평균은 88.5점

▼ 은퇴하기 좋은 국가 (1~10위, 발췌)

국가	부동산	특별혜택	생활비	국민통합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은퇴 인프라	기후	평균
파나마	91	100	88	95	95	91	81	88	91.2
에콰도르	94	99	89	92	88	88	79	100	91.1
말레이시아	93	80	88	92	94	95	85	81	88.5
코스타리카	88	87	87	92	94	94	75	77	86.8
스페인	91	62	82	87	96	91	93	85	85.8
콜롬비아	88	80	87	79	82	90	83	86	84.2
멕시코	88	75	87	92	81	93	74	84	84.2
몰타	85	84	83	100	68	88	77	88	84.1
우루과이	79	76	64	87	94	96	82	92	83.7
태국	83	62	88	89	96	90	78	81	83.5



글로벌 항노화 시장 현황과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 트랜스페어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는 ‘항노화 시장-’13~’19년까지의 글로벌 산업 분석, 규모, 비중, 성장, 추세 및 전망 (Anti-aging Market-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3- 2019)’ 보고서를 ‘14년 1월 발표
 - 보고서는 ‘13년 1천223억불 규모를 기록한 글로벌 항노화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 오는 ‘19년에는 1천917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 주름개선제, 헤어케어 제품, 모발이식술, 유방확대술, 고주파 기구 등 항노화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및 기기를 포괄하는 개념
- 글로벌 항노화 시장은 지난 수 세기 동안에도 발전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진보로 인해 발전의 폭이 훨씬 커졌으며, 1946~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더욱 성장할 것이 확실
 - 특히 항노화 제품 부문은 서비스와 기기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한결 용이, 수요 확대를 유발
 - * 항노화 서비스 부문의 경우 미용수술과 비침습성 치료로 구분되는데, 성형외과 의사와 미용사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13~’19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이 예상
 - 또 1946~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되면서 항노화 제품, 서비스 및 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배경
 - *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12년 최전방 연령대가 65세에 도달한 데 이어 향후 18년 동안 매일 8천 여명이 새롭게 65세에 진입
- 글로벌 항노화 시장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과 서비스 및 기기들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사업을 확대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 그러나 건강과 외모에 미치는 실질적 임상효과를 놓고 소비자들 사이 여전히 불신과 회의 및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
 - 따라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
 - 한편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북미·유럽·아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이 글로벌 항노화 시장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될 것으로 예측



WHO의 글로벌 음주 현황 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 글로벌 알코올 및 건강 상태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를 '14년 5월 발표
 - 보고서는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지난 '12년 전세계에서 33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구축과 환경 조성 등 각국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
- '12년 현재 1인당 음주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나, '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의 전체 음주량을 살펴보면 유럽·아프리카·미국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온 반면 동남아와 서태평양 지역은 증가하는 추세
 - '12년 전세계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 6.2 리터 정도의 주류를 소비한 가운데, 이 중 38.3%는 17 리터 가량을 마신 것으로 추정
 - 특히 저소득층은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폭음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
 -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7.6%)이 여성(4%)을 상회하고, 음주 사망의 최대 사인은 심장 질환과 당뇨병으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17.1%)로 파악
 - * 반면 AIDS로 인한 사망률은 2.8%, 결핵 1.7%, 폭력 0.9%로 음주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
- WHO 각 회원국 정부는 음주량과 음주 패턴에 따라 국민들의 행동상·건강상 위험이 고조된다는 사실을 명심, 음주 폐해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 수립과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류 관련 세금 인상 △음주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주류 관련 광고 규제 등 검토가 요망
 - 한편 이번 WHO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음주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며, 더 이상 음주 문제와 관련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제기



어머니가 살기 좋은 국가, 한국 30위

-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2014 세계 어머니들의 상태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4)' 보고서를 '14년 5월 발표
 -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00년부터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여성과 아이들의 환경을 평가, 어머니가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선정해 발표
 - '14년 보고서는 △분만시 사망률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여성의 기대 정규교육 기간 △1인당 GDP △여성의 정치적 지위(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5개 지수를 근거로 전세계 178개국의 순위를 책정
- '14년 보고서에서 최상위권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최하위권은 소말리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0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 한국은 4천800명 중 1명이 임신이나 출산 중 사망하고('10년), 5세 미만 영유아 1천명 가운데 3.8명이 숨지며('12년), 여성의 기대 정규교육 기간은 17.0년('13년), 1인당 국민 소득은 2만2천860불('12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7%('14년)로 집계
 -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이어 각각 31위와 32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61위와 62위로 중위권에 위치

▼ 어머니가 살기 좋은 국가 순위(주요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핀란드	6	덴마크	30	한국	174	기니비소
2	노르웨이	7	스페인	31	미국	175	말리
3	스웨덴	8	독일	32	일본	176	니제르
4	아이슬란드	9(공동)	호주	61	중국	177	콩고
5	네덜란드	9(공동)	벨기에	62	러시아	178	소말리아

- 보고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교육 강화와 영양상태 개선 △보건요원 양성 등 저개발국 보건 시스템 강화 △국제사회 원조 확대를 강조
 - 특히 전세계 여성·아동 사망의 56%가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재난에서 사망할 확률은 성인 남성보다 14배 높아,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국제기구가 모두 책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



뉴트라슈티컬 시장 성장세, 중남미·아시아가 주도

- 인도의 시장조사업체 켄 리서치(Ken Research)는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뉴트라슈티컬 시장 분석(Global Nutraceuticals Market Analysis till 2017)’ 보고서를 ‘14년 6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뉴트라슈티컬 시장이 향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거듭, 오는 ‘17년에는 4천240억불 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이란 뉴트리션(Nutrition, 영양)과 파마슈티컬(Pharmaceutical, 의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의미
- 오는 ‘17년까지 글로벌 뉴트라슈티컬 시장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와, 인도와 중국을 주축으로 한 아태 지역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
 - ‘12년부터 ‘17년까지 중남미 지역은 연평균 12.5% 아태 지역은 1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아태 지역의 경우 뉴트라슈티컬 시장 규모는 지난 ‘06년 616억불 정도였으나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동기간 인도는 무려 연평균 19.1%의 성장세를 거듭
- 글로벌 뉴트라슈티컬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조와 고령층 인구 급증이 성인병 유병률 증가와 맞물리면서 각종 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 오는 ‘20년에는 전세계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히 노화방지 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 확실
 -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진료 △자가진단 △자가치료에 관심들 두는 일반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뉴트라슈티컬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평가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뉴트라슈티컬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보다 다양하고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고령화

- 국제 신용평가회사 미국 무디스(Moody's)는 '향후 20년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 Will Dampen Economic Growth over the Next Two Decades)' 보고서를 '14년 8월 발표
 - 보고서는 내년부터 오는 '30년까지 노동연령인구 증가율이 이전 15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4% 포인트, '20-'25년에는 0.9%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
 -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중국은 고령인구 1명당 노동연령인구가 오는 '20년 6명에서 '30년 4.2명, '50년에는 2.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한국과 홍콩은 고령인구 1명당 노동연령인구가 '20년 각각 4.6명과 3.8명에서 '30년에는 2.7명과 2.3명으로 줄어듦 것으로 예상
-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현재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 '20년에는 네덜란드·프랑스·스웨덴·포르투갈·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등 13개국으로 늘고 '30년엔 한국·미국·영국·뉴질랜드 등 34개국으로 증가할 전망
 - 이와 함께 '15년에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대상 국가의 60% 이상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 이러한 트렌드는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가 이제는 '인구세(demographic tax)'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시사
 - 이와 관련, 노동시장 규제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고령화의 파고를 무난히 넘기고 있는 독일처럼 각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
 - 특히 중기적으로는 노동참여율 제고와 이민규제 완화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년 글로벌 의료기술 시장, 5천140억불 규모 전망

- 의료기술 정보 제공업체인 미국 이벨류에이트메드테크(EvaluateMedTech)는 '2014 월드 프리뷰, 2020년까지의 전망(WORLD PREVIEW 2014, OUTLOOK TO 2020)' 보고서를 '14년 10월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의료기술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천638억불에서 향후 연평균 5% 정도로 성장, 오는 '20년에는 5천1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지난 '13년 글로벌 의료기술 시장에서는 체외진단 부문이 474억불 규모로 13%의 점유율을 기록해 최대 부문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연평균 6.1% 성장, 오는 '20년에는 716억불 규모로 확대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전망
 - '13년 체외진단 부문에 이어 2~4위를 기록한 심장병, 진단영상, 정형외과, 안과 부문도 연평균 4.1(진단영상)~6.3%(안과)의 성장률로 '20년에는 377억(안과)~573억불(심장병)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의료기술 부문별 규모

부문	2013년(억불)	2020년(전망, 억불)	연평균 성장률(%)
체외진단	474	716	6.1
심장병	399	573	5.3
진단영상	355	470	4.1
정형외과	338	459	4.5
안과	245	377	6.3

- 특히 지난해 체외진단 부문에서 18.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한 로슈는 '20년에는 17.0%로 점유율 자체는 다소 하락하나, 2위로 예상되는 지멘스보다 2배 정도인 122억불의 매출로 체외진단 부문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난해 심장병 부문에서는 메드트로닉이 22.2%의 점유율로 1위, 진단영상 부문에서는 지멘스(29.7%), 정형외과 부문에서는 J&J(26.5%), 안과 부문에서는 노바티스가 26.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비만 극복의 경제적 비용

- 미국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비만 극복 : 초기 경제적 분석(Overcoming obesity : An initial economic analysis)’ 보고서를 '14년 11월 발표
 - 보고서는 과체중 등 비만으로 인한 글로벌 비용이 연간 2조불로 알코올 비용(1조4천억 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 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이 비만을 퇴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 글로벌 비만 비용 연간 2조불은 글로벌 GDP의 2.8%에 해당
 - 비만 비용에는 비만이 유발하는 건강관리 비용과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포함
- 글로벌 비만 비용은 알코올은 물론, 문맹(1조3천억불), 기후변화(1조불) 등보다도 높은 규모이며,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과 흡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각각 2조1억불)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산
 - 비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문제
 -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는 21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인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
 -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30년에는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비만은 단지 개인 건강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이 비만 퇴치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 이러한 활동에 앞서 정부, 기업, 언론, 개인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은 그 집단 자체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
 - 또 각국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만의 문제점을 교육하는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는 이들 정부의 비만 대책을 측면 지원하는 정책적 협조가 요구

201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 정 기 택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ww.khidi.or.kr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Global Healthcare
Industry at a Glance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3-8000 FAX : 043-713-8902 www.khidi.or.kr

KHISS 보건산업통계
www.khiss.go.kr